京畿鄉土史學

第18輯



시진 - 연구위원 권효숙

京畿鄉土史學

第18輯

京畿道文化院聯合會



역사와 문화는 지역과 사람이 중심입니다.

경기향토사학은 경기도 31개 시·군 문화원으로부터 추천된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부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에서 매년 가지역의 향토역사문화를 연구한 자료를 집적한 연구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연구 자료는 경기도의 고대사에서부터 인물, 역사유적, 지병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방면에 이릅니다. 경기향토문화연구소의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각 지 역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는 분들인 듯합니다. 흙 한 줌, 돌맹이 하나가 그 분들에게 는 참 소중합니다. 지마다 살고 있는 지역은 적접 발품을 찧어 곳곳을 다니기도 하 고, 도서관, 박물관에서 자료를 찾고, 어려운 한문을 해독한 노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매년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팀과 협력하여 〈경기도문화 원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형을 조사, 발굴, 개발하여 지역의 브랜드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발간되는 (경기향토사학)은 지역의 문화원형의 뿌리를 찾는 대단히 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유적에서 민담설화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구, 조사의 성과가 다른 차원으로 개발되고 그것이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잡기까지 지역단위를 넘어 경기도 단위의 연계사업으로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모색되도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향토사학)은 책을 한 권 발간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가공된 고급데이터 확보를 위한 아카이빙과 멎물리, 실재 설현가 능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형태로 전개된 수 있도록 문화원 차원의 기획이 절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정책과 맞물러 지자체 차원의 정책사업전개를 통한 지역브랜드로의 확대발전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제과정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가 정착되고, 그것이 모 였음 때 비로소 경기도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향토사학 제18집〉이 발간되기 까지 일정적으로 조사, 발굴하며 집 편에 수고해 주신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최무장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위원 여러 문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연구집이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역사 ·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원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니다

또한 경기도의 각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집문수 경기 도지사님과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님께도 깊은 갑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 12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염상 덕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 최무장 · 7

연천의 삼국시대 성곽(城廓)과 유물 | 이준용 · 29

古代로 부터 京畿地方의 세시품속 연구 1이명수 · 47

白性郁의 獨立運動 史料 | 양경적・75

남양주 금석문(金石文) 고찰과 시비(詩碑)중 백미(百眉)인 유철시비(象樹詩碑)연구 ! 엄중요 · 119

安養의 名稱과 그 象徵的 意味 | 김정석 · 155

정응린 장군의 충효절의 정신 연구 1 장삼현 · 175

오산시(烏山市)의 어원(語源)과 그 해석 l 남경식 · 219

도봉산 回龍寺 이야기 | 최영희 · 247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彥)의 생애와 문학 | 양윤택 · 275

漢山의 소재(所在) 연구 | 이강범 · 305

조선 후기 안성시지역 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邑誌》를 중심으로 - 1 홍완표 · 343

파주 임진강변 정자연구 l 권효숙 · 361

김포가 낳은 의병장 沈友信 [류지만 · 403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최 무 장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I . 시작말	
II.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Ⅲ. 중합고찰	
	!
<u> </u>	

최 무 장 연천선사박물관장, 건국대학교 영예교수, 저서 '한국선사 고고학 개론』(2004).

집필자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7

I 시작말

연천군은 경기도의 돗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중심지이다. 경기도의 포천, 양주, 파주, 장단과 강원도의 첨원등과 경계를 하고 있다. 연천군의 위치는 동경 126° 36' ~127° 이며, 북위 37° 55'~38° 16' 의 거의 4각형으로 면적은 695 22km 로서 경기도에서 6 번째로 크다

역처군의 행짓구역은 2음8면 이다 : 2음 : 연천음, 전폭음 : 8면 : 신서면(新西面), 중면(中面), 왕 정면(旺澄面), 백학면(白鶴面), 장남면(長南面), 미산면(蜀山面), 군남면(群南面)과 청산면(青山面) 듯이다(지도1)



(지도 1) 연천군의 행정구역

[]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와 신라 순위로 조성되었다. 고구려 문화 의 성, 보루와 고분 등이 3세기 말부터 조성되기 시작 하였다. 백제는 부분적으로 4세가말과 5세기 에 백제의 성과 적석총이 조성되었다. 신라는 6세기경부터 성과 보루 등을 축조 시켰다. 그리고 신 라는 6곳의 사지도 건립하였다(참고서 1의 pp. 40~42).

고구려 문화 유적

연천지역의 산국시대문화로시 고구려 유적은 최근까지 확인된 곳이 18곳이다 : 성, 8곳 : 당포 성, 은대리성, 전곡리 토성, 대전리 산성, 호루고루, 아미성, 육계토성(마주지역), 이잔미성, 칠중성 ; 7곳 보루 : 장서리 브루, 고성산 보투, 무등리 1보루, 무등리 2보루, 광동리보루, 아미리보루와 두 무봉 보무등이다(참 12억 pp. 13~15).

상기한 18곳의 성과 보루 중에서 성은 호루고루, 전곡리도성, 전곡리성, 대전리성과 당포성 등 5 곳과 보무로서 무등리 1과 2보루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무덤으로서 신답리 고분과 적석총 등을 삽펴보겠다.

호루고루성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호루고루성은 장남면 원당3리에 축조되어 있다. 둘레는 401m이다. 호무 고무성은 당포성(미산면 마전리 위치)과 은대라성등은 임진강과 한단강변의 수직단에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다. 당포성은 삼각형 평지동쪽에 내성(內域)과 외성(外域)등 2성으로 축조되었다. 이곳에 서 채집된 유물은 호로고로성의 것과 일치하다.

그 의 고성산 보투(왕징면 무둥리), 무둥리 1.2 보루(왕진면 무둥리), 두루봉 보루(장남면 반정 리)와 아미성(전곡리 늘목리)등도 고구려 관방시설로 보고 있다. 아미성의 축조법과 채집된 유물 에 의하면 1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

고구려 유적 특성을 3 가지 성격으로 보고 있다:

- 1) 유적방향을 남쪽으로 선정
- 2) 선(線)의 개념으로 축조, 임진강 도하(道河)하는 길목에 위치.
- 3) 관방유모 규모는 둘레 400 M 정도

고분: 아우라지 마을 언디, 동서에 2기 고분 있다: 동쪽의 고분, 직경 20m, 높이 4~5m, 그 내부는 "¬" 자형, 석실 동서 길이 155cm, 높이 100cm, 벼 4단 축조, 북 편향의 우편, 연도(폭도) 는 폭75cm, 길이 70cm, 전형적인 2준의 모증임 처정으로 되어있다(참 1의 p. 92).

호루고루성

호루고부성 조사보고서는 3권으로 제시되어 있다: 1) 한국토자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년(연천호루고루(護川领투古疉))(정밀지표조사보고서)(토지박물관학숨조사 총서 제2됨)(PP. 1~261); 2) 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 연천군. 2006.9(연천호루고루)(제2차 발굴조사 설명회자료(PP. 1~25); 3) 한국토지주태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12.4(연천호루고루)(제4차 발굴약보고서)(PP. 1~25). 호루고루성의 위치는 장남면 원당리 1259번지, 임진강변의 북쪽의 현무암수적단에상의 삼각형의 강안 평자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401m, 남벽은 161.9m, 복벽 146m, 동벽의 현재 잔존 벽은 89.3m, 진입로 부분은 93.1m 이다. 전제규모는 2,000평, 사용면적은 약 1,600 평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성내 출토 유물은 고구려 와된, 암기와 상에 승문(穩文), 거치문(議職文), 격자문(격자문(格子門)과 횡선문(議錄門) 등이 있다. 이 성의 시기는 4세기말~7세기 후반까지 이며, 고구려 시기로 보고 있다(참고서 1의 P. 562). 삼기한 2차 발균보고서(PP. 1~25)에 의하면 동벽 기단부와 중심부는 점토와 마사로 관축되었다. 성벽 내외부는 식축으로 조성되었다.

목책유구(木種遺構)내에서 주공(柱孔)이 확인되었다. 직경 60cm, 깊이 23cm, 기통직경 25cm, 주공 바닥 10cm 등이다. 주열(주열)은 지상구조물의 동벽기저부에서 2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것 은 채성벽의 길이 방향과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이다. 유구 길이 390cm, 너비 290cm 정도의 장타 원형 토광 시설로 확인되었다. 지상 건물지 내의 상부층에서는 신라 시대의 회색 기와된과 아래층 에서는 직감색의 고구리 와적 층이 확인되었다. 두께는 20~30cm 이다.

건물지는 정면간이 175~190cm, 측면간은 2,5~210cm 정도의 간격이 있다. 정면간은 3간이며, 측면간은 2간이 확인되었다. 온돌구조는 얇은 판석으로 처리되었다. 온돌녀비 40cm, 높이 20cm 정도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과 칠촉 등이다. 토광유구는 원형에 가까운 발각 방형이다. 로운 곳은 60cm 정도이며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은 고구려의 것이며, 상층에서는 통인신라시대의 경절토기편과 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지하식 벽체 건문지의 너비 6m, 깊이 2m, 이 내부의 너비와 높이는 20~25cm, 길이 30~40cm 정도의 현무암 석괴가 쌓여져 있었다. 이곳은 창고 건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의 내부 토층은 4 곳으로 상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토기편과 와편이 출토되었다. 하층에서는 고구려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이곳의 고구려 와적층은 50cm 이상이 되었다. 단화곡물로서 쌓. 조. 콩. 꼭. 녹두 등이 수습되었다.

트렌치 복쪽에서 120cm 거리의 지점에서 짐승 뼈로는 개, 소, 만, 사슴, 돼지 등 5종이상의 식용 동물이 확인되었다. 우물터는 한 변의 길이가 110cm 의 방청구조분로서 현재 깊이 2m이다. 상부 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아래충에서는 고구리 와편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우물 터의 깊이는 1,6m 정도이다. 출토된 유물은 기와류로서 고구려 의 송문, 거치분, 격자문, 사격자 문, 횡선문등이 처리되었다. 이것들은 이철태토(混實新土)로서 내면에 1.9-2.4cm 가 되는 모품(模分)이 찍혀 있다. 암기와는 상단 양쪽의 귀가 접히져 있다 ; 이러한 것들은 당포성, 무등리 1과 2보 무, 두루봉 보루, 아미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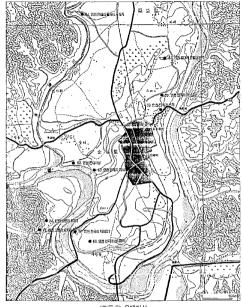
2.

임진강유역 출토의 고구려 기와유의 특징이다. 연화문 와당의 직경은 11cm, 두께 3,5cm 이며 6 업으로 되어 있다. 그 외 토기와 자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직정이 7.5cm 되는 삼축 벼무도 출토되었다. 지율추 2점이 고구려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환석제 둘제품으로 바닥 직경 2,7cm, 높이 3.5cm, 무게 51g 이다 ; 다른 1점은 토제품으로 증앙에 구멍이 있다. 바닥너비 3,5cm, 높이 6cm, 무게 87g 이다. 판모(모자)형 토제품이 토광유구에서 출토 되었다(사전 P 20). 명문(第文) 4점 확인 : 병문 域 (?) 國), (八一 飯 飯 飯), (中), (中), (中), (市) 자등은 모두 호루고무성의 기능 설명의 용어로 보고 있다. 그 외 50여점의 군속유급보시 철촉과 천도자 그리고 화산축 등은 모두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 있다. 상기한 제 4차 호루고루보고서(pp. 1~25)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반군시 4단제로 구분을 하고 있다: 동일신라 성박 — 보축성박(고구려)—체성박(고구려)—체성박내부(고구려)등 이다 : 동인신라성박 30단으로 편마함 석제로 축조되었다. 고구려 보충성박은 16단으로 체성박내의 4준의 수직 기동 홈이 있다, 깊이 30,34cm, 폭 22,24cm, 간격은 215cm 이다. 출토유름은 기와권과 토기편 등이다.

고구러 기와는 직갈색 암키와 문양은 거치문, 승문, 격자문, 태선문등이다. 토기는 이집(能質) 태토의 회색 또는 흑색의 동체부편이다. 내부시설문 : 1) 접수시설(集水施設), 2) 접수시설 동편 수유구, 반원형 너비 720cm, 깊이 90~120cm 이다, 3) 기와 패기장, 1호와 3호 패기장 : 승문기와; 21호와 4호 패기장, 거치문 타날 기와 그리고 4호 패기장에서는 고구려 치미편이 출토되었다. 4) 소성유구, 유구의 장축 남~북 길이 420cm, 폭 244cm, 깊이 12cm 이다. 4차 반균에서 출토된 기와 (p. 25 사진) 는 경절기와로서 1,000 ℃ 이상으로 구위 쳤다. 최청색이며, 이절대토이다. 4차 반균시 경절기와 112점, 고구려 수현유구에서 4성등이 출토되었다.

은대리성(隱垈里城)

은대리성은 전곡을 은대리 산 80번지에 위치(저도 2)하고 있다. 성의 규모는 통서권이 400m, 동 백권이 120m 정도, 전체 규모는 952m 이미, 성의 내부 면적은 7,000평 정도 이다. 체접유문에 의하면 고구려 성이다.



(지도 2) 은대리성

수철성

수월성의 위치는 전곡읍 양원리 산 223번지이다(지도 3), 산성의 둘레는 대략 250m, 장축 100m, 단복 20m 정도이다. 동남지역에 약 70m 정도의 성벽이 보존되어 있다. 현존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이 4m 정도이다. 수칠성의 동쪽 성 1.8m 정도의 자연석 기반이 남아 있다. 현재 잔존은 22 단 이다. 성내부의 채집된 토기편은 회색과 회창색 정진로 신라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칠 성은 전형적인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국명은 아직 결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추정 둘래 300m, 따라서 칠중성의 보조성으로 추정하고 있다(참 1의 302).



〈지도 3〉수철성 위치도

아미성(阿未城)

아미성의 위치는 진곡읍 늘목리 산 137~1번자 이다(사진 1). 아미성은 파주시 격성면 작암리 산 26번지 일대에 위치. 전곡 늘목리 산 137~1번지와 경계 지점에 있다. 아미성은 阿未姨, 阿蘭姨, 炭 되城, 老姑城 등의 명청읍 가지고 있다. 그 지역에서는 할미성으로 부르고 있다. 성은 북동─남시 방향의 장타원형이며, 전제들레는 290m, 동남쪽 높이 670cm, 푹 10m 정도 이다. 성돌은 화강암제 로서 장방형 이며 크기 40x15cm, 25x10cm, 30x17cm 높이의 성물로 축조 되어있다. 성내에서 다

도 있다.



〈사진 1〉 아미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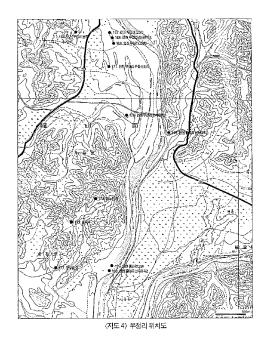


량의 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이곳에서 채집된 토기 편과 와편은 고구려에 속하며, 소수의 신라의 와편

〈사진 2〉아미성 출토 유물

3. 우정리 보루

우정리(牛井里)보루, 미산면 우정리(저도 4)에 위치, 우정리 마을 3반 후면의 해발 89.5m 의 산 정상의 태외식 산성이다. 전체 둘레 약 250m, 동서 지름 약 50m, 남북약 120m 정도이다. 평평한 정상부 나비는 약 1,000 평 정도이다. 내부 부대시설은 건물지, 우물터 등으로 고구려 보루로 추정 하고 있다.





(시진 3) 무등리 1보루(좌측)와 2보루(우측) 항공시진 (2010년)



(사진 3-1) 연천 무등리 1보루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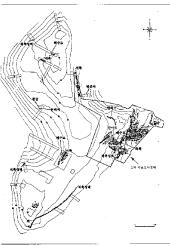
〈사진 3-2〉연천 무등리 1보루 출토 유물 〈사진 3-3〉연천 무등리 1보루 출토 고구려외편

무등리(無登里) 1 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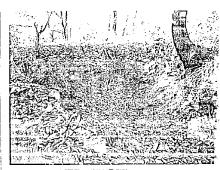
무등리 1보루(사진 2), 왕정면 무등리 산 4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즉 무등리 1보루는 연천군 왕 정면 무둥리 산 44번지의 "장대봉"에 위치하고 있다. 보루는 장대 봉정상에 태외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1보루 형태는 장타원형이며, 장축은 남-북향의 20 정도의 편서이다. 남북 지름 69m, 동서지 름 34.5 m, 전체 둘레는 168m 이다. 1보루에서 다량의 고구려 와편이 출토되었다. 꾸둥리 1보루는 고구려 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사진 3).

무등리 2보루

무등리 2보루는 연천군 왕장면 무등리 산 29-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1보루의 장대봉에 서 부쪽으로 해발 124m의 봉우라에 연결된 능선이다.유적은 해발 100m 내외로 임진강과 연결되



(지도 5) 무등리 2보루 현황도



(시진 7) 고성산 보루 전경

이 있다. 현재 성 들레 244m 정도이며, 장측방향은 복 동-남시향 이다. 성내에서 다량의 고구려 토기편과 와된 그리고 철촉 등이 출토 되었다. 철촉 진이 21cm, 촉심부길이 15,5cm, 경부길이 5,5cm, 촉신단면 1,2cm, 정삼각형이며, 무게는 75g이다. 고구려 원촉, 단화곡물로서 쌀과 조가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4세

기 말염부터 7세기 중염까지 고구려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참고서 5와 6과 지도 5).

고성산보루(高城山)

고성산 브루는 연천군 왕정면 무능리 산 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무능리 산 12번지와 왕정면 복삼리 산 196번지의 경계 지점이다. 해발 150m의 고성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브루의 동서 장축 7.6m, 남북단축 5.4m 정도이다. 전체 둘레는 30m 정도이며, 사번은 30도 정도의 경사이다. 출토원 토기편은 황간색 연절토기로서 고구려 토기로 추정되고 있다(사진 7. 참 1의p.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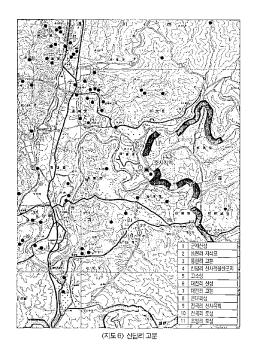
고구려 무덤

신답리 고분, 위치는 전곡읍 신답리 17-4 번지 이다.

봉토분 2기 : 신답리 고분 1호, 저경(底徑) 은 동서 20m, 남북 22m, 높이 3m 이다. 원형 봉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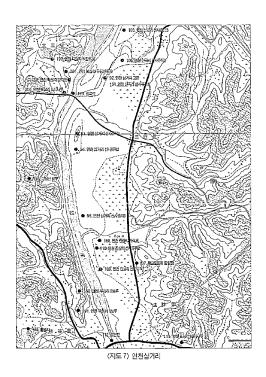
이다. 석실 크기 남북 190cm, 동시 160cm, 높이 130cm 정도 이다. 길이는 30-70cm, 높이 20-30cm 이다. 현부암 석실이 5단으로 확인되었다. 천청은 발각 조정식이다. 연도 길이 70cm, 푹 75cm 이다. 연도 천장은 1배의 현무암 관석으로 처리 되었다(p. 285). 연대는 5세기중업-6세기 중업의 고구려 것으로 보고 있다(지도 6)

신답리 고분 2호 : 1호분 앞에서 서쪽으로 7m 지점에 있다. 봉토 저경 6m, 높이 1,2m 이다. 정상 부의 한 번의 길이 1~2m 정도이다. 현무암으로 관석이 처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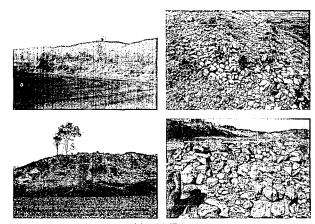


연천 삼거리(三臣里)고분

삼거리 고분의 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707-1번지에 있다(지도 7). 이 무덤은 임진강번 자연 제방 상의 적석총이다. 현재 잔존의 모래 언덕 크기는 길이 16m, 4m 폭, 높이는 하상에서 5~6m이다. 자 연제방에서는 2.5m 의 거리에 있는 적석총인데 대부분 파괴되었다(참 1의p, 319)



18 최무장



(시진 8) 연천 삼곶리 고분

삼곶리 고분

연천 중면 삼곳리 4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격석총으로 임진강변의 모래 언덕위에 촉조되어 있다(참 1의p. 537). 적석총은 평면 형태로 조성되었다. 북서-남도의 방향은 진고, 동-남서 방향은 짧다. 크기는 길이 66m, 폭 52m, 높이는 남동면과 남서면쪽이 6m, 북동면과 북서면은 약 0.5m 정도이다. 격석묘의 길이 28m, 폭대폭은 11m, 높이 1.3m 이다. 발굴결과 2개 부범이 맞 붙여 축조 되어 있다. 전체 평면은 표주박 형태이다. 무덤 2개의 묘곽은 장방형이다. 장축 방향은 "목(围)" 자형테이다. 모곽은 장돌로 축조되었다. 크기는 등분 교곽의 길이 2.7m, 푹 1.4m, 높이 1.2m 이다. 서분의 묘곽은 점이 2.7m, 푹 1.4m, 높이 1.2m 이다. 서분의 묘곽은 점이 2.7m, 푹 1.4m, 높이 1.2m 이다. 성동환(頃) 1점등이다. 연대는 기원후 약 2~3 세기로 추정하고 있다(참 1의p.540과 사건 8).

백제문화

백제의 문화유적으로는 고목성(高木城), 초성리(哨城里)토성(청산면 초성 3리), 당포성(堂浦 城)(미산면 마전리 위치), 수활성(水環域)(전국읍양원리위치), 대전리(大田里)산성과 우정리산성 (미산면 우정리 위치)등 6곳으로 보고 있다. 무덤으로 적식총은 증면 횡산리의 임진강변, 전곡읍 전곡리의 한탄강변, 군남면 선곡리의 임진강변, 백학면 학곡리의 임전강변과 미산면 우정리의 임 전강변등에도 산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참 1의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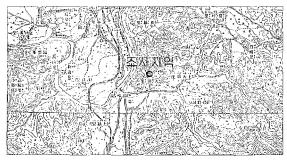
성(城)

연천의 옛 지명, 공목단(工木達)과 음이 같은 고목성(高木城)의 존재가 연천지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취 1의p 85) 고목성은 3세기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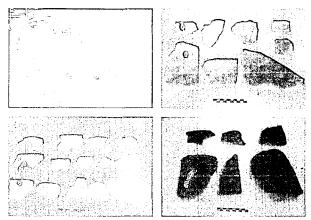
초생리토성(청산면 초성3리 245번지 위치)에서 무문희색연절 토기 동이 출토되어 백제성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토성의 둘레는 537m 이며, 판축으로 축조 되었다(참 1의p.87). 성은 동서방향의 긴 장방형으로 축조되었다. 성벽의 동서 150m.남북 약 100m, 내꾸 면적은 1만 6,160 팽방미터이다. 북벽 서축 높이 6m, 내무높이 약 4m, 푹 6~7m 정도이다. 성벽단면의 정도두 께 5cm 정도로 관측되었다

백제와 관련된 관방유적으로서 당포성을 지나 임진강을 건너서 삼화리-어유지리-적암리의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한 전곡리-고룡리-양원리를 거쳐 간파리 방향의 남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방어하기위하여 수천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참 1의p.88-69).

대전리 산성은 한탄강과 동두천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과 합류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지도 8). 대전리 산성(N 38 00' 44", E 127 04' 52")의 위치는 연천군 청산년 장난리 산 249 번지 이다. 대전리와 장탄리 경계지역의 성재성은 남서쪽 봉우리(해발 131.82m)는 둘레가 약 970m 석축 성벽



(지도 8) 대전리 산성 위치도



〈사진 9〉 대전리 산성 출토 유물(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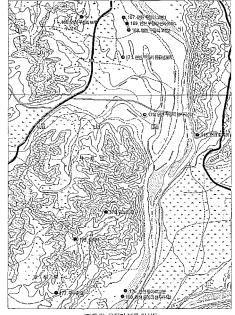
이며, 산성전체 면적은 25,000 평방미터 이다. 성벽은 테모식 산성, 남서벽 구간에 석축이 잔 존되어 있다. 성벽 높이 5m, 성벽은 화강암으 로 축조되었다. 석축은 돌과 흙을 넣는 내탁식 (內托式, 단면 축조법)으로 축조되었다(참 13). 성벽기단부의 내부에 약 2m 의 필이 쌓여졌다 (사진 9).

우정리 산성은 백제의 장대봉(百濟 將台峰) 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곳에서 회청색 경질토



〈시진 10〉 연천 우정리 보루 출토 유물

기가 출토되었다. 또한 당포성도 백제시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자도 9, 참 1의 440과 출토유물 (사진 10)



〈지도 9〉 우정리 보루 위치도

5. 무덤

백재시기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중면(中面)삼곶리의 작식총(積石塚)은 임진강변에 위 처하고 있다. 이 무덤은 동쪽 무덤과 서쪽 무덤이 목(由)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서 권이 약 30m, 높이 5m 이다. 이곳 북동편에서 희백색 진흙 점토의 연절토기가 채집되었다 또한 타날문 등근바닥의 단경호와 철촉, 마노제의 구슬등이 출토되었다. 삼곶리 적석총의 괴장자는 높은 지위





(사진 11, 12) 황산리 적석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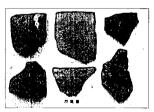
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시기의 횡산리 적석총은 중면 횡산리 23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적석총 규모는 남북방향 기 지부 폭 58m, 상면폭 48m, 동시방향 기저부 폭 28m, 상면폭은 12m, 동쪽 5,8m, 서쪽 3,5m 이다. 축조방법은 임진강 서안의 충적 대지상의 자연제방 구릉(해발 42,50m) 상에 축조되었다. 자연 구릉 높이 8m, 서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5.4m 이다. 남쪽은 3m, 북쪽은 4m 정도이다. 경사도는 40도 정도, 서쪽은 15-25도 이다. 충토유물은 신석기시대의 빗산무늬 외에 타날문 토기편(사진 11과 12)의 구연부, 동체부와 저부핀등이다. 그리고 전제편으로 전점, 천촉, 철모(창)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성점적으로 백제의 것으로서 무덤은 백제건국자등의 것으로 보고 있다(왕 10)

신라 문화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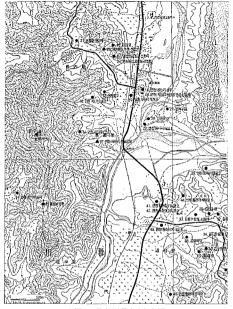
신라시대 유적은 산성으로 5곳: 군자산성, 초성리 산성, 대전리산성, 당포성과 매청성등으로 제시 된 바 있지만 실절적으로는 군자산성과 초성리 산성등 2곳만이 근거가 거의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지로서 5곳: 심원사지, 낙압지, 석재압지, 지압사지와 성지압 등이다(참고서 1의 pp. 94~95).

군자산성(君子山城)은 연천군 읍내리 산 38-1과 차탄리 산22 번지와 곁쳐져 있다. 이곳 에서 와편과 희백색 연질, 회청색 경질 토기편



(시진 13) 군자산성 출토 외편

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과 산성축조 형태에 의해서 6세기경의 신라시대의 산성으로 보고 있다. (참 1의p, 211과 지도 10파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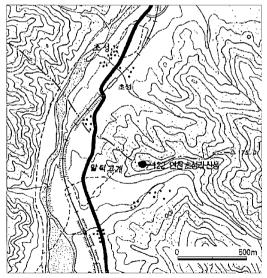
〈지도 10〉 군자산성 주변 지역 위치도

초성리(齊城里 山城)은 청산면 초성1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140m 정도의 테뫼식 석축 성이다. 둘레는 100m 정도, 성벽 정상부는 5~10m 정도의 석축이 쌓여졌다. 동서는 70~80m, 남복은 30m, 둘레는 180m 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내에서는 소량의 백재의 토기편과 연결과 경절의 신라게동의 희백색 연진및 정권토기편이 채집되었다. 성은 8세기경의 신라시대의 성으로 추정하고 있다(참 1의p. 381과 지도 11과 사진 14).

신서면에 통일신라시대의 사지 5곳: 심원사지, 신서면 대산리 절골 345번지 낙암지, 신서면 내산리 355번지 석대암지, 신서면 내산리 73번지 지장암지, 신서면 내산리 72번지 성지암지, 신서면 내산리 71번지 둥이다.



(사진 14), 연천 초성리 산성 채집 유물



〈지도 11〉 연천 초점리 산점 위치도

Ⅲ. 종합고찰

연천지역의 삼국시대의 고대문화는 고구려가 3세가중엽부터 4세기발까지 약 150년동안 기초물 세웠으며, 백제는 5세기동안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신라는 6세기부터 문화가 지속된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같이 고구려 성과 보루유적은 18곳으로 성 8곳: 당포성, 철중성,은 대리성, 전곡리토성, 대전리산성, 호루고루, 아미성, 육계토성, 이잔미성, 철중성 등이며, 7곳 보루: 강서리보루, 고성산보루, 무등리 1.2보루, 광둥리보루, 아미리 보루, 두루동 보루 등이다. 무던은 신답리고본, 연천삼거리고분과 삼곶리고분 등이 조사, 발굴되었다. 백제문화유적은 성6곳: 고목성, 초성리, 당포성, 수천성, 대전리산성과 우정리 산성 등이다. 무ቪ은 삼곶리작석총, 황산리적석총 등이 조사, 반굴되었다. 신라문화유적은 산성 5곳: 군자산성, 초성리산성, 대전리산성, 당포 성과 매청성 등이다. 그 외 시대가 늦은 5곳의 사지 : 십원사지, 석제압지, 지압산지와 성지압등이다. 연천지역의 삼국시대문화는 고구려, 백제와 신라문화가 상호 결처저서 뚜렷한 시대구분이 어렵게 되어있다.

참고문헌

- 1) 한국도자공사박물관,연천군, 2000년[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도지박물관학중조사 총서 제8집(pp. 1-671)
- 2) 한국도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 1999년[연천호무고루] (정밀지표조사보고서)(토지박물관학술조사총서 제2집)(pp.1~261)
- 3)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 연천군, 2006.9월[연천호루고투](제2차 발굴조사현장 설명회자료), (pp.1-25),
- 4)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박물관, 연천군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12,4원(연천호루고루)(제4차 발굴조사약 보고서)(po 1-25)
- 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1년[연천신답리 고분](방굴조사설명회자료)(pp.1~25).
- 6)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11.5월18일(연천무등리2보루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 료심(pp. 1-13)
- 7)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선사문화관리소, 2012,6월26일[연천무등리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op.1-19).
- 8) 서울대학교박물관, 2006. 7정기도전곡리 선사박몽관건립부지외관전(예)고구리토성지 추가조사결과 약 보고(kpp,1~15).
- 9) 육군사관학교회량대연구소, (주)서광건설사업, 2006, 8(연천청산-백의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유적반 굴조사보고서(fop. 1-205)
- 10) (제)국방문화연구원, 2009. 11.2 0(연천군남홍수조절지내 횡산리작석총발굴조사위원회의 자료(pp. 1-19)
- 11) 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10. 7/연천고구려성확(6개소)발굴및 정민지표조사약보고1, (pp.1~26)
- 12)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 2010(연천전곡리성)(전곡선사박물관 건립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총사 제18점)(pp. 1~67).
- 13)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연천군, 2013, 4월(연천대전리산성시, 발굴조사 약보고서)(조사단의전 서 및 출도유물목록포함)(pp.1~22. 기타 1~7 pages)
- 14) 연천, 서울대학교박물관, 2013. 6, 10(연천당포성 성외부공사구역내 시굴조사약보고서).(pp. 1~26).

연천의 삼국시대 성곽(城廓)과 유물

이 준 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모 차

- I. 남한 내 연천에만 존재하는 고구려의 3대성
- Ⅱ.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은 군사의 통행로 [호로탄]
 - 1. 사적(史蹟)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성 (淀川 弧遊古壘城)
- Ⅲ. 당포성과 은대리성
 - 1. 사적(史詩) 제468호 연천 당포성 (部川 堂浦城)
 - 2. 사적(史蹟)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漣川 隱垈里城)
- IV. 또 하나의 삼국시대 성(城) 대전리산성(매초성)
 - 1, 백제와 고구려의 별망, 그리고 당의 야심
 - 2. 신라와 당나라의 배신과 전투
 - 3. 매초성과 원술량
 - 4,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 V. 1.500년만에 잠깨 고구려 첨감우
 - 1. 무등리 1. 2보루의 유ዜ들
 - 2. 탄화미가 의미하는 당시의 전투상황
 - 3. 목숨과도 같은 식량을 태워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VI 맺는 말

집필자

이 준용 연천문화원 사무국장

I 남한내 연천에만 현존하는 고구려(高句麗)의 3대성



(그림 1)연천 호로고루성

우리나라 남한에는 고구려의 성이 3개가 있다. 그런데 이 성이 모두 연천에만 현존하고 있다. 국가 사적 467호로 지정된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 1에 위치한 호로고무성(飯度古臺城)이 있고 이곳에 서 약 20키로미터 동쪽으로 연천군 미산면 등이리 778에 위치한 국가사적 제466호 당포성(堂浦城)이 있으며, 연천군 전곡을 은대리 577의 국가사적 제 469호로 지정된 은대리성(際後里城)이다

이 성들은 모두 임진강과 그 자류인 한단강변 단 애에 각기 삼각형의 형상을 한 성들로 모두 같은 특징이 있다. 강의 단애에 선치되었으며 성의 우측

에 반드시 실개천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실개천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면 주변의 도사물을 성 막 하류에 쏟아 붓는 바람에 강이 얕아져 도강 장장비 없어도 도하가 가능하다는 전이며 3개의 성 모두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도강을 하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많은 군사들이 반드시 이 약은 여울을 건넜다는 이다.

II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은 군사의 통행로 [호로탄]

1. 사적(史蹟)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성 (漣川 瓠蘆古壘城)

호로고투성 하안에는 호로탄이라고 하는 얕은 여울목이 있다. 이곳은 도강 장비 없이 말이나 또는 도보로 전별 수 있는 곳으로 과거 삼국시대부터 최근의 6, 25전쟁 때까지도 가장 많은 군사들이 전년 곳이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할 때 감유신 장군이 당군에게 군량미를 보급하려고 쌀과 조 등 수 만석을 신고 임진장을 건넜다. 호로탄을 건너 평양성으로 간 것이다.



《그림 2》호로고루섬 하인의 호로탄(원편 실개천에서 장마가 지면 도사물이 흘러내려 쌓이는 바람에 강문이 알아 도강 장비가 없어도 또하가 가능하여 살쑥시대부터 한국진쟁에 이르기 까지 가장 많은 군사가 건넌 곳이다)

이 지역은 또 한국진쟁 때에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과 국군이 삼말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할 때에도 고광포를 거쳐 북진을 하여 평양까지 진격하는 중요 지점으로 환용되었으며 중 공군의 분법개입으로 인한 후퇴 시에도, 또 중공군의 수개 사단도 이 지점은 건너 적성을 거쳐 감악산 설마리 전투에서 영국군 그로스터대대를 전멸시키는 등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곳은 지정학적이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호로고투성(短遊古로城)은 2006.01.02 일 국가 사격 제467호로 지정되었고 유적진조용, 정치국방, 성, 성지로 분류되며 21,768㎡ 면적으로 연천에 현존하는 3개의 고구려성 중에서 가장 크고 위치적으로나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다.성은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결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연천군 강남 면 원당리에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실개천 같은 지류가 흐르면서 형성된 약 28m 높이의 현무암 수직단대를 이루는 긴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되지성(江澤平地域)이다

평양지역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재 수도인 한성(送城)으로 진격하기 위한 최단코스는 평양에서 개성을 거쳐 문산 방면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15km 정도 우회하여 장단을 지나 호로고무 앞의 억융목인 호로탄음 건너 적성을 거쳐 양주를 지나 의정부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호로고루가 있는 고랑포일대의 임진강은 '산국사기'에 여러 차례의 전투기사가 등장한 정도로 전략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성벽의 전체돌레는 401m로 남박161.9m, 북벽 146m, 동벽93.1m로 내부 면적은 606m이고 동쪽 벽은 여러 번에 전치 흙은 다치 쌓은 위에 둘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 석성과 토성의 장점을 적절하게 결합한 축성술을 보여주고 있다.

호로고투성은 서기 3세기경 원래 백제의 성이었다가 4세기경 광개토대왕의 백제 토벌에 의해 고구려가 한강 이북을 차지하면서 고구려의 성이 되었다. 서기 433년(고구려 장수왕 21, 신라 눌지 왕 17, 백제 비유왕 7)에 신라와 백제는 처음으로 나제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은 427년 평양으로 천 도한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남방경략(南方經路)을 막기 위해서였다. 장수왕은 먼저 백제를 침략하여 475년(백째 개로왕 21)에 개로왕을 죽이고 그 서울인 위해성(整鵝漿)을 점령하였다. 이에 란 타격을 받은 백제는 개로왕의 뒤를 이어 문주왕(文周王)이 즉위한 뒤 웅진(熊津)으로 천도하였다. 그런데 고구리의 남전은 백제에게만 위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에게도 위험이 되었으므로, 신라・백제 두 나라는 493년(고구리 문자왕 2, 신라 소지왕 15, 백제 동성왕15)에 동성왕이 신라의 이찬(伊淮) 비지(比황)의 단을 비(紀)로 맞이하여 서로 국혼(與終)을 하고, 이를 계기로 고구리에 대한 공수동맹(次守局盟)을 맺어 고구려에 빼앗긴 땅의 최복에 힘썼다. 그리하여 433년에 시작된 나 제 두 나라의 동맹환계는 493년에 이르러 더욱 그 기초를 공고히 하였다.

그 뒤 이 동맹은 나·제동맹군에 가야까지 끌어들여 551년 한강유역을 고구러보부터 달환하였으나, 553년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역을 바라는 신라 진흥왕이 군사를 돌이켜 백제의 수복지역인 한 강하류지역을 점령합으로써 동맹관계는 깨어져 버렸다. 백제는 신라를 다시 공격했지만, 554년 성왕이 관산성전투(管山城戰闘)에서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패배로 끝나고, 신라와 백제는 새로운 적 대관계로 돌아섰다.

신라의 한강 하류지역 공격과 점령은 한강유역의 인적 · 불적 자원의 확보와 대중국 직교역로의 확보가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훗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 제통맹 이후 신라는 호로고투성 건너 남안에 이잔미성을 쌓았는데 호로고투성과 이잔미성 은 지확간이어서 아침에 서로 성을 건너다보며 안부를 묻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Ⅲ. 당포성과 은대리성

1. 사적(史蹟) 제468호 연천 당포성 (漣川 堂浦城)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당개나루터 동쪽의 현무암 수직단상에 축성된 당포성은 전체 둘레 450m,



(그림 3) 성위에서 바라본 당포성의 하단, 우측에 샛강이 흐르고 역시 삼각형 구조로 축성되었다.



《그림 4》임진강가의 깎아 놓은 듯한 수직절벽의 위에 성을 쌓아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곳이 천연의 요새라 고 할 수 있다.

길이가 200m, 현재 남아 있는 동쪽 성벽은 높이가 6m나 된다. 단면 기저부 59m정도뿐으로 성내부 로의 출입 때문에 동벽의 남단은 성벽이 일부 파괴되어 출입로가 만들어졌고, 북단의 경우에는 참 호 진설로 인하여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천 당포성이 위치한 곳은 임진강이 흐르는 전벽지대로 천혜의 요새가 되고 있기도 했다. 시아 가 닥트인 지형에 임진강의 큰 물증기와 어우러진 자연조건으로 한쪽만을 방어하면 되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것이다. 당포성에서 성벽 바깥을 둘러가며 판 도랑 겸 연못사설인 해자(埃子)가 확인 됐다.

이곳을 발굴, 조사했던 육군사관학교 국방유적연구실(실장 이제)은 임진장을 향해 돌출한 삼각 형 단애(端崖 높이 13m)중 유지와 통하는 남쪽 결목을 가로 질리 막아 쌓은 성벽(길이 50m) 바깥 쪽에서 해자 혼작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진강 본류와 자류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삼각형 천연 절벽을 이용해 축조된 당포성에서 확인된 해자는 규모가 너비 6m, 깊이 3m로 중단면 모양은 U자형이며 바닥에는 자감을 잡고 진흥을 다진 상태다

해자란 성곽은 물론 능・원・묘 등의 경계 표시를 위해 그 시설 바깥을 둘러가면서 판 일종의 도 랑 겸 연못시설을 말한다. 성곽의 경우 해자는 대체로 성병 바깥쪽을 돌아가면서 축조해 평시에는 물을 가둬 둠으로써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1차 방어선(이 경우 성벽은 2차 방어선이 된다)기능을 하고 성곽은 쌓는 데 필요한 휴용 제공하는 구신도 한다.

당포성 해자 또한 1차 침입 방이선과 함께 성벽을 축조하는 데 필요한 흙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이울러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은 지적했다. 당포성(堂浦城)은 당 포나루로 홀리 들어오는 당개 샛강과 임진강 본류 사이에 형성된 약 13m높이의 삼각형 절벽 위 대 지의 동쪽입구를 가로막아 쌓은 성곽이다. 임진강 - 한단강 북안에서만 발견되는 강안평지성(江岸 平地域)으로 임지조건과 평면 형태는 호로고루성 및 은대리성과 매우 유사하다.

당포성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유일하게 미수 허목의 「記言 別集」卷15「戊戌舟行記」에 '…마전 앞의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 총사 가 있고, 그 앞의 나무를 당개라 하는데 큰물이 흘러 나무 결로 통한다.(顧田前岸江壁上有古墨今 其上屬壽福其南浦口堂浦大水則建路所滿…)' 이라는 기록이 있다

당포성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직단애를 이루지 않는 등쪽에만 석축성벽을 쌓아 막았다. 동 성벽은 길이 50m, 총 길이는 약 200m에 달한다. 당포성의 배후에는 개성으로 가는 건묵에 해당 하는 마전현이 자리하고 있어 양주분지 일대에서 최단거리로 북상하는 적을 방어하기에 당포성은 필수적이라 한 수 있다

반면에 복진 시에도 강의 복안에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라의 점령기에도 꾸준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포성은 1994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2003년 이후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의 구조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내성박의 경우 관축구조문 위에 석축을 한 호로고루와 달리 전체를 석축한 점에서 호로고루와 축성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성밖의 저지대에는 대형 해자가 너비 6m, 깊이 3m 규모로 설치되었다. 특히, 성벽의 외면에는 이른바 기둥구멍이라 하는 단면 방형의 수직 총이 입장 간격으로 남아 있다.

수작 홈은 약 1.7m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홈의 횡단면 규격은 41*42m가량이다. 또한 수직 홈의 하단부에는 확률이 있는데 확률의 구멍은 깊이 7㎝, 지름이 22~31㎞이다. 노출된 성벽은 너비 15m, 높이 6.5m 정도이며, 3단으로 축조하였다. 성 돌의 크기는 40×15cm, 28×15cm, 50×12cm 정도이다. 성 대부에서는 건물거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유물은 신라계 유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석축이 있는 부분의 퇴적토와 성돌 사이에서 삼국 시대 와편을 포함하여 고려-조선시대의 와편도 많이 발전되고 있으며, 성벽 기저부에서는 경질무 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 내부에서는 고구리 토기편과 고구러 기와편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2. 사적(史蹟)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漣川 隱垈里城)

은대리성은 한단강과 차단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용압대지의 하천 첨식작용으로 인하 여 생긴 삼각형의 대지위에 형성된 강안평지성이다. 유적을 감싸고 남서향하는 한탄강은 곧 임진 강에 합류하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던 추가령구조곡도 주변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수로와 육로 어느 쪽이든 주변 지 역과의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으로 전략적 요 충지임을 알 수 있다.

은대리성의 유적 현황으로는 현재 동쪽과 북 쪽 성벽 및 성내부도 상당부분 훼손된 상태이 다. 평면 형태는 삼각형 모양의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의 규모는 동



〈그림 5〉은대리성의 동쪽성벽

서 400m, 남북 145m로 총 둘레가 1.069m이며 면적은 32.592m'이다. 성의 내부면적은 약 23.000m' 정도이며 그 중 성 외곽 쪽으로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은대리성에 관한 문헌자료는 확인되지 앉았다.

은대리성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등에 의해 간략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2003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에 의해 시ㆍ발굴조사가 이루어 졌 다. 조사 결과, 성의 평면은 삼각형으로 남벽과 북벽 일부는 강변의 차연단애를 이용하였으며 동 쭉 평타지에는 토석혼축(土石湿築)의 성벽을 쌓아 막았다. 그러나 은대리성은 현재까지 조사된 토 성이나 토석 혼축성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으로 축조되었다. 즉 구 지표층위에 점토와 모래가 혼합된 다짐층을 조성한 뒤, 체성 중심에 2열의 석열을 쌓으며 토축한 석심토축(石心土策)의 특징 을 갖고 있다. 동벽의 길이는 120m, 기저부의 너비는 10m, 성벽의 높이는 6m 정도이지만 성벽은 상당부분 무너져 내려 북쪽으로 가면서 높이가 2~3m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동벽의 내벽부분에서는 성벽 축조 시 기둥을 설치했던 흔적이 확인되었고, 2회 이상 성을 고치 쌓았음이 밝혀졌다. 내벽에서는 빗물의 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구(淸)시설이 확인되었고 또 한, 성의 내부에서 문지(門址) 3개소, 대형 건물지 1개소, 치성(雉城) 3개소가 확인되었다. 치성은 성의 북동 회절부와 북문지 서쪽 및 남문지 서쪽에서 확인되었다. 북문지와 남문지 서쪽의 치성은 8*5m 규모로 체성에서 'ㄷ'가 형태로 돌출시켜 성문의 방어력을 높였다. 이처럼 성문주변에 방형 치성을 설치하는 구조는 고구려 산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치성은 적대(敵奏)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 내에서 수습된 출토된 유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유물의 대부분은 토기편이며 소 량의 철기편이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대부분이 고구러 토기이고 소량의 백제편이 포함되어 있다. 동벽의 초축시기와 일처하는 배수구바닥에서 고구려 토기가 집중적으로 충토되는 것으로 보아 고 구리에 의해 은대리성이 처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토기에 대한 편년이나 고구려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하였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5 세기 이후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신라계 유물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후에는 폐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V. 또 하나의 삼국시대 성 대전리산성(매초성)



〈그림 6〉 대전리산성 이정표

대전리 산성은 연원군 청산민 대전리 산 2-2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리와 장 단리에 전치 있는 성재산에 위치한다. 1984년부터 설시된 역사편찬위원회의 실 축조사전과 경기 연천군 청산면(青山前) 대전리(大田里)의 대전리산성이 매조성의 타임을 확인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성티 는 블레 670 m, 넓이 1,960 m2이다.

한탄강 유역에는 은대리성과 성동리 산 성, 대전리산성 등이 위치한다. 고구러가

명망한 후,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전부가 벌어졌던 나당전쟁의 격전지 매초성은 석축산성이다. 성벽의 전체 준례는 약 700m 정도이나, 성벽의 축조형태는 대전 리산성, 차탄리의 군자산성, 천중성 등과 흡사하다. 보개 산성 아래로 초성리토성이 있으며 3km 거리에는 대전리산성이 있다.

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당의 야심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절국 백제는 멸망한다. 백제의 계백장군이 이끄는 5,000여 견사 대가 황산번에서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견고 결사 항전을 하였지만 결국 나, 당연합군의 숫적 열 세에 결국은 패망하고 반 것이다. 이후 백제의 의자왕은 당나라군의 포로가 되어 당나라로 끌려가 고 만다. 이로서 기원전 18년 온조가 서울의 아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약 700여년간 지탱해 오던 백제가 결국 멸망하고 반 것이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멸망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 고구리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나당연합군의 합동공격에 치한 고구려는 선상가상으로 내분까지 겹치게 된다.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연개소문의 큰아들 남생과 그 밀의 남긴, 남산간의 권력싸움 등 내부 간동이 심화되어 남생은 당에 항복하고 연개소문의 동생 연장토가 신라에 투항하자 신라와 당은 이름 름타 668년 결국 고구라까지 멸망시켰다 이로서 기원전 37년에 건국된 고구려는 천년을 미쳐 채우지도 못하고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는 신라마저 접수하기 위해 온갖 홍계를 꾸민다. 당나라는 백제의 고토에 5도독부를 설치했으며, 백제의 부흥운동은 은밀하게 지원했다. 그리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9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신라는 669년부터 옛 백제의 땅을 점당하였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당나라와 맞서게 된다.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 벌이지 것이다.

신라는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합락시키고 다시 고구려의 백성들을 받아들이고, 당나라 지배하에 있던 백제의 옛 땅을 점령하여 세력 확장을 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크 게 노하여 군대를 보내 신라를 공격하였다. 672년 8월 평양에서 황해도 배천까지 남하한 당나라군 은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다시 석문으로 북상했다. 석문은 황해도 서홍에 있는 들판으로 이곳은 임 전간을 건너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신라군은 석문 돌판의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진을 쳤다. 의복, 원순 등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최선두에 대기병 방어부대 장창당接稅變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라 중앙군단의 여러 부대를 적의 기병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상대로 고간이 이끄는 당 기병단이 신라군 진영쪽으로 돌격해왔다. 먼저 신라 장창당의 최선두에 섰던 궁수들이 화망을 구성하여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당의 기병이 가까이 접근하자 선두의 궁수들은 창을 땅에 고정시킨 장창보병의 대일 뒤로 숨었다. 이때 장창보병이 겨냥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었다.

당 기병의 선두대열이 장광보병에 걸려 낙마하자, 기병대의 호름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신라의 장상보병이 기동력이 사라진 당 기병을 포위하여 대파하였다. 이때 장광당이 당병 3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한다. 그러나 이후 신라군은 장광당을 너무나 과산하게 되었고 다른 여러 부대들의 포진 에 있어 긴장감이 떨어졌다. 당 기병이 이 허점을 노리고 다시 진격해왔다. 역습을 받은 신라군은 장군 의복을 비롯하여 대아찬 호선, 사찬 의문·산세, 아찬 능선·두선, 일길찬 안나함·양신 등 이 전사하는 등 전멸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화랑 왼송(元達)이 참전하였다 대패하고 일생을 숨어살다가 대백산으로 들어가 후회 속에 산 것도 이 전투에서 비롯됐다. 화랑도의 정신인 세속오계 중 임전부되를 실천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아버지 김유선 장군에게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

원술랑이 당나라 군대에 크게 폐하고 군사가 원술랑의 투구를 가져오자 김유신은 아들이 용감

히 싸우다가 전사한 줄 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분노한 김유신은 단칼로 원술 랑의 목을 배리고 했으나 부인이 한사코 말라는 데다 죽이지 말라는 왕명도 있어 집에서 쫓아낸다.

2. 신라와 당나라의 배신과 전투

매초성 전투란 문무왕 15년(675년) 가을 9월29일 당나라 장군 이근행이 군사 20만명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했는데 우리 군사가 공격하여 쫓고, 말 3만380필을 얻었으며 노희한 병기도 이만큼이었다.(삼국사기)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불아낸 결정적인 승부처가 바로 매초성이었던 것이다. 왜 신라는 이 매초 성에서 혈맹이었던 당나라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였을까. 두 나라는 연합하여 백제(660년)와 고 구려(668년)를 차례로 멸망시켰다. 그리고 사이좋게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 했다. 하지만 이디까지나 이것은 동상이몽이었다. 원래 당나라는 "백제·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땅을 모두 신라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파기했다. 신라군을 평양성까지 오라 가라 해서 계속 허탕을 치게 만들어 힘을 때더니 668년에는 "신라가 군대의 동원기일을 어겼으니 신라의 공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670년 당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김흥순이백제·고구리 멸망 이후 강역을 나는 지도를 가져왔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백제의 옛 땅을 백제 부흥군에 모두 다 돌려주도록 돼있었다. 신라의 배신감은 국에 달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야금야금 옛 백제 땅을 접수했으며, 급기야 그 영역이 고구려 남쪽에 이르렀다. 이에 화가 난 당나라군은 9월 설인귀를 대장으로 청공했으나 신라군의 반격을 받아 군사 1,400명 과 병선 40척, 군마 1,000필을 잃었다. 설인귀가 도망가자 당나라군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20 반대군을 동원한다. 그러나 신라는 매초성에 주둔한 당나라군을 공격하여 쫓음으로써 매초성 대 첩을 이룬다. 이후 신라는 당나라와 별인 전투에서 18전 전승을 거두었다. 당나라는 이듬해 2월 안 동도호부의 치소를 평양성에서 요동성으로 옮겼다. 한반도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다.

3. 매초성과 원술랑

671년 당군 5,300명을 깨고 백제고토를 회복한 신라는 이듬해 석분(황해 서흥)에서 당나라군의 반격을 받아 패퇴한다. 이때 비장(韓籍・군사참모)이었던 원술랑(김유신 장군 2남)도 '일진무퇴' 의 정신으로 싸우다 죽으려 했다. 하지만 보좌관 담동이 나섰다. "대장부는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을 곳을 찾아 죽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자 원슬은 "사나이는 구차하게 실지 않아야 한다. 무슨 면목으로 이버지(김유선)를 보겠느냐."

원숭이 말에 박차를 가하려 하자, 담량이 말고삐를 잡아당겨 집절 끌려가면서도 놓아주지 않았다. 원숭은 끝내 되돌아서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보다 더 엄청난 고통이었다. 살아 돌아온아들 원숯을 감유신은 문무왕에게 이렇게 주청을 한다. "원숯은 왕명을 욕되게 하였고, 가훈마지 저버렸으니 목을 배야 합니다." 아버지(김유신)가 아플의 목을 밴 것을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원숭은 왕의 특전으로 풀려났으나 아버지 김유신은 원숭을 아들로 대하지 않았음 뿐만아니라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호적을 파버린 것이다. 이에 원숭은 시골(田)에로 숨어 버렸다. 이듬해 아버지가 죽자(673년) 원숭은 어머니(지소부인)를 뵙기를 청했다. 하지만 어머니 지소부인 역시 단호했다.

"여자에겐 삼종지의(어려서는 부모에 의지, 결혼해서는 날편에 의지, 늙어서는 자식에 의지하는 것)가 있다. 지아비가 죽었으니 이젠 아들을 따라야 하나 아들이 아들 구실을 못했으니…."

원술은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아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하락하지 않았다. 화랑으로서 불충과 불효를 저지른 원숲에게 675년 매초성 전부는 와신상담의 일전이었다. 원술은 수치심을 씻으려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원술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가 무슨 상이냐?"면서 끝내 벼슬길에 몸담지 않았다.

이 매초성 전투는 신라와 당나라의 사기 이느 곳에도 이 전투한 승리로 이끈 신라의 장수는 명기 되어 있지 않으며 이 전투로 사망한 군사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나라군의 전마(戰馬) 3 만 380마리를 신라군이 노확하였다고 기목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672년 석문에서의 패전 후 은거 하던 원슐랑은 이 전투에서 큰 촬약은 했다고 하는 작은 기록만 있을 뿐이다.

4.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이다.

1979년 어느 날 연천 대전리산성을 몇 차례 답사했던 최양회 당시 국사편찬위원장 점 한담대학 교 사학과 교수와 김철준 서울대 교수는 마음을 바꾸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대전리산성이 매초성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매초성으로 비정된 양주 대모산성에 대한 발 군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한 상황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림 7) 대전리산성에서 내려다보이는 전곡시가지, 강은 한탄강이다.

10월 유신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그에 따라 국수주의라 할 만큼 지나천 민족주의가 성행하였으며, 그 영향이 학계까지 비쳤다. 우리 민족의 자궁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고대의 전적지를 찾은 것이다. 신라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승전보로 끝한 것이 매조성 전투였다.

한반도내에서 매초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 대전리산성이다. 지 금 매초성이라고 주장하는 양주의 대모산

성은 일단 20만 대군과 전마 수만 마리가 마실 물이 없다. 그곳에는 어둠천이라고 하는 도랑 같은 하천이 있으나 간수기에는 그나마도 말라 버리고 성안에는 우물이 5개 정도 발견되었으나 이 우물 5개로 어떻게 수십만의 군사와 전마가 물은 해결할 것인가? 요즘처럼 수송이 발달하여 강에서 불을 피다가 헬기던 급수차던 신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던 당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식량은 없어도 며칠 베티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건 가축이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한탄장이 흐르고 성이 드넓은 것으로 봐서 또 위치적으로 볼 때 이곳이 대초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수론할 수 있다. 예로부터 큰 물이 있는 곳의 지명은 '배'자가 들어간다. 일래로 인천을 '배홍' 또는 '뱃골'이라고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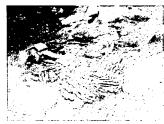
경원선 철도와 3번국도가 지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선리 산성, 산성에 올라서서 전국시가 지 쪽을 굽어보면 산 아래쪽으로 흐르는 한탄강문의 깊이가 알아서 군사들이 도강 장비 없이도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쉽게 건널 수가 있어 더욱 더 이곳이 매초성임을 집작케 한다. 하지만 이곳이 당나라군 20만명을 격퇴한 매초성 대첩의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그동안 군사시설(참호와 병커)이 들어서면서 성곽도 허물어지고 방치된 채 내버려지고 있다.

V. 1,500년만에 잠깐 고구려 철갑옷

1 철제조각 이어 만든 감옥 온전한 발굴

온전한 상태의 고구려 철비늘 갑옷이 처 음 발굴됐다. 경기 연천군 왕장면 무등리 고구려 보루유적을 발굴 중인 서울대박물 관 발굴조사단(단장 이선복 교수)은 "임진 강변 무등리 제2보루에서 고구려 무사의 철비는 갑옷을 찾아내 발굴을 진행하고 있 다"고 지난 달 17일 밝혔다. 그동안 고구려 철비늘 갑옷의 조각들이 몇 개씩 발굴된 적 은 있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밤굴되기는 한 국과 북한 중국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연천 지역은 6세기 전후 고구려 백제 신



(그림 8) 경기 연천군 무등리 2보루에서 완전한 형태의 고구 려 철비늘 갑옷이 처음으로 발굴됐다. 무등리 2보루로 들어 가는 문터에서 발견된 철비들 감옷의 모습.

라의 생탈전이 치열했던 곳 무등리 보루는 임

진강을 경계로 신라군과 대치하고 전투를 벌였던 고구려군의 성곽 기지다. 서울대 발굴단은 연천 군의 의뢰로 지난 4월부터 무등리 보루의 내부 유적을 밤굴 조사해 왔다. 보루란 적을 감제(적의 황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곳)한 수 있는 오늘날의 초소와 같은 개념 으로 남한에서는 구리시와 서울시 광진구의 경계지점인 아차산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발굴조사단의 서울대 박물관 이선복 교수는 이번 발굴로 이제야 고구려의 경계선을 짐작할 수 있다며 장남면의 호로고루성과 동이리 당포성, 은대리의 은대리성을 연결한 후 이곳 무등리 보루 를 연결하는 라인이 뚜렷해 전다며 이런 라인으로 본 때 이곳 보다 북쪽에 한 두 개가 더 있을 것으 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집작으로는 북삼리나 강내리의 괴미소(웅연)가 내려다보이는 단애 위쪽이 아닐까 추측된다. 두 곳이 모두 적을 감시하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삼국간의 전쟁은 4세기부터 7세기인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치열하게 경계선 분쟁이 전개되었으며 때로는 러제동맹(고구러와 백제간의 동맹)과 나제동맹(신 라와 백제간의 동맹) 등으로 균형을 잃욕 때마다 필요에 의해 적당히 손을 잡고 높으며 전투를 벌 였는데 그 중심 상에 연천이 항상 전쟁터가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9〉무등리보루에서 발견된 철갑옷 상단의 목 부분이 선명하게 보 인다. (우축 원안)

천비늘 감옷의 일부가 처음 모습은 드러낸 것은 지난 2011 년 5월 8일. 철비는 갑옷은 성확 내 주요 군사건물의 출입구로 추정되는 분기등 바로 옆에서 반견됐다. 처음엔 천갑옷의 목 부분만 노출됐지만 반굳이 진행 되면서 17일엔 어깨 부분과 팥 목 부분까지 노출돼 온전한 갑 옷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선복 교수는 "출입구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요 군사시실을 지키던 고구려 군사가 신라군의 급습을 받아 급히 갑옷을 내 러무고 도망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약 한 가마니 정도의 단화미(불에 탄 군량 미)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전투에서 군량미를 태우고 갈 정도라면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짐 작한 수가 있다. 그만큼 전투에서 군량미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굴된 철갑옷은 작은 천제 조각들을 가죽끈으로 이어 만든 '찰갑' 형태다. 천판을 가슴 부위에 통째로 덴 가야군의 '판갑' 파는 다른 모습이다. 고구려 병사의 철갑옷은 그동안 고구려 백화 를 통해서나 그 모습을 집작한 수 있었지만 이번 발굴로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실률모 고구려 철갑옷의 온전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고대사 연구에 있어 일대 사건이다.

삼국시대 전쟁사 및 고구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렸다. 연천의 엄친장 유력에서는 그동안 고구려상박, 단야로(제철시설), 불에 탄 군량미(단화미) 등이 발굴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유물로 인해 우리 연천이 고구라의 중요한 거점이며 삼국시대의 한 중심에 있던 중요한 지역인 것이 증명되었다.

2. 탄화미가 의미하는 당시의 전투상황

1998년 8월17일 임전강에 접한 경기도 연천 무등리 2보루의 절벽토총에서 도지 조사를 하던 한 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조사단은 이 지역에서 불에 탄 쌀과 조로 이뤄진 탄화곡물을 대량 발견했다. 앞으로도 이 지역 200m에 결쳐 분포된 탄화곡물이 엄청나게 많이 출토된 것으로 관단하고 전 문기관에 탄소연대 측정을 의뢰했다. 탄화미에 대한 국립문화재연 구소와 미국 BETA연구소의 방 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각각 AD(시기)530~690년, AD(서 기)660~895년이라는 자료를 내 놩았다. 만화미 연대가 5세기~ 7세기 중후반으로 고구려가 이 곳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와 접 치 고구려 군량미 창고임이 분 명했다.



〈그림 10〉 무등리 1, 2보루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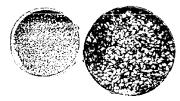
손으로 낙엽과 흙으로 덮인 이곳저곳을 파보니 검게 탄 탄화미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양의 단화미가 나온 것인까? 일부러 태운 것인가? 아니면 적 이 화공을 사용하여 곡물창고에 붙을 붙인 것일까? 그러나 이번에 단화미가 박견된 식량장고는 깎 아지른 듯한 절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임진강물이 흐르고 있어 누구도 접근이 용이하지 가 않아 적이 화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 고의로 식량 창고에 불을 걸렸다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3. 목숨과도 같은 식량을 태워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삼국시대는 전쟁의 시기였다. 고구러는 납하 과정에서 백제와 31차례, 신라와 16차례 전쟁을 빌 였다. 광개토대왕 이전부터 수 만 명 규모의 고구리 군은 예성강과 임진강을 숱하게 건넜다. 개성 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하는 임진강에는 고구려 성과 보루가 20여 곳이 남아있으며 이는 거의 모두가 연천군에 위치해 있다.

무등리 1, 2보우는 경기 연천 장대봉에 있는 해방 100m 무등리 1보우는 둘레진이 168m의 소규 모 보루, 보투란 성확 둘레 600m 이하의 소규모 요새이다. 그러나 무등리 보무는 지역적으로 양안 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즉 적을 감시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 할 정도로 친혜의 요새지이다. 임진장 건너편으로 옥계리의 옥녀봉에는 신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보루가 있고 군자산성 등은 모두 신라 의 성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군자산성을 점유했다면 이 시기는 나당연합군에 의해 서기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고 꾸준히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며 서기 665년 고구리의 연개소문이 죽자 왕실이 여수선해진 틈을 타 그



〈그림 11〉 무등리보루에서 다랑으로 발굴된 탄화미(오른쪽)와 조(왼쪽)

름을 노리고 고구러군을 일제히 공격하 여 서기 668년 고구러를 완전히 멸망 시키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신라 군이 임전강을 경계로 군자산성을 축 조하였고 이후에 호로고루와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 브루로 이어지는 고 구려의 국정선이 무너지는 시기가 바 로 이 시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서기 666년이나 667년경 나당연합군의 습격을 반은 무등리의 고구려 보투에서는 갑자기 밀려오는 적음 막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황급히 철수를 해야만 했고 식량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급박하여 그냥 버려두고 간 경우 적들의 배만 불려 중 것이라 생각한 군사들이 곡물 창고에 불음 지르는 최후의 수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곡물을 그대로 남겨 두어 봤자 작에게만 이로울 것이니 이는 간접적인 이적행위와 다를 마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는 복숨과도 같은 군량미를 대위약만 했던 그들의 안타까움과 절박함이 이번에 발굴 된 탄화미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땅속에 묻혀 이미 1,500년도 넘은 쌀과 조가 이 세상에서 햇볕을 쪼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당시 고구려의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 남국의 순간을 애절하게 느낌 수 있다.

VI. 맺는말

연천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삼국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소용들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때로는 백제에 소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다가 신라의 땅이 되기도 하는 등 신라와 백제, 고구려가 각축을 벌이던 연천은 지금까지도 삼국시대부터 이어 내려오는 전략적 요충시이며 진쟁터와 마찬가지인 안보의 최 집경지역이다. 연천은 6, 25전쟁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전쟁 후에는 남한으로 수복되어 작금에 이른다. 그리고 땅의 중간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으며 삼완선도 궁존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항상 군인들의 훈련과 포사격 등으로 포성이 끊이지

않고 탱크 등의 굉음이 쉬임 없이 들려오는 연천은 분명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곳이다.

남한 내에서 가장 최천방에 위치한 인구 4만5천명의 작은 시골마을 연천, 그러나 앞으로 통인시 대를 맞이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부에서 그 역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쯤은 익히 집작이 가 고도 남는다.

참고문헌

《두산대백과 사전》《謎川郡誌》《연천군의 歴史와 文化遺跡》 《韓民族戰爭通史 1.2.3.4 國防部軍史研究所 發行》 《연천호루고루》(정밀지표조사보고서)

古代로부터 京畿地方의 세시풍속 연구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부절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 I. 머리말
 - 1. 세시기(歲時記)의 기원(紀元)
 - 2. 삼국(三國) 세시기
 - 3. 세시 숭배사상(崇拜思想)
 - 4. 십이지(十二支)란 무엇인가?
 - 5. 무속(巫俗)과 풍속(風俗)
 - 6. 세시 풍속과 일삼생활의 문학적 의미
 - 7. 경기지방(京畿地方) 문화의 세시풍속
 - 8 민속학으로 본 경기(京機) 명점
- Ⅱ. 맺음말

진필자 이 명 수 동두천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I , 머리말

인간의 역사가 인류에 문화가 인재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고 발전해 왔는가를 천체(天體)의 호름에서 볼 때 지금부터 1만년전 타제(打製:두드러 치기나 깨뜨려서 만든 도구)석기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현재와 기후가 다른 지진학상의 홍적세(供益世:해성담 및 병하증)을 거쳐 구석기 시대가 없어지고 신식기 시대로 2,000년전 까지 계속되었다. 신식기시대는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다양하게 구석기의 들도끼외에 석혹(右線),석검(石劍),석부(石斧:돌도까),석포정(石恆) 반원형 석도의 칼의 인종),석명(石面: 돌그곳),석저(石杵: 둔방망이),환상석부(環狀石斧:등급게 만든 돈도까),다무석부(多顯石床:2.3개 이상 동도까)등을 이용하여 사냥하며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농경(農耕/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주거생활은 대개 양자바른쪽에 수월식(整次式)인 주 거로 명을 파서 움집에서 살았다. 식생활은 나무연배,품뿌리나 잎 강가에서 불고기를 잡았으며 석 검으로 만든 도구로 산과 들에서 멧돼지 및 날침승들을 잡아 연명(挺命)하였다. 문명(火明)으로 지 해가 열리면서 의복은 나무껍질이나 잎이 넓은 품잎 또는 집승의 가축으로 옷을 만들어 추운 겨울 을 이겨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의 원시인(原始人)들의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단강 구봉지(丘陵地)에서 반견되어 구석기시대에도 인류가 생 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류의 원시인은 무리를 지어 먹을거리가 풍부한 기름진 땅을 찾아 방암 과 이동을 거듭하다 가축을 기르면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게 되었다. 이 무렵부터 식구가 늘면서 씨쪽이라 불리는 집성훈이 생겨나고 한나라로 발전하게 되었다. 원시인에서 한민족으로 이어진 기본적인 생활양식과 정신문화의 중세를 연구하는 회문을 만족확이라고 한 때 세시중속(歲時還 俗)과 세시기(歲時記)는 각기 독립성은 가진 별개의 학문이요 사건이다.

세시풍속이란 1년중 월따라 행하여지는 자연 및 인간사(人間事)에 관한 생사물 말하는 것이며 세시가란 이른바 세(歲) 일(日) 월(月) 성진(星辰) 역수(唐數) 등 다섯가지 기강(紀獻)을 다스라는 방법 및 그에 관한 학문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설병한다면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십간 (十十) 십이지(十二支)를 갑자(甲子)등으로 나누고 이를 율력수(律既數)를 통계한 천체(天體)의 학문에 속한다. 인간이 한가정 사회 국가를 영위하며 살이가려면 의식주에 따른 정치사회 경제문화등 제반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계점의 변화에 따라 봄이 오면 논과 밭에 씨를 뿌리고 가꿔 가을이되면 그 곡식을 거두이 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풍속이나 관습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시풍숙은 천체의 학문인 세시가를 기준하여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역사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일이다. 우리는 그 일

음 지키고 생활하기 위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선조들이 옛날부터 자연을 지키고 세시종 속(歲時風俗)에 의해 살아 왔듯이 후대(後代)에도 이어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5천년에 찬란했 던 문화와 세시풍속은 이와 다불어 수없이 많은 외침(外戌)을 받고 개폐(改聚)되었고 세시풍속은 글요의 점철(點級)이 우리의 심정이었다.

이와같은 와중에서 발생한 옛 세시행사(歲時行事)를 해부평가(解朝禪(f))해서 옳고 그림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나라 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있었던 풍속을 추러서 그 서비와 근원은 밝히고 당시의 동치와 세시행사 등을 대조하여 그 적도(尺度)를 가려 보았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말 1,800년 중반기에 저술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경도잡지(京都雜誌)등이 참고가 되었기에 이 3서로 참고하여 주석(註釋)하였다. 특히 이들 3 서는 당시의 우리 풍속은 물론 고대에 이르기까지의 풍속을 소상하게 답고 있어 우리마음의 풍속은 물론 고대에 이르기까지를 문항을 참고하여 경기 지방의 세시풍속학을 살펴 기록해 보았다.

1. 세시기의 기원

세시기(歲時記)의 기원을 보면 분명히 기(記)가 아닌 기(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시기는 천체 륜 연구한 전문적인 고서적(古書籍)이라 당시에도 그 책자를 설병 부연하는데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항자들이 동원된 것을 보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세시기는 어디서 유래(由來)되었나?

세시기의 기원은 홍범구주에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 역사의 하나인 죽서(竹書)즉 주(周)나라 의 기록에 의하면 무왕(武王)13년에 조선(朝鮮)에서 기자(策子)가 가져온 홍범구주를 주나라 의 이문(舞倫)으로 삼았다고 한다.

2) 춘추(春秋)시대 때 공부자(孔夫子)가 많은 시석(詩書)를 정리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사실 율 그대로 서경(書程)에 수록함으로서 홍범구주는 결국 고조선의 문화임을 재확인하였던 것 이다.

3) 세시기와 홍범구주의 관계

흥범구주 제4당(第四綱)에 보면 협용오기(協用五紀)라는 구절이 있다. 이 5기(五紀)가 즉 세 (歲), 일(日), 윌(月) 성진(星辰), 역수(獨數)등 다섯가지를 다스리는 기강이며 이것을 고대에 는 세시기(歲時記)라는 낱말을 붙여서 사용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身)가 흘러서 날이 되 고 또 날이 단이 되면서 나아가서는 한해의 세원이 된다는 것을 세시(歲時)로 표현하였고 이 법도를 기장(紀綱)으로 삼았던 까닭에 세시기라 하였다.

- 가)세시기는 절대적(絶對的)성격을 가지고 있어 군왕(君王)이라도 오기(五紀)즉 세시기의 기 강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시기는 사람의 합으로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는 첫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나)세시가는 일년동안 철따라 행하여자는 여러 가지 민속적 행사를 치우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우리에게 조선총독부에서 통치 의 형세에 따라 변하여 온 것도 있다.
- 다)왜 세시기(歲時紀)가 세시기(歲時紀) 紀一記로 표기되었던 것일까? 중국에서 세시기가 수 목되어 있는 문헌은 예문지(禁文志)였다. 그런데 예문지가 기록된 연대를 살펴보면 왕망 (王莽)이 유신세제(維新設制)를 확립 할 때 천하에서 수많은 율력학자(律曆學者)와 악착(築 尺-興工)등을 모아서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여 한(漢)나라 왕조를 찬탈하려던 무렵이었다.
- 라)일양세시기는 당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종능의 형초세시기(無楚歲時記)를 참고 하였기 때 문이었다. 이런 실정에 세시기를 알 수 있는 율력서(律曆語)을 활용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율력서를 주석하고 부연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후한 (後漢)에서 당(唐)나라에 이르는 어간(御間)에 있었던 학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후하의 왕조는 세시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 된다
- 마) 때문에 당시 중국 학자들도 세시기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다만 세시풍속과 함께 취급하여 그리고 역사의 기독과 같은 취급하여 기(紀)나 기(記) 그리고 지(志)자의 병청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삼국세시고(三國歲時考)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의 역사를 상고(上古)할 때 편년체(編年禮)구성에 있어서 세시기를 인용(引用)한 흔적이 있음을 불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편찬한 김부식(金富式)의 소론(所 論)에 의하면 신라본기(新羅本紀)는 고려조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고구려와 백제의 본기는 모두 당 나라에 달취되어 그는 송(朱)나라에 세차례나 들어가 옛 사료(史料)를 수립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한다. 이런 것을 생각 할 때 신타본기가 고구려와 백제의 본기보다 좀더 정확할 것이라고 판단 된 다. 물론 삼국본기는 원래 현재의 삼국사기처럼 편년제로 쓰여졌던 것은 아니지만 김부식 등이 중 국의 사사(史書)와 대조하여 연대를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편년체의 산출은 중국 사서에서는 혼히 사용했던 것이다. 일레를 들면 사마광(司馬光)이 자치통감(資治通鑑)60권이 후대의 사가(史家)들에 의하여 무려 6백여권으로 팽창되어 편찬되는 동시에 편년체의 구성도 후대에 이르러 구성 되었다. 우리나라 삼국의건국 연대는 뭄론 사료동도 모두 중국의 사서와 대사(對金)하여 편찬된 것임을 집부식도 병백하게 시사(詩史)하여라
- 2) 신라는 건국 이래 사관들이 천체(天體)의 변화와 통치권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할 때 신라는 분명히 세시기의 가장(紀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증하고 있다. 일식(日餘)이나 월식(月後)혹은 성좌(星座)등의 변화가 있을 때 임금은 겸허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최수들을 방면하는 등의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것은 세시기를 통치의 이론(穩搶)으로 삼았던 정조(改家)라 볼 수 있다.
- 3) 삼국의 전국 초기에 세시기가 있었다면 이와 더분이 도량형(改量衡)제도와 가무기(張驛拔)의 황종(黃饒) 임종(林建)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세시기만 5기(五紀)의 법도를 말하는 것 으로 이 5기중에 있는 역법(廣法)을 알면 종율(強律)까지 알게 되는 것이 윤서의 내용인 것이 다. 원래 율력서가 한나라 예문지에 수록되게 된 경위를 보면 윤력서의 서두에도 있는 것처럼 한나라 효무제(孝武帝) 북평후(化平坡) 장황수(張介 抽를 위시하여 회화유壽(養和劉歆)등 종 률학자 백여명을 모아서 문헌을 수집하고 이를 주석 정리 할 때 얻어진 것이다. 한나라 초기 는 물론 진나라 때도 홍범의 경서를 가지지 못하였다.
- 4) 맹강(孟康)등은 올력서에 주석하기를 율력의 세시기는 기자가 문왕에게 말한 대법9장으로 이 것이 즉 역법의 5기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 태사 사마천(田馬遷)은 역기회폐(勝紀懷殷)하여 절기(節氣)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나라 때에는 역범이 정확하지 못 하여 편년체는 물론 매삭(每期)의 정확한 법도를 몰랐다고 율력서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량형의 제도가 없어서 백성들은 큰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 5) 우리나라 는 중국과는 달리 천체의 일원성진(日月展展)을 계산하는 역법율석가 있었기에 나라에서 일정한 도량형 제도를 사용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없게 할 수가 있었고 유리왕 때에는 결합을 하여 이것을 척수(尺數)로서 승패를 가렸던 것이다. 더욱이 이 진쌈의 가위에는 회소 곡의 가무기가 펼쳐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세,인,원,성,전(歲,日.月,基,長)을 계산하는 5기의 하나인 율력법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옛 사서에는 천채의 변화를 사관들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천채의 변화가 있으면 땅에도 이번이 있다는 것을 정치는 간접적인 해석 일 뿐 우리의 삼국시대와 같이 절대적인 기장으로 안고 왕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는 등 통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통치는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까닭에 천황 즉 황제는 어떤 재도에도 구속을 받지 않는 하늘과 같은 존 재로 섞겨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군왕이 어찌 세시기의 가강 따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사관 들의 기목에 천체의 변화 형태가 있음은 하나의 참고 자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치 형식은 세시기가 기강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조선의 8조(八條)의 문화를 삼국이 모두 답습하여 통치에 인용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때 형성된 세시풍속 유도(周道)통치를 하던 조선시대 때에 세시풍속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밝히 두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꾼이 우리민족은 그 당시부터 흥범문화의 통치재채를 선시하여 왔으며 또 세시기를 숭상하던 민족임은 중국 사서(史書)들은 밝히고 있다.

3. 세시 숭배 사상(思想)

우리선조들은 태양신이나 다신적(多种的)인 세사풍속 송앙하지 않았다는 역천(逆說)도 성립된다. 왜냐하면 세시기는 과학적인 통계 숫자를 바당으로하여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4~5천년전에 통계 숫자를 통하여 천체의 변화를 해득하여 태음력(太陰曆)을 사용하였고 또 춘하추동 4개절과 24계절기를 정하였다. 물론 우리민족은 농경민족이라 농경행사부터 태동한 것이긴 하지만 근대 기업 경영책과 다물바 없는 행사 계획표를 이미 정하여 놓고 세시기를 중심으로 세워서 실시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시기가 처음부터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대의 천체학은 해득하기가 곤란하여 보편적으로 보급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천관(天官)들에 의해 이것이 연구되고 또 관장되었으며 그들이 해득한 천체의 세시기에 따라 그해는 물론 앞날의 해사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수립된 행사계획을 통치자는 온 국민에게 권장하여 이런 행사가 되준이 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세시풍속으로 되어 보편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관(天官)들에 의하여 세워진 행사계획이라 하여 무조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백성들에 결자 잘 살수 있는 풍속은 미풍앙속(英風食僧)으로 남아서 권장을 받게 되지만 백성들에게 피로 음을 주는 행사에서 얻어진 풍속은 악풍(惡風)이라 하여 배재시켰던 것이다.

1) 세시기는 통치자가 만민(萬民)을 다스리는 근본(根本)이었으므로 통치자도 자기 마음대로 통 치하지 못하고 세시기라는 엄격한 법도에 따라 통치하야만 했다. 만약 슬기있는 선조들이 아 니었다면 어떻게 1년을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 나누고 비와 바람이 부는 때를 알며 해가 적 도(赤道)와 황도(黃道)라 하여 천구상(天珠上)의 태양의 궤도가 하늘의 적도에 따라 23,5도로 기울이겨 유행하는 시간을 알며 싸를 뿌릴 시기와 수확한 시기를 알아낸 수 있었겠는가.

- 2) 5기중 율력에 따라 1년365인을 하루 아닌 연각도 폐지 않고 10간 12자(十千十二支)로 표기하여 행사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선조들의 슬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선조들이 세위等은 경영정책은 오히려 과학적인 정책이며 나아가서 기시적인 경영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세시풍속이 후대에 이르러 음사(從嗣)하다느니 또는 무속(巫俗)이니 하며 지만을 받게 된 것은 결국 후손들이 선조들의 세시풍속을 지키지 못하고 외래 침략을 받으면서부터 나온 말이라 할 수 있다.
- 3) 새시기에 보면 역사는 부궁하고 유구하며 인간의 생명은 짧다고 하였다. 까닭에 한정된 수명에 지혜를 가진 인간의 행사가 어찌 부궁무진한 변화를 가진 새시경영에서 만전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글에도 이(理)는 난(亂)을 다스리는데 있고 새(勢)는 곧 성석(旋衰)라고 하였다. 즉 미풍양속은 아껴서 부강하였던 이 겨래가 외적의 침략으로 백성은 농기구를 버리고 병장기를 들게 되나 농토는 황폐화되고 따라서 그동안 즐겨 거행하던 새시풍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세리라 더욱이 싸움에 패하여 나라가 당하고 외세의 만압을 받게 되면 모든 새시풍속이 타의적으로 변정된은 통사고급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 4) 우리의 세시풍속은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이 성립되기 이전 삼국시대의 세시풍속의 채제를 갖추어 그 근원을 밝히는 정리 작업이 시급한 파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옛 세시기 와 풍속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우리가 있다. 그 예를 들면 우리의 변속 중 강강수원래는 그 기원이 명백하지 않아서 혹자는 임진왜란중에 충무공의 위병술(僞兵術)로 이루어졌다는 등 근원이 애매하고 또 변속인 서도잡가(西道雜歌)에서는 우리 율(禄)에다 적벽가의 가사(歌詞)를 붙해서 부르는 피어한 노래이다. 예술에 어찌 국경이 있겠느냐만 그러나 우리 변속이라고 보존 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의 가무기(歌舞技)는 반드시 세시행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많은 항가(郯화)도 모두 세시행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 길쌈의 가위에는 회소품의 가무기가 펼쳐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4. 십이지(十二支)란 무엇인가?

한나라 예문지를 보면 세시기 즉 5기를 아는 기준은 누구나 지해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정한 기강이 있다고 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는 정문학을 전공하는 이른바 군왕의 친 판(天育)등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분야의 진실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다만 세시기를 형성하는 개념만을 알아야 한다.

첫째: 세(歲)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을 뜻하며 첫 번째 간지(干支)의 갑자일을 세수(藏數)의 천통 (天統) 세수가 갑진날을 지통(地統)이라고 한다. 이런 역수(曆數)의 법도(法度)를 세시법에서 기 (紀)라고 부른다. 이렇게 계산된 세의 수가 30일 때를 한달로 정하며 또 열두번차면 이것을 1세(一歲)라고 한다. 분론 1세 중에는 다소 복잡한 10간 12지로 계산하고 또 이것을 절기로 나누어 구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와 같은 법도는 우리가 오랜 세월을 두고 연중행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스스로 더득한 것이다.

둘째: 일월성진(日月星辰)등이다. 일(日)즉 해는 황도(黃道) 적도(赤道)로 나누고 또 달(月)은 매 삭(毎朔)으로 나누고 성진은 28숙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있다.

셋째: 역수(曆數)다. 역수란 이상의 첫체의 현상을 알고 위도(緯度)를 헤아리는 것으로서 홍범 의 5행(五行)을 원리로 하여 황종(黃鑵) 임종(林鎭)의 용(律)을 가려 그 생성 변화의 기준을 10간 12지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더욱이 역수는 식화지(食告誌)의 도량형(度量衡)과 가무악의 융까지 목 동시에 제정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유럽을 알면 가무악의 최도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도략형 의 제도를 돗시에 앞게 되며 이것을 기주하여 돗치를 하게 되면 만만의 돗치자의 제재를 받지 않고 즐거운 연중행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일월성신에 대하여는 천문지(天文誌)란 법도가 있 다. 물론 중국에서도 맹강(孟康)과 감석(甘石)등의 천문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천문지는 점(古)을 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예를 보면 한나라때도 전한(前漢) 후한(後漢)을 막론하고 역대 통치자는 천관을 두고 천체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힘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천관들은 천체의 기강을 엄밀하게 세우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체의 변 화에 통치자들이 자숙하거나 또 제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천체를 빙자하여 백성을 제약하는 방 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많은 사서의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낮의 해성(彗星)나타나기라도 하면 전쟁 등 불길한 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성벽의 수축 혹은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 만이 골탕 먹기 일쑤였다. 이러한 예는 고려조와 조선조의 풋조에도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 까닭은 고려조와 조선조에 와서는 우리 선조들이 즐겨 쓰던 세시기를 버리고 중화사상을 위주로. 하는 중국의 통치 형태를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조들이 사용했던 세시기와는 다른 정치 풍토가 조성되고 나아가서는 다른 세시풍속이 조성되고 말았던 것이다. 홍범9주의 3강에는 8 정(八政)이란 제도가 성문화(成文化)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치를 하는 군왕이라도 제약을 받게 하 는 법문(法文)이다. 이8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식(食)으로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강 조했고 둘째는 재화(財貨)로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화의 유통을 말하였 다. 셋째는 사(祀)로서 제사(祭祀)를 말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제사지내는 사당(祠堂)이 많았는데 제사하는 법도를 중국의 사서(史書)에서는 음사(淫祀)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당 에 제시는 풍토 그 유래가 홍범의 세시 행사에서 유래한 풍속인 것이다. 이것을 한나라 이래의 중 국의 사서는 고구려에는 사당이 많고 또 제사를 하는 법도가 있어 음사라는 말을 썼지만 이는 홍범 9주의 기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론 세시기에는 연중행사를 결정하는 대망 (大綱)이지만 행사의 방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홍범9주를 기준하여 거행하였다. 고대 생활에 서는 세.일.월 성진을 음력으로 계산하고 이 울력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10간 12자를 사용하여 소 위 천체를 통할하는 법을 천통이라하여 10간중 첫 번째의 갑자(甲子)를 말하고 또 천체의 상대성 워리를 받아서 변화하는 땅을 12지로 정하여 5수에 해당하는 갑진(甲辰)날을 이른바 지통(地統)의 날이라고 한다. 또 이상의 통솔에 의해 사람은 하늘과 땅의 영향을 받고 변화 생성하는데 그 수를 3수인 간인(甲寅)날을 인통일이라하여 연중했사는 전기의 3가지가 모두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까닭에 자동(地統) 인통(人統) 천통(天統)등 3개의 수가 조화를 이루어 첫 번째 날을 기(紀) 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른바 세시기라고 이름한 것이다. 음력서에 따르면 1년 365일을 황종륜(黃鐘 律) 인종률(林鐘律)로 나누고 이것을 음률(音律)의 성장쇠망(成長衰亡)과 비유하여 그것을 10간 12지로 표시한 것이다. 또 1년을 24전기인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침(驚韓) 춘분(春分) 첫명(淸 明) 곡우(穀雨)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立秋) 처 서(處暴)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 至) 소한(小寒) 대한(大寒)으로 재정한 것은 농사에 있어서는 적정한 지표요 도 알맞은 구분이라 할 수 있는 기강이다. 이삿의 24전기는 모두 유력에 제정한 천체는 변화를 풀이한 것으로 농경사 회에 있어서는 한 절기 혹은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홍범의 세시기에 따르면 이상의 24절을 축소하여 8절기로 나누어 이 절기의 세시 행사를 중점으로 거행한 혼적이 있다. 따 라서 고대의 8절기를 중심한 즉 동지 입춘 입하 하지 입추 추분 입동의 계절을 중후한 세시 행사를 거행한 것으로 품이 된다. 이에 대하여 송나라의 주회(朱熹)도 1년 365일을 홍범의 율력시대로 99 수로 계산하여 이상의 8절기의 숫자를 산출한 것은 역시 율력서의 세시기 계산 방법과 동일한 것 이다.

5, 무속(巫俗)과 풍속(風俗)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따르면 정월달 중 상해일(上亥日) 상자일(上子日)을 위시하여 묘일 (即日) 사일(巳日)등 12지(十二支)에 해당하는 첫날에는 각종의 행사를 했다고 한다. 상해일과 행 사를 보면 궁중의 환판(宦官)들이 수백 명씩 모여서 횃불을 땅위에다 이리 지지고 또 저리 지지고 내저으면서 돼지 주둥이를 지진다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다 하니 그 구경거리도 볼만 했다 한다. 그 밖에도 사일(世日)에 머리를 깎지 않고 빗절까지 하지 않았다. 이런 날은 구설수의 액(厄)이 있다 하여 여인들의 문박출입은 문론 남자들까지 문밖출입과 행사까지 꺼렸다 한다. 이 까닭에 정원 중에 직접 간접으로 행동의 제재를 받는 형제에 놓여 있었다. 무롯 세시기에는 입법 정신이 아니다. 정원중 상해일에 무슨 일이라하여 머리를 못 깎고 또 행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생산을 저해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기산상(武算上)으로 볼 때는 동짓날에서 계산되는 상해일의 동짓난 이후가 될 것이며 정원중의 첫 12지난은 상해일이 아닌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정원은 인월(實月)로서 사람을 천거하는 인월(實月)이라 하여 사람의 활동을 권장하는 닫인 것이다. 정원 중에 상12지인(上十二支出)을 제한하는 것은 모법(母法)에 이긋나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이 12지란 동윤상으로 한 것은 다만 표기(標記)의 방면인 뿐 아무 뜻이나 철학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시기를 소상히 모르는 사람은 12지의 동물상을 가지고 엉뚱한 오행(五行)으로 해석하 거나 또는 점패 등 패변을 가지고 민심을 현혹하는 예가 많으나 이것은 미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속은 모름지기 우리의 선량한 세시풍속을 저해하기 위하여 방사(方士)점술가 등이 만들 어 놓은 것이다. 만일 무슨 날을 액일(厄日)이라 하여 하루만 농사일을 못하게 하여도 전국적으로 통계하면 실로 막대한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액일이라 하여 활동하지. 않고 적(敵)이 그날을 역 이용하면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략을 수해 함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는 전쟁사(戰爭史)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즉 적국에 점술가를 보내서 그러한 계략을 써서 못사람 을 모두 집안에 묶어 놓은 후 성읍을 피하방을 흘리지 않고 점령하 예도 있다. 고대의 병술에 따르 면 명장들은 군진중(軍陣中)에서 는 어떠한 전무(占巫)나 미신 행위도 엄금 한다 했다. 그러나 적 국에서는 복숩가와 방사(方士)를 보내 적국의 풍습을 해치는 동시에 액일 등을 이용하여 적국은 물론 적국의 후방까지도 모두 손발을 묶어 놓은 일을 종종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고구려 백제 에는 당나라의 잔재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또한 당나라 장수들의 악의 에 찬 이런 계략들에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현혹되어 그러한 미신적인 풍속에 속아서 그 술책에 따 랐던 예도 있었다. 삼국사기의 예를 들면 고구려 비기(秘記)에 이르기를 900년 된 고구려는 앞으로 80세에 난 늙은 장수에 의하여 멸망한다라는 소문이 왕성은 물론 벽추까지 퍼졌다고 하였다. 이 비록의 내용은 후대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진상을 알고 보면 당나라 장수 이세적은 방사를 고구 려에 보내서 고구려의 장수 안고(安固)라는 자에게 한 말로 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

줄 80세란 닷나라 이세질이 고구러를 취 때가 이미 75세가 넣는 고로 자신이 80이 되면 반드시 9 백년이 된 고구려를 멸한다는 계략인 것이다. 실로 가공한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천 8백년전에 이미 이러한 전술을 써서 민식을 현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서 능히 전술가와 방술가를 동원하여 생산을 저해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 된다. 그러므로 세시풍속이라 하지만 그 유래와 취지며 이해를 소상하게 가리지 않고 오직 맹목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실로 위험 천만한 풍속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풍속은 멀지 않아서 이웃마을까지 파급되고 나아가서는 양 속(良俗)을 저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속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는 무속적인 것이 가장 많다. 즉 무당의 굿 소경임기 법사들의 부적 등 다양한 무축(巫祝)했위가 있음은 볼 수 가 있으며 이러한 행사는 설날 등 명절과 상제에 반드시 등장하여 시간 재산 등의 낭비를 조장하는 것을 엿 볼 수가 있다. 또 이 행사는 조선 이래 일제(日帝)때 까지도 세시 행사의 하나로서 혹세무 민(懿世誣民)의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에는 동국세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또 무축의 방법도 천대만상이다. 물론 그 원인은 세시기에 천재의 일, 월, 성진 등을 중심하여 그 변화의 척도를 가진 천체학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문적이 아닌 속청(俗稱)으로 표현하면 그 표현되는 용어는 무 축하는 자의 생각에 따라서 별질 될 경우가 많다. 하늘을 상징할 때 해(日)하나로 표현 할 수도 있 고 또 별 혹은 달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더욱이 서민층이나 천문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는 세시기의 천체를 논하기는 어렵고 달 하나를 말해도 하늘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상례 이다. 그 뿐이 아니라 옛날 조상들이 천제(天祭)를 지내던 제기(祭器)의 일부분을 받드는 것도 천 제의 방법으로 여겨 왔다. 이러한 풍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것이니 이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잘못도 많다.

이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반드시 세시기의 기강을 제기위에 갖추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시기는 이른바 천제를 이윤으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기독교의 모세의 천체로 비하면 모세는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하느님의 십 세명을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인 재주가 하느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제사를 평계로 제문을 탐내고 또 방종한다면 그 제사는 아무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이나 도는 천체의 운행을 규정한 세시기를 놓고 그 체제를 절대적인 하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은 실행하겠다는 맹악을 제주가 군왕에게나 필부라 할지라도 모두 동동한 권익을 낮게 되는 평등한 제사이며 또 만만을 위한 선량한 세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시풍속은 통치자가 통지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세의 풍속도 변하여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연중행사가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가운데서 습관화가 되어 그것이 풍습이 되는 것이다. 즉 군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통치를 하고 만만을 강합하고 혹사하는 동치하에서는 오히려 백성들은 그 군왕의 뜻과 다른 옛날 성현들의 세시행사

를 더욱 그리워 할 것이며 또 군왕이 전정으로 만민을 위하는 선정(舊政)을 베풀 때는 군왕의 세시 행사 그 자체가 옛 선왕들의 선량한 풍속을 답습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따르며 구태어 또 다른 행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중 3중의 행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위정자(馬政者)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세시풍속은 많아지는 에가 고대사회의 형태라 할 수 있다. 또 폭정자의 풍치하에서는 반드시 무속 행위가 많아지는 것은 백성들이 외 번으로는 그 동치를 따르지만 내섬으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무속신앙에 기울이지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 예를 우리나라의 민속에서 살펴보면 조선과 일제하에서 만속중 무속의 성격을 딴 풍속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처음에 괴로운 신정을 달래기 위하여 한두 차례의 무속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서 세월이 흐르면 향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다. 그래서 풍속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있는 것이다. 제사 행사의 근본 목적은 임금이 스스로 행하고 각료나 못 백성들에 권 장하는 목적은 그 나라의 독립과 부강을 위하여 선조들이 남겨놓은 선량한 비풍양속을 길이 반들 됐다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다.

6. 세시풍속과 일상생의 문학적 의미

급격히 산업화되는 현재의 지점에서 서구식 생활문화의 실용성에 의해 점차 사라지는 전통적 문화생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평가도 이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전승 담당자들의 노 령화 그리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는 지방 문화의 기반으로 생활문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평가 등의 필요성에 의해 민속조사는 국토개발사업의 차원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단군조선 이래 로 지급까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형성되어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와 학자 들이 배출되었으며 묵묵히 땅만 파는 농민들도 무수히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음은 바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존되어야 하며 후세에 여전히 그 혼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마음을 하나의 독립된 생활단위로 유지하는 길밖에 없 다. 생활을 함으로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존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 은 지급과 같이 전통을 이어 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음은 여전히 유용한 생활공간으로서 보존되 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을 위한 경제적 가치와 함께 생활문화가 보존되는 문화의 가치를 아울러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개발사업도 지금과 같이 마을을 없에고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나 공 업단지의 조성과 같은 차원은 꾀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공사는 기준의 역사를 말살하고 전혀 새로 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규모 주거단지가 하나의 생활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 까지 는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린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와 문화를 만살하고 새로운 역사와 문화를 이륙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식민지 역사와 문화정책과 다듬없다. 이러한 정책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1945년 8원15일 광복된 지 70년이 다 되도목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정책은 구 수준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생활 유적을 모형으로 복원하고 남겨야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속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래전부터 전송되어 온 특정지역의 생활문화를 정리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되어 온 세시풍속은 우리의 삶이며 생활 그 자체를 조상들로부터 미풍양속으로 물러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삶의 생활을 재현하는 뜻에서 길이 보건하며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은 통하여 이루어진 마음의 정착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생활 유적의 하나인 동시에서 생활문화 단위인 것이다. 그 안의 신석기시대부터 전터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까지 무수한 역사적 시간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흔적들이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에 일부이며 생활문화의 박물관인 것이다.

1) 일상생활과 민속학

교유한 민속학은 일상생활에 대한 제계적인 이해 방법과 조사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나하면 민속학이 존재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전체 모습을 재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적절한 중간 수준의 분석 단위로 세분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에 의해 일상생활이 갖는 민족문화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의미는 바로 세시민속학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학문들과 함께 하나의 학문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 문화적 의미는

첫째: 민족문화가 그 민족 집단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된 것이라는 데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생활양식이 다른 민족간에는 각각 다른 민족문화 문 반달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 집단은 다른 민족 집단과는 달리 일상생활의 양식이나 민족문화에서 우선적으로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일상생활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인상 생활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발달시킨 문화적 성과이다. 우선 땅위에 자연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발달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외식주에 따르는 모든 행동은 땅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얻어지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생문화 적 육체가 갖는 본능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은 주로 의식주에 관계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동역을 바탕 으로 하여 형성된 우리나라의 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생산을 위한 농사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를 위한 가사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

셋째: 그러나 인상생활의 인차적인 문화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한 활동의 중간 중 간에 비일상적인 환동 즉 일이 아닌 다른 활동이 끼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여가 또는 짬을 내서 하 는 활동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분화 활동과는 구분이 된다. 그러나 내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일차적인 일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보다 원환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틀어 이차적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현상을 주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신(神)에 대한 관념 이나 의례 그리고 예술과 늘이 와 행사적 활동이 포함 된다. 이러한 것은 위에서 말한 농사와 가사 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발답시킨 것이 기 때문에 고유성을 갖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생존 방법과 생활방법은 이 땅위에서 인간이 살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를 기치면서 일상생활속에서 일정한 형태로 체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당한 역사 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이 취사 선택하면서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 양식은 생활을 통해서 후대에 전승 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 서 배워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은 육체적 분능을 해결하는 일과 그렇지 않 은 이차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생활문화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적으로 표현하여 민속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므로 민속은 역사성과 함 게 이어져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생활분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통합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은 행위 물질 그리고 언어라는 세 종류의 표현수단과 전승 수단이 기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이것을 통해서 구채적으로 후재에 전승시켜 이 세 종류의 표현 수단과 전승수단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결합된 것이 생환문화는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 민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특정한 관념 즉 생활판에 의해서 선택되어 건합된 중 세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생활문화속에는 우리민족이 역사적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생활관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러한 전승 활동 즉 행위 물질 언어전승이 일정한 체계속에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는 바로 다른 민족이나 생활집단과는 다른 고유성을 갖기 때문에 중요한 민족문화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문화는 민속을 고유한 연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단이 하나인 민숙합이며 이 민숙합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생활당식의 전승 내용과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생활관을 규명하는데 학문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7. 경기지방(京畿地方) 문화의 세시풍속

- 1) 우리나라 중서부에 위치해 있다. 고대(古代)에는 마한(馬韓)의 영토로 한강 남안(南岸) 광주 (廣州)지방을 중심으로 큰 부탁을 형성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정립으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변은 공방의중심이었다. 처음에는 백제가 차지하여 북 한성이라 칭하고 그 후 474년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이 와서 백제를 물리치고 이곳을 차지하 였다. 신라 진흥왕(眞興王)때 고구리를 물리쳐 임진강을 신라가 영유하고 심국을 통일한 후 에 이곳을 한산주(漢山州) 경덕왕(景德王)때 한주(漢州)그 후 한양군(漢陽郡)이라 청하였다.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자 양주(楊洲)라고 개칭하였고 성종(成宗)때 국내를 10도 (道)로 나누면서 이곳은 국내도(國內道)라 청하였다. 현종(顯宗)때 양주(楊洲)와 광주(廣州) 를 합쳐 양광도(楊廣道)라 개칭하고 따로 그 부근에 13현음 중앙에서 직항하여 경기(京畿)라 칭하게 되었다. 1079년 문종33에 신궁(新宮)을 경기도 안에 조영(造營)하고 근방제군 세제를 갖추었고 이를 경기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었다. 1402년 태종2년 국내를 8도로 나눌 때 좌우 양도름 합하여 다시 일개도로 하며 경기도로 하였고 1413년 황해 강원 충청3도의 경역(境域) 을 변경 1416년 경기도의 일부를 강원도에 항양(測論)하였다. 1896년(건양1)전도를 4부(府) 30군(郡)으로 하고 관찰부(觀察府))를 수원에 두고 이를 관할하는 한편 따로 한성부(漢城府) 를 서울에 두고 중앙의 직함로 하였다. 그 후 수원 강화 개성의 3부를 군으로 하였고 양근(拐 根) 지평(祗平)을 합하여 양평군으로 청하게 되면서 인천부의 36군(郡)이 되었고 한성부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1910년 일본의 침탈(投發)한성부를 경성부로 고쳤고 1946년 경성부를 서울특별시로 숫격시켜 경기도 해정구에서 분리 현 도첫소재지는 수위에 자리 잡고 있다. 조 선시대 지방문화는 지방 자치적인 행정제도와 함께 농업의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 되었다.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중심지 읍치(邑治)의문화로 대표할 수 있다. 경기도 지방 의 행정과 문화를 심질적으로 관한하고 주도하던 세력은 바로 농년과 일상적으로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던 토착세습 향리들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지방문화는 바로 토박이 집 단인 농민들과 향리들이 조선시대 이전의 문화전승담의 당사자로서 굳건한 지역기반을 가 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성격의 비 유교적인 전통문화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예전부터 서 울을 안고 있는 경기 지방은 조선 왕조의 세시풍속이 그대로 전해져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세 시풍속은 1년 단위로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전승으로 생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되었다.
- 2) 민속조사와 연구는 그 연구 대상으로서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1차적 기반 즉 생계를 위한 생

산과 소비를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생활단위가 갖는 사회적 상황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함께 2 차적 표현행위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생활 단위로 개인ㆍ가족ㆍ천족집단ㆍ마읍ㆍ지역사회를 포함하고 3간 구성체계에 의한 인간ㆍ공간ㆍ시 간에 관계되는 자료의 조사와 분석 그리고 전승 수단으로서 행위문화 물질문화 언어문화에 대한 충췌적 조사와 연구를 아울렀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연구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 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고 효율적인 민속조사와 연구를 위한 편의적 분석 단위로서 일상생활 을 기능적으로 구분하여 생활문화의 모습과 그 주체적인 사람들의 관계를 잘 드러내도록 고 리하였다.

3) 경기 남부 지방의 대표적인 수원시 성남시 해안을 까고 있는 평택시 안산시 등이 있으며 경기 북부지방의 양주시 고양시 연천군 등이 있다. 특히 해안을 철하고 있는 지역은 농경생활과 더 불어 어업도 생업에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 해안 지역에서는 반농반어적(年農平適的)인 생활과 함께 세시풍속에도 어업 풍속이 풍어를 기원 하고 무사 출어를 위해 행해 졌을 것으로 생각 된다. 세시풍속은 1년 단위로 매년 일정한 시기로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전승되는 민속생 활의 선조들의 일상생활 자체를 맡한다. 설, 상원(上元), 한식(寒食), 단오(衛午), 추석(秋夕) 등 일반적인 의미의 명절과 1년 중 중요한 뜻을 지닌 날에 행하는 생활양식을 발하는데 이러 한 날은 1년이라는 일상을 마디로 지어 주기를 구분하고 무형의 행위전승이라는 성격상 보편 성을 마면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조상들로부터 미풍양속을 몰려받은 것이 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경기도는 경복공의 군왕의 세시 행사 그 자체가 옛 선조들 의 선량한 풍속을 답습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파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각 지방의 세시중속으로 이어져 왔다고 본다.

8. 민속학으로 본 경기(京畿) 명절(名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행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32페이지 잡지(雜誌)제4 제사된(祭祀期)을 상고하면 신하는 물론 백제 고구리 등은 다같이 정원 초순에는 종묘와 사직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까닭에 정원의 행사 중 종묘와 사직 그리고 천지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율력(律曆)의 세시기의 기강대로 좋은 안재를 선발하여 연중행사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비는 행사였다. 서울에 경복궁을 안고 있는 경기지방에서도 정원 초하루가 되면 나라에서 종묘에 제(祭)를 옮리듯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도 조상에게 먼저 딱국 차례를 옮리는 일로 새해를 맞는다. 그 후 집안 어른들에 세배(歲拜)를 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세찬(歲費)으로 음복(飲福)을 한 후에 친척과 이웃 어른들에

게 세배를 다녔다.

1) 차례(茶禮)

설날 아침에는 경도(京蘇·서운)를 위시하여 온 백성이 모두 차례를 지내는 풍속으로 자기 조상 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조상을 위하는 미풍양속이라 한 수 있다. 그러나 지위 품위를 자랑하고 또 부호(富嶽)를 자랑하기 위해 세찬 등을 호화롭고 다채롭게 하는 풍속은 일반 서민층까지 파급되어 설날에 마련하는 세찬(歲攬)과 세주(歲酒)동으로 낭비되는 풍토가 심하여 설날이 지나고 나면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폐풍(辨風)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풍토는 근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명절의 제사를 차리는데 있어서 마치 대상이나 맞이한 양 호화롭게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낭비하여 후손들을 힘들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풍속은 아무리 선조들이 거행하여 온 풍속이라 하지만 이것을 미풍양속이라 권장한 처사는 못된다. 살아생전에 편히 모시고 효도하며 물아가신 후에라도 분료(抑塞)든 남골당(納유堂)이든 자주 찾아뵈어 잊지 않고 은해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2) 세배(歲拜)

설날의 차례가 끝나면 그 가정은 이때부터 세배로 들어간다. 차례가 끝나면 차례에 참여했던 인 가천척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백부, 숙부, 형, 아우, 자매 동의 순서로 세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세배가 끝나면 그 문중은 모두 차례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서 조상에 대한 은혜의 고마음에 떡국이나 숨잔을 돌리가며 덕담을 주고받는다. 에로부터 백성들은 예의를 귀중히 여기고 그 예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예의에 어긋나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었다. 한해를 시작하는 초하룻날부터 인사법의 바르고 예절을 잘 지키는 것을 풍습으로 살아왔다. 세배는 설날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원 보름날까지 계속되는데 그 일가가 먼곳에 있으면 수십리 혹은 백여리 민곳까지 찾아가 안부를 묻고 세배를 하였다. 이 풍속은 우리의 미풍의 양속으로 삼국시대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풍속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배를 받는 편에서 세배를 받으면 만드시 용해는 벼슬이 높아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성공을 이목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새해는 임자의 뜻이 개회을 이록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형식으로 주고받는 세배가 아니라 새해의 설계 행사와 관계를 가지는 관계를 말한다. 물론 세배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나라와 자신과 자식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라고 원장하는 뜻도 포함되는 인사만로 해석함 수도 있다.

3) 민일(人日)

요즘들어 낯설은 말이다. 삼국시대에는 정원들이 첫 번째 인일(寅日:일진(日底)의 지지(地支)가인(寅)인날 갑(甲)인(寅)병(丙)인날 따위 법날)을 인일(人日)로 정하여 행사가 벌어진 것을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 여겼는데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왜인지 모르겠다. 삼국시대에는 한해가 시작되는 정원달을 모두 사람의 달로 정하여 조정이나 지방의 수령들에 이트기까지 사람을 받드는 달로 행사롭 거행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람의 날을 정하여 이 날은 왕께서 동인숙([泉人縣:참술 연습용으로 쓰는 구리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제확(提學)에는 인원제(人日製)라 하여 성균관 유생 중에서 천거를 받은자에게 시과(武科)하여 포상하는 행사가 있었다. 왕이 동인숙을 대신에게 주었다는 것은 풍속이 어느 때 생겼는지 소상히 알 수 있으나 그 기원은 의 인통법(人統法)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인숙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역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동(劉)은 급(金)이고 급성(金森)은 인(仁)와 의(義)로서 만물의 정(統)에 통한 수 있는 사람이라 하였다. 까닭에 동(納)으로 인숙을 만들었다는 것은 후대에 와서 인일(人日)이 금을 상징하여 동인숙을 반들어 주는 풍속이 생겨난 것으로 해석되고 또 제학에서 시험은 본 것도 윤력법 정신에 합치되는 세시행사로서 삼국시대의 세사풍속과 그 양상을 달리하지 만 근본 목적은 다름 바 없는 행사인 것이다.

4) 상원(上元 : 보름달)

정월15일은 대보름날로서 이날을 일병 상원이라고 한다. 상원인은 율력에 따라서 재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人)의 달이요 동시에 새해의 첫난 중에 반원(滿月)을 맞이하는 날이라 상원이란 명분을 내세워 명절로 꼽는 날이다. 더욱이 정조부터 많은 행사가 겹쳐서 맞이하는 첫보름날은 찹쌀을 쪄서 밥, 대주, 판, 콩, 갓, 동을 섞어서 거기에 참기름과 꿀을 넣어 비벼 섞어 주면 약반 약식이되는 것이다. 보름날 하루전날인 14일은 오곡밥해 먹는 날이다. 시례기나물 콩나물 숙주나뭄 도라지나물 취나물 고비 고사리나물 등 아홉가지 나물에 찹싼 맵싼 콩 수수 조 등 여러 가지 곡식을 넣은 오곡밥을 해먹는다. 이날은 이집 저집 다니면서 아홉 번 밥을 얻어먹는다. 아홉 번 밥을 얻어먹는 만큼 이홉 번 지계 걸머지고 앞산 뒷산에 가서 나무 아홉점을 해 나르기도 한다. 이렇게 밥을 당이 얻어먹고 먹은 만큼 인을 해야 대풍이 든다고 했다.

5) 청명(淸明)과 한식(寒食)

청명과 한식은 대개의 경우 음력2원중에 드는 것이 상례이지만 역법상 윤달이 들어서 달수의 계 산상 여러해만에 3월중에 들 때도 있다. 또 청명일은 한식일보다 하루진날에 드는 것이 원칙이나 세시의 계산법으로 같은 날 들 때도 있다. 청명 한식은 고대 윤범에서 농사를 위주로 제정 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계절에 따라 농사를 지어서 중년이 들면 나라가 부강하였다는 기목은 있지만 청명 한식의 명절에 세시행사가 있었다는 기목은 않고 다만 시묘(持寨·부모가 죽은 후 3년간 무덤 옆에 막음 것고 사는 일)살이가 있었다는 기목은 많다. 이러한 혼적은 4-5천년전에 유물로서 고인물에는 오랜 세월 돌음 세위 얹어서 과들어 간 것을 보아도 일년에 몇차레의 차례를 지별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수년간은 시묘살이 한 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한식날에는 조상의 묘급 찾아가 차례를 지내고 무덤을 살펴보는 풍속이 행하여 쳤다.

6) 곡우(穀雨)와 입하(立夏)

곡우는 24절기의 하나로서 나라에서는 법씨를 농민들에게 내어주며 못자리를 권장하는 행사로 바쁜 때이다. 입하는 8절기의 하나로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절거이다. 입하가 되면 농작품도 자라지만 이와 아욱러 해축도 버섯하고 잔추까지 자라서 이것을 제거하는 논김대기 반김대기 듯 잡품뽑는 행사도 권장하였던 것이다. 예전에 조상들은 좋자(種子)와 거름을 장반하고 농기구들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좋지를 마련하는 것은 한해 농사에 좋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자의질에 따라서 소출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옛날 속담에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 주머니를 베고 죽는다고 한 것은 농민들이 종자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 처럼 종자를 소중히 여겼으며 농민들의 생활 속에서는 종자 마련과 관련한 여려가지 풍습이 생겨 나게 되었다. 좆자 마련에서 중요한 것은 좆자가 쐬거나 엄지 않도록 잘 보관하는 것이다. 가을에 추수한 때부터 암암이 영금은 종자를 골라서 충분히 말려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 종자 보관법은 저역에 따라 방법이 달랐지만 대체로 대청마루나 건너방 천장에 덕대를 매고 얹어 두거나 치마끝 에 걸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 방법은 당시로서는 종자의 부패 변질과 짐승들에 의한 피해 를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종자 마련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에 좀이 나지 않게 하며 보 다 좇은 종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농사직성에 보면 파종 시기가 되면 눈녹인 물에 종자를 담구었다. 가 음지에 말리는데 그 종자를 심으면 추위에 건덜 수 있고 수확도 배로 난다고 하였다. 농사철에 서 중요한 농경 도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농정기를 미리 준비 해 놓은 것은 논밭갈이와 써붙임 김매기를 제철에 해야 그 해 농사를 잘 자라게 하는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예전에 논쟁기를 장 만하는데 신경 썼던 것이다. 나무나 볏짚 싸리 같은 재료로 만든 농기구는 농가들에서 자체로 만들 어 손질하여 썼다. 그러나 쇠붙이로 된 호미와 낫같은 농기구들은 대장간의 손을 벌어 새로 만들게. 나 다시 날을 세워 벼리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료와 품값은 그 해 가을에 곡물로 주는 것이 하 나의 풍습으로 되어 있었다.

농가들에서 준비한 농기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지계, 삼, 팽이, 가래, 쇠스랑, 호미, 낫, 곰 배, 씨래, 가래 등 이였다. 가난한 농민들은 큰 논쟁가를 자체로 장반한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었다. 그들은 이웃 간에 서로 돈읍 모아 큰 생기들을 마련하여 이울려 썼다. 농기구를 준비하는 데 는 나이 드신 노인들이 역할이 매우 챘다. 작은 농기구는 주로 농사일에 경험이 많고 손재간이 있는 노인들이 말아 장만하였는데 노인들은 자기 집의 농기구뿐 아니라 일손이 없거나 모자라는 이 웃집의 것 까지 마련해 주었다. 노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웃사이에 지켜야 한 도리로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예로부터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살아온 선조들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서부터 비롯되었다.

7) 단오절(端午節)

5월 5일은 단오날 중오절(重五節) 또는 천중절(天中節) 술의(戌衣:창포와 익모초 삼배와 모시)의 날 등으로 불렀다. 단오날은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선동제의 행사를 거행하는 날이었으나 세월이. 호름에 따라 그 햇사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조선시대 단오절을 보면 동국세시기에 이른대로 임 급이 중신들에게 쑥으로 만든 애호(艾虎:쑥 연고)를 나누어 주고 곳조(王曹)에서 만든 단오선(端午 扇)등을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 원래 공조란 지금의 공부(工部)에 속하는 기관으로 모든 생산 물은 공부의 소관이었다. 고대(古代) 고기(古記)에 따르면 공부의 상징은 겨울에 추녀 끝에 고드름 이 주렁주렁 달려서 유치로운 것과 냇가에 살얼음이 녹을 무렵 천태만상의 기묘한 형태로 얼음이 얼어있는 것을 최상의 상징으로 하였다. 한다. 공조는 대나무가 생산되는 전주 남원 등지에서 수령 에게 각종 도안과 제작 방식을 가르쳐 준 후 그곳에 수령들이 올리는 부채를 나라에서 쓰게 된 것 이다. 그때부터 여러 모양의 부채들이 만들어졌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날 아침에 창포를 삶은 물 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희지도 않고 유기도 있다고 하여 고대로부터 창포로 머리를 감는 풍 속이 각 고올마다 퍼져 나갔다. 농가에서는 집근처 도랑에 창포를 많이 심어 두는 것이 농가의 상 레가 되었다. 익모초는 산모(産母)가 바람을 치는 약이라 하여 농가에서는 쑥과 더불어 상비약으 로 하는 풍속이 지금도 농촌에서는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지(夏至)이전 황종(黃鐘)이 왕성 할 때 품과 과일은 바람을 치고 또 더위를 먹는 병에 효과가 있다 하여 익모초와 오이 등을 따서 약제 로 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풍습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를 넘어서 의학적 풍속을 농가에서 세시 의 햇사로 거햇 했던 것이다.

8) 칠석(七夕)

칠석날에는 앞으로 다가 올 가을, 겨울에 입을 옷을 햇빛에 쪼이지 않으면 곰팡이나 좀벌레가 씀

것을 의식한 것이다. 물론 계절의 변화를 오랜 세월 체험하여 안 까닭이겠지만 칠석남 이후 8월의 햇살 따갑다고 하지만 옷의 숨기를 완전히 제거 한 수는 없었다. 그리고 청석날 저녁에 비가 내리 면 이것은 결우(產生)와 직녀(織女)가 까치나 까마귀가 놓은 은하수 다리를 건너가 만나서 기쁨의 격정의 눈묵을 흘리는 것이라 하였다. 또 새벽에 오는 비는 헤어지는 슬픔의 눈물이라는 정석이 있 다. 이 전설은 누구에 의하여 어느 때 생겨난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견우성(秦华星)과 작녀 성(繼女星)의 위치며 또 은하계(銀河系)의 위치를 가리고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칠석은 두고 지어 낸 전설의 말이다. 이 전설은 한날 세속적인 밤감고 김쌈하는 두 남녀의 사랑을 어쩜 수 없는 숙명 적인 운명으로 처리한 이야기 거리이다 작자는 고대 농경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두 남녀의 운명적 인 만남의 사랑과 이별을 결부하여 이승에서 있을 수 있는 침석날의 순애보(殉愛寶)같은 사랑의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중순이 되면 직녀가 베를 짜듯 농가에서는 삼을 베어 껍질을 벗겨 서 그것으로 길쌈을 하여 왔다. 고려에는 목화가 없었고 대마는 우을 만드는데 집중의 털가죽과 더 불어 간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배는 물론 여름철의 옷으로 시원스러워 좋지만 겨울에는 털가죽위 에 굵은 배를 씌워서 일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유리 이사금 신라3대왕은 7월15일에 6부의 여 자를 대궐 뜰에 모아서 두패로 나누어 봉당을 만들고 두 패의 통솔자는 왕녀 두 병으로 통솔하게 하였다. 그리고 7월 15일 기탕에서부터 밤늦게(乙夜)까지 결쌈을 시작하여 8월15일 기방에 이른 후에 그동안에 길쌈한 것을 척도로 가려서 승부를 경정하였다. 이때에 노래한 회소곡(會蘇曲)은 8 워 가위의 행사지만 이 행사의 시방은 7월15일 기만(經營)이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행사로 보아서 고대에는 누에를 쳐서 길쌈을 하고 또 삼을 쳐서 대마로 옷을 만드는 것은 나라에서 연중행 사 중 농경과 더불어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9) 추석(秋夕)

산과 들녘 마을길 어디를 가 봐도 갖가지 곡식과 과일들이 탐스럽게 익어갈 무렵 요즘 두달 가까이 내리는 장맛비는 풍성한 열패와 향기의 맛을 풍기는 과일맛은 물은 흠뻑 마신 듯 예진 끝자 않다. 눈고 푸른 가을은 간곳이 없고 환구름 대신 먹구름만이 천둥 번개를 통반한 번갯불에 굵은 빗중기반 새차게 내리고 있다. 여름을 노래하는 매미들은 천둥 번개에 눌란 듯 조용하기만 하다. 매해 추석 때마다 생업을 찾아 떠난 사람들도 추석이 되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민족에게 고향을 찾아오게 한다. 그러나 고향에 찾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고 한 어느 시인의 허무감은 고향에 들아온 사람만이 느끼게 된다. 기다리 주셨던 부모님은 고인이 되신지 오래되었고 그때 그 자리에 옛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팔월 한가위는 추석 가배(黨作)또는 중추진(仲秋節)등으로 불리는 날로서 이날은 성묘의 날이기도 하다. 추석은 2~3일 앞두고 도성(新娘)이나 농가름 탁론하고

차례 음식을 장만하고 산소에 벌초(伐革)를 하는 등 추분(秋分)이 되면 이미 가을이 저물어 가고 겨울을 알리는 입동(立冬)이 문밖까지 다가서는 느낌을 주는 때다 8월은 추수의 개절로 심라만상 의 반문은 모두 천지와 더불어 만월이 무르익는 계절이 깊어가는 것이다. 추석 때 지방에 따라 햅 생로 빛은 숏편 등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소이 성했대다.

10) 시제(時祭)

시체는 한해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조상의 은덕에 제(然)를 올라는 예식이다. 10월은 율력상 상달이라는 점도 있어 임금과 중신은 사직과 종묘에 제사를 올라는 행사가 있는 한편 백성들은 5 대조 이상의 시조 즉 문중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하는 달이다. 문증 제사는 같은 씨족의 분증이 모두 모여 화합하고 조상의 큰 뜻은 받드는데 있다. 고대 통치제도에서는 대부축 부족 등의 횡적 (機的)조작체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고려조에는 중엽까지도 이러한 조직은 필요로 하지 않고 통치를 시행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고려조 말에 이르러 씨족 제도가 성립되고부터는 지 방관정의 선조관(選抄官)등이 향규(鄉與)에 따라서 문증을 의식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향약(鄉對)의 조직과 아울러 씨족의 제보가 형성됨에 따라 문증의 행사를 향교에서 주관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제도는 부족제도가 아니고 오직 왕도 통치라 문중 행사는 향교의 행사와 아울러 왕도 통치에 전략하였다. 선산에 가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비용은 그 문중에서 거출된 자금으로 담당하며 떡,과일, 주안을 마련하여 조성들이 묻힌 선산에 가서 문중 행렬의 서열에 따라서 제관이 제사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11) 서낭제(**祭)와 성황제(城隍祭)

서당제는 지방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으나 10월중 산제(山然)를 지변 때는 민가에서도 서당제를 지낸다. 대지(大抵)서당당 앞에는 돌맹이를 많이 쌓아 두고 이곳을 오가는 사람은 반드시 서당당 앞에 절을 하고 돌맹이를 올려놓는다. 서당당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개의 전설이 있다. 첫째로 서당 당은 병쟁기가 되는 돌맹이를 쌓아 두기 위하는 방법이라 한다. 대저 서당당의 위치와 행사로 보아서 석기를 사용하던 때 둘맹이를 중상하여 석재를 수집하여 쌓아 두는 풍속은 병쟁기나 또는 석기의 재료로 쓰는데 필요한 수집 방법으로 간주된다. 둘째는 발이나 논에 둘맹이가 있으면 농작문에 불편할 뿐 아니라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다. 춘경기와 추경기에 한가한 농촌의 일순을 통하여 모두 서당제를 지내는 동시에 논밖의 둔맹이를 모아서 시당당으로 옮기는 행사는 발해 흙을 고르게 하는 동시에 병쟁기와 석재를 수집하는 행사라 일거양독의 입이다. 셋째는 서당당이 반드시 마음 어구 또는 산건을 넘는 고개 밑에 있음을 볼 때 서당당의 위치는 마음 업구나 성(數)을 방위하는 요

충지대에 있다. 야상의 이유로 볼 때 서낭당은 반드시 그 마음을 지키는 수호신 즉 무(武)를 상징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함 수 있다. 넷째 이유는 서낭당은 주나라 강태공의 본처가 안달이 나 서 죽은 귀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이다. 그 유래는 태공이 70세가 되도록 위수(渭水)가에서 곧은 낚시를 하고 있다가 문왕의 어가를 타고 궁전으로 가서 태사(太師)가 되었 고 무도한은 나라를 평정한 후에 제나라 왕에 오른 만고에 유명한 일묵이다. 그 태공만이 주 무와 의 명을 받고 제나라 왕이 되어 제나라 서울로 행차하는 때의 임이다. 5월의 무더운 햇살을 받으며 밭에서 감을 매던 수많은 농군들도 일손을 멈추고 대공망의 행차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 다. 농군들의 입에서 태공망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농군 중에 늙은 노파가 들었던 호마 를 내동댕이치고 미친 듯이 행렬 앞으로 달려가서 판을 벌리고 해렴음 박아성다. 노파는 거친 음성 으로 야이 맛(望)아 너는 본처인 나를 버려두고 혼자서 왕이 되어 가려느냐 나를 데리고 가라 욕석 에 가까운 노파에 말에 제왕 태콩망을 모시고 있던 문무제신들은 물론 군사와 순라들의 귀까지 의 십가게 하였다. 형세가 이에 이르자 왕의 행차 행렬도 그 위업을 잃었고 행렬은 행군을 할 수 없었 다. 그것은 태공망의 본처라는 말에 행렬을 경호하던 군이나 순라들도 강히 손을 대서 노파를 거칠 게 끌어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행렬은 헝크러졌고 부산한 분위기에 쌓여 드디어 행렬은 길을 멈 추고 말았다. 이 사실을 들은 태공망은 시종을 시켜서 그 노파를 불러보니 그는 과연 수년전까지 자기의 아내였던 여인이었다. 태공망은 쓴맛을 다시고 노파에게 물었다. 그대는 본 남편인 나를 버 리고 딴사람과 결혼하여 재미나게 살 줄 알았는데 오늘 소란 피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러 나 그 노파는 그 물음에는 아랑곳없이 행패라도 하려는 듯 기어이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좀처럼 물 러서지 않았다. 이에 어르자 태공망은 궁리 끝에 시종들을 시켜 물 한동이를 길어오게 한 후 노파 에게 다짐을 받는다. 그대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를 꼭 아내로 맞고 데려가리라 하였다. 태 공망의 이 말이 심술궂은 노파 마음에는 금새 황후라도 된 양 마음이 설레이기까지 하였다. 그 까 닭은 오랜 세월 태공망과 같이 살림을 해왔을 때 그는 무능하여 자신의 많은 수모와 구박을 받았고 그것이 부족하여 자신은 태공망을 버리고 딴 사람과 재혼하여 살고 있다. 그런데 그 부능하던 태공 망이 어쩌다 왕이 되어 무슨 큰 수야 있겠는가 평소 자기 손바닥에서 놀아나던 위인인데 이런 생각 을 한 노파는 자신에 넘치는 말로 대신 했다. 왕께서 나를 데려간다면 나는 어떠한 일도 왕이 하라 는데로 하겠소 이 말이 떨어지자 태공망은 단장을 들어 품동이를 때려 깨뜨렸다. 귓전을 울리는 쨍 그렁 소리와 더불어 동이는 산산조각으로 박살이 났다. 한 동이의 물은 길가를 흥긴히 적시며 흘러 내려갔다. 태공은 노파에게 일렀다. 그대가 깨진 물동이를 다시 불이고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대를 왕후로 맞으리라 하는 말을 남긴 후 왕의 행렬은 길을 재촉하여 떠나 비렸다. 왕후가 되려던 심술궂은 노파는 조각난 물동이를 주워서 원상대로 붙이려 하였으나 그것

도 될 일이 아니며 또 쏟아진 뭄은 햇빛으로 어느덧 중밤하여 메마른 땅이 되었으니 원상은커녕 하 수저의 물도 찾음 김이 없었다. 다만 노파의 권전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꼭 왕후로 맞이하마 하면 태공맘의 낯익은 목소리만이 노파의 뇌리에 머물러 지난 일들은 후회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 이 없었다. 그 자리에 굳어진 노파는 그 후 망부석(望夫石)이 되었고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은 그녀 의 그릇된 욕심을 미워하며 침을 뱉고. 던져서 서낭당이 되었다는 전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이야기 거리로 전해 오고 있다. 우리의 서낭제 또는 성황제의 전설 속에 보면 침백는 것은 똑 같다. 전해오 는 서낭은 토지의 부락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왔다. 대개 동구밖 갈가에 큰 나무(할아버지 한머 니 나무)이곳에는 때로는 사닷도 있었다. 마음의 감독인 이곳은 누구나 서당신을 거쳐 가게 된다. 길가는 사람은 누구나, 올려놓고 침을 뱉고 돌을 한 두 개씩 올려놓는다. 이런 현상은 산행을 즐기 는 등산객들이 어느 산을 오르든 올라가는 곳곳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나 둘씩 올려놓은 돌. 무리를 볼 수 있다. 올라가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돌을 하나씩 올려놓으며 소원을 말하는 등산객들 도 눈에 띄게 된다. 이것은 마음을 지키는 토지 수호신이 되어 서난신에게 재난과 병충해를 없애고 올해는 풍년을 들게 해 달라고 복을 빌고 길 떠난 타관 객지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던 곳이다. 어쩌다 지나가는 길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처 역할도 하였다. 기원은 앞서 말했듯이 중국고대의 성지신(城地神)에서 유래된 것으로 6조(六朝)시대 이후부터 서낭당이라 하여 당나라 를 거쳐 송나라 때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원이 확실치 않다. 서낭신에게 제사하는 사당을 서낭당 또는 국수당이라 한다. 유일하게 동두천 도당굿 전승 보존회(회장 이영호)에서 매 년 하봉암 마을에서 서당신에게 제를 올리며 동두천시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呼應)을 받고 있다.

12) 동지(冬至)

4천기의 하나로 양력 12월22일~23일경으로 일년 중 밤이 제일 긴 날이다. 일명 아세(亞歲)라고 하며 민간에서는 작은설이라 부른다. 이 날 동자죽을 쑤이 먹으면 설날처럼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이것은 고대에 동지를 설날로 삼았던 유풍(護風)에서 온 것이라 한다. 동지를 중심으로 한 세 시행사에서 유래한 풍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지가 동짓달 상순에 들면 이것을 애동지(完条至)라 하고 또 하순에 들면 이것을 노동지(老条至)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풍속에는 애동지가 들면 이 해에는 아이들에게 좋고 또 노동지가 들면 늙은 노인들에게 좋다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말은 시조에 울력을 제정한 학자나 또 윤력을 잘 아는 학자들이 꾸며낸 말로 해석 될 수 있으나 미신상으로 취급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동짓날에는 누구나 한 살씩 더 먹는데 어린에는 빨리 크기를 원하니 동지가 며칠간이라도 빨리 돌면 풍아할 것이요 또 노인은 여쟁이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이라 동지가 늦게 들면 몇년을 더 살아야 한 살을 먹게 되니 노인에게는 즐거운 현상이 될 것이다. 그

래서 애통지 노동지 등의 풍속이 생겨난 것이며 결코 일원(日月)의 운행과 무관한 것이다. 동짓날 에는 팔죽에 찹쌀이나 수수로 새알 옹심을 넣어 죽을 쑤어 먹는 풍속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풍 속은 산국시대에 이어 조선에 이르는 동안에 계속되어요 풍속의 하나이다. 물론 동짓날은 세시기 의 행사로서 당시 나라에서 주도하여 권장한 행사이다. 무릇 나라의 행사란 백성들의 재정 낭비를 막으며 또 획일적으로 미풍양속을 권장하려면 세시기도 필요하고 또 아에 따르는 연중행사로 긴 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세시 행사의 입법 정신으로 볼 때 동짓날은 판죽음 쑤어 먹는 것이 가장 적 합한 행사로 보았던 것이다. 동짓남에는 해가 짧고 추울 때며 농한기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돌아오 는 농사철 춘삼월을 기약하며 편히 휴식 상태에 있는 때이다. 이러한 때 농민들은 옥외로 동원하여 행사를 거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집안에서 휴식하며 팔죽을 쑤어서 까나를 때우게 하면 결국 절미 운동은 물론 부식의 비용까지 절감되는 것이다. 아날에는 손님들에게도 흉허물없이 팔죽 한그릇 을 간단히 대접하는 고로 통짓남의 관국을 쑤는 세시 행사는 실로 이상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순화되는 과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가(喪家)에도 팥죽을 쑤어 문상객들에게 접대하는 풍속이 있다. 고대 농가는 대개의 경우 식량이 떨어지면 팥죽은커녕 피죽이나 보리 등의 잡곡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삼국사기는 물론 조선에 이 어 1950년~60년대에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상가집에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많은 양곡이나 재정 은 손실하지 않게 팥죽으로 많은 문상객을 접대할 수 있는 세시 행사는 동짓날의 팥죽을 먹는 습판 에 좋은 풍토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에 기록을 보면 동짓날에 사절단을 상국(上國)에 보내 서 조공(朝貢)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조선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상국이었던 명나라 청나라 에 동지사라는 명칭을 불인 사신을 보내는 한편 예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조선실록에 보인다. 이와 같은 풍조는 결국 조선의 백관은 물론 백성들에게 까지 파급되어 돗짓날이 되면 으레히 관상감(觀 象監)에서 만든 책력(册曆)등 역세(曆歲)와더불어 적게는 한지(漢紙)많으면 비단 필육 등을 예물 로 교환하는 폐풍이 유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짓날의 절약하는 풍토를 거슬리는 낭비로서 제시 행사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동짓날은 작은 병절로 지내는 것은 제시기를 기준하여 일년 행사 를 계획할 때 동짓날은 역시 첫 번째 날이다. 비록 팥죽을 먹을망정 명절로 잡았던 것이다. 대체로 고대의 통치라는 형태를 상고할 때 일년지계는제어춘(一年之計在於春)이요 일일지계는 제어인 (一日之計在於寅)이라고 하였다. 까닭에 동짓날이 오면 다음해 농사는 물론 일년중의 행사를 설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었던 것이다. 즉 동짓날을 작은 명절로 삼고 앞으로 다가 올 정원 큰 명절의 행 사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세시 풍속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풍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고대 풍속에는 큰 명절 이전에 반드시 그 전달을 작은 명절로 꼽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 은 결국 큰 명절을 만족하게 지내려는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3) 12월

12월은 율력법(律曆法)으로는 둘째번에 해당하는 이른바 축원(丑月)이다. 물론 축이란 것은 다 만 역법상으로 10간 12지를 표시하는 것뿐이지 뜻이 있고 도 생성 변화하는 뜻이 있다면 오직 2수 (二數)라는 숫자가 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는 겨울 석달은 오직 농한기로 농사를 하기 위해 준비 를 서두르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년의 계를 재어춘(在於春)이라 하였고 또 하루의 계획을 아침 인시(寅時-五時)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직 춥기는 하지만 정월을 봄으 로 보았고 또 정월은 아침 인시에 해당시켰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월에 착수한 일들을 모 두 12월에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울럭법의 취지로 볼 수 있다. 윤럭서에 따르면 12월은 모 돈 부족들이 단합하여 전진할 때 세를 갖추는 달이라 하였다. 삼국시대의 형태를 보면 조정의 문무 백관은 물론 지방에서 군왕을 대리하여 통치를 하는 제후 수령 방백도 그 장자(長子)와 일부 가족 들은 모두 왕성(王城)에 머물게 하는 제도였다. 12월이 되면 모든 일족이 모여서 앞으로 시행 할 일년 행사를 상의하였던 것이다. 나라에서는 왕이 중신과 같이 종묘에 들어가서 일년간의 행사 주 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 정치에 있어서 새해의 예산을 행정부가 세우고 그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하는 절차와 흡사하다. 만일 군왕이 중신과 같이 주책을 여러 부족들이 반대를 할 경 우 그 주책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군왕은 12월이 되면 의례히 나라의 태사(太師)는 물론 가가 부족의 스승격인 모사들에게 폐물을 하사하고 또 정사를 상의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것은 고대에 도 지혜있는 사람을 으뜸으로 여기던 풍토에서 생겨난 것으로 마치 12월을 스승 찾기에 분망한 달 이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 거장이나 사회는 물론 나라를 영위하는데 지해있는 스승을 제외 하면 그것은 무계획한 주먹구구식이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12월은 휴식을 취하며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끝나는 달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달이다. 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종합해 이어진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푹 넓게 생각해 보면 천체인 해와 달 그리고 별과 지구가 있어 이 땅 에 먼 옛날부터 선조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 땅위에 인간이 살기 시작하던 시기부터 생존 방법과 생활방법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미세한 원사생명으로부터 단계적으로 복잡 다양 한 것으로 변하여 진화하여 이루어지고 발전되어 번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생존 방법은 이 땅위에 부단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 취사선택 되면서 입정한 먹거리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생활을 통해서 후대에 전승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인 삶을 통해서 배워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일상생활은 육체적 본능을 해결하는 일 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은 행 위와 물질 그리고 언어라는 세종류의 표현수단과 전승수단이 기능적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후세에 전승되어 발전시켜왔다.

II. 맺는말

전통적 생활문화의 세시풍속은 기본적으로 민족문화의 실생활로 연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 족문화는 바로 그 민족집단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일상 생활과 생활양식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자연음 상대로 밤달시킨 모든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우 리는 그것을 생활문화라고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문화를 고유한 연 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 다양한 세시풍속학이다. 그러나 이 생활문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 존만을 위해서 사회적 행위와 물질적 형태 그리고 언어적 표현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집합시킨 것 은 아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민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발달시킨 방법과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특정한 생활관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합된 하나의 생활양식이다. 그리고 시대를 거 치면서 체계화된 생활양식은 부단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이 본, 여름, 가 을, 겨울을 거치면서 농사일을 해야 생존 할 수 있다는 곡식이 선택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 사에 의한 풍년이었다. 이것은 우리의 삶속에 우리의 민족이 농경(農耕)을 통해서 살아 남을 수 있 었다. 따라서 생활문화속에 우리민족이 발달시킨 생활관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여러 전승활동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을 학습적으로 세시풍속 또는 민속이라 부르고 있다. 세시풍속은 과거 전통 적 삶의 방식과 함께 현재 삶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은 민속학의 고유한 연구대상인 생활문화는 본질적으로 민족문화의 기반으로서 존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역사적인 문화 전 통에 의해 세시풍속은 민족문화의 기반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조향근 국어대사전(上・下) 한국출판사 1982
- 2 민병수 한국인의 지혜 도서출판 우석 1980
- 3. 장철수 한국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4 강무학 한국 세시풍속기 도서출판 청화 1989
- 5. 안창범 우리민족의 고유사상 국학자료원 1997
- 6. 흥기원 조선민속학 민속원 1999
- 7. 김성배 민속의 뒤안길 집문당 1995
- 8. 김백만 천민의 나라 명문당 1987
- 9. 최윤식 설화 고소설 교육론 빈속원 2002
- 10. 장두환 한국의 역사 역사비평사 1993
- 11. 김광일 한국전통문화의 정신 교문사 1991

白性郁의 獨立運動 史料

양 경 직 (부천 항토문화연구소)

목 차

- I , 서론(序論) -백성욱(白性郁)의 생애
 - 1, 백성욱은 누구인가?
 - 2. 백성욱의 연보(年譜)
 - 3 백성운의 논문(論文) / 저서(著書) / 유고(清稿)
- II. 본론(本論) -백성욱(白性郁)의 독립운동 행적
 - 1. 백성욱과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
 - 2. 백성욱과 유심사(惟心社)
 - 3. 백성욱과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
 - 4, 백성욱과 상해 임시정부 《독립신문(獨立新聞)》
 - 5, 백성육과 《혁신공보(革新公報)》
 - 6. 백성육과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教靑年會)
 - 7. 백성옥과 만당(卍黨)
 - 8. 백성욱과 공학회(共學會)
 - 9. 백성욱과 신간회(新幹會)
 - 10. 백성욱의 독립운동 관련 문서 자료
- Ⅲ. 결론(結論)

집필자

양 경 직 부천 향토문화연구소

I . 서론(序論) -백성욱(白性郁)의 생애

1. 백성욱은 누구인가?



백성욱 박사 모습

본 자료조사는 백성욱의 독립운동(撰立運動)에 관한 사료(史 特)를 조사하여 그의 행적을 알리기 위합이다. 근대사에서 빼놓 은 수 없는 인물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 지고 부친에 근 20년간 거주했던 백성욱을 알리는데 초석을 놓 는 것으로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백성옥(白作稿)은 매우 독특한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경 력을 따라가다 보면 한 바디로 정의내릴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다채롭다. 독립운동가 분교수행자 전치가 교육행정자로서 의 삶을 살다간 근대의 석학(領學)이었다. 백성욱의 가계(京系)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1897년 8월 19일 한성부(第

城府) 연화방(班花坊)에서 백윤기(白澗基) 씨의 장남으로 단생(誕生)'"이라한 기록과, 이화장(梨花 莊)과 관련하여 그의 때부가 경성고부 사장을 지낸 권영일(權財一)이라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형 제자배가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28년~1938년까지 금장산(金扇山) 지장암(地藏境)에서 최중 수도(食衆緣道) 한 때 수행한 제자 집기록(金起龍)이 (내금자 지장암과 백성용 박사)에서,

> 백 선생님이 구주(歐洲) 유학(留學) 당시에 학비조달도 조달이시고, 조실부모(무失父母)하신 후의 뒤치닥거리를 해주신 외조모님이 벌세하신 후에 의리상으로라도 다대(多大)한 재산을 처리하시 기 위하여서라도 초심(初夜)에 당연히 나오서야 할 것이나, 지장암(地藏庵) 대중을 위하여 못 나오 셨으니 이것은 아는 자 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일찍 졸(平)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의할머니에게 발겨져 불우 (不遇)하게 성장하다가, 1910년 7월 봉국사(幸國寺)로 출가(出家)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까닭에 즉보에 동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백성욱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自住節博士 頌壽記念 佛教學論文集)) (백성육 박사 송수기념사업회 / 동국대학 교 1959년)

^{2) (}백성욱박사문집)(백성욱 박사송수기념사업회/ 동국대학교,1960)p3

^{3) (}백성욱박사문집)(백성욱 박사송수기념사업회/ 동국대학교,1960) p400

수원백씨대종회에서도 백성욱의 선개(先系)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수원백씨 족 보에는 사권과 함께 내무부장관으로 등재는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하였다. 편자 역시도 수원백씨 여러 즉보에서 백성목의 선조를 찾아보았지만 선계(先系)의 연진고라를 찾을 수 없었다.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아닌 게 아니라 백성욱의 여러 글에서 외할머니나 부모님에 대한 글이 전히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우했던 유년기를 되돌아보기 싫은 것도 있었음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981년 백성욱이 종(字) 했음 때 (동아인보)에.

>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2동 205호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형년 84세, 유족으로 부인 정형 재德深歡 여서(54)와 두 딸"⁴

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두 딸의 이름과 어디에 살고 있는 지는 미상이다. 여기시 잠시 한국 근현대 안물자료" 자료에 소개된 1954년 11월 30일 당시의 백성욱에 대해서 알아보도 록 하졌다.

- 이름 : 백성욱(白性郁)
- 민족구분 : 한국의
- 생년월일 : 1897-08-19
 - 출전 : ① 건국십년, 1024
 - ② 대한연감 4288, 679
- 출신지 : 서울특별시
 - 출전: ① 건국십년, 1024
 - ② 대한연감 4288, 679
- 현주소: 1) 본적: 서울시 중구 장충동 48의 7
 - 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1가 48-17
 - 출전 : ① 건국십년, 1024
 - ② 대한연각 4288. 679
- 현직업: 1) 대학총장
 - 출전 : ① 대한연감 4288, 679
- 학력: 1) 프랑스 보배高 졸업
 - 2)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졸업, 철학박사
 - 출전 : (1) 건국십년, 1024

⁴⁾ 국사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메이스/ 동아일보1981년 9월16일자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메이스/ 한국 근현대인목자를

② 대한연감 4288, 679

 경력및활동 1) 을미독립운동 때에 임시정부 참여 · 활약 佛致専門學校 교사 금강산에서 10여 년간 修道
 2) 내무부장관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

> 1954년 11월 30일 현재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 - 출전 : ① 건국십년, 1024

② 대한연간 4288, 679

참고문헌 :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하여간: 4288년판

백성욱은 어린 나이에 출가(出家)한 이후 1917년 동국대학교 진신인 불교중앙학림(佛教中央學 林)에 입학하였다. 학생 신분으로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곧 이어 상해(上海)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 자급조단을 하다가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을 떠나 철학박 사품 발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불교학 1호 박사였다.

독일에서 귀국하여 불교청년운동·독립운동과 불교수행을 겸하다가, 1945년 광복 후에는 건국 운동(建國運動)에 참여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제4대 내무부장관을 지내고, 1952년(57세) 제3대 부 동령후보와 1956년(61세)제4대 부통령후보로 출마할 당시,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구 산 66번 지에 주소지를 두고 출마하였다가 두 번 다 낙마(霧馬)하였다.

이후, 동국대학교 제2대 총장적을 맡고 있는 도중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동국대학교 총장을 시임하고, 1962년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리 첫소세 산 66번지에 '백성목장(白性軟場)'의 간판을 내결고, 아울리 '소사본당(無砂本堂)''을 지어놓고 《금강경》을 강화(講話)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쓰면서 20년 가까이 부천에 거주하다가 1981년 서울 이촌동(二村洞)에서 졸(후)하였다. 그런데 부천(第川)에서는 부천군 시절이나 1973년 부천시 승격 이후로나 백성옥(白性郁)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부천시사)(1988년)나 (디지털부천문화대전)(2008년)은 물론이고, 부천(富川) 판내에서 발간하는 각종 기관지나 신문·잡지에 단 한 글자도 소개된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여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서 2013년 "부천의 문혀 있는 역사인물 발균사업"을 계획하고 백성옥의 행적을 조사하게 되었다. 다만 짧은 기간 방대한 양을 조사하다보니 미친한 면이 많다.

 ³⁾ 고증 -백성욱박사의제자 김동규(金東主, 78세/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대표)
 7) 고증 -백성욱박사의제자 김동규(金東主, 78세/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대표)

2 백성욱(白性福:1897~1981) 역보(年譜)**

1897년 8월 19일 한성부(漢城府) 연화방(淨花坊)에서 백유기(白淵基)의 장남으로 출생

1901년 호돗학교(南洞學校) 입학

1903년 호동학교(臺洞學校) 수료

1904년 서숙(書塾)에서 한문(漢文) 수학(修學)

1910년 7월 봉국사(奉國寺)로 출가(出家), 최하용(崔荷翁)" 대전사(大禪師)가 은사(恩師)이다.

1911년 출가후(出家後) 전국 사원(寺院)에 설치된 불교전문장원(佛教專門講院)에서

불교경전(佛教經典) 수업 1917년 - 불교준안합림(佛教中央學林) 인학

1919년 불교중앙학립(佛教中央學林) 졸업

2월 28일 기미독립운동시(己未獨立運動時) 한용운이 《유심(惟心)》사옥으로 불교중앙학

림 학생 백성욱·신상완·김상헌·김법린 등을 소집하여 만 세시위를 지시함.

3월 2일 신상완 등과 함께 새벽에 서울 동북부 일대에 〈독립선언서〉 5천여 매 배포함. 4월 하수 백성용 · 귀법립 · 신상완 · 김상헌 상해(上海)로 탈출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함

8월 중순 불교계 대표를 임시정부에 보내달라는 백성욱 · 신상완의 지령에 따라 김상

호 · 김상헌이 주선하여 김영수를 파견하여 독립운동 자금조단 활동

1920년 프랑스 파리 보베고등학교 입학

⁸⁾ 백성옥의언보는(백성옥박사본집)(126) · (급강받아바라민강(金剛敷若改祖法經))(1977) 국사관관위원회한국 사데이터베이스 · (後亞) · (돌광(東遊)) · (左선농만)동의참기와(종아인보)동의각종 선본에서사丘(史料) 와 백성옥의 개자 검돗규모 고중에 의기하여 기록하였다.

^{9) 1938}년 12월8일 조선촛독부판보 3567호(8~9면)

제 목:住持異動

년 월 일 : 소화13년(1938년)9월27일

이동사유 : 취직인가

주 소 지 : 양주군

사 찬 명 : 망월사(望月寺)

주지시밍: 최하용(崔帝翁)

¹⁹³⁹년 7월 18일 조선충독부관보 3747호 (5~7면)

제 목: 佐持異動

년 월 일 : 소화14년(1939년)3월23일

이동사유 : 사격(辭雜)

주 소 지 : 양주군(楊州郡) 양주면(楊州南)

사 찬 명 : 망월사(望月寺)

주지씨명 : 취하용(崔荷姓)

1921년 9월 프랑스 파리 보베고등학교에서 독일어 · 라틴어 등 수학(修學)

1922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철학과 입학, 라틴어·독일신화사(獨逸神話史) 및 문명사(文明史)· 천주교의 의식 동 연구

1924년 9월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철학과 종업

1924년 10월 7일 철학박사 학위(吳位)를 받다"

1925년 9월 9일 동양철학 박사(博士) 백성욱씨 귀국11)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불교순전철학(能收執全特學)) 논문으로 철학박사 화득 하고 귀국

9월 14일 조선불교중앙교무원 백성욱 귀국 환영희

(불교순전철학) 논문발표 - (불교지 7,8,9,10,11,12,13,14號)

(근대 불교 운동에 대하여) 등 논문 발표 -(불교지 7號)

백성욱은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백준(白唉)·무호(無號)·무호산방(無錢山房)" 3 개의 필명을 썼는데, 후에 본병인 백성욱(白性郁)으로 필명을 쓰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호산병' 을 많이 썼다. (봉교)7호에.

"백준(白綬) - 무호(無號)" 2개의 필명으로 "(紀(佛敎)의 從緣生) / 백준(白綬) - (佛敍城至哲學 (梵,아비달마)) / 백준(白綬) 철학박사(哲學博士) · (近時 佛敎運動에 밝하야) / 남독일(陶潔逸)에 서 무호(無號)"¹⁰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편집자가 백성욱이 독일에서 보낸 서신을 〈白綬 코의 者偕 欠節) 이라 하면서 총 4작품이 실었다.

〈구주인(歐洲人)의 안목에 나타나는 인도인의 동골숭배와 반도불교(半島佛教〉 -(불교지 12號)

〈백림불교원 방문기(伯林佛教院 訪問記)〉·〈느낌〉·〈낙조(落照)〉·〈추천귀 안(秋天歸歷)〉등 수필 -(불교지 15號)

〈병원(明月)의 유영(留影)〉·〈자연의 경(景)〉·〈現 내팔에는 무엇이 있나?〉등 수필 -(붕교지 16號)

《인중자연(人中自然)의 발로(發露) · 〈나의 느낌〉 · 〈불공원(佛公園의 하루〉등 수필

¹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례이터베이스〉일제참략하한국36년사〉獨逸 벌츠블록大學에 領學中인 白性部 哲學 博士의學位書 반다/東亞日報1924.10.7

¹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티벡이스 / 〈동아일보 1925,9.11〉

¹²⁾ 국립증앙도서관 한국근대잡지선.제1집 -제51집 / 한국학술정뵈편](불교(條敎))

¹³⁾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근대감지선,제1집 -제51집 / 한국학술정보편(불교(條敎))7호p176,p191,p283

-(불교지 17號))

〈맹서(盟誓)〉 · (빼앗기 어려워라) · (우화(寓話)) 등 수필-(불교지 18號)

1926년 1월 10일 〈우리의 建設에 就하야〉 (조선농민 제2권 제1호)

1월 12일 〈우리의 建設에 就하야〉 (조선농민 제2권 제2호)

(小人入一理)(一毛端現實王刹) 논문 발표 - (동아일보 1926년 1월 15일~2월 5일)

2월 (석가여래(釋迦如來)와 그 후계자) 논문 발표 - (조선일보 1926년2월 3일~11일)

4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피임(被任)

5월 1일 (나란 무엇일가) 논설~(동광 제1호)

6월 1일 (나란 무엇일가) 논설-전호에 이어서 연재-(동광 제2호)

(나의 신앙과 느낌) 등 수필 - (불교지 19號)

〈기다림〉· 〈내 살림〉· 〈뜻 맞는 사랑〉등 수필(隨筆) -(불교지20號)

《파상주(波上舟》·〈오늘 나의 느낌》·〈비 맞는 꿈〉·〈여름의 느낌〉수필-(봉교지 21월)

(내가 본 상해(上海) 현황과 느낌〉 수필-(불교지 22號)

(미(美의 차별(差別)) · (생의 감자(感者)) · (내 동무) 등 수필- (불교지23號)

〈미(美)〉・(현대봉교를 건설하려면〉 - (불교지 24號)

《곤륜산(崑崙山) 절정(絶頂에는 무엇이 있나》·《어느 공원에서》·《쫓인주인》수 됨-(불교지 25號)

(가난음 중심으로 하 내외면) - (북교지 26號)

(어느 날 길가에서) · (아우 찾는 소녀) 수필 - (불교지 27號)

(어떻게 보아야 미(美)를 잘 보나) - (봉교지 28號)

(사람이 보는 미는 우주의 공통이 않임) - (불교지 29號)

(나는 님의 살림) - (불교지 30號) 등 발표

12월 1일 (만일 내가 다시 20살의 청년이 된 수 있다 하면 (만일 내가 다시 20살의 청년이 될 수 있다 하면)) (동광 제8호)

(미타지화신(彌陀之化身)인 타치 리마(唎麻)〉논문 발표-(불교지 31, 32號)

1928년 9월 중앙불교정문학교 교수 사직

9월 금강산 안양암(安養庵)에서 단신수도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제창(提唱)

(지사(智砂)와 도금술(鍍金術) -(여시(如赴) 제2號)

(10년 후 다시 자연경(自然분)을 찾아서) -(불교지 43, 49號)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붕교지 49號)

(有史以來로 철학상에 문제는 智砂와 Petra Sopiae와 造金衛은 금일에야 해절할 수 있을까) 논문 방표 - (불교지 52號)

(나에 대한 고착(考察)) 논문 발표-(불교지 53號)

1929년 1월 1일 〈各界各人 新年에 하고 십흔 말〉~(별건곤 제18호)

금강산 안양암에서 수도(修道)

(역경(譯經)의 필요성) - (불교지 58號)

《남순야화(南巡夜話)》 - 남순(南巡) 하였던 이야기 - (불교지 59號)

1930년 - 급강산 안양암에서 수도 중 동주(同住)를 원하는 수도자가 많음에 의하여 지장암(地 露巖)에 이저

1931년 4월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최남선 · 홍명회 등과 강사로 활동함.

5월 학생 60여명이 동맹휴학을 단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앙불전 초대 교장으로 선임되었던 송종헌의 권석(關係)으로 학교 운영에 차절을 벗게 되자, 중앙교무원과 학교에 백성옥을 교장으로 추대해달라고 건정서를 제출한 사건.

1938년 금강산 지장암에서 회중수도(會衆修道) 일경(日警)의 압력으로 종결

1939년 ~1944년 돈암동 자택에서 좌선수도(坐禪修道)

1945년 조국 광복(光復)과 동시에 애국단체인 중앙공작대(中央工作較)를 지도하여 민중계몽 운동을 하고 또 군정(軍政)으로부터 이박사(李博士)에게 정권을 양도하라는 연관장 (達到誌:5만 명분)을 결집하여 재통경점령군사령관(在東京占領軍司令官) 및 재한미 군사령관에게 교부하여 주호(泰效)

1946년 ~ 1949년 이박사(李博士) 중심 건국운동(建國運動) 참여

1950년 2월 제4대 내무부장관(內務部長官) 취임 7월 6 · 25전쟁으로 인하여 내무부장관 사임

1951년 2월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취임

10월 동국대학교동창회장 취임

1952년 8월 5일 부통령입후보(關統領立候補). 제3대 부통령에는 합태영·이윤영·이잡성· 조병옥·임영신·백성옥·정기원·전진한·이범석 등 9명으로 백성욱(白性郁)은 자 유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

男 57세/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구 산66번지/독일빌스불룩대졸/내무부장판

181,388표를 얻었으나 낙선하였다. 윤치영·이윤영·백성욱·이범석·이종태 5명은 "이승만 대통령을 얻고 나온 부통령 후보였다"¹⁰

1953년 7월 21일 재단에서는 권상로(權相差) 총장 후임으로 박력 있고 국외의 교육 사정에 밝은 분을 물색하고자 여로 모로 토의 끝에 1953년 7월 21일 이사회에서, 철학박사이며 당시 한국광산주식회사 백성욱 사장을 제2대 총장으로 맞이할 것을 이사 전원일치로 이사장 이종욱 써에게 취임 교섭 일체를 위임하였다"

7월 31인 제2대 등국대학교충장(東國大學校總長) 취임. 부산시 신창동 소재 본 대학 교 가교사(假校술)의 총장실에서 화기에 찬 분위기 속에 전 총장 권상토부터 사무일 채를 인계를 받은 백성옥 박사는 취임식도 못한 채, 그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접무를 시작. 염성을 밝혀하였다"

11월 25일 백성욱 총장 취임식17

1954년 8월 7일 제15대 재단법인 동국학원(東國學院) 이사장 취임

1955년 대광유지주식회사(大光油脫柱式會社) 사장 취임

대학원에서 《금강삼매경론》 · 《보장론(寶巖論)》 · 《화엄경》강의

1956년 5월 15일 부통령입후보(副統領立候補)

백성욱(白性郁) 무소속/男 61세/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구 산 66/독일 뷔르츠부 르크대존 /내무부장관 "백성욱 230,555표로 낙선" ³⁶

9월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취임

동국대학원에서 팔식규구(八識規矩) 강의

1957년 10월 고려대장경보존동지회(高麗大藏經保存同志會) 회장 취임

《고려대장경》영인(影印) 시작

재단법인 경기학의 이사장 취인

재단법인 동국대학교장학회 이사장 취임

대학원에서 조론(鑒論) 및 염송(抽頭) 강의

동국대학교 교사(校舍) 8,725평 9合 3勺

本 廳: 1,661 평 8合 4勺

¹⁴⁾ 국회돋보기홈페이지/ (여(與)대통령, 야(野)부통령) 이형(평론가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15) 《}동대칠십년사(東大七十年史)》(70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출판부1985년)p85

^{16) (}동대칠십년사(東大七十年史))(70년사편찬위원회,동국대학교 출판무1985년)p86

^{17) 《}동국대학교 100년사》)(동대100년사관찬위원회, 동국대학교2006년)p719

¹⁸⁾ daum 지식

本 部: 2,260평 3合

科學館: 876평 8合 4勺

圖書館: 3.959평 5合 5勺

기타 부속건물: 67평을 신축하고 실험농장 43,271평을 설치하였다.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로 인하여 7월 2일에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으로 만 60 세 이상은 교단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백성욱 총장을 비롯하여 본 대학 발전에 기 여한바 컸던 노교수들이 자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까닭이다" 7월 20일 동국대학교총장(東國大學校總長) 사임(辭任)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1리 윗소새에 '백성목장' 간판을 내걸고 후학 양성과 대중 1962년 교화에 매진했다. 특히 그는 공부의 기본을 《금강경》으로 삼고, 아침저녁으로 《금강 경》독송을 강조하면서 '경전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 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제 마음을 닦는 것" 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이후에도 제자들에 의 해 '금강경독송회ㆍ바른법연구원'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1981년 9월 15일(응겉 8월 19일)20 85세를 일기로 범세(別世)하염다 경기도 양주군 대승사 (大乘寺)에 사리탑과 비를 건립하였다가, 호우(豪雨)로 사리탑이 휩쓸려 내려간 것을 계곡에서 다시 찾아내어, 부천시 소사구 소사1동 소사본당(壽砂本堂) 뒷편 언덕에 후 학(後學)들이 동국대학교총장백성욱박사탑과 사리탑(含利塔)을 옮겨 세웠다.

3 백성욱의 논문(論文) / 저서(著書) / 유고(潰稿)

- 논문:《불교순전철학(佛教純全哲學)》1924년 10월 7일 -독일 뷔글츠부르크대학 철학박사 학위 논문 -블교잡지(佛教)(1925년 7호~14호) 연재
- 《백성욱박사문집》(백성욱박사 송수기념사업위원회, 동국대학교, 1960)
- (백성욱박사송수기념(白性郁博士頌壽記念) 불교학논문집》(백성욱박사송수기념사업위원회, 돗국대학교, 1959)
-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백성욱, 백만사, 1977)

^{19) 《}동대칠십년사(東大七十年史)》(70년사편찬위원회,동국대학교 출판부1985년)p107 20) 한국일보 1981년9월 17일11면(한국언론재단 원사이트에서 검색)

²¹⁾ 고중: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동규(金東圭,78세: 사단법인급강경독송회 대표)

- 《불교수행 요체》(백성욱 박사 가르침, 김동규 받아 엮음, 1988)
- 《금강경 이야기》(김동규,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09)
-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백성욱 지음, 김원수 옮김, 김영사, 2009)
- 《급강경 강화》(백성욱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II. 본론(本論) 백성욱의 독립운동 행적

1. 백성욱과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

불교증앙학림은 교명(校名)이 여러 번 개명(改名)되었다. 처음에는 원홍사(元興寺) 자리에 불교 계의 선각자들 모임인 불교연구회가 근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하면서 동국대학교의 모대(母島) 가 되었다.

- 원흥사(元興寺) 내에 불교학교를 세우기로 1906년 1월 결정
- 명진학교(明進學校) : 1906년 5월8 일 개교
- 불교사범학교(佛教師範學校): 1910년 4월 개명
- 불교고등강숙(佛教高等講尊): 1914년 4월 1일 개교
- 북교중앙학립(佛教中央學林): 1915년 11월 5일 설립인가

1921년 동맹휴학

1922년 강제 폐교

- 불교전수학교(佛教專修學校): 1928년 4월 30일 개교
- 중앙봉교전문학교(中央佛教專門學校): 1930년 7월 승격
- 혜화정문학교(惠化專門學校): 1940년 6월 19일 개칭

1943년 5월 30일 강제 폐교

1945년 11월 30일 재개교

-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1946년 9월 20일 승격 개편
 - 출처 : 《동국대학교 100년사》》(동대100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2006년) p694~p762

1) 불교중앙학립 학생들의 3 · 1 유동

백성욱은 1917년 불교중앙학림에 입학하여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학생 신분으로 〈독립선 언서〉를 서울 시내에 배포한 이후, 중국으로 탈출하여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초창 기 주요인물이다

> 만해는 2월 28일 이중일로부터 10,000배(일설에는 3,000배)의 〈독립선언서〉를 인수하였다. 이 날 밤 10시경 만해는 서울 계동(推測) 자신의 집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앙화림 학생 김법린(金 法議) · 김상헌(念尚惠) · 백성목(由性朝) · 정방헌(鄭東潔) · 오텍언(吳澤彦) · 신상관(申商玩) · 김 규헌(金圭鉉) · 김봉신(金奉衛) · 김대용(金大総)등과 중앙화교(中央高等學校의 前身)의 학생 박민 오(休服점) 등 10명에게 〈독립선언서〉를 건네주며 3월 1일 오후 23시 이후에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당부하였다.

> 만해는1918년 9월부터 《유심(惟心》)을 간행하여 그 해 12월까지 통권 3호를 내는 등 당시 볼교 게 청년들의 절대적 지지와 존경을 받았다. 그의 계동 자택에는 김법린 · 백성吳白性郁) · 신상 완 · 김상헌 등이 이곳의 일을 돕고 있었다. 유심사에는 불교 청년학생들이 드나들며 한용운의 지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만해는 비장한 어조로 그 동안의 3 · 1운동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다 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내일 탑골공원의 독립반세운동 시에 너희들은 여기에 있는 10,000째의 〈독립선인서〉를 가지고 서울 시내와 지방에 배부토록 하라. 이제너희들과 헤어지면 언제 만날 지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때 구국의 명장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후에임을 명심하여 불교청년의 기백을 과시하라

> 김법민 · 백성목 등의 청년 승러들은 신명을 바쳐 조국독립 투쟁에 앞장설 것을 맹세하고 곧 유 심사를 클라나왔다. 이들은 사태가 시급한을 느끼고 인사동 범이사 본교 중앙포당에서 긴급회의 를 기졌다. 3월1일 만세시위에 불교계의 승려와 신도들을 동원하고 또한 지방에도 각기 내려가 의거를 주도하기로 결정했다²⁸

> 한편 김법린을 위시한 불교계의 청년학생들은 〈독립선언서〉35,000때 중 불교측에 할당된 10,000때를 가지도 두 방황으로 나뉘어 우선 그 절반은 서울 북쪽에 해당하는 일대에, 나머지는 전국의 지방 각 사찰을 중심으로 배포키로 하였다. 만해를 비롯한 민족대표들이 일제히 피체되 어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독립선언서의 배포가 초점이 되었던 것을 보면 이는 중요한 사인의 하나였던 거이다

> 우선 서울 시내를 담당한 불교측 확생들은 3월 1일 새벽 3시에 각각 회의장을 떠나 시내 포교당과 서울 근교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절과 인근 주민에게 3·1만세시위운 동에 참가함 것을 권장하였다.

^{22) (}일제하불교계의항일운동)(임혜봉,민족사, 2001년) p89~90

이들은 만세시위를 위해 군중 동원에 온 함음 쏟았다. 마침내 3월 1일 탑골공원에는 비밀지시를 받고 털려운 중동학교 이상 거급 학생들 수천 명이 엄숙히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에 탑골공원 팔각정 중앙 단상에 10여 년 만에 태극기가 모습을 나타내자 군중의 충분은 정 정에 당했다.

《독립선언서》가 남독되고 '대한독립만세'의 우령찬 힘성이 하늘을 찔렀다. 이 자리에 참여한 많 은 수의 승려와 불교 신도들도 불교중앙학립 학생들과 더불이 독립선언서 남독식이 끝나자 공원 남문을 나와서 기독교청년회관 앞을 지나 종로경찰서를 거쳐 종각을 돌고 다시 남대문으로 향하 였다"³⁰

서울에서의 3 · 1운동은 한용운의 지시를 받은 불교중앙학림 학생 스님들에 의해 각 지역에 파급 되었다⁸⁸

이상의 기록으로 보면 백성욱은 3·1운동 전날인 2월 28일부터 3월1일까지 서울에 떠돌면서 한용운의 지사를 받아 〈독립선인서〉를 서울 지역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불교중앙학립(佛敎中央學林) 표석(標石)25

- 이름 : 독립운동유적지 증앙하림
- 카테고리 : 독립운동 유적지
- 설치연도: 1993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류1가 5-1 / 종로구 해화동 종로구민생활관 서쪽 삼거리
- •표석문구 : 1919년 3 1독립운동 거사를 위해 한용운 선생이 중앙학림학생들과 전국 참교인등의 시위계획을 논의하던 곳

2. 백성욱과 유심사(惟心社)

백성욱은 "2월 28일 밤에 한용운(韓龍雲)은 불교지 유심사로 불교중앙학련 학생 백성욱(白柱 係) · 김법린 · 오백인 등을 불러 3 · 1항쟁에의 참가를 격려 촉구-(춘젠 독립운동사 9"²³ 하였다.

종로구 계동 43번지 옛 유심사 터는 현재 만해당(萬海堂) 간판을 걸고 한옥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 1919년 2월 28일 밤 한용운이 중앙학림 학생들을 이곳 유심사로 불러 (독립선언서) 배포를

^{23) (}일제하불교계의항일운동)(임해봉, 민족사, 2001년) p92

^{24) (}일제하불교계의항일운동)(임혜봉,민족사, 2001년) p93

²⁵⁾ kocca 문화콘텐츠닷컴 (독립운동 유적지증앙학립(中央根林))

²⁶⁾ 국사판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시대별인표(근내사)

모의하던 장소이다. 하여 유심사 표석(羅石)을 세웠는데 현재 자리에 세우지 않고 계동 58번지 석 정(石井) 오른쪽 옆에 유심사 표석은 세웠다가 '중앙학립'을 '중앙학교'로 잘못 표기하였다고 하 여 지금은 철거한 상태이다. 백성육은 1919년 2월 28일 밤 이곳에 모여서 (독립선언서) 배포 임무 물 말고 3월 2일 배포를 하였다.

독립운동 유적지 유십사 표석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설치 연 도: 1993
- · 위 치: 서울 종로구 계동 58
- 표석문구:이 언저리에 있었던 유심출판사는 한용운 선생이 3 · 1독립정신을 중앙확림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던 곳.
- 표석설명 : 3 · 1운동 당시 불교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 1919년 2월 24일 천도교측과 기독교 측 사이의 독립운동 일원화가 성사되자, 최관은 계동 유심사로 한용문을 찾아와 하 사 계획을 설명하고 불교계의 참여를 확약 받았다. 이후 한용문은 합천 해인사 출신 승려로 서울 대각시에 머무르던 백상규(법명 용성)를 불교계 민족대표로 참여시키 는 한편, 2월 26일 밤 중앙학침 학생 신상완 · 백성옥 · 김대용 · 오택연 · 김법린 · 박민오 등을 유심사로 불러 각처에 배포할 〈독립선언서〉 3천매를 진달하였다.

3 백성욱과 상해(上海) 임시정부(臨時政府)

백성옥은 3·1운동 이후 골바로 중국 상해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 중국으로 건너 간 것은 미상이다. 다만,(불교)(제15호, 1925년)에 계재한 시(詩) 〈느낌〉 맨 밑에 "1919년 5월 10 일 영구(登山)에 상륙(上陸)하면서"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3·1운동 직후 4월경에 중국으로 망 병건용 떠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였던 김상호(金海昊)·김법린(金法韓) 등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던 중 중앙학립 대표들은 4월 하순경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은 들고 압력강 건너 안동현에 있는 이름양행(佔條洋行) 으로 가서 그곳의 립조를 얻어 신상완・백성욱(白佳報)・김법린・감대용 등 4명을 상해로 밑과하였다. 출처: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제8권 p883 … 이들 4병은 상해 프랑스조계에 있던 하비로(護飛路) 임시정부를 심방하여 임정 요인들과 만났다 … 신상완과 백성욱(白性師)으로부터 오는 신문과 소식 등을 국내에 전달하기로 하고 … 한편 상해에 남아 있던 신상완과 백성욱(白性師) 등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 불교계의 노덕(老闆) 가운데 대표자를 임시정부에 과건키로 했는데 김상한과 김상호 등이 동분서주한 결과 포광 김영수(包光 金較鉴:1884~19676) 스님이 과건되었다"

1919년 4월 신상완·백성옥(白性縣) 등의 승려를 상해로 파견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20년 7월 도진호(都顧籍)와 함께 조선불교정년화를 발기한 뒤 1928년 백성옥(白性鄉)·김범린 등과 함께 불교청년회의 증흥을 도모하면서 독립운동 을 하였다" 불교중앙학립을 졸업하고 백성옥·신상완·김대홍 등과 함께 상하이로 긴너가 1920 년 초 의용승군(義男僧軍)을 개획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나 사전에 동지가 피체됨으로써 다시급 상 하이로 방범하였다"

3·1운동에 참가하여 그 일산에 섰던 청년승리들은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중순 이후 출범했다. 임시정부에는 국내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던 중앙학림 충신의 승려가 참여하였다. 백성욱(白柱部) · 김범린 · 신상완 · 김대용 등은 3·1운동 직후 서울 신상완의 집에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상해에 임시정부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양량(治隆洋行)의 안내를 받아 상해로 들어갔다. 그 밖에도 원정사 옵신의 이종욱(李鍾錦) · 송세호(宋世浩)도 상해로 담명하였다.

상해로 간 청년승러들은 임정 요인들과 상의하여 국내 불교계를 독립운동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청년승러들은 국내의 불교개 인사를 상해로 망병시키고, 불교계의 자금을 군자금으로 환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 불교계의 임시정부를 연결시키면서 불교의 민족의식을 임시정부에 유입시키려는 노력은 불교계의 자금을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전환시켰던 것에서 나타났다 … 이외에도 불교계의 군자금 전단을 말해주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경우는 혼치 않다. 최근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김구하가 수년간 임시정부에 제공하였다는 거금 13,000원에 대한 문중이 나았다. 김구와 안창호의 권사, 불교계의 항일승리인 이중육과 백초월, 그리고 다수의 독립운동가에게 군자금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해임시정부 지원, 그리고 군자금 제공과 관련된 인물은 항일승리인 백초월이다. 그는 3·1운동 이전에는 지라산 영원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강변 항일승리인 백초월이다. 그는 3·1운동 이전에는 지라산 영원사 주지를 역임하였다. 그는 중앙학림 학인이었던 정병한 산상왕 학생육을 천은사 ·화엄사 ·생계사 등의 사한 승려들에게 보내어 자금을 수급계 하였다. 그는 이를 불교계 루트를 통하여 임시정부로 전달했다. 이치림 불교계는 임사정부를 배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국내 불교계를 독립운동 조직으로 총괄하려고 한 의용

^{27) (}일제하불교계의항인유통)(인혜봉·민족사) p176~177

²⁸⁾ nate 한국학(김상호(金尚美:1889~1965)

²⁹⁾ daum 위키백과김법린(含法韓, 1899-1964)

³⁰⁾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제38권종교계의 민족운동 / 제3부분교의 민족운동제2장3·1운동과 불교계 / 3, 3·1운 동아후 불교계의 독립운동

승군 조직 시도였다. 이는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기획・입안되었다는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기획은 신상완·백초월·이종옥·백성옥 등 임시정부를 배정으로 치열한 항쟁을 하였 던 불교의 투쟁이라는 기반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

1920년 4월 6일 僧侶 申尚玩 鍾路擊察署가 체포. 申尚玩은 상해 임정에 가담하여 승려 李鍾郁·白性郁 등과 한국분교도 대표하여 독립운동. 臨政 內務總長 安昌浩 지령으로 국내 승려를 규함. 義勇 僧軍을 組織,독립운동자금의 모집. 해양사 주지 李瞳光을 상해로 보내려던 기획이 탈로 되어 체포¹⁰

제목: 僧侶 申尙玩이 鍾路警察署에 逮捕의

년월일: 1920-04-06

주제분류: 민족해방운동,대중운동 〉 민족주의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 기타국내활동 총점: 朝鮮獨立運動 第1条 分册 朝鮮國內に於大大民雄主義運動

僧信 申尚死이 鍾蹈警察署에 逮捕되다. 申尚死은 上海 臨政에 加線하여 僧侶 李鍾郁 白性郁 등 과 韓國傳教徒書 代表하여 獨立運動에 奔走하고 있었는데 臨政 內務總長 安昌浩의 指令으로 最近 疑國하여 國內 僧侶를 ม合하여 義勇僧軍음 組織하고 또 獨立運動資金의 募集과 有力한 僧侶 인 治印寺 住持 李曉光을 上海로 보내려던 企劃이 탄로되어 逮捕되었는데 이에 關聯된 者는 다음과 같다.

申尚玩(30. 龍珠寺 僧侶 別名 田長春 金子蔦 金裕元 李春谷) 逮捕

金祥憲(28. 梵魚寺 僧侶 別名 寢達翁 金達) 逮捕

金太洽(30、釋王寺 僧侶)逮捕

李錫允(23, 安城 靑龍寺 僧侶 別名 李春谷) 未逮捕

白初月(42, 源寺 住持) 未逮捕

李鍾郁(38, 月精寺 僧侶) 未逮捕

白性郁(26, 奉國寺 僧侶) 未逮捕

金奉信(26, 海印寺 僧侶) 未逮捕

金法麟(22, 梵魚寺 僧侶) 未逮捕

朴玟悟(24. 通度寺 僧侶) 未逮捕

金大鎔(22, 孤雲寺 僧侶) 未逮捕

姜大呂(30、鐵原代書業) 未逮捕

라는 기록으로 보아 4월 6일에 상해로 탈출 하려다가 신상환(申尚玩(당시, 30세) · 김상현(金祥莊 (당시, 28세) · 김태흡(金太治(당시, 30세)이 체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백성옥(白性郁·당시, 26

³¹⁾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제38권종교계의 민족운동/ 제3부불교의 민족운동제2장3·1운동과 불교계 / 3, 3·1운 동이후 통교계의 독립운동

³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시대별연표(근대사)

³³⁾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테이터베이스 / 일재침략하 한국36년사 자료 / 僧侶申尙玩

세)은 봉국사(孝國寺) 승리(僧侶)로 미체포(未逮捕) 되었다가 이후 불교중앙학림 동료들과 상해로 망명길을 떠나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여자진다.

4 백성욱과 상해 임시정부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上海)에서 발행하는(獨立新聞)의 경영에 관한 건-(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1924. 2, 23) 에 의하면.

二 『獨立新聞』 經營者 및 主要記者・計員 其他 関係者의 姓名 등은 如何

主幹: 金希山(김희산)

主筆: 朴殷植(박은식)

記者: 姜弼周(장필주) 編輯: 申斗植(グテム)

.....

印刷部員:高容煥(고용환)·趙東祜(조동우)

社員:李東烈(이동望)·崔護愚(斜근우)·白性部(백성욱)·柳炳莊(유병기)·羅在玟(나재민)·張萬 鎬(장만호)·金永澤(김영택)·金頌九(김병구)

등으로서 各自 擔任한 外에도 相扶相助하고 있다. 이 밖에 使喚,雜役 등 四五名이 있다"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정부 기관지로 안장호 · 이광수 · 차이석(庫利錄) · 백성욱(白性部) 등과 같 이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³

상해 임시정부 조직 직후에 신문의 발행을 추진했으나 당시 상하이에는 한글 활자가 없어 신문 발행이 늦어지다가 조동호(趙東龍)가 한글 성서에서 글자체를 본떠서 활자를 만듦으로써 1919년 8월 21일에 비로소 창간되었다 ··· 사장 검 주필에 이광수, 편집국장 주요한, 영업국장 이영련, 그 리고 기자로 조동호 · 옥판빈 · 최근우 · 박현환 · 고진호 · 차관호 · 백성옥 · 감독형 · 김차룡 · 나 재문 · 유병기 · 장만호 등이 참여했다.³⁰

이평수가 쓴 창간사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이 신문의 사명관을 "첫째 민족사상의 고취와 민 심의 통일을 이룩하고, 둘째 우리 국민 스스로 보도기관을 운영하여 사정과 사상을 우리의 입으로

³⁴⁾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75. 상해에서발행하는(독립신문)의경영에 관한건

³⁵⁾ daum 위키백과 (조동호(趙東枯,1892-1951) 독립운동가, 언론인,정치〉된

알리는 구실을 하는 한편, 셋째 정부를 독려하고 국민의 진로방향을 제시하며, 넷째 문명국민으로 서 필요한 새로운 학술과 사상을 소개하고, 다섯째 새로운 국민성은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하 였다 … 이광수는 사설과 논설・단평 등을 주로 쓰면서 간혹 시(제28호의 (간도 동포의 참상) 등) 를 설었다. 편집이나 취재・집필 등은 주요한이 주로 받았으며, 제86호(1920년 6월 24일)까지 중 사하였다. 김여제는 임시정부 외무부의 선전주입・국무원 비서장대리 등의 임무를 맡아보면서 취 재나 제작을 도왔다. 이 밖에도 왕관빈(王觀彬)・박현환(朴賢煥)・최근우(崔建愚)・고진호(高展 뭣)・차관호(康觀翰)・백성옥(白性郁)・감독형(金得尊)・김차룡(金太龍)・나재민(羅在政)・유병 기(縣所基)・장만호(振萬茲)등이 필진으로 약하였다"

5. 백성욱과 《혁신공보(革新公報)》

백성욱이(혁신공보)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 자세한 기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독립운동가 김상헌(金蒔蔥)의 기록 중에 "신상완·백성욱 등이 주동된(혁신공 보)란 비밀 독립신문을 김상호와 함께 여러 지역으로 배포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 라고 하기는 했지만 여러 자료에서 백성욱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 백성욱은 상해 임정에 참여하면서 임정 국내 특파원으로 귀국하였다가 안동현 육도구(安東縣 六 道溝) 동광상점(東光商店)에 머무는 김법린 · 김대용, 서울의 백초월(白初月) · 박민오(朴玟)(新 · 김 봉신, 지방의 김상호(金尚昊) · 김상헌(金祥憲) 등과 함께 지하신문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 간 · 배포하였다(1919, 5)

> 백성욱은 신상완과 함께 같은 해 8월 중순 국내에 지령을 보내 불교계 대표를 임시정부에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상호 · 김상헌이 주선하여 포광 김영수(包光 金ీ溪)가 상해임정 으로 밀파되었는데 김상헌이 포광을 수행하였다. 백성욱은 상해임정에서 활동하다가 1920년 프 링스로 가서 보베고등학교에 압학하여 독일어와 라틴어 들을 공부하였다²⁶

라는 기록으로 보아 백성욱은 (혁신공보)창간에 주동으로 참여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골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면서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는 하지 만 이 자리에서는 (혁신공보)에 대해서 대략만 말해두기로 한다.

³⁷⁾ chu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독립신문(獨立新聞))

³⁸⁾ 디지털양산문화대전 (김상헌(金祥憲)) 인물/ 근현대인물 / 향토문화대진

^{39) (}일제하분교계의항일운동)(임혜봉,2001, 민족사) P158~159

1) 독립운동가 김상헌(金祥憲)**

1918년 불교학교인 중앙학립 학생으로서 민족사상 고취 및 불교 연구를 목적으로 한 유심회는 조직 하여 신상완(申詢玩)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김법린·정병헌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유심회는 같은 해 11원 한용운의 지도를 받으면서 민족운동 단체로 발전되었다. 1919년 2월 말에 한용운의 지시로 상경 하여 〈독립선언문〉을 살포하는 등 3·1운동에 참여한 뒤 동지들과 양산으로 내려와 3원 6일 범어사에 서 비밀리에 자체적인 선언식을 갖고 서운로 돌아갔다.

신상완·백성욱 등이 주동된 (혁신공보)한 비밀 독립신문을 김상호와 함께 여러 지역으로 배포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하였다. 신상완으로부터 국내 유력 승려를 상해로 보내달라는 민지를 받고, 김포광 (金包派)을 대통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갔다가 신상완과 함께 귀국하였다.

2) 《혁신공보》 창간호(1922年 8月 10日) 創刊辭41)

발송일: 1922年 8月 10日

三一運動 以來로 國內國外에 在意 同志问题가 新聞雜誌号 發刊호야 獨立精神을 鼓吹호고 革命方略을 指導호다 호는 者 實息 兩後의 竹筍及材 趙出호앗스나 真正호 公論을 非唱호며 明確히 方略를 指定호야 萬尺의 趣向客 바를 示호며 一世의 標準客 바를 定호야 民族運動의 羅針盤을 作客반호 者는 長星이 稚少 호도다 …중략(中略)

故로 括入은 今回 國民代表會에 参加すと 話君의게 動き上い 些少ぎ 感情으로 机模专지 말고 得成意 意見을 固執す지 말고 浮成意 勢位書 食姜刈 만만 最純潔 最正直 最明澈意 観光으로 大勢暑 達觀を 中大局急 靜思寺の 無用無實의 虚影政府号 解消章고 相導相合의 質際機關을 組織す아 遊兵臺上의 力略功 富國富族의 政策을 得究 確立すぐ 三一運動의 根本的 大方格島 立き고 信達民族의 前途号 指導州 喜지이다 (以下大號)

3) 기사제목 : 金相玉 등이 革新團 조직 《혁신공보》발행49

날짜: 1919년 04월 일

金相玉 등이 革新團 조직, 《혁신공보》 반행

[출전] 한민족독립운동사 4 p.488

⁴⁰⁾ 디지털양산문화대전 (김상현(金祥憲)) 인물/ 근현대인물 / 향토문화대전

⁽¹⁾ 국사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7/ 제II 장 중국관내지역

⁴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대이터베이스 / 시대별연표(근대사)자료소개

4) 기사제목 : 柳年秀 外 3명 3 1운동 이래 《혁신공보》격문 배포⁴⁹

날짜: 1920년 01월 31일

胡年秀 外 3명 3·1운동 이래(혁신공보(華新公報)) 등 격문 배포 혐의로 검거. 위 4人은 1919·9. 全 嘉鎮과 더불이 상해 임정으로 망명한 任風淳·朴安悟·金奉信 등이 상해서 보내은 《獨立新聞》・《新 大韓》・《草新公報》)・《新韓青年》등 각종 문서백포

[출전] 1920 · 2 · 13 高等警察關係年表 제372 8호 · 秘 不認印刷物配布者 及 獨立運動資金 募集者檢 舉の件 일제전략화 36년사-5 p24

5) 기사제목 : 天津에서 發行한 《혁신공보》 押收, 사리원경찰서에서 4

신문명 : 동아일보

발해년월일: 1922-10-28

6) 기사제목: 面所에 北京에서 발행하는 《혁신공보》, 면기수가 바다서 보다가 발각49

신문명 : 동아일보

반행년월일: 1922-11-07

7)기사제목: 在米 朝鮮學生의 米 各地 巡圈講演: (혁신공보) 발행자로 현재 미국「이벤스빌」대학생 사 泰英, 디방신문은 그의 辯才와 계획을 찬성 한다⁽⁶⁾

신문명 : 동아일보학생

발행년월일: 1923-01-17

8) 기사제목 金相玉(京城 昌信洞, 耶蘇教人 陪鎌切

년원일: 1919-10-12

출전: 每日申報 1919 11 3 · 5

金相玉(京城 昌信湖, 耶錢教人 路鐵工)과 高元成(京城 昌信洞)은 革新公報 圆民解惑 大韓國民會趣旨 書 臨時政府後接台趣旨書 政府後接會規定 및 同 舞約書景 印刷 發行补 嫌疑忌 檢學되다.

⁴³⁾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웨이스 / 시대별연표(근대사)자료소개

⁴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대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신문자료자료소개

⁴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 신문자료자료소개 46) 국사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 신문자료자료소개

⁴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청략하 한국36년사자료소개 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청략하 한국36년사자료소개

9)기사제목: 大同團의 全協이 鄭必成과 協議49

년원일: 1919-11-30

출진: 毎日申報 1919.11.30

大同團의 全용이 鄭必成과 偽議하고 韓國獨立思想을 鼓吹하기 위하여 京城에서 發行한 (大同新報) (革新全報) 自由悬鐘 等 散文과 印刷機의 더불어 顯係者 一同이 京城 鍾路警察署에 檢界되다. 今春 獨 立高級運動 勃發 以來 朝鮮 各地에서 微文 數百極이 配付되었고 上海方面으로부터도 數極의 改文이 密達되어 왔으나 京城을 中心으로 大大的으로 散文을 印刷 配付하기 위하여 大同團의 全協은 鄰必成과 協議하고 印別機을 購入 未測活版所를 組織하여 樣養復 李根高 朴魯昌 黄髮 金用儀 等 5人의 職工 을 壓储하여 7月 切切부터 (大同新報) 第1號 1萬核를 印刷 各地에 配付하고 繼續 發行코자 하었으나 職工의 自自으로 約 10日 前에 押收 檢學된 것이다. 그리고 3月 中旬부터 下旬까지 柳葉元이 中央青年合館 卒業生 襲雲成, 洋成學校 卒業生 張漢後中 協議하고 獨立新聞을 3周 印刷 發行하였고 5月에는 中央學校 生徒 柳瑚和 崔碩寅 등이 主線가 되어 (自由民報)를 引觀 《革新公報》라 改稿하고 韓景聚 등과 協議 印刷 撒布하였었다.

10) 기시제목: 客年3・1獨立運動 勃發 以來49

년월일: 1920-01-31

舎刊:1920.2.13 高警 第3728號 (和 不隠印刷物配布者及獨立運動資金募集者檢舉の件

客年 3·1獨立運動 勃發 以來《革新公報》其他 檄文을 配布하였다는 獎駁로 다음과 같이 柳年秀 의 3名을 京畿道에서 檢舉하다. 이들은 昨年 9月頃 金嘉預과 더불어 上海 大韓民國臨時政府로 亡命한 任 原淳・朴玟悟・金奉信 등이 同地에서 보내온《獨立新聞》・(新大韓)・(革新公報》・《新韓青年》등 各 種 文書를 配布하였었다.

柳年秀(21, 京城府 花洞 138) 未逮捕

金榮善(26, 京城府 嘉會洞 175 菓子商) 逮捕

李干昌(18. 京城府 體府洞 117 京城高普 生徒) 逮捕

金用仁(29, 京城府 光化門通 57 雜貨商) 遠補 1920,2,13 裔警 第3728號 @ 不穩印刷物配布者及獨立 運動資金募集者檢學の件

⁴⁸⁾ 국사관찬위원회 한국사대이터베이스 / 일재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소개

⁴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자료소개

6. 백성욱과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教青年會)

백성욱·김법린·도진호 등 청년 승리들이 주축이 된 조선불교청년회²⁵는 1920년 결성된 불교 단체, 3·1운동 이후 도진호(都鐵鎖) 등 불교계 내의 혁신적 청년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6월 20일 각황사(榮皇寺)에서 창립했다. 이들은 특히 친일매국 승려 이희광이 조선불교를 일본 업재종(臨濟 宗)에 귀속시키려는 유모를 꾸미는 데 격분하여 조직을 건설했다.

이들은 조선 불교의 혁신을 위해 12월에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조선불교는 만사를 공의(公議)에 의할 것, 30본산(本山) 연합제규를 수정할 것, 조선사찰의 재정을 통일할 것, 조선불교 교육의 주 의와 제도를 혁신할 것, 포교방법을 개신할 것, 종래의 의식을 개신할 것 등 실권적으로 사찰령의 폐지를 거냥한 8개조의 건의안을 30본산 연합사무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30본산 연합사무소와 각 본산 주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청년회의 개혁안이 실 효를 거두기 힘들게 되자 1921년 중리 김법광 등이 불교 유신회를 창립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펼쳤다. 조선불교청년회와 불교유신회의 관계에 대해 1924년 청년회의 총재로 추대된 바 있는 한용운은 〈불교〉에.

> "조선불교청년운동은 전불교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대표부이고, 유신회는 청년회를 지도하는 인 물들로서 일종의 유격대라 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마 있다. 청년회는 1922년 전조선청년단대회를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각 사관의 주지 나 보수적인 인문들에게 증오를 받아 운동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간관만 걸어놓은 채 명액을 유지했 다. 1927년 백성옥ㆍ김법린 등이 다시 청년회의 환성화를 꾀하고 승려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 개하기도 했다. 1931년 조선불교정년동맹으로 개편되어 활동을 계속했다"

1931년 조선불교정년회를 조선불교정년동맹으로 개칭, 붉교륜 통한 정년운동을 강화하고, 이해 월 간지(불교)용 인수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봉교의 대중화와 학인독립 투제사상 고취에 힘썼다"

⁵⁰⁾ daum 위키백과 (김법룡(金法龍, 일본식 이름 : 香川東華 또는 金井法龍)) 승리

⁵¹⁾ daum 위키백과 조선불교정년회(朝鮮佛教青年會) / 브리태니커 52)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한국독립운동의 역사/독립운공자 공훈자료 / 한용운

7. 백성욱과 만당(卍黨)

1) 불교계 비밀결사조직 만당(卍當) 53

항일무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교계 비민결사조직, 1920년대 이래 불교청년운동이나 유신회 운동 등 공개적인 불교운동은 일제의 단압 속에서 제대로 환동할 수가 없었다. 이에 공개적인 운동 의 한계를 결감한 백성우ㆍ집법린ㆍ집상호ㆍ이용조 등이 1930년 비밀결사를 조적하기로 합의하 여 여러 동지를 규합한 다음 비밀리에 창당선서를 하고 당명을 만당이라고 했다.

정교분립(飲教分立)·교정확립(教正確立)·불교대중화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입당 시 '비밀한사업수당의절대복증(秘密限死嚴守黨議施對限從)'의 서약을 했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 기 위해 선언과 강령 모두 구송(口誦)했다. 당수로는 한용운을 추대했으나, 만일의 경우 누를 끼치 지 않기 위해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도쿄(東京)에도 지부를 두었는데, 책임자는 김법린이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교정(故政)에 참 여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는데, 1934년 이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당원들이 교부원의 요직에 나가게 되면서 조직이 흔들렸다.

이후 1938년 김법린·장도환·최법술·박근섭 등이 일본 경찰에 검거되자 결국 해제되고 말았다. 이들의 활동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나 생존자들의 단편적인 회고에 의하면, 불교와 사회주의사상의 접목을 꾀했다고 하며 일부 중국으로 진출한 당원은 중국 공산당의 항일투쟁에 동참했다고 한다.

2) 항일결사 만당⁵⁰

만당(卍黨)은 일제하 불교계의 대표적인 항일 비밀견사단체이다. 1930년 5월경 비밀리에 창립 된 반당은 만해 한용운을 따르던 항일의식이 투천한 불교청년들이 정교분립 · 교정확립 · 불교대 중화라는 강령을 내세우면서 일제의 불교정책 저항과 민족부교의 지황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 불교 유신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던 조선봉교청년회·조선봉교유신회는 1925년경에 스스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1928년 초반 조선분교청년회는 재기하였다. 청년회를 재 기시킨 불교청년들은 불교청년운동 부진을 극복하면서 불교개 전반을 개혁하려고 하였다. 움직임 은 1929년 1월 자주적으로 불교 교정을 확립하기 위한 승려대회에 주도적인 참여로 나타났다.

⁵³⁾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의역사/ 제38권종교계의 민족운동/ 제3부불교의 민족운동 제3장불교계의 민족의식과 자주화/ 2, 불교자주화의지향

⁵⁴⁾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의역사/ 제36권종교계의 민족운동/ 제3부분교의 민족운동

1930년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불교청년대회 도전호 파견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불교정년운동은 완전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청년회의 조직과 자금문제가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조학유 · 김상호 · 김법린 · 이용조 등은 불교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계 전반의 정상적인 운용을 실천하기 위한 비밀전사체를 조직하였으나, 그것이 만당이었다. 만당 당원은

비밀엄수,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는 서약을 하고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로 활동하였다.

보라! 3천년 법성(法城)이 허물어져 가는 꼴을. 들으라! 2천만 동포가 헐떡이는 소리를.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의분에서 감연히 일어선다. 이 법생들 지키기 위하여,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향자(向者)는 동지요, 배자(背者)는 마건(監眷)이다. 단결과 박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안으로 교정(數故)을 확립하고 밖으로 대중 불교를 건설하기 위하여 신명을 도(歸)하고 과감히 전진할 것 옵 선언한다.

만당은 교단 안정과 민족불교 지향을 기하기 위한 강령을 정하고 교단개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에 자주적으로 종헌을 제정하기 위해 개최된 승려대회를 비롯한 불교계 신흥의 배경과 청년들의 개혁의지가 결합되면서 만당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당시 당원의 입회는 기존 당원 들의 만장일치 찬동으로 가능하였는데, 전국적으로는 80여 명에 닫하고 자주조직을 갖출 정도이 었다. 만당 당원은 초창기에 18명이었는데 점차 증가했다. 이들은 민족의식·항인의식을 소유하고 불교대중화에 관심이 많았던 불교정년운동의 핵심세력이었다. 만당은 불교계 전체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불교정년운동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인환으로 조선불교정년화를 조선불교정년충동맹 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정년회의 지방의식으로 인한 동지간의 연결의 느슨함, 즉 봉일정신 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본적이었다.

만당의 전략에 의해 창립된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은 불교청년운동의 중심단체로서 기능하였다. 만당 당원들이 자연 그 총동맹의 간부를 담당하였기에 만당은 총동맹을 움직이는 이면단체의 역 할도 하였다. 총동맹과 만당은 불교계 교정을 확립하여 불교를 자주적 · 민족적인 방향으로 유도 했다.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기생하는 주지층, 종헌실행 반대세력이 있어 그들파 치열한 대립도 전 개하였다. 당시 불교계의 종헌실행운동, 사법개정운동, 종헌 반포기념일 제정, 교정연구회 창립에 는 만당 당원이 건축이 개인하였음은 그 예준이다.

하지만 만당은 1932년경에 이르러 내분에 직면하였다. 이는 당원 간에 교단 운영에 대한 상이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만당 내부에서는 이를 해소시키면서 조직을 재건하려는 음직임도 있었 으나 급기이는 1933년 4월경 자진 해소하는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리한 변화는 자연 분교총동맹에 게도 미쳐 총동맹도 1934년경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침체의 상태로 전략하였다.

이렇게 만당은 의형적으로는 해소되었지만 항일 저항의식을 갖고 있었던 당원들은 각치에서 인 제강점기 불교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대표적인 기점이 경남 사천의 다솔사였다. 다순 사에는 불교청년운동의 주역이자 만당 당원이었던 최범술이 주지로 재직하였다. 최범술은 만당의 해소를 주장하여 관결시킨 당사자였지만, 그 해소는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만당 당원을 다솔사로 모이게 하여 그들 생계와 활동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집법련이었다. 그 리하여 점차 다솔시는 만당 당원들의 집합처가 되어 갔다. 만당의 상징적인 안당인 한용운도 다솔 사를 찾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솔시는 1930년대 중후반 만당 당원들의집합치 성격을 띠면서 진과 적으로는 배일・항일의 근거처가 되었다. 다솔사에는 만당 당원들의집합치 성격을 띠면서 진과 원・사회주의자 등이 왕래하게 되었다.

1938년에 접어들면서 만당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만당의 당원이었던 박근석·장도환·김범 린·정맹일 등이 진주경찰서에 구속되고, 그해 10월에는 김범부·노기용·최범숲이 경기도경찰 부에 구속되었다. 한편 출옥한 최범숲은 한용운과 상의하여 다습사에서 신체호 유고를 수집하여 전집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 작업은 1942년 9월경 일제 경찰에 의해 최범숲이 구속되면서 중단되 었다

한편 1942년 겨울 해인사 강원의 원장인 임환정· 강사 이고경 등 다수의 학인들이 체포·구급 된 사건인 해인사사건도 이면에는 만당과 연계되어 있었다. 즉 한용운, 만당과 연계된 최범술과 친근한 항일의식이 있는 승려들을 체포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이 사건으로 이고경 강백은 고문 후유증으로 입적을 하고, 끌려간 승려와 확인들은 일제의 가혹한 고문·구속이라는 반행을 적어야만 되었다.

이렇듯이 항일비밀결사체인 만당은 볼교교단의 정상화와 불교대중화를 기하면서 동시에 인제 의 언제강전기 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비밀결사운동이라 그 전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불교자주화를 추구한 것은 분명하였다. 이에 그 저번에는 번족분교 지향, 임제강점기 불교에 대한 저항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8. 백성욱과 공학회(共學會)

백성욱이 국내 최초의 학생 사상단체로서 공학회 창립에 주동 인물이라는 것은 알려진 바가 거

⁵⁵⁾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역사 / 제38권종교계의 민족운동/ 제3부봉교의민족운동 제3장봉교계의 민족의식과 자주화/ 2. 불교자주화의지향

의 없었다. 이에 자료를 여기에 옮겨 보다

1) 공학회의 창립과 해산 8

국내 학생계에서 학생운동의 노선 분화는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의 창립에 이은 조선학생총연 합회의 반기와 그를 둘러싼 조선학생회와의 분규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학생계의 사회주의 수용은 일본 동경에서 조직된 조선고학생동우회(朝鮮苦學生同友會) 간부들이 1922년 1원 신사상 을 보급한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조선일보》지상에 〈전국 노동자 제군에 격(版)함) 이라는 제목 의 계급투쟁 선언문을 발표한 때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1924년 11월 조봉암(恒奉岩)・김찬(金 斌)・권오설(權五高) 등 화요회 인사들이 개입하여 개봉단체에서 사상단체로 탈바꿈시킨 혁청단 (萊清丽) 또한 조기 사회주의 학생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직이었다.

학생계의 사상적 분화가 조직적인 실제와 결합되어 나타난 것은 조선학생총연합회의 받기를 통해서였다. 조선학생총연합회는 창립 후 발표한 '조선민중해방' 과 '신사회 건설' 등의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부르주아 민족주의계열의 문화운동 노선에 기초한 기존의 조선학생회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선학생계의 통일기관'을 표방하면서 개인 본위의 조직을 앞세워 기존의 조선학생회를 사실상 흡수하려 한 데서 비롯된 분규의 여파로, 광립과 더분 이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학생운동의 물꼬를 든 것은 1925년 5월 25일 서울에 있는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으로 조직된 학생사상단체 공학회(供學會)였다. 공학회는 회원이 63 명에 불과하였지만,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예분자로 학생운동의 전위를 자임하며 배우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창립 직후 임시사무소를 북풍희(北風會) 회판이 있었던 재동에 둔 대서도 살필 수 있듯이, 공학 회는 화요회(火曜會)·서울청년회와 함께 당대 사회주의 사상운동을 주도하였던 북풍회 계열의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창립 직후 몇 단 동안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던 공학회는 1925년 9월 5일 의용등 천도교연합회 관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선학생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그 당면한 모든 문제를 연구 해결고자 한다', '민중생활에 적합한 교육과 농촌문화 건설 등에 협쓰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고, 권혁(權赫)·이종률(李鍾維) 등 집행위위용 선출함으로써 체제 정비류 일단략 하였다.

그리고 9월 19일 천도교계의 중진 이종린(李鍾麟)과 독일 유학에서 돌아온 백성욱(白性邸)을 초

⁵⁶⁾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제39권1920년대 학생운동/ 제2광진국직학생운동 단체의 성립파 활동/2 사회주의 수용과조선학생과학연구회

청하여 시내 장곡천정(長谷川町), 현 소광동 공회당에서 강언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환동에 들 어갔는데, 조선학생회에서 즐거 사용하던 '학술' 강연회라는 명칭 대신에 '학생문제' 강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채를 띠었다. 이어 공학회는 낙원동 284번지 7호에 다시 사무소를 정하고 10월 1일 그 곳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인 10월 5일 관한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갑자기 공학회 간부 권혁과 이종률을 소환하여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해산을 명령하였다. 해산 이유는 공학회의 4개 강령이 불온하다는 것이었다. 일제 경찰 당국은 공학회가 공산주의자 이종률 외 2명이 개입하고 또 북풍희 · 화요회 · 적박단(赤雹園)과도 연락하며 공산주의운동의 외중으로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관단하였다.

이에 공학회에서는 대표자 이종률 외 4명이 경기도경찰부와 종로경찰서를 방문하여 갑작스런 해산명령에 대한 해명과 제고를 요구하였으나, 당국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애매한 말로 일 관합으로써 교점은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공학회는 창립된 지 6개월도 채 안되어 해산당하고 마는 운명에 처하였으나, 국내 최초의 학생 사상단체로서 공학회가 학생운동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학생운동의 노선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 새로 선명하게 세워지기는 공학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와 유사한 사상단체들이 이후 학생계에 속속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9. 백성욱과 신간회(新幹會)

1) 시국강연회 · 계몽강연회의 활동⁵⁷

전국의 신간회 지방 지회들은 민족자주의식, 완전독립사상, 민족생존 · 발전의식을 배양하고 고 취하기 위하여 시국강연회와 계봉강연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에는 강연회 개최 사실만을 기록하고 연사와 주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강연회 전체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선인보》에 강연 제목과 연사가 보도된 강연회 가운데 임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 지회 강연회 일람표》 - 필자주 : 백성욱 자료만 발췌함.

지회(支會) : 마산

⁵⁷⁾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한국독립운동의역사 / 제46권신간회의 민족운동 / 제8장 신간회 지방지회의 민족운동(I) / 7. 시국강연회 · 계몽강연회의 환동

일시: 1929, 2, 2

연사: 백성욱(白性郁)

황석우黃錫禹)

제목: 현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예술운동

자료: 1929 2 6

위의 표에서 1927년의 문천, 1930년의 평안남도연합회와 안주의 강연회와 같이 한 지역의 강연이 아니라 그 지방 일대를 순회한 '순회강연' 도 자주 실행되었다. 신간회의 강연회는 언제나 대성황을 이루었고 회원과 민중들의 민족의식 계발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때문에 인제 임석정관은 강연을 자주 중단시키기도 하고, 연사를 구속하거나 지회사무소를 수색하는 단압을 자주 가하였다. 註³³

10 백성욱의 독립운동 관련 문서 자료

1) 백성옥과 관련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북교계의 3 · 1우돗 참여와 선언서)™

앞시 살피보았듯이 3·1운동의 준비과정에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이 형성되자 이들은 분교 와의 연합도 추진하였다. 1919년 2월 24일 밤 최린은 한용운의 집으로 찾아가 즉석에서 동의를 받 아내었던 것이다. 한용운은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도 동래의 범어사로 내려가서 주지 오성원(吳權 月)과 이담해(李該海)·오이산(吳梨山) 등과 3·1운동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영남과 호남의 여러 사활에 긴급히 연락하여 동지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불교계에 서는 한용운 자신과 백용성 두 사람만 민족대표로 참석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불교학교인 중앙학립(中央學林) 학생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2월 28일 밤 한응운이 그의 자백이자 그가 발행하던 유심사 사옥으로 학생들을 급히 불러 모아 독립선언서의 작성경위와 3·1운동의 의미를 설명한 뒤 선언서의 배포를 부탁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날 모인 신상완·백성목·김상헌·정정헌·김대용·오택언·김봉배·김법런 등은 중앙학립 안에서 한용운의 지도하에 '유심희'라는 모임을 운영하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바로 인사동에 있던 법어사 포교당으로 자리를 옮겨 논의 끝에 신상완을 책임자로, 백성 욱 · 박문오를 참모로 삼아 이들 세 사람은 서울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 내려가서 활동하기

⁵⁸⁾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8권 3 · 1운동의배경과독립선인 / 제5장 불교계와 유럽계의독립선언서와청원석 / 1. 불교계의 3 · 1운동 참여와 선언서

로 하는 등 행동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3·1운동 당시 학생들도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분교계인 중앙학 림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생조직에 전히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환동하였다. 이들은 한용운의 지도하에 선언서의 배포를 담당하는 한편 3월 1일 오전 시내의 각 교당과 시외의 사람에 긴급히 연락하여 승려와 신도들을 오후 2시로 예정된 탑골공원 독립선언식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들은 3월 2일 새벽 시내에 3·1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각자 담당한 지역으로 흩어져 범어사· 해인사·범주사·동화사·동도사 등 지방의 사람에 서울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달하 였다

3월 중순에 이르러 각지에 파견되었던 중앙학림 학생들이 검거되기도 하고, 검거를 피한 학생든 은 다시 서울로 모이게 되었다. 여기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까지 있었으므로 이들은 서 로 왕래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모색하였다.

한편 중앙하림 학생들의 대표격이었던 신상완(申尚玩)은 3·1운동 직후 일본 경찰의 수사가 임 중해지자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던 인사들을 만나고 잠시 귀국했다가 4월 하 순쟁 다시 상해로 멸향하여 임시정부와 관련된 인을 하였다.

그는 7월경 상해에서 백성욱·이종욱·김법린·김상현 등과 논의한 끝에 승려들을 독립운동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대한승려연합회' 명의의 선언서와〈임시와용·승군헌제(顯時義勇備軍遊制)〉 플 작성하였다.

이것을 국내에 배포하는 과정은 각 사찰에 기밀부를 설치하여 대한승려연합회를 구성하고 임시 정무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상완은 안광호의 명의로 작성된 각 사찰에 보내는 회장(回掌)을 가지고 1920년 2월 서울로 건너왔다. 이후 신상완은 동도 사·해인사·범어사·석왕사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자금 모집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지원, 그리고 군자금 제공과 관련된 인물은 항일승려인 백초월이다. 그는 3·1운 등 이전에는 지리산 영원사 주지를 역임하였던 강백이었지만, 3·1운동 직후 서울로 올라와 중앙 학림에 독립운동단체인 민단본부를 건성하였다. 그는 중앙학림 학인이었던 정병한 · 신상완 · 백 성욱을 천은사 · 화업사 · 쌍계사 등의 사찰 승려들에게 보내어 자금을 수급케 하였다. 그는 이를 늘고게 무트를 통하여 임시정부로 전단했다.

이처럼 불교계는 임시정부를 배경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목한 부분은 국내 불교계준 독립운동 조적으로 총괄하려고 한 의용승군 조직 시도였다. 이는 생사되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기 휙・입안되었다는 자체가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기획은 신상위・백초워・이종육・백성욱 등 임 시정부를 배경으로 치열한 항쟁을 하였던 불교의 투쟁이라는 기반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다.

2) 백성문과 과련한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1-조선북교 승려대회 밤기회 개최의 건 보고(톳보) 500

문서번호: 京鍾聲高秘 제16041호의 2

박송자 : 경성 좆로경착서장

박송의: 1928년 12월 04의

수신일: 1928년 12월 06일

2-조선불교 승려대회의 건 보고(통보)60

무시번호 : 京鍾擊高秘 제127호

발송자: 경성종로경찰서장

밝송일: 1929년 01월 07일

수신자: 경무국장, 경기도경찰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수신압: 1929년 01월 08일

3-조선불교 중앙교무원 이사회의 건⁽ⁱ⁾

문서번호 京鍾警高秘 제3518호

밤솟자: 경성 종로경찰서장

반송일: 1929년 ()3월 25일

수신자: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수신일: 1929년 03월 26일

4-조선불교청년회 제2회 정기대회에 관한 건(3)

문서번호 京鍾努高秘 제3518호

방송자 : 경성 종로경찬서장

밤송일: 1929년 03월 25일

수신자: 경무국장, 경기도 경찰부장, 경성지방법원 검사장, 관계 각 경찰서장

수신일: 1929년 03월 26일

5-조선소년총연맹 상무위원회의 건(3) 与 문서번호 京鍾聲高秘 제3751호

⁵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⁶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⁶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학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⁶²⁾ 국사된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인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방송자: 경성 종로경찰서장

발송일: 1929년 03월 28일

수신자: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수신일: 1929년 03월 29일

6-布啡 鮮人僑民團 議事會 開會에 관한 건60

발송자: 竹內駒治(호놀룰루총영사대리)

발송일: 1925년 01월 30일

수신자: 幣原喜重郎(외무대신)

수신일: 1925년 02월 26일

7-在歐朝鮮人의 概況에 관한 건60

문서번호: 高營 제26/9호

발송자: 三矢官松(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방송임: 1925년 08월 08일

수신자: 木村銳市(외무성 아세아국장)

수신일: 1925년 08월 12일

8-在歐朝鮮人의 狀況 調査方法에 관한 건 때

문서번호: 亞二機密合 제224호

발송자: 陰原嘉重郎(외무대신)

발송일: 1925년 09월 02일

수신자: 영국 등 유럽 각 공관

수신임: 1925년 09월 02일

9-鮮人 朴容萬 來布並計劃에 관한 건67

문서번호: 亞二機密合 제251호

발송자: 幣原喜重郎(외무대신)

발송일: 1925년 09월 30일

수신자: 松平恒雄(미국특명전권대사) 등

⁶³⁾ 국사된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인운돗문서 이미지자를 참고 60 국사평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익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⁶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⁶⁾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사 이미지자료 참고 6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수신일: 1925년 09월 30일

10-柳東說의 過激思想 宣傳에 관한 건(**)

문서번호 機密 제125호

발송자: 場与三吉(간도촛영사대리)

발솟일: 1920년 06월 10일

수신자:內田康哉(외무대신)

수신일: 1920년 06월 21일

11-上海假政府의 新聞 發刊 計劃에 관한 건화

무서번호 政一機密梁 제37호

방송자 : 內田應齡(외무대신)

발송일: 1920년 10월 05일

수신자: 山崎馨一(上海總領事)

수신일: 1920년 10월 05일

12-朝鮮側 활察이 朝鮮人 金順 등을 拘引시킨 것에 관한 건70

문서번호: 受20669호-소제259호

방송자: 吉田伊三郎(在中國 臨時代理公使)

발송일: 1921년 06월 27일

수신자: 內田康哉(外務大臣)

수신일: 1921년 07월 02일

13~大正 九年 六月 上海 在住 不逞鮮人의 行動71)

발송자:發移局

발송일: 1920년 06월

수신일: 9999년-주(註) 디지털 작업함 때 년도 오류로 보임

14-國內・中國 東北地域 宗教運動 不逞僧侶 檢舉ノ件"

발송자:朝鮮總督府警務總長

⁽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향인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7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향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⁷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⁷²⁾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항일운동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수包对:次官發發先內閣總理大臣,各省大臣,拓積局長官,營戒總監,檢事總長,朝鮮即司令官, 朝鮮兩師國長,憲兵除司令官,閥東長官,閥東集司令官,衛海要從部司令官

み付み:大韓俗怪聯合合代表者:吳卍光 李湛印 金鷲山 英種潭 崔鯨坊 朴法林 安湖山 奥東一 池等山 郷労峰 要相格 金東及

豊会望:大正九年五月六日 大韓民國元年十一月十五日[™]

15. 國內,中國東北地域 宗教運動 不混 價倡 檢集의 件70

答年 三月 支那 上海로 달아나 同地 臨時政府에 投身한 僧侶 李鍾郁(이종옥)·白性郁(백성옥) 등이 함께 朝鮮 佛教徒를 代表하여 獨立運動에 奔走하고 있다. 僧侶 申尚玩(신상안)은 요近 문래 來鮮하여 全道의 僧侶를 싸合하여 義勇僧軍이라는 秘密結社를 形成하고 또 獨立運動 資金의 募集 및 有力한 僧 侶을 上海星 誘出하려고 企劃한 事實을 探知하고 四月 六日 京城 鍾路 背察署에서 이를 遠插하여 共犯 者의 함께 刑事訴訟에 回府했다. 事件의 截要는 다음과 같다.

左記

一. 共犯者의 住所 氏名

本籍:京談道 水原郡 華山面 龍珠寺

當時: 京城府 仁寺洞 百五番地 申福成(신복성) 집

逮捕「田長奉(전장춘), 金子萬(김자만), 金裕元(김유원), 李非谷(이춘곡)」이라는 僧侶 申尚玩(신상와)왕) 쓸 = 十 歲

本籍 慶尙南道 東萊郡 北面 恍魚寺

住所 京城府 仁寺洞 百八十八番地

逮捕 襄達翁(태달용) 또는 金達(김달)이라는 僧侶 金祚惡(김상헌) 뿝 二十八 凝 本籍 京畿道安城郡青龍寺

住所 京城府 築園洞 百八十六番地 金徳律(召덕号) 召

⁷³⁾ 국사관찬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6(종교운동관) (129) 高智第一二五七四號 74)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 독립운동가장료 / 高寶 제12574호(1920 5 6)((韓國民族運動史料) 3 (운동편))

未逮捕 李春谷(이촌곡)이라는 僧侶 李錦丸(이석金) 奮 二十三 處本籍 慶傳北道 義城郡 玉山面 甘溪里 作所 歳級南道 安漫郡 文山面 雅王寺

逮捕 僧侶 金太治(召珥春) 當 三十 歲 本籍 慶尚南道 咸陽郡 馬川面 靈源寺 住所 不明

未逮捕 靈源寺 往持 僧侶 白初月(백圣월) 當 四十二 歲 本籍 江原道 襄陽郡 月精寺 住所 上海 佛(巫랑스)租界 地

未逮捕 僧侶 李鍾縣(이종옥)當 三十八 歲 本籍 京畿道 高陽郡 奉國寺 當時 上海 佛(王号스)和界 地 未逮捕 僧侶 白性郁(叫성욱) 當 二十六 歲 本蔣 慶梅南道 陕川郡 海印寺 當時 上海 佛(王号스)租界 地

未逮捕 僧侶 金奉信(召号·①) 當 二十六 歲 本籍 慶尚南道 東萊郡 梵魚寺 當時 上海 佛(至•》之)租界 地

未逮捕 僧侶 金法丸(召<mark>법</mark>名) 當 二十二 歲 本籍 慶尙南道 梁山郡 通度寺 當時 上海佛(**三**랑仝)租界 地

未逮捕 僧侶 朴玟悟(박민오) 當 二十四 歲 本籍 慶尚北道 義城郡 孤紫寺 當時 上海 佛(프랑스)租界 地 未逮捕 僧侣 金大鎔(김대용) 當 二十二 裁本籍 江原道 鐵原郡 鐵原 住所 不明

未逮捕 麥大匹(강대司) 常 三十 歲 本籍 不明 住所 江原遠原州 以下 不詳 期個의 事情에 依하여 江原道에서 逮補羽 耶蘇孜 牧師 趙清和((圣余句) 常 四十二 康

一. 犯罪 事實 梗概

电筒도(신상완) 및 金牌惠(건상헌)은 佛教側 代表者라 하고 孫乘熙(손병회) 등 三十三 名의 獨立宣言 꿈 署名출의 한 사람인 율侶 韓龍雲(한용운)과 結託하고 金샤信(건봉신) · 金法類(건범단) · 金大部(건 대용) · 白性福(백성욱) 등과 함께 市內 各 學校 生徒 代表者와 連結하여 中央學校 生徒에게 獨立 思想을 鼓吹하고 一九一九年 三月 一日 京城에 있어서의 騷接한 때에는 同 學校 生徒를 指導한 者인테 官茂의 搜查가 嚴重하여 身邊이 危險하므로 三月 七日頃 그 스승인 京楼道 水原都 龍珠寺 住持 娄大連(강대란)으로부터 旅費 百回을 얻어 上海로 달아났으나 常時 上海에 있어서의 舒侶의 勢力이 희미하고 不抵하므로 多類의 運動 資金을 얻어 佛教徒의 勢力을 擴張하려고 그 後 上海에 波紋한 同志 白性郁(백성목)과 相携하여 歸鮮하기로 하고 四月 上旬 同地를 出發하여 同 中旬 京城에 醫米하여 同志 李鍾都(이공목)「李斯公(이공공)事件 關係者」《幹護(건상헌) · 金法類(건법헌) · 金奉信(건상선) · 朴权悟(박성오) 등과 資金 翻译에 황 / 하여기라 目的은 建成为 무행다

다시 上海로 가서 七月 中旬 白初月(백조원) 및 金奉信(김봉신)으로부터 金 二千間의 選金을 얻어 이를 當時의 臨時政府 內 務總長 安昌浩(안창호)에게 交付하고 그 後 李短部(이종숙), 金法麟(김법 법)・金祥黨(김상헌) 등과 수合하여 上海에서 曾侶의 배髓을 組織하기로 決定하고 이 日的용 達城하기 용하여는 僧侶 中의 有力者인 慶尚兩道 陜川 海田寺의 性持인 季時光(이회광)을 誘出하여 僧侶甚 收费 할 必要가 있다고 하여 七月 中旬頃 白性部(백성욱)을 接鮮케 했는데 八月 中旬에 이르러시도 何층의 개요이 없으므로 中尚玩(신상완)은 安昌帝(안창호)로부터 李時光(이회광)에 對한 動誘狀과 申舎 江原 道 特派月 및 內務部 委員에 任命한다는 趣旨의 辭令을 받고 八月 下旬 凝新하여 李時光(이회광)에 對 해 上海의 液抗을 勧誘했지만 테人은 態度를 曖昧히 하고 去就를 決定하지 못하므로 京城에 와서 白初 月(백圣월)로부터 運動 資金 및 旅費과 하고 金 三百厩을 受領하였으나 出發에 앞서 安昌浩(안장호)로 부터 十月 …日(施政紀念日)을 됐하여 第二次 獨立宣言을 하게 되니 江原道 一國을 指常하여 核力 奔 走하라는 命수에 接하므로 出發을 中止하고 九月 二十日頃 江原道 遠原에 가서 同地에 居住하는 炭 仲 貫人 申坦均(신원균)을 紹介로 代書業者 美大呂(강대려)에 밝해 第二次 獨立宣言 劃棄이 있다는 것을 달하고 獨立宣言에 國한 注意告書 交付하였으며 期日前에 獨立宣言書 및 太極康暑 遠行하므로 當日까 지는 同志문 취수하여 準備해 둘 것을 命令하고 同道 原州에 가서 耶甄紋(에수교) 牧師 趙潤如(조윤여) 와 含습하여 축에 밝한 짓과 같은 計劃을 授受하고 京城으로 歸來했는데 九月 末日에 이르러서도 上海 에서 宣言畫가 到薪하지 않아서 上海로 向해 出發했다.

同地 到着 後 朴玟悟(박민오) 및 金奉信(김봉선)이 鮮內에서 募集한 運動 資金 三千圓을 受領했다.

그러므로 超額如(조윤여)는 黃海道 平山郡 實山面에 居住하는 趙鍾大(조종대) 外 十九 名과 함께 上 海 臨時政府長 援助費 目的으로써 愛國園 郡園이라는 것을 組織하려고 奔走하면 中 中均玩(신상완)의 監誘를 받고 감절 이 뜻을 鞏固히 하여 活動하고 있는 中 本年 二月 江原道 第三部에서 檢學된 名이다.

申財玩(신상관)은 上海에 緩來한 後 李鍾都(이종욱), 金奉信(김봉신), 白世都(백성옥), 金法縣(김범 린) 등과 協議한 後 僧侶의 團結을 國謀하려고 別抵 譯文과 같은 宣言書 및 關時 義勇僧軍 惠制라는 것을 作成하였는데 이의 目的을 達城하기 爲하이는 有力한 僧侶을 上海에 誘出하고 鮮內 寺刹에 機密部라는 것을 두어 僧侶 메의 機密 交通 機器으로 하여 漸大 僧林의 結合을 ഇ固하게 할 必要甚 느끼고 安昌浩(안 광호)의 贊同을 얻어 同人으로부터 各寺 앞으로 보내는 回算을 携帶하고 本年 二月 十九日頃 上海를 出 疑 天津, 奉天을 經由하여 同二十五日頃 入京하여 一九一九年 八月 上海에서 歸來하여 살고 있는 金祥 甚(김상원)과 함께 同月 二十八日 成歲南道 安逸郡 釋王寺로 가서 同窓인 親友 同寺 僧侶 金大治(김대 음)에게 實情을 告하고 同時 住於인 安精月(강정원)과 面合하여 安昌浩(안창호)의 回草을 提示하고 點時 政府의 現状은 말하고 目下 財政에 翻乏하므로써 金 二千國을 提供해 달라고 請求했으나 拒絕 當하므로 後日 同志書 最適하여 殺害할 것이라는 효見을 일라고 사라지므로 美精月(강정원)은 後難의 두려워 三 月二十七日 金大治(김대春)을 京城에 보내의 金剛家((사업)에게 金 一千回을 提供했다.

그 後 同人은 三月 八日 運動 資金 離集을 目的으로써 慶詢北道 永川郡 銀海寺로 가서 住持 池石潭 (자석담)과 會合하고 三月 二十四日 慶尚南道 東萊애 所在한 梵魚寺 布教所로 가서 同志 金尚吳(김상 호)와 共謀하여 本寺에서 運動費器 提供하라고 하였으나 目的을 達越하지 못했다.

三月 十七日 金牌蕊(김상헌)을 해話 銀海寺로 派遣했으나 이 또한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고 疑察하여 同志 李錫允(이석윤)을 江原道 特派員에 任한다는 建旨의 辭令을 주고 運動 資金 調達을 寫해 江原道 杆城郡 乾息寺로 가게 하는 한편 金碑港(김상헌)을 指揮하여 他日 佰單 活動의 目的에 돕기 爲해 朝鮮 地图 六百枚를 穩入하였다.

앞서 麥精月(강정원)로부터 提供받은 숲 一千屆 中 二百圓을 합쳐 上海 居住 韓鑲敦(晋敦)(한진교)에 게 중付하고 또 이 사이에 白体部(백성옥)으로부터 安東縣 交通局을 튀由하여 중付해 온 隧時 差第 值 軍 遊勘 및 宣言書譽 釋王寺, 海印峰, 通度寺 통에 選付하고 漸大 僭林의 閉結을 國謀하여 朝鮮 三十本 山 中 十五 個所書 選擇하여 機能部署 該置하고 上海 臨時政府의 連絡하려고 計劃을 進行하고 있던 中 수屆 逮捕剂 되었다는 것이다.

또 全離惠(김상현)은 一九一九年 八月 上海에서 歸來한 後 金達(김달) 또는 要達翁(明단송)으로 鹙名 하여 京畿道 摄波郡 萬奇寺 僧侶 韓相允(한상윤)· 黃護正(왕의정)· 金石性(김석성)과 共謀하고 同年 十二月 忠清北道 報思郡 三升而 元南里 居住 富豪 宋菲志(송기헌)을 취迎하여 出金을 强要했으나 目的 을 法市하지 못했다.

外 三名은 同道 沃川 替察署에 遠捕되었으나 本人은 逮捕를 免하고 依然히 不遑 企劃에 奔走하고 있는 품이다.

發決先

內開總理大臣, 各 省大臣, 拓殖局 長官, 警視總監, 檢事總長, 朝鮮軍 司令官, 朝鮮 兩 師園長, 遊兵除司令官, 關東長官, 關東軍 司令官, 鎮莊 要遊部 司令官,

3) 백성육과 관련한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자료

1-제목: 僧侶 申尚玩이 鍾路警察署에 逮捕79

년원일: 1920-04-06

주제분류: 민족해방운동 · 대중운동 〉 민족주의운동 〉 대한민국임시정부 〉 기타국내활동

舎전:朝鮮獨立運動 第1卷 分册 朝鮮國内に於ける民族主義運動

僧侶 申商玩이 鍾路聲祭署에 逮捕되다. 申尚玩은 上海 監政에 加賴하여 僧侶 李鍾都・白柱部 등과 韓國佛教徒를 代表하여 獨立運動에 奔走하고 있었는데 臨政 內務總長 安昌洁의 指令으로 最近 歸國하 이 國內 僧侶를 취合하여 義勇得軍을 組織하고 또 獨立運動資金의 暴集과 有力한 僧侶인 海印寺 化接季醇光膏 上海로 보내려던 企劃이 단로되어 逮捕되었는데 이에 問聽된 품는 다음과 같다.

申尚玩(30, 龍珠寺 僧侶 別名 田長春 金子萬 金裕元 李春谷) 逮捕

金祥版(28, 梵魚寺 僧侶 別名 変達翁 金達) 逮捕

金太治(30. 釋王寺 僧侶) 逮捕

李錫允(23、安城 青龍寺 僧侶 別名 李春谷) 未逮捕

白初月(42, 贯源寺 住持) 未逮捕

⁷⁵⁾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자료

李锤郁(38. 月精寺 僧侶) 未逮捕

白性郁(26. 泰國寺 僧侶) 未逮捕

金奉信(26, 海印寺 僧侶) 未逮捕

金法麟(22、梵魚寺 僧侶) 未逮捕

朴政悟(24. 通度寺 僧侶) 未逮捕

金大鎔(22. 孤雪寺 僧侶) 未逮捕

美大呂(30 鐵原代書業) 未逮捕

超潤如(名, 牧師) (別周事件으로 江原道에서 逮捕) 朝鮮獨立運動 第1卷 分册 朝鮮國内に於ける民族主義運動

4) 백성욱과 관련한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

1-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大同國事件 1)76

警務總監部・警察署 調書(日文)

문서제목 : 宋世浩 訊問調書(第1回)

2-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大同團事件 1)77

警務總監部・警察署 調書(日文)

무서제목: 意見書彥

3-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大同團事件 1)78

警務總監部・警察署 調書(國漢文)

문서제목: 宋世浩 신문조서(제1회)

4-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5(大同國事件 1)799

警務總監部・警察署 調書(國漢文)

문서제목 : 의견서

5-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大同團事件 II)80)

豫審掛判事訊問調書(日文)

문서제목 : 宋世浩 訊問調專(第1回)

6-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6(大同團事件 II)80

豫審掛到事訊問調書(國漢文)

76) 국사편관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원문 및 번역문자료 참고 77) 국사편산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조독립운동사 치료집원문 및 번역문자료 참고 73) 국사관원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조국업운동사 치료집원만 및 번역문자료 참고 79) 국사편산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조국업운동사 자료집원단 및 번역문자료 참고 89) 국사편한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조독업운동사 자료집원문 및 번역문자료 참고 80) 국사편원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민조독업동사 자료집원동 및 번역문자료 참고 81) 국사편원위원회 한국사대이터베이스 / 한민조독업동소사 자료집원동 및 번역문자료 참고 81) 국사편원위원회 한국사대인베이스 / 한민조독업동소사 자료집원동 및 반역문자료 참고

112 양경직

문서제목 : 宋世浩 신문조서(제1회)

7-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三一運動 IV)83

三十一 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日文)***

분서제목:吳澤彥訊問調書

8-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4(三一運動 IV)80

三十一獨立示威 關聯者 訊問調書(檢事調書)(國漢文)

문서제목 : 吳澤 신문조서

9-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6(三一運動 VI)89

三 · 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日文)%

무서제목 : 吳澤彥 訊問調也

10-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6(三一運動 VI)85

三 · 一 獨立示威 關聯者 豫審調書(國漢文)

문서제목 : 吳澤彥 신문조서

11-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8(三一運動 VIII)⁸⁰

三 · 一 獨立宣言 關聯者 公判始末告(日文)

문서제목: 公判始末書(第3回기1)

12-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8(三一運動 VIII)89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公判始末書(國漢文)

문서제목: 공판시말서(제3회의 1)

⁸²⁾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복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록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시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85) 국사관한위원회 한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95) '국사관한유보회 학국사데이터에이스 / 한민족독립운동사 자료집안된 및 번역문자료 참고 95) '업체하물교재의합인소동〉(업체총·법족사, 2501년) (8, 임검에서활동한 역성옥) 125

Ⅲ. 결론(結論)

백성욱은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행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공훈 에 오르지 못한 인물이다. 상기(上記)에 열거한 독립운동 사료(史料)만으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아래는 백성우과 3·1반세운동 당시 서울 시내에서 (독립선언서)를 같이 배포했기나, 상해 임 시정부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유공자 포장(資章) 명단이다.

- · 강대려(姜大呂 : 1889 9 24~1959 12 2) 愛族章(1990)
- 김법린(金法麟: 1899, 8, 23~1964, 3, 14) 獨立章(1995)
- 김상헌(金祥憲: 1893, 2, 1~1945, 12, 15) 愛國章(1990)
- 백용성(白龍城: 1863. 5. 8~1940. 2. 20) 大統領章(1962)
- 백초월(白初月: 1878, 2, 17~1944, 6) 建國褒章(1993)
- 신상위(申尚玩: 1891, 5, 6~1951, 1, 28) 建國褒章(1993)
- 이석유(李錫允 : 1899, 7, 21~미삼) 建國豪章(1993)
- 출치: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독립운동사/독립유공자 공훈자료에서 발췌.

그러나 백성욱은 공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임혜봉 스님은,

발교계의 스님과 본자들은 나름대로 치열한 대인항쟁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교계의 독립운 등은 시대의 요청에 부용하지 못했거나 대체로 올바른 평가를 받다 못한 경향이 제지 않았다"라고 하던서 10여 명을 언급했는데 그 중에 백성옥에 대해서 〈8. 임정에서 활동한 백성옥〉이라 제목을 달고 p157~p162쪽까지 그의 생에 및 독립운동 사실을 열거하였다. 또한, 인산(仁山) 김인훈(金一動: 1909~1992)은 그의 책에서,

방도인(方道人)으로 불리운 형님이 한 분 있었다. 그 형님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음에 다다르자 임종을 지키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어찌될까요? 선생님 같은 이인(異人)이 과연 또다시 나용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니, "모른는 소리 … 나보다 월등 한 재주들이 많지. 해방 이를 후 묘항산의 김운룡이 몽양 집으로 을 걸세. 그리고 금강산 중 백성 육이 있지 않은가. 모두 천하의 기재(命才)들이나 나라에 큰 일이 있거든 나이를 관계치 말고 물 어서 외견을 돋도록 하게나."⁵⁾

^{91) (}신약(神藥))(김일훈,광제원1989년)p490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백성욱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신화(神語)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도 그릴 것이 1919년 3 · 1 만세운동 참여 이후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철확박사를 받고 귀국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1928년 9월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직을 사직하고, 골마로 급강산 안양암(安養施)에서 (대 방광불화엄경(大方廣保華展經))을 제창하며 단신수도를 하였는데, 사신 백성욱은 이 시기에도 비 밀 항인운동단체인 신간회(新幹會)의 주요인물로써 경남 마산(馬山)까지 내려가 연사(演士)로 활 통용 하고 입었다.

1930년경에는 백성욱을 따르는 수도자가 많아지자 안양암에서 지장암(地震魔)으로 거치를 옮겨 1939년까지 화중수도(倉衆修道)를 하다가 일정(日常)의 압력으로 종결하고, 이후 1945년 광복 전 까지 돈악동 자택에서 좌선수도류 하면서 지냈으니 그런 만도 하겠다.

다만, 백성욱은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에 활약했던 인물로 독일 유학에서 돌아 은 이후 1928년까지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거나 참여를 했던 인물인데, 이후 의 1928년~1945년까지의 이 시기에 백성옥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의 행적을 찾는 것이 연 구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무지 못했지만 해방정국 당시에 백성옥은 소위 이승만파의 한 사람으로 건 국운동(姓國運動: 1945~1949)에 참여한 점에 대하여 앞으로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투히 제2대 동국대학교총장 시절의 업적에 대해서도 제조명하고, 그가 불교(佛教) 지식인으로 졸(卒)할 때까지 (금강경)에 역점을 두고 수행자로써 또는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쓴 점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료조사는 백성욱의 독립운동 행적에 관해서만 다루어졌다. 그의 다채로운 생애에 비하 면 편린(片鏡)에 불과할 뿐이다. 차후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통하여 그의 독립운동을 비롯한 많은 업적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초창기 독립운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만큼은 사실이나 독립운동유공자에 포상 (養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흡(朱於)하나마 자료 조사를 마친다. 마지막으로 자료제공에 협조 를 해주신 백성욱 박사의 제자 김동규(金東圭, 78세 : 사단법인 급강경독송회 대표) 선생에게 감사 의 마음을 전하다

참고문헌

《근대 동아시아의 불교학》(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8년)

(금강경 이야기)(김동규, 사단법인 금강경독송회, 2009)

(동국대학교 100년사))(동대100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2006년)

《동대칠십년사(東大七十年史)》(70년사편찬위원회,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년)

(백성옥 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白性前博士 頌壽記念 儒教學論文集)) (백성옥 박사 송수기념사업회 / 동국대학교 1959년)

《백성욱박사문집》(백성욱 박사 송수기념사업화 / 동국대학교, 1960)

(불교수행 요체)(백성욱 박사 가르침, 김동규 받아 엮음, 1988)

《신약(肺藥)》(김일훈, 광제원 1989년)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인혜봉, 민족사, 2001년)

《천일인명사전》2: (b~o) (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 만족문제연구소, 2009년)

《하국독립운동의 역사》38 (하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년)

조선총독부관보 1938년 12월 8일 3567호 (8~9면) 조선총독부관보 1939년 7월 18일 3747호 (5~7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근대장지선, 제1집 / 제51집/한국학술정보 (편)(불교(佛教))7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동아일보 1981년 9월 16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동아일보 1925년 9월 11일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 신문자료소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7/ 제Ⅱ장 중국관내지역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자료/ 僧侶 申尚玩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시대별연표(근대사)자료소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국내외 항일운동 문서 이미지자료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시대별연표(근대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태이터베이스 /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8(종교운동편) (129) 高警第一二五七四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 원문 및 번역문 자료 참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일제친략하 한국36년사》/東亞日報 1924 10 7

국회돋보기 홈페이지 / (여(與)대통령, 야(野)부통령) 이 형 (평론가 - 진한국입보 논설위원) 조선총독부관보 / 徐持異動 / 1938년 12월 8일 3567호 8년 다지털양산문화대전 (김상헌(金華嶽)) 인물 / 근현대인물 / 향토문화대전 정부수반 유적 분원사업 서울시 공식 블로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 설립 이송반의 거주지에 관화 기독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독립운동기자료 / 高韓 제12574호:1920.5.6(韓國民族運動史料)3.1운동편3)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18편 3·1운동의 백경과 독립선인 / 제5장 설교계와 게의 독립선어서와 정위서 / 1 봉교제의 3·1운동 참여와 선언서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75, 상해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의 경영에 관한 건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제38권 중교계의 민족운동 / 제3부 불교의 민족운동 제2장 3 · 1운동과 불교계 / 3. 3 · 1운동 이후 본교계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 운동의 역사 / 독립유공자 공혼자료 / 한용운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 운동의 역사 / 제38권 종교계의 민족운동 / 제3부 분교의 민족운동 제 3장 불교계의 민족의식과 자주화 / 2 불교 자주화의 지향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제39권 1920년대 학생운동 / 제2장 전국적 학생운동 단 체의 성립과 활동 / 2, 사회주의 수용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46권 선간회의 민족운동 / 제8장 선간회 지방 지회의 민족운동(I) / 7 시국강연회 · 계통강연회의 확통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 제58권 국내항일유적지 / 제1장 서울지역 / 2, 주요 독립 운동 사직지

한국일보 1981년 9월 17일 11년 (한국언론재단 웹사이트에서 검색)

daum 위키백과 김범린(金法麟, 1899~1964)

kocca 문화콘텐츠닷컴 (독립운동 유적지 중앙학림(中央學林))

dnum 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教青年會))

daum 위키백과 《독립신문(獨立新聞)》 (1919) / 브리태니커

daum 위키백과 (백성욱)

daum 위키백과 (이화장(梨花莊))

daum 위키백과 〈김범룡(金法龍, 일본식 이름: 香川東華 또는 金井法龍)〉 승려

daum 위키백과 (조통호(趙東祜, 1892~1954) 독립운동가, 언론인, 정치) 편

claum 위키백과 조선불교청년회(朝鮮佛敎青年會) / 브리태니커

dau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독립신문(獨立新聞))

daum 백과사전 한국 독립운동단체 | ㅂ리태니커

kocca 문화콘텐츠닷컴 (독립운동 유적지 유식사(唯心計))

nate 한국학 (김삿종(金術長:1889~1965)

고증 및 자료제공: 백성욱 박사의 재자 김동규(金東上, 78세 : 사단법인 급강경독송회 대표)

남양주 금석문(金石文) 고찰과 시비(詩碑)중 백미(白眉)인 유철시비(兪樹詩碑)연구

엄 중 오(남양주역사박물관 해설사)

I 머리말 Ⅱ. 금석문 이해 Ⅲ 날얏주 대표적 금석문 의미(音味) IV. 유청시비(향토 유적 9호)연구 1. 유철선생 약사 2 시비 취화 3. 증별시(贈別詩)비문해석(8수) 4 만시(挽詩)비문해석(8수) 5. 시를 짓고 비문을 쓴 군현(群腎 : 32인)들의 생애와 활동사항 V. 맺는 말 집필자

엄 중 오 前 남양주시 총무국장, 남양주 문화원 자문위원

I. 머리말

경기도 남양주는 예로부터 한양(漢縣), 도성(都城)과 가까우면서 맑은 한강이 구비 흘러 토지가 비옥하고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찬란한 역사 문화가 꽃피운 고장이다. 이로 인하여 남양주 전역에 여러 형태 여러 종류의 금석문(金石文)이 풍부하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왕룡(光綾: 세조와 정 회왕후룡, 사룡(旭陵: 단종비 정순왕후룡, 洪陵: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룡, 稍陵: 순종황제와 순명 효, 순정효황후룡) 능표를 비롯해서 광해군묘(沈海君瑤)와 왕족들인 비빈, 후궁묘의 묘표 묘갈명과 영의정을 지낸 감옥(金墳: 대동법시행)신생과 박원종(朴元宗: 연산군을 쫓아낸 주역)선생, 원주변씨시조 변안열(遂安烈)선생과 풍양조씨 시조 조명(趙盟)선생 등, 벼슬 높은 사대부들의 선도비, 수를 해야면 수 없는 박위 군세와 그림. 보물종인 봉선사 대종명문(奉允국 大韓銘文), 특별한시비로 진국 어디서도 봉수 없는 유일한시비 유월시비(金徹詩碑)등에 남아있는 옛 성현들의 최고의 문장과 최고의 명편글씨가 남양주의 오랜 역사 문화를 지키며 엣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와 간이 남양주의 풍부한 금석문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그중 시비의 백미(白眉)로 여겨지는 유청시비에 대하여 깊이 있는 문석과 연구를 하고자 한다.

II. 금석문 이해

1. 정의

금석문이란 천이나 청동같은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金文)과 비석처럼 석재에 기록한 석문 (石文)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금석문은 토기에 기록한 토기명문(土器銘文), 나무 조각에 쓰여진 목간(木肺) 적물에 쓴 포기(布記), 고분의 벽에 붓글씨로 기록한 묵서명(墨書銘) 천 기(接晉)에 기록한 묵서(墨書), 기와나 전돌의 명문(数文) 등을 포함하여 부르기도 한다.

2. 역사적 가치와 의미

금석문은 해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모습이나, 생각들을 직접 남긴 것으로 역

사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목히 역사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헌자료가 부족한 고대사를 연구 할 때 특히 유용하다, 금석문은 대부분 당시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짓고, 최고의 병원가들이 글을 쓴 경우가 많았으므로, 각 시대에 따른 글씨의 변천을 연구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에서체와 문체의 예술적 가지를 그대로 간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금석문의 종류

1) 비문(碑文)

비석에 새긴 문장으로 기록된 정보량과 남은 수량이 많다. 급석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음. 비 분의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 시도비(神道碑)

왕이나 고위 관직자 무덤의 길목에 그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종2품(從二品)이상의 관직자만 세울 수 있었다.

나) 묘갈(墓碣)

비문에 신도비처럼 서(字:산문체)와 명(統:윤문체, 주인공의 생애를 글로 표현 문장)이 있는 것으로 신도비를 세울 수 없는 종3품(從三届) 이하의 벼슬올 한 사람들이 세웠다.

다) 묘지명(墓誌銘)

죽은이의 신원과 생애 태어나고 죽은 해 등을 기록한 것

2) 종명(鐘銘)

종을 제작하는 연유와 시기, 종의 원료의 양, 제작 책임자 종명을 지은사람과 글씨를 쓴 사람, 장 인(旺人)등 음 기재한 명문

3) 불상명문(佛條銘文)

급동불이나 철불의 광배(光背)뒷면을 이용해 불상을 만들게 된 연유를 기록한 글

4) 도검명(刀劍銘)

장검, 단점에 복을 비는 문구나 별자리 그림을 상감(象嵌)해 놓은 명문

5) 목간(木箱)

막대 모양으로 다듬은 나무 조각에 문자나 그림을 적어 의사를 전달한 것

6) 토기명문(土器銘文)

토기의 겉면이나 바닥 등에 단순한 기호나 글자. 그림 등을 적어 놓은 것

7) 와전명(瓦填銘)

기와나 전돌에 새겨진 것으로 건물과 무덤의 용도나 주인공 등의 내용을 답은 명문

8) 바위에 새겨진 시문이나 그림

바위에 세겨진 그림과 문자는 인류가 남긴 역사와 문화의 혼작들이다. 수목과 시냇물이 어우려 져 경관이 뛰어난 곳에 새거진 바위 글씨나 그림 시를 통해 선인들의 생활철학을 엿분 수 있고, 높 은 예술성에 정탄하기도 한다.

Ⅲ. 남양주 대표적 금석문 의미(意味)

위와 같이 금석문에 대하여 이야기 했듯이 역사자료 중 보다 정확하고 진실하다 손꼽히는 금석 문, 과연 무엇이기에 중요하게 여겨질까?

금석분은 쇠나 돌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토기나 나무 철기에 기록한 균 씨 등 종이에 적힌 기록이외에 다른 사물에 새겨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 즉 금석 문은 광개토대왕과 같이 국가의 위업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모역 동남 쪽방향의 무덤에 이르는 입구에 죽은 이의 업적을 기록한 신도비를 세워 가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보역 에는 묘표, 능표를 세워 주인이 누인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급석문에는 당대의 사회상이나 제도, 문화 등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특히 금석문을 탁본한 경우 환경과 재질상 부식이나 변형의 가능성이 큰 급석문이 탁분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급복하고 보전됨으로 오래두고 연구 항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양주에는 이러한 여러 금석문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능표, 선도비, 종명에서 그 의미 곱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등표(陵表)

그중 능표는 왕이나 황후의 묘에 세워지는 표지석으로 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비석 인데, 남양주의 많은 능표 중 홍롱 능표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조선 26대 왕의 능인 홍롱(洪陵)의 능비 -

비각내 능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대한 제국의 태황재 고종과 태황후 명성황후 (大韓 高宗太皇高洪陵 明成太皇后 附 左)를 합창한 홍 롱"고종과 명성황후가 한께 누워 있다는 내용이다. 능비의 후면, 언제의 저지로 지워진 흔적이 안타깝 게 남아 있다. 사실 삼吉하게 능을 지키는 이비석이 온전히 자리를 찾이하고 있는 건 등집봉 고영군(高 末报 1853년~1923년 70세) 덕분이다. 대한이란 국호와 황제란 청호를 트집 잡는 일본의 반행으로 고 종황제의 등비가 제자리를 찾지 못 하고 누워 있을 때 고영군은 오히려 고중대창제 등 여덟자(大韓, 太 무高, 太皇后)를 더 세계 비각 안에 세우기도 했다. (병청 사진 1)

2. 신도비(神道碑)

또 다른 금석문 신도비를 통해서도 홍미로운 역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종2품 이상의 고관 부담에 이르는 입구에 세워서 죽은이의 업적을 기라는 비석 신도비 남양주의 많은 선도비 중 감육(金 拓)(영의정 1580년~1658년 78세)의 신도비가 눈여겨 불만 하다. 김육은 인조(仁祖), 효종(李宗)때 문신으로 대통법(大同法)을 확대 실시하고 동전(常平通賞)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조선후기 백성과 나라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경세이념(起世理法)을 중시하여 경세 시무책의 유용한 사상을 푹 넓게 반아들었다.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전쟁 뒤(병자호반)라 백성등의 생활이 배우 궁핍했다. 그래서 각 지방 의 특산물을 공물(實物)로 바치는 제도대신 미곡을 받히도록하는 대통법을 신시하면 백성등의 생 활이 향상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법을 조정에 간의 했다. 이 처럼 집육의 신도비에는 그의 가장 큰 업적중하나의 대통법에 대해 자재히 소개되어 있다. (법청 사전 2)

3. 대종(大鐘)

남양주 진접읍 봉선사(奉先寺)에 도 귀중한 금석문 자료가 있다. 청동으로 만든 봉선사 대중(大鏡), 보통 제397호로 지정된 봉선사 대중에는 종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적혀 있다.

"세조의 공덕과 그의 아들 예종의 극진한 효성이 대단하니 이 큰 종에 그 의미를 담아서 영원히 빛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하 강희맹은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명하기를 세조의 능묘에 절을 세 우니 그 모습이 온뜻 속안내"

 世祖大王功德之盛興夫我嗣王城下誠孝之極所以輝映萬古者不可不托諸錦錦以振耀於無窮焉臣 活孟漢拜手稽首而韓日鳳陵閒會刻令亞榮與婚法樂 —

이처럼 역사의 공백을 매워주는 금석문 그 가치와 의미가 큰 금석문은 역사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별점 사진 3)

IV. 유철시비(兪樹詩碑: 향토유적 9호)연구

1. 유철 선생 약사 (兪椒先生略史) 1606년(선조39)~1671년(현종12)

유철선생은 강원감사 유성증(金舊會)의 아들이며, 목사 유명건(愈命總)의 아버지이며, 영의정 유척기(愈析基)의 할아버지이다.

1633년(인조11) 계유년에 28세에 문파에 급제하여 검열(檢閱)로 출사하여 1636년 설서로 재임할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를 호종(區徵)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을 때 많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롭쓰고 청나라에 사대의 예름 바치자고 주장한 평화론(平和論) 자였다. 1665년 정상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예조참관(韓曹參利)으로 있을 때 청나라 사온부사(謝恩副數)로 다녀와서 경기도 관찰사로 재임 중 1659년 효종왕 능행(護行)때 다리가 무너져 파적 탁산으로 유배되기도 했으며, 1660년 (현종1) 55세 때 현종이 즉위하자 복관(復官)되어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다. 1671년(헌종12)에 66세로 서세(新田)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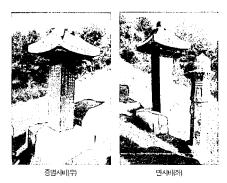
2 시비현황

대사현(大司並), 유월시비(俞嶽詩碑)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을 차산리 산67-1 기계(紀漢), 유 씨(兪氏), 천영(先辇), 유칠선생묘 앞에 좌,우로 시비 2기가 서있는데, 좌편에 해서제(楷書體)로 쓰 여전 증별시비(殷別詩碑), 우편에 전서체(篆書體)로 된 만시비(殷詩碑)로 이루어져 있다.

인조, 호종, 숙종 초에 걸려 활동한 명사(名土)들이 유월선생 생전에 지어준 증빛시 16수와 유천 선생이 돌아갔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린 만시 16수급 그 아들 목사(牧徒) 유명건(命命能) 이 받아둔 것을 유철의 손자 유죄기(命辰恭), 유척기(愈拓基)가 당시 명현 16인의 글씨를 받아 영 조때에 건덤한 우리나라에서 유인한 시비로 그 당시를 살았던 조선후기 기호사람의 거두들로 시 픈 짓고 글씨를 쓴 32인의 시문학 사상과 생애를 지금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가치가 있다 하겠다

- ㅁ 건립 연대와 규모
- 연대 : 1734년 (영조 10)
- 규모 : 총고 = 300㎝, 비좌높이 = 91㎝, 비신높이 = 123㎠, 폭 = 34,8㎝, 두께 = 33,5㎝, 옥객석 높이 = 86㎝ (※ 증명시비, 만시비 두서비의 규모가 같음)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유 차산리 산 67-1(기계유씨묘역내 유천선생묘 앞)

〈 유철시비 사진 〉



남양주 금석문(金石文) 고찰과 시비(詩碑)중 백미(白眉)인 유철시비(為撒詩碑)연구 125

3 유철증별시비문(兪樹贈別詩碑文)해석(解釋): 8수

1) 酒泉贈別詩

浮世低低少友朋與者為別別愁皆早聞北斗页喉舌 晚讀兩州是殷誌李理周應蓋寵湿宦情初不在濫賭 亦知危亂須良克莫以閱材笑薛能 - 瀛洲 练粉後。剛學與李繪書-

주천증별*시

세상살이 갈광질광하다가 사귄 친구 적은데 그대마지 작별하니 시름이 더하구나. 초년에는 북두 같은 참다운 후살·을 들었더니, 반년에는 남주에서 바로 고광·의 재복임을 알았네. 효리하는 치하에서는 온종을 입어 마땅하였긴만, 벼슬하는 심장은 애시당초 건둥·에 있지 않았다오. 위난에는 역시 양리'가 있어야 하거늘, 서투른 재기라고 설능·을 비웃지는 말이주구려. - 호주 채유후 짓고·부세탁 이체쓰다. -

"증별: 이벌, 후설: 송정원관리, 고광: 왕이 신임하는 신하, 건동: 벼슬길, 양리: 출동한 관리, 설능: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의 명상군

2) 東幕言志詩

許與慙駕質追随厠離行干戈悲往事澤水幸逢場花 落敵悲燭宵分對酒床依然舊遊興忘却在他鄉 - 琼谷 南漢泰·右盆聲 東舊書 -

동막에서의 뜻을 만한 시 못난 재결을 인재로 알아주어 부끄러우나, 절에서 형제치렴 까이게 되었네. 간과'는 지난 일이 서글프고, 여기까기 떠들다 과장에서 만나 다행이었네. 꽃잎은 떨어져 바둑관을 두드리고, 한밤중에야 술상을 마주하였네. 예전에 눌던 홍은 여전히 다름없고, 타항에 와 있음도 잊게 되었네. - 희곡 조한영은 것고 - 우람찬 신인은 쓰다. -'등막 관리의 착신 강과 병망

3) 燕行贈別詩

奔奔風塵滿塞陸朝廷遠价異前時人間到底多歧路 天下傷心只別雖造大分楼情易苦闢河咀堤澆堪垂 深知彦國才飲杜成命過看起玉墀 - 市海倉臺· 左藤俊 条華 楊尚 夏 書 -

연행*증별시

아득하고 숱한 풍진 번방에 가득하니, 조정에서 사신 가림도 지난 날과 달랐네. 인간사 결국은 갈림길도 많다만, 천하에 마음 상함은 오직 이별뿐이라네. 잠깐 동안 헤어지니 마음 괴롭고, 만리 관하 가로막으니 눈물만 흐르네. 본래 언국'의 재략이 대단함은 익히 아나, 사명을 빨리 마치고 임금께 보고하게 되겠지. - '임탕 복리서! 일통, 연속 하나의 외재성!

4) 銀臺流傍詩

生同一世又同庚同人級臺礦世榮丹隆越朝聯少武 青綾伴直霧心 情消挨未報身先病四十無閒覺已明 合把經綸付公等疎惟端合早虧耕

- 樂靜 趙錫胤・三淵子 金昌会 書 -

은대*술회시

한세상 같이 낳아 나이도 같고, 승정원에 같이 드니 보기 드문 영광일세. 단폐'에서 종종걸음 나란히 하였고, 청능'이 한께 숙직하며 심정을 토로했네. 연의'도 갚지 못한 채 몸 먼저 병듣고, 사십에도 알려지지 않고 머리만 회어졌네. 모아 잡은 경륜은 공들에게 부치노니, 나 같은 소용'인적 둘아가 농사지었네.

낙성 소식을 짓고, 삼면자 삼상을 쓰나.
 *은대: 승정원, 단폐: 궁중, 청능: 유성, 연의: 국하 마세함, 소용: 게으름

5) 嶺營贈別詩

龍陂高選樂籌司聖阿鎮回來對時妙歲聲變鹽盛 新本雨錄一方私行經粉肚衣仍錦巡到桐鄉口是碑 愧稜珍陳虛在梁白頭才遊久無跨 - 白溫之明英,更買到應不健命書。

영영*에서 작별시

한템은 우수한 인재를 뿜으니 비변사를 누르고, 수대'할 때 임금의 눈은 한쪽에만 쏠리었네. 어린 시절 훌륭한 명망은 한 쌍의 구슬이나, 새봉의 비와 이슬의 은택은 한쪽에만 치우치네. 행차가 분사'를 지나는데 금의를 입었고, 순행이 동향'에 다다르니 청찬이 있었네. 부끄럽재도 진첩'북살하고 책상에 있으니, 원미리에 재주가 다하여 오래 답하지 못하였네.

백주 이명한 짓고, 이조관서 이건명은 쓰다. "영양: 경상도 김영, 주대: 임금께 상신함, 분사: 한교조 유방의 출생자, 동향: 한나라의 자명, 잔참 진중한 문자

6) 冒雨來訪詩

節序三秋届登音夜在堂情風推發署小兩作新涼 歲晏人婚癇霜前屬欲翔誰燒楚宋玉搖落有鎬章 - 沧溫全餘縣:大樓學全編主書-

모우래방*시

절기는 벌써 가을에 이르나, 귀뚜라미 소리가 밤에는 방안에 있네. 시원한 바람은 잔서를 거두어가고, 가랑비는 초가을을 서늘하게 지어주네. 이해도 저무는데 사람은 병들어가고, 서리 내리려하니 기러기는 난으려 하네. 누가 초나라 송옥•울 가없다 하나, 요막•한 중에도 글 보낸 이 있는 것을.

청주 김익희 짓고, 대체학 김진규 쓰다. =
 '모우래밖: 비 맞으며 찾아줌 송옥: 초나라 코워의 제자, 요락: 초목이 바람에 흔들려 많이 뛰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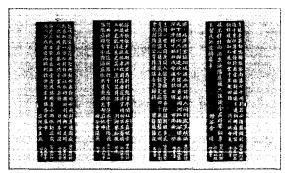
7) 福瑩贈別詩

背綾夢羅動鳴翳按察南藩七十州利器必須盤錯別 通才豈但簙書優行看業路新謠遍己遠桐鄉ັັ 網柱建勳知不遠白雲千里幾回頭

- 沂川 洪命夏・海昌尉 吳泰周 書 -

영영증별시

유생의 꿈 파하자 망아지 울음 을고, 남쪽의 철십 고용 보산퍼 다스리었네. 예리한 연장은 모름지기 반차 에서 나타나, 통단한 채주는 어찌 다만 부서 에만 능하겠는가! 선정반 배풀고 다니는 길 새로운 노래가 퍼지었고, 이미 보낸 시골에는 예날에 받은 유백이 남아입네



증별시비문탁본: 8수.

동주*에 공을 세울 날 멀지 않았을 테니, 흰구름 덮힌 천리에 몇 번이나 고개 돌려지려나.

기천 홍명하 짓고, 해창위 오태주 쏘다. '반차' 다음가 어려운 나무 동절, 부서: 관청의 문서, 동주: 구리기동

8) 酒泉贈別詩

恨不移封向酒泉汝陽恩寵只流涎 今君好帶銅童去習氏地邊醉幾年

- 潜谷 金堉·右额政 趙相愚 書 -

주천증별**시**

옮기어 봉하지 못한 주천을 향하여 한탄하니, 여양'은 거짓 배푼 은중에 첨단을 흘렀다네. 이제 그대는 동장'을 차고 가나니, 습씨'의 못가에서 몇 해나 취하게 될까.

– 잠곡 김육 짓고, 우의정 조상우 쓰다. –

"여양: 태수를 지낸 당나라 왕진, 동장: 구리도장, 습쌰: 당나라 호족

4. 유철만시비문(兪檔挽詩碑碑文)해석(解釋): 8수

1) 挽詩碑女

生世同庆豊偶然

永水家譜幸名聯

間忙異路渦從數

談笑開樟許與傷

望宿三朝遠八座

仁宜遐壽缺稀年

兒婚隔日公先逝

天福無情不少延

- 永安尉 洪柱元・史曹判書 尹徳駿 第 -

해석문

한 해에 태어남이 어쩌 우연한 일이라 하랴.

길이 가보에는 이름이 나란히 실렸을 것을.

한가하고 바쁨은 길이 다르나 자주 들렀고,

담소하며 술잔을 나눠 허여(지기로 이정)함이 유별났다네.

명망은 삼조에 높았으나 판좌(육경과 좌우복야)엔 이르지 못했고,

인성은 하수를 누림직 하였으나 회년을 못 채웠네.

아들 혼사 하루 앞두고 공이 먼저 가셨는데,

하늘은 어찌 공에게만 무정하여 늦추지 않았던가.

- 영안위 홍주원 짓고·이조판서 윤덕준 전하다. -

2) 挽詩碑文

歎息朝躁宿德亡

況間公浙倍堪傷

風稜尚凜霜臺栢

惠澤曾留陝國堂

諄近稀年無四歲

家傅先業有諸郎

三庚勝契今雖在

泉路應尋樂靜堂

- 含人 李窓・不肯子 命健 謹篆 -

해석문

조정에 속덕 없음도 통탄할 인인데, 더구나 공이 서거했다니 마음이 아프다. 풍접은 아직도 상대(사헌부)의 잣남에 품열하고, 해택은 일찍이 섬국(중국 섬서성)의 감당에 남았다네. 수는 희년에 가까우니 사년이 모자랐고, 집에는 선업 전하여 여러 아들 있도다. 삼정의 승계는 비록 지금도 있으나, 황취길에 웹시 남정당(조석윤의 호)을 찾았으리라.

- 사인 이헌 짓고 · 불초자 병건 삼가 전하다. -

3. 挽詩碑文

名家莓昔盛門闆

都憲霜威亦晏居

再與得看三子秀

行年又過六旬餘

楊州春日歸先瓏

寒食新花滿舊地

老矣未成郊外别

白頭遙望涕漣如

- 領議政 季景爽・特平 李邦彦 篆 -

해석문

예전부터 명가로 집안이 용성했는데, 도현(대사헌)도 상위(위세)지니고 평안히 지냈지. 재취하여 맥이난 세 아들 두었고, 세상 또한 옥순 남짓이 살았구려. 양주의 봄날에 선영으로 돌아갔으니, 한식의 새 꽃만이 옛 집에 가득하다. 늙은 몸 교외의 잔별 이루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노라니 눈물 줄을 흐른다. - 영외지 이것의 짓죠. 지원 이방의 전하다.

4) 挽詩碑文

病物深軫令兒婚

哀涕堪釆恩續言

官至亞鄉猶勸屈

静路下壽贵云章

銅魚玉節當李績

金馬銀臺舊日恩

兩世受知情最密

- 一聲鄰笛暗消魂
- 右議政 李劃·收使 李徵夏 篆 -

해석문

병중에도 깊이 영윤의 혼사 걱정하며, 숲픈 눈물 임종의 발속에 뿌려졌다네. 버슬은 아경(참판)에 그쳤으니 균함이 많았고, 나이 하수는 넘었으나 어찌 높다 하랴. 동어(동으로 만든 어벌) 옥원(옥절부)은 당년의 치적이었고, 금마(문명)은 대는 지 난 날의 은영일세. 양대에 지우 입어 정이 가장 깊었는데, 한 곡조 인적(구슬픈 피리소리)에 온영 중 가슴 메이네.

- 우의정 이숙 짓고 · 목사 이정하 전하다. -

5) 挽詩碑文

平步青雲屬望深

妙年華秩帶橫金

舆情早以公孤待

末路居然老病侵

執憲威稜留栢府

觀風惠澤在棠陰

偏型瞑目遲遲意

爲是兒郎未委愈

- 大提學 南龍翼・大司妹 金音澤 篆 -

해석문

청운가 환보하며 촉망도 깊어서 젊은 나이에 화절(높은 품계)로 급대 띠었네, 여정은 인적이 공고(좌우천성)로 가대했는데, 말로는 무연스레 노병 점노했네. 법강은 잠은, 위세는 백부(사헌부)테 남았고, 관풍(관찰사가 인정 살핌)하던 혜택은 당음에 있었는데, 유달리 서럽게도 눈 못 같아 하던 뜻은, 아들의 위급(장가들다), 못했음을 열려하여서하네.

- 대제학 남용의 짓고 · 대사간 김보택 전하다. -

6) 挽詩碑文

先子同年幾고遺

哭公今日鹹堪悲

貳卿宿望三朝屈

周甲流光七耋老

班序漸看考舊盡

典刑空入後人思

他時駐馬楊山路

栓樹荒阡一涕涕

- 領議政 全容恒・府使 金昌関 篆 -

해석문

선자의 동년으론 몇 사람이나 남았는가. 공을 여인 오늘날은 더욱 슬픔 느끼네. 이경(참판)은 숙망으로 보아 삼조를 굴함이요. 주갑의 세월은 칠순에서 몇 해 모자랐네. 반열에선 점차 노구 다함을 보겠는데, 전형(인품 인상)은 공연스레 후인들 추억에 남네. 후일 양주의 길에서 말을 멈추게 된다면, 송추 우거진 황천에서 눈물짓게 되라라.

- 영의정 김수항 짓고 · 부사 김창국 전하다. -

7) 挽詩碑文

年來住近數追隨

交契金蘭老不衰

基酒絲帶投轄日

呻吟頻候臥床時

浮生定限嗟無奈

荐境論心更有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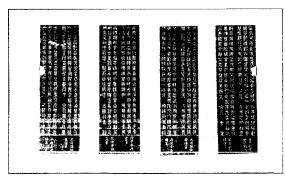
巷柳巖花餘古宅

本風獨立源空垂

- 大司志 李廷夔・不肖孫 拓基 篆 -

해석문

년래엔 가까이 살면서 지주 추수하여, 금란(맹약)의 교의는 늙어서도 석하지 않았네. 투환(쉬고저 수례의 범에를 감충)하여 기주(바둑과 술)로 몇 번이나 머물렀던가. 병상에서 실음 한 편 자주 문후하였었지



만시비문탁본: 8수

부생은 정한 있으니 슬프나 어찌 한 건가. 모경의 논장은 나 외에 뉘 더 있으리. 향류 엄화에 옛 집반이 남았으니, 촌풍에 혼로서서 눈물만 흡린다. - 내사현 이렇기 짓고 · 불초손 최기 삼가 전하다. -

8) 挽詩碑文

意昨松都賜諡辰

居留賢主款迎賓

叨承禮數歇初治

傾仰風標意轉親

朝市揭來似問阻

幽明奄隔倍悲辛

位ी稱屈歸稱減

餘慶應知在後人

- 右議政 李端夏、正郎 金濟謙 篆 -

해석문

생각으론 어제 송도에서 연시연 법릴 때에, 유수는 어진 주인 반가히 맞아주어, 외람되어 예수(예우)입어 즐거움 흡족했고, 풍표 우러르며 마음은 더욱 친근했네. 조정에 오간 때에도 소식이 더러 막혔었는데, 흡연히 유명을 달러했으니 감절 슬프고 아프다. 벼슬도 굴했다 하겠고 나이 또한 모자라니, 여경은 필시 후인들에게 있게 되리라. - 우의정 이단하 쳤고 · 정당 집제집 전하다 -

5. 증별시(贈別詩),만시(挽詩)를 짓고 글씨를 쓴 군현(群賢) 32인의 생애

- 증별시 -

1) 주천증별시(酒泉贈別詩)

지은사람

성명: 호주 채유후 (湖洲 蔡裕後)

본관: 평강 (平康)

생몰: 1599년~1660년, 61세

생애

수정선조실록의 편찬 책임자

623년(인조1) 문과에 급재한 뒤 대제학과 이조관서 등은 지냈으며, 인조실복, 효종실목의 편찬 에도 참여했다. 수정 선조실록(修正宣祖實錄) 즉 선조실록을 다시 고치 쓴 까닭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선조실록 편찬 작업이 이루어진 광해군 때에는 집권 새력인 복인(北人)들이 일을 맡아 자기들의 치적을 내세우고 반대과인 서인(西人)들은 비하 깎아 내린 실록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인 조반경이 일어나 서인들이 정권을 잠자 이 문제를 끌어내어 수정 선조실록을 만들게 되었다. 이때 채유후가 편찬책임자 이었으며, 17대 효종때에 가서 완성 되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 부제학 이재 (副堤學 李緈)

본관: 우봉 (牛峯)

생물: 1678년~1746년, 68세

생애

사례편람(四雜便覽)을 지은 성리학의 대가 1702년(숙종28) 문과에 급제 형조참판, 한성우부운 도송지, 대사헌 등 높은 벼슬을 지냈다. 신임사화(辛壬士福: 경종 때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노론(老籍)과 소론(少語)사이에 일어난 사화)때 벼슬을 버리고 설악산에 들어가 학문만을 연구, 사례편람, 도양 집, 근사심위 등 훌륭한 책음 많이 지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다른 사례편람(四體便覽)은 오늘에도 널리 이용되는 책이다.

2) 동막언지시(東幕言志詩)

지은사람

성명: 회곡 조한영 (晦谷 曺漢英)

본관 : 창녕 (呂寧)

생몰: 1608년~1670년, 62세

생애

1627년 (인조5)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군관 유생이 되고, 1637년 정사문과에 장원으로 급체하였으며, 지평으로 있은 때 청나라가 병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수륙군(水陸軍) 의 원병을 요청하자 조한영은 이를 극력 반대하는 반연소(富言疏)를 올렸으며, 이로 인하여 착화파인 김상헌(金陶遊), 체이항(蔡以恒) 등과 함께 심양으로 잡혀가 삼한 고문을 받고 누옥되었으나, 급히지 않았다.

1659년에는 찬집청당상(撰集殿堂上)으로「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적 관직은 경기 도관참사 예존참판 한성부유을 지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 우참찬 신입 (右衆贊 申錐)

본관: 평산 (平山)

생물: 1639년~1725년, 86세

생애

호는 한죽(寒竹)이며, 1657년 (효종8) 전사시에 합격, 1680년(숙종6)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으 나, 나가지 않다가 1680년 별시문과에 응시하여 병과로 급제 호조좌광, 경기도 도사 정언(正言)등 을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다. 숙종계비 인현왕후 민씨(仁顯王后 関氏)가 복위 될 때 희빈장씨(顧 矯張氏)를 두둔하려 했다고 단핵, 정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가 곧 병조확광 등을 거쳐 연안부사로 나가기도 했다. 1722년 (경종2)신임옥사 때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영조 즉 위 후 사면되고, 영의장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3) 연행증별시 (燕行贈別詩)

지은사람

성명 : 시남유계 (市南蚕堅)

본관: 기계 (杞溪)

생물: 1607년~1664년, 57세

생애

호는 시남(市南)이며 예학과 사학에 정통하였으며, 송시현(宋彰烈), 송준권(宋浚市), 윤선거(尹 宣學), 이유대(李惟蒙)등과 다볼이 충청도 유럽의 오현(五賢)으로 일컬어졌다. 1630년 (인조8) 전 사과에 합격하고 1633년 식년 문과에 울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의 관리로 벼슬을 시작하였으며, 1636년 병자호란 때 착화를 주장하다가 임천에 유배되고 1639년에 풀려나 금산의 마하산(瓜茲山)에 은거, 학문에 전념하며 가례집해를 개작하여「가례원류(家龍寢流)」를 저작하였다. 1649년 인조가 죽자 홍문관부교리로서 왕의 장례 절차를 상소하여 예문에 따라 제도화 하였으나 인조의 묘호 (預號)를 정할 때 조(賴)자의 사용을 반대하고 중(宗)자를 주장한 최로 온선과 영원에 유배되기도 했으며, 1662년(현중3) 예문관 제학을 거쳐 1663년 대사원 이조 창관적에 올랐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좌의정·수암 권상하 (左議政 浚華 權尚夏)

본관 : 안동 (安東)

생몰: 1641년~1721년, 80세

생애 권상하는 초야에 묻혀 후진 양성에 합씀 송시열의 수재자로서 송시열 이 정읍에서 사약을 마시고 축으면서 손을 잡고 부탁한 말에 따라 만동묘(萬東賴): (원진왜만 때 명나라의 의중과 신중 이 우리나라를 도와준데 대한 보답으로 1704년~숙종30~에 청주 화양동에 세운사당)를 세웠으며, 경신대출착(1660년 숙종6) 기사완국(1669년 숙종515) 갑술환국(1694년 숙종20)등 서인과 남인사이의 당쟁에 초연하여 후진 양성에 힘을 썼으며, 숙종 때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로 부터 사립(土林)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도 나오지 않는것을 하나의 상례(影說)

로 알게 되었다

4) 은대술회시(銀臺述懷詩)

지은사람

성명 : 낙정 조석윤 (樂靜 趙錫胤)

본관: 백천 (白川)

생몰:?~ 1654년

생애

인조 4년(1627년)문과에 올라 이조정랑, 승지, 진주복사를 지냈으며, 뒤에 대제학으로 일을때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수에 참여했고 이 조참판,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응교로 있을 때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왕의 뜻에 거슬리는 분장이 있었다. 인조(仁祖)가 그 분장을 고치라고 명하자 법을 받는 하이 있더라도 고칠 수 없다고 버린 사람으로 유명하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삼연자 김창흡(三淵子 金昌翕)

본관: 안동 (安東)

생물: 1653년~1722년, 69세

생애

노론 계열의 학풍을 이은 성리학(住理學)의 대가 김창품은 영의정을 지낸 수학(新担)의 아들이 며, 영의정 창집(昌集)의 아우로 벼슬에 뜻을 두지않고, 학문에 얼중하여 율곡 이이의 희풍을 이은 김장생, 김집, 송시열, 송준길, 권상하 등 노론 계열의 학풍은 김창흡으로 이어졌다.

5) 영영증별시(嶺營贈別詩)

지은사람

성명 : 백주 이명한 (白洲 季明漢)

본관: 연안 (延安)

생몰: 1595년~1645년, 50세

생애

1610년(광해군2)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16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승문원 권지정자 전적, 공조좌당, 이조참의 병조참의, 좌승지, 대사간, 부제학, 대사헌, 홍문관, 이조관서, 예조관서 를 지냈으며, 이괄(李通)의 난 때 왕을 따라 공주로 가서 이식(李碩)과 함께 판도에 보내는 교서를 지었다. 1643년 이경여, 신익성 등 과 함께 척화파로 지목되어 심양(瀋陽)에 잡히가 역류되기도 했으며, 불모로 잡혀간 소험세자(昭顯世子)를 심약에 가서 모시고 온 사람이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이조판서 이건명(李健命)

본관: 전주 (全州)

생물: 1663년~1722년, 59세

생애

1684년(숙종10)진사시에 합격하고 1686년 춘당대 문과에 을파로 급제 수찬, 교리, 이조정량, 용 교, 사간을 역임하였다. 1698년 서장관(#城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우승지, 대사간, 이조판 서, 좌의정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1720년 숙종상에 총호사(穩護使)로서 국장을 총괄하였으며, 그러나 왕세자(연영군)책봉문제로 소론의 맹렬한 단액을 받아 유배지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김창 집, 이이명, 조태제와 함께 노몬사대신(港論四大臣)의 한 사람이다.

6) 모우내방시 (冒雨來訪詩)

지은사람

성명: 창주 김익희(滄洲 金益熙)

본관 : 광산 (光山)

생물: 1610년~1655년, 45세

생애

1633년 (인조11)중광분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정자(副正字)에 등용되었다. 같은 해 검열을 거 처 흥문관에 올랐다. 1635년 수찬, 사서를 거쳐, 이듬해 병자호란이 인어나자 척화론 자보서 청나 라와의 화평을 반대하며, 인조를 남한산성에 모시고가서 독전어사(骨戰御便)가 되었다. 1637년 교 리, 집의를 거쳐 1639년 이조좌량이 되고 1653년 부제학으로서 오랫동안 배려두었던 노산군(魯山 春)의 묘소에 제사 드릴 것을 청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1655년 대사성 대사현 대체학이 된 사람 이다.

글씨 쓴 사람

성명:대제학 김진규(大提學 金鎭丰)

본관: 광산(光山)

생물: 1658년~1716년, 58세

생애

1682년(숙종8) 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1686년 정시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이조좌왕 등을 역임 하던 중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거제도로 유배되었으며, 그러다가 1694 년 감술환국으로 서인이 재집권하자 지평으로 가용되고 1701년 대사성을 거쳐 부제학(副提學), 대 제학, 예조관서 등을 역임하고, 그 밖에 홍관관의 여러 관직과 사인(송人), 이조참관, 병조참관, 공 조판서, 좌참찬 등의 관직도 가졌다. 문장이 뛰어나 반교문(賴敖文), 교서, 서계(書答)를 많이 작성 하고, 또한 전시, 예서 및 산수화, 인문화에 능해 신사임당의 그림이나 송시열의 금씨에 대한 해설 을 남기기도 하였다.

글씨로는 강화총렬사비(江華忠烈嗣碑) 대헌심의겸비(大蔥沈叢議碑) 증지평이렁비(贈持平李翎 碑)가 있다.

7) 영영증별시 (鐵營贈別詩)

지은이

성명: 기천 홍명하 (沂川 洪命夏)

본관 : 남양 (南陽)

생몰: 1607년~1667년, 60세

생애

환폭의 부정을 마로 잡은 안물로 1645년(인조22) 문파에 올라 우의 정과 과의장을 지냈으며, 명 나라에 사은사로 다녀온 뒤 영의정에 올랐다. 나라에서 흥년이 들었을 때나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풍년이 들었을 때나 가을에 둘러받는 제도를 환곡(還報)또는 환상(還上)이라고 했다. 이 진출 제도로 많은 굶주린 백성들이 큰 도움을 입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높은 버슬아지나 서 울에 사는 사대부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곡식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면서도 퀸세가들의 행패는 더 해갔다. 이때 대사현 훈명하가 이화곡의 부정을 바로 잡았다.

글씨 쓴 사람

성명: 해창위 오태주(海昌尉 吳泰周)

본관: 해주(海州)

생물: 1668년~1716년, 48세

생애

12세인 1679년 (숙종5) 현종의 딸인 명안공주(明安公主)와 혼인하여 해장위(游昌尉)에 봉해졌고, 명덕대부(明德大夫)의 위계를 받았다. 그 뒤 광덕대부(光德大夫)로 품계가 올랐고 오위도충부도충관(五衛都總確)종지서계조(游越聚樓淵)등은 역임하였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예서에 능하였는데 1712년에는 청나라 사신이 국왕과 대신의 시가 담긴 병풍을 원하자 그것을 서사(書寫:써서베낌)하기도 하였고, 왕실의 옥력(玉唐:왕이나 왕후의 호를 용리 때 덕을 청송하는 글을 옥에 새겨 놓은 작은 책)과 신관(韓板:신위를 새긴 판) 유지(幽誌:남기 는 글) 등을 많이 쓴 사람이다.

8) 주천증별시(酒泉贈別詩)

지은이

성명 : 작곡 김윤 (潛谷 金增)

본관: 청풍 (淸風)

생몰: 1580년~1658년, 78세 생애

반대를 무릅쓰고 대동법(大同法) 실시에 앞장선 개혁정치가, 인조2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 충 정도 관찰시, 대사성, 도승지, 대사현,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紅鏡政)에 올랐고 중국에도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사회개혁에 앞장선 큰 인플이었다. 특히 그의 뛰어난 경제 정책은 실학과의 거두 유 형원의 실학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시대에 조정에 소용되는 재물은 대게 지방에서 바치 는 특산당 공목(音物)로 충당했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이 배우 불편하고 부작용이 많았다

그래서 1651년(호종3) 김육이 우의정으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법의 실 시를 상소하여 호서 지방에서 실시 되도록 하였다. 이어서 상평통보라는 엽전을 만들어 이용하도 록 하고 백성들이 관리한 시헌력(蜂蜜曆)을 만들어 시행하기도 했다.

지육선생의 묘 와 신도비는 남양주 삼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우의정 조상우 (右議政 趙相愚)

본관: 풍양(豊穣)

생몰: 1640년~1718년, 78세

생애

1657년 (현종8) 사마시에 합격한 뒤, 송준길의 문인이 되고, 1682년 중광문과에 급제한 뒤 지평 훈국도감 종사관 병조정량, 호남지역 암행이사로 갔다가 홍문관부교리 이조좌량이 되고, 이어 대 사성, 부제학 겸비번사 부제조를 거치고 도승지, 호조참관 겸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부 제학이 되어서는 궁궐 생활의 절감을 강조하고 의관(鹽官)을 보내 민간의 환자를 치료한 것 등을 건의하고, 정승으로 있을 때 당본의 꽤단을 없애려고 노력했으며, 부세제도, 형사제도, 예론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였다. 급씨를 잘써서 장렬왕후(蔣照王后:인조계비조씨)의 옥책문을 쓰는데 선발되고, 충현사원(患兵哲院)의사적비 등을 남겼다.

- 만시 -

첫째 만시(挽詩) -1

지은사람

성명: 영안위 홍주원 (永安尉 洪柱元)

본관: 풍산 (豊山)

생몰: 1606년~1672년, 66세

생애

이려서 외할아비지 이정귀(李挺體 인조 때 좌의정)에게 글을 배웠으며, 판례를 치르기 전 향시 에 합격한 수계로 1623년(17세)징명공주(선조와 인목왕후의 따님)와 혼인, 숭덕대부(供德大夫) 영 안위(永安语)의 관식을 제수받고, 1624년(인조2) 이판의 난이 일어나자 우의정 신홈, 시평부원군 한준점 등과 함께 인목대비와 인열왕후(인조비)를 호종하였으며, 1647년(인조24)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이조판서 윤덕준 (東曹判書 尹德駿)

본관 : 남원 (南原)

생몰 : 1658년~1717년, 59세

생애

1679년(숙종5) 정시문과에 올과로 급제하여 정언, 지평, 교리 등을 차례로 지냈다. 1701년 대사 간으로서 민인량(閉彦良)의 옥사에 관련된 장희재(張添載)의 죄를 다스렸다. 이때 여러 사람들의 의해와 세자(뒤에 경종)에게 화가 미친 것을 염려해 극항에 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신중을 기했으며, 이어서 한성부 판윤, 우참찬, 예조판서, 판의금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단정하고 강작해 적간할 때 왕의 뜻에 거슬리 엄한 교지를 받아도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해서(楷書), 초시(草書), 전서(篆章),예서(綠郡)에 재주가 뛰어나 사대부를 사이에 그의 급석지각(金石之瀬)이 유행했다고 함.

둘째 만시(輓詩) -2

지은사람

정명 : 사인 이휘 (舍人 季請)

본관 : 전주 (全州)

생물: 1628년~1679년, 51세

생애

1665년(현종6) 문과에 급재 괴원(槐院), 한원(蘇苑)을 거쳐 양사(蔣司), 춘방(春坊), 옥당(玉堂)과 이조(英曹), 명조(兵曹)의 낭관(郎官)을 지내고 지제교(知制教)겸 교서관 교리(樂校書館校理), 서 학교수(西學教授)에 뿜히고, 1674년(숙종원년) 도청(都院)으로 산용(山陵 경종롱)의 역사를 감독 하고 통점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숙진해 중추부(中標序)에서 일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 불초자 유명건 (不肖子 兪命健)

본관: 기계 (紀泽)

생몰 : 1664년 ~ 1724년, 60세

생애

생원을 거쳐 나주목사(羅州牧使)와 통훈대부 양성현갑(陽城縣監)을 역임하고, 1714년(숙종40) 강화경력(江華經歷), 1717년(숙종43) 안악군수(安岳郡守)로 진출(阪他)을 잡하여 포상을 받음

셋째 만시(挽詩) -3

지은사람

성명: 영의정 이경석 (領議政 李景爽)

본관: 전주 (全州)

생몰: 1595년~1671년, 76세

생애

삼천도 대청황제 송덕비명을 지은사람, 1623년(인조1) 문과에 급제한 뒤 부제학, 대사헌 이조판 서 등을 지내면서 송시열(宋時期) 송준권(宋後吉)같은 뛰어난 인물을 뽑아 썼으며, 우의정과 영의 정윤 지냈다. 1636년(인조13) 명자호란 뒤 청나라는 자기 승전기록을 새긴비(碑) 이른바 대청황제 송덕비(大靑皇帝頌德碑)를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신하의 나라로 진락한 조선은 그 명령을 거역 한 수 없었다.

청나라와 비문을 둘러싸고 여러 곡절 끝에 인조는 부제학인 이경석에게 다시 비명을 짓게 했다. 그래도 이경석은 비지(韓雄) 비명(韓鎮)의 격식을 벗어나 단순히 청황제를 찬양하는데 머물지 않고 조선이 당당하며, 경코 청나라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박한 한문지식으로 표현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지평 이방언 (持平 季邦彦)

본관: 전주 (全州)

생몰: 1675년~미상

섀애

1696년(숙종22) 병자 식년시 전사에 합격하고 이어서 1702년(숙종28)식년시읍과 위로급제 사간 원정언(司練院正言)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籍院武書)를 지냈다.

네째 마시(挽詩) -4

지은사람

성명: 우의정 이숙 (右議改 季酬)

본관: 우봉 (牛峰)

생몰: 1625년~1690년, 65세

생애

이숙은 효종 때 문과에 올라 사현부 집의(印憲府敎義)가되고 뒤에 우의청에 이르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자와 비빈(起敎) 종실(宗室)과 귀족들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다. 그러나 강 화성은 합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양으로 끌려갔다. 그때 이숙의 아버지 병조참의 이유 집의 가족들도 강화도에서 물살을 당하고 12세의 이숙만 심양으로 끌려가 호인(胡人)집에 역류되 어 살고 있었다. 이 딱한 사정을 안 회은군(懷恩君)이 몸값을 치러주고 조선으로 돌아오도록 한 사 람이기도 하다.

글씨 쓴 사람

성명 : 목사 이징하 (牧使 李徵夏)

보라:

생몰: 1655년~1727년, 72세

생애

음작(蔭賴)으로 입사 내시교관을 거쳐 장악원주부(攀樂院主簿), 의금부도사, 평시서령, 익위사 위수, 사복시관관, 선혜청당청, 장악원점정을 지냈고 외직(升職)으로는 황주판관, 통훈대부, 공주 목사 연안부사 등을 역임하고 이어 보전(資築) 임금의 도장인 어인과 서사(書寫)를 잘하여 돈녕부 도정, 가선대부 자헌대부도 지냈다. 글씨를 잘 썼는데, 경기 남양주시에 1720년(숙종46)에 입석한 유명조선국 절충장군전라좌도수군절도사이공제면묘갈명병서(有明朝鮮國折衡耕軍至羅左道水軍 統制節度使李公李濟冕臺屬銘并所), 경기양평의 이만응(李萬雄) 선도비 건봉사(乾鳳李) 목양당 대 사기적비명 등에 전역 글씨 제자(與字)가 전해진다.

다섯째 만시(挽詩) -5

지은사람

성명: 대제학 남용의 (大提學 南龍智)

본관: 의령(官寧)

생몰: 1628년~1692년, 64세

샛애

1649년(인조26)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성균관 대재학,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그러나 숙 종의 세자(후에 정종)책봉을 반대 한 최로 귀양살이 하다 사망한

 숙종14년(1688년) 가을 추궁 장희빈이 아들 낳았다. 숙종은 서른 살이고 인현왕후(仁顯王后)는 아리 자 삭이 없었다. 이조관서인 남용익은 중궁의 나이가 젊으나 원자가 아닌 아들을 서불러 세자 최정을 한 필요가 없다고 숙종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이 일로 학경도 병원으로 귀양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남 - 글씨 쓴 사람

성명 : 대사간 김보택 (大司諫 金普澤)

본관 : 광산 (光山)

생물: 1672년~ 1717년, 45세

생애

1695년(숙종2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연원활방(連原察訪)으로 관직에 나가 검열, 정언 등 三 리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소론의 영수로서 스승인 송시열의 핵문과 덕행의 부족함을 지적했던 윤 중(尹矮)배사죄(背師罪: 스승을 배반한 최)로 논핵도 하였다. 세자시강원의 문학(文學), 보덕(輔 後) 등을 거쳐 1715년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다. 특히 균씨와 그림에 조예가 집업은.

여섯째 만시(挽詩) -6

지은사람

성명: 영의정 김수항 (領議政 企壽恒)

본관: 안동(安東)

생골: 1629년 ~ 1689년, 60세

생애

1647년(현종12) 나이 열여덟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뒤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수재이며, 바 혼내살에 우의정에 올랐으며, 남인 쪽의 영의정 허적 과 맞서서도 오히려 좌의정으로 승진을 한 인물이다. 1680년(숙종6) 경신 대 출적으로 남인이 돌러나자 영의정이 된 뒤, 송시얼 편인 노론 입장에서 소론 쪽의 잘못을 엄히 다스렀다. 그러나 숙종15년 기사완국으로 남인이 다시 들어서자 형세가 뒤바뀌어 김수항은 진도로 귀양 가서 사사되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부사 김창국 (府使 金昌國)

본관: 안동 (安東)

생물: 1644년~1717년, 53세

생애

1666년(현종7) 전사시에 합격, 1681년(숙종7) 관직에 나아가 빙고별감(朱庫別監), 장악원주부, 의금부도사, 공조좌랑 등을 지냈으며, 이후 동궁 세자익위사(世子獨衛司)의 익위(鄒衛), 상의원첩

148 엄중오

정(尚玄院食正)을 지내고 이후 외적으로 여러 고읍의 현감과 군수를 역임한 후 1707년(숙종33)동 훈대부 성천부사(成川副便)를 했다. 따님이 숙종의 후궁인 영빈김씨(寧毓金氏)이며, 남양주에 김 장국 묘와 영빈김씨 묘(사적367호)가 있다.

일곱 번째 만시(挽詩) -7

지은사람

성명: 대사헌 이정기 (大司憲 李廷夔)

본관 : 한산 (韓山)

생몰: 1612년~1671년, 59세

생애

1639년(인조17) 전사가 되고 1648년(인조25)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체 사간원 정언, 성균관 전 적을 거쳐 1656년(克종7) 흥문관수찬, 승지, 예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대사간, 이조참의를 역임, 1664년(현종5)에는 경기도 관찰사가 되고, 이어 한성부좌윤, 이조참관 등을 역임 했으며, 1671년 한성부 좌윤으로 있을 때 진출청제조(版恤驗提調)가 되어 대기근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에 힘썼다. 저술로 월파만록(月坡浸錄), 순의편(順外篇) 등이 있다.

글씨 쓴 사람

성명: 불초손 유척기 (不肖孫 兪拓基)

본관: 기계 (杞溪)

생목: 1691년~1762년, 71세

생애

유철(血漿)선생의 손자로서 유철선생 증별시비, 반시바문 세우는데 전력을 기우린 사람이며, 1714년(숙종40)문과에 올라 대사관, 호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까지 올랐다. 조선 20대 경 중은 병약한테다 아들이 없었다. 그러자 노론의 김창집(金昌集), 이이명(李顧命), 이건명(李龍命) 조태채(趙泰宋)등 4대신들은 연영군을 세계로 정할 것을 건의 했다. 경종은 이들 건의를 받아들이고, 연영군 세계 책봉을 청나라에 승인 받기위해 유척기를 주청사의 서장관으로 보내게 되었다. 그 뒤 노론 4대신들은 연영군(영조)에게 대리청정까지 신시 하도목 경종에게 건의 했다. 그러자 소 돈들은 4대신들이 왕을 내쫓을 음모를 꾸민다고 모락 건국 4대신들은 죽음을 당하고, 유척기도 귀 양을 가게됨,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왕이 되면서 유척기는 귀양에서 플러나게 되고 영의

정에까지 올랐고, 영의정이 된 유척기는 비명(非命)에 간 노론 4대신들을 복권(復權)시켰다.

여덟 번째 만시(換詩) -8

지은사람

성명: 우의정 이단하 (右議政 李端夏)

본관: 덕수 (德水)

생물: 1625년~1689년, 64세

생애

1662년(현종5) 문파에 올라 대사성, 대제학, 예조판서,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현 중 개수실록 관찬에 관여하는 등 문명(文名)이 높았다. 1684년(숙종10) 예조관서로 있을 때 폐해가 많았던 사창(社食: 굶주리는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것) 제도의 혁신을 위해 사장 7개 절목(節 目)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 7개 절목은 대출을 공평히 모범적인 사창에는 상을 주어장려 장부관리는 그 지방 신의 대표가 할 것 등이다.

글쓴사람

성명: 정랑 김제겸 (正郎 金濟謙)

본관 : 안동 (安東)

생몰: 1680년~1722년, 42세

생애

1705년(숙종31) 전사가 되고, 1710년 세마(流馬)로 가용된 후 고양군수를 거쳐 사복시점정(司僕 特象正)으로 재직 중 1719년(숙종44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정언이 되었다. 그 뒤 헌납, 집의 용교 교리 사간 예조참의, 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722년 신임사화(至王士嗣)때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인 아버지 김창집 이사사되고 김제검도 유배지 부렁에서 사형 당하였다. 3년 뒤 1725년(영조 1) 관식이 복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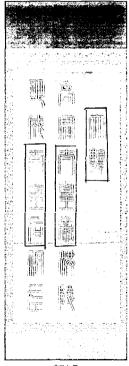
V. 맺는 말

이상과 같이 금석문을 이해하고 남양주의 그 수많은 석문을 살피보며, 금석문을 통하여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학 사상과 서문제를 찾아내어 오늘에 전목 시킬 수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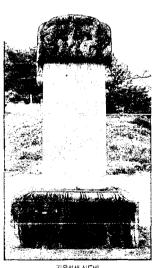
남양주의 금석문에서 아주 작은 수이기는 하나 그 의미를 살펴본 바와 같이 고종황제 홍롱 능표 에서 대한제국이란 국호와, 대황제라는 존위마지 말살 당했던 명국의 한을, 보물중 봉선사 대중 (자군은 어미종, 목은종으로 머물고 있음)에서 544년 동안 쉬임없이 타종으로 울려 펴졌던 대종의 명문을 해독한 수 있다

지늦게 문화재(남양주 향토 유적 9호 : 2011년 1월 11일 지정보 지정된 유철시비를 심층 분석 연구 한바와 같이 그리 크지 않은 시비 둘에서 무려 32인아니 되는 군현들의 높은 벼슬과 사문학 사상과, 생애와 활동사항을 그려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아도 금석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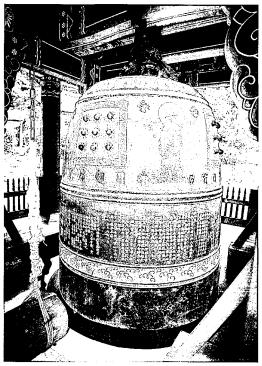
남양주 대표적인 금석문의 의미 사진



홍롱 능표



김육선생 신도비



봉선사 대종 명문

참고문헌

남양주시 시지 남양주시 문화재 관리대장 「인조실목」「효종실목」「현종실목」「숙종실록」 남양주 역사비물관도록「옛 향을 품다」 한국 역사 인문사전 집 등.

安養의 名稱과 그 象徵的 意味

김 정 석 (안양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L 머리망 Ⅱ. '안양' 에서 '陽' 과 '養' 의 問題 田, '史料' 와 詩文에 나타난 '安莽' 과 '安陽' 1. '安容' 으로 表記된 경우 2. '安陽' 으로 表記된 경우 3. '安養' 과 '安陽' 이 混在된 경우 IV. 安養 에 대한 2가지 解釋 V. 맺음말

집필자

김 정 석 안양문회원 항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문학박사

1. 머리말

땅과 인간은 운병적으로 相生의 관계이므로 '地人合一' 이 되면 좋다. 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만들의 영장인 사람이 삼아가는 터전이가 때문이다.

이 天惡의 땅에는 마치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땅에도 이름이 있다. 사람에게 이름이 중요 하듯이, 지명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시 무형문화재인 地名은 土名不 그의 관계일 것이다. 地名은 오랜 세월 전승되는 동안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생긴다. 태어나 서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도 한다. 수병이 긴 땅이름도 있고, 얼마 안 되어 소멸되는 땅이름도 있을 수 있다. 지리적 변화나 음운 형태의 변천과 더불어 과생되는 의미의 변화 때문에 地名이 불어졌던 본래의 뜻을 잘못 판단하기 쉽고, 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을 지어볼 수 없는 영목한 반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인류 문화의 발달은 산과 산, 강과 강처럼 같은 同類 중에서도 어떤 개체를 특정 짓기 위하여 곳 곳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地名이 되었다. 발하자면 地名은 그 땅에 인간이 정 착 생활을 영위하여 왔음을 나타내는 증거로써 역사와 문화의 시작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地名에는 조상이 남겨놓은 귀중한 역사적 문화유산으로 온갖 전설과 풍속·문화 등의 향기가 서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독특한 자연 및 생활 풍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地名에는 그 지역의 풍속이나 생활상 그리고 인어의 변천과정은 물론 역사, 인물,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문화요 소를 합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地名은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 지역 문화사 및 정 신사적 자료로 이용된다. 이정특은 과기의 민준생활을 풍고 있는 '동합유문'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地名은 역사상 한반도에 한민족이 불인 땅이름을 말한다." 대한민국 경기도 중부에 있는 도시인 安養市는 동쪽으로 과천시, 남쪽으로 군포시와 의왕시, 서쪽으로 광병시, 시홍시, 안산시, 북쪽으로 관악산(629m), 삼성산(681m)을 경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천구를 접한다. 중앙은 낮 고 평당하여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분지 지형을 이룬다.

현재 安養의 名精 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인반적으로 3가지 설이 있다. 문원식은 현재의 안양시 지명이 1905년 경부선 철도 개설 당시 驛舍의 명칭을 安養驛으로 명명한 태서 출발하고 있다고 한 다.º 안양역의 명명으로 '安賽'의 명칭이 정착한 것은 의미를 지니지만, 그 이전의 명칭에 대한 소

¹⁾ 지현영, "조선지명의 특성" (朝光,1942년9월)207쪽

²⁾ 한국의 반소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는데 있던째 변화은 신라 35대전경왕이 교육 지명을 중국식 두 글자 빨拾으로 바꾼 것이고, 두번째 변해은 일제 강경기 시대 때 건국의 불소음 보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본식으로 율심한 것이다. 아름리 고유수이 이름이 살아있던 지방의 작은 행정단위까지 환자이로 바뀌었다.

급은 미약하다.

정덕한은 '安陽'이 '安蹇'으로 바뀐 것은 일제 강집기에 안양 땅을 많이 소유했던 것으로 진해 지는 '오끼이'가 최초 安養이란 지명을 사용했고 이것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安陽은 만주어에서 '늘 나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으로 중국에 있는 '安陽'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오끼네 농장이 유명하다고 해서 개인이 도시의 명칭을 불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홍석은 안양의 땅이름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인양전변에 자리한데서 붙여겼다⁹고 주장한다. 이 또한 본격적으로 안양에 대한 지명을 다룬 것도 아니고 막역한 추측에 의한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 다른 아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대체로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욱이 이들 주장 모두 충분한 사료적 조사나 구체적인 검증 없이 연급하고 있는 선정이다.

한편 안양시의 병칭 유래 또한 정조가 부왕인 장현세자의 수원 화산공에 참배하고자 萬安縣문 건설했는데, 여기서 '安' 자를 취하고, 그 정성을 길이 일깨워 살린다는 의미로 '蹇'을 취하여 地名 이 생겨났다는 說"과 脅 萬安區 三栗山에 위치한 安養報의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說"이 있다.

馮安橋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安養'의 명칭을 논의하는 것은 孝赫을 부각하려는 의도에다, 萬 安備 이전에 '安養'이라는 명칭이 존재했으므로 형식적인 언급일 뿐이다. 현 萬安區 三型山에 위 치한 安養寺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는 주장은 安養寺 이전에는 安養이란 명칭이 없었고, 삼성산 안 양사 인근에 불교와 깊은 연고와 명칭이 많으며, 삼성천(안양친)을 경계로 급천현과 과전현을 구 현택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면 일리가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이 한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史화나 詩文에 기록된 안양에 대한 명청을 분석하려 한다. 안양의 명청 표기와 유래는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분리해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사실 각종 문헌에 '安陽'과 '安養'의 표현이 섞여 전승되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켜왔다. 따라서 분헌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검증하여야 좀 더 '安養'에 대한 명칭의 정당성과 그 妨愿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의 전체로 2장에서는 안양의 명칭에서 특히 '茬' 과 '腸' 의 한자 풀이를 통해 차이집을, 3장에

문원식, "재 천년,안양 100년의 의미"(안양지역 시민연대,2003년 06월 07일)

⁴⁾ 안양시민신문, "첫원 통해 기와 반군 이끌어낸 정덕한씨" (2009년10원16일)

오홍석, 「땅이름 나라얼굴」, 고려원미디어, 1995, 416쪽

⁶ 萬安頓 提用認고 韓國地方行政地名史(내무부,1982,1994), '현네地志,(건선부,1973, 575부), 行政以及 沿岸 및 방名問 확 "5(대우부,1987,122부), 안당도와된 '인약의 민족단이와 세시종숙, 2003년부-9후 재인용 안영시사관간위원회, '중 澄市史,2 이약기와 인물로 보는 안약(2008) 335-365작품조

⁷⁾ 交換寺 核用설로 新八萬記(등학인보,1978,12.1), 新風上記(정권규,1982, 7.30), 퉍澤東特地투志(취대구,정인인보,1983,12.13), 약약물관원, 연양의 민술속이와 세시중속, 2003년 9축제인용,유양시시권한위원회, '安黃市史,2. 이야기와 영문로 보는 학약소(2008) 35~43(층 학본

⁸⁾ 안양문화원, 안양의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2003년)10~11쪽 참조

서는 史料와 詩文에 나타난 安養의 표기문제를, 4강에서는 安養이 갖는 象徵的 意味를 통해 安鎣 에 대한 명칭의 異面目을 다루고자 한다.

Ⅱ. '안양' 에서 '養' 과 '陽' 의 問題

현 안양시 지역은 과거 시흥군과 과천현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시흥군의 초기 명 청은 仍伐奴이고 나중에 穀據이 되었는데, 이 둘은 사실상 같은 표기이다. 仍伐과 윷은 고대에는 다 같이 '늠'으로 읽히고, 奴와 壞은 고대에는 '나' 나' '내'로 읽혔기 때문에 순우리말로는 '늠내' 가 된다. 이는 '뻗어나가는 땅' 이라는 의미이니 현재의 이름 '始興' 이라는 이름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한편 파천현의 초기 명칭은 동사현(冬斯修) 또는 葉木인데, '冬斯'는 '돗'으로 추정되어 백제 地 섬에 많이 나오는 '부' 자와 같은 표기로 간주된다. 지금 파천시 일대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 에 산의 옛말 중에 하나인 등, 두메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 '肠' 은 고구려어 표기인 '惣(晋)'의 같은 표기로 추정되어 요즘 말로 '두매(산)관' 이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율목은 '밤나무' 이므로 실제 옛 날에 밤나무가 많아 훗날 '栗' 을 중시하면서 과일을 뜻하는 來로 고쳐 과주, 과천이 되었다고 한다.

과천현은 1895년(고종 23) 갑오개혁 당시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과천군이 되었고 郡內面, 東面, 南面, 上西面, 下西面, 上北面, 下北面 등 7개 면을 관합하였다. 당시의 과천군은 현재의 과천시와 군포시, 안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강남구, 동작구의 일부 지역을 포합하였다.

1914년에는 始與郡에 편입되었고, 영역이 축소되면서 군이 아닌 면이 되었다. 이를 현재의 행정 구역 安養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始與郡 東面 安陽里 \rightarrow 현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始與郡 西二面 安養里 \rightarrow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현재 시흥군 동면 현재 광명시 일대를 安陽里라 불렀는데, 지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해당하고 이곳은 安養寺" 터가 발전된 곳이다. 또한 시흥군 상서면과 하서면을 합하여 서이면(西二面, 현 제의 안양시)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양에 대한 지명 유래는 李崇仁, (衿州安養寺塔重新記)에 언급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곧 安養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安養寺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궁예의 후에인 왕건이 금주(시흥)와 과주(과천)등의 지역을 정발하기 위해 삼 성산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산꼭대기의 오색구름으로 채색을 이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과게 했다. 구름 밑에서 왕건의 뜻과 동조한 能正 스님을 만나 만안구 석수1동 산 2번지 일대에 인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安養寺七品均塔址와 中初寺址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번지의 구 (주)유유산업 부지 일대의 안양사로 세겨진 기와와 발견되어 '安養寺' 임이 분명해졌다."

하여튼 안양의 명칭에서 '養' 과 '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는 앞서 말한 위·아래(上·下)와 관련된 지명을 찾아보기, 둘째는 安養, 安陽의 漢字 字句에 대한 원리 찾 아보기, 생째는 중국과 한국 지명의 여관성을 살펴봐야 한다.

먼저 전국에서 위·아래上·下I와 관련된 지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장원도 영월군 上東과 下東 강원도 화천군 上西面 경기도 가평군 上面과 下面 경남 거청군 南上과 南下面 경남 양산군 上北과 下北面 경남 향양군 西上面과 西下面 전복 부양군 西上面과 西下面

이는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등 일제 강점기 때 방위 지명에 불여져서 같은 이름이 더 생겼다. 우리 국토 위에는 동, 서, 남, 복의 방위에 따라 불인 읍, 면, 이름만 모두 47개소가 있다. 그중 일제 때인 1910~1930년대까지 새로 붙여진 방위지병만 모두 21개소이며, 이로 인하여 지명 혼란은 더

⁹⁾ 전국에 안당시다 이름 한 경우, 1,정기도 강화로 교통면 화개산 남쪽에 있던 정 2 강원도 철원군원일을 유리에 있던 점 3. 경기도 안당시 안안구 석수 254, 충남 대안반도 안당사 등 4개이다. 안망함은 1 강원도 화양군 내급강면 강원리에 있는 접 강안사에 발린 당자 2 강원도 고경군 그러면 당한리 급강산에 있던 한 간봉사에 팔린 당자 1656년광건,1858년 (고종 15) 쾌가 3 강성되도 양신균 하복면 봉도사 산대에 있는 점 4 서울 총로구 장신동 안양함 1899년광간한제 불교박 물관으로 개조업해를, "강기실유 안양의 인수" 만양점 성수 자리로, 1양남화원 2005, 9-10%?

¹⁰ 적명환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발한다 안하시가 왕건의 고리 건국에서부터 최영의 아지막화원전투에 이르기까지 俗軍의 요치였던 경,이들이 거란군 천공 때 "認施山 후城"의 신분으로 고려광권을 수호하는 유력한 군사조리이었다 는 정,교훈 때 최순한 무신경권에 위해 파괴된 안상사가 최영에 의해 다시 제 모습을 갖추게 된 점,장인지가 안상사의 재진을 철저히 급지시된 것을상소한 전,눈정이 최초에 진립한 '女陽후'가 '安蹇송'로 개칭된 점,광건이 세운 천충탑 에 검탁식의 따ᠧ은 유신되고 李崇仁의 포修記 원문은 남아 있다는 정,그중수기에 왕건과 능정의 안당사 건립 배경이 소개된다는 점 등을 할 수 있다.

욱 가중되었다."

군내면, 군서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등 일제 때 방위와 숫자반으로 붙여진 이름들 일제 때의 무성의한 지명 제정 작업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었지만 이로 인한 혼란을 아가 하 였다." 다행히 현 安養은 이러한 왜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安養, 安陽의 漢字 字句에 대한 원리 찾아보아야 한다. '安養'에 대한 破字 풀이는 金 正山이 시도하여 "안양 그 속에는 대한민국이 들어 있고 家庭이 들어 있으며 어진 사람과 음식이 있다"고 하였다." 皎字만으로 安養을 풀이하여 '安'을 갓머리('') +여인(女) 그리고 '養'을 양 (羊) +식(金)을 단순하게 해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먼저 漢字 字句의 '안양'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安'은 무슨 뜻일까? '安'은 일반적으로 安替變游와 관련된 지명이다.

- ① 서울 종로구 安國洞: 나라의 평안을 염원
- ② 경기도 安養市: 편안한 마음의 쉼터
- ③ 충남 대안군 안면도 앞 安興菜: 안전 운행을 열망, 원래 難行梁
- ④ 전남 승주군 柴安面: 즐겁고 편안한 고을, 낙안읍성
- ⑤ 강원도 양구군 亥安面 : 돼지의 안식처라는 의미이므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 ⑥ 경북 경주군 安康邑 : 편안함과 건강함을 추구할 수 있는 곳

안정과 편안함을 상징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럼 한자의 '巖'과 '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 명에서 '菱'은 드볼기 때문에 '隱' 먼저 언급하기도 한다.

우선 '陽'은 다음 세 가지 곧 빛과 陽地, 기상・천체, 그리고 단순하게 합성한 지명이 있다.

1) 빛[光]과 양지[陽地]와 관련된 지명

- (1) 양촌, 양지마을, 양지뜸: 우리나라 마을 이름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¹¹
- ② 충남 靑陽 : 따스한 봄볕에서 유래
- ③ 경남 密陽 : 은밀한 태양 기운이 가득찬 곳.
- ④ 경북 봉화군 春陽 : 봄변을 열원하여 붙여진 이름.

¹¹⁾ 김기빈, 일제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 (살림터,1995) 55~56쪽.

¹²⁾ 경기빈, '앞의 척, 57~8쪽참조

¹³⁾ 金正山, "破字 安養" (安養文化 8호) 안양문화원,1990.

⑤ 전남 光陽郡: 정오와 같이 햇볕이 잘 드는 남쪽의 양지

2) 기상 · 천체 땀이름¹⁵⁾

陽을 넣어 襄陽郡, 襄陽邑, 英陽郡, 光陽邑 등 17개 지역

3) 단순 한성하 지명

- ① 전남 화순군의 森陽面: 부춘면과 단양면에서 한 글자씩 모아 만듦
- ② 전남 潭陽군: 潭州와 祈陽에서 한 글자씩 모아 만듦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자 해석에서는 賜이 땅인 경우는 남쪽이지만, 물인 경우는 북쪽에 해당한 다.[™] 예컨대 漢縣은 漢水의 북쪽이 되는 것이다.[™]이런 이치를 따진다면 안양천의 북쪽 현재 광명 과 과천은 '安陽'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安養'은 기로다, 성장을 시키다. 사유하다, 회유하다. 진휼하다, 양생하다, 가렵다, 숨기다는 뜻(畜, 守, 飾, 隱)¹⁹이 있는데, 지명으로는 安養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명에서 안양과 관련된 것으로 安陽縣이나 安養縣을 찾아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난다. 그런데 安陽縣은 있지만 安養縣은 없다. 과거 安陽縣"은 전국에 3군데나 있다. 남양, 춘천, 전라도에 그 혼적을 찾을 수 있다.

- 남양(蕭陽)은 지금의 경기도 수원시(水原市)와 화성군(準域部) 원원을 포함한 지역의 옛 지명으로 고구 려해 당항성(康預城)이었다. 개양폐현(萩陽茂縣) 부 등쪽 10리 되는 곳에 있으며 예전 안양현(茨陽縣) 이다. 고려 현종(顯宗) 9년에 지급 이담으로 고쳐 수주(水州)에 붙이고 또 인주(仁州)에 붙였다가 뒤에 내속되었다.
- 춘주(春州 강원 춘천)를 승격시켜 안양도호부(安陽都護府)로 하였다. 순주는 그전에 안변(安邊)에 예속

¹⁴⁾ 경기도 검포군의 陽村面,화성군의 南陽面,충북 영동군의 陽山面,충남 논산군의 陽村面,경남 하동군의 所陽面,경남 등 영군의 山陽面,경남 삼천포사의 南陽,경남 陽山鄰,충북 과산의 於陽深金 경복 영양군 석보면 朝陽里 등이 있다.

¹⁵⁾ 강길부는 땅이름의 표기 용례에 특수 땅이름 항목에설정하였다.강길부, "땅이름 국도사랑』,(집문당, 1997년, 48쪽)

¹⁶⁾ 水北日陽 山南日陽(『중문대사전』 9권.1973년 중화민국 62년.1235쪽)山之南或水之北(『辭潔』, 1979년. 1788쪽)

^{18) 『}중문대사전』 전계서 10권 193쪽

¹⁹⁾ 朴惺이 安陽深監을 지냈다는 기록도 보인다.

되었었는데, 고음 사람이 안변을 왕래하는 길이 협하기 때문에 충현에게 뇌물을 바친 까닭이었다." • 저라도의 안양현(宏驅懸)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역사적 의미를 지 닌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아닌 것 같다. 한편 安養과 관련된 것은 역시 사찰과 연관성이 있다. 전국 에 분포된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낙산 안양암(安養慶)(서울 창신동)
- 2. 부석사 안양平(浮石寺 安養樓)
- 3. 서산 부석사 안양무(安養樓)
- 4. 천안 광덕사 안양암(安養菴)
- 5. 통도사 안양암(安養庵)
- 6. 화순 안양산(安養山)

결국 이렇게 보면 地名으로서 安養보다는 安陽이 더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이 같은 지병을 갖게 된 내력은 무엇인가? 왜나하면 중국에는 安陽, 한 국은 安養으로 표기하기 때문이다. 과거시절의 세계관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물론 사대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편의상 西紀를 사용하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고, 하늘의 이상향을 지상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명칭을 붙였다. 당연 중국을 담아가고자 하는 주 반국이었던 한국으로신 중국의 지병을 때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변의 오랑케의 다른 중국을 이은 문명국을 자처하기 때문이지 속국의 개념이 아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를 나눌 수 있다. 소리도 같고 표기도 같은 경우, 앞 글자가 다른 경우, 뒷 글자가 다른 경우, 모두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로 말이다. 동일 표기로는 安東, 開封, 海南, 湖南, 湖泉面, 橫南, 江南, 江西, 奉天, 長安 제, 大興洞, 長沙, 云南洞, 桃瀬瀬, 咸陽, 廣州 등 상당히 많다. 음은 간지만 지명의 앞 글자가 다른 경우는 泗川과 四川, 堂山과 唐山, 五松里와 吳松里, 安山과 紫山 등이, 뒷 글자가 다른 경우는 安과 安陽, 陽川과 陽泉, 南倉涧과 南昌혜 등이, 두 글자 다른 경우는 清道都과 吉島 등이 있다. 그

²⁰⁾ 南陽都護"「新增東國與地勝疑」9권.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에도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남양: 고구려 때의 唐城郡인데,신라 때에 唐規이라 고쳤고,고려 때에는 水州와 仁州에 속해있다가 뒤에 현을 두었다. 다시 益州로 승격시켰다가 江南・安陽 등으로 고치고 남양부가 되었다.

載陽은 페현이다.옛安陽縣이다.

^{21) 『}고려사절요』 제14권 神宗靖孝大王 계해 6년(1203), 송 가태 3년 대화 3년

²²⁾ 全縁道 安陽縣 襄人["조선왕조실목』,세종 26년 갑자(1444)7월 10일(정사)]

러나 이러한 비교로는 안양의 명칭을 규명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約定俗成인 경우는 어떻까? 일반적으로 한자 표기할 때 글자 모양이 비슷하거나 음이 같으면 몽용해왔다. 문자해독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한 때 굳이 正字로 적을 필요는 없 기 때문이다. 에컨대 三國志는 三國慈, 見夢은 現夢과 통용하고 심지어 燕은 효과 통용하니 결국 홍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왜 한자는 글자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통용할까? 문자 해 독자가 많지 않은 시절 문자를 독점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었다. 上疏, 관札 등 소몽도 지적 수준이 비슷한 자들만의 독점물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자에서 일반적으로 '짧'과 음이 같은 거짓 양('详')은 통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滋'이 통용하는 사례가 없다. 따라서 후대 에 사람들인 일위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史취와 詩文에 나타난 '안양'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Ⅲ. 史料와 詩文에 나타난 '安養'과 '安陽'

'安陽' 과 '安蹇' 의 名稱의 理歌를 해명하려면''地理誌, 급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종 지리 지에서 '安養寺, 安養川, 安養嬌, 安蹇山' 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安養寺 명칭은 安養寺 창건 유래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奉崇仁의 글에서 잘 나타 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것은 安蓬미이다. 安養미은 현재 일반적으로 경기도 의왕시·군포 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와 서울특별시 남서부 일대를 북류하는 강이다. 길이 34.75km로 한 강의 제1자류이다. 三聖山에서 발원하는 하천과 白雲山에서 흘러나온 鶴儀川 및 군포시를 흐르는 山本川 등의 지류가 안양시 石水涧에서 합류하여 북쪽으로 흐른다. 물길은 광명시와 서울 금천 구·구로구·영등포구를 지나 성산대교 서쪽에서 한강으로 흘러든다. 삼성산의 인양사에서 발원 하였다 하여 安養미이라 부르며, 조선시대에는 虎溪³⁰·大川・岐瀬이라고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安陽川' 으로 표기하여 최초로 등재된 지리지는 1757년(영조 33)에 전국 읍지로 모두 55책인 "輿地圖書,이다." 몸론 (파천현) 이 한정한 것이지만 다리도 '安陽川石樓 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면 '安養川'은 언제인가? 조선 현종대(1660-74)에 播溪 柳馨遠이 편찬한 私撰"東國與地志。 (금천현) 에 '安養橋' ²⁰만 표기하였다가, 1864(고종 1)년에 김정호(金正浩)가 지은 우리나라 지리 책인 '大東地志」²²는 (과천), (시흥) 편 모두 '安養川'으로 표기되어 있다.²³ 이로 볼 때 각종 지리 지에 (과천현) 에는 '安陽川(石橋)', (금천현) 에는 '安養川(石橋)'라고 하다가, 시대 변천에 따라 전차 '安豫川' 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安養山은 어떠한가? 현 안양의 三聖山은 고려시대 安養山이라 하였다. 「高麗史節要」 卷16 高宗安孝大王[三][秦卯三十年 宋 漢前三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이(祗怡)가 우정인(右正書) 이선(李)(高)을 좌천시켜 연주부사(延州副使)로 삼았다. 이(佑)는 우(為) 의 고천 이름이다. 이가 신제(申寄)를 안할사로 삼으니 선이 이를 탄력하자 이가 노하여 그를 좌 천시켰다. 이때에 이는 천도(護都)하여 병단이 그친 것을 공으로 삼아 참소를 듣고 사람 죽이기를 조금도 꺼리지 않았으며, 시치와 탐욕이 날로 삼하여 시사로이 얼음을 저장하였으며, 겨울철에 안왕산(安養山) 지금의 금천현(徐川縣) 동쪽 10리에 있는데, 이름을 삼성산(三聖山)이라 한다 에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집 원림(國林)에 삼기도 하였다. 안양산은 강도(江都)에서 며칠이 걸려 야만, 감수 있는 기리여서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다."

고려말까지는 현 三聖山을 安養山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안양사가 있는 산을 安養山이라 부르다가 安養寺가 폐사되고 난 뒤 三聖山으로 바뀌었음을 미루어 점작할 수 있다.이렇게 볼 때 「빵」의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安陽」은 지탱으로서 우세를 보이며 보급되어 안양천의 북쪽을 상장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安養寺의 영향으로 安養비의 남쪽 「安養」도 만만치 않게 전승됨을 알 수 있다. 지형적인 형세를 보면 安養寺 남쪽의 安養과 시냇물을 북쪽을 상정하는 瞬의 의미를 만 현 과천과 광명 부근이 나중에 현 안양시로 편입되면서 「安凝」으로 정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 이 결과적으로 「安陽里」와 「安養里」로 表記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²⁴⁾ 안양천(관아 서쪽 20리지점에 있다.한칼래의 근원은 사근천에서 나오고,한칼래는 인덕원천에서 나와 합하여 궁천지의 역영찬(川)으로 흥리간다)左陽川縣西三十里 一遍沙丘川 一遍广德原川春 王於川縣川

²⁵⁾ 안양천 석교관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玄陽川石樹在縣西二十里) 「과천읍지, 에서도 安陽川在縣 西二十里 軍浦川 在縣南二十里 僧房川在縣北十三里 菊港川在縣東二十里 (『果川邑誌』, 山川形香蜂)

²⁶⁾ 안양교(관아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屬梁] 安養屬在蘇市十六里 臺灣莽은 시 〈安養縣〉에서 "고려 시대에 전해진 옛 다리" (預是賦代之舊物)라 하였으니, 이를 증축 · 보완한 것이 安養婦임을 전각한 수 있다.

^{27)「}大東與地區」와 작을 이루는 지리지로, 「東國與地震競」의 오류를 수정, 보완하여 퍼낸 것이다. 총 32권 15책이다.

^{28) (}果바)에 仁德於用을 설명하면서 남쪽으로 8리로 경제산에서 군포한 하유원 등이와서 안양찬이 된다.(由八里 淸溪山 人軍 川下 寫交출비), (始集)에 高交響을 설명하면서 남쪽 10리 안양천인데 수원 큰 경로 통한다.(在莊土畢 安養川 清木医大路)라 하였다.

²⁹⁾十二月, 崔佑, 於西山, 私伐米兹之, 發展輸水, 民巷苦之, 又移安蓬山柏樹, 植家園, 安養山, 去江都, 数日程使門客, 将 車朴承貨等各之

이를 구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언급한 史料와 詩文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安養' 이라는 병칭을 통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安陽'을 다루 기로 한다.

1. '安養' 으로 表記된 경우

地名으로 지리지 외에 史料에서 安養으로 표시된 경우는 "朝鮮王朝寶錄, 『承旼院日記』, 『日符 錄』등에서 나타난다. 먼저 「朝鮮王朝寶錄」에 나온 자료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종6(1406)년 3월 2일 녹州 安遊寺 대종11(1411)년 9월 12일 차州 安遊寺 대종17(1417)년 85월 4일 安遊寺 세종30(1448)년 7월 21일 드뽀山 安遊寺 세종 31(1449)년 5월 20일 安衡寺

곧 이들 모두는 安養寺와 관련시켜 서술하고 있으며, 안양시가 폐사된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음 응 알 수 있다. 한편『承政院日記』에 나온 내용을 시대 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2(1722)년 8월 28일 安養 屯哨官 영조2(1726)년 8월 15일 安養橋 정조19(1795)년 12월 22일 安養站 정조19(1795)년 12월 28인 安養站石橋損倉 정조20(1796)년 9월 8일 安養石橋 정조20(1796)년 9월 21일 安養 정조20(1796)년 11월 24일 安養服所 安養地方 安養新場 정조21(1797)년 1월 29일 安委坪築臺處 정조21(1797)년 2월 1일 安養秦臺處 安養居民 정조21(1797)년 3월 30일 安養邓比 安養坪 정조21(1797)년 3월 30일 安養那比 安養坪 정조21(1800)년 1월 16일 安養結築亲處 安養周杭木 安養之損結 정조24(1800)년 1월 16일 安養結禁余處 安養副杭木 安養之損結 순조3(1803)년 12월 11일 安養里

순조4(1804)년 8월 28일 安登橋

순조6(1806)년 2월 19일 安養里

순조21(1821)년 2월 19일 安養坪

고종5(1868)년 3월 16일 安養里 行宮

경종2(1722)년 8월 28일 '安養 电响官' 에서 고종5(18%)년 3월 16일 '安養里 行官' 까지 146년 동안 安養地, 安養里, 安養橋, 安養坪 등 여러 방면에서 '安養' 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日省 錄』에 나온 내용을 시대 순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19(1795)년 12월 28일 安養站 石橋撥合 정조20(1796)년 2월 4일 始興果川 安養 정조20(1796)년 11월24일 單浦安養地方場 정조21(1797)년 2월 1일 安養撥所 정조21(1797)년 3월 30일 安養始 고종5(1868)년 3월 16일 始興縣 新軍條 安養里 行官

정조19(1795)년 12월 28일 安養站石橋 接舍에서 고종5(1868)년 3월 16인 結與縣 街車修安養里 行宮까지 '安養' 으로 기록하고 있다. 곧 史확에서는 경종2(1722)년 8월 28일에서 고종5(1868)년 3 월 16일까지 '安養' 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安養' 으로 표기된 詩文을 시내별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작가	생몰연도	제목
시	1	義天	(1055~1101),	(안양사에서 능정 숭통의 영상에 절하며(安養寺禮能淨僧統
				影))(『大覺國師文集』卷1)
	2	金克己	(1150~1204)	〈안양사(安養寺))(1)(『新增東國與地勝覽。卷10, 京畿衿川縣)
		金克己	(1150~1204)	(안양사(安養寺)) 2) ³⁰ (『新增東國與地際覽』卷10, 京畿衿川縣)
	3	李稔	(1328~1396)	〈어제 安養의 道生 僧統이 술파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위

³⁰⁾ 金克己는 (安養寺) 2구에서 '傷人安養宿' 이라 하였는데,제목 안양사와 연관시켜 본다면 安養寺에 묵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어서 사례하였다.(昨日安養道生質說扶撐酒食來勞 今早送紙 以詩
		謝之)〉(『牧隱詩稿』 刊35 衿州吟)
4	鄭樞 (1333~1382	(금주 안양사 길을 가며(衿州安養寺途中))(「元舜先生文稿」卷上)
5	鄭士龍(1491~1570) 《안양천 가에서 쉬면서》(憩安養川上)(「湖陰雜稿」 권1)
6	柳思規(1534~1607	') 〈안양 길위에서〉(安養道上)(『桑榆集』上)
7	李應禧(1579~1651) 《서울로부터 집에 돌아와 안양천 가에서 즉흥으로 읊다 2수 自京
		還家安養川上即吟 二首〉(「玉潭詩集」(玉潭遺稿))
7-1	李應語	〈조 십사 박사장과 안얌천 가에서 만나 與趙十四博士文相會安養
		川上〉(「玉潭詩集」(玉潭澄稿〉)
8	蔡濟恭(1720~1799) 〈安養橋行〉1구~2구에는 "안양교는 고리 시대부터 전해지는 옛
		다리라네" (安養橋 爾是關代之舊物) (『樊麟集』 권18 〈稀年錄〉下)
9	正祖 (1752~1800) (안양의 역사에서 이 시를 써서 과천의 부림현에 걸라고 명하면서
		(安養撥舍 書此 命拟南充之笛))(『弘濟全書』 권27)
10	成海應(1760~1839) 〈휴용이 안양에서 유람했다는 소리 듣고 문득 신천에서 달밤에
		그윽한 감상했음을 생각하며 (聞休翁作安養之遊 忽憶新川月夜幽
		賞 途成古體〉(『研經濟 全集』卷2)

로하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종이를 보내왔기에, 내가 서를 지

시는 10명과 12편, 산문은 1명에 1편이다. 고려알 이후 번호 1~4, 10 등은 安養寺와 연관 있어 '安養'이라 표현한 것 같다. 나머지도 安養川, 安養橋, 安養粮舍 등으로 안양천과 역 주변을 중심 으로 '安蓉'이라 표현하였다

산문 李崇仁 (1349~1392) (금주 안양사탑 중신기(衿州 安養寺塔 重新記))

2. '安陽' 으로 表記된 경우

'安陽'은 사료로「承政院日記」와 "備邊司廢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承政院日記」에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영조32(1756)년 8월 6일 果川上下西面安陽坪

정조12(1788)년 6월 19일 취川界番大坊坪, 又往安陽里坪・所臥里 정조19(1795)년 8월 7일 安陽橋 정조20(1796)년 1월 20일 安陽站 정조20(1796)년 1월 24일 安陽站稅所 정조20(1796)년 6월 9일 安陽侍正修 정조20(1796)년 7월 7일 始吳縣 內而之安福 및 정조20(1796)년 7월 22일 少保安陽查 순조5(1805)년 7월 22일 少保安陽查

영조32(1756)년 8월 6일에서 순조5(1805)년 7월 22일까지 '安陽'으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德達司監義』에서는 2번 정도 나타나 있다.

숙종17(1691년)년 10월 17일 果川安陽屯 영조32년(1756) 8월 8일 果川上下西面安陽坪

「備達可賠銭」에서 안양천의 북동쪽인 과천이니 표기가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史류에는 1691년부터 1805년까지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安陽橋, 安陽松舍 등으로 안양천과 역 주변을 중심으로 '安陽' 이라 표현하였으며 이중 과천이 안양의 북서쪽임을 염두해 두면 '安陽坪' 이라 표 현한 점은 일리가 있다. 한편 蔣文에서도 '安陽' 이 나온다.

- 1. 張維(1587~1638), (안양천 가에 말을 세우고)(安陽川上歇馬) (『谿谷集』 권27)
- 陳彭胤(1669-1731), 〈안양으로 돌아가는 조카 군보를 보내며〉(送君寶族侄歸安陽 大소兒蘭)(『希荷先 生集』 卷13)
- 3. 蔡濟恭(1720-1799), (이튿날 시임파 원임 여섯 정승이 연명 상소를 올리고 각차 고향 검을 찾아 떠났다. 나는 是按주에서 배에 윤라 노량건으로 문을 거슬러 윤라가 조금 쉬었다. 저녁에 시흥현에 다다라 묵었는데, 승지가 함께 오라는 명을 받들고 달라가며(翌日 時原任大和聯貫 各務総路 余自是岸穿乘舟 湖上路湖少差 森挺站與裝語 承旨奉衛來 金莊及〉) 5~6구에 "구름이 권악산에 띠 있으니 하늘 비를 내리고 다리가 안양에서 간라지니 불이 무지개 거두다네.(雲存起岳天路雨 橋斯安陽木啟紅)("吳巖集, 권 18 (杨年錄) 下)

3명 3편으로 安陽川, 安陽水와 地名으로서 安陽이 나온다. 그런데 이중 채제공이 현광명시 忠賢 官院 곧 추元規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이는 安養川의 북쪽인 '安陽'이 맞는 것으로 아 마도 그 근처를 '安陽川', '安陽水'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朝鮮王朝寶錄, 과 1760(영조 36)년부터 1910(용희 4)년까지 150년 동안 날마다 임금의 만과 행동을 적어 규장각에서 편찬한 책인 『日名錄』에는 일관되게 '安隆'은, 조선 시대 비변 사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인『備造司廢錄,(1617(광해군 9)년부터 1892(고종 29)년까지의 기록이 273책)은 '安陽'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安陽'과 '安養'이 혼재된 경우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날마다 다른 문서와 사건을 기록한 일기인 「承 政院日記」"에서는 '安陽'과 '安蹇'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安養橋 / 安陽橋 // 安養川 / 安陽川 // 安養站 / 安陽橋 // 安養坪 / 安陽투 등에서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安養과 安陽이 혼재되어 함께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는 단개인 것이다. '安陽'은 순조5(1805)년까지 표기 되어 있고, 그 이후는 '安蹇'이라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가속화시킨 것은 安養 부근에 安養寺 터가 있어서 불여진 이름이지만 그보다는 조선후기 정조 때 세운 安養화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안상행궁"의 위치와 건립시기를 살펴보면 『尚幸定例。" 道路橋梁에는 企佛橋、萬安橋、安養站 接所前路 등 시흥로 노정의 주요 지점 중 안양참람소 즉 안양행궁을 염불교로부터 1리로 적고 있다. 이외에 1908년 간행된 「精補文獻傷寒』와 집정호의 지리지 "대통지지」에는 행궁은 읍 내에 있고 반안교의 남쪽 안양 안덕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詩文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成現(1439~1504)의 시가 있다.

(安養寺에서 자고, 다음난 앞 시내에서 고기를 잡으며 남행하는 휴之를 보내며 (宿安養寺翌日楠魚前溪送養之南行))(「續東文麗, 5년)

³¹⁾ 예컨대 (東國與地志, 에 李元麗慕는 衿川縣에서 서쪽으로 신리라 하였다 (在縣西土里)

³²⁾ 초기의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에 타 없어지고 현재는 1623(인조 1)년부터 1894(고종31)년까지의 깃만 남아 있다.

³³⁾ 사홍길이 열린 것은 조선 22대 임급인 正祖의 損幸 진과다.정조는 파천과 시흥에 각각 랭궁을 설치하고 하됐다에는 습 숨급,爰茲站에는 윤성(群송)를 묘유에는 젊무을 두어 원원 백한 때 먼트 효율가 여불 곳을 마련하였다.현재 의왕시 占 매쇄 봉사무소는 타됐行済이 있던 자리인데 1989년 이 의왕시로 독립할 때 시청이 들어선 곳이기도 하다.안양역 앞 안 약쟁궁지는 일제 때 서이역사무소로 사용되다가 안약목이라는 육식정으로 개조되었고 이제는 해가가 되었다.

³¹⁾ 宣寧:行宮在邑內 萬安德之南 安莽原

³⁵⁾ 園幸定3의 간행년대 [18世紀 末(正祖 年間:1776-1800)]에도 安養 鞋,所라 하였다.

³⁶⁾ 김지석, "정조대왕 안양 사람들을 만나다" "안양문화, 11(2012), 173-174쪽참조

먼저 「續東文墨」에서는 '安養寺'로,成倪의 「康白堂集」에서는 '安陽寺'로 되어 있다. 成倪은 '安陽寺'라고 표기하였는데, 1518(중종 13)년에 申用施가 성종 이후의 詩文을 모아 엮은 "續東文 墨」에서는 '安養寺'라고 표기한 것이다. 이 무립까지 '安養寺'와 '安陽寺'가 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정은 정조 시대 채제공의 시이다.

蔡濟恭(1720~1799), (저물녘에 안양촌에 이르덨는데, 이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네(暮 振安整村是日 天無點震)) 3구~4구에는 '거듭 안양리에 이르고 보니 도리어 엣적의 인연 같아라'(重到安陽里 還知宿告報)(「癸嚴集」권 18 (杨年錄)下)

시제목과 내용이 '安遊柱' 과 '安陽里'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安陽里는 광명 근처이고 安출柱은 현 안양시 이하 군포, 안산까지라고 하면 이 표현은 일리가 있다. 물론 개인의 착각일 수도 있고 그 당시는 이 둘이 혼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여튼 '醫' 과 '출'은 한자의 의미상 통용한수 없으나, 선조들은 통용해 왔으며 편의적으로 사용하였다. 시대별로 변천사를 논의했지만, 개인적인 편차와 일관성이 뚜렷하지 못하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 그리면서도 '동'이 안양천의 북쪽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현행 광명, 과천의 일대의 모든 자료에 근거한 바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안양천의 북쪽을 염두해 둔다면 현 과천지역은 인양천의 북동쪽, 현 안양지역의 호계 지역, 광명 기역은 모두 '安陽'지역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지형적인 형세를 보면 安養寺 근처에 영향벽이 남아 있어 '安遊'과 시냇분의 북쪽을 상징하는 陽의 의미를 딴 현 과천과 광명의 일정 부분이 나중에 현 안양시로 편입되면서 '安嶽'으로 정확되었음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경부선이 安養포에 놓이면서 '安嶽' 보다는 '安 遼'이 대세로 굳어지면서 지금의 安養市가 탄생한 것이다. 곧 안양친 남쪽은 여전히 安養寺의 영 향을 받아 安養 지역으로 불리다가 안양역이 안양 1번가에 들어서면서 '安遼'으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安蹇'과 '安陽'은 다른 지역으로 서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자를 다르게 표기하였 지반 각종 사료에서 원의적인 서술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겠다. 참고로 '大東與地區', (조 선일보사 2004년 6월호)를 보면 분명 안양천 아래가 '安遼'이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지 금부터 先人이 생각했던 安養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그 의미가 분명하리라 본다.

^{37) 1905}년 1월1일에 안양역시가 개설되면서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안양역 부근 에 안양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1925년(1,165명이었던 안양의 인구는 1940년에는 1만병에 이르게 된다. 안양역의 개설 이후 안양은 인구가 늘고 챙정, 경제 교육의 중심자가 되어 갔다. "만안의 기약, (연양문화원, 2012년) 21속참조



"大東連地图。

Ⅳ '安養'에 대한 2가지 解釋

安養을 사전에는 極變이거나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을 쉬게 한' 이라고 적혀 있다." 더 구체적 의 자료로 千手經에 '願我決定生安養' ⁵⁹이라는 保頭에서 安養이라는 極變에 태어나기를 발원한다 는 내용이 있다. ** 極樂은 아미타불의 淨土로서 불교의 이상향인 佛國土를 말하며, 安養・無量詩佛 土・無量光佛土・無量清淨土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의 수카바티의 번역은 極樂이라고 할 수 있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십만 억 국토를 지나서 있는 곳이며 현재 아미타볼께서 설법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이 가득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安養'에 대해 문헌으로 전승되는 先太의 자료가 없을까? '극락세계' 란 인식 가지고 자주 불러주면 그렇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로 인해 이미지가 만들어짐으로 언어에 는 隨力이 있다고를 한다.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주술적인 효과가 담겨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바른 이름이거나 혹 이름을 바르게 하면 명분도 서고, 삶의 지향전도 분명히 보임 수 있다.

'安養' 에 대해 문헌으로 전승되어 오는 자료가 있어 좋은 지침이 된다. 하나는 '安養' 에 대한 한 자의 사전적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먼저 安츑에 대한 한자의 사전적 풀이는 현 '安養寺' 記文에 朴道鉉이 1972년에 쓴 글에 나타난다.

³⁸⁾ 오홍석도 안양을 安實樂道로 표현하며 마음을 편하게 지니고 몸을 쉬게 한다고 적고 있다. 오홍석, '땅이콤 나라얼굴」, 고려워미디어, 1995, 415~416쪽

³⁹⁾ 千手經 중 准提真言에 顯我決定生安養 顯我速見阿彌陀

⁴⁰⁾ 고려 일연의 "三國遺事」(권 5 (廣德農莊))에서도 '安婆' 이 나온다. 震德과 藍莊이 서로 약속하기를 '먼저 安養으로 돌아가는 자는 모름지기 서로 알리도록 하자 (先歸安養者 須告之)고 한다. 「王國造物」에 실릴 정도라면 「安都」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 것이다.

"그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 몸을 기르는 곳이라." ⁴¹⁾

이는 도를 닦는 사람을 위한 발언이었지만, 安은 곧 "安其心" 이요 卷은 "簽其稅"라고 安簽의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곧 安養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몸도 기르는 곳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心身一 知를 받지 않더라도 몸과 신체는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전한 생활습관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환 하면 곧 행복의 지름건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는 것 이 필수적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다. 지나친 물욕을 경계하는 깨끗한 마음 으로 쓸데없는 일을 줄이는 '淸心省事'를 한다면 행복한 이상세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몸과 마음, 영과 육의 조화¹¹¹에서 나아가 음양의 조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산막사 에 있는 男女根石을 들 수 있다. 남녀의 성기를 닮은 자연 상태의 바윗돌이 한 쌍으로 존재하여 음 양의 확합을 강조하고 있다.¹¹¹ 결국 안양 수리산 최경환 성지(천주교)와 삼막사(분교) 그리고 남녀 근석(민잔신앙) 및 칠보전(불교+칠성신앙)이 조화를 갖는 곳이 '安養'이라는 의미가 된다.

다음으로 安養을 상징화시켜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로는 1918년 시흥군수 洪鍾國이 쓴 서이면 사무소 告訴에 있다.

"영서(靈犀)가 알리는 곳이 오직 이 안양(安養)이요 신구(神義)가 먹는 곳이 역시 안양이라.

遊尾는 신령스러운 무소로 強力이 있는 무소의 뿐은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뿌리에서 끝까지 통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통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囊犀一點通도 있다. 따라서 '鉴屈所告'는 '신링스런 무소가 좋은 소식을 알리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神鳴는 신령스런 거북이고, '神亀所食'은 신령스런 거북이 먹는 곳이다. 장수하는 거북처럼 안양이 영원히 먹읍 거리가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삼막사의 삼귀자(三龜宇), 안양사의 귀부(龜趺), 마애종 거북바위 등 신귀(神亀)가 인양에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安養이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

⁴¹⁾ 安基心 卷其體之處

⁴²⁾ 육체는 인간 존재의 본권로 파악한 회람의 문화는 발기에 물질주의와 쾌탁주의에 빠져 인간의 존엄청이 상심되었다. 이는 기독교의 화중심주의 철학에 국북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경건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읍 지나치계 중시하는 기독교의 화중심주의는 또다시 인간의 육체철 중시하는 교내상스 운동을 아기 시켰다. 결국 육신 파 정신에 대한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⁴³⁾ 다른 말로 「中正'이라고도 하는데,조선 영·정조 때 선사 초의는 '동다송(東茶頭)'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몽과 정신 이 박복 온전에도 중점을 잃음까 지어되니, 中正이란 건강한 신제와 정신이 균형을 잡는것이라!((超計劃全租等數中 定 中压자(建設))

⁴⁴⁾ 현재 알려진 남녀근석이 공존하는 곳은 3인데, 경납 남해 가천 암수선들, 천안시 봉시산 공원, 삼박사 철보진 앞이다. 이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 삼막사의 남녀근석이라고 한다.

⁴⁵⁾ 鎧尾所告 催此安養 种龜所食 亦是安養

리고, 먹윤거리가 풍성한 곳이라는 말이다. 감성과 이성의 균형, 일과 휴식의 조화, 몸과 마음이 조 화품 이루는 행복의 터가 '安養' 이라는 말이 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安養' 이라는 名稱을 여러 사료와 시문을 당해 寬明해 보았다. 각종 지리지에 (과천현)에는 '安豫川(石橋)', (금천현)에는 '安豫川(石橋)'라고 하다가, 시대 빈천에 따라 '安豫川'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안양은 安養寺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은 '安隆'으로, 安豫비의 복쪽이라는 의미를 지닌 지역은 '安陽'으로 표기하여 역사적 변천을 거쳐왔다. 사실 지역적 명청으로는 '霍'보다는 '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지만, 일제 강점기 안양역의 개통으로 安養寺의 남쪽 곧 안양천의 남쪽 지역인 '安羅'으로 굳어지면서 지금까지 정착되었던 것이다.

안양이 표기된 사료는 "朝鮮王朝實錄」, 『水政院日記』, 『日省錄』, 『備造司階錄』등을 들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과 『日省錄』에는 '安澄'을, 『備造司辟錄』에는 '安陽'을 일관되게 표기하였고, 『永 政院日記』에는 이 둘이 섞여 있었다.

시문 역시 '安徽'은 시 10명과 12편, 산문 1명에 1편이고, '安陽'은 3명 3편으로 '安徽'이 우세 하다. 그러나 안양취, 안양교, 안양평 등은 이 들이 호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사료나 시문을 통해 이들 명칭이 일정한 시대에 따른 변천의 차이를 두기 보다는 편의 상 통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의 음이 간으면 통용하는 사례를 따라 安養과 安陽은 일정한 개념 없이 공존・병용하다가 安養鬼에 경부선 철도가 들어서면서 安養과 安陽, 이 둘은 경쟁・보완 판 게에 있다가 '安養'으로 정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安養' 이라는 의미는 '安' 과 '養' 의 문자적 해석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기르는 곳 이라' 는 문자적 해석과 '寶運所告 神亀所食' 곧 '靈犀가 좋은 소식을 알리는 곳이고, 神亀가 영원 토록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곳' 이라는 비유적 해석을 한 수 있다. 더욱이 안양 수리산 최경환 성지 (천주교)와 삼막사(불교) 그리고 남녀근석(경기도 민속자료 제3호, 민간신앙)과 칠보전(불교+천성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 종교적 화합의 공간이 '安養' 이라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공간대를 넓혀나간다면 안양 시민의 자궁심은 高揚되고, 안양 시민의 正 配性를 확보와 求心點 역할을 하리라 본다. 더욱이 '安養'이라는 이상향을 만들려는 의지와 결합 한다면 전혀 名稱대로 좋은 기운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箱要』
「大東地志」
『東國興地志』
「果川邑誌」
『備邊司階錄』
『辭源』、『三國治事』
『結束文潔』
『承政院日記』
『輿地圖書』
『日省録』
『中文大辭典』
『虚白堂集』
강길부, 「땅이를 국토사랑」, (집문당, 1997년)
김기빈, "일제에 빼앗긴 땅이름을 찾아서, (살림터, 1995년)
金正山, "鼓字 安養"(『安養文化』 8호) (안양문화원 1990년)
김지석, "젓조대왕 안양 사람들을 만나다" (「안양문화」 11호, 2012년)
문원식, "새 천년, 안양 100년의 의미" (안양지역 시민연대, 2003년 06월 07일)
안양문화원, 「안양의 민속놀이와 세시풍속』, 2003년
안양문화원, '안양집성촌자료집」, 안양문화원, 2005년
안양문화원, 「만안의 기억」, 2012년
안양시민신문, "청원 통해 기와 발굴 이끌어낸 정덕한씨" (2009년 10월 16일)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2, 이야기와 인물로 보는 안양, 2008년
오홍석, "땅이름 나라얼굴」, (고려원미디어, 1995년)
최태술, "알기 쉬운 안양의 역사" ("안양집성촌자료집」, 안양문화원, 2005년
```

정응린 장군의 충효절의 정신 연구

I . 머리말

집필자

장 삼 현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양평)

장 삼 현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양평))

II. 가정적 배경과 효성 1. 정용련의 가정적 배경 2. 세교로 본 정용련 가문 3. 정용권의 효도정신
III. 임진쇄란파 정용련 장군의 충절 1. 배근의 조선 침략파 거의 2. 교대산의 현진파 순절 3. 정용면 장군의 의병장신
IV. 정용권가(家)의 충효절의 1. 정의의 충효정신 2. 정통권씨의 순절 3. 정일 의병의 순절
V. 자료로 본 정용권 가의 충효전의 1. 동국신속감강행실도 2. 여주목고적병목성책 3. 승정원일기
VI. 충효열정문에 대한 검증 1. 개요(教 汉) 2. 숭정원인기와 조선왕조실목의 기사 3. 임금이 내린 명정이 있는가? 4. 1974년 신근리에 복원한 근거
 VI. 맺음말 참고문헌

I. 머리말

의병은 우리나라 역사상 외세의 침략 때에 나타나는 자발적인 민간인 조직의 구국결사대라 하겠다.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면, 그 구성원인 국민은 죽고 사는 문제를 따지지 않고 의리로써 저항운동을 하거나 창의호국 두쟁에 나서곤 하였다. 그런데 의병은 정규군대와 달러 국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애국애족 하는 충신으로 자발적 결사적으로 나서서 싸웠기에 그 정신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계속성과 번영을 위해서도 이 의병정신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국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생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으니, 1592년 임진왜란 때에도 전 국에서 의병은 일어났다. 의병장 정응린 장군은 1592년 4월 말~5월 초에 자재들과 함께 여주 양 평 지평 등지에서 의병 4.5백 명을 모집, 충주에서 복상하는 왜적(동로군)을 양명군 지평면 고래산 에서 가로 막고 격전을 벌였다. 격전 끝에 정용번을 위시하여 만머느리 청풍김씨, 막내아들 정인 등 인가족이 순접하고 500 의병이 전민되다시의 참패하였다. 패현읍(敗頻區), 패현급(敗規里), 구절면(抗敗規), 혈천(血川), 절운(節掌) 등의 지명은 정응런 장군의 고라산 전투가 처절하게 패전한 태에서 비롯된 만들이라 하겠다.

역사는 강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 름 이끌어 간다. 그래서 살아남은 주역들의 생존경쟁에 밀려서 죽은 호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은 외민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역사 속에 묻혀버린 고래산의 충효점의의 정용린 장군 가족 의 신상은 아래 표와 같다.

1592년 5월 8일 고라산 패현리 진투에서 정송된이 전사한 기록은 「중정원일기」에 전하지만, 상 세한 전투상황이나 누가 참전하고 순절했다는 기록은 정응린 가족 이외에는 없다. 500여 의병들이 의백이 되었다지만, 이 전투에 참전하였던 인물이나 전사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고래 산 전투라는 역사의 현장에 대해 사실여부에 회의마저 없지 않다.

이 처절한 역사의 현장도 찾을 진이 없으며 패현이라는 고개도 거의 모르고, 표석하나 없어 420 년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2012년 임전의병 420주년에 상촌장확회가 "등국신속삼강행실도』, "승정 원일기』, "여주고직병목』 등을 근거로 지평육 고라산 패현리로 불렀던 현 지평면 대평리에 임진의 병 420주년을 기념하는 '임진의병 전적비'를 세우고 그 장소 명칭을 '임진의병 전적비 공원'이라 하였다. 기록도 없고 여주 양평에서 까마득하게 모르는 가운데 갑작스레 임진의병 공원이 조성되 고 비석은 세워으니, 대중등이 회의(懷懷)를 갖는 것은 임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은 상촌장학회"가 임진의병 정응린 장군이 패전한 고래산 골짜기 대로변

에 진적비 네 기를 세운데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아울리 순절한 의병들의 충절과 의리를 밝혀 세 상에 알리고 후대에 오래도록 전하여 기리도록 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 네 가지가 문제를 구멍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진의병 고래산 순절 정응린 가족

성명	생 졸	고래산 전투	포증(褒贈)	비문,행장 지은이	전적비 : (지평 면 대평리534)	出處		
鄭應縣 (의병장)	1531- 1592	순전	배가선대부 호조참만 정라(忠臣) (英립朝)	행장: 金字亨 신도비문 金鐵商 정비문: 鄭炫模	비문 : 張三統	· 종국신속인강행 실확한건강의재 (1610) · 동국신속남장행 선도(1617) · 이주목고걱병목 (1628) · 조선왕조실목 (1623, 1725) · 청중건세족보 (1750) · 하동정식세보 (1800) · 기년원교(1917) · 이주군시(2005) · 하동정세역위공 퍼족보(2010)		
鄭 迪 (長子)	1556- 1637	생존 복수칭 설치	환자현대부 형조판서 정려(忠孝) (英祖朝)	행장 · 보표 : 金字후 신도미문 사勇植 정미문 : 節妓模	후모시: 李碩珪 후기: 郡基瑞			
消風金氏 (長子婦)	1556- 1592	순점	所貞夫人 節婦 정려(孝烈) (宣祖朝)	표비문: 호質求 정비문: 鄭炫模	추모시: 文碼矩 후기: 构建琪			
郡 逸 (四子)	?-1592	순절			비是: 燃油君			
鄭應韓 官歴	부파함격, 신전관점 사복대송, 합평현감, 훈련부정, 원종평국공선, 입진의병장, 중신 정리, 증가선대부. 참관, 증병조험관							
節 迫 官級	의번도사, 중계청수, 한성관련, 가신대부 한성부우윤, 호성공선, 歲與字, 부호군, 청자중추부사, 跨嘉義大夫, 曹參到豪同知義禁府平五衛都德府副德符行折衛粹軍德鎮衛副遵軍, 跨 자원대부 형조판서							

- 첫째, 조선은 충효절의를 기본윤리로 삼았던 유교사회요 사화와 당쟁의 역사 속에서 정응린이 성장한 가정적 배경은 그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둘째, 정용린이 의병을 일으키고 살신성인함에는 그가 성장한 배경 속에서 그 나름대로 제전화 되고 정립된 정신적 기반이 있을 것이다.
- 셋째, 정응린 가족이 종군(從軍)하여 충효질의를 실천함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¹⁾ 상촌 이정숙(1946생) 이사장이 설립하여 2006년 5월 28일 반족한 공익사업 장확회로3대 목표중하나인 병현과 순국선 인들의수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12기의 비석을 세웠다.

넷째, 1974년 신근리에 복원하였다는 '충효열정문' 은 정용린 가문의 충·의·효·열의 상징이다. 그 역사성과 진실성엔 의문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 네 가지 가설을 전체로 하여 정응린 가족의 충효절의를 고찰하고 '중효 열정문'을 검증하여 객관적이고도 긍정적인 해답을 얻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참고할 사료가 빈 약하여 그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II 가정적 배경과 효성

1. 정응린의 가정적 배경

가전충효(家傳忠孝) 세수인경(世守仁敬)' 이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소질과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바, 충신 정용린의 살신성인한 창의호국정신을 고찰함에는 그 집안에 조상대대로 전해지는 가중과 충효절의 정신에 대한 상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용린은 위태로운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여 단지 혈서로써 호소하며 의병 500명을 모집하였다. 그것은 평소 그의 인격과 덕의에 의한 존경과 신뢰에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정용련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었던 가정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용린의 자는 백인(伯仁), 본관은 하동(河東)이니, 옥야(玉野) 여호(如虎,1502~1591)의 맏아들로 1531년(중중 26)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출생하였다." 정용린은 하동정씨 시조 정웅(鄭 席,1216~1273)의 12 세손이다. 정용은 고려조의 명신으로 벼슬이 금좌광록대부 도첨의 좌정승 검교태자청사를 역임하였다. 정용린의 9대조 정계(鄭繁,1257~》는 금자광록대부 평장사로 하천군 (河川北)이다."

정용련의 6대조 회(熙,1350~?)는 호가 묵은(默疑, 默軒)이니, 포은 정몽주의 문인이다. [©] 1376년 (우왕 2) 문과에 급재하여 벼슬이 직제학에 이르렀다. 묵은은 "어려서부터 남단리 기질이 있고 효 도하는 성품은 하늘이 주신 듯하며, 충명하기가 절윤(絶倫)하고 지기(忠氣)가 보통사람을 초월했 음에 매양 글을 읽을 때 절의(節義)에 이르면 부률을 치고 감탄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 그가 급제

²⁾ 하동장씨묵은공후익위공과보, 2010, P. 1.

하동정씨묵은공후익위공과보, 2010. P.1.

尹桑善,朝鮮儒賢淵潭圖,影印本,1985.p.23.

후 사헌부 집의가 되어서는 김진양 등 10억인과 함께 정도전, 남은, 조준 등 당시 조정의 거물급 인 사들의 좌목을 열거하여 형벌로 다스릴 것은 상소하였다가, 도리어 화를 입어 유배되기도 했다.[©] 석방된 후에는 두문봉출하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묵은의 절의로 우뚝한 분이라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응린의 世系表

1世 정응(鄭府,1216~1273), 하동정씨 始貫祖, 고려도첨의 좌정승

2世 성(城,1235~1301), 은청광록대부, 밀직원

3世 계(路,1257~?), 금자광록대부 동평장사, 河川君

4世 경송(承慶,1296~?), 금자광록대부 특진, 문하첨의찬성사

5世 태보(台韓,1327~?), 贈은칭광록대부 밀직원부사

6世 희(熙,1350~?) 포은 정몽주 문인, 官직제학

7世 포(抑) 世宗朝 원종공신

8世 문언(文彦, ?~1473) 成宗朝 원종공신

9世 권(權,) 익위사 익찬, 육신참화 후 속리산에 은거, 終身不住

10世 경복(景福,1510~?) 官 사복시정

11世 여호(如虎,1502~1591) 號 玉野, 관직사양, 隱居

配. 升陽張氏

12世 응린(應轉,1531~1592) 忠臣旌間, 의병장, 古羅山 殉國 配, 慶州金氏。

13世 적(一子, 迪, 1556~1637) 忠孝旌間, 고래산 전투 참전 配, 清風金氏(1556~1592) 節婦旌間, 贈貞夫人, 고래산 殉節 織配, 洪州季氏

13世 괄(二子,适, ?~?) 고라산 전투 참전, 官泗川郡守

13世 술(三子,述) 郡守역임

配,清風金氏

13世 일(四子, 逸, ?~1592) 임진의병, 고래산에서 殉節

⁵⁾ 하동정씨국은공후익위공과보, 2010, PP.56~57,

⁶⁾ 대조실록, 1권, (1392, 태조1) 7원28일(정미) 3번째기사, 태조실록 1권, 총서131번째 기사

고조부 정문언(鄭文彦,?~1473)은 익위공과 파조인데, 성종대왕 때의 호종공신이다. 조부 정권 (鄭禮,1468~?)은 익위사위에서 음죽현감으로 전직되었을 때에 옥신(大臣) 참화가 발생하자, 속리 산에 은거하며 중신토록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군신의 의리를 버리고 반역을 도모했던 선세 무리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니, 절의가 있는 고결한 인물이다. 이 역시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 업육 장이다

부친 옥야(王野) 정역호(鄭如虎,1502~1591)는 벼슬을 사양하고 여주군 길천면 옥은동(현 상백리)에 은거하였다. * 그러므로 옥은동에 장사지내고 그 아들 정웅린이 여묘를 살았다. 그러니 웅린은 여주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용런 이후의 일이지만 여주에는 대로사(大老祠)가 있다. '대로사를 모르면 그는 여주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즉 대로사는 여주 사람들의 자존심이다. 북벌을 다짐했던 효종대왕 과 송사열의 관계를 생각하면 여주의 대로사는 시사하는 바가 그다. 이는 정용권이 여주 양평 등지에서 의병 500명을 모집하였다는 사실반으로도 여주의 정서를 집작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정용란의 인격과 덕의와 살신성인하는 총절과 지극한 효행은 가정적 배경 속에서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는 충성과 효도를 전하고, 사회에서는 인의와 공경을 지킨다."는 가전충효 세수인경'은 정용란이 성장한 가중에도 적중한 말이라 할 것이다. 정용단의 효도정신과 단지혈서로 살신성인하게 된 충신의 절개는 조상에서 이어진 자결과 중효의 가문에서 배이진 선비정신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2, 세교로 본 정응린 가문

조선조는 사회와 당쟁으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다. 정치적 복적에 따른 갈등도 있겠지만 생존 경쟁에 따른 사리사육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권력다툼이 피를 부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은 실튼 좋든 자동적으로 사색당과에 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 환경이었다. 영조가 당평책을 썼지만 오늘날까지도 사색은 존재한다. 그러면 "가건충효 세수인경"의 전통이 이어진 여주의 정응된 가문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지역적 접근성과 학문적 개통, 할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세교(世安)를 살펴보면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조상의 비문을 부탁하거나 그것을 허락하여 자이주는 것은 학문적으로 연계되거나 세교가 있어 야 한다. 고인의 비문, 신도비명, 묘지명, 행장, 유사, 만사 등은 아무나 자어주는 것이 아니며 아무

⁷⁾ 하동정씨묵은공후의위공과보, 2010, PP.78-79.

⁸⁾ 하동정씨세보1, 1800, 10쪽(후)

에게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탁하는 측과 부탁을 받는 측이 서로 세교나 교 류가 입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의병장 정용권 부친 옥아공[如虎]의 묘지명은 농포(農河) 정문부(鄭文字,1565~1624)"가 지었다. 정문부는 임진왜안 시 의병장이요 시호가 충의(忠毅)이다. 충의공 정문부가 묘지명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도 정여호의 인문됨을 집작할 수 있다. 농포는 정용권의 장자 적(迪,1556~1637)파는 10년 연하인데, 같은 경기도 인물로 정여호의 묘지를 지었다는 것은 세교가 있었다는 것을 집작 케 한다.

정응련의 부천 여호의 부인은 단양장씨 원종훈 장사랑(銀七頁)의 딸이다. 사랑의 조부 장자인 (張白仁,1420~1501)은 연산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단양이다. 그 아들이 예번시주부 장귀손 (1447~1491)이고 그 손자가 장사랑이다

정용련의 신도비문은 김진상(金額商,1684~1755)이 지었다. 김진상은 호가 퇴어당(退漁堂)이고 광산인으로 김장생의 현손이다. 서인계(西人素)의 참판 김익훈의 손자다. 벼슬이 의정부 우참찬에 오르고 관직에서 물러나서는 경기도 여주(鄭州)에 은거하면서 산수를 유람하였다. " 시호는 문간 (文簡)이다. 정적과 같은 여주 사람으로 정적의 청에 의하여 퇴어당이 신도비문을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퇴어당은 철저하게 노론의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1716년(숙종 42)에는 윤선거(尹宣琛)의 서원과 문접목판 훼천을 청하는 병신처분(丙申處分)"에 적극 가담하였다. 1719년(숙종 45)에는 남인계 희변장씨(蔣納張氏)의 묘를 이장할 때 동궁이 방곡(望爽)하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 장희빈이 남인계요 윤선거는 소론계에 속하는 인물이다. 모두 노론과는 적대관계에 있다.

정응린의 행장은 판서 김우형(1616~1694)이 지었다. 김우형은 광산인으로 판서를 지냈으며 시 호가 정혜(真惠)인데, 여주 사람으로 정응린의 손자 윤필의 사위이다. 윤필의 아들 장자 시정(始

⁹⁾ 정문부는 1565(명종 20)~1624(인조 2), 존선 증기의 문산이요 의명량이다. 본관은 해주(前州), 자는 자하(千生), 호난 동포(展開), 무나 선(법)의 아름이다. 1586년(선조 21) 문관에 규제해 한성부참근이 되었으며, 1591년함경목도병마정사가 되었다. 1592년인리생산이익어나, 그래 연기가로 1570년(南國 18명을 지르는 학생 18명을 기본 사이 기본 18명을 지르는 사이 최명하여 구경인(東景仁)과 국제원 (報度級)이 반단을 일으로 입력한 문화되가 순화군 (城和田光)은 포박해 가도에게 청복하자, 의병을 입으로 구경인 · 국제인을 잡아 속이고일본군에게 해양겼던 이러 읍파권을 수복했다. 이어 10억발경격주 경쟁・생포에서 일본군을 물리 치고, 이름해 1월 아인(왕), 번호(據明)를 직파하고(의원소에는 백학교(전투장)에서 가도의 일본군을(대파환간복지역 수 수복했다. 159년영봉부사가전원소생부사 · 건목부사 · 안박면사 · 공주목사 등은 역임했다. 1599년경제 인환전을 사용하고 20억 1명 대표 150억년경 문화 기본 18명을 지하고 20억 1명 대표 150억년경 보고하는 사업이 있어 논등행상에는 전기에 1명하는 모두사으로 보고하는 사업이 있어 논등행상에는 제외되었다. 모두사으부사 · 신부부사 · 전주목사 역임, 청합사(蔣廷리)에 제량 되었다. 화산성에 추종되었고 사용는 주의(原항)이라

¹⁰⁾ 다음, 주제로보는 여주군사

¹¹⁾ 숙종이 송시인과 윤종 간의 서비를 관단한 후 '윤종이 송시열은 비방한 급이 많지만, 송시열이 자운 운증의 아비지 윤 선기의 모든 중에는 윤선거를 비방한 급이 없다'고 장리한 차분,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노론의 관등 단점이 되었다. 12) 숙종실목, 권점, 179(숙종 49년 3합12억)자

微)과 차자 상정(相徵), 막내 세정(世徵) 3형제는 노론인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다. 뿐만 아니라 정 적의 해장과 묘관도 지었다. 그러면 노론집안이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정적의 부인 청종김씨는 이천에 살았는데, 월천군(月川君) 문평공(文平公) 김길통(金古蓮,1408 ~ 1473)의 후손이다. 쌍벽헌(雙碧軒) 정윤필(鄭允婦,1600~1688)의 아들 3형제가 송시열의 문인인데, 쌍벽헌은 벼슬을 시앙하고 덕수인 이안눌(李安輔,1571~1637)을 종유(從整)하였다. ¹⁵ 그러면 이안눌은 누구인가? 이안눌의 신도비는 1712년(숙종 38)에 충남당진군 정미면 사관리에 세워졌는데, 비문은 청음 김상헌이 지었고, 글씨는 송시열과 절천한 동춘당 송준길이 썼으며, 전서는 김 광필의 중손 김수항이 썼다. 이는 신도비 건립 이전부터 동악 이안눌의 인간관재는 서인-노론계의 학맥이었음을 알 수 있다. ¹⁶ 양평군 양동면 백당 이식과 그 자손들이 학문적으로 송시열과 교류가 있다. 여기서 보아도 정응원의 가계는 노론계열에 속한다. 정윤편이 이미 의리를 중요시한 노론계열이기에 아들 셋을 주자 다음으로 존경받는 우암 송시열 문하에서 배우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800년(정조 24) 발행한 '하동정씨족보』서문은 송환기가 지었고 민대학이 썼다. 송환기 (朱煥箕,1728~1807)의 호는 심재(心藥) 또는 성담(性澤)이고,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송시열(宋時 烈)의 5대손이며, 인상(資相)의 아들이다. 역시 여기서도 정응권 후손들이 노론계열에 속함을 알수 있다. 민대혁(閏台勝,1746~1806)의 자는 자삼(子三), 본관은 여흥, 백종(百宗)의 아들이다. 도승지 관환사 등을 두두 거쳐 벼슬이 우잠찬에 이르렀는데 여주 사람이다.

이상 세교를 보면 정문부, 송시열, 김진상, 이안눌, 송준길, 김상현, 김우형, 김진동, 민태혁, 송 기환 등 노론개 거물급과 세교와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응런 가문은 대대로 노론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적대관계에 있는 남인이나 소론계로부터 감시와 비방의 대상이었다. 말하자면 조그마한 흠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삼고 파헤치려하는 적과 같은 상대방과 대치되어 있는 가문이 었다. 그러므로 정응란은 더욱 꿋꿋한 의리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며 효자와 충신의 법도를 배우고 지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삼신성인 할 수 있었다.

3. 정응린의 효도정신

정응린은 1591년 음력 10월 12일 부천의 상을 당하였다. 여주 상백리에 은거하던 옥야 여호가 병세하자 근처 산에 갖사지내고 묘소 점에서 시묘(侍慕[崔基])⁵를 살았다. 이것은 지극한 효심의

¹³⁾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2010.p. 15. 從遊는 분인이다. 정웅린의 손자 정윤필은 이안눌의 제자다. 14) 한국서원이야기(동악서원), 박성진카의.

발로이다. 정용림이 어버이 생전에 효도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시묘살이를 하였다는 기록은 그의 부모에 대한 효성을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 로 시묘를 살은 효자는 많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효의 실천은 아니다. 효자는 부모가 산아있을 때나 사후에나 자식의 도리를 정성스럽게 실천한다. 시묘 생활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 는 정도가 지극할 때에 효의 실천 방식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을 접고 3년간 슬픔과 예제를 극진히 다하려는 효도의 상징이기도 하다.

인류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자의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벼슬을 사 작하고 일상을 접고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시묘를 산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통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를 청찬하고 높이 평가하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없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지만, 자식은 그렇지 못하다. 전통사상에서 효자는 부모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돌아가신 다음에도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또 부모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죽은 후마저 도 효도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3년 상중에 만이라도 자식이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효의 실천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모든 생물의 성적인 욕구는 본능이다. 인간도 예외일수 없다. 이것은 일종의 행복에 속하는 일이다. 그렇더라도 상중에는 부부관계를 금기시하는 것이 전통사상이다. 부모 상중에 자 식이 임신을 하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한 집에 거하면서 3년 동안 본능을 이겨낸 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상중에 있는 부부는 여묘살이를 통하여 별거함으로써 슬픔 을 다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무튼 여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 생활방식에선 불가능 한 일이다

또 하나 정응린의 효성은 충절로써 그 효도를 유추할 수 있다.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로써 군주 를 설긴다"(愛君如父)고 했다. 충은 효에서 나온다. 효자 가문에서 충신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렇 다면 정용련의 효의 본보기옆단 시묘살이는 그의 살신성인 사생취의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 를 구하고자 의병을 모집하여 고래산에서 왜적과 싸운 충절에서 정웅린의 효행을 집작할 수 있다.

영조 워년 승정원일기에는 정웅린을 포창하라는 이양대 등 상소문에 이런 말이 있다. 즉, "이제 만약 끝내 묻혀버리게 된다면 이는 국가에서 절의를 숭상하고 풍교를 수립하고자 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응린의 집안이 충의(忠義)를 전수한 것은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육대조(六代祖) 희(熙)는 고려 맘기에 의리(義理)를 지켜 본조(本朝)에 항절(抗箭)한 사적이 분명히 동사(東史)에

¹⁵⁾ 상제가 부모의 상중에3년간무덤 옆에서막을 짓고 사는것.

실러 있습니다. 그 유풍(億風) 여열(餘烈)은 그 선조의 아름다움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 니다."⁵⁰라고 하였다. 이처럼 정송린의 충절과 의리와 효도는 시조 용 이래로 가전(家傳)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말은 정용린의 충절과 의리와도 일치하고 있 다. 그러니까 정용린의 충절은 그의 효도정신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Ⅲ. 임진왜란과 정응린 장군의 충절

1. 왜군의 조선 침략과 거의

인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盟臣秀吉)는 분열된 일본 사회상대를 정리하고 전국을 통일했다. 그 러나 그 반대파들의 불만을 회유하지는 못했다. 도요토미는 이런 반대 세력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 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병나라를 정복하려는 아심도가지고 있었으니 정명가도(征明假道) 라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하여 1590년 3월 황윤길(黃允吉)⁵⁰김성일(金錢一)⁵⁶을 일본에 파건했다. 그들은 교토原都에서 도요토미를 만나 답서를 받았다. 답서에는 종래의 '예폐' (趙辪) 가 '방물' (方物)로 바뀌어 있었으며 '명나라를 침입한다는 '입대'명' (入大明)의 구절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에 통신사가 시정을 요구하자 방문은 다시 예폐로 바꾸었지만 '입대'명' ⁵⁰이란 구절은 그 대로 두었다. 이것은 명나라를 침입한 의사가 있다는 뛰이다

이듬해 1원 귀국한 통신사들이 3월에 입정(入京)하여 복명하였다. 이들은 왜군의 조선 침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서로 엇간린 보고를 하였다. 황윤권은 일본이 침략한 가능성이 있다고 정확한

¹⁶⁾ 承政院日記, 英祖元年(1725), 10월 21일.

^{17) 1536-2.} 자는 김재(古哉), 호 우송당(友哲堂), 본관은 장수(長水)다. 1561년(명봉 16) 식년문과에병과로 급쟁, 1563년 정언, 1567년 지정이 되었다. 1585년(선조 18) 축주(黃州)목사를 지비고 방조참관에 이르렀다. 1590년 통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도요토비 하데요시(遺臣秀古)를 접건하고 이듬해 귀국하여 장차 일본이 반드시 내침(朱兌)할 것이므로 대비하여야 한 것이라고 포병하였다.

^{18 1538-1593.} 자는 사순(土松), 호는 학통(認介), 본반은 의상이다. 이쪽의 문인이다. 1557년(명종 19) 사마시에합격였으 며, 1569년(신조 1) 중앙 문과애급제하여정자· 검일 - 대교 등을거졌다. 1590년봉신부시(極信訂度)가 되어 청사(正保) 황윤건(政元音)과 함께 인본에 신나가 삼정을 살펴고 이동해 돌아왔다. 그는 일본의 침략수리가였다고보고하여 작이 의 동안[장건은그의 검색하고 채택했다. 1592년(인진혜란이 일어나자, 전통 보고한 책임으로 자발이논의되었으나 동안인 충성용의 변호교사사업다.

¹⁹⁾ 입대명이라 병나라에 입조한다는 의미이지만사실은 풍선수길이병나라를정벌한다는 뜻이다.

보고를 하였지만, 김성일은 그와 반대로 일본의 침략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의 견해도 양분되었고, 이에 일본침략에 대한 방비책의 논의가 유아무야되었다.

선조실록(선조 24년 3월 1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부산으로 돌아와 정박하자 윤김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치계(陳於)하면서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복명(滾合)한 뒤에 상이 인견(키見)하고 하문하니, 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용과 같은 의견을 아되었고, 성일은 아뢰기름,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정항 하게 이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외에 매우 어긋납니다.' 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수길이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윤길은 아뢰기름,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락이 있는 사람인 듯한 어떻게 생겼던가?' 하니, 윤길은 아뢰기름,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락이 있는 사람인 듯한 어줍니다.' 하고, 상일은 어뢰기름, ''그빙 눈은 취와 같으니 즉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하였는데, 아는 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었다. 당시 조원(趙重)이 화의(和謝)를 극력 공격하면서 왜적이 기필코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윤길의 말음 주장하는 이름에 대해서 모두가 '서인(西 사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 고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심룡이 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다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 크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성일이 말하기름, '나도 어째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눌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 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

실목에 나타난 이러한 실상은 역사의 주역들이 국가존망이 달러있는 외교정책에 진정어린 애국 심보다 감정을 가지고 사사로이 파발싸움을 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국방대세를 굳건히 하여야 하 는 것은 조정대신들의 상식적인 국방인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러있는 상황 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비책은 세우지 못했다.

조선이 당파싸움으로 방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에 왜적은 드디어 1592년 4월 13일 왜군 18,000명으로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워 물리적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4원 14일 부산함락, 4 원 18일 왜군 제2번대 상륙하고, 4원19일 왜군 제3년대가 상육하여 화죽자세로 부상됐다.

조정대신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조정에서는 우선 복진해 오는 왜군의 진격은 저지시키는 일이 다급했다. 영남지방으로부터 조선의 내륙으로 접근하는 길목인 중로(中路), 동로 (東路), 서로(西路) 등 삼로(三路)와 조명, 중령, 추풍령 등 3대 요충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취입가능성에 대한 상비군태세가 당정에 밀려 무방비였으므로 거센 왜 적음 막을 만한 정예화 된 군사는 없었다. 10여인 만에 경상도 전역을 전략하였다. 조정은 4원 28

²⁰⁾ 선준수정실록, 25권, 24년(1591 신묘 / 명만권(原曆) 19년) 4월 1일(정유) 3번째 기사

일 파천을 결정하고 30일 평양으로 파천하였다.

여기서 복상하는 다른 길은 제처둔다. 왜군 동로군은 가토기요마사의 제2군단이다. 조정에서는 성웅길을 확방이사로 하여 동로(東路)로 나가 부산 - 경주 - 영천 - 안동 - 영주 - 죽랭을 넘어 충청도 단양 - 충주 - 경기도 여주 - 양평 - 용진(能津) - 서울로 오는 왜군 2군단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또 왜적 한 부대는 죽산과 용인을 거쳐 한강에 일러 5월 3일 사용이 합락되었다.²⁰

파천 건은 5월 7일 평양에 도착하여 전세를 지켜보았지만 날리해지자 6월 11일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옮겨갔다. 관군은 속속 패전하고 왕은 피난가고 나라의 운명은 시작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 자, 4월 24일 경남 의령에서 꽉채우가 처음으로 흥의를 입고 의병을 일으켜 외작을 토벌하였다." 5월 6일에는 전남 나주에서 고경명 김정의 최경학 발광옥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경기도 지평에서는 정응런이 4월 말장에 의병 500을 모아 수일간 전투를 벌이다 5월 8일 고래 산에서 전사하였다. 5월 8일은 이미 서울이 함락된 이후라 정용권의 우국충정은 적극적인 행동으 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탁월하고 간절하여 정 보도 빨리 입수하여 매우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다.

2. 고래산의 혈전과 순절

지명(地名)은 사람의 의해서 발생하거나, 또는 사람의 이름(號)은 지명에 의해서 생기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람에 의하여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래산(高來山)은 「승 정원인기」,에는 고라산(古羅山) 이라고 했다.³³ 고래산은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와 여주군 북내면에 걸쳐있는 해발 543m에 이르는 산이다. 패현은 고래산 줄기에 대평리 → 망미리를 왕래하는 절운 (節雲)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는 군사작전상 중요한 동로이다. 이 고개는 여주에서 고달사지 입구를 지나 대평 저수지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로 올라가다 대평리 패전마을을 지나 고개정상에 이른다. 고개를 넘어 망미리를 지나면 양동면 방향과 지평리를 가쳐 양평으로, 홍찬 횡성 철원 등으로 통하는 길이다.

즉 이 고개는 여주에서 곡수 지평으로 이어지, 시울- 남양주- 양평 - 지평- 양동 횡성 - 홍천
- 원주 - 강룡으로 이어지는 평해대로와 만난다. 패현을 중심으로 보면 《 충주 ← 여주 ← 패현(仇 叱娘, 節雲고개) → 망미리 → 지평리 → 용문 → 홍천 횡성)으로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²¹⁾ 선조식록권26, 선조25년5월3일(일순) 기사 이때도건확사 이양원, 도원수김명원, 부원수 신각

²²⁾ 선조실록, 27권, 1592년6월28일김성일 보고, 4월22일이라는기목도 있다.

²³⁾ 승정원일기(1725, 10,21), 李發大等의 鄭應精,彰上確文

지평군 남면(南面)의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쾌함에 따라 평장리, 배잔리, 대사리의 일부를 합치면서 특히, 대사리와 평장리 두 지역의 첫 글자를 따서 '내 평리'라 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대평리에는 10ha 이상을 관수하는 저수지가 반들어져 곡수 평 야에 농수로 사용되어 집이 좋은 쌀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정용권(1531~1592) 기록에는 "同年(王辰)五月八日殉節氏平古羅山下敗 與里敗蜆自敗峴之名自此始矣"라고 하였다." 즉 '정용권은 1592년 지평 고라산 아래 패현리에서 순절하였는데, 패현이란 이름은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글이다. 이는 영조대왕 원년(1725년) 『숙정원일기, 에서 안용된 내용이다.

장용린의 고라산 전투는 경남 의령의 곽재우 의병보다 조금 늦고 강원도 조방장이었던 원호 (1533~1592)²⁵가 여주에서 향병(郑兵)을 소집한 뒤 5원만 경 신록사에서 적의 일부병력을 기습하여 포위・섬멸하였다는 전투보다 흰씬 앞선다. 그러나 쾌현리 전투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승정원일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상해오는 왜군에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고 선조대왕은 4월 30일 서울을 버리고 황급히 평양으로 과천하였다. 그러자 여주 상백리에서 시묘 중이던 정응권은 의병을 모집하기에 나섰다. 이는 경남의령의 곽제우 의병장의 4월 24일 거병 다음으로 발 빠른 대처였다.

당시 정응권은 부천(如成)의 상중이라 시묘(传導) 중에 있었다. 그는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아버지의 상복을 벗고 국난에 대처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상례는 사사로운 개인의 가사(家事)이지만, 의적이 침입하여 국난을 평정하여야 하는 것은 공익우선의 국사(南邦)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한 것이다. 사안의 경중원급으로 보면 정응권의 충정어린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1895년 의암 류인석이 모친 상중에 영월에서 울미의병(지평의병)의 대장을 수락한 것도 같은 이 치이다. 정응린이나 류인석이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상을 이유로 조용히 은거한 수도 있다. 그러 나 신비들의 충절의 의리는 살기를 바라기보다 의리에 죽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대도입다.

정응런은 무명지를 잘라 필로써 글씨를 써서 고을 사람들에게 통고하며 합세할 것을 호소하니, 다음과 같다.

"무릇 우리 국토의 토리(土理)를 먹고 하늘로 머리를 둔 사람과 기협(氣血)이 있는 무리가 누가

²⁴⁾ 하동정씨약위공파족보, 2010.p.13.

²⁵ 지는 #來, 본편은 開州, 조선조 무신인대, 경지종주부사 삼층의 아들이다. 1957년(신조 20)전라우도 수군권도사로 작 도자 해임간 핵구를 막아내지 못하여 유배되었다. 풍리나 1952년 인간에간이 일어나자 강원도 조병장으로서 폐찬병 파 의병을 구합하여 여주의 신문사에서 객병은 무재로고 배추하는 지병을 구입하여 여주의 신문사에서 객병은 무재로고 배추하는 지병을 구입자에서 비원하여 하다.

200년 내로 위에서 길으신 백성이 아니라. 저 섬 가운데 요망한 무리들은 우리민족이 아니며 흥 악한 무리로 갑자기 발날을 휘둘러서 우리 생명을 도둑하며 우리 중묘시작(宋顯社稷)을 불지르고 우리 선왕의 능소(陵所)를 발굴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한 하늘 아버서 실 수 없는 원수다. 그 한 때 서는 것만 구차하게 생각하느니 차라리 만세의 강상을 붙들어서 살아서 미땅히 의연(義人)이 되 고 죽어서 미땅히 의백(義唆)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군과 더불어 의례(義統=의병)를 일으키고 충 성을 다하여 형재소(行在所)에 가서 죽기를 위하는 바이다."³⁸

이에 평소 정응란을 사모하여 마르는 자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4,5백 명이 되었다. 이는 "평인에 공의 딱의를 사모하는 자가 하루에 100여인이 모여들고, 그 이튿날에는 200여인이 되고, 또 그 이튿날에는 4,5백인이 되어서 일대 의러를 결정하니, 호령이 명숙하고 군용이 정정하였다." 이 의 병들은 모집한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다고 한 수 없다. 또 이를 4,5백 명의 의병들은 지역적으로 삼백리에서 가까운 여주, 양근, 지휘, 이천 지역 사람들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응린은 아군보다 훨씬 많은 적병과 싸우면서 기묘한 전술로써 적의 진영을 불태우고, 흩어진 수많은 적군들을 죽었다.²⁵ 왜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락을 취하여 사방에서 모여들이 고래산을 포위하고 정응린 의병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앞에는 강적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정용린 부대 뒤에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병참이 고간되고 지원병도 없었다.²⁵ 정응린 장군은 도저히 대적할 방법이 없어 어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장군은 의분이 격동하여 조금도 두려운 기생이 없었다

그는 눈물은 흘리면서 군중에게 맹세하기를 "오늘은 곧 우리들이 살신성인할 때다."하였다.》 이에 군중이 용기를 백배 내어 하루 종일 현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패전하였다. 5 월 8일 정응린 장군은 적단에 순국하고"" 만머느리 청풍김씨도 순절하고, "넷째아들 정일(鄭逸)이 순절하였다." 왜적과 싸우던 의병 500인이 전멸하였다고 한다." 만아들 적(趙)은 군량을 충당하

²⁶⁾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p.83-8

²⁷⁾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8i.

²⁸⁾ 承政院 日記, 1725, 10.21.

²⁹⁾ 承政院日記, 1725 10 21

³⁰⁾ 하동지씨익위공파족보, 2010 p 84

³¹⁾ 여주고적명목성적, 忠臣:城應縣 縣監 壬辰倭亂 倡率義兵擊賊 而甚多而一日 鼓寮大至 終日力戰 中丸而死 後人來傅 日 收模元云【歸州收古禮 錄成册, 1683 숙종9】일본 동경 창리대 소장

³²⁾ 등국선李台等學生、金氏利用符人士人認地之裏也千桩優亂從夫避缺于砥平地域以流丸中局別陸崖而死金氏亦段性下 抱疑機實級從再創末的金民時外外往實體,此處強之今上朝監門採閥新籍三胡行實因。107号、光海、九/節節士大 勢地要金氏千战便亂其以文鄰尾縣峰表接級中人前,洪域國計接続號突越欽邁之自投海切若下而死宣。朝立柱(絕州牧 古路(聲政)。據經三十三年六月、一千六百八十三年 肅宗九。

³³⁾ 하동정시익위공파족보, 2010. p.134.(逸從公死難无后)

^{34) 500}인이 전멸하였다는 것은 패런의 상황이 너무나 처전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지, 500명이 모두 전사한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정응권 홍의 전사자 이외의 잡전되병의 이름이나, 사상자의 이름이 한사람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는 것이 중대하는 바라 화재다

기 위하여 철원·춘천 등지에 나갔다가 급보를 듣고 돌아왔다. 적은 몽곡하며 "의리상 나만 훈로 살수 없는데, 신교와 처와 아우의 유해가 전쟁마당에 있으니, 내가 만일 죽으면 백골을 거두어 장 대를 모실 사람이 없다" 하고는 적진 속을 무릅쓰고 들어가 어렵게 세 구의 시신을 기두어 양화도 (楊花遊) 선영(현 상백리)에 장사지냈다.

3. 정응린 장군의 의병정신

충신 정응권 장군은 왜적의 침입으로 서울이 함락되는 등 위태롭게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단 지혈서로 앞장서서 의려를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적과 싸우다가 순절하였다. 외격과의 싸움에는 즉흥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수로서 철학적인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이념이 있어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하여 싸울 수 있는 기계와 군중을 통솔할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다.

정응린 장군이 살신성인의 결단으로 용전분투하다 순절한 대에는 대략 4대 정신을 발긴할 수 있다. 즉, 호국정신, 충절정신, 의리정신, 결사정신이 그것이다.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으로서 도라를 다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름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신명(身命)을 바치리는 마음인 것이다. 다음에서 그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웅린의 의병항전은 그의 호국정신(護國精神)에 바탕을 둔 것이다. 호국정신이란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가감" "을 만한다. 정웅린 장군은 4원 28일 조정에서 파천하기로 전정됐다는 정보를 듣고, 즉각 여주 상백리에서 여묘(廣葉) 중에 상복을 벗어놓고 자제들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였다. 대오를 결성하여 북상하는 왜적을 군사 요로인 대 평리 패현(절윤고개)에서 방어하였다. 장군은 "무뭇 우리 국토(國土)의 토리를 먹고 하늘로 머리를 둔 사람과 기혈이 있는 무리가 누가 200년 내로 위에서 기르신 백성이 아니랴!" 하면서 의병에 호용함 정을 호소하였다.

이는 도격 때들이 말발굽으로 국토를 초토화시키며 북상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정응 린은 국토의 한 치, 한 응큼의 흙이라도 훼손되거나 손모(根耗)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국토의 보위는 온 겨래의 신성한 의무다." 나라 없는 겨래, 나라 잃은 국민은 불행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서운 경기석은 "국토를 훼손 손모(插耗)하는 것은 거래의 생명의 근원을 모독하는 소

³⁵⁾ 인터넷 다움, 어학사전,

³⁶⁾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83.

³⁷⁾ 장삼현 · 장세진, 인간과 윤리, 연학사, 1995, 146.

행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고 청년학도들에게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김교수는 "국토의 일촌 (一寸), 일토(一土)라도 이것을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최후의 1인, 최후의 일각까지 국토의 보위를 위하여 영용히 싸워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몽골 대제국을 건국한 칭기스칸도 "단 한 별 의 국토라도 남에게 주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휴게하였다.

임진왜란은 정명가도(征明段遊)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천자문』의 가도멸곽(假道鼓號)"이라는 글이 있다. 조선의 선비들이 왜적의 속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므로 각치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정웅린도 상중임에도 슬픔을 떨치고 신속하게 창의호국에 나선 것이다. 정웅린이 의병을 모집하여 격과 검사항전하다 순국한 경우 호국정신에서 가능한 것이다.

둘째, 정용린의 의병항전은 그의 총절정신(忠節精神)에서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정용린은 비록 여주 옥은동 부친 묘소에서 시묘 중이었지만, 이미 합평 현감을 지내다 부천상을 당하여 사직한 관리(신하)였다. 신하는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事者以忠) 효도로써 임금을 섬긴 다.(以孝事君)는 것은 익히 세상이 알고 있다.

정응련은 심나라 오랭캐가 침입하여 조선을 크게 한탁함으로써 대가(大氣)가 서쪽으로 파천하 시는데 호종(區從)하지 못한 충분(忠怡)을 건디지 못하여 거병하였다" 이것이 정응련의 충군(忠 掛)하는 정신의 발로인 것이다. 군신간의 윤리에서 신하는 충성(忠)을 다해야 한다.

『충경(忠經)』에는 "충이란 바이라 지극히 공정하여 사(私)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충이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대하며 인관됨을 말하는 것이니, 나라를 위하는 근본인 것이다. 정웅턴이 국왕의 피난길을 호종하지 못한 마음과 충분을 견디지 못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의병에 나선 것은 사가 없는 충성성이요 충성을 다하다 전사하니 절신인 것이다.

"누가 200년대로 위에서 길으신 백성이 아니라!" 이는 태조(이성계)가 조신을 건국한 이래 백성들이 임금의 은혜를 입었으나, 보답하는 정신으로 의라에 나서라는 뜻이다. 모두가 임금의 먹이나,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충이라고 할 수 없다. 나라와 군주가 위태로울 때에 백성은 당연히 나라의 구심점인 군주를 보호하고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다.

정용련의 군주를 사랑하는 충절은 그 가문에 대대로 전해오는 '충절정신' 의 체결화와 전통사회 에서 습득되어진 것이다. 군주를 위하여 죽기를 맹서하고 싸우다가 순절했으니, 충신의 도리를 다 한 것이다. 정용련의 거병과 순절은 그의 충절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³⁸⁾ 장삼현 · 장세진, 인간과 윤리, 연학사, 1995, 147.

³⁹⁾ 장삼현 · 장세진, 인간과 윤리, 연학사, 1995, 147,

⁴⁰⁾ 다른 나라의 길을 임시로 반려 쓰다가 마침내 그 나라를 쳐서 없애는 것.

⁴¹⁾ 하동정씨역위공파족보, 2010, p. 83,

⁴²⁾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83,

셋째, 정용린의 의병향전은 그의 의리정신(養理精神)에서 근본한 것이다. 의리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땅히 지켜야하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조선조 사회가 강조했던 삼강오란(三額五倫)이 모두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강조한 것이다. 부자간의 의리, 군신간의 의리, 부꾸간의 의리, 장유간의 의리, 봉우간의 의리를 오륜(五倫)이라하고 거기서 강조된 것이 자효(慈孝), 의충(淺悲), 변(成), 서(序), 신(信)인 것이다. 이것은 유교의 핵심사상인 공자의 인(仁)을 이무는 것이요 이것이 '도(近)'의 심취인 것이다

정응린은 전직관리로서 백성으로서 군주와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의병에 나섰다. 그것도 부천상으로 상백리에서 여묘 중이었음에도, 단지현서로써 창의(低義)에 솔선하여 나섰다. 여기서 장군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결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패현리 현전(血戰)에서 삼신 성인을 외치며 최후의 1인, 최후의 일작까지 싸움 것을 독려하였다.

조선조 선비사회의 의라사상은 유교에서 찾아야 한다. 유교의 의리사상은 그 비조인 공자의 춘 추대의(春秋大義)에서 비롯된다. 춘추시대는 천자국(天子國)과 재후국(諸侯國)이라는 차등적 국제 절서가 혼란하여 제후와 천자 간에 의리가 붕괴되어 상하가 혼란한 상태였다. 국가가 혼란하면 온 백성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자는 그의 저서 '춘추(春秋)」에서 '난신적자(風頂城子)'는 누구나 다 뺄 수 있다고 했다. 도적때가 쳐들어와 나라와 뺔성을 도록하는데, 언제나라(군주)의 명령을 얻어 군사를 인으키고 토벌할 것인가? 그러므로 난신적자는 나라(군주)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토벌하고 후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춘추대의(春秋大義)라고 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거병하여 적을 토벌한 의병활동은 여기에서 합리적 정당성을 찾음 수 있다. 유립들의 근대항일민족운동도 이 춘추대의에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신하가 군주에 대한 충성이요. 뺔성이 나라에 대한 의리의 실천이다. 조선 말기선비들의 이념은 위정적 사였다. 이것이 총추대의에 입각한 의리사상이다.

공자가 말한 살신성인(敘身成仁)이라는 말과 맹자가 말한 사생취의(捨生取義)라는 말은 모두 춘 추대의를 실천하는 기본정신이다. 그래서 유교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인 인(仁;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서 이항로의 위정척사사상도 춘추대의에서 계승된 것이다. 그러므로 위정척사사 상은 도학적 의리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응린은 그 가문에 전해오는 충효의 의리를 실천하여 신하로서 군주에 대한 도리를 다하자고, 백성으로서 나라에 대한 의리를 부르짖고 실제로 살신성인으로 의리를 지킨 충신이다. 그가 "오늘 은 곧 우리들이 살신성인할 때이다."하며 용기를 더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것은 전 관리로서, 백성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자하는 의리정신의 밝고였다.

넷째, 정응린의 의병항전은 그의 결사정신(決死精神)에서 가능한 것이다. 의병은 죽기를 각오하

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적과 싸우려고 나선 민병이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생명의 애착은 모든 생물의 공통된 본능이다. 그러므로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자살하는 사람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도리와 의리를 깨닫지 못하여 저지르는 극단적인 태도다."라고 할 것이다.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하다 죽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나라가 방하여 자결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난라가 방하여 자결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다. 분합을 이기지 못하여 분사(街死)하는 것이니 순국(狗園)혹은 순절(狗節)이라고 한다."이는 대의에 입각한 거룩한 삼신성인에 해당된다.

임진왜란에 적을 격퇴하라는 명령을 받은 장수들이 살겠다고 도망을 가서 방어선이 속속 무너 지는 즈음에, 정용런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단지힘서로써 강적을 부찌르겠다고 나섰으니, 이는 분명 결사정신의 발로이다. 적과 격전을 벌이는 용가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사항전의 의지 가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

1895년 음미의병을 처음 주도한 안승우 이춘영 동이나, "강원상 나기호 등의 오적 암살단, "안 중근 백규삼 등의 동의단지회" 등이 모두 축기를 맹세하고 결성한 결사단체이다. 조선말기 항인 투쟁에 나선 의병들이나, 독립운동에 나선 투사들은 모두 조국과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결사항전의 의지로 나섰다. 정응권의 단지혈서의 거병(擧兵)과 살신성인의 항전의지는 바로 결사정신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정응권의 단지혈서로써 가족과 함께 거병에 나서 항전하다 가족과 의병들과 함께 순국한 것은 그의 호국정신 충절정신 의리정신 결사정신이 응결되어 행동으로 표출되고 심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Ⅳ. 정응린 家의 충효절의

1. 정적의 충효정신

⁴³⁾ 순국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순절은 충절이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것이다. 적과 사우다 죽으면 순국이라고 하고 또는 순절이라고 한다.

^{44) 1895}년 윤미의병(지평의병)은 양광군 양동면의 이춘영 안승우, 청운면의 김백선, 원주 지정면 안상의 김사정 등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일으킨 결사항전의 의명조작이다.

⁴⁵⁾ 展元相은 최익현 문인으로 1907년 나인역, 오기호 전덕준 동과 음사오적음 사산하려다가 제포되어 공모자를 밝히라는 혹독한 신분에도 스스로 취를 끊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품은 7원에 전남 산인군 지도에 유배되었다.(현국인명대사 점 no.)

⁴⁶⁾ 장삼현, 화서학파와 독립운동단체, 「백운문화, (제29호), 양평문화원, 2013, pp. 40-41,

정적(鄭迪,1556~1637)의 자는 사실(士吉)이며, 호는 안분당(安分堂)인데, 정응린 장군의 맏아들이다. 배위는 청품검씨 부호군 검준(金俊)의 따님이다. 개배는 홍주이씨이다. ⁴⁷

1592년 정웅린 장군이 의병을 모집하여 지평읍 고래산 아래 군사요로인 패현(收規, 절운고개)에서 수많은 적을 토발하여 싸움 적에 참전하였다.

지평읍 패현리 전투에서 왜적파의 격전에서 여러 번 승전하였다. 그러자 적들은 패전한 동료란 구하고 통로를 빼앗기 위하여 사방에서 모여들어 의병진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왜적은 형세가 우세한데, 의병진은 후원병도 없고 병참은 고갈되어 협전 끝에 마침내 패전하고 말았으니, 아버지 의병장과 부인 첫품집씨와 아우 일과 무명의병들이 함께 순정하였다.

정적은 군수물자 조달관계로 외지에 나갔다가 화를 면하였다. 비보름 듣고 돌아와 통곡하며 함 께 따라죽지 못함을 토로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가 시신 셋을 거두어 상백리 선영에 안장하고 슬피 하며 시묘 3년을 마치쳤다. 3년 동안 그 슬픔과 예계가 지극하여 사람들이 그곳을 효자마을이라 하였다.⁶⁰ 이에 왜적들도 감복하여 침범하지 않았다.

1725년(영조 1) 이양대 등의 상소문에 보면 "응란이 작에게 죽은 뒤로 그 아들 적은 복수의 의리를 분발하여 고 상신(相臣) 김류(金盛,1571~1648) · 승지 신 심대부(沈大字,1586~1657) 등과 더불어 동맹읍 맺고 복수청(復譽總)을 설치한 다음 군량과 병기를 밤낮으로 준비하며 기핀코 적과 싸워 목숨을 버리고자 하였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1607)이 방(榜)을 붙여 공의 충의의 미음을 청찬하였다.**

선조대왕이 가상하게 여겨 의번도사를 제수하고 다시 풍저창수와 한성판관을 임명하였으나 사양하고 군당미 보급에 노력하였다. 왕이 가상하게 여겨 다시 풍정대부를 내리고 승차하여 가선대부 한성부우윤을 임명하였으나 또 상소하여 사양하였다. ³⁰ 그러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정정세(鄭経世,1563~1653)가 상계(上密)하기를 "정적은 효의(李義)의 실행과 군량미 충당에 공이 커서 포상할 만하지만 지조가 있는 선비로서 처음부터 상을 바라거나 높은 벼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니, 강제로 그 몸을 읽베어 두는 것은 대우하는 예가 아니다" ³⁰고 하였다. 그리하여 여주 선산민에 물리나 스스로 호를 안본당(安分堂)이라 하였다.

1627년(인조 13) 정원 후금의 적장 아민(阿敦)이 3만 병력으로 압록장을 건너 파도처럼 남하하며 조선을 참공하니, 이것이 정묘호라이다. 2월 7일 정적은 근략미로 벼 200석을 바치고, 연조대왕

⁴⁷⁾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p.13-14

⁴⁸⁾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137.

⁴⁹⁾ 하동정씨익위공바족보, 2010.p.137.

⁵⁰⁾ 하통정씨익위공파축보, 2010 p.137.

⁵¹⁾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 138,

을 강화도로 호종(星從)하였다.50

인조대왕이 2월 옥품직(六品職)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총용사 이서(李驛,1580-1637)와 공격방법을 모색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어 그만두었다. 도적이 물러가고 인조대왕이 환도(選都) 한 후에 광국원중광신에 녹훈되고 한성부 우윤을 제수하였으나 사양하였다. 이서(李朝)가 상소하 기골 "정적은 총의지심이 빛날 뿐 아니라 경륜도 높은 선비다"고 청찬하였다.⁵³ 1725년(영조 1)에 총효로 정리하고 자현대부 형조관사에 추종되었다.⁵⁴

정적의 효도와 충성은 선대부터 내려온 가전충효의 정신적 소산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병 에 동참하였고, 아버지가 전사함에 여묘로 슬픔을 다하였으며, 복수심에 불타서 상신과 의논하여 복수정을 설치하고 힘을 다하였다. 병자호란에 왕을 호종하고도 주어지는 벼슬은 사양하고 여주에 우거하였으나, 고경화 선비의 지조를 지켜 후세에 교훈이 되고 있다.

2. 청풍김씨의 순절

열부 청동김씨(金氏,1556~1592)는 청성부원군 김대유(金大猷)의 후손이요, 부친 부호군 준(俊) 과 모친 양성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밝고 쾌활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가정에서 배위 예의법절이 명확하였다.⁵⁵ 하동인 청작(鄭迪,1556~1637)과 혼인하니 정응린 장군의 발며느리가 되었다.

김씨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시부모에 효도하며 부탁을 갖추어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다. 정 씨 문중에 전해오는 말로는 시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고 머느리가 지극히 공경하였다. 김씨는 "내 가 죽거든 시아버님 묘소 앞에 묻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시아비지 정응된 장군은 부친(玉野 如虎) 상중에 여주군 홍천면 상백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이들을 이끌고 수 십리 지평읍 고래산 아래 패현리(배찬마을) 패현(節雲고개)에서 북상하는 왜적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 때 김씨는 피난민과 더불어 산골로 가다가 우연히 시아버지가 싸우고 있는 고래산 패현리(배찬마음)들 지나게 되었다.

김씨는 이 고을에서 시아버지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시아버님이 생사가 위급한 상황에서 적과 싸우고 개선데, 나 혼자만 살겠다고 피난한 수는 없다." 하면서 의병들이 싸우는 군진 속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의병장 곁에서 필요한 임들을 도왔다. 이것은 당시 보통 여자로선 전행하기

⁵²⁾ 仁祖實錄, 仁祖 五年(1627)2원, 하동정씨익위공파보, 2010.p.137.

⁵³⁾ 하통정씨익위공파족보, 2010.p.137.

⁵⁴⁾ 하돗짓씨익위공과족보, 2010 p 139

⁵⁵⁾ 하동정씨익위공과즉보, 2010, p. 167.

어려운 군사작전에 참여한 것이다. 이것은 며느리로서 뿐만 아니라 의병으로서 전투에 참전하여 활동 한 것으로 봉수 있다

여기서 김씨의 시아비지에 대한 효열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표출되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을 알 수 있다. 김씨는 격전 중에 의병장 검에서 시아비자를 도와주고 있었다. 고래산이 포위되고 의병장이 현진 끝에 적단을 맞고 쓰러지면서 바위전병 아래로 떨러져 순전하였다. 김씨는 전병 아래로 뛰어 내려가 시아버지의 시신을 붙들고 "아버님! 아버님! 부르면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 하면서 콘소리로 외치며 통공하였다. **

그러자 왜적이 칼을 휘두르며 앞에 다가서서 죽이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소리로 적을 꾸짖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여 순절하였으나, 5월 8일이요 나이는 서른여섯 이었다. 그러므로 이 패현리는 구실현(仇吃與)이라고도 한다. ⁵⁷ 여기에 사동생 정일(鄭逸)도 항생하였으나 역시 휴란에 쓰러지고 말았다.

연약한 여자로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인 격전지에 뛰어들어 시아버지를 도 우고 보호하려다 젊은 나이에 순절하였으니 참으로 원통한 인이다. 이는 여느 사람들에게서는 찾 아보기 어려운 효열과 애국심의 발로라고 하겠다.

김씨가 며느리로서 전쟁터의 시아버지를 돕겠다고 한 것은 효도와 의리의 실천이요, 총칼로 위 험하는 죽임 앞에 굴하지 않고 항전(抗節)한 것은 전부의 장한 모습이다. 여자로서 효도와 정열과 절개와 의리가 굳세고 이름다워 고라산의 전설로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정운고개를 지나가는 사 람들은 전장의 참혹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구전되고 있다.

청풍김씨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16(광해 8)년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기 위한 찬집청의 목록과 1617년(광해 9)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이다. 이 삼강행실도 기록에는,

> "김씨는 이천부 사람인데 선비 정적의 처이다. 인진왜란에 남편을 따라 지평 땅에서 도적을 피하 였다. 도적이 탄환으로 시아버지 의병장을 맞하니, 시아버지가 철벽 이래로 떨어져 죽었다. 김씨 또한 언덕 아래로 내려가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니, 도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잎에 다가와 죽인다 고 협박하는데, 김씨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검먹지 않고 슬피하며 통곡하기를 한결같이 하니, 도적이 드디어 죽였다. 금상조(선조대왕)에 정문을 내렸다."³⁰

⁵⁶⁾ 돗국시손산강행실도(정부조)

⁵⁸⁾ 東國新續三綱行實際, 1617, p.52,

이 밖에 또 다른 두 가지 자료를 보아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5%

1592년 임진의병 전적비가 세워진 대평자수지는 임진년 고라산(古羅山=高來山) 싸움에서 충혼 이 된 의병들의 처절한 피뉴물이 흐르다가 저수지가 되었다는 전설의 저수지이다.

아! 여기 대평자수지는 그냥 자연적으로 고인물이 아니다. 고래산 패현리 전투에서 스러진 정응 린 장군, 청풍김씨, 정일의병,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병들의 원통한 한이 맺힌 눈물이 흘러서 고인, 그야말로 500충혼의 유서 깊은 피눈물의 상징이다.

그러니 이 대행저수지의 의미는 그 조성연대가 어찌되었건 농수용이라는 수리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420년 전 처절했던 임전년의 피어린 혈전의 역사를 머금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전설 이 사실이던 아니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가슴을 전하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가뭄,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저수지이다. 그러기에 고래산 아래 대평리 저수지 언덕에 임진의병 전 적비를 세워 순절한 호국선열등을 기리고 그 충효절의의 장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청풍김씨가 시아비지에 대한 효심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전선에 뛰어들은 일이나, 죽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계 절조를 지킨 일은 절의를 숭상하는 가문에서 충효를 배웠고 '가전충효 세수인경'의 정씨가문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를 공경함이 지극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김씨는 여자로서 전장에 뛰어들어 나라에는 백성으로서 의리를 지켰고, 시부모에게는 머느리의 도리를 다하였고, 자식에게 어머니의 모범을 보였고, 여성들에게 정원(貞烈)의 본보기가 되었다.

3. 정일 의병의 순절

정인(鄭逸)은 의병장 정용린 장군의 넷째아들이다. 모친은 경주 김씨 사직(司直) 김반종(金萬鍾) 의 따님이다. 1592년 일본은 통해를 건너와 조선을 침략하여 우리민족을 살유하고 삼천리금수강 산을 발발굽으로 짓밟으며 과죽지세로 복상하였다. 5월 초에 충주 여주를 거치 양근 등지로 진격 하였다.

서울에서는 4월 28일 선조대왕이 몽진(蒙塵)하고 5월 3일 함락되었다. 백성들이 피난 가는 등 총 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때 여주 상백리 옥야공 묘소에서 시묘살이를 하던 정용권은 자발적 으로 창의호국(倡義護國)의 결의를 다지고 상복을 벗고 손가락을 잔라 협서로써 고용사람들을 격

⁵⁹⁾ ①節時士人鄭迪妻金氏王長億親其別文鄭經麟學義兵接取中九而作其時間計快就就失賦就逼之自投萬仍若下而死宣而 朝立建(編州牧土財建)政劃。1683屆等分)②原建縣同東人以或平停)至在家宣龍王原指由書以總緣人義四五百款屆餘 截平高權山下壓聯自如不數滿要失執口今日即我或仁之時解發就差余力盡矢乏中克死之子逸子婦金氏弘從同選告父死 於北子死於公韓所於於一門之內三即東立任戶華敬人补查成。1917)

동시켜 의병 사오백 명을 모집하고 의병장에 추 대되었다

정일은 이 때에 부친 의병장을 따라 종군하여 지평면 고래산 패현에서 의병장과 함께 싸웠다. 어기에는 나중에 사천현감을 지낸 그의 형 끝 (近)도 함께 참전한 것 같다.⁶⁰ 왜적과 일진일퇴 의 협전을 거듭하였으나 적은 사방에서 모여들 어 박강하였고 의진은 열세하고 후방에 지원군 이 없는데다 화살마지 떨어지는 등 중과부적으 로 바침내 패정하고 밤았다.



임진의병 420주년 기념, 정응린 장군 일가족 전적비 (2012,05,08,) 지평면 대평리 534번지, 위치; 경도 127*890ኛ표/위도 37*25 357 N

의병장은 5월 8일 격전 끝에 적의 탄환을 맞고 순국하고, 그 아들 일은 아버지를 보호하며 싸웠으나 함께 순절하였다. 500의병이 전멸되다시피 피로써 내를 이루어 고라산 골짜기 도랑물을 '흴 최(血川)' 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정일 의사에 대한기목은 인멸되고 구천조차 없어 안타갑기 그지없다. 정일은 아버지를 따라 중 군하였으니 효자다. 또한 의병으로 싸우다 전사하였으니 나라에 충성을 다한 것이다. 20대의 청춘 에 삼신성인 하였으니 효와 중을 이룬 것이다. 이찌 오늘의 후세가 깨닫을 바가 없겠는가?

여기서 정괄 정일이 그 아버지와 동순(同殉)하였다는¹⁰ 기록은 오큐인 것 같다. 왜냐하면 1747년 정응린 묘비문에 정일은 순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괄(近)의 무후로만 기록되고⁴⁰ 실록에는 왜란 후에 사천현감을 지낸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므로 1592년에 전사했다는 것은 착오 같 다. 혹 부친을 따라 종군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순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승정원일기』(1725, 영조1)에 "용련이 적에게 죽은 뒤에 사자(阻子) 일과 자부김씨가 같이 달려 가서 몸을 가려 탄환을 막다가 함께 죽고 그 뒤에 잠자 적이 복수를 하려고 의료 분발하여 상신 김 규(企覽)와 승지 심대부(沈大字) 등으로 동맹을 하여 복수청을 설치하고 군량과 병기를 밤낮없이 준비하던 차에 마침 중국의 천병이 격병 들을 소탕하였으니 그 충효가 죽히 써 백세의 용동(死動) 하리로다 이것으로 용런 부자의 충효를 대략 기록하노라"하였다. 여기에 일은 그 아버지와 동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괄의 이름은 없다.

⁶⁰⁾ 近名 淺파 함께 전사한 것으로 보지만 1602년 연일현감, 1606년 사원현감을 지냈다. 그러므로 참전한 것으로 추정읍 하더라도 동시에 순절한 것으로 불 수 없다.

⁶¹⁾ 河東郊氏世譜 卷之三, 14至 李明

⁶²⁾ 하동정씨북은공후익위공파보, pp. 133-134.

^{63) 7)} 鄭延,1530~1564,35歲 死亡), 清州原瓜) 鄭建位場 第4) 鄭藍, 1602,07.03. 鄭廷,廷田縣監,宣南實錄(152), 下) 鄭 近,1605,08,00, 泗川縣邑鶴, 乙己入月到丙午(1606)三月連 皇子,引) 鄭近,1606,04,16, 鄭近, 泗川縣高,宣召實錄(198)

정일은 의병장 정응린의 막내아들로 순효하고 순절하였다. 이것은 그 집안에 가전된 충효와 평소 그 아버지의 덕의와 충절에서 가능했던 것이라 하겠다.

V. 자료로 본 정응린 가의 충효절의

정용린이 부친의 상을 당하여 함평한감을 사격하고 여주에서 시묘 중이었다. 왜직의 침입으로 국운이 화급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자 가족을 독려하고 혈서로써 의병을 모집하여 왜직과 싸우고 순국한 사실과 그 가족 정적, 청풍건씨, 정인 등에 관하여 사료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사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용린 장군의 임진의병과 고래산의 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료인 "중국신속삼강행신도』, "여주목고적병록』, "승정원일기」, 세 책 속에 언급된 정용면, 정적, 청 풍건씨의 충효질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신도(東國新續三綱行資圖》』는 광해군 9년(1617년)에 왕명으로 관찬된 책이다. 이 사업에는 전담기관인 찬집청과 지방 5도가 참여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책의 체제는 효자도 8 책, 열녀도 9책, 충신도 1책 등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문으로 기록한 다음 언해한 것으로 그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내용은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비롯하여 신라, 고리,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 등의 엄청난 사람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고 있다.

전란을 처른 후에는 국가는 뒷수습을 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 전란이 아니더라도 효자 열녀 충신 의인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포장하였다. 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1616(광해 8)에 자료 수 접을 위하여 '찬집청(揆集驗') 으로 하여금 목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사인정적 처 검씨(士人 緊迫要金氏)"로 등제(登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1617년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편찬된 것이 다. 그러므로 이 책은 1617년(광해 9) 편찬된 정부간행률이다.

청풍김씨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김씨투애(金氏投遊)'라는 제목의 그림과 함께 한문과 언해(해설)가 있다.

原文《金氏利川府人士人怒油之事也壬辰倭亂從夫避戰壬砥平地賊以鐵丸中引角陸崖而死金氏亦 投岸下抱屍慟哭賊徒揮劒來前金氏略不外怯哀慟如一賊送殺之今上朝旌門》(東國新續三綱行實 間.1617년 光海 九)

> "김씨는 이천부 사람인데 선비 정적의 처다. 임진왜란에 남편을 따라 지평 땅에서 도적을 피하였 다. 도적이 탄환으로 시아버지(의병장)을 맞하니, 시아버지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김씨 또한 언덕 아래로 내려가 시신을 분들고 통곡하니, 도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앞으로 다가와 험박 하는데, 김 씨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슬퍼하며 통곡하기를 한결같이 하니, 도적이 드디어 죽였다. 금상조(宣祖

朝)에 정문을 내리셨다."

여기서 안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응 린은 적과 싸우다가 적의 단환에 전 사한 것이고, 며느리 청풍김씨는 함 꼐 순적한 것이 분명하다 김씨에게 정문이 내려진 것은 여기서 금상(수 上)이라고 하였으니, 금상은 선조조 에 내려진 것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거니와 김씨의 시아버 지 정응림은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곁에 있다



(그림 2) 호로고루성 하얀의 호로탄(원편 실개천에서 장마가 지면 토사꾼이 흘러내러 쌓이는 바람에 강물이 얕아 도장 장비가 없이도 도하가 가능하여 삼국시대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 까지 가장 많은 군사가 건넌 곳이다)

가 함께 순절한 청풍김씨에게 정문이 내려진 것이다. 동국신속 삼강행실도에 의해 정옷린의 순국 은 사실이고 청풍김씨의 순절 및 정리는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2 『여주목고적병록성책』

『여주목고적병록성책(鹽州牧古瞻並錄成冊)」은 1683년(숙종 9)에 편찬된 책이다. 이는 개인의 필사본(手稿)으로 일본 동경(日本東京) 천리대(天理大)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공공기관의 공적 인 기록은 아닌 것 같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였을 때에 가져간 개인 자료로 추정된다.

이 책은 여주지역의 효자 점부 충신으로 구분되어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조에는 정적의

부인 청풍김씨가 기록되고, 충신조에는 정응린의 기사가 있다.

절부: 선비 정적의 처. 김 씨는 임진왜란에 그 시아버지 정응린이 의병을 일으켜 집전 중 단환에 맞아 쓰러지자, 그 며느리가 죽음을 듣고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니, 도적이 죽이려하자 바위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으니, 선조조(宣祖朝)에 정문을 세웠다.

節歸:士人鄭迪斐,金氏壬辰倭亂其舅父鄭應麟界義兵接戰中丸而仆其婦聞計扶屍號哭鼓欲遏之 自投萬切岩下而死官而朝立族

(臘州牧古蹟並錄成册, 康並熙二十二年六月,(1683, 会종 9)

충신 : 정응린 현감, 임진왜란에 창의하여 의병을 거느리고 작을 여러 낸 공격하였다. 하루는 적의 무리가 많이 모여들어 종일 힘을 다해 싸웠으나 작단에 맞아 죽었다. 후인이 전해오긴 敗媒이라 운운…

忠臣:鄭應崎 縣監 壬辰倭亂 倡率義兵擊賊 而甚多而一日 贼衆大至 終日力戰 中丸而死 後人來 傅 曰敗幌云云

(驪州牧古蹟並錄成母, 康熙二十二年六月.(1683. 숙종 9)

절부조에 보면 청풍김씨는 시아버지 정응린이 전사하자 시신을 분들고 동곡하다 적의 위험에 투신 순절하여 선조조에 정려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는 기사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정용린이 수정한 사실과 청풍김씨의 수정과 전려는 여기서도 확인되었다.

충신조에 보면 정웅런은 창의하여 적과 싸우다 전사 순국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정웅린이 순국한 사실은 여기서도 입중되지만, 정려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같은 책 중신조에 나타나 는 박병봉(朴命服)은 병조관서가 추중되고 정려되었으며, 박중영은 한성우윤에 중직되고 정문이 세워지고, 이인호 조수봉 등은 통훈대부 사침시정(司瞻寺正)을 추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러므로 이때 정웅린은 조정으로부터 포증(簽館)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1685(숙종 11)에 병조참판 이숙이 정웅린을 예우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왕이 윤허하였다 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숙종이 윤허하였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혹 의심한지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선조실목 214권에 "강웅경의 처 김씨와 김경서 등의 정표를 평안도 관찰사 박동량이 요청하다. 시행하라고 예조에 계하(修下)하였다. 그러나 혜조(혜조)가 거행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 이다."⁶⁰라는 기록이 이름 입중하는 것이다. 윤허하였다고 즉각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다.

또한 임진왜란 후에 당시 관리였던 의병장 곽재우 고경명 조현 등이 논공행상(論功行賞)에서 제

^{64) 1607} 선조40), 정미, 7월4일(감오) 2번 째 기사,

외되었던[™] 사실로 보더라도 정응린의 의병활동과 순절에 대한 논공행상은 조정에 보고도 없었고 포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숙종 때에 포창을 건의했던 것이다. 아무든 「여주목고직 병록」은 청풍김씨의 순정과 정려를 입중하고 정용린의 순국은 입중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책이다.

3. 『승정원일기』

「송정원일기』(1725년(영조 1) 10,21.)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공적인 기 목불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노론계의 상소 내용이 불확실 하거나 은폐된 점이 있다면, 남인이나 소른계에서 문제를 삼았을 것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와 당쟁으로 이어진 역사 속에서 상감에게 어 설픈 상소를 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든 문제를 삼았을 것이며 무사하지 못했을 것은 명확한 이치 다. 실목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자기편을 옹호하고 변문하며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일 은 하다하기 때문이다.

1725년 10월 이양대 등의 상소문을 분석해보면,

- ① "송정원일기』이양대 상소문에는 "경기도 여주지방에 절의신(節義臣) 정용린 및 그 아픔 적 (油)이 명혁의 후손으로서 국가버란에 즈유하여 그 수립한 바가 명백하다"고 하였다
- ② 또 "대개 임전왜란에 응린이 전 현감으로서 부상(文崇)을 당하여 향여에 있어서 호가(國籍)하 지 못하고 충분(惠諱)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함을 참고 상복을 벗어놓고 향리 자재들을 수술 하여 한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근왕을 꾀하여 대적하였다.
- ③ 때마침 적병이 원근 간에 가득 차있어서 응권이 기이한 꾀와 신비한 대책을 써서 혹 적진을 불태우기도 하고, 혹 유격하는 적병들을 심히 많이 죽였다.
- ① 그러자 적들이 자주 꺾임을 민망히 여기고 저들의 연락하는 길이 끊어진까 염려하여 많은 무리들이 고래산을 포위하였다
- ③ 정응린은 중과부적으로 사세가 부득이함을 알고 "지금은 곧 살신성인할 때다"하면서 죽기룝 맹서하고 군중을 격려하여 싸웠으나, 전사하고 폐저하였다.
- ⑥ 그러므로 패현(敗呪)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고개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생각하고 술 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는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라고 하였다

⁶⁵⁾ 임진에란 7년 전쟁이 끝나고 문무 공신들의 공로를 논하는 과정에서 공신의 숫자가 104명이 되고 심지어 내시 따부까지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꼭채우 정인호 김취인 고경명 조취 길면 같은 의병장은 누락시켰다.

⁶⁶⁾ 조선중기의 공신 으로 자는 冠玉이며 호는 北渚이고 본관은 順天, 서호는 文忠, 김이윤의 아들이다. 仁祖大王反正· 等功臣, 領議政, 平府院君

⑦ 응린이 도적에게 죽은 후에 그 아들 적(迪)이 분노하여 복수할 의사로 상신 김류(金婆)⁴⁴와 수 지 심대부(沈岱孝)²⁷ 등과 더불어 동맹하고 복수청을 설치하고 군량과 병기를 주야로 경영하여 반드시 적과 싸우러하였는데, 명나라 군사가 도적을 소탕하여 뜻을 펴지 못하였다. 이것이 응린 부자의 충효(忠孝)의 대개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이양대 등의 상소문을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7개 단락으로 요약 정리하면, 정용린 장군의 의병 항쟁과 순정, 그 아들 정정의 추효는 부장한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상소문에도 정응린의 창의 토적과 순절에 대한 증거를 말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당시 체부 방문(體序[®] 榜文)에 '본부에서 순시하다가 여주에 이르렀더니, 선비 정적이 와서 일 을 논의하는데, 그 말이 의리에 지극하였으나, 그 아버지가 의분을 일으켜 힘을 다하여 도적과 싸 우다 죽은 까닭으로 결심하고 복수코자 하나 복수할 방법이 없으나 막부(幕府)[®]의 지휘를 받아 병령(兵義)을 거두고 군기(軍器)를 제작할 일에 힘을 쓰겠다. 하나 이것이 대를 이은 忠烈의 빛나 는 바라'

상소문에는 김우형이 재상급 인사 김류 심대부 등과 복수청을 설치하고 군량을 모아 복수를 준 비한 사실이 언급되고,™ 또 완풍군 이서와 도적을 막을 대책을 논하였고, 이숙이 포상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

서애 튜성용은 표장하는 체에서 "집에 충효를 전했고 의열이 함께 빛난다."고 하였다." 서성은 유찰(造札)에서 "당당히 왜구를 분쇄하고 한손으로 천지의기를 붙들었다." "고 하였으며, 또 정경 세가 정적의 효행에 대하여 회계를 하였다." 그리고 판서 신 김우형(金字투)이 지은 정적 묘표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공의 고(孝: 정용례가 임진라에 의병을 모진하여 왜적을 치다가 변을 당하였음으로 공이 감류.

^{67) 1566(}신조 19)~1657(五종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盲살, 자는 信叔, 호는 報廷・後雄, 영천군수 義儉의 손자이 고, 경기도 단찰사 15의 이들, 鄭建의 문인이다. 1630년 묘狀大武(대의 효종)의 歸城, 1631년 松來原註이 되었는데, 가도에 건윤 성 명나라 장수 毛文能의 군사가 여러 고울읍 횡령하며 만폐분 까치자, 이플 대표와 황포를 급하는 조약은 영순한 체결하여 만폐반의 첫하였다.

⁽⁸⁾ 조선시대 체찰사가 머무르던 관청. 체찰사란 외적이 침입하거나 내란이 일어나는 등의 비상시에 임명되어 군대를 거느라 지휘하던 벼슬

⁶⁹⁾ 중국에서 왕을 대신하는 지취관의 편진지를 가리키는 말이며, 이 뜻에서 대장군의 진영, 나아가 무관의 임시 政驗.

⁷⁰⁾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114,

⁷¹⁾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87.

⁷²⁾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87.

⁷³⁾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2010 p.87

심대부 등과 더불어 동맹하고 복수정을 설립함에 대하여 체부(體研)에서 방문으로 공의 복수하는 의(數)를 정하게 일컬었고, 정묘호란에 대기를 되시고 강도에 가서 완동군 이서(李朝)"를 보고, 도 적을 막을 대책을 논하고 스스로 군량책임을 지니, 인조께서 시품관을 제수하여도 사용하고 받 지 않았다."³⁸

그런데, 이보다 40년 전, 1685(숙종 11)년 10월에 정용린의 증손 하명(長孫 弘弼의 3男)이 현충 하는 예우를 받기를 건의하였다. 당시 병조관서 이숙(1626~1688)⁷⁶이 화개(回啓)에는 다음과 간 은 내용이 있다

> "오래된 일을 비록 성고하여 믿기가 아려우나, 하명(河野)이 바친 그때 경기도 순칠시첩문(巡察使 해치)으로 보면 '응된'의 아들 적이 복수하기 위하여 의리를 일으켜서 균랑을 모은 일과 응린이 명병을 모집하여 적과 싸우다가 죽은 일을 이 첩문으로 인하여 알 수 있으나' 오래된 일이라 하 여 민물 무전케 할 것이 아니오 특별히 초양하는 예전을 베푸는 것이 어떠한다까?" 윤운하였다

이에 대하여 운허가 내렸다. 그러나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에 이제껏 거행한 일이 없으니, 더욱 민당하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또 하기를

"애 응린의 순국한 충성은 선배의 포앙하는 실적이 이와 같이 명백하고 선왕의 윤허와 포앙하신 것이 이와 같이 정령한데, 이제갯 매몰된 것은 진실로 가석한 일이요, 그 아픔 적은 출천한 충효 로 사생을 불고하고 전후 창의한 사실도 또한 護臣들의 문자로써 상고할 수 있는데, 이제 만일 중 시 민물케 한다면 국가에서 절의를 숭상하고 풍교를 세우는 뜻이 아닙니다."

하면서 포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이어서 상소문은

"임진년에 목숨을 바친 정신(貞臣)과 순국한 열시들은 조가(朝家)에서 숭상하는 예전을 받지 아니 함이 없는데, 유독 용린 부자는 사후 추종이 소조하여 몸과 이름이 매돌하였으니, 구천에서 억울 한 것이 족히 슬픈데, 의사의 슬픔은 어떠하겠습니까?"

⁷⁴⁾ ISB이전조 15) - 15.7(인조 15), 조선 증가의 무신본관은 전주 자는 휴র, 호는 月珠, 신호는 콩토, 효명마루의 10대손 이며, 아바지는 활度 통하다. 16.18년(강해군 10) 仁德大현의 배모곤에 발대하여 중행은 받은 뻔했으나 화를 먼었으 며 그리 강단부사 김 경기방아서를 지냈다. 16.2년 장단부사로 있을 때 병약 70명을 동원, 청류감(대의 인조에게 합 유하여 인조반경을 이루는 데 동을 세워 확赴幼피 1층으로 完造관에 봉액졌으며, 호조관시가 되었다. 16.86년 병조관 서로 참나라의 취임에 배비하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따라 남천산성에 들어가 지키다 이름해 성 안에서 죽 었다.

⁷⁵⁾ 하동정씨북은공후익위공파보, p.141.

⁷⁶⁾ 본관은 牛蜂, 시호는 忠敬, 호는 逸休亭, 송시열의 문인으로 병자호란 때에 심양으로 잡혀갔다가 귀국.

하며 표창하여 줄 것을 간절하게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답(批答)이 내렸는데.

> "너희들의 글을 보니, 충성을 포앙하는 정성이 가상하다. 선조(先朝에서 의계(議營)한 일을 이제 껫 거행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에서 충절을 장려하는 뜻이 아니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거행케 하라"

하였다. 이는 영조의 포증하라는 명령이 "건의한 대로 시행하라"라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반 드시 포증해야 한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 포증(接触)이 내리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포증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소문이나 「영조실록」「승정원일기」에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소문으로 보면 정응련과 그 아들 청적에 대하여 공적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이는 숙종조에 이어 두 번째이므로 따라서 구체적인 포증 내용이 없더라도 증직과 정리가 내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VI. 충효열정문에 대한 검증

1. 개요(概要)

정리(旌國)란 충신·효자·열녀 등의 행적을 높이고 기리기 위해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세우거나 마을 입구에 작은 정각을 지어 기념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문을 세웠다는 것은 정려를 나라에서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정려를 받는 과정은 고을의 수령이나 고을의 유럽들, 그 사적이 있는 후손들이 중앙관서인 예조 (續曹)에 신청하고 심사하여 인정되면, 임급에게 아뢰고 임금이 윤허하게 되면 '명정(命族)을 받는다. 이는 임금이 명한 정리라 뜻이다. 그러므로 정려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이요 그 마음의 경사다.

나라에서 그 행적을 인정받아 내려지는 정려(旌間), 정표(旌裘)는 다양하게 세워진다.

첫째, 효자, 충신 열녀 등이 사는 집 대문위에 효행이나 충절이나 정절에 관계된 인물의 이름과

고향, 이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간략히 적어 놓은 나무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있다 ??

둘째, 장려문(旌閘門)은 마을 입구에 별도의 문을 건립하기도 하고 효자문, 충신분, 열녀문, 삼강 문 등 당양한 명칭이 붙는다.™

셋째, 정려각(旌間閉)은 비석이나 나무관에 사적을 적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경우 가 있다. 건물 안에 비석이나 현관을 설치하는데 효자각, 충신각, 열녀각 등 다양한 병칭이 붙는 다.⁷⁹

넷째, 정리비(旌阿碑)는 노천에다 비석만 세우는 경우이다. 비석의 형태는 다양하다. 명칭도 효자비, 충신비, 열너비 등 다양한 명칭이 붙는다 ***

1983년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는 4,362개의 정려가 있고, 비석을 세운 것이 1,568(45%)개, 비각으로 세운 것이 %2개, 건물로 된 것이 592개, 문으로 되 것이 563개, 나무판으로 된 것이 268개, 기타 32개이다. 전물은 개별적으로 단간이지만 현풍곽씨의 경우처럼 1725년 (영조 1) 이후 한 집안의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여 12개의 정려를 한자리에 세우게 되었다. 그 그르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합설 하거나, 세 사람을 합설하거나, 한 가문의 경우 관리의 편의를 위해 합설한다.

여주군 홍천면 신근리 71-6번지에 있는 하동정씨 '충효연정문' 은 1974년 중신, 중효, 일부 3위 의 비석을 세우고 건물을 지은 사례다. 이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리각(熊開陽)이다. 문중에서 위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앞서고 경제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정려각을 간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충효열정문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성을 제고시킨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의문점은 무엇인가?

첫째, 정씨가문의 충효열정문은 "승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 에 정응린, 정적, 청풍김씨에게 내린 정려(旌間)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가 없는 점이다.

줄째, 정문에는 보통 나무든 만든 현관이든 비식이든 주인공에 대하여 임금이 정려를 명한 '명 정(命姓)'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충효열정문에는 '명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충효열정문은 1974년 의진 곳에 새로 터를 닦고 건립했기에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 점이 있다.

⁷⁷⁾ 화순용주정려(예산) 인두 정여창 가의 5정려(함약)

⁷⁸⁾ 뷰의 정려문(柳波 旌間門)

⁷⁹⁾ 용암 박운(구미), 서능(장성), 경복규(영설)

⁸⁰⁾ 안녕이씨 정려비(대전 동구), 손시양의 효자비(경주), 남양홍씨 절부지비(연천)

⁸¹⁾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6, pp. 197-213.

⁸²⁾ 박주, 조선시대 효와 여성, 한국학자료원, 2000.pp. 362-370.

이 세 가지 의문점이 풀리면 충효열정문의 실제는 객관적으로 진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여기서는 이 의문점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풀어서 정문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다.

2.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민저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기사가 없다"는 첫째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정용린 정적 부자의 정려는 1725년(영조 1) 10월 21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이양대 등의 '정용면, 정적 부자의 포창상소문' 음 보면 살마리가 풀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이미 1685년(숙종 11)에 병조판서 이숙이 포창을 건의하여 왕이 윤허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또 1725년(영조 1) 유생 이양대 등의 상소문에는 왕이 '아린 대로 행하라' 고 하였으니, 아뢴 내용이 시행되었다고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독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왜 나하면 숙종 때와 영조 때에 정응권 정적 부자의 포창을 건의하여 두 번 다 윤허하였으나 '정려' 에 대한 구세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1725년(영조 1) 10월 21일 『영조실록』기사에는

'기호의 유생 이양대 등이 상소하여 정응란 부자를 포장하도록 창하다. 기호의 유생 이양대 등이 상소하여 정용컨(陳廷화) 부자(숫子)들 포장(敦史)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정응 린은 임진년(1592)의 난리를 당하여 전(術) 현간(縣點)으로서 의병을 일으켜 왜적(條款)을 토벌하 다가 전패(歌)하여 죽었는데, 그 아들 정적(家)의 김류(金粱) · 심대부(沈大字) 등과 더불어 의 기(義乳를 본발하여 원수를 같은 사실이 체부(體府)의 격문(飲文)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숙종 때나 영조 때나 왕이 윤허한 포창 내용이 '증작' 뿐인가? 중직과 정려를 동시에 내 렀는가? 북호(復戶) 뿐인가? 이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 '증작' 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 고, 증직과 정려, 북호 등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상소한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에 정려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가 있어야만 정려

^{83) 1865}년 숙종 때에 건의한 상소문이나, 윤허한 사실이 숙종실목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을 고했다고 볼 수 없다.

⁸⁰ 국역 영조실목 8권, 1725(영조 1) 10월 21일 3번째 기사 『태백산사고본》 7책 8권 10장 B면

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목』에 기사가 없어도 정려된 경우 가 있고, 기사가 있어도 정려문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가) 양평군내의 정려된 효자, 충신, 열녀는 70여명이다. ⁶⁰ 이를 "조선왕조실록₃과 '승정원일기』 에서 찾아보았으나, 다음 4인만 기록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1661년 권순장(權順長): 安東人, 胡亂時 江島殉節, 忠臣旌閭, 서종면

1686년 양식(梁代): 南原人, 孝子, 清貧, 孝道 사회귀감, 용문면

1623년 윤공(尹珙): 海平人, 孝子, 孝子旌閭, 강상면

1834년 한복경(韓復慶): 淸州人, 孝子, 孝子旌閭, 양근

그러면 이 4인 이외의 66명의 정려기목은 각 문중에서 조상들의 포중을 위작해서 기록하였다고 불 것인가? 혹 위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 이 되기 때문에 후손이 마음대로 정려나 중직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화와 당쟁의 역사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수십 명을 위작하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기 우일 것이다.

정문(각)에는 대개 명칭과 증적과 병정이 기록된 현관이 걸려있다. 비석을 세워도 명정을 기록 한다. 현재 양평군 내의 명정 현관이 있는 정문을 살펴본다.

- ④ 양평군 양평읍 최현리 류회진은 1627년(인조 5) "忠臣暗嘉善大夫兵曹參判練同知義禁府事五 術器接府副接管行通訓大夫成與判官標希鎮之門上之五年命柱間"라는 현관이 있다."
- ⑤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최광악 최병배 부자의 정문은 1882(고종 19)년 지평현감이 감독하여 완공하였는데, 하나는 "孝子贈朝奉大夫崔匡岳之門 高宗十九年壬午九月 日 命雄"이라고 현 관이 있다. 또 하나는 "孝子贈朝奉大夫崔秉培之門 高宗十九年九月 日 命姓"이라고 새겼다."
- ① 양평군 정운민 잘운리의 이출명은 1892년(고종 29) 예조에서 효자정문을 내려 표창하고, "附 董蒙教官朝拳大夫"의 직접을 내렸다. 정문에는 "孝子歸董蒙教官朝奉大夫季春明之門閣 上之 卽位十八年 命統"이라는 현광이 걸려있다.™

⁸⁵⁾ 장삼현, 아름다운 삶이 있는 양평사란돌, 도서충판 正言, 2013.pp. 388-390

⁸⁶⁾ 숙종실목 62권, 4년(1718) 무술 8월 19일(살미) 3번째 기사에 총정감사 찬자가 상소문에서 김진상을 배최하였다. 한 지는 한태동의 아들이고, 건진상은 검이훈의 순자이기 때문이다. 한대동은 검약군을 최주도록 하고, 한지는 일순옥사 한근자들은 옹호한다하여 식발관적 되었다. 그러자 삭녕 군수 조명정이 상소하여 한지를 삭당 근직한 비망기의 부 당함을 논하였다.

⁸⁷⁾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85.

⁸⁸⁾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302.

⁸⁹⁾ 양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 245.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인기』에서 류회진 이준병, 최광악, 최병배 등의 정리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이 보면 정용런 정적의 정리에 대하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미 숙종과 영조가 윤허하였고, 영조는 반드시 세우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즉, "너희들의 상소울 보니 너희들이 충절를 포장하려는 정성이 가상하다. 이미 선조(先朝)에서 의계한 일이 있는데, 아직도 거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충절을 장려하려는 뜻이 아니다. 해조(該百)로 하여군 거행하게 하라"³⁰ 하였다. 이 비담은 단순한 윤허가 아니고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실목에 기록은 없지만 정리가 내려진 것은 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된 정통검씨는 정리가 확실하지만 "증정원인가,나 "조선왕조신복,에는 기사가 없고, 또한 양평군의 충신 유희진, 효자 최광악 최병배, 효자 이준명은 현재 정문이 있어도 "승 정원일기』나 "왕조실록, 에 정려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1750년 평사본의 청 통검씨축보와 1800년 간행된 하동정씨축보에 모두 정려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정응린, 정적, 정풍김씨의 '충효열정문' 온 의심한 필요가 없다. 따라서 첫째로 제기된 의문정은 합리적으로 해소되었다.

3. 임금이 정려를 내린 '명정' 이 있는가?

다음 "임금이 정려를 명한 '명정(命庭)' 이 없다"는 둘째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광해군이 재임 시에 임진왜란 때의 효자 · 충신 · 열녀들의 실제 행적을 모아 『동국신속삼강행실 도,를 뜀착하였다.

이를 위해 1616(광해 8) 찬집청(撰集廳)에서 기자헌(奇自獻)이 중심이 되어 자료를 수집하는 작 업으로 '東國新額三綱行實撰集'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목독에 '士人鄭迪婁金氏'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해인 1617년(광해 9)에 "동국신속삼강해심도,가 편찬되었다.

여기에는 "金氏利川府人士人鄉迪之妻也王辰倭亂從夫避賊丁低平地賊以鐵丸中身別陸進而死金 氏亦投崖下抱屍懶哭賊徒拜錦來前金氏略不外住哀慟如一賊違殺之今上朝旌門"⁵²²이라는 기사가 있 다. 여기서 문말에 "今上朝旌門"이라 하였으니 선조 때에 정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⁸ 광해군 때에 삼강행실도가 된잔되었어도 여기서 금상(今上)은 광해군이 아니라 선조다. 원문 "李烈 士人鄭迪

⁹⁰⁾ 승정원일기, 1725(영조 1) 10원 21일 기사

⁹¹⁾ 희진은 양평읍 회헌리에, 최광악 최병배는 지평면 송헌리에, 이춘병은 청운면 같은리에 각각 정리각이 있다. 정리각에 는 현관이 걸려입다

⁹²⁾ 東國新稽三綱行實圖, 1617년(광해 9),

⁹³⁾ 여기 '숙上'은 광해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조 때에 정문이 내려 현관에 진러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다고 보 면 선조로 보이야 한다.

妻務人海風金氏之門 今上三十八年 命旌冏"에서 원문의 '今上' 을 원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683년 "여주목고작병목』 절취정통검세 기사는 "士人那迪麥金氏王辰倭亂非以父郎應執 聚後兵接戰中九而作其結開計扶屍號突敗欲超之自投商切君下而死宜前朝立姓"라고 기록되어있다. 여기에는 문말에 "宣庙朝立姓"이라고 하여 선조 때에 정려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대를 환산 소급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앞 절의 ②~③에서 보는바와 관 이 정리가 내려질 때의 현관을 그대로 쓰면 '今上'이란 표기는 영구한 것이나 개인적인 기록은 환 산해서 기록하여 '宣廟朝'라고 한 수 있다. 아무튼 위 두 책에 나오는 정적의 부인 청풍건씨의 '정 러'에 대하여는 '명정'이 없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선왕조선목」이나 "증정원인기」에 는 역시 정려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없다. 이것은 위에서 연급된 '명정'이 있는 유회진, 이준명 최광 악 최병배의 정려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선목」이나 "증정원인기」에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정용린, 정적의 묘갈을 살펴보자. 정용단의 묘갈은 손주 사위인 판서 김우형(1616~1694) 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용단의 묘갈은 1747년(영조 23/崇祯紀元後再回丁卯立)에 세웠다. 비재에는 "歸嘉善大夫戶曹參判鄰公應翰之幕"라 새겼다." 이는 정용단의 포증은 영조 원년(1725) 에 이루어졌고, 비문은 포증하기 이전에 지어놓았기 때문에 비석을 세우면서 비문을 고칠 수 없어 비재에만 포증을 사용한 것 같다. 왜냐하면 증적과 비재에 대한 내용이 비분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비석은 1725년 포증(復贈)을 유허한 지 22년 만인 1747년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정용련의 신도비문은 부제학 김진상(1684~1775)이 지었다. 신도비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상판(중적 포함)이라야 세울 수 있다.²⁵ 김진상이 부제학 재직 시(1735~1737)에 지었음 것으로 보인다.²⁷ 그것은 김진상이 1738년 대사성에 오르고 이어 승진하였기 때문에 "부제학 김진상"이 지었다는 것은 부제학 재적시에 지온 것으로 보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국가의 요적에 있는 공인인 대제학 김진상이 신도비문을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응면이 포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중된다고 하겠다.

정적의 묘갈은 1771년(영조·41/辛卯)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 데, 비재애는 "翰嘉흠大夫戶曹夢剣 據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行折衝將軍龍觀衛副護軍" 으로 새거져 있다. 이 비제를 보면 정 적도 포증이 이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로 보면 이런 포증을 함부로 쓰면 무사하지 못하였을

⁹⁴⁾ 亳州牧古蹟並錄成册, 康熙二十二年六月,1683(今季 9)、節歸條記事

⁹⁵⁾ 정용력의 묘갑은 비제외는 달리 본문에 병조참판이라 하였으므로 이런 경우는 풀어야할 과제다.

⁹⁶⁾ 임급이나 중이품 이상 벼슬아치의 무덤 앞이나 근치 결목에 세위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신도비라 하는데 이는 당상관(정3품 이상) 이사이라야 세울 수 있다. 무덤에는 꼬표, 묘간을 세우고, 묘하 길가 근처에는 신도비를 세운다.

⁹⁷⁾ 河東鄭氏世譜, 庚申譜(정조 24), 1800, 취진상(1684~1775)이 부제하을 역임한 시기는 1735(영조 11)~1737(영조 13) 년이다. 1738년에는 대사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장웅린이 신도비문을 자온 시기는 1735~1737년 사이가 될 것이다.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정응런 정적 부자의 포상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이미 숙종 때에 건의가 있어서 시 행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았고, 영조 때에 다시 상소한 것이다. 즉, 1725년(영조 1) 경기도 이양대 등과 선비들과 여러 조선들이 임금에게 아퇴어 윤허를 받았으므로 충효정문(患季族門)이 내려졌다.™ 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정용면, 정적, 청풍김씨의 정리에 대한 분석으로 보면, 국왕의 '명정'이 없다고 하여 정려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정용린 정적은 양평군의 효자, 충신, 열녀 수십 명과 '命雄'이 있는 이 춘병, 최광악, 최병배과 청풍김씨의 경우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인기」에 없는 사례로 보아 정 응린, 정적의 포종(後瞻)에 대하여는 의심한 필요가 없다.

나라에서 내린 포증(疫胎)은 모든 선례를 보아 다음과 같은 명정이 있었을 것이다.

- · 정응린: 忠臣 翰嘉善大夫戶曹參判鄭潔麟之門 今上乙巳十月 日 命旋間
- 정 3: 出幸 增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抱管行折衙將軍龍驅衛副護軍擊迫之門 中上乙巳十月 日 命雄國
- ・ 청풍김씨: 孝烈 贈士人鄭道妻孺人清風金氏之門 今上之○○○○ 年 命旌閏

그러나 만약 예조에서 심사하고 국왕이 포증하여 정려한 사실이 없는 것을 정씨문중에서 위작하여 세웠다면, 노론계에 속하는 정응린 하동정씨 가문을 그 반대계열(남인, 소론)이 그냥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쟁과 사화로 살부지수(敎父之籍)가 된 과벌의식은 지금까지 골이 깊어 있다. 선대의 조금만 흠이 있어도 꼬투리를 잡아 두고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만연된 풍토악기 때문이다. 그리므로 정응린, 정적, 청풍김씨의 명정은 1774년 정문에만 가육되어 전하면 것이 소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시점에서 가장 오래된 "청풍김씨세보」(1750년)에 청풍김씨는 정려되었음을 기록했고, 송시열의 5대손 송환기가 서문을 지은 "하동정씨의위공과족보』(1800년)에는 정응린, 정적, 청풍김씨가 정려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상으로 보면 명정이 없다하여 정려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도 논 리적으로 해결되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4, 1974년 신근리에 복원한 근거

⁹⁸⁾ 하동장씨익위공파족보, 2010.p.87. 清風金氏譜, 1750 (영조 26).



忠孝烈旌門 : 신근리 71-6, 안에는 충신 정응린, 충효 정적, 열부 청품감씨 旌碑 셋이 있다. 현재 위치 : 경도 127°33 154 E / 위도 37°18 527 N

세 번째 충효열정문을 "1974년 신근리에 복원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 보자, 흥천면 신근리에는 충신 정응린, 충효 정적, 얼부 청풍감씨의 충효열을 기리는 충효열정문 (閱)이 있다. 정문은 '깃발을 꽂는 문' 이라는 의미이다.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본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회 풍교를 위한 것이다.

전국에는 4,362개의 정려가 있고, 그 중에 비석은 세우고 건물을 지은 것이 595개나 된다. 이 방 식대로 신근리 정문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정비를 세웠다. 신근리 충효열정문은 지금 정문이 내려 지는 시대도 아닌데, 없던 정문을 1974년 새로 세우 것은 문중 사람들이야 이해하겠지만 누가보야. 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응린의 맏며느리 김씨는 선조(宣祖) 때에 열부(烈婦, 節婦)로 정리 (旌闐)하고. 💯 영조 원년(英祖元年)에 경기・충청 유생과 태학 선비 이양대(李養大) 등이 상소하고 조정 상신들이 주청하여 그 시부인 정응린 장군은 충신으로 가신대부 호조활판을 중직 받고, 남편 정적은 충효로 자헌대부 형조판서를 증직 받았다.100 합설하여 정문을 세우니 '충효열정문(忠孝烈 旌門)'이 그것이다 '''' 이것은 사실 전려문이라기 보다 전려각(旌間閉)이다. 충효염정문은 처음에 홍천면 신근2리 322-5 임 '정문터' 라는 곳에 건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오년(1774)에 산불로 타버렸다는 것이다.[10] 그 후 복원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갔다. 하통정씨익위공파 정기서(1935년생) 회장은 이곳에서 약500m 떨어진 신근3리 388번지에서 출생

⁹⁹⁾ 驪州牧古蹟故錄.1683(奇종 9). 그러나 1617년(광朝9) 간행된 동국선속삼강행성도에는 '숙上前註門' 이라 하였다. 100) 하동정씨익위공파족보, 87

¹⁰¹⁾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 71-6배지 정문 한과은 (忠孝列桂門)이라 하였다.





하여 성장하였다. 어렸을 적부터 자라면서 부친(故 禹,1915-1963)으로부터 정문 터에서 받을 갈 때에 기와조 각이 나온다는 말을 가끔 들었다.

그러므로 지난 10월 21일 정기서 최장 등 하동정씨문중 어른 3인과 함께 정문터를 찾아갔다. 신근2리 321-5번지 정선모써 집 바로 뒤가 322-5일이다. 여기서 정기서 회장 이 분에 단 것으로 보이는 와편 2점을 받진 했다.¹³³ 당시 에는 이 일대가 정씨문중의 땅이었고 현재는 그 후손인 정 씨내의 개인 소유지로 되어있다.

그리므로 이곳에 복원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 분중화의에서 "선조의 정분이 불에 탔는데 210년이 지나 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후손의 도리가 아니다."하고 또 "참판공과 청풍김씨 할머니가 지평 고라산에서 왜놈들 과 싸우다 순절하셨는데 380여년이 지나도록 표석하나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우선 정문이라 도 먼저 복원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34] 그리하여 1974년 홍천면 신근리 71-6번지 중중 땅에 터를 닦고 정 더라움 세웠다. 이 정문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322-5 임

에 있던 것을 복원한 것이라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간략하게 비석으로 세우는 사례와 비각(청려각)을 짓고 그 안에 나무로 현관을 걸어놓는 사례와 정리비를 세우는 사례가 있다는¹⁹⁸ 것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정문의 명칭도 문중마다 다 양하다. 삼효각(三季限), 정충각(註志限), 정효각(旌孝阳), 효자각(孝子限), 효녀지문(孝女之門), 열녀각(烈女間), 삼강문(三綱門) 등으로 다양하다.

여주군 홍천면 신근리 하동정씨의 '충효열정문' 은 비각 안에 다음과 같은 정비 셋을 세웠다.

¹⁰²⁾ 징기서 회장과 정체현 고문은 산년로 분이 탔다는 설도 있고 병화로 볼데 탔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고 하고, 정해군 축구도 병화에 땄다는 한이 있고 산봉로 타버렸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1774년(영조 50)은 회원은 없어서 산불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103) 2013}년 10월 21일 하동정씨 문중 정세현 고문, 정기서 회장 , 정해군 총무와 신근2리 322~5번지 ‡ 정문터를 둘러보고 악뜀 조각 2강을 찾았다.

¹⁰⁰ 정해군 총무 대답.

¹⁰⁵⁾ 전국에 이간이 정비를 세우고 비각을 지은 사례는 600여 건에 답한다. 경주시 불성점세정효비(不穩監禁を正施孝幹) (悟近副人夫申錄對事金企建關幹), 인동시 인터 시성의 정래비 (然女輝文金昌俊妻利비徐社之間), 남양주시 (忠臣 急和公保益之門(내부여 정면비)), 경주시 (경무명의 정리비), 유석군 건국민 (孝子 報參封超百段) 등이 있다.

- 忠臣 贈戶曹券判鄭應鱗之間 (충신 중호조참환경응립지러)
- 忠孝 贈刑曹判書鄭迪之間 (츳효 중청조관서정적지러)
- 孝烈 贈貞夫人清風金氏之間(효열 증정부인청풍김씨지려)

이와 같이 비각 안에 정비를 세운 사례는 전국에 595개나 된다. 180 그러므로 현재 내 부에 세운 정려비는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정려비를 고중할만한 문구 ' 協庭' 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도 하다하다. 양평의 경 우 70여명이 정려를 받았는데, 현존하는 것 은 4명의 정문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 러한 사례는 위의 주)95에서 보더라도 정응



린 정적 청풍김씨의 정려각에 대하여는 소실되어 고증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상회복에 미흡하 더라도 1774년 소실된 정려각을 복위한 것임은 의상할 여지가 없다

VII. 맺음말

정응린 장군은 총효와 절의와 인예(仁禮)의 가문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사나이다운 기상으로 문무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장군은 15개년 부친 옥아공[如虎]의 상을 당하자 합평현감을 사직하고 여주 상백리 묘소에서 시료를 살고 있었다. 다음해 4월 임진해란이 일어나 왜적 때들은 화죽자세 로 북상함에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고 선조대왕은 다급히 파천하고 서울은 함락되었다.

그러므로 정용권은 이 화급을 다투는 국가의 운명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솔선하여 적을 토빌 하기로 결심했다. 장군은 상북을 벗고 자제들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여 4,5백 명을 모집하였다. 이는 경상도 의림의 곽재우 의병과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장응린 장군 휘하의 의병들은 의기 백배하여 승전고를 울렸지만 마지막으로 5월 8일 고라산 전 투에서 왜적과 협전을 벌였다. 그러나 증과부적으로 처절하게 패전하고 맡았다. 여기서 정용린 장

¹⁰⁰⁾ 旌閭闾 안의 비석도 일정한 모양이 아니고 다양하다. 비석의 미리나, 바탕이다, 비선이나, 새기는 글씨나 크고 작유 이나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군과 그 장자부 청풍김씨 넷째아들 정일 셋이 순절하고, 장자 정적은 외지에 나갔다가 화를 면하여 비보를 듣고 부대로 돌아와 뒷수습을 하고 효도와 복수의 의리를 다하였음은 숨정원일기에 있다.

이로써 청몽김씨는 선조조에 정리되었고, 정응린 정적 부자는 영조 원년에 정리되었다. 함께 순 절한 일에 대해서는 포창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정응린 정적 부자와 만며느리 김씨의 정려문은 신 근2리 322-5 임에 있었는데 1774년 불타고 종중에서 1974년 신근리 71-6번지에 복원했다. 그것 이 현재 '충효열정문'이다. 또한 2012년 상촌장학회에서는 자료를 발굴 검증하여 지평면 대평리 에 임전의병 전적비 공원용 조성하고 '임진의병 420주년 기념 전적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정용린 장군의 거의(學義)와 순절의 의병정신은 본래부터 타고난 성품과 조상대대로 전해진 충 효전의와 인경(仁敬)의 가정적 배경 속에서 체절화된 호국정신, 충절정신, 의리정신, 결사정신의 응절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임금에게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였고, 나라에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였으며, 조상에게는 후손의 도리를 다하였고, 후손들에게는 선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장자 부 곱씨가 시아비지와 뒤를 따르고 넷제아들 일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휘하의 의병들은 장수와 함께 전멸하였고 산아남은 장자 적이 원수를 갚고자 재상들과 복수청을 설치하고 용장에 전력을 기용였으니 역시 충효와 의리를 중상한 가풍에 있었다고 하겠다.

정응린, 정적, 청풍김씨 등 세 정려를 합하여 '충효열정문'이라 하여 신근리에 세웠던 것이 갑오 년(1774)에 불타버렸다. 이 정문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세 가지가 모두 논리적으로 충 즉되었다. 그러므로 1974년 충효열정문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있을 수 없다. 2012년 대평리에 세운 임진의병 전적비도 사실에 입각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충효결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해야 함 과제가 남아있으나, 다음 세 가지가 그것이다.

첫째, 정문이 외지고 협소하여 관리도 아렵고, 홍보도 안 되고 성려의 의미도 실종되는 것 같다. 정씨문중에서는 상백리 정용련 묘소 근처 마을로 정문을 이전 고건축으로 재건해야만 정문의 의 미가 회복된 것이다

둘째, 양평군은 대평리 전적비 공원에 정용린 장군과 함께 전사한 무명의병들의 위령비를 세우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장수의 순절은 드높이고 장졸들의 순절을 의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생째, 지평면은 대평리 '임진의병 전적비 공원' 윤 정비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중등학생들과 대 중의 국민정신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신명을 바친 역사 속의 의병들을 기려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 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을 외면하면 지나간 역사속의 처절했던 민족의 고통을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민족의 계속성과 반영에 대한 미래도 없음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616, 東國新續三綱行實撰集, 奇自獻, 撰集廳 (光海 8).
- 1617. 東國新續三綱行寶圖, 丁巳(光海 9).
- 1627. 仁祖實錄, 仁祖 五年 2월
- 1683. 驪州牧古蹟並錄成册, 癸亥(蔣宗 9), 日本東京, 天理大 所藏。
- 1725. 承政院 [1記, 第六十三册, 乙巳(英祖 1).
- 1725, 英和實錄,(영조 1) 7階, 八卷, 10장, 10월 21일 기사.
- 1750、清風金氏族譜(필사본、영조26)、清風金氏大宗會、
- 1800, 河東鄭氏世譜, 庚申譜(정조 24).
- 1917, 紀年便攷, 朴養成, 필사본
- 1985、朝鮮儒賢淵源閩、(影印本), 尹榮善、
- 1992.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 1995、人間과 倫理、張三鉉·張世撰、研學社、
- 1996,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 1999 京藝道鄉學總鑑, 京海道鄉校財團
- 1999. 양평군의 역사와 분화유적, 양평군.
- 2000, 朝鮮時代의 孝와 女性, 朴珠, 國學資料院
- 2003. 驪州鄉校誌, 驪州鄉校、驪州鄉校誌編纂委員會.
- 2005. 驪州郡史(2), 驪州郡史編纂委員會, 騷州郡,
- 2007, 서은 김기석사상의 재조명, 동방정신문화연구소.
- 2007, 韓國思想과 教養,張三錶、教友社、
- 2010. 河東鄭氏翊衛公派族譜,東鄭氏胡衛公派譜網籍委員會。
- 2010, 조선 임진왜란 충신열사에 대한 현창정책, 지두환, 교보,
- 2012, 원간 선진한국, 05월호
- 2013, 아름다운 삶이 있는 양평사람들, 장삼현, 正言.

放臨適會夫在督務由聯鄰来伸手數復攀之志而其忠孝敵烈之以於自己述大李等同題該應者以復攀在粮電械目夜經營必放一九人之所共知者也應購死數之後其子也舊復樂之義與故相且全變人 府指揮致刀於私粮製光之事无故判事臣全守事嚴鄭迪差表有日 甚繳切以其久起屬対賊力戰負死之故一意復聲無地自放改及幕言之其時体局務及有日本府巡到縣州有士人鄭迪者本見聽節言 这些來終日血戰手自射販的殺甚多力直夫鸡竟備於城九 其常判惠国陪有日父遠之事雜雜考信以河明所納其時京談都巡 任軍的仁願命故四的官群不就云云此其事實之彰若者也而向 府榜文盛稱石侵誓之義丁卯之制處置江群見完置李暗論聖歐自 为之考士及之記斜義於討侵遇害心與食逐院大字等設復樂展體 镨勁子百世矣此其應磷公子忠孝之大樂也若以其交子之可務者 敗規之名蓋由於此而至今過其現者莫不想其名而悲其節比則圍 4 丑十月日應蘇者孫河明上言乞蒙顯忠之典其時改相臣多觀 が 下應鑄自知於寡不敵身膏鋒銀而最陽所激 少無惧色活 古縣 プ朝

李烷糖受灸昨日妨停今日對更為受疫而時到以有空以午初手柳於日面後風寒伏未需產素喧嚣關稅者何顧中點用之帳其已換減 医球隔五室侧条架 印施道公英原都提溯日間復連提調日申思始司提日權信 医球隔五室侧子原口构道公大服六五大规则五大地股市原分 內得 註 "曹"李周鸣四直,事爱假设常,寻像直升在股。注"曹"李周鸣四直,事爱假设常,寻像直升 致予請醫以為以修受級更觀前頭症惟致定錄學為宜之美王大知仍為妨修予大王大祖殷服部是很及諸症俱受徵之後其有多勝之 即之意其全該內學 雍亚三军乙 急俱亦何如甘等不勝種温度應敢未問安正為仰索答曰知道 假证右 [8] 水 īķ. 15 5 胃 ь 宋秀衛在 H 行 + Ð 力 が大差 同左 朝 3) 51 多 水 9 办 沙话 旨 Ħ 朴聖朝 俞拓基生自 Ť Ł

정응린 장군의 충효절의 정신 연구 217

오산시(烏山市)의 어원(語源)과 그 해석

남 경 식 (오산문화원 전문위원)

- I. 들어가며
- II. 전개하며
- 1. 우리나라 지명의 특징
- 2. 문헌상 오산(島山)지역을 가리키는 가목
- 3. 오산(烏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지명의 전국 분포 현황
- 4. 부산(釜山)이 오산(烏山)으로 지명 변화
- 5. 오산(鳥山)에 까마귀 서식
- 6 오산(鳥山)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독
- 7. 까마귀의 상징성과 오산(鳥山)의 의미
- 8. 오산의 시조(市鳥)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야 하는 이유
- Ⅲ. 나가며

집필자 오산문화원 전문위원, 오산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남경식 오산문화재단 이사. (저서) 「오산역사문화」 2013.

I 들어가며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특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맞는 개성적인 이름이 있다. 그렇지만 사람 모두가 개개별로 모두 같지 않은 이름으로 개성에 맞도록 지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같 은 이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사람 개인의 취향이 틀림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으려고 해도 이름으로 조성되는 조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으로 모두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글자 조합의 한계 졸 무의식적으로 알고 동맹이인이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에 맞는 이름으로 근천과 인근 사람과 이 음으로 중복이 되지 않으면 좋은 의미와 소망을 담아 짓는다.

땅에도 고유한 지명이 부여돼 있다. 그 지역반의 특징과 좋은 의미와 지역 정서를 담고 지어지나 지명도 사람 이름과 같이 조어에는 한개가 있어 사람 이름과 마찬가지로 같은 지명이 지어지는 것이 많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명에는 오랜 세월에 결치 한 곳에 살던 선조들의 염원과 생환의 특정과 편익, 그 지역의 지형, 풍토, 경제와 관련된 산업의 특정이나 교통의 의미 등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는 지명에서 그것을 유추해 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명은 그 지역의 언군이며, 문화미, 사상이며, 지역민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이다. 오산(為田)이라는 지명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는 지명이다.

현재 오산시(烏山市)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을 가진 곳 중의 한 곳인 뿐이다. 그렇다면 동일한 지명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보고, 그 어원은 어디서 나왔으며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이 지명을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에 맞게 오산시(烏山市)의 상징 새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Ⅱ. 전개하며

1, 우리나라 지명의 특징

첫째, 우리나라 지명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고대에 우리는 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어, 한자 (漢字)를 이용하여 한자의 음(音)이나 훈(訓)의 일부나 전부를 따서 우리만 지명을 적게 되었다. 소 위 이두(史證)로 적는 지명이었는데. 한자로 표기는 되었으나 이두로 표기 된 것은 실은 우리의 고 유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순수한 우리만 지명과 한자의 지명으로 이원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 자의 모습으로 된 차용된 음인 이두와 뜻으로 적은 한자의 이름과 섞여 시간이 흐르다 보니 지금은 혼란이 가중되어 음으로 읽어야하는 것과 훈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뒤섞여 혼란이 가중된 되다가 시대에 따른 지명의 변천이 겹쳐 지금은 지명하나 해석에 퍼즐 게임하듯 어렵게 되었다. 예를 들면 수원을 고구려 때는 實窓이라 작었는데, 순우리만인 불꾼이라 발음하면서 쏘기는 實窓이라 작었는데, 순우리만인 불꾼이라 발음하면서 쏘기는 實際이라 표기한 것이다. 그러니 후대에 와서는 물곱이라 발음하지 않고 한자 발음인 매훈만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국인 물끝이 배출이 된 것인데, 그 후대엔 뜻으로 한자로 옮겨 적어 수성(水域)이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되니 물골, 매훈, 수성이 혼용되어 지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 물끈이나 수성은 간은 뜻이 되나 實際(매출)을 뜻품이 하면 엉뚱한 의미의 지명 유래가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명은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면 행정체계 개편으로 자주 바뀌었다. 거의 대개 가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지명개편 작업을 거쳐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 예품 들면 서울은 백제 때는 하복위례성(河北域鏡域), 고구려 때는 남평양(南平境, 북한산성), 신 라 때는 선주(新州), 북한산성(北濱山城), 한주(漢州), 양주(楊州), 고려 때는 남경(南京), 한양부 (漢陽府), 조선 때는 한성(漢域), 일제하의 경성(京城),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로 바뀌어 내려오 는 것이다.

오산이 속해 있던 수원(水原)의 지명도 고구려 때는 몰곱을 이두 글자인 買忽로 적었으며, 신라 35대왕인 경덕왕16년(757년)에는 순수한 우리만 뜻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 썼는데 물골의 불은 買로, 풀은 忽로 표기하던 것을, 아예 한자 뜻 의미로 물은 水로, 골은 됐으로 바꾸어 물곱을 수성(水城)으로 바꾸는 인대 변혁을 한다. 따라서 말은 물골이라 하면서 적기는 수성(水城)으로 직었다. 그후 고려 대조2년(940년)에 주, 부, 군, 현의 이름을 당나라식으로 고치게 되어 다시 수주(水州)로 하였다가 충선왕2년(1310년)에 수원(水原)으로 바꿈으로서 조선왕소를 가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수원 지역의 위치도 변화를 기듭했는데, 조선 정조13년까지는 현재의 화성시 대안읍 송산 리에 읍치가 있었을 때의 수원(구읍치), 정조가 수원읍치를 현재의 수원시로 옮긴 이후의 수원(신 읍치), 과거 수원의 관찰에 포함되었던 오산시와 화성시를 각 지자체에 이관하고, 과거의 수원읍 과 인근 일부 리, 면을 흡수한 현재의 수원시이다.

오산(島山) 지역도 1914년에 청호면과 조평면, 산성면, 문사면의 일부 전부를 통합하며 성호면 (산성면과 청호면의 한자색을 땀)이 되고 1941년에는 오산면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것이 다. 이렇듯 지명과 영역의 무수한 변천을 겪음으로서 더욱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명의 줄속 변천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인자를 알 수 있다. 그리므로 지명의 사랑과 보존에 힘쓰는 것은 문화재 보존만큼 중요한 일이며 문화유산은 보호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근래에 쉽게 지명



오산시가지 : 농경지에서 도시화로 도심으로 변한 오산동과 부산동, 원동이 속하는 운암들의 서쪽 일부분, 앞산에 박동이 속해 있는 필봉산 줄기가 보인다.

을 바꾸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말의 변천, 선조들의 풍속이나 사고 생활양식 등을 되 비쳐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학, 역사학, 사회학, 국어학, 민속학 등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 되어버렸다.

셋째, 우리나라 지명에 많이 쓰이는 한자를 중에서 많이 쓰이는 한자의 순서는 이렇다. 山, 允, 新, 大, 松, 川, 娥, 石, 上, 內 등의 순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명이 자연과 관계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지명 중 山이 들어간 지명이 제일 많은 것은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산약 국가이기 때문이다. 오산(烏山)지역도 오산의 중심시가지를 이루는 남동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능선과 200m미만의 구동이 발달되어 있는 산이 대부분인 고장이다."

넷째, 견아상제(大牙相制)의 형태로 중국 한나라 이전부터 쓰이던 제도로서, 군현이나 방리의 경계가 개의 위아래 이빨이 서로 어긋맛음과 같이 어긋나고 뒤섞이어 일직선이 되지 않음을 말한 다. 즉 한 고윤이 길게 다른 고윤로 뱉어 들어가고, 또 그 고윤은 또 다른 고을 옆으로 길게 뱉어서 로 엇률리게 경계를 정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봉건제도하의 지방관이 모반하였을 경우에 옆의 고 유에서 쉽게 진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초기 대중 때 지방의 행정

¹⁾ 李泳澤, "韓國의 地名』, 태평양, 1986.

 ^{&#}x27;오산시사 1권.,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구역은 정리한 때 이와 같이 모든 군, 현을 서로 엇물리게 하였음으로 지명의 유래나 변천을 밝히 는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제도는 1914년 군현과 리, 동의 통쾌합으로 현재의 제도로 바뀔 때 까지 계속되었다.

2. 문헌상 오산(烏山)지역을 가리키는 기록

문헌상 오산(鳥山)지역을 나타내는 최초의 지역명은 부산(釜山)이다.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본기 제2 고이왕 5년(AD 238년) 2월조에 의하면 '왕은 부산(釜山)에서 사냥하고 50일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라는 기독이 나오는대 많은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부산이란 지명을 전위(振威)부산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전위현 전의 부산현은 오늘날의 오산시 동쪽의 부산동 부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산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삼국사기」권 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溫蘇王) 11년(기원권 8년) 7월조에 '독산책(充山樹), 구천책'의 양책을 설치하고 낙량의 침략을 막았다'는 기록과 「삼국사기」권 제3 신라본기 내물이사금 18년(AD 373년)에 '백제의 독산성주(悉山坡主)가 남녀 3백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으므로 왕은 이들은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기목이 보인다."

이러한 옛 문헌의 기록으로 보아 오산의 역사나 주민이 살았다는 증거는 약 2천 년 전 이상으로 추짓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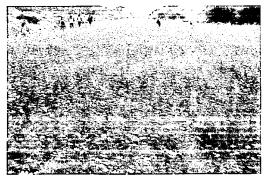
위의 기록들에 나타나는 우리 고장 오산(烏山)을 가리키는 최초의 지명은 부산(釜山) 이었다. 이 후 고려후기에 이르러 부산(釜山)과 그 의미가 유사한 오산(烏山)으로 변경되었다. 가마 부(釜)와 검융 오(烏)가 공통으로 갖는 한자의 의마는 검을 촉(黑)이다.

오산시사 1권,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4) 「}오산시사 1권」에서는 용인으로 보고 있으나, 향토사학자 임종산은 구천책의 구천(海川)을 현재의 황구지천으로 보고 있다. 「오산의 역사와 독산성」、오산문화원、2007.

 [「]오산시사 1권」, 오산시사핀찬위원회, 2009.

⁶⁾ 입종삼, 「오산의 역사와 독산성」, 오산문화원, 2007,



코스모스 마개한 오산천 문치

오산(烏山)이란 현재의 지명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분헌은 1451년에 개찬된 '고려사(高麗史), 세 가권 제25, 원종1년(1260년)에 고려왕과 몽골 장수 속리대가 함께 개경과 강화도를 오가면서 몽장 속리대가 주둔하였다는 것을 말하는데 '속리대가 울유년에 또 오산(烏山)에 퇴둔하였다.(京里大 還歸乙酉 退屯于烏山)' 글의 내용을 봐서는 강화도 근처의 오산(烏山)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현재 의 오산(烏山)이라는 설도 있다. 이어서 1452년에 편찬된 '고려사철요(高麗史節要)』에도 같은 내 용의 기독이 보임으로서 약 750년 전부터 오산(烏山)이란 지명을 써온 것으로 주정한다."

다음의 오산천(烏山川)의 가록 변천과정을 보자[®] 이곳에서도 오산(烏山)의 지명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다.

- 1425년-영조실록에 용인의 구흥천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구흥천은 신증동국여지승말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흥천은 구흥역 남쪽에 있다. 물 근원이 보개산 남쪽에서 나와 수원부 오산원천(公山院川)으로 흘러든다」 것으로 보아 최초의 오산천명이라는 생각이다.
- 1481년~성종(成宗)조에 노사신이 쓴 동국여지송람(東國與地勝覽)의 용인한 산천(山川)조 구 홍처음 설명하면서 수원부 오산위청(為山院川)이란 천명이 나온다.

^{7) 「}오산시사 1권」,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8) 「오산시사 1권」, 오산시사편찬위원회, 2009

- 1611년 -광해군(光海君) 3년에 발간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束國典地勝賢)에도 위와 동일 한 오산위청(烏山陸川)에 대한 대용이 나온다
- 1753년 이중환(李承姝1690~?)이 쓴 택리자(擇用志)에는 오산(鰲山)이란 지명이 나오고 오 산장(場)이 3일과 8일(당시엔 당연히 음력 사용)에 열린다는 기록이 나온다.
- 1789년-정조(正祖) 13년에 간행된 수원부읍지의 산천조에 오매(烏梅)천으로 기록 되어 있다.
- 1793년-수원부읍지에서도 오매(烏梅)천으로 기록되어 있다.
- 1800~1834년~순조(純祖) 때에 발간된 여지도(輿地間)에는 오천(烏川)으로 기록되었다.
- 1831년-순조 31년에 간행된 화성지(華城誌)에서는 오매(烏梅)천으로 표기되었다.
- 1834년-김정호(金正浩)가 그린 청구도(青邱陽)에서는 토법(英汎)천으로 표기되었는데 여기 서 토(先)는 예전에 오(島)와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1835년-위의 청구도와 마찬가지로 김정호가 쓴 청구요람(青邱要覽)에서는 토현(原峴)천으로 표기 되어 있다.
- 1910년~사선읍자(私選邑誌) 영인본, 경기도편 산천조에 오매천(乌梅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재부남 40리 청호면(在府南四十里暗湖面)이라 나온다.

또 이곳에서 보듯이 오산이 오산(鳥山), 오산(鰲山), 오매(烏梅), 오천(烏川), 토현(英朝) 등으로 달리 표기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682년 이전에 제작된 「동여비고」」 예 의하면 「백제강역북변지도」에서 지금의 오산천을 고산천 (祗山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산천의 '¬'이 탈락됐다고 유추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산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오산 지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자의 뜻품이가 많다는 사 성이다. 그러면 『오산시사』에 기록된 오산(烏山)의 이원(語源)을 보도록 하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전에 오산 지역에 까마귀가 많았다하여 불여진 오산(瓜)山), 오산 지역이 예전에는 서해안파 가까워 오산천으로 바닷물이 올라오는 큰 내(川)였고 이 냇가에 큰 자라(幾)가 많아 오산(幾山)으 로 불렀다는 설도 있으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한자로 적으면서 오산(瓜山)으로 썼다는 설도 있 고, 오산 동쪽에 동탄면 오산(紐山)리가 있는데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역명(原名)을 정할 때 오

^{9) 『}오산시사 1권』에서는 고산점을 오산천으로 보고 있으나, 『오산의 역사와 독산성』에서 염종삼은 황구지천으로 보고있다.

산(公山)으로 쓰게 되었다는 설도 전한다. 그러나 오(鳥)자는 고대 삼국시대부터 지명표기자(地名 表記字)로 흔히 쓰여진 글자이며, 산은 '미'를 '뫼'의 변화로 보고 고쳤던 것이라는 추정이다. 오산의 연세 드신 노인들은 지금도 '오산장(鳥山場)'을 '오미장'이라 부르고 있으며, 멀리 외판 산(念山) 있어 '외미' '오미' 또는 '오산'이라 불렀다는 설도 전한다. 언어학적으로 오(烏)자의 음(音)은 '오'로 '누로'의 '오'음차(音信)이다. '산'은 '뫼'의 훈차(調情)이다. 따라서 오산은 '오'과 라고 할 수 있다. 오산의 오(烏)는 중세 국어의 '돌·돗·동'과 같은 뜻으로 통한다. 그리고 오(烏)자는 중세 국어에서 '외따로'혹은 '홀로'라는 뜻의 고(孤)로 쓰여졌으며, 따라서 '오'는 '고'의 'ㄱ' 탈락으로 분천되었다는 학설도 있다. 그러므로 오산(烏山)은 고산(孤山)에서 변화하여 오산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학설로서, 다시 말하면 종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독산(爰山 혹은 禿城山)을 삼정하면서 오산(吳山)이란 자명이 붙여진 것"

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앞에 언급했듯이 오산(鳥山)이라는 지명은 오산(鳥山)에만 국한된 지병 은 아니다. 그 역사성도 깊다.

3. 오산(烏山)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지명의 전국 분포 현황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은 오산시(烏山市)에반 국한된 병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땅이름이다. 국립지리원에서 편집한 저도와 한글학회서 펴낸 '한국자명총람, 18권을 토대로 조사한 이제 재(李葆平, 향토사학자)의 烏山의 地名考™에 의하면 烏山이라는 지명으로 된 취락이 21개, 산이 5 개였으며 鰲山이라는 지명으로 된 취락은 16개, 산과 들과 골짜기가 10개였다. 또한 五山으로 표기된 취락이 22개, 산이 1개, 梧山으로 된 취락은 23개이나 산은 없었고 五美로 부르는 취락도 12 개, 산과 들은 4개로 烏山과 동의어인 지명이 무려 114개나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자인 烏山(까마귀 오)이 鰲山(자라 오), 五山(다섯 오), 梧山(오동나무 오), 吾山(땅이름 오), 五美, 五味, 烏味, 鰲尾, 梧尾, 烏梅(백화나무 메)와 혼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우리말로는 오미, 외미, 오무, 오메, 오신, 가막신, 까막신, 자라괴, 개목, 개목과 끝이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안별로 오산이라는 지명의 전국 분포를 알아본다.

¹⁰⁾ 鳥山의 地名孝:이제재, 「오산의 뿌리를 찾아서」, 오산문화원, 1996.

1) 鳥山

1) 중원군 상모면 온천리 鳥山洞

수안보 서북쪽의 3번 국도변 석문천가에 동쪽을 향하여 이룩된 마을로 오미라고도 한다.

2) 청원군 옥산면 爲山里(오미)

산이 외따로 있으므로 또는 들 가운데 작고 둥근 동산이 있으므로 오미 또는 오산이라 하였다고 하며, 이곳에 있는 시장을 오미장터라고 한다. 미호천과 병천 천사이 낮은 곳에 형성된 취락이다.

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烏山洞

오석천(烏石川) 밑 백마강 지류 낮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④ 광산군 임곡면 鳥山里

황룡강가 낮은 지대에 있으며, 본래는 합평군 烏山面사무소가 있었던 곳이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임곡면 烏山里가 되었다.

5) 완도군 소안면 미라산 烏山

부흥 앞에 있는 산으로 까막산이라 한다.

6)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爲山마을

옥천천가 월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까막산이라고도 부른다.

7) 해남군 북평면 烏山里

완도를 바라보는 육지 끝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음으로 가막산이라고도 부른다.

8) 이천군 백사면 鳥山

내촌리, 조읍리, 현방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오미라고도 한다.

9) 鳥山市 鳥山洞

오산천가 들판(鰲山坪)¹⁰에 발달한 마음로, 조선조 중엽부터 梧英場 또는 廢山으로 통용되어 왔으니, 그것은 이 지역이 매우 낮아서 바다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큰 자라오(簽) 자름 쓰기도 하였는대, 한일합방 후 일본인들이 蘇자의 번거로움을 괴하고, 당시 타지방보다 유난 히 까마귀가 많았으므로 용비으로 바꿔 썼다고 한다.¹⁰ 멀리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 또는 외미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오산장을 오미장터라고도 한다. 爲의 簽章 때에 따라 혼용하고 있음을 본다.

10) 부여군 양화면 송정리와 충화면 가화리 경계에 있는 외딴 산

양 리의 경계에 있는 외딴 산임으로 鳥山이라 부른다 하며, 높이는 210m이다.

¹¹⁾ 草城間里誌의 関里圖

¹²⁾ 京畿道, 『地名山來集』,1987.

11) 부여군 능산리와 염창리에 걸쳐 있는 오산

백제 때 신령한 사람이 살아서 3령 산의 하나가 되었다. 높이 160m 일명 烏石山이다.

12)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烏山동

爲樓山 밑이며, 서해로 빠지는 많은 하천가에 이룩된 마을이다.

13) 천원군 북면 사담리 爲山마을

앞에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 라고도 부르며, 병천천에 임해 있다.

14)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烏山마을

爲山 밑에 있으며, 동해에 입한 해변가 마음이다.

15) 울진군 원남면 烏山里

동해안가 낮은 곳에 있는 마을로, 오천동과 초산동을 병합하여 만 든 지명이다.

16) 거창군 능양면 간기리 烏山마을

황강천과 계수천 사이 간기지가의 마을로 '오무' 라고도 부른다.

17) 고성군 상리면 爲山里

오두산 밑이 되므로 인산이라 하였으며, 동산천과 상동천의 함류 지점에 취락이 형성되었다.

18)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烏山마을

낙동강 상류 하천가에 있는 마을

19) 협천군 대양리 烏山里

'오미' 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 하천가에 형성된 취락이다.

20) 협청군 대병면 택평리 烏山

가무지 동쪽에 있는 산이다

21) 남원군 송동면 연산리 鳥山마읔

蓼川가에 이룩된 연산리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22) 나주군 다도면 烏山里

나주군 다도면 오산리에 오산마을이 있었으나 현재는 나주호에 잠기었다.

23) 여주군 쌍봉면 해산리 鳥山마을

鉴由 밑에 있는 마을이나, 그 마을 이름에는 息 자를 써서 혼용하는 것 같다.

24) 영광군 군남면 오동리 鳥山마을

오동리 냇가 건너 북쪽이 있는 마을.

25)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鳥山마음

6)번과 같은 송석리에 있는 마을로 '까막산' 마을과 연해 있으며 '월산리' 라고도 한다.

26)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烏山마을 옥천가가 거오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영해동이라고도 한다.

2) 核山

1) 논산군 성동면 삼호리 鰲山마을

급강으로 흐르는 논산천과 황화천가 화정들 하천가에 형성된 마을이며, 오미(산 이름) 밀에 있 이 오미라고도 부른다.

2)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赘dr마읔

황강천가 吾山(산이름)에 있는 마을이다. 茲와 吾를 같이 쓰고 있다.

3) 밀양군 상남면 외산리 鰲山마을

낙동강변 오산벌의 중심인 마을로, 들 가운데 외딴 작은 산으로 되었음으로 오미라고도 부른다.

4) 완주군 고산면 五山里 赘山

여기서도 五山과 鰲山을 같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전주시 호성동 鰲山마을

소양천으로 빠지는 하천가에 있는 마을로, 자라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며, 오메라고도 부른다. 또 한 같은 호성동의 오메 서남쪽 백석 저수지가에는 吾由, 梧山으로 쓰여지는 마을이 있고, 오메 남 쪽에는 五山 또는 새터라는 마을이 있다. 즉 競山, 오메, 吾山, 梧山, 五山이 동의이임을 알 수 있다.

6) 鳥山市 鳥山洞 鰲山坪

*鳥山의 9)번 참조

7) 화성군 동탄면 梧山리 赘山

鳥山과 동의어인 지명

8) 밀양군 청도면 구기리

하천가 틀판에 있는 마음이다.

9) 울주군 농소면 천곡리 赞山谷

자라 모양을 한 골짜기이다.

10) 울주군 상북면 결천리 鰲山마을

태화강가 들판에 있는 마을로, 들 가운데 있는 吾山 밑에 있다.

여기서도 같은 고장의 마음은 蓋山으로, 산은 吾山을 쓰고 있다.

11) 고창군 부안면 整山里

점소만으로 흐르는 하천가에 상오산, 하오산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오밋등' (오산 뒤에 있는 동성이로 자라모양으로 되었다고 한다) 밑에 있으므로 鰲山이라하였다.

12) 고창군 성내면 용교리 黎山마을

하천가에 있는 마을이며, 지형이 자라모양이라 한다.

13) 김제군 금구면 오봉리 鰲山마을

상월천 상류 하천가에 있는 마을로, 앞에 '자라되'가 있다.

14)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鰲山

두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15)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鰲山

같은 고장의 오산마을 뒤쪽에 있는 산으로, 發山으로 쓰고 있다.

16) 옥구군 옥구읍 선제리 鰲山마을

선제평야에 있는 마을로 '자라메' 라고도 하며, 그것은 자라형으로된 '자라메' 라는 산이 있기 때문이다

17)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鞍山마을

자천 상류에 있는 마을로, 五山이라고 쓰이기도 한다.

18)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鰲山마을

섬진강으로 빠지는 금강 상류 하천가의 명산리에서 제일 큰 마을로, 자라같이 생겼다고 한다.

19) 광산군 하남면 鰲山里

극락강으로 호르는 하천가의 취락으로, 사방에 크고 작은 자수지가 많으며, 지형이 계처럼 생겨서 오산이란 지명 외에 기재, 게채, 거치, 구촌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20) 광산군 평동면 용곡리 攀山

등글고 작은 산으로 '오미봉' '음봉' 이라고도 하니, 여기서도 순수한 우리 말인 '오미'가 鰲山 으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21)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鰲山洞

오례천 상류 하천가의 마을이다.

22) 신안군 지도읍 방축리 鰲山洞

갯가 마을로 개목, 개묵이라고도 하니 개목, 개묵과 鰲山의 관계를 알 수 있다.

23) 장성군 북일면 鰲山里

개천가에 있는 마을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장성의 옛이름 鰲山을 따서 이름지었다.

24) 여주시 쌍봉면 해산리 鰲山

해지 동쪽에 있는 산으로,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지었다.

25) 화순군 동면 禁山

마산리, 청궁리와 이서면 서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자라바위가 있 다. 높이는 593m이다.

26) 화성시 동탄면 梧山里 黎山

息山과 동의어인 지명

3) 五山

1)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五山마을

광천읍을 거쳐 바다로 탁지는 홍동저수지가에 있으며, 오미, 윗오미 부탁을 이루고 梧尾라 쓰기 도 한다. 외딴 산이 있다.

2) 옥구군 옥구읍 옥봇리 五山村

서해에 입한 옥봉평야에 오산촌, 상오산 등 마을을 이루고 있다.

3) 완주군 고산면 五山里

뒷산이 다섯봉우리이므로 오매 또는 鰲山이라고도 하는 마을이다. 즉 오매, 五山, 鰲山을 같이 쓰는 마음이다.

4) 익산군 五山面 五山里

만경강에 임한 五山평야의 중심지로 탑천의 상류이다. 五山, 元五山, 西五山이 마운이 있다. 산이 자라처럼 생겨서 오산이라 하였는데 鰲가 아닌 五를 쓰고 있다.

5) 여주군 가남면 五山里

양화천과 안금천의 합류지점인 들판에 있으며, 마을 앞에 동그란 외딴 산이 있으므로 五美라고 도 한다.

6) 제원군 청풍면 伍山里

다섯 봉우리가 둘러있는 안쪽이 되므로 '오미' '오매' 마을로도 불렀으나, 지금은 일부가 중주 호에 잠기었다.

7) 예산군 신암면 五山里

무한천에 이르는 하천가 마을이다.

8) 청양군 목면 화양리 五山마을

금강으로 흐르는 하천가 들 가운데 이룬 마을이다.

9) 남원군 아영면 원산리 五山마음

10) 무주군 무주유 吾山里

무주읍을 관통하는 납대천가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무' 마을 이라고도 한다.

11) 완주군 조촌면 성덕리(五山里)

남쪽 평야에 있는 마음로, 뒷산이 자라 같다하여 이름지었는데 藏자가 아닌 五자를 쓰고 있 는 정으로 보아 같이 혼용됨음 알 수 있다.

12) 익산군 옥관면 동촌리 Tul마음

옥관천과 부상천 사이 저지대의 마을로 '자라뫼' 라고도 한다.

13) 익산군 성라면 신목리 五山마을

금강에 입한 돌판에 있으며, 마을모양이 지네같다고 한다.

14) 장수군 산서면 五山里

거수천으로 흐르는 하천가 들판에 있으며, 오봉산 밑이 되므로 오산이라 하였다.

15) 정읍군 북면 남산리 吾山마을

한교천가에 있으며, 뒷산이 자라갈다하여 오산이라 하였는데, 鬚가 아닌 품자를 써 혼용하고 있다

16)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五山마음

섬진강변 들판에 있는 마을로, 갈산이라고도 한다.

17)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五山들

영산강에 임한 신곡리와 중포리에 걸쳐 있는 넓은 들이다.

18) 승주군 상사면 오곡리 五山마을

이사천으로 흐르는 하천가에 있으며, 서촌이라고도 한다.

19) 승주군 주양면 五山里

보성강으로 호르는 하천가에 있으며, 모양이 자라처럼 생겼으므로 '자라뫼'라 하였는데 鰲가 아닌 五자를 쓰고 있다.

20) 신안군 암태면 기동리 五山마을

기동 동북쪽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다섯 봉우리 밑이 된다.

21)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Tali마을

다섯 봇우리 믿어 되므로, 오산 또는 오상이라 하였다.

22) 영암군 군서면 아정리 五山마을

후미진 골짜기 안이 되므로, 오금실, 五山, 蜈山으로도 쓰인다.

23) 전도군 고군면 五山里

마로해로 들어가는 하천가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 라고도 한다.

4) 梧山

1)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梧山洞

초강천 상류 들관에 있으며, 전에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2) 음성군 대소면 梧山里

미호천가에 있으며,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미라고도 한다.

3) 논산군 양촌면 梧山里

사방에 높은 산이 둘러있는 가운데 장선천 상규 낮은 곳에 있으므로, 오미 또는 疑비이라고도하 며, 상오산, 오미마을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도 오미, 標, 嶽자를 동의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양주군 백석면 梧山里

의딴 산이 있음으로 오미라고도 부르며, 고산(孤山)이라고도 한다. 孤와 爲가 동의어¹⁹이며 여기서는 孤와 梧물 같이 썼음으로 孤. 烏. 悟의 어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5) 안성군 금광면 梧山里

서운산에서 발원하여 안성천으로 흐르는 하천가 취락이며, 외딴 산이 있음으로 梧美라고도 한다.

6) 화성군 동탄면 梧山里

오산천 상류인 꼬리 쪽에 형성된 취락이므로 우리의 고유어로 오미라고도 불렀다. 또한 자라처럼 생긴 산이 있음으로 자라메 또는 簽屆라고도 쓴다. 그리고 오미 동쪽에는 자라메라 하여 簽山이라고 쓰는, 높이 73, Im의 산이 있다. 같은 고장의 마을은 梧山이고 산은 禁山으로 필요에 따라 쓰고 있으나, 말이 생겨난 밀뿌리는 같은 것이다. 또 다른 설로는 등수지리선에 의한 명당자리가 있는 5개의 산(주공산, 미록산, 왕배산, 가마산, 마당산)이 있어 오믜(五山)로 불리었다 하며, 그 중 자라 모습을 한 산도 있다 하여 구오믜(龜五山)로도 부르다가 구오산(舊福山)이 되고, 다시 福山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7)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梧山마을

미워천가에 있으며 전에 오동나무가 많았으므로 借山 또는 '오미' 라고도 하여, 혼용하고 있다.

8) 영양군 수비면 수비리 梧山마을

장수포천가에 있으며, 고유한 우리말로 '오무' 라고도 부르고 있다.

9) 영천군 화북면 梧山里

화북천가에 있다

¹³⁾ 문헌상 오산(烏山)지명을 나타내는 기록 참조.

¹⁴⁾ 京談道, '地名由来华, 1987.

- 10) 의성군 봉양면 삼산리 梧山마을
- 쌍계천가에 있으며 '가단' 이라고도 한다.
- 11) 칠곡군 지천면 梧山里

금호강으로 빠지는 하천가에 있다.

12) 청도군 각북면 梧山里

각북천가에 있는 동, 리이다.

13) 논산군 연산면 梧山里

연산천가 사감들에 있으나, 鰲龜山이 있으므로 五口味 또는 龜山 이라고도 한다.

14)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오미마을

아산만으로 흐르는 남원천가, 둘판에 있는 상오리에서 가장 큰 마을을 '오미' 라고 부르고 있음 에 유의하여야 되겠다.

15) 함양군 서상면 대납리 梧山洞

남계천 상류 들판의 칠형정 등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오무' 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梧山洞

만경강에 임한 대야들 안의 산월라에서 가장 큰 마을이 梧山洞이나, 梧山 뒤쪽에 있는 산은 鰲山으로 표기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17) 임실군 둔남면 梧山里

거수천으로 빠지는 하천가에 있다.

18) 익산군 춘포면 梧山里

옥통천가에 있으며, 마을 앞에 만경강 제병이 있다. 외면 신이 있으므로 오신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19) 곡성군 梧山里

곡성군 1읍 10면의 하나로, 면 중앙에 옥과천이 흐르고 있다.

20)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梧山마을

중암강 상류 들판에 있으며, 오동나무가 많다고 한다.

21) 장흥군 장평면 봉립리 梧山마을

보성강 상류이며, 오산(까막산) 믿이다.

22) 횟성군 공근면 梧山里 오미마을

금계천가에 있으며, 중심 되는 마을을 '오미' 라고도 한다.

23) 파주군 조리면 梧山里

梧山洞과 전지산(전지미, 황새말) 마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5) 五美. 五味

1) 제원군 봉양면 봉양리 오미마을

고포천가에 있으며 오산이라고도 한다.

2) 진천군 이월면 삼룡리 五美山

들 가운데 외따로 있어 오미라고 하였다.

3) 영천시 五味洞

금호강으로 흐르는 고현천가의 마을이 외진 산머리에 있음으로 외머리 또는 오미라고 하였다.

4) 익산군 랑산면 삼담리 五美마을

부곡천가에 있으며, 샘이 다섯인데 물맛이 좋아 五美라 하였으니 五味와 같은 말이다.

5) 제원군 봉양면 봉양리 오미산

들 가운데 있는 산의 이름도 '오미' 이다.

6) 제원군 송학면 오미리 오미마을

주천강으로 들어가는 하천가이며, 오미자가 많이 났으므로 '오미' 라고 이름지었다.

7)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오미마음

미호천으로 흐르는 하천가이며, 앞에 낮은 산이 있어 '오미' 또는 옥산이라고 한다.

8)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오미마음

보강천가 들판에, 외딴 산이 있어 '오미' 라고 하였다.

9) 논산군 성동면 삼호리 오미산

논산천가에 있으며, 모양이 자라같이 생겨 '오미' 산이라 한다.

10) 서산시 오남면 吾美마을

서해로 들어가는 천수만에 임한 마을이다.

11) 안동군 풋산을 五美里

낙동강으로 빠지는 풍산평야에 임한 마을로, 한때 이곳에서 다섯형제가 한꺼번에 과거에 합격 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하여 五英라는 동네 이름을 지었다 한다.

12) 진양군 명석면 五美里

남해로 들어가는 진양호에 인접하여 있으며 '오무' '吾山' 이라고도 한다.

13) 구례군 토지면 五美里

섬진강으로 흐르는 하천가 들 가운데 작고 등근산이 있으므로 오미동이라 하겠다.

14) 양구군 방산면 五味里

파로호로 흐르는 수입천가 낮은 곳에 위치한 마음이다.

15) 북제주군 구좌읍 서금영리 오미들

영등굴 북쪽에 있는 들이다.

16) 이천군 마장면 관리 午味마을

관리천가 비옥한 농토를 앞에 둔 마을로 '午山' 마을 이라고도 한다.

위의 114개의 지명을 분석해보면, 첫째, 공통적으로 하천가나, 낮은 지대 또는 들에 형성된 취락으로 오산, 오미라 이름 지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서해로 흐르는 강가 마음이나 뜰 또는 산이 68로 제일 많고, 남해 34, 동해 3, 기타 9의 순이며, 도벌로 보면 전라도 55, 충청도 25, 경상도 21, 경기도 10, 강원도 2, 제주도 1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極째, 재미있는 것은 烏山이란 지명이 26인데, 鰲山도 26이었으며, 橋山은 23으로 五山과 같았다. 그리고 오미는 16이니, 이것은 오산이 지명에서 함께 쓰고 있었음으로 중복을 피하여 주로 쓰는 지명 하나만 택했기 때문이다. 즉 烏, 鰲, 梧, 吾, 五자를 동의이로 쓰고 있었으며 고유한 우리말인 오미도 외미, 오무, 오매, 오믜, 외믜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한자로는 五美, 吾美, 五美, 烏珠, 鳥 栋, 藝尾, 格尾로 표기되고 있었음도 알았다.

4. 부산(釜山)이 오산(烏山)으로 지명 변화

문헌적 근거가 없다시피 하는 오산의 어원 찾기는 한마디로 모래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 그럼에 도 앞에 기술된 내용을 참조해 오산의 어원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생각은 오산의 어원은 부산(釜山)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본다. 문헌상 가장 오래된 지병이며 부산(釜山)은 현재의 부산동(釜山河)으로서 행정구역상 바로 옆에 붙여진 오산동(烏山河)과 잔은 곳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한 덩어리 지역으로 불수 있다. 현재의 오산시(烏山市)는 오산동의 오산(烏山)의 확대 지병이다. 다시 말하면 오산동(리)의 오산(烏山)을 시(市) 전체로 확대 한 것이 오산시(烏山市)이기 때문이다. 부산(釜山)이 오산(烏山)에서는 가장 오래된 지병이고 이 부산(釜山)이 오산(烏山)으로 변화했다는 항로사학자 입중삼의 기곡들에 나타나는

"우리 고장 오산(鳥山)을 가리키는 최초의 지명은 부산(釜山)"이었다.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 부산(釜山)과 그 의미가 유사한 오산(鳥山)으로 변경되었다. 가마 부(釜)와 검을 오(鳥)가 공통으로 갖는 한자의 의미는 검을 寫(黑)"이다."



운암들 : 일부 농경지로 남아 있는 운암들 동쪽 편, 누런 벌판에 검뚜른 부산동 산들이 보인다.

이 철을 필자는 지지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가 없었다면 오산시(烏山市) 가 부산시(釜山市)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본다. 부산광역시(釜山廣域市)가 있었기에 부산광역 시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오산시(烏山市)로 명명하지 않았은까 생각도 든다는 말이다. 일래로 광 주광역시(光州廣域市)가 있으므로 경기도 광주(廣州)는 한자 표기로는 달라도 한글 음이 같아 광 주시하면 경기도 광주시와 이웃하고 있는 경기도 사람들까지도 전라도 광주광역시를 떠올라게 된 다. 이러한 이름 짓기는 결과적으로 잘못지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가마되의 한자화한 지명인 부산(釜山)과 오산(烏山)의 공통적인 의미는 검다는 것이다. 검다는 것은 고대에서는 신성을 상징한 색이다. 그것은 감은 새인 까마귀의 상징성에서도 볼 수 있다. 고 구려의 삼족오가 그러한 에이다. 세발 달린 까마귀는 고구려의 자배자가 천손족임을 상징한 것으로 태양 안에 그려진 삼족오(세발 달린 까마귀)는 신성한 새였던 것이다.

"해 속에 보이는 삼족오는 단순한 까마귀가 아니라 상서로움을 주는 서조(瑞萬)의 상징이며, 나중 에는 주작이나 봉황으로 바뀌어 우리 역사에 나타난다. 이러한 삼족오의 일상문(日泉文)은 고구 려 이후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서도 보이며, 현재 대통령 문장(紋葉)과 국새 장식에도 사용되면

^{15 &#}x27;삼두자가, 권 제24 백제본가 제2 고이랑 5년(23년) 2월조에 '왕은 부산(釜山)에서 사냥하고 50일 만에 서운로 돕아 왔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부산을 탁자들 대부분은 권위(武蔵)현 부산으로 해석한다. 16 漢 가마, 숍, 참다. 요 까마귀, 참다.

서 면면이 이어져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맹금류에 속하는 까마귀는 긴 부리와 가는 목을 지난 물새와 함께 속대에 올려지는 새이기도 하다. " 10

이러한 한민족의 문화 계통성과 문화 공동체 인식을 고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까마귀는 우리 한민족에게는 보통 새가 아닌 한민족을 상정하는 새인 것이다.

삼국시대에 가마의로 불린 釜山이 행정구역이 변하면서 지명의 변화도 초래해 유사한 뜻의 烏山(오산)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당시엔 까마귀도 많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면서 검다는 상징 성과 까마귀가 어우러져 오산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현재 오산동의 2~30년 전반 해도 오산동은 장 마가 지면 물에 곧잘 잠겼고 1950년대만 해도 오산에 까마귀가 많이 날고 있었음을 문학작품 속에 서도 볼 수 있고, 심지로 까마귀를 보았다는 나이 드신 분들은 중연하고 있다.

> "문헌상 고려 후기에 가막산, 가막뫼, 까막뫼로 불린 烏山, 이 낱말(烏山)의 뜻은 '까마귀 시는 산'이 아니고 '으뜸, 높다, 신성하다는 뜻을 가진'이라는 뜻의 옛말에서 나온 땅 이름이다. 가막, 까막을 소리로 옮겨 적은 것이 한자로 된 加롯이며 혼(뜻)으로 옮겨 적은 것이 烏이다. 그러므로 한자 烏(까마귀)만을 의식하는 것은 참다운 유래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鳥의 의미에서 겁다는 상징성과 까마귀의 상징성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오산(鳥山)에 까마귀 서식

오산(烏山)은 인구와 면적이 그리 많지 않고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며, 다른 지자체보다 범죄가 적고 교통이 편리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들어 인구가 팽창하고, 젊은 가정이 늘어나고 오산(烏山)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오산시(烏山市)의 이름인 오산(烏山)에 대해 많은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다. 문제는 오산시(烏山市)의 오자가 까마귀 오자(烏)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홍조(因鳥)로 취급되고 있는 까마귀 오자(烏)를 버리고 다른 오자로 대체하자는 말들이 퍼지고 있는 중이다. 허나 이러한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는 오산에 까마귀를 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까마귀 없는 오산이 잘못 지어진 시(市) 명칭 아니냐하는 얘기도 한다. 굳이 홍조로 취급되는 까마귀 오자(烏)가 오산시(烏山市)의 이미지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른 말로 시 명칭을 바뀌야 되는 것 아

¹⁷⁾ 김주미, 「한민측과 해 속의 삼족오」, 학연문화사, 2010.18) 國立地理院, 「地名由來報」, 1987.

니냐 하는 걱정 어린 충정이다. 그래서 필지는 오산에 까마귀가 살았다는 문헌적 근거와 중언을 알 더주고자 한다

용인시 남사면 출생으로서 오산중 교사(1951~1954)와 오산고 교사(1954~1959), 경성농업대학 조교수, 서울시립 산업대학 교수를 역임한 수평가 구건(具班, 1920~1975)의 작품 중에서 오산에 서 까마귀를 보고 작품에 반영한 시 한 평음 감상한다

「까마귀 날던 때」」

산발머리 양버들 울타리로 싸이어 검은 양철지봉 큰 도수광간이 윗동네 한복판애 홀로 섰을 때 무너진 콘크리트 큰 다리가 통나무 기둥 다리이었고 오산내 그 물이 섬독가에 얼어봅고 그 큰 쇠장이 섬독 거리에 섰을 때 검푸른 하늘 흰 눈법판 위를 시커민 까마귀 떼가 까옥까옥 날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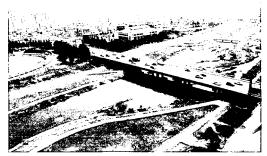
한여름 몇 번 장마 볽당물로 싸이어 시달래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사과발 심 속에 오똑 섰을 때 새탓말 새 학교 터가 똥집 사과반이었고 밀머리는 장마물로 바다가 되고 사과 배 뽕밥이 설 안에 있었을 때 궂은 하늘 볽당돌 위를 시커민 까다귀 떼가 까옥까옥 남았었다

^{19) 「}오산시사 3권」, 오산시사핀찬위원회, 2009.

남촌 사과반 열매가 석양에 익고 양장점 누에가 비단 집 지을 때 곳곳 메가리간엔 소로 마차로 벼가마가 산에 산을 이루었고 오산내 넓은 모래반엔 비명석이 깔리고 그 큰 가마장이 아랫장에 섰을 때 누런 비 명석 위엔 검은 까마귀 떼가 훤칠 날아들었다

박동 박후작(朴族語)집 복사발 개나리 노랗게 피고 보리발 위 창공에 종다리 솟구철 때 곳곳 앞뒤 도랑엔 맑은 불이 흘러 피라미 붕어때 때에 때를 이루고 오산내 넓은 도래발엔 봇삼군이 몰리고 넓은 들 운암들에 햇모가 파아랄 때 아지랑이 봄 하늘엔 점은 까마귀 때가 짓궂게도 넘나들었다 궂은 날 장안날엔 까나귀 때는 도수장간 양비들 위에 우지져댔고 암산 화장터에 불꽃이 인날엔 천다리에서 까옥까옥 울어댔었다.

알궂은 홍조(凶島)는 간 테가 없고 까악까악 까옥 소린 시라졌건만 들고 날고 이십 년에 섭음만 느니 나 뛰늘된 날 옛날이 더욱 그립다.



(그림 5) 오산천과 오산동 : 오산동이 전면에 시원하게 먼치져 있다. 옛날에는 대개가 농정지였고, 도시화되기 전에는 장마 때 침수가 자주 되었다

구전 작가의 어린 시절엔 까마귀가 오산천과 운암들, 물에 잠긴 밀머리, 가마장, 박동, 산의 화장 터에도 날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오산천, 운암들, 암산, 밀미리, 박동 등은 부산동과 오산동, 원동, 권동을 포함하는 권역이다. 20년 후 홈조라는 까마귀는 간데없고 나이 들어 옛 추억을 반추하는 시인의 모습만이 보인다.

오산의 대표적 시인인 조석구 박사도 1940~1950년대에 오산의 논에 새까맣게 내려앉아 있는 까마귀 때를 자주 보았다고 하며, 1980년대에도 오산천에서 까마귀를 보았다는 오산의 시민을 필자가 직접 만나 보기도 하였다. 또, 필자의 절친한 선배는 2000년대 부산동의 마등산 등산료에서도 보았다며, 최근엔 선배의 부인이 2011년 4월 2일 편봉산 등산로 남쪽 입구에서 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필자와 우리 가족들도 2011년 4월 3일 한식 성묘 전에 원동 역말저수지 부근에서 까마귀를 보았고, 2011년 5월 29일에는 필봉산 맹공이 서식지 부근에서 보았다. 이 외에도 까마귀 끝보신 분들이 많다. 오산에는 까마귀가 없었다는 말은 장못된 말이 것이다.

6. 오산(鳥山)의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독

그러나 현재 까마귀가 흉조로 인식되고 있는 관계로 오산이라는 지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간간이 들린다. 이러한 홍조에 대한 선입건은 지명 해석에 있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피하려는 경향을 갖게 해 까마귀를 까마귀로 보지 못하고 대체 발음의 글자를 찾아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의 상징성을 찾아내 우리 오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훈조라는 비현실적이고, 비이 생적인 생각에 묶여 오산이라는 지명에 모욕을 가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수원(수주, 수성, 매홀)이 물과 관계된 도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난히 오산 에서만 오(烏)를 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식의 오류(까마귀는 흉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산(鳥山)의 지명은 고려 원종 때도 사용되었고, 조선시대 초기에도 오산원천(烏山院川), 오천 (岳川)등의 오산천 지명에서 보듯 이미 보편화된 지명인 것이다.

이 시대에 지금처럼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오산에 까마귀가 아무리 많았어도 지명으로 사용하진 않았을 것이다. 오(烏)를 오(烏)로 바라보지 못하는 확당한 일은 하지 받아야 할 것이다. 다시 정의하면, 오산(烏山)은 까마귀가 많고 산(山—구룡이지만, 오산 면적의 70%)이 많아 생긴 지 병을 가진 곳이다. 집조로 알려져 있던 까치나 비둘기가 현재 홍조로 인식되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라 생각된다. 홍조너 집조니 하는 분병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7. 까마귀의 상징성과 오산(烏山)의 의미



(그림 6) 까마귀: 평아, 산자, 농정자, 하원, 강 하구 또는 시가지 등에서 관산되며 꼭류, 파일은 물은 축은 통불의 사제나 살레기장 등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각종 곤충류 동도 먹는 참식성 조 류다. 한국 전역에 걸쳐 서식하는 호한 탓세. (사 전: 국가생물통지식정보시스템)

고대에 까마귀는 천손을 상징하는 신성한 새였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삼족오가 그러한 예다.

생발 달런 까마귀는 고구려의 지배자가 천손 족임을 상징한 것으로 태양 안에 그려진 삼족오(새발 달린 까 마귀)는 신성한 새였던 것이다. 또 삼한시대 솟대의 세 마리 새중 한 마리는 까마귀였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 하는 신성한 새였다. 반포라는 말의 유래도 까마귀의 어미를 돌보는 습성에서 생겼다. 까마귀는 지혜가 많 은 새로도 알려져 있고, 반포는 바로 부모에게 효를 행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까마귀는 맹금류로 분류되므로 용맹성도 갖추고 있다. "삼국유사」"시금갑 조」에 까마귀가 신라 소지왕을 인도하여 궁주와 내전 에서 향을 사르는 중이 간통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 처 단케 해 충(忠)을 다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또, 오(為)는 검다는 뜻도 갖고 있다. 고대에 검은 색은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다. 산(山)도 위로 하늘과 통하고 아래로 세상과 연결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성으로 통하고, 이 모든 상징성을 오산의 어원에 적용하면 오산이라는 지명은 성(聖)과 충(忠)과 효(孝), 지혜(智慧) 그리고 유맹(勇猛)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8. 오산의 시조(市鳥)를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야 하는 이유

이상에서도 보듯이 대체적으로 까마귀는 고대에는 신청스럽고, 영리하고, 까마귀가 많은 지역 은 그만큼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까마귀나 까치는 모두 농사에 유익한 익조(인간에게 유용한 이익을 주는 세)이다. 농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허긴 요즈음 까치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전기 사고를 낸다든지 과수원에 과일을 쪼아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건로 봐선 이제는 결조에 서 홍조화 필 요소를 갖고 있다. 결국은 도시화 되면서 먹이를 얻지 못해 인간 근치에서 머물 수밖 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지에 터 잡고 사는 조류는 인간에게 피해를 중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다.

우리에게 한 때는 친근하고 유익한 새로 알려져 있던 까치와 비뜐기도 '조수보호 및 수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까치는 2001년, 비둘기는 2009년 인명이나 항공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 동북로 지정됐다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9곳이 비둘기를 상징 새로 지정했으며, 안성시 등 9 개 시, 군이 까치를, 가평과 하남 등 3개 시군이 꿩을, 평택시 등 3개 시, 군은 백로를 각각 상징 새로 정해 놓고 있다. 부천시는 보라매, 동두천시는 화광새, 남양주시는 크낙세, 광주시는 재비를 상징 새로 하고 있다.

이중 우리에게 가장 천근감을 주었던 까치와 비듬기가 상징 새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상징 새를 천연기념문 제361호인 노랑부리백로로 변경했다. 수원시도 2000년에 비둘기에서 백로로 바꿨다. 경기도 외의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경복 김천시는 2009년 까치에서 왜가리로 변경했고, 경남 창원시도 2010년 까치에서 괭이갈때기로 바꾸는 등 전국의 지자체가 서식 환경이 바뀌어 홍조화 되어 가는 육지 조류를 바꾸고 있는 수세에 있다. 대체적으로 바다새와 물새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비둘기와 까치가 지자체 상징 새에서 잇따라 밀려나는 것은 전국 상당수의 지자체가 같은 새를 중복 지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유해조규로 재분류되면서 이미지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이다.

까치와 까마귀를 나누어 긴조니 홍조니 하지만 길조니 홍조니 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음의 시는 까마귀가 친근하게 인식된 것이다.

까마귀 눈비 맞아 최는 듯 검노때라 야광명원이야 밤인들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원 줄이 있으라. '박팬난(대종7년, 1417- 세조2년, 1456)

까마귀를 흉조로 보는 시각이 문헌상 나타난 것은 오산에선 1753년 鰲山川으로 烏山川을 표시 한²³ 이 무렵부터이고, 나라 전체로선 작자, 시대 미상의 다음 시가 대표적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창파에 조희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20

문학 작품들에서 홍조로 묘사되며 조선(중 9후기부터 현재까지 근거 없는 홍조화로 상정성이 변화된 것이다. 문학적 수사로서 왜곡된 예는 많다. 일레를 들어본다면 백제의 의자왕이 3천 궁녀를 거느렀다는 터무니없는 말과 다름 아니다. 백제의 도성인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을 둘러보아도 궁녀만 3천명이 살 만한 성은 아닌 것이다. 문학적으로 강조한 수치와 상징적 표현이 이런 나쁜 역사석 사고통 유방한 것이다

원자는 1700년대 이후 오산(鰲山), 오매(烏椒), 토범(養訊), 토런(養熙)이라는 오산 대체 지명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홍조로 의미가 전환된 烏(까마귀)를 피하기 위해 지명에 불인 결로 판 단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근거도 없이 앞선 세대로부터 까마귀는 홍조라 듣고는 우리도 생각 없 이 홍조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산의 역사성을 모르고, 홍조화된 까마귀의 인식 등이 오산 (烏山)에 대한 당연한 믿음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산(釜山)에서 오산(烏山)으로 명칭이 번 정된 시점에 까마귀 오(烏)로도 해석될 것이 분명한데도 오산이라는 지병을 사용한 것은 그 당시 까마귀가 홍조가 아니고 결조로 인석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산(烏山)이라

²⁰⁾ 문헌상 오산(鳥山)지역을 가리키는 기록 참조

²¹⁾ 이광식, 「우리엣시조 여행」, 가뭄기회, 2004. 이 자료에 따르면 정봉주의 어머니가 지은 것이라고도 하고, 연산군 때 경경구가 지었다는 설도 있다.

는 지명을 붙였겠는가? 오산이 까마귀와 관계된 도시라면 오산(烏山)의 시조(市島)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유해 조류로 분류되어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산이라는 지명이 까마귀에서 연유했기에 지명과 시의 상징 새를 일치시키자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뭔자는 오산의 시조를 까마귀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산이라는 지명의 뜻과 상징성과 이 미지가 하나로 통일되어 좋고, 의미도 크고 넓어서 멋진 캐릭터를 갖는다고 본다.

Ⅲ. 나가며

지금까지 오산(烏山)에 관한 것을 문헌과 자료, 중언 등으로 고찬해본 결과 오산은 까마귀와 관 개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산(烏山)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시점에도 까마귀가 존재했으 며, 유난히도 오산이라는 지역에 까마귀가 많았으리라는 것을 집작할 수 있겠다. 최소한 조선조 조기까진 까마귀는 길조(吉島)로 인식되었고 까마귀 島(오)자를 쓴 오산(烏山)은 자부십 가득한 지 명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오산에는 많은 까마귀가 서식됐다. 인근 황구지천이나 용인시 남사민에 가면 지금도 까마귀가 많이 서식한다. 인근엔 까마귀가 존재하는데 현재 오산엔 거의 보기 힘든 것은 오산이 도시화되면서 서식이 어려워져 인근으로 서식지를 옮겼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현재도 많지는 않지만 오산에도 까마귀가 서식하는 것을 될자는 직접 보고 확인한 바 있다. 오산은 까마귀 와 산의 고장이다. 우리 오산시민만이라도 오산(為山)이라는 지명에 궁지를 가져야겠다.

참고로 1941년 10월 1일 수원군 성호면이 수원군 오산(烏山)면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 8원 화성군 오산(烏山)면이 되었으며, 1960년 1월에 화성군 오산(烏山)음으로 승격되었다. 1989년 1월 1일에는 오산시(烏山市)가 되어 명실상부한 행정 주체로 발돋움 한 것이다. 오산의 지명을 바꾸려고 했으면 1949년부터라도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바꾸지 않고 오산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바로 오산의 역사와 전통과 합의를 궁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문제는 좋은 상정성을 오산(烏山)이라는 곳에서 찾아내 소중히 우리의 의식에 채우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니겠는가? 오산시면의 오산(烏山)에 대한 긍정적인 사랑만이 남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오산시사, 1, 3권』, (주)북멘토, 2009. 남정식, "오산역사문화』, 우리동네사람들, 2013. 임종삼, "오산의 역사와 독산성』, 오산문화원, 2007. 건부식, 신호열 약해, "삼국사기』, 동서문화사, 2007. 李珠潭, "韓國의 地名』, 태평양, 1986. (5山의 地名종·이제재, "오산의 뿌리를 찾아서』, 오산문화원, 1996. 京景通, "地名由米集」, 1987. 김주미, "한민국과 해 속의 삼독오」, 학연문화사, 2010. 恭城陽里懿의 陽里閣 國立地理院, "地名由米集」, 1987. 이광식, "우리엔시조 여행」, 가람기회, 2004. 사진, 남정식

도봉산 回龍寺 이야기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목 차	****	
Ι.	들어가면서			
1 2 3	전통사찰 회룡사 1. 창건이야기 2. 창건 이후의 회룡사 3. 사찰 연혁 4. 소장문화재 1) 지정문화재			
1	2) 성보문화재 춘추자전 계미자 복각; 1. 계미자 동환자본(癸; 2. 회룡사 제3판본의 구 3. 발문을 쓴 장유와 김	未字 銅活字 ・성		
v.:	고문헌에 보이는 회룡/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 부록-서작감정서 복사			

집필자

최 영 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I. 들어가면서

도봉산 회룡사는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의정부 대표적인 전통사한증의 한 곳이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은 물론 자료들이 전소(全焼)되어서 원상복구하는 데 부족하고 갑갑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1954년부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준스님에 의하여 복구가 시작되어 차츰 천각이 하나둘 들어서 개 되면서 사찰 가람이 완성되는 중이다. 회룡사가 예전에 어떤 규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옛기 목을 보고 상상해 보면 대단히 큰 규모의 사찰 이염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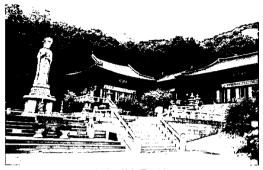
근간에 발견된 춘추좌진(春秋左傳, 70권 20책 진절)의 기록에 의하면, 1635년(인조 13년) 5월에 양주 도봉산 회룡사(回龍寺)에서 해제관본은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책 20책 말미에 장유(張維, 1587-1638)와 검옥(全事, 1580-1658)의 발문(數文)이 권말에 있어 간행(形行) 연대(年代)를 확실 최 증명해주고 있다. 서적을 간행할 정도의 건물과 노동력, 그 밖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갖추어 져야 할 정도의 가문라야 가능한 임이기 때문이다.

또한, 승정원일기(1880년)에서 보이는 회룡사는 어제(領題), 어필(御筆), 도서(圖書), 의장(儀仗) 읔 봉안하는 전각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근간에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중합하여 도봉산 회룡사 를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전통사참 회룡사

전통사활이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찬을 말한다. 또는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그리고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사찰 등으로 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도봉산 자락 회룡계곡에 놓인 다리를 건너 회룡사에 들어서면 전면 우측으로 회용사의 역사를 적어 놓은 사찰 안내관이 있다. 그 옆에 2기의 공덕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 언덕 양지 바른 곳 에는 같은 형태의 부도[송탑] 3기가 있다. 사찬입구 정면에는 선방(禪房)인 취선당(裝禪堂)과 요사



(그림 1도봉산 회룡사 전경)

채인 설화당(說話堂)이 나란히 위치해 있다.

관음도량 회룡사의 전자들은 모두 오층석탑을 증심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높은 기 단 위에 대응전은 동향으로, 극락보전과 삼성각은 남향으로 나란히 위치해 있다. 오층석탑 남쪽에 석조관음보살상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관음보살상과 인접하여 범종각이 남향으로 위치하고, 범종각 아래에는 석조가 있다

1. 창건이야기

도봉산 회룡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확대사에 얽힌 진설이 진해지는, 의정부 유서 깊은 사활 중의 하나이다. 절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라 때 초창되었다는 설과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는 두 가지 의 건해가 있다.

1977년 봉선사에서 발행한 '봉선사본발사약지(养先寺本末市瑞誌)』에는 절이 681년(신문왕 1) 의상(義謝에 의해 창건되어 법성사(法性寺)라 불렀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헌에서는 의상 이 도봉산에 법성사라는 절을 창건했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흔히 후대에 세워진 국내의 여 러 사원들이 의상이나 원효, 도선 등을 창건주로 받듣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찰의 유래가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사찰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듯하다. 회룡사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창건주를 신라 통일 초기의 고승인 의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의상의 창건 이후의 역사는 "봉선사본말사약지』에 의하면 930년(경순왕 4)에 동진(海眞)국사가 재창하고, 1070(문중 24)에 혜거(慧矩)국사가 3창하였으며, 1384년(우왕 10)에 무학대사가 4창하고, 1403년(태종 3)에 희룡사로 고쳐 불렀다고 되어 있다. 정을 제창하였다는 동진대사는 신라 말고려 초의 선종 승려로서, 그의 비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희룡사와의 관련 사실은 비문에 보이지 않는다.

고려 문종 때 절을 3창하였다는 해가(張姫) 역시 광종 때 영국사(寧國寺)¹⁰에 머문던 법안중 계통 의 승려로 짐작되고 있다. 광종 때의 해거국사가 회룡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절의 기목 에는 문종 때라고 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 회룡사와 관련된 무학대사 이전의 사 실은 모두 사찬의 기록 그대로를 믿기에는 망설여지는 면이 많다고 하겠다.

한편, 권상로"가 관찬한 〈한국사찰전서〉하권의 회룡사항에는 무확대사에 의하여 1364년(우왕 10) 또는 1395년(태조 4)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 초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 지송람3),권11의 양주목 불우(佛宇)조에 망원사, 영국사 등과 함께 도봉산에 있는 절로 나와 있어 무학대사에 의한 창건설이 더 신빙성을 갖는다고 불 수 있겠다. 전의 창건과 관련하여서는 태조 이 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즉 1398년(태조 7)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의 궁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있던 왕사 무확을 방문했다.

무학은 1394년에 정도전(鄭道傳)의 마음과 시기를 받아 이곳 토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때 태조의 방문을 받았다. 태조는 여기서 며칠을 머물렀고, 이에 전을 짓고는 임금이 환궁한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회룡이라 했다는 것이다. 이 아야기는 1881년(고종 18)에 승리 우송(友位)이 쓴 (회용사중창기)에 전하고 있다. 이와 연대는 달리하여 참흥에 내려가 있던 태조가 1403년(대중)에 환궁한 뒤 이곳에 있던 무학을 찾아 왔으므로 무확대시가 태조의 환궁을 기뻐하여 회룡사라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1384년(고려우왕 10)에 이곳 도봉산에서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창업성취를 위한 기도 를 했는데, 이성계는 지금의 석굴암에서, 무학은 산동성이 가까이 있는 무학군에서 각각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이성계가 동북면병마사 라는 직책을 맡고 요동으로 출전하자 무학은 홀로 남아 작은 전을 짓고 손수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의 영달을 축원했다고 한다. 그 뒤 왕위

¹⁾ 영국사 : 고려 시대 도봉산에 있던 사찰, 서거정(徐臣正)이 이 절을 소재로 지은 시가 전함,

²⁾ 권상로(權相差, 1879-1965) : 승려, 불교학자, 교육자, 호는 되경, 저서: 조선불교약사, 조선불교사,

³⁾ 신중동국여지중람(新增東國與地滕陰) :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 저자: 이행, 홍언필, 목판본 55권 25책,

에 오른 이성계가 이곳으로 와서 무확을 찾아보고 절 이름을 최룡사로 고쳤다고 한다. 조선 초기의 무학대사에 의한 창건 이후 절이 어떤 변천은 거듭하였는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2. 창건 이후의 회룡사

봉선사에서 발행한 『봉선사본말사약자』에는 19세기 이전에 최룡사가 한차례 증창되었음을 전하고 있다. 즉 1630년(인조 8) 비구나 예순(體師)에 의해 절이 중수되었다는 것인데, 어디에 근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 무렵에 한번쯤 고쳐지어졌을 가능성은 많다. 근간에 발견된 훈주관전 발문(放文)을 보면 1634년과 1635년에 결쳐 최룡사에서 춘추관전을 발간(發刊)하고 당대의 장유(强維)와 김육(金埔)의 발문(鼓文)이 권막에 있어 간행(刊行) 연대(年代)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 도봉산 회룡사에는 서쪽을 간행 한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즉 재정적, 노동력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봐야 한 것이다. 또한 일성목(日省錄)"에는 1786년(정조10) 병오년에는 고소도감이 부사군(浮莎華)"과 보토군(補土軍) 차를에 회룡사 승리 16명이 차출되었음을 기목하고 있다.

이후 조선 후기의 절에 관해서는 1881년(고종 18) 우송이 쓴 「회룡사중창기」와 사성(節減, 1863~1910)의 문집인「극암집(克魔集)」에 나오는「양주도봉산회룡사중수기」 문 통해 비교적 상세 히 알 수 있다. 특히 사성이 쓴 중수기는 동국대학교에서 간행한 (한국불교전서) 11권에 실려 있는 사성의 문집인 「극암집(克魔集)」 권3에 나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사성의 스승이었던 해봉(造業)화상이 1878년(고종 15)에 망원사로부터 아곳으로 옮겨와 머물고 있었는데, 이 때 상궁 박씨가 절이 퇴막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왕실의 도움으로 전을 크게 중수하였다는 것이다. 즉 해봉화상의 법력과 상궁 박씨의 신심, 그리고 국가의 도움으로 전을 크게 중수하였다는 것이다. 1881년에는 경해당 한 원삼(慶海堂 閱三)과 함께 유명한 장인들을 모아 당우와 요사를 새로 저었다. 또 이때 채사(診師)들은 초병하여 지장택화, 산중택화, 현왕택화와 무학대사의 진영(貢募)을 조성했는데, 시주자는 상궁 하씨와 조씨 등이었다. 그런데 이 때 봉안되었다는 택화 및 무학대사의 진영 등은 분행히도 오늘당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또한, 당시에 국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1880년(고종 17) 『승정원일기』기록이 아닐까 한다.

중희당에서 영의정 이최용이 임금께 아뢰기를.

⁴⁾ 인성록(日名錄): 1752년(영조 28)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통정과 국정을 기록한 인기. 5) 부사군(俘萃坤): 늦(致)・원(園)・묘(茲)에 사조(徒尊)를 할 때 맥장 따내는 일을 받은 사람.

내수시 의 신보에

"도봉산에 있는 회룡사(回龍寺)는 어제(御頭), 어필(御筆), 도서(圓書), 의장(儀仗)을 봉안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져서 충돌이 흩어지는 지경을 면하지 못하니 충견할 물력을 넉넉히 지급해 주소시,"하였다. "이 절은 국초에 창건한 것이고, 더구나 중히 여기는 것을 봉인한 곳이니, 공명첩 500장을 특별히 내려주어 빨리 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리,"하였다.

광명칩(훈名帖)이란 성명을 적지 않은 백지 임명장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제정이 궁핍할 때 국 고(國庫)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중앙의 관원이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줄면서 돈이나 곡식을 바치는 사람에게 즉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어 명목상의 관직을 주었던 시절이 있 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자금(資金)으로 회룡사를 충건하염을 것이다.

관음도량 회용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1938년(소화 13)에 순약(顺岳)스님이 모연(募錄)하여 대방을 중수하고 철성자을 새로 지었으며, 1940년(소화 15)에는 식굴법당과 요사 등 건립 불사가 이루어 졌으나, 1950년 한국진쟁으로 접은 폐하가 된다. 의정부 인대에 있던 사찰은 한국전쟁의 피해를 특히 많이 받았다. 회룡사도 건물뿐만아니라 자료 등이 모두 불타비리고 3년 동안이나 비 어 있었다.

1954년부터 비구니 도준(道準)이 회용사 복구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승당과 지금의 삼성각인 대웅전과 약사전, 선실, 요사 등을 복원하였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당우(堂宇)들은 모두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지어진 것이다. 1971년 대웅전을 새로 지었으며, 1987년에는 석조관음상을 봉안하였고 1989년에는 범종각과 법종 및 사물(四物)을 조성하였다. 한수이북 비구니 선방인 취선당(樂禪堂)을 비롯해 실화당(設証堂)도 새로 조성하였으며, 1996년에는 극락보권을 새로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사찰 연혁

681년(신문왕 1) 의상조사(義湘祖師)가 법성사(法性寺)로 창건,

930년(경순왕 4) 동진국사(洞眞國事)가 재창(再創)하다.

1070년(문종 24) 혜거(慧烜)국사가 삼창(三創)하다.

1394년(우왕 10)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사창(四創)하다.

⁶⁾ 내수사(內盡司) : 육조중 이조(史育) 안에 내수사(內鑑司)한 관청은 왕선 물자관리를 하는 곳인데 이 내수사가 물자관련 정보수집이나 조사 기능도 갖는다.

1403년(태종 3) 태조(太朝)가 함흥에서 환궁할 때 의정부에 멈추어 움직이지 않음으로 무학 대사가 회룡가를 기원(新賴)하여 그 소원이 성취됨을 기념하여 회룡사(回龍 半)라 개명(改名)

1630년(인조 8) 예순비구니(禮順比丘尼) 오창(五面)하다

1635년(인조 13) 계미자 목판본으로 춘주좌전 간행. 장유(張維)와 감육(金堉)이 발문(數文) 씀.

1878년(고종 15) 혜봉(慧峯)화상이 상궁 박씨의 도움으로 중수하다

1880년(고종 17) 내수사 신보에 공명첩 500매 하사(下賜)하여 회룡사 중건자금 조단하게 함.

1881년(고종 18) 해봉화상이 정해당 원삼(慶海電 頭三)과 함께 상궁 하씨와 조씨의 도움으로 당우와 요사를 새로 짓고, 지장・신중・현왕탱화와 무확대사의 진영을 조성 하여 봉안하다

1938년(소화 13) 순악(頃岳)스님이 대방을 중수하고 칠성각 건립하다 1940년(소화 15) 순악(頃岳)스님이 석굴번당과 용사채 2동을 건멍하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건물과 자료가 전소(全燥)되다

1954년-1960년 도준(道準)스님이 복구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대웅전, 약사전, 선실, 요사

등을 복위하다

1971년 대응전을 철근콘크리트로 새로 건립하다

1973년 도준(道準)스님이 전화를 입인(引入), 76년에 전기 인입(引入).

1978년 비구니 선원(比丘尼 禪院) 운영하다

1987년 혜주(禁珠)스님이 야외에 석조관은보살상 봉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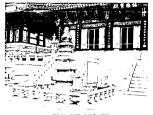
1989년 범종각 건립및 사물(四物) 조성하고, 진입로를 차도(車道)로 확장. 1996년 해주(瑟珠)스님이 극락보진(恒榮寶原)과 삼성각, 노전체를 건립. 2000년 설화당(遼孟雲)과 취심당(髮禪堂—禪院) 중개축 완공하다.

2001년 성견(性見)스님이 삼성각 중개축하다.

4 소장문화재

1) 지정문화재

(1) 회룡사 오충석탑(五解石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86호) 현재 극락보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석담은 높이가 약 4m짓도이며, 근념에 및 개의 석재를 새



(그림 2) 회룡사 5층석탄

로 끼워 보수하 것이다. 이 담의 조각수법은 전 체적으로 저부조(底浮彫)이나 섬세하고 아름다 우 느낌을 주며, 안상(眼象)이나 연화문 등이 비 교적 간격하게 조각되어 있다

이 탄옥 새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다부는 높직한 1매석의 지대석 위에 괴임대를 돌출시 키고 기단을 발쳤는데 괴입대에는 5구의 안상 이 새겨져 있다. 기단은 단층으로 또 하나의 괴 임대와 기단면석이 동일석으로 되어있는데, 과

임대에는 4구의 안상이 있으며 그 윗면은 복판의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면석은 각 면을 세장한 2 줄의 탱주로 3분하고 있다. 또한 그 위의 갑석은 1매의 관석으로, 면석 아래의 피임대를 뒤집어 놓 은 것과 같은 형태이다. 탄신부는 1층에서 3층까지는 탑신석과 옥개석을 각각 별개의 석재로, 4층 이상은 탐신과 옥개석을 동일석으로 조성했다. 탐신석의 각 면은 진사각형이 액(額)으로 삼동분했 으며, 옥개석의 하단에는 각형 3단의 옥개반침옥 건축(告出)했다.

(2) 회룡사 석조(石槽,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7호)



범종각 아래에 있는 이 석조는 높이가 90cm, 가로 1.53m, 세로 2.44m의 대형 수조로 1개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이 석조의 특징은 상단 면에 돌출된 U자형의 홈통을 마련하여, 물이 가 득 고이면 자연히 이곳으로 넘쳐흐르게 만든 것 이다. 즉 보통의 석조와 달리 물을 받기에 편리 하도록 구조적인 마련을 한 것이다. 이 석조의 제작 시기는 오층석탑의 건립시기와 비슷한 조 선 전기로 추정된다.

(3) 회룡사대웅전 신중탱화(神衆幀畵,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8호)

대용전안 벽에 봉안되어 있는 이 탱화는 1883년(고종 20)에 조성된 것이다. 크기는 220×176cm 로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많이 띠고 있다. 이 신중도는 화면의 윗부분에 범천과 제석을 배치하 고, 아랫부분에는 천룡을 중심으로 그 권속들을 배치한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특히 범천과 제석,

천룡은 역삼각형의 구도로 배치되어 있어, 시선 을 화면의 중앙으로 유도한 뿐 아니라 이들이 그 립에서의 중심인물임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색감은 검붉은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녹색과 혹색, 백색을 조금씩 배합하였으므로 화 면전체가 검은 적색으로 보이나, 비교적 색조화가 잘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세부묘사 즉 인 물들의 자세, 의습선표현, 전체적인 묘선, 주변 공간처리 등에서 양식적으로 퇴조화 19세기 말



(그림 4) 회룡사 신중도

의 도식적인 불화의 특정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신중도의 하단에 있는 화기(訴記)에는, 이 신중맹화 가 원래 이곳 회룡사에서 조성하여 봉안된 것이 아니라 인근의 수락산 홍국사(興國等)에서 조성하 여 봉안된 것으로, 그림을 그런 금어(金魚)"는 응석(應碩)스님이며, 시주자는 상궁 신씨와 그의 부 모로 조혀 있다

2) 성보문화재

(1) 괘봉석주(掛佛石柱)

대용전 앞에 조성되어 있는 돌기둥으로 패블을 거는 받침대이다. 패불은 법회시 법당 앞마당에서 예블을 드릴 때 사용하는 큰 규모의 불화(應當)를 만한다. 보통 패불석주와 당간지주를 혼동하는데, 당간지주는 절 입구에 조성되며 패불석주는 법당 앞에 세워져 있다. 이 패불석주는 기동 사이에는 둥글거나 네모난 구멍 2~3개를 마련하여 패불대를 꽂아 지탱하는 것이다.

(2) 석조노주(石造露柱)

노주란 '노반지주' 의 줄임말로서 처음에는 불당(能堂)이나 법당(法堂) 밖 장면의 좌우에 세우는 두 기둥이었다가 나중에 담의 상륜부를 구성하는 부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탐의 일부 인 이 노주가 왜 별도의 조성물로서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화룡사 노주(露柱)는 몇 개의 석제가 결실되어 있는 상태라 처음 노주 형태가 어띠했는지 현재 는 안 수 없다. 그래서 현재 노주가 남아있는 금산사의 노주의 그림을 참고로 소개한다. 회룡사 노 주(孫柱)는 현재 높이가 1,14m로 원래의 위치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재들이 섞여 있는 상태이

⁷⁾ 금어(金魚): 불교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말한다.



(그림 5) 금산사 노주

다. 현재 지대식은 보이지 않으며, 하대석으로 보이는 방형 판석부재는 각 면에 복엽의 연화문이 둘러졌고, 상단에는 1 단의 각형(功形) 과임을 두고 있으며, 그 위의 상대석 역시 복엽의 연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석 위에는 몸 둘로 보이는 방형의 석재가 놓여 있는데, 한 면에는 투구를 쓰고 감옷을 입은 신장상이 새겨져 있다. 이 노주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연화문, 신장상 등의 조각수법으로 보 아 오총석탑과 석조가 만들어진 조선 초기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점작된다.

(3) 극락보전(極樂實殿)

대용전 좌측으로 삼성자과 나란히 위치한 극박보전은 징면 5만, 측면 3만의 팔작지상 건물로 19%년에 건립되었다. 내부에는 불단의 중앙에 금통으로 조성한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관음보살좌상과 지장보살좌상의 아미타삼존상을 봉안하고, 아미타삼존상 뒤에는 무위사의 아미타삼존박화를 모시(底寫)한 아미타후불탱화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서쪽 벽에는 신중탱화한 점이 봉안되어 있다

(4) 극락전 불단(極樂殿 佛增)

화려하게 치장된 불단의 주존은 아미타불좌상이며 좌우에는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연화좌에 실립인을 걸하고 있는 아미타불은 수명정수하고 극락광생을 보장하며 자비를 배푸는 분이다. 왼쪽에서 협시를 이루는 관음보살은 보관에 화불(化筛)이 새겨져 있고 손에는 연꽃가지를 쥐고 앉아 있는데, 이 보살은 자비의 화신(化身)이라고 한다. 오른쪽에 두건을 쓰고 육환장(六環状)을 잡고 앉아있는 지장보살은 육도(六班)의 윤회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서원을 세운 분이다. 뒤에는 화려하게 채색된 후불탱화가 걸려 있으며, 위에는 용미리와 연꽃봉우리가 조각된 단점이 가성되어 있다.

(5) 석조관음보살입상(石造觀音菩薩立像)

범종각 옆에 있는 석조관유보살입상은 1987년에 조성된 것으로 관각의 기단을 마린하고, 앙련 과 복련 2단으로 된 연화대좌 위에 정병을 듣고 서 있다. 보관에 화불을 새겨 놓아 관음보살임을 알 수 있으며, 상호도 원만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 인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의 형상은 머리에 보관 윤 쓰고 있으며 손에는 버드나무가지 또는 연꽃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정병을 들고 있다. 관세 음보살은 단독 형상으로 조성되기도 하지만 아미타불의 힘시보살로 나타나기도 하며 지장보살(地 歲著能), 대세지보살과 함께 있기도 한다. 수원관음보살(水月銀音菩薩), 백의관음보살(白衣觀音菩 薩), 심일면관음보살(十一面觀音菩薩), 천수관음보살(千子觀音菩薩) 등의 형태로 조성되는 것이 임반적이다.

(6) 범종각(梵鍾閣)

재곡옆에 있는 범종각은 정면 3만, 측면 2만 규모의 광작지붕 건물로 1989년에 건립되었는 데, 내부에는 불전사물인 범종, 법고, 운관, 목 어 등을 모두 봉안하고 있다. 범종은 지옥증생 을 구제하는 불음(佛音)을 전한다. 목이(本魚)의 소리는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하고, 법고(法政) 는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집승을 제도하고, 운관 (護版)은 날집승을 제도한다는 구름모양의 동판 (銀版)이다. 네 가지 법구(法具)는 이침과 저녁



〈그림 6〉 화룡사 범증각

의 예불에 주로 사용되며, 절 안에서 큰 법회나 행사가 있을 때도 사용된다.

(7) 대웅전(大雄殿)

1971년에 건립된 대응전은 정면 3간, 축면 2간의 팔작지봉 건물이다. 건물 내부의 천정에는 비 천(熊天)하는 백의관은상이 그러져 있으며, 불단 중앙에 식조로 조성한 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관음보살좌상과 대세지보살좌상을 봉안하였다. 보통 수미좌(須彌座)는 목조(木遊)로 각 중 상서로운 사물을 조각하여 장엄함이 있는데 반해 이곳은 드물게 석조(石並)로, 정면 가운대에 억의주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마리의 용(龍)이 조각되어 있다. 맹화로는 삼존본상 뒤의 아미타후볼맹화와 함께 신중맹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 신중맹화는 1883년에 조성된 맹화로 철 에 있는 불화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8) 약사전(藥師殿)

1955년에 건립된 약사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대웅전 뒤쪽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내부에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리나 급년 (2013) 9월에 경내에 약사전을 새로 조성하고 약사여래좌상을 옮겨 모셨다. 약사여래는 동방(東方)의 이상향인 정유리세계에 나타나는 부처님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12가지 대원을 세운분이다. 이 12가지 대원 중 구병(致病), 현세적 복락, 고난의 해탈 등은 중요한 명제가 담겨있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려는 대중심리와 결부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약사신앙은 단적이고 현세 이익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민간 신앙으로서는 깊은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9) 삼성각(三聖閣)

한국전쟁 때 전소된 회룡사를 복구하면서 1955년에 대응전으로 건립되었다가, 현재는 삼성각으



〈그림 7〉화룡사 삼성각

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로 19%6년에 새로 건립되었으며, 2002년에 중축된 바 있다. 정면 3칸, 축면 3칸의 맞배지공 건물로 내부에는 월성탱화를 중심으로 그 좌우에 독성탱화와 산신탱화를 봉안하였는데, 화기(盡記)에 의하면 철성탱화와 산신탱화는 1954년에, 그리고 독성탱화는 1956년에 조성하여 봉안되었다.

일반적으로 삼성각은 세 분의 성인, 곧 산신· 칠성·독성의 탱화를 함께 모신 각을 말한다. 우

리나라 불교의 특징으로 사찰에서 산신을 모시는 이유는, 민간에서 각 산마다 산신이 있다는 신앙 음 갖고 있는데다 각 사찰마다 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을 주제하는 산신을 자연스럽게 불교로 수용힘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신은 따로 정책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찰이 있 는 바로 그 산의 산신음 모신다. 산신은 호망이로 화신하기도 하는데, 수행다가 일정한 수행단계 에 오르면 산신이 호망이로 변신해 수행자를 수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독성이란 스스로 부처님의 12연기법을 깨친 성인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사찰의 독 성은 말세충생에게 큰 복음 내린다는 나반존자를 모신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 철성이란 수명장수 신(籌命長壽神)음 의미하는 북두철성음 일컫는다. 철성도 산신과 마찬가지로 원래 불교와는 무관 한 신이나 산신과 같은 파정을 거쳐 수명장수신의 원래 성격을 되찾게 된다.

(10) 요사・선원(安舎・禪院)

현재 회룡사에는 '설화당(脫話堂)' 이라는 편액을 건 요사체와 '취선당(梁神堂)' 이라는 편액을 건 선원,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로 된 2등의 요사체가 있다. 설화당과 취선당은 모두 최근에 새로





(그림 8) 화룡사 설화당

〈그림 9〉화룡사 취선당

선립된 목조건물로 팔작지붕음 올렸는데, 설화당은 정면 7간, 측면 5간의 규로이며, 취신당은 정면 5간, 측면 4간의 규모이다

Ⅲ. 춘추자전 계미자 복각(復刻)본 회룡사에서 간행

대중 3년 계미년(1403)에 주조(憲憲)한 개미자 등황자(癸未字 銅活字)로 초간 인쇄(初刊 印朝) 발간(發刊)되었으며, 단종(端宗) 2년 경태 갑술(1454)에 위 개미자 본(本)을 복각(役刻)"한 목판 제 2판음 간행하였다.



(그림10) 춘추좌전 70권 20책 전질

이 춘추좌진은 인조 13년 승정(崇禎) 8년(1635) 잡슬, 을해 2년에 걸쳐 양주 최용사에서 제3판을 간행한 유서(由緒)가 깊은 귀중본으로 계곡(蹊谷) 장유(張維)와 잠곡(維谷) 김욱(金精)의 발문(欽文)이 권말에 있어 간행(刊行) 연대(年代)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좌전」의 서지학 적 내용보다는 도봉산 회룡사에서 간행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간단한 구성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계미자 동활자본(癸未字 銅活字本)

계미자 동활자본(癸未字, 領括字本)은 1403년(태종 3)에 만든 조선시대 최초의 동활자로, 이 활자는 그해의 간지를 따서 '계미자'라 하고, 이 활자로 찍은 책을 계미자판 또는 계미자본이라고 한다. 게미자를 만든 내역과 연대에 대해서는 권근(權近)이 쓴 '계미자의 주자발(第子跋)'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그 내용에 의거하면, '동(新)은 1403년 2월 고려 말기 서적원(曹籍院)의 제도를 본받 아 주자소를 설치하고 부족한 동(前)과 철(歲)의 수급을 위해 궁궐 내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종친과 훈신들에게도 내놓게 하였다. 활자계작에 필요한 경비는 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는 사사로운 경비까지도 모두 충당하였다. 그때 이직(李弢) · 민무진(閱無疾) · 박석병(朴露命) · 이용(李齋) 등이 감독을 하고, 강천주(姜天·) · 김장간(金莊思) · 유아(柳茂) · 김위민(金爲尼) · 박윤영(朴允英) 등 이 직접 일을 관장하였다. 활자의 제작은 수개월이 걸렸으며, 큰 자, 작은 자, 특소자를 합쳐 수십 만자에 이르렀다. 글자본은 경연청에 소장된 옛 주석이 달린 《시(詩)》 · 《서(書)》 · 《최씨전 (左氏傳》》에 의거하였다'고 한다.

2. 「음주전문춘추괄례시말좌전구두직해」

이 책은 「순추좌씨진(森秋左氏傳)」에 대한 주해서로 송(宋)나라의 임요수(林堯叟)가 「순추(維 秋)」「좌씨전(左氏傳)」의 어려운 이구를 해설한 책이다. 권말에 있는 장유(張維)의 발문에 의하면, 본 해제본은 책이 있는데 읽지 않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최요, 읽고 싶어도 그 책이 없어 읽지 못하 는 것은 뜻이 있는 선비들이 그것을 병통으로 생각한 지가 오래 되었다.

유립(사문(師文))의 군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규약을 만들고 재불과 공인(工人)을 모아 환자로 여러 책을 인간(印刊)하여 전하였다. 그러나 인간한 것은 많지 않아 그 혜택을 넓게 하지 못하였는

⁸⁾ 복각(復刻) : 한번 새긴 책관을 원본으로 그대로 다시 목판으로 새김을 말한다.

⁹⁾ 회룡사 간행 춘추좌전 20씩 70권 전절(의정부문화원 소장)을 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이준회가 감정하여 확인하였다. 맹되 부른참고



<그림 11 춘추좌전 권1, 권2, 권70 >

대, 이번에 좌씨의 간역은 마침내 판을 바꾸어 간행하였다. 좌전이 세상에 퍼진 것이 많은데, 중국 에서부터 가지은 임요수(林堯叟)의 주해본(구해본)은 품절되어 볼 수가 없었다. 경태년(명나라 연 호]에 우리나라에서 새긴 복각본(搜회本)은 자회이 정말하고 상태가 좋아 드디어 양주의 도봉산 회룡사로 가져가 나무에 새기게 되었다. 공정은 갑술년 여름 사원에 시작하여 올해년 오월 며칠에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춘주(森秋)』는 춘추시기 말 공자(孔子)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노(魯)나라의 역사책이다. 「춘 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최구명(左丘明)이 「춘추』에 주석을 불인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것은 전 한(前漢) 말기 유흡(劉赦) 등이 재편찬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책은 『좌계춘주(左氏春秋)』 또는 『춘주좌전(春秋左傳)』, 더 줄여서 『좌전(左傳)』 이라고도 하는데, 유교에서는 실삼경(十三經)에 포 함하여 존중하는 책이다. 『공양진(公羊傳)』 『곡광진(發梁傳)』 과 함께 춘추삼전(春秋三傳)이라고 불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좌진(左傳)」 이 가장 널리 읽혔다. 이 책의 주해자인 임요수의 자 (字)는 당용(唐翁)이며 중국 향주(杭州) 사람으로 본서는 원래 향주서방(杭州韋坊)에서 간행하였 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인된 「음주전문춘추팝레시말좌전구두직해」의 관본을 비교해 보면,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431년(세종13)에 금산군(豫山郡)에서 간행된 김치명(金鼓明)의 발문이 있 는 원본의 복각본으로, 현재 보물 제115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원본(元本)이나 명본(明本)의 복각본으로 추정되는 몇 종의 관본이 전한다.

1635년(인조 13) 5월에 경기도 양주 도봉산 최용사(回籠寺)에서 간행한 장유(張維, 1587-1638) 의 발문이 있는 관본이 있는데, 장유는 발문에서 중국에서 사온 인씨구혜본(休氏句解本)을 얻을 수 없던 차에 우연히 단종 대에 간행한 것을 발견하여 다시 간인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 해제본인 게미자 복각본과 같은 체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해제본을 복각하는데 저본이 된 게미자본(癸未字本)은 현재 전하지는 않고 있다. 활 자본으로는 성종대에 강해된 을해자본(乙亥字本)이 성암 고서박육관에 남아있다.

본 해제본은 제1권의 권수에 「음정춘추과전함에시발구해장목(音點春秋左傳括例始末句解和目)」을 두어 6항목의 강목 범례를 싣고 있다. 그리고 1채 1권 서명 다음 칸에만 "추학매계 임요수 당옹(後學梅藥 林堯叟唐翁)"이라고 저자를 밝혔는데, 다른 각 권의 권수서명 다음 칸에는 "매계 임요수 당옹(復榮 林堯叟唐翁)"이라고 저자를 밝히고 있다.

각 권 책별 수록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책에는 권1에서 권4까지, 노(魯)나라 은공(隱公) 원년(元年)부터 환공(桓公) 18년까지의 기사 름 싣고 있다.

제2책은 권5에서 권8까지, 노(魯) 장공(莊公) 원년부터 민공(閔公) 2년까지의 기사가 실려 있다. 제3책은 권9에서 권12까지, 노(魯) 희공(僖公) 원년부터 22년까지 제4책은 권13에서 권16까지, 노(魯) 희공(僖公) 23년부터 33년까지 제5책은 권17에서 권20까지, 노(格) 문공(文公) 원년부터 18년까지 제6책은 권21에서 권25까지, 노(魯) 선공(宣公) 원년부터 18년까지 제7책은 권26에서 권28까지, 노(魯) 성공(成公) 원년부터 10년까지 제8책은 권29에서 권31까지, 노(魯) 성공(成公) 11년부터 18년까지 제9책은 권32에서 권34까지, 노(魯) 양공(襄公) 원년부터 12년까지 제10책은 권35에서 권37까지, 노(魯) 양공(襄公) 13년부터 22년까지 제11책은 권38에서 권40까지, 노(魯) 양공(襄公) 23년부터 26년까지 제12책은 권41에서 권44까지, 노(魯) 양공(襄公) 27년부터 31년까지 제13책은 권45에서 권48까지, 노(魯) 소공(昭公) 원년부터 4년까지 권14책은 권49에서 권52까지, 노(魯) 소공(昭公) 5년부터 12년까지 권15책은 권53에서 권55까지, 노(魯) 소공(昭公) 13년부터 20년까지 제16책은 권56에서 권57까지, 노(魯) 소공(昭公) 21년부터 25년까지 제17책은 권58에서 권60까지, 노(魯) 소공(昭公) 26년부터 32년까지 제18책은 권61에서 권64까지, 노(魯) 젓공(定公) 원년부터 15년까지 제19책은 권65에서 권67까지, 노(魯) 애공(夏公) 원년부터 13년까지



제20책은 권68에서 권70까지, 노(魯) 애군(京公) 14년부터 27년까지의 기사를 싣고 있다.

권말의 장유의 발문에 의하면, "세상에 퍼진 책 좌전이 많은데,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임요수의 주해본구해본은 품절되어 불 수가 없었다. 경태년[명나라 연호]에 우리나라에서 새긴 각본(刻木) 은 자회이 정밀하고 상태가 놓아 드디어 양주의 회룡사로 가져가 나무에 새기에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3. 회룡사 발간 춘추좌전 제1책 강목편 6개항 내용

1) 음점 춘추좌전 괄례 시말구 해설에 대한 강목(국역)

- 주해는 경문(본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니 마치 하늘을 그릴 때 일원을 그리는 것과 같다. 그 리니 어찌 관히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번은 다만 갑자년의 기년(紀年)에서는 모공[이면 본] 을 그 사람으로 주석 달고, 모 지맹(모 지역)은 그 지역으로 주석을 닫았다. 다만 그 일을 춘추 의 종시[내용]에 관련하여 기술한 것은 강목에 예시하여 초학자들을 위해 배푼 것이다.
- 정벤본문 내용의 변동 사항이 역사가 되는 것은 좌씨에서 시작되었으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법으로 취하였다. 그렇다면 좌씨의 책, 한 자한 글씨는 덛어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이름과 성명이 중복 되는 것과 지리가 서로 다른 것은 초하자들이 병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그것을 위해 구두와 훈고는 그대로 주해를 닫고, 성명과 지리의 중복과 서로

다른 것은 그대로 주석을 달아 '모인(某人)과 모지(某地)'로 하여 초학자들이 보기에 편리하 도록 하였다

- 주왕의 기년과 열국의 기년을 12공의 기사가 시작되는 연도 앞에 기재하고, 역세사위(易世嗣位) 또한 12곳의 기사가 시작되는 역도 앞에 주석을 달았다.
- 춘추좌전에 나타나는 여러 나라는 아주 많은데 이번에 20국을 12공의 기사가 시작되는 연도 에 모두 나열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였다. 주나라를 처음에 쓴 것은 왕실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節)을 쓴 것은 주나라가 쇠퇴되어 정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제회(齊像)는 소패(小覇)요 제위(齊處)는 창패(無關)이니 이 절은 제나라가 정나라 다음이 되는 이유이다.

다음은 송・진(宋・帝)인테 송나라는 제나라를 이었고 전나라는 송나라를 이었기 때문에 이점이 전나라가 송나라의 다음이고 송나라가 제나라의 다음이 되는 이유이다. 다음은 체・위・조・등(蔡・衛・賈・戴)인테 앞 시대와 같은 성씨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전・기(陳・杞)인테 앞 시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설(雄)인테 서성(庶姓 : 천자와 성이 다르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거(萬)・주(縣)・허(祚)・주(小郑)인테 모두 중국 안에 있기 때문이고, 다음은 조(捷)・진(秦)・오(吳)・월(越)인테 모두가 외곽의 이적(夷狄)이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작은 나라는 모두 기록하지 않고 생략한다. 그 이유는 왕패(王覇)와 이하(東夏 : 외부 오랑캐와 중국 본토)의 것중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 ·왕패(王朝)와 제(齊)·진(晉)·진(秦)·초(楚)나라는 대부가 정치를 하므로 12공의 시년과 열국 (列國)의 아래에 상세하게 주석을 달고, 또 각 년도의 편에 상세하게 주석을 달아 한 번 보고도 시변(蘇蒙)을 쉽게 알 수 앞도록 하였다.
- 구두(句讀, 글 구절에 점찍는 것)와 직해(直解)는 모두 두예(杜預)¹¹¹의 옛 주석에 의거하여 지 재(止預) 전부량¹¹¹ 선생의 의론을 세택하였다. 단 고주(古註)를 윤색하거나 따로 개인의 의견 용 제시함 경우는 '우안(養按: 자신의 생각)' 이라고 구별하였다.

¹⁰⁾ 두 애(杜), 222~28) : 시진(西晉)의 두통(杜)於) 사람으로 병명에 등한 학사(222~2%) 자는 인개(公託), 시호는 성 (故), 하남 운(阿爾伊), 진구 자사(출위회(한)를 역임하였고, 탁지(청사(度支))환경)에 이보니 박통(15년)한 학자로서 두무 교(世武聖)라고 불리기도 한, 용병(用於)을 장하여 군장(研护)을 많이 세웠고 오(集)나라를 평진한 종으로 당당한 후 (當陶蘇侯)에 봉해집, 죽은 후 정남대장군(任庸大拜原)에 추증되어 두정남(杜莊甫)으로도 불립, 《진용(晉傳)》·《 확진(左傳)》에 대한 주해가 유명하며, 원존하는 가장 오래된 《춘우(春秋)》의 주식사인 《춘수좌세경천집해(春秋 左氏經濟集報》)를 남집.

¹¹⁾ 전투량(陳傅良, 1137-1208): 남송 온주(溫州) 시안(独安) 사람, 자는 군거(君學)고, 호는 지제(止爵)며, 시호는 문접 (玄節)여다, 문장으로 당대 이름을 크게 떨었고, 장식(疾抗), 여조감(呂親議)과 교유했다. 지서에 주제참(周謀怒),과 '준속후전(本教後僧), '의씨장지(左氏章指), '모시해고(毛詩解語), '지재은조(止賈論觀), '의재문집(止賈文集)」, '건 동刊(發達編), 등이 있다.

2) 20책 마지막 장유와 김육의 발문(数 文)내용

(1) 장유(張維)의 반문내용 국역

책이 있는데 읽지 않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죄요, 임고 싶어도 그 책이 없는 것은 뜻이 있는 선비들이 그것을 병통으로 생각한 지가 오래 되었다. 유립사문(斯文))의 군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규약을 만들고 채물과 공인(工人)을 모아 활자로 여러 가지 책을 인간(印刊)하여 전하였다. 그러나 임간(印刊)하 것이 많지 않



(그림 13 장유의 발문내용)

아 그 혜택을 넓게 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에 좌씨의 간역은 마침내 관을 바꾸어 간행하였다. 좌전 이 세상에 퍼진 것이 많은데, 중국에서부터 가져온 임요수의 주해본(구해본)은 품전되어 볼 수가 없 었다. 경태년(명나라 연호)에 우리나라에서 새긴 각본(刻本)은 자회이 정밀하고 상태가 좋아 드디어 양주의 회용사로 가져가 나무에 새기에 되었다. 공정은 갑술년 여름 사원에 시작하여 운해년 오월 며칠에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다. 나장위 또한 그 일에 대해 들어 이렇게 후지(後藏)을 적는다.

중정 8년 여름 오월 하순에 분충찬모입기정사공신(循忠賢羨立紀籍組功臣) 정현대부 신풍군 장 유가 기록하다.

(2) 잠곡 김육(金堉)의 발문 내용

창리자(한유)는 "좌씨(춘추좌씨)는 과 장되었다."라 말하는데, 과장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렇더라도 또한 역사를 기반 으로 한 기이한 것이다. 240년의 실적이 훗날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 었더라면 삼전(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순추곡량진)이 어찌 성경(壁經)의 지약 (行學)을 밝혀 문장을 하는 선비를 위할 수 있었으며, 또 어찌 이것을 비릴 수가



(그림 14 잠곡 김육의 발문내용)

있겠는가?

송정 갑을난에 장서각의 여러 공들이 임요수의 주석이 망가진 것을 얻어 최봉사에서 간역을 하였고, 병자년에 고친 판각본은 산실되고 결락되어 두섬 스님 등이 또 호남에서 보각을 하고 아울 더 내가 액서(額書)한 편을 완산에서부터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운반해 와 도성의 사대부가 모두 인쇄해서 볼 수 있게 하여, 우리 성스러운 임금께서 문치를 숭상하는 교화를 돕게 하였으니, 두섬 스님 같은 분은 서생의 이름으로 유학자의 품행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 뜻을 기쁘게 여기고 그 공단를 소중하게 생각하여 책의 끝머리에 금요 써서 후지(後難)로 상는다

병술년 맹추(孟秋) 며칠날 성남산인 김육이 쓰다.[2

3) 발문을 쓴 장유(張維)와 김육(金堉)에 대해서

(1) 장유(張維, 1587~1638.)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詩國), 호는 계곡(整谷)이다. 장례원사의 자중(自重)의 중손으로 할아버지는 목천현감 일(逸)이고, 아버지는 판서 운익(雲翼)이며, 어머니는 관윤 박승원(朴崇元) 의 말이다. 우의정 김상용(金尚容)의 사위로 효종비 인신왕후(仁宜王后)의 아버지이다. 김장생(会 長生)의 문인이다. 천문·지리·의술·병서 등 각종 학문에 능통했고, 서화와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李廷龜)·신흥(申欽)·이식 등과 더불어 조선 문학의 사대가(四大家)라는 청호를 받았다. 많은 저서가 있다고 하나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계곡만필)·(계곡집)·(음부경주해(陰符經注解)) 가 전한다 신통부위구(新傳解除君)에 통해당하여 명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난 분층(文章)이다

(2) 김육(金堉, 1580~1658), 조선 후기의 문신 · 실학자

본관은 청풍(淸潔),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潘谷)·회정당(海靜堂)이다. 기묘관현(己卯八賢) 의 한 사람인 식(提)의 4대손이며, 할아버지는 군자감관관 비(梁)이고, 아비지는 참봉 흥우(興字)이며, 어머니는 현감 조희맹(施添孟)의 딸이다. 1605년(선조 38)에 사마시에 합적해 성균관으로 들어갔다. 1638년 6월에 충청도 관찰사에 온았다. 도정(施致)에 임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한 편, 수차(水車: 무자위·물레방아)를 만들어 보급했으며, (구황활요(救荒凝要))와 (벽은방(辟鹽 力))등은 원찬, 간행하다가 숨정원좌부속지가 되었다.

1649년 5월 효종의 즉위와 더불어 대사헌이 되고 이어서 9원에 우의정이 되자, 대동법의 확장 시행에 직극 노력하였다. 71세의 낡은 몸을 무릅쓰고 중국에 다녀온 뒤, 잠시 향리에 미무르다가

¹²⁾ 좌전의 강목과 발문 국역은 김정찬 (경북 문화재의원, 상주고등학교 한문교사로 재직) 선생이 수고하였다.

이듬해 1월에 영의정에 임명되고, 실록청총재관(實錄應總裁官)을 겸하였다.

무덤은 경기 양주 급춘리에 있다. 양근(陽框, 현 양평) 미원서원(速應書院)과 청풍 봉강시원(原 周書院), 장동 계몽서원(啓蒙書院), 개성 숭양서원(越陽書院)등에 배향되고, 1704년(숙종 30)에는 가평의 선비들이 건립한 작곡서원(晉公書院)에 훈로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IV. 고문헌에 보이는 회룡사 기사내용

1. 『국역 승정원 일기』

고종 17년 경진(1880, 광서6) 10월 10일(을사, 맑음)자 기사에는 도봉산 최룡사에 관한 기사문 삼 수 있다. 고종이 중희당에서 약방이 입진하고 대신 등을 인건함 때 영의정 이최움이 아퇴기묘.

"내수사의 신보에 '양주(楊州) 도봉산(道拳山)에 있는 희망사(阿龍·화는 어제(鄭班)¹⁹, 어멀(鄭 策), 도서(圖書), 의장(儀仗)¹⁰을 봉안하였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무너지서 중들이 흩어지는 지경 을 변하지 못하나 중권한 문력을 넉넉히 지급해 주소서.'하였습니다. 이 전은 국초에 창건한 것이 고, 더구나 중히 여기는 것을 봉안한 곳이니, 공명첩¹⁰ 500장을 특별히 내려주어 빨리 수리하게 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고 하였다.

2. 미수기언(眉叟記言)™의 기언별집 제15권,

허목(許穆)선생의 기행문집인 갑인기행문(甲寅記行文) 기록에

¹³⁾ 어제(御麗) : 일급이 낸 시가문장(詩歌文章)의 제목

¹⁴⁾ 의장(儒於) : 천자나 왕국(王公), 고박의 높은 분은 모실 때 위험을 보이기 위하여 지식을 갖추어 세우는 방향기, 의(歌) 는 위의(成策)요, 장(於)은 장이나 잘 같은 방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기치창감(地域危険)을 늘어 세운다는 것이다. 15) 공명함(포설탕):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제하지 않은 평지 임명장, 전자, 관작의 인방장인 공명교전(조선

身配), 양역(食役)의 면제를 인정하는 공명면역철(호名免役帖), 천인에게 천역을 면제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공명면천철(호名免疫性), 향라에게 향리의 역을 면제해주는 공명면향철(호名免疫性) 등이 있다.

¹⁶⁾ 미수기언(周2記言) : 조선 후기의 문산 미수(昭2) 허목(許科, 1595-1682)의 사문잡, 93권 25책, 목판본,

"4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 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 일이나 되어 뱃물의 근원은 마르고, 못자리도 말랐다. 조계(曹潔)를 나와 30리를 가면 희묳사(回龍寺)인데, 지난밤에 비로소 비가 왔다. 냇가 돌 사이에서 물 호르는 소리가 들리고, 빗속에서 그윽한 새는 서로 부르며, 시내 폭포 아래 묻은 밝고 돌은 회어 늘 반하였다.

그 위 회룡사(回龍等)는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절로, 전은 오래되어 불전(佛殿) 정문 옆에 석조 (石柵)가 있는데, '홍치(弘治) 14년(1501, 연산군기' 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계(曹漢)를 나오니, 이 학목(李學錄 학록은 벼슬 이름으로 이담명을 말한)이 먼저 돌아가므로, 조군(趙君, 조함(趙斌)을 말한)을 회룡까지 와서 전송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

3. 『범우고 『 양주 사찰 회룡사 [梵字攷 楊州 寺刹 回龍寺] 』

ㅁ 在道蘇山 [도봉산에 있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1 양주 불우 회룡사

〔新增束國與地勝覽 卷11 楊州 佛宇 回龍寺〕』

- ㅁ 俱在道峰山 (모두 도봉산에 있다)
- 徐居正時山下何年佛刹開客來終日足俳順開窓雲氣俳辨入歇杭溪聲掩地來古塔有屠空白立斷 碑無字半青堆發年憑藥人間事結駐高價擬不回

국역 - 서거정의 시에, "이느 해에 산 밀 절을 지었다. 객이 와서 중인트록 맴돌고 있다. 청문 여 니 구름이 처마를 해쳐 듣고, 베개 비기니 시냇물소리 땅을 울려 들린다. 옛 탑은 층이 있어 공중에 부옇게 섰고, 동강난 비, 글자 없이 반쯤 퍼렇게 묻혔다. 늙어서 인간 일, 죄다 버리고 돌아가지 않 기로 중과 의논한다."하였다.

¹⁷⁾ 범우고(梵字牧) : 1799년(정조 25) 고급(古今)의 문집(文集)과 음지(危捷) 등을 고증하여 각도에 흩어져 있는 질의 존 폐·소재·연혁 등을 기록한 책,

¹⁸⁾ 신증동국여지승관(新增東區與地縣監): 조선시대의 인문자리서(人文地理形), 1530년(증종 25) 이행(李符)·윤은보(尹殷稿)·신공제(申公徽)·홍연필(洪彦策)·이사군(李思鈞) 등이 《동국여지승람》을 증수, 관환한 최, 55건 25책,

5. 『연행일기(燕行日記)》』제9권, 1713년(숙종 39)계사년 3월 1일(무인)

산이 북쪽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이렇게 따뜻하였으니 또한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이 산은 동서쪽으로 두 산허리가 앞으로 등그렇게 감싸안아 골짜기 이귀한 이루고 있었다. 동쪽 산허리가 끝나는 곳에 대판음각(大觀音關)이 서 있고, 서쪽 산허리가 끝나는 곳에도 충계 바위가 있었는데, 옛날 에는 그 위에 판재료(獨希裔)가 있었으나 허물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관음각과 관제표는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그 사이는 수십 보에 지나지 않았다. 옆으로 성(級) 하나를 쌓고 중간에 홍에문으로 터늏았는데, 온 계곡의 물이 모두 그곳으로 흘러나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개곡 아래에서 바라볼 때는 단지 높고 준임한 절벽만을 볼 수 있음 뿐, 그 위에 이와 같은 벌친지가 있을 죽은 물랐다. 청안사(清安寺)는 바로 중앙에 있었는데 그 터가 시원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은 기이하게 솟아 있어 이루 다 구경할 거름이 없을 지경인데 서쪽 계곡으로 폭포수가 또한 눈앞에 나타났다. 만약 이 절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다면 금강반암(金剛般帝)의 수락성진(水落聖殷)에 비한 수가 있으며, 도봉산(紅峯田)의 회룡사(回龍寺)의 자용을 다룬 만하였으나, 넓고 큰 점에 있어나는 오히려 뛰어난 점이 있었다. 더구나 이곳보다 낫기 어려운 점은 산의 나무가 복숭아꽃인 점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곳이 없다고 해도 파인은 아닌 것이다.

6. "국역 일성록(日省錄)』, 1786년(정조10년 병오[건류 51, 윤7월12일]

묘소도감이 부사군(浮莎軍)³³과 보토군(補土軍)의 별단으로 아뢰었다.

해당 도감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그동안 자원한 보토군과 부사군을 두 조목으로 구별하여 별단을 갖추어 써서 둔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 영문(營門)과 아문(衙門)에 알려서 쌀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논하지 말라고 한 액속(接屬) 및 소관 영문과 아문에 대해서는 별단 안에 하나하나 주(註)를 닫았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실어다 마치지 말라는 것도 각사(주司)에 감견(甘韓)"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강화(江華)의 시민(市民)은 한성부에서 품지(戛富)"하고 이송하였으므로, 하부 동안 부역하도록

¹⁹⁾ 연행일기(熱行日記) : 조선 숙종 때 김창업(全昌聚)이 청나라를 다녀온 사행(使行)일기, 내용은 찬자의 호를 따서 '노 가개연행목(老稼禽拣行漢)' 이라고도 한다. 9권 6책, 필사본,

²⁰⁾ 부사군(浮莎軍) : 능(陵) · 원(國) · 묘(泉)에 사초(莎草)를 할 때 뗏장 떠내는 일을 맡은 사람,

²¹⁾ 감결(甘絲) : 상급 판시에서 하급 관서로 내리는 문서 양식, 내용은 지시· 명령이 주가 된다. 강결 중 대부분은 관찰사가 관하 운에 내리는 것이다.

²²⁾ 풍지(漢旨) : 특정 사안을 보고하여 임급의 결재를 받음. 품(菜)은 임금에게 보고하여 아란다는 의미이고 지(百)는 임급의 뜻이나 결재한 뜻임

허락하고 별단에 첩가하여 기록했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 가운데 글씨를 지워서 내린 자들은 액속과 궁속(宮屬)의 규례대로 몰론질(勿論秩)에 놓아두고, 궁속 중에서 낙점하여 내린 자들은 다른 원역(貞役)들의 규례대로 똑같이 쌀을 주며, 원래의 별단은 다시 수정하여 들이라. 서울에 사는 백성, 평양(平壤)과 경주(慶州)의 백성 및 훈련도감의 군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역한 자들은 상전(賞典)을 별단으로 써서 들인 때에 별도로 써서 들이고, 쌓은 주지 말라." 하였다.

ㅁ 별단은 다음과 같다.

영우원(未輔國) 수호군 70명, 조포사(造池寺) 승려 15명, 호운사(護堂寺) 승려 10명, 진반사(津寬 †) 승리 38명, 화계사(維溪寺) 승리 5명, 불암사(係嚴寺) 승려 5명, 옥천암(玉泉壺) 승리 12명, 회 룡사(回龍寺) 승리 16명, 회은암(陰隠菴) 승려 2명, 학련암(錢林菴) 승려 5명, 홍국사(與國寺) 승리 5명, 원동암(國通竜) 승려 6명, 망원암(潔月竜) 승리 2명, 은석사(銀石寺) 승려 15명, 범물암(梵窟 羅) 승려 6명, 화양사(榮陽寺) 승려 21명, - 이삼은 양주목(楊州敦)이다

7 『 봉은사본말사지 회룡사 [奉恩寺末寺誌 回龍寺]』

朝鮮 太祖四年(乙亥), 無學王師初粉, 現今無學土眾是也, 七年(戊寅)太祖自咸興回鴽, 臨辛於此為 王師擴張改名同龍, 高宗十八年(辛巳)八月, 化主慧峰最性, 大房頭修, 昭和十三年(戊寅)比丘尼顷 岳, 募線重修大房, 新建七星閣十五年(戊辰) 比丘尼顺岳, 建石盈法堂及景舍二模, 篡達山 沙門 退耕 權相老

□ 조선 태조 4년(1395) 을해 무확왕사(無學王師)가 창건하였는데 지금의 무확토군(無學土龍)이다. 7년(1398) 무인 태조(太祖)가 합흥으로부터 환궁할 때, 이곳에 임하니 무확왕사가 확장하고 회 룡(回龍)이라 이름을 고치었다. 고종 17년(1889) 신사 8월 화주 해봉 최성(楚峰最佳)이 대방(大房)은 중수하였다. 소화 13년(1938) 무인 비구 순악(順岳)이 모연(寒線)하여 대방을 중수하고 칠성각을 새로 지었다. 15년(1940) 경전 비구니 순악이 석균법당과 오사 2등을 지었다.

8. 『봉은사본말사지 회룡사중창기(回龍寺重創記)』

王坡之東,四十里,有山崛起,蜂坑若螺铅結乎雲端,崢嶸如鹿角,高掛秋林名,逍峯山是也,而山之 有寺也,今而回龍亦古矣。传云,太祖郎位之七年,自成興本營,遷宮之日,訪王師無學于此、駐寶之選 各有日矣。乃為將伽藍額以回龍,爲記回譽之意也。且道先是,王師以太祖之三年,被鄭澄傳之息疑, 證跡于此,寄身於土窟之中云,寺盖形勝之地也,而且留太祖與王師之聖韻,口呼其成哉。関多風霜, 而棟字敗壞,三寶無可適庇,爰有慧峰大師及性,發懷然志,與慶海堂盟三,共謀,蘇錄名匠,自春徂 秋,董復已舉,佛字得聚,樂然華其舊觀,同時招彩師,造上增地藏神衆現王及無學國師軌 呼其成故, 若夫爲之大重越者,尚宮河氏趙氏等是也。是皆功存金石者也。結以記其概,列爲芳名之秩而懸于壁 上者也、光緒七年辛巳至月日,果峰門孫友松記。

미 왕성의 동쪽 40리쯤에 우뚝 솟은 산이 있어 마치 나발을 절한 듯 높은 구름 끝에 맺히고 사슴 의 蠼인양 추림(秋林)에 높게 걸린 것은 바로 도봉산(道峰山)이다. 이 산에 걸이 있게 된 것은 지급 의 일이나 회룡사가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전설에 의하면 대조가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그가 함홍의 본영에서 환궁(遠宮)하던 난 왕사(王師)인 무화(無學)을 이곳으로 찾아 어가(節節)을 멈추고 며칠을 머무든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걸음 짓고 회룡(回龍)이라고 편액(局部)하였으나 이는 회만(回擊)™ 윤기남하기 위한 뜻이었다. 전설에 또 이르기를 이에 앞서 왕사가 대조 3년에 정도전(鄭道傳)의 시의(攝髮)를 받아 이곳으로 피신하여 토굴 속에 몸을 의탁하였다. 한다. 회룡사는 대체로 형세가 뛰어난 곳이고 또 태조와 왕사의성적(聖前)이 남아있는 곳이니 의의가 깊다 하 됐다

그러나 오랜 풍상을 겪다보니 집은 무너지고 헐어져 삼보(三賣)²⁰는 의지한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혜봉대사(幾峰大師) 최성(最性)이 개연(微熱)한 뜻을 발휘하여 경해당(慶海堂) 원삼(即三)과 공모하고 명장(名匠)을 모집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를 감독하여 일을 마치니 불당(佛堂)과 승 사(宿舍)가 훌륭하게 옛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 이와 동시에 화사(嘉師)를 초빙하여 상단(上 班)의 지장과 신중과 현황 및 무학국사의 영정을 모셨으니 아아 성대한 일일전제! 이를 위해 크게 시주한 사람은 상궁인 하씨, 조씨 등이다. 이러한 일들을 모두 공덕이 금석(金石)에 보존되어 마땅 할 일이다. 우선 그 대개를 기록하여 방맹목(芳名錄)으로 만들이 백상(壁上)에 걸어두는 바이다.

광서 7년(1881) 신사(辛巳) 월일에 과봉문손 우송(友松)이 기록하다.

²³⁾ 회라(回變) : 일급이 대립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환궁(討宮)하는 것

²⁴ 삼보(三寶): 북교도의 세가지 근본 귀의처(社依應)인 불보(修寶)· 범보(佐寶)· 송보(僧寶)는 말함. 성교등 달리 불·벌· 승 삼보라 할수 있다. 통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삼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문교도는 삼보 에 귀의함으로써 시작되며 최후까지 삼보에 귀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교도에게는 불가결한 요건이며, 대송(大樂)과 소송(小潔)을 막도하고 삼보를 가까 준요시하고 있다.

9. 양주도봇산 회룡사 중수기(楊州 道墨山 回龍寺 重修記)

我東寺刹之創建修廢 或綠國家之鑒祥啓運而爲者 如安逸之雪峯 即我太祖大王 就無學和尚占 夢之地 而飛龍之初 因寺之碑之 以表底鉴詳啓運之徵 乃發於和尚之所在 而碑有三記皆列聖朝刭 宸章也 我正宗大王記文中日 予聞帝王之福 修之在我 膺之自天 而猶不能無待於神祇之幽贊 嫙 教之冥護 祝史無煩 景融自至 此可見忘衷之所卷 一邦之所蜀仰也 然則道峯之回龍 亦我太祖大 王駐躍祈福之地 無學和尚樓禪得道之所也 亦可以等夷於雪峯之釋王 而但創在羅麗之際 其前後 手百載之間 幾廢幾修 幾修幾廢 义主張是修廢者 未知爲如何人 然由來保全 安知不由於國家報 功之施 而如釋王之竪碑乎 然而歷歲已久 不能無頹廢 過考之條然於不復舊觀者 非一日 今吾祖 師慧峯和尚 歲戊寅 自望月移憩誦經 尚宮朴氏 適來于茲 悶寺様之凋殘 因發樂施之善心 上達 天階特下萬金之助 而於是乎和尚 機機株構 根泉枯楔 若霧肆雲市 而擔負引挽之役 齊汗成雨 規矩 短纖維之巧 郢斧生風 權與於白龍大壯之月 回向於黃花重陽之日 與焉新制 比前侈矣 佛法濫觴 於漢明 始傳於中華 漸潰於齊梁晋唐之間 天下寺刹 未有盛於此時 而藉傳騷人之山曰 南朝四百 八十寺 多少樓臺烟雨中 我東羅麗 即中華之齊梁也 建八伽藍 五百碑刹 三千神補 不惟止此 有 名於三國遺史 不讓於中華 於今無一二在焉 安知夫中華諸刹 不為邱塘乎 同泰歸宗經山等 皆以 當時壯麗 亦爲隨廢 噫 物之盛衰 時之興巷 從古然矣 而濟事成功 由於人也數 若非和尚之法力 尚宮之誠信 國家之养護 此寺之復爲此寺 未可知也 當終時祈祝 上而迓國家無惡之福 下而報尚 官與和尚勞處之功矣 遂爲之記 以備後人之歷學云爾

『한국불교전서』11책, 사성 극암집 권3(師誠 克庵集 卷三)

V. 글을 맺으며

도봉산 회룡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는, 의정부 유서 깊은 사한 증의 하나이다. 결의 창건에 관해서는 신라 때 초창되었다는 선과 조선 초에 창건되었다는 두 가지 의 견해가 있다.

권상로가 편찬한 〈한국사찰전서〉하권의 회룡사항에는 무학대사에 의하여 1384년(우왕 10) 또 는 1395년(태조 4)에 처음 창건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조선 초기에 편찬된 『신중동국여지승 함,권11의 양주목 불우(佛字)조에 망원사, 영국사 등과 함께 도봉산에 있는 절로 나와 있어 무확대 사에 의한 창건설이 더 신병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조선 초기의 무확대사에 의한 창 건 이후 절이 어떤 변원을 거듭하였는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었다. 그런대 요즘 밝혀 지는 자료들을 종합해 정리해 보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봉산 회룡사의 규모가 어떠했는 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매우 궁금하다. 또한 왕실과는 어떤 관련이 있어서 어제(御題), 어떤(仰 策), 도서(問事), 의장(條仗) 등을 회룡사에 봉안하였는지, 더구나 궁궐의 상궁(尚官)들이 어떻게 중건에 참여하였는지, 아직도 정대에 모아놓은 알 수 없는 석물조각들은 어떻게 품어야 할 지 모 크겠다.

이런 것들의 궁금한 수수께끼를 이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들이 함께 연구하여 밝혀야 할 과제 일 것이다

부름1 : 강정서 복시본

生化基础处理整件系统

音注金之益以新刊和表示傳句傳統解 由中華(4年

ধানত ইংলোন্ট্ৰান্তি কৈ বিভাগিকত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আন্ত্ৰান্ত্ৰিকালে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ন্ত্ৰিকালি । আন্তৰ্ভাগি ।

이번(항화된 권투

음주전문 순수관례 시발좌전 구두직해 (音起全文 春秋括例 始末左 傳 句語直解) (70권 20책)

사기 추추 70권 20책은

태종 3년 계미년(1403)에 주조(議立)한 재미자 동환자(英末字 領語官)로 초간 인쇄(3개) 印명) 발간(3년刊)되었으며, 단종(清宗) 2년 경태 감습(1454) 에 위 개미자 본(本)을 복고개額制한 북한 제2관을 간행하였으며,

인조 13년 송정(提致) 8년(165) 감술, 은해 2년에 전치 양구 회동사에서 제3판을 간행한 유시(山鄉)가 깊은 귀중본으로 개국(政常) 강유(張德)와 참 극(清) 김유(金增)의 별문(改文)이 건말에 있어 간행(刊行) 언대(年代)를 환참히 증명해주고 있다.

전질(全數) 20책의 가치는 시가(時價)로 300~4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튈 것으로 사보(思料)된다.

서기 1998년 10월 13일 성균관대학교명예교수 이준희 시병

의정부문화원 귀하

참고문헌

권상로, "한국사찰전서,하권, 동국대출판부, 1979. 사성(節說), "한국불교전서, 11책"(극합점, '동국대 출판부, 1992. 경기도, 기내사원지(嚴持等院話), 경기도편한위원회, 1988. 사찬문화연구원, '전통사찰축서, 사찰문화연구원출판국, 1995. 한국불교대사전관찬위원회,"한국불교대사전, 명문당, 1995. 최영회, "최영회의 의정부문화유산이야기, "최통사면, 동신원, 2007. 국사관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xory.go.kr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인터넷 회용사 홈페이지 인터넷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彥)의 생애와 문학

양 윤 택 (포천문화원 부원장)

목 차	
I . 여는 글	
II. 양사언의 가문(家門)	
1. 가족관계	
2. 설화와 양사언	
— alwi () mm al si al	
Ⅲ. 인간(人間) 양사언	
1, 관리로서의 양사언	
2. 남다른 인생관	
IV. 양사언의 문학세계	
1. 작품세계	
2. 봉래(蓬萊)의 풍류와 지인들	
V. 양사연을 말한다	
VI. 맺음말	

집필자

양 윤 택 포천문화원 부원장/龍湖書院 원장

I. 여는 글

어느 고장이나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지역만들이 자신들 고장의 궁지로 여기며 내세워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한 고장의 내세을 만한 인문을 탐구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집백하여 이해시키는 테에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 누구나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분을 역사적 왜곡 없이 사실 그대로를 후세에 알리는 것은 후손된 도리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예로부터 포천 지역은 역대 명헌(名賢)의 유적이 많은 고장이다. 여러 명헌를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탐구하여 그가 포천의 역사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를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이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시조의 작자가 바로 포천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인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다. 증종 12년(1517)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 리에서 출생한 양사언은 본관은 청주(清州)이며 자는 웅빙(應聯), 호는 봉래(蓬萊)・완구(完邱)・ 창朝(淮海)・해객(海客)이다. 아버지는 주부(丰蓮)를 지낸 최수(希洙)이고, 어머니는 문화류씨이다. 특히 양사언을 비롯한 사준(士俊), 사기(士帝) 3행제는 모두 글에 뛰어나 세상 사람들은 이들 3 형제를 중국의 미산산소(周山三蘇: 소식·소순·소청)에 경주기도 했다

양사인은 중종 35년(1540) 진사에 급제했는데, 이때에 파시(科試)로 지은 (단사부(丹砂賦))는 명작으로 손꿈하며 세인들의 청송을 받았다. 이후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마친 후인 명종 원년(1546)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대통증(大同丞)에 오른다. 이후 함흥(咸興) · 평창(平昌) · 강룡(江城) · 희양(淮陽) · 철원(鐵原) · 안변(安逸) 등 8고움의 수령을 지냈다.

양사인은 특히 해서(楷書)와 초서(草書)에 뛰어나 김정희(金正喜)· 한호(韓壽)와 함께 조선 3대 서예가로 손꼽힌다. 주로 커다란 글씨를 잘 썼는데 금강산 만폭동에 큰 글자로 새거 놓은 '봉래풍 악원화동천 (蓬萊極凱朮化河天)'여덟 글자를 두고 세인이 평하기를 "최치원의 쌍계석문(雙溪石 門)이 이에 못 미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찰방(平壤察訪) 재임시에 지은 〈열운정 가(閱雲浮記))도 세인들의 청송을 받는 등 당대 최고 문장가로서의 문제(文才)를 인정받았다. 또 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시조는 순국문학의 정수로서 분후의 명작으로 전 해져 후세에 도전정신과 전취정신을 일깨우고 있는 작품이다. 이처럼 봉래 양사언은 국문학의 정 형문학에도 선구자적 위상으로 추양받고 있다.

양사인은 자신의 호를 '봉례(蓬萊)'로 지을 만큼 금강산을 사광했다. 그는 유달리 자연 풍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리 깊어 산수(山水) 좋은 변방만을 골라 의직(外職)만을 자청했다. 명충 19년 (1564)에는 관동으로 이주하여 구선봉(九仙紫) 아래의 감호(鑑調)건에 거처를 마련하여 당호분 '감호(鑑調)'라 하고 크게 '비(飛)'라는 글자를 써서 장자(降子)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하루 는 괴상한 바람이 불어와 글자를 바닷속으로 휩싸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양사인의 관화 인(觀火日)이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태학사(太學士) 유서경(柳西坰)은 이 일을 기(部)로 쓰기까지 했다.

선조 10년(1577) 양사언이 안변대도호부사(安逸大都護府使)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이 고올은 변 방이라 풍속이 사납고 잔인하기까지 하여 이졸(東卒)들 조차 명을 듣지 않아 관아의 통솔은 말한 것 없고, 백성들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사인은 관아의 모든 이졸을 모아 놓고 그중 가장 흉포한 자름 지적하여 밤에 가서 수숫대를 하나 베어 오라고 했다. 이종이 수 숫대를 가지고 오자, 이번에는 그 수숫대를 양팔 길이만큼 잘라 옷소매 속으로 휘어 집어넣으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이졸은 수숫대를 부러자지 않게 휘어 넣지를 못하고 찜찔매며 어찌함 바를 몰라 했다. 양사언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크게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1년도 채 자라지 못한 수 수대를 휘지도 못하는 높이 갇히 상관을 능명하다니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겠는가"라고 꾸짖어 이졸들의 기강을 잡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양사언이 부입한 이후에 고을을 효제(字悌)로 다스리고 교화(数化)에 힘쓰자 고을 사람들은 그 선정(善政)에 감복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 었다. 이곳 사람들은 양사언의 사후에는 그에게 입은 은혜가 부모의 은혜보다 무거운데 최복(衰服) 을 입지 못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양사언의 은덕을 청송하여 거사비(去思碑) 를 세웠으니,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양사언의 백성 사랑 정신과 올곧은 수령의 자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듯 모범적인 선정(善政)은 말함 것도 없고, 앞날의 일을 대비하여 유사시에 많은 군마(軍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과 건축를 준비하여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등 뛰어난 행정관리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를 알게 된 관찰사가 조정에 상주하여 당상관(堂上官) 품계인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된 것은 대단히 찬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안변대도 호부사 재익 시 발생한 지롱(智陵)의 화재에 책임을 지고 유배되었다. 유배는 2년 뒤에 품덮으나 돌 아오는 길에 노상에서 병사하니, 선조 17년(1584) 향면 68세로 서세(逝世)하였다.

양사언은 인품으로는 누구보다 때어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모든 분야에 걸쳐 식견이 넓고 깊었다. 타고난 재능에 자만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공부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어 학문의 폭이 참으로 넓고 깊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사언을 전제하고 시기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여 남의 일로 인 하여 추국을 당하는 등의 시련이 따랐으니, 이에 스스로 내직에 재임을 꺼리고 외적을 자청했으리 라 추측하게 된다. 또한 외작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의 자연과 풍치를 사랑하는 취향과도 들어맞아 서 스스로 백하여 즐기며 관직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사언은 급제 후 8개 고용을 다스렀으 나 단 한 푼의 부정도 없었던 것으로 유명한 청백리(清白史)이다.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는 들어감 에 한 푼도 넉넉함이 없었고, 나감에 말 한필도 변변하지 못할 정도로 식구들을 위해서는 추호도 계획을 하지 않으며 항상 말씀하기를 '나는 사지공(阳如公)의 후손으로 가히 선조께 욕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했다하니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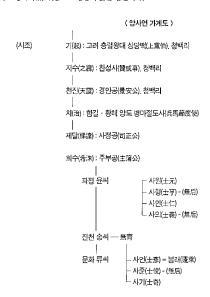
양사언은 조선의 뛰어난 문장가이면서 첫백리였다.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불교와 선도에 심취했 던 특이한 이력도 갖고 있다. 이에 (봉래 양사언의 생애와 문학) 에서는 양사언의 다양한 인생 역 정과 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자 한다.

Ⅱ. 양사언의 가문(家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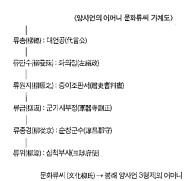
1. 가족 관계

양사언의 본관은 청주(清州)이다. 청주양씨(清州楊氏)는 한(漢)나라 양진(楊霞)의 후예로 원(元) 나라에서 도첨의정송(都愈議改丞)에 오른 양기(楊起)가 시조이다. 양기(楊起)는 원나라 順帝(순 제)의 명에 따라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와 함께 고려에 오게 되었다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것이 고려 충점왕(忠定王) 3년인 1351년의 일이다.

양기(標起)는 슬하에 성주(成柱), 천주(天柱), 만수(萬壽), 지수(之壽), 근(根), 포(湖) 6행제를 두 었다. 양사언은 그중 양지수(楊之壽)의 후손으로 서평군파(西平君崇)에 속한다. 양지수(楊之壽)는 광정대부에 올라 찬성사(發成事)를 역임한 인물로, 고려 공민왕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관직에서 활동하다가 서평군(西平君)에 봉해졌다. 양지수(楊之壽)의 후손인 양천진(楊天震)은 고려 공양왕 때 호조찬서(戶曹縣婁)를 지냈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세공 식감을 성공시킨 공으로 안약군(安 岳君)에 봉해졌다. 이후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공조천서(工作典書)가 되었으며 시호는 경안공(景安
소)이다. 양천진(楊天寶)의 아들인 양치(楊治)는 조선 전기 무신으로 함길・황해의 병마전도사(兵 馬節度使)를 지낸 인물로 세종 시대에 검종서와 함께 6진을 개적하고 북방을 지킨마 있다. 이후 계 유정난(突西猜難)으로 검종서가 죽임을 당하고 단종이 폐위되자 자신의 호를 퇴은(退廷)이라 하며 신북면 기지리 두문동(杜門神)에 은둔(廷遼)하며 참거하였다. 이때부터 청주양씨 시평군과 후손들 이 포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양치(楊治)의 아들이자 양사언의 조부(龍安)인 양제달(楊佛達)은 통훈대부로 장해원(蒙謀院) 사정(司正)을 지냈다. 양제달(楊佛達)의 아들이자 양사언의 부원인 양 회수(楊希珠)는 돈랭주부(敦寧主簿)를 지냈다. 이처럼 양사언의 가문은 위로는 시조인 양기(楊起) 부터 무천인 양화수(楊希珠)까지 상당백(上黨伯), 찬성사(貴成事), 철도사(節度使) 등을 지낸 것은 물론이고 첫백리(諸白東)로도 명당이 높은 집안이다.



양사인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면 부천인 회수(赤沫)에게는 파평운씨, 전천 송씨, 문화류씨 등 3명 의 부인이 있었다. 파평운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사원(土定), 사형(土字), 사인(土在), 사의(土海) 4명의 아등을 두었고, 진천송씨 부인과의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부인들이 사망한 이후 문화류씨 부인과 혼인하여 3명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중 첫째 아들이 사언(土彦)이다. 사언(土彦), 사준(土俊), 사기(土治)를 낳은 문화류씨 부인은 대언공(代章公) 류종(柳聰)의 후손인 류위(柳潭)의 여식이다. 문화류씨의 집안은 대대로 좌의정(左議政), 중이조판서(財東曹判書), 군기시부정(軍器寺閣正), 군수(郡守)등을 배출한 명문가이다. 문화류씨의 5대 조부인 튜반수(柳曼殊)는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대신이다. 공민왕 때 관직에 나갔고 우왕 때 이성제와 함께 왜구를 물리친는 공을 세웠다. 창왕 때는 이방원과 같이 왜구를 물리친 공로를 인정받았고, 공양왕 때 문하찬성사(門下梵成事)에 음땄다.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자 개국공신으로 책목되어 좌의정(左議政)에 음땄다. 문화류씨 부인의 조부인 류종경(柳龍前)은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지냈고, 부친인 류위(柳浦)는 소석부사(三陵 府鎮)를 지냈다. 류위(柳浦)는 조선 선조 때 시와 글씨로 유명했던 문신이지만 임진왜란 때는 권을 의 종사관으로 큰 활약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류위는 문무를 접한 인제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다. 한편 양사언의 부친인 양화수(楊喬珠)와 모천인 문화무씨의 나이차가 매우 많아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설화가 전해서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양사인의 동생 사주(土俊), 사기(土奇) 또한 문제(文才)가 뛰어난 인물로 유명하다 사주(土俊)은

자는 응거(應稅), 호는 풍고(楓魚)로 사언과 같은 해인 중종 55년(1540)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병 중 원년(1546)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西科)로 급재하였고, 천정(食正)을 지냈다. 명종 10년 (1555) 음료왜변 때에는 김정석(全慶鐵)의 중사관이 되어 영안에서 왜구와의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담은 가사 (남장가(南征歌))가 (남관윤유사(南對井遺事))에 실려 그의 대표 적인 문학작품으로 전해진다. 명종 12년(1557)에는 평양서윤(平城應井)을 지냈고, 명종 18년 (1563)에는 간성군수(杆城郡守)로 부임하였으나 이름해 병으로 사직하였다. 사준(七後)은 성품이 인자하고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양사인의 막내 동생인 사기(土容)는 중종 26년(1531)에 태어나 양사언과는 무리 14살 차이가 난다. 자는 응우(應獨), 호는 축재(竹齋)로 명종 7년 (1552)에 진사시(進土試)에 합격하고, 그 다음해 별시문과(別試文柱)에 병과(西柱)을 급제하였다. 호조좌랑(戶間佐郎)을 거치 원주(原州)· 부평(常平) 등 7고을의 수령(守分)을 역임하였는데 부임하는 곳마다 선정(密致)을 배푸는 것은 물론이고 창맥리(清白史)로도 명망이 높았다. 전하는 말로는 선조가 즉위한 추에 상소를 올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대책이 편요하다고 진언했는데 뒷난 그 에언대로 입진왜란이 발생했다. 양사언이 사망하고 2년 후인 선조 19년(1586)에 병으로 앓아눕게 되자 스스로 죽을 날을 예언했는데 신기하게 도 바로 그 날에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 향년 56세이다.

양사인은 음성박씨와 혼인하였으나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후에 간성이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얻었다. 선조 7년(1574) 강등에서 태어난 아들 만고(萬古)는 자는 도일(道一)이고, 호는 감호(鑑調) · 돈호(歷謝) · 비로도인(毘盧道人)이다. 양만고는 일찍이 선조 36년(1603)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광해군 2년(1610) 알성시(渴聚試)에서 읔파(乙科)에 급제하였다. 인조 17년 (1639)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인 군자감정(恒資監正)이 되어 시폐(詩弊)를 논하는 〈조진설치사책(保険季點四策))을 상소하였다. 후에 등진부사(通津府使)를 지냈으며, 이후 외직으로 나가 무장(茂長) · 장연(長淵) · 영변(等逸) 등 7고음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인조 22년(1644)에 인천도호부사(仁川福護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23년(1645)에 노쇠하여 적무급 수행할 수 없다는 장개(狀常)를 음리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아버지 양사언의 영향을 받아 양만고 또한 서에와 문장에 두루 능하였다. 또천에 소재한 (장명정회등12표(紫令縣希登육表))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Ⅱ. 설화와 양사언

봉래 양사언의 시, 시조, 글씨가 갖는 명성에 비해 인간 양사언에 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양사언에 대한 설화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전해진 다. 양사언에 대한 설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양사언의 어머니와 관련 된 것이고, 또 다 튼 한 가지는 양사언의 글씨와 죽음에 관한 것이다.

먼저 양사언의 어머니와 관련된 설화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양사언의 아비지 양화수(橫添洙)가 길을 가던 중에 허기가 저 들린 곳이 바로 아직은 어린 소녀였던 양사언 어머니의 집이 었다. 장차 양사언의 어머니가 되는 규씨는 당시 바록 나이 어린 소녀였던 양사언 어머니의 집이 었다. 장차 양사언의 어머니가 되는 규씨는 당시 바록 나이 어린 소녀였으나 정성껏 상을 차려 대 접했다. 이에 감복한 양화수(橫添洙)가 소녀에게 작은 부채를 예패(微繁)라며 선물로 주었다. 당시 양화수는 이린 소녀가 하는 것이 기록하고 어여뻐 건넨 것이었으나, 예폐(縫繁)를 받아든 소녀는 이를 청혼이라 여기고 소중히 간작한다. 몇 년 후 소녀는 아버지 묶위(排說)에게 부채를 내놓으며 양화수에게 시집가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놀란 류위는 소녀를 어르고 달래며 만류하였으나 소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류위는 양화수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혼담을 논한다. 살화는 만 그대로 설화인자라 대부분 다소 과장되고 믿기 어려운 것도 있는 것이 사신이다. 양사인의 어머니에 대한 설화는 어리지만 당돌하리만큼 성숙했던 류씨부인의 면모를 장조하고 있다.

설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양희수와 결혼해서 양사언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을 낳은 뮤씨부 인은 충명하고 재능 있는 아들들이 적자가 아닌 것을 늘 마음에 걸려했다. 그러던 중에 양희수가 사망하자 결국 류씨부인은 큰 결심을 한다. 양희수의 큰 아름인 양사원(級士元)과 마주 앉은 튜씨부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낸다. 자금은 남편 상을 당해 적자인 큰아들이 상복을 입었으나, 후에 자신이 죽으면 큰아들은 석 달 밖에 상복을 입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언을 비롯한 3형체들이 적자가 아닌 것이 티가 나게 될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죽어 남편과 함께 상을 치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뮤씨부인은 지금 자신이 죽으면 간이 낳은 3형제를 앞으로 서자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품에서 단도를 꺼내 자결을 했다. 이로 인해 사언, 사준, 사기 3형제는 작자로서 벼슬길에 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들들의 앞날을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숭고한 어머니의 사 당이 강조된 설화이다.

류씨부인의 자식에 대한 지극 정성한 사랑은 조금 다른 내용의 설화로도 전해진다. 양사인 형제 를 낳은 후 류씨부인은 자하동(紫霞洞)으로 집을 짓고 나간다. 하무는 자하동으로 행차를 했던 성 종이 소나기를 만나 잠시 비를 피하려 들린 곳이 바로 류씨부인의 집이다. 이 원을 계기로 총명했던 양사언 형제들이 성종에게 발탁되어 출세 길에 올랐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이 설화는 류씨부인의 총명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설화 속의 류씨부인은 먼 미래를 내다보았기에 큰집가에 집을 짓고 왕 의 행차를 대비할 수 있었고, 이런 노력으로 인해 아들들의 출세 길을 얻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은 조급씩 다르지만 설화 속의 류씨부인은 공통적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당차고 명석했던 어인이다. 설화를 통해 조선 최고의 명원이자 문인이며 관리였던 양사인의 뒤에는 이렇게 뚜댈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온다.

양사인과 관련된 설화 중에 양사인 본인과 관련된 설화도 한 가지가 있다. 조선 3대 명필가로 이름이 높은 양사인은 특히 커다란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남긴 '비(飛)자' 와 관련된 설화가 있다. 양사인이 쓴 커다란 '비(飛)자' 가 강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스스로 날아가 하늘로 온라갔다는 것이다. 그가 쓴 글씨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살아있는 듯 했기에 이런 설화가 생겨난 것인지 점착이 되고도 남는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수광(季時光)의 (지봉유설(芝蜂類說))에도 찾아볼 수 있다. (자봉유설(芝蜂類說))에 따르면 양사인이 관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마물던 시기에 '비(飛)자' 를 크게 써서 아들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나의 모든 기를 쏟아 쓴 균세이니 잘 간직하거라'라 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와 '비(派)자'가 쏘인 중이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려 찾을 길이 없었다. 후에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양사인이 죽음을 맞이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설화와 이야기에서 공동적으로 지작하고 있는 것은 '비(飛)자'와 양사인의 주음과의 연결성이다. '비(飛)자'가 하늘로 날아올라가고 양사인도 사망했다는 것은 인생 만년에 선도(他證)에 심취해 선계(他界)로 가 신선이 되고자 했던 양사인의 사상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때 사라졌다던 '비(飛)자'는 아직까지 정주양재 문중에 유품으로 남아 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일각에는 양사인이 '비(飛)자'를 2장 써서 남겼다가 한 장은 하늘로 날아가고한 강은 지급했 남아있는 정이라는 맛도 있다.

Ⅲ, 인간 양사언

1. 관리로서의 양사언

양사언은 24세가 되던 중총 35년(1540)에 진사가 되었다. 이때 과시(科試)로 지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사부(丹發獎))이다. 그리나 바로 부모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를 하게 된다. 이후 30세가 되던 명종 워닌(1540)에 문과에 급제해 이후 40여년 동안 관직에 종사했다.

양사언이 처음 부인한 곳은 한길도 한홍자역이다 그는 한흥부사(咸興府使)에 재일하다가 명종 10년(1555)에 병을 얻어 사직하고 귀향했다. 이후 명종 11년(1556)에 대통송(大同丞)에 발탁되어 평양찰방(平壤稟訪)으로 부임한다. 이때 지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얼운정기(閱雙亨記))이다. 외 직에 머물던 양사연은 다시 내직인 저열(落顏)로 발탁되어 재임한다. 그런데 명종 13년(1558)에 대 제학 정사룡(鄭士龍)이 과거 웅시생인 신사현(愼思獻)에게 과제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내통 문제와 관련해서 추국을 당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일 이후 명종 15년(1560)에 종4품인 평창군수(平昌 郡守)에 제수된다. 원래 평창군수의 임기는 명종 18년(1563)에 만료 되었으나 양사인의 선정(善政) 에 감복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조금 더 재임할 것을 간청하여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고 한다. 명 종 19년(1564)에 정4품인 성균관 사예(司藝)에 제수된 양사언은 다시 내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내 적으로 돌아온 이후 종3품인 성균관 사성(司成), 정3품인 종부시(宗簿寺)의 정(正)으로 재임하던 중에 돌연 자원하여 철원ㆍ회양 군수로 부임하여 떠난다. 그때가 양사언이 48세가 되던 명종 19년 (1564)이다. 아예 모든 집을 꾸려 관돗지맛으로 이주한 양사인은 관돗지역 구선봉(九仙紫) 아래 감 호(鑑潮) 옆에 집을 짓고 당호(堂號)도 감호(鑑湖)라고 했다. 집 뒤에는 정자를 짓고 비래정(飛來學)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곳에서 관동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막껏 즐기며 많은 시를 남겼다.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들은 모두 이 시가에 지어진 것들이다. 관리로서는 내 적이 아닌 외적에 재임하는 것이 그려 좋은 일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으나 풍류를 사랑하고 즐겼던 양사언에게는 이 시기가 그의 문학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소중한 나날이 되었을 것이다.

양사언은 자청하여 칠원군수(遠原都守)에 부임하였으나 1년 만에 병으로 사임했고, 이후 희양 부사(淮陽府使)로 다시 부임하였으나 역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병으로 사직했다. 그로부 터 3년 후인 선조 4년(1571)에 양사언은 다시 정3품인 강룡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로 제수되 어 그곳에서 6년간 재임한다. 강룡에는 재임시절에 그가 쓴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침박한 외곽 지역 백성들의 어려움을 자신의 인 같이 살펴고 선정(蔣政)을 배풍어, 이후 마음 사람들이 양사언 을 기리는 선정비(舊政碑)를 세우기도 했다. 양사인은 관직에 있는 동안 총 8개 고울을 다스렀으나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어릴게 하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그가 임기를 마치고 고움을 떠난 후에는 마음 사람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는 비를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양사인은 선조 10년(1577)에 안변부사(安逸所使)로 부임하여 발년을 보냈다. 이곳에서 양사인은 미래를 내다보고 말을 먹일 우문과 진초를 준비하게 하여 훗날 일어날 난에 대비하였다. 다음 해인 선조 12년(1579)에 그의 해인처럼 병란이 일어나자 그의 놀라운 예지력에 사람들이 늘라움을 금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양사인은 이곳에서 관리로서 백성을 엄격히 대하기보다 관심과 정성으로 백 성을 교화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그의 노력에 감동한 백성률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존경하게 되었다. 마음 사람들은 양사인에게 일은 은해가 부모와 같다며 거사비(宏思碑)를 세우기 도 했다. 이러한 그의 공적을 알게 된 감사(監可)가 조정에 소를 올려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자리 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양사언이 안변부사 재임 중이던 선조 14년(1581)에 지몽(智陵)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책임을 지고 해서(海西)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선조 17년(1588)에 유배생활을 마치고 돌아오 던 길에 사망하니 향년 68세이다.

양사인은 40여 년간 판직 생활을 했으나 사망 후 한 품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을 만큼 청렴한 청 백리였다. 비록 내적보다는 외적으로 따돌며 보냈으나 백성은 사망하고 본분을 다하는 관리로서 타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 평소 자신은 사지공(四知公)의 추손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 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과 문학을 사랑했던 명필가로 알려진 양사언에게 관리로 서 지내온 또 다른 생이 있었다.

2. 남다른 인생관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양사안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상 정사(正史)보다는 야사(野史)적이며 꾸며 진 이야기에 의지하는 면이 많다.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인간 양사언에 관한 기록은 용주(龍州) 조 경(拉網)이 찬(錄)한 묘간(墓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묘간에 의해 양사언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역사 연대나 기록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경의 묘감 원문에도 틀리게 기목된 역사적 사실이 있다. 바로 원나라 순제(顯帝)를 성종으로, 노국대장공주(德國大長公主)를 제국장공주(德國民公主)로 기록한 것은 명백한 오기(談記)이다. 또한 묘간 원문을 국역하면서 원문과 동떨어진 번역을 하여 봉래의 바로 밑의 아우인 사준(土(皮)을 봉래의 형으로 알려자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봉래 양사언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잠못된 사실들이 각종 논문, 강의 자료 및 도서 간

행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밝힌다.

양사언은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꾸준한 노력으로 늘 공부하고 배우는 것을 계율리하지 않아 세상사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시작(詩作)에 있어서는 꾸미어 조탁하지 않고 천의무봉(天玄無能)의 자세로 자연스럽고 호방하고 도가격(道家的)인 기법을 구사하는 뛰어난 문인으로 예찬 받고 있다. 또한 유자(儒者)로서 모든 경전을 섭렵했음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이단(異端)이라 불리던 불도(係道)에도 심취하여 천연사(大然師)나 청허(清虛)와 같은 불자(佛者)들과도 교유하였다. 양사언은 이처럼 불도에 심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선도(他道)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선도에 심취한 기약에는 세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멀리하고 자신의 존재도 돌아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양사언은 본인이 이미 이 세상의 존재가아나고 선계(極界)의 전선(真仙)으로 잠시 전계(髮界)에 내려왔다는 인식을 하며 언행은 몸은 문필표현도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유가(偏家)의 섭리와 경륜으로 다스러지는 조선 풍토에서는 이러한 양사언의 행보가 자연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대하는 언굴이 달랐음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미루어 침착한 수 있을 것이다. 양사언은 유교가 아닌 불교를 가까이하더니 끝내는 선도(他道)에 빠져들게 되면서 당시 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받아난 인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양사언은 일찍이 인생의 도리를 터득하였다는 것을 그가 24세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할 때 지었던 (단사부(丹砂縣))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단사부(丹砂縣))를 보고 젊은 선비의 뛰어 단 해안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평양촬방(平塊熟訪)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지 었던 (열유젓기(關案享託))도 양사언의 문제(安太)를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뛰어난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시 조신은 철저한 현세 실학에 근거하여 생활했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에서 양사언은 내세(來世)를 그러보고 동정하면서 심지어 현실 세계를 넘어 보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을 오염된 세계로 보고, 그러한 속인들의 생상을 벗어나 자신은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고 고고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선계를 살고자 했다. 마치 진계(墜界)와 선계(血界)를 넘나드는 권위를 전유하는 진선(真仙)이 된 듯한 정신세계를 향유한 양사언의 발년의 모습을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쉽게 넘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채근하여 살펴지 않았던 각도에서 살펴본다면 양사언의 보다 깊은 정신 내면의 세계를 알게 될수도 있을 것이다.

양사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유독 출생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 묘간(基础)이나 청주양씨(清州楊氏) 족보 그리고 양사언 어머니의 문화류씨(文化柳氏) 족보를 모두 살펴보아도 문 화류씨가 후취라든가 첩실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양사언의 가게도나 문화류씨의 가게도에 서 보아도 청주양씨 제6세 회수(希珠)의 배위(配位)가 파평윤씨, 진천송씨, 문화류씨 등 세분으로 기목되어 있다. 문화류씨 족보에도 삼척부사 뮤위(柳澈)의 사위가 양화수(最希珠)이고, 그의 아들 이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이라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테 왜 양사언의 출생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까? 그럴만한 원인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 일까? 여기서 양사언에게 나이차가 많은 이복(異顏)형이 넷이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파평윤씨가 4남2녀를 낳고 별세하시고, 진천송씨가 들어오셔서 무유(無育)으로 서세(逝世)하시고, 이후 문화류씨가 들어오셨다면 이런 저런 기록으로 보아 15세의 어린 소녀가 이미 노령인 양사언의 아버지 회수(希珠)를 만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사언의 이복 만형인 사원(士元)이나 부인인 머느리와 시어머니인 문화류씨와의 연령차도 이에 못지않게 컸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류씨부인의 운신이 얼마나 이색하였겠으며, 며느리 앞에서 시아버지의 체면 문제도 집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느 기록에 보면 양사언의 이복형 부부들이 양사언의 아버지를 배려하여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며, 뮤씨부인과의 엄청난 연령의 차를 생각하지 않고 깍듯이 어미니 예우를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양사언은 출생 후 집에서 자라지 못했다. 어떤 사정 때문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떤 나이의 어머니가 자신을 아랫마을 류촌(柳村) 외가의 외숙모에게 맡겨 거기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양사언 스스로가 밝힌 바 있다. 양사언은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다. 집에는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형과 형수가 있었다. 어린 양사인의 눈에 비친 아버지와 어머니의 큰 연령 차가 그의 정서에 평범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들러싸인 양 사언이 자신을 들어보며 스스로에 대한 예증의 감정을 넘어서서 크나른 좌절과 연등감에서 오는 애상적(哀傷的)이고 비관적인 감정을 역누르며 성장하였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양사언이 만시(挽禱)에서 자신을 키워준 외숙모 튜씨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토로한 것에 비해, 평생을 통해 남겨놓은 시 작품에 아버지나 이복형에 관한 언급이 전부한 상태라는 것만 보아도 양사인의 성장기 주변 환경이 그가 받은 정시적 영향을 어렵지 않게 미구이 집작해 불 수 있게한다. 아마도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고독과 애상 그리고 해야릴 수 없는 번만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3형제를 올곧게 동량(棟樑)으로 만들고야 말쟀다는 어머니의 지극한 일념의 정성은 힘임어 양사 언은 24세에 아우 사준(土使)과 함께 진사시에 동반(同伴) 급제하는 영예를 안게 되어 집안에 집경 사를 맞게 된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듯이, 기록에 의하면 그해에 부모상을 당 하여 6년간 꼬박 시묘(待塞)됐다고 한다. 당시 얼마나 암담하고 전박한 처지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묘갑(盜鷗)이나 청주양씨 족보에는 부모상 6년 시묘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고, 다만 당시 이복형들과 어머니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설확마다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 다양한 상상과 추측을 유발하고 있다. 어쨌든 부모상을 당한 양사인은 출생 성장기의 모든 어려움을 뒤로 하고 부모가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4년 연하인 사준(士俊)과 14년 연하인 사기(士 治)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형이 되었다.

양사언은 두 아우에게는 형이 아닌 엄한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가르치고 다듬었고, 그 결과 명종 원년(1546)에 양사언은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고, 아우 사준(士俊)도 증광문과(竹廣文科)에 급제하여 형제가 동반급제(同伴及第)하는 영광을 기분에 안겼다. 이 모든 것이 양사언의 눈물어린 열정으로 이끌어낸 결과였다. 이로부터 6년 후에는 사언(土彦), 사준(上俊) 두 형의 해정과 관심으 로 잘 자란 막내 사기(土命)도 댓날 범시분과(別試文科)에 급제하게 된다. 이는 '3형제 급제'의 보 기 드문 학문적 성공으로 평가되어 청주양문의 크나른 자랑이 되었으며, 속정 골발 양씨(谷村 楊 氏)라는 호칭까지 생기게 되었다.

앞에서도 인급했거니와 양사연의 문장과 신필(詩第)은 조화(憲化)를 두루 갖춰 기아(箕壁)의 경 지에 이르렀으며, 율(律)은 해동명적(海東名語)에 실려 그 문재(文才)를 인정받아 두 아우 사준, 사 기와 다붙어 삼형제를 중국의 미산삼소(眉山三蘇:蘇洵, 蘇軾, 蘇軾)에 비교하여 해동삼절(海東三 傑)로 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참으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삼형제이다.

조선의 500년 역사를 통물이 조선의 3대 명필로 꼽히는 양사인은 뛰어난 문필가(文筆家)로 이름을 날리며 세상의 청상(稱實)을 한 몸에 받아 부러울 것이 전히 없었을 것 같으나, 이미 앞서 연급한 것처럼 내면에 깔린 애상(寬傷) 애절(哀切)이 가득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급제하였으나 판직 발탁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불론이고, 여러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이 끊이지 않는 일상에서 40 역년 관적 수행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질러들이 있었다.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치한다 해도 때로는 역부족인 때가 많았을 것이다. 양사언이 반반히 병에 의해 사직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추측컨대 이런처린 이유로 관직을 박탈당한 적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체 후 무관(無冠)으로 10여년을 고향인 곡촌(谷村)에서 지낸 내용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 만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생활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양사 인의 시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윤가평(尹加平)이라는 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양사인의 기록에 의하면 '윤가평 형이 시람을 보내 벽을 발라주어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 며 전절 한 고마움음 표현했다. 당시 양사인이 얼마나 외롭고 서로 간에 처지를 살필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몸 알 수 있다.

이같이 양사인은 성장기의 애상(哀傷)과 외숙모, 어머님에 대한 가슴 아픈 추억, 자신의 신분상 의 한계에서 오는 열등의식과 함께 생활고로 인해 당하게 되는 비애까지 겹쳐져 그가 지닌 뛰어난 학문적 거혜와 함께 세상사를 파악하는 폭넓은 경문까지 갖추게 되었다.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적분에 충실하여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관리이며 민생 저번(庇後)을 살피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양사인의 남다른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保續)을 가까이 했다. 선도(仙道)에 빠졌다.' 라며 비평을 하기도 하지만 양 사연은 내면(內面)의 세계에서 돌출하는 에상(寬僞)와 비관(悲觀)에서 오는 고뇌를 극복하고자 했 던 노력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인간의 참모습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의미 깊은 도천(孫戰)의 행위 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사인에게는 어머니를 향하여 절규하는 애통의 용부젖음이 있었고, 자 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 사준(土(定)을 그리위하며 형으로서 다하지 못한 부족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울부짖음이 가슴 속 깊이 잘려있었다. 이러한 모든 이러움을 극복하고 환단하게 산려고 노력했던 양사인의 내면의 세계를 살펴본다면 양사인의 사상과 믿음에 대해 새로운 이해가 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양사언의 문학세계

1 작품세계

양사인은 해서와 초서에 능했던 조선을 대표하는 명필가로 손꼽힌다. 조선전기 4대 명평가는 안 평대군(安平大君), 김구(金錄), 양사인(楊士彦), 한호(韓護)이고, 조선 3대 명필가는 양사언(楊士彦), 한호(韓護), 김정희(金正喜)를 꼽는다. 양사언은 균써뿐만이 아니라 수려한 시 작품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문인이다. 특히 양사언의 시는 꾸밈이 없고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양사언이 남긴 문집으로는 〈봉래시점(蓬萊詩集)〉이 있다. 그는 서예나 시 청작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서화에도 능했다. 그의 회화작품으로는 (양봉래매란국국화참(楊蓬萊梅蘭菊竹壽帖)〉이 남아있다. 이러한 뛰어난 제능은 양사언만이 아니었다. 양사언의 3형제가 중국의 미산삼소(周山三蘇)에 견주어졌음 정도로 문인으로서의 뛰어난 제주를 세상에 펼쳤고, 양사언의 아들 만고(高古)도 뛰어난 필덕과 글씨로 이름을 펼쳤다. 그야말로 대대로 문제(文才)가 뛰어난 집안이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양사언의 문학 작품은 약 280여 편 정도이다. 그의 작품 속에서 풍류를 즐기 며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한 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고 또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세계가 어떠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양사인의 문장이 세상 에 빛을 발한 것은 그가 진사시에서 과시(科試)로 지었던 〈단사부(丹妙賦)〉이다. 〈단사부(丹砂賦)〉는 그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꿰뚫어 보는 해안(養眼)을 가졌음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양사언의 시는 풍류를 옮은 것이 대부분이나 때때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을 어린 시절 키 위준 외숙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양사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 저 외숙모의 손에서 성장했다. 흡잡을 데 없는 현모양처였던 외숙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양사언은 두고두고 외숙모를 그려워했다. 양사언이 외직으로 나와 재임하던 어느 날 꿈에 외숙모가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며 장례를 부탁했다는 딸이 전해지기도 한다. 꿈을 꾼 이후 외숙모의 사망 소식 을 들은 그는 외숙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녹아있는 작품을 남겼다.

외숙모 유씨(柳氏)의 만장(挽章)

溫溫城德自淸溟 은순하고 작한 덕은 스스로 진실하여 竹性於心幸六親 대와 소나무 같은 품성으로 육천과 화목했네 服號早成雙표행 대교 행하며 일찍이 두 이들을 길렀고 母媽佛化一家人 어머니의 의례는 한 가정을 교화시켰네 投張泰奉皆長茲 이런아이라서 아침 저녁 문안도 못됐고 三成長動碩했仁 소년등인 오래도록 이진 품에서 자랐으며 저무半途先下世 어머니가 먼저 중년에 세상을 떠나셔서 蔡平琳子홍延身 의로운 조키가 외로운 맘을 의지했네 대출하고 보다를 하는 사람은 바리는 얼어져 있음에 大須悲揚十二辰 눈문을 뿌리며 열두 때 슬피함이 간절하였네 종조화中東上語 공속대투에서 하시던 말씀 생각하면 공者丘襲학生총 차마 무덤에 몸돌 지림을 불 수 있을까

양사언은 그가 살았던 포천 지역에 부근에 있던 금수정(金水亭)이라는 정자를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수정은 포천시 창수면에 있는 정자로 서울에서 관동지방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문인들이 들렀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양사언은 이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풍류를 나누며 금수정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했다.

金水亭(금수정)

十年塵主髮如絲 십년간 속세에 사노라니 귀밑털 실같은데 一笑惺誤問幾時 한 번 웃는 기쁨인들 몇 때나 될까 晚亦江湖訪漁父 늙마에 강과 호수로 어부를 찾아가니 白鷗心事少人知 백구와 같은 마음을 아는 이 적네

(봉래시집(蓬萊詩集)〉에는 양사언이 그토록 아끼며 즐거 찾았던 금수정의 주인인 금융(季翁) 김윤복에게 써주었다는 그의 또 다른 시도 수록되어 있다.

贈琴翁(증금옹)

평소 거문고 타는 것을 좋아됐던 금용에게 안성맞춤인 시로 〈봉래시집(蓬萊詩集〉)에는 이 시골 근치 바위에 새겼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있다. 문인들이 자주 찾았던 금수정 주변에는 양사인을 비 롯해서 한호의 글씨 등이 암각되어 남아 있다. 이처럼 양사언은 본격적으로 관직에 나서기 전까지 살았던 포천지역에서 주변 문인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시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변방으로 떠나면서 작품의 배경은 부임지 주변으로 변화하게 된다. 양사인은 주로 관동지역 의 고읍을 다스렀다. 그 중에서도 평양활방(平壤豪訪)으로 제임하던 시절 지었다는 〈열운정기(隱 雲苧記〉)는 그 뛰어난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은 금치 못했던 작품이다.

열운정기(開雲享記)

"(상략)…… 대통관(大同館)은 기자성(箕子城) 중의 통상(東痢)아래에 있고 작은 역사(緊含)가 있어 칠방(察訪)이 거치한다. 역사 위에 작은 정자가 있으니 칠방의 청사(廳含로 본래 이름이 없고 산 정(山亭)이라고 불렀다. 병진년(丙辰年) 겨울에 나의 친구 청계용(淸渓翁)이 와서 이름이 없는 것 을 한탄하고 나에게 이름을 청하였다. 나는 '열운(閱讀)'으로 고하니 정계용이 크게 기뻐하며 이 르기를 "나의 뜻과 같다"고 하면서 곧 순수 크게 세 글자(閱雲亭)을 써서 못을 박아 백 위에 걸 고 또 나에게 기문(配文)을 청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돌에 부딪쳐서 생겨 점점 모이는 것은 태산 (泰山)의 구름이고 다만 편안히 즐길 수가 있지만 갖다가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은 산언덕 위의 구름이다. 옛 사람들이 구름에서 취한 것이 이 같으니 내가 무엇을 보고 이름을 붙였겠는 가?

아! 구름이란 공중의 하나의 무물(無物)이다. 무심히 생겼다가 자취 없이 흩어져 푸른 개처럼 되었다가 함옷처럼 되어 갑자기 변하여 마침내 무명(無彩의 물건으로 돌아가니, 나는 여기에서 느낀 바가 있다. 아득한 던 길에 판사(宣會)에 투수하면서 왕래하는 사람이 날마다 몇 천 명이나 될까. 구름 같은 기(城)에 왕절(韓部)을 가지고 꾸불꾸불 오면 역관(導館)이 분구히 그의 명을 대기하는 지도 있고, 잘 마리의 말을 타고 문서를 가지고 달리면서 오고 감을 고하면 역의 이전들이 증명을 가지고 그의 물건을 감사하는 자도 있고, 곱추가 물건을 지고 역의 하인들과 너니 내니 하면서 서로 꾸짖는 자도 있고, 역암을 돌아 달려가는 지와 증명을 조사하고 먹여주는 자, 수레에 올라 천천히 오면서 시름없이 돌아가는 자가 있어, 온 사람은 가고 간 사람은 오며 노래하면서 보내고 물면서 이별하는 자도 있다. 인간세상의 사생(死生), 궁말(察)할, 비환(悲劇), 이합(蘇合)을 한 길가운데서 편히 볼 수 있고, 한 정자 이라에서 모두 지켜 볼 수 있으니,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 천지간의 여관이 되고, 새상일은 뜬 구름과 같아, 여기에 앉아 모두 볼 수 있으니 마치 늙은 선인에 세상을 구경하면서 죽지 아니하고 우뚝하게 홀로 살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불어 까닭이다라고 작동하게 홀로 살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불어 까닭이다라고 작동하게 홀로 살아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이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불어 까닭이다라고 작품다는…(하락)

관직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관동지역 중에서도 양사언이 특별히 사랑했던 것이 바로 금강산이다. 그의 금강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은 그의 생애 전반에 전혀 찾아볼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호를 '붕래(蓬萊) 라고 했고, 관직의 대부분을 관동지역에서 보낸 것도 스스로 자청하여 부임했기 때문이었다. 양사언의 문집인 (봉래시집(蓬萊詩集))에 수록되어 있는 서를 소재별로 살펴보아도 금강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양사언이 단지 금강산이 경치의 아름다움에 반해 금 강산 주변지역에서 미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선택한 것이 외적이었고, 그곳에 금강산이 있었다.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가 때어난 자연미를 간직한 금강산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면서 자신의 문학적 감성을 꽃과우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양사언은 금강산의 품 안에서 자신의 문학세계를 크게 넓혀갔고 그의 작품 대부분이 그가 판 동지역에 머물던 시기에 지어졌다.

양사언은 항흥부사(成與府使)를 시작으로 관동(關東)지역의 고을들을 옮겨 다니며 다스렀다. 급 기야 관동지역의 매력에 실취한 양사언은 아에 금강산 동쪽에 있는 구선봉(九世寨) 아래 감호(鑑 湖) 주변으로 이주했다. 집 윗쪽에는 비래정(飛來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양사언은 그곳에서 관동지역의 풍류를 마음껏 즐겼다. 당시 지은 飛來亭(비래정)이라는 시름 보면 당시 그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다.

飛來亭(비래정)

바다는 신선세계로 들어왔고 海入壶中地 樓居水上天 누대는 물위의 하늘에 떠있네 青浮雙玉筍 푸른빛 띠고 떠있는 것은 옥순이고 紅折萬金蓮 붉은 꽃잎은 희귀한 연꽃이네 煉汞龍吟鼎 수은을 달이니 용이 손에서 우는 듯 餐霞骨已仙 안개를 먹음에 몸은 이미 신선일세 君招帯鶴洒 그대는 황학을 불러 술을 마시게 吾與白陰眠 나는 백구와 함께 잠을 자리라

양사인은 천분이 깊었던 이달(李逵)과 함께 구신봉 부근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서로 댓구를 지어 답하며 흥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사인의 〈구신봉(九仙業)〉이라는 시를 듣고는 이달이 더 이상 댓구 짓기를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처럼 놀라운 시는 상대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 해진다.

九仙峯(구선봉)

九虬(向日九天中 구선이 언제 높다린 하늘 기운데 萬里宋遊爾紫虹 멀리서 와 놀면서 무지개를 있었나 端海勝區看未厥 바다의 좋은 경관 볼 때마다 싫지 않아 至今離立使長空 지금까지 속세 떠나 하늘에 의치해 서었네

양사언이 금강산 유람 중에 지인인 차식(耶軾)의 시에 답하여 금강산 동북쪽에서 물이 홀리내림 을 형용한 시를 지었는데 차식이 그 시를 듣고 감단하여 이르기를 "이 시는 옛사람들도 도달하기 이리운 곳에 단했다"라고 했다. 또 허균(計算)은 (학산초담(韓山樵蔵))에서 양사인의 시를 인킨어 불개(佛陽)와 간다고 하면서 양사인을 두고 풍골(異骨)이 속되지 않았고 필법이 기고(奇古)하다. 평범한 장에서 벗어나 있으니 금차마다 신선의 풍격이 있다며 감탄해마지 않았다.

양사인의 금강산 사랑은 급기야 청하대사(結底大師)에게 거처를 봉래산으로 옮기기를 청하며 보낸 편지글인 (기청허사(寄消應弈))에서 절장에 달한다.

> "텅 비고 푸른 동해 바다와 옥설이 뒤엉킨 봉래산은 청하대사가 거하기에 마땅하거늘 무슨 마귀가 막고 끌어당겨 9년 동안이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끝내 봉래산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몸을 일으켜 서쪽으로 가서 도사의 소매를 잡고

동쪽으로 올 것입니다."

"봉래산은 천하 제일의 명산으로 새벽에 천하에서 먼저 양기(陽氣)가 향하는 바이니, 생불(生佛)과 진선(眞仙)인 그대와 내가 오늘 만행 중에 만행이 아닙니까?"

이처럼 양사인은 자신이 좋아하고 깊은 교류를 나누던 사람들을 금강산으로 이끌어 함께 그 정 취를 나누고 싶어 했다. 양사언에게 금강산은 더 이상 자연 그대로의 산이 아니었다. 그에게 금강 산은 자신의 도가적 성향으로 이어지는 신선들의 세상과도 같았다. 이러한 그의 정서가 금강산을 노래한 그의 시에 잘 나타나였다.

新卜關東(신복관동)

源明心事歸來號 도연명의 마음으로 귀거래사를 옮었고 摩詰生涯朝中國 마힘의 한평생 망천에서 살았네 超然遠蹈蓬山路 속세를 떠나 봉래산 길을 밟노라니 萬二千峯書也無 일만이천복은 그림이라 없구나

遊根嶽和車紫洞(유풍악화차자동)

山上有山天出地 산 위에 산 있고 하늘이 땅을 내었으며 水邊流水水中天 물가에 몰 흐르고 물 속엔 하늘이 있는데 滄范身在空虛裏 아득한 내 몸은 텅 빈 하늘 속에 있으니 不是烟霞不是仙 노음도 아니거니와 신선도 아니니라

양사언의 고향인 포천군을 비롯해서 그가 부임했던 삼척, 함흥, 평창, 강릉, 최양, 안변, 칠원 등 지에는 그의 뛰어난 편체가 암각화로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바로 만폭동에 남긴 글자 인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 元化納天))이다. 워낙 유명한 암각화여서 이를 둘러싼 많은 이야 기들이 전해진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蓬萊根縣元化阿天)의 8개의 커다란 글자를 보니, 자체가 횡일(核邀)하고 꿈틀거려 사람의 마음과 눈을 현혹하게 하나 획력(當)까이 부용하지 못해서 마음에 매우 괴이하게 여겼었다. 전년에 풍악에 가서 보니, 만꼭동에 누워있는 큰 돔 위에 새겨져 있는데, 급류에 씻겨 마딸된 데 다가 관광(함)과 유림객들의 탁본이 쉴 날이 없어서 몇 년 못가서 흐려지게 되었다. 이에 중들이 제 멋대로 쪼아 새긴 것이 이미 백 수십 번을 되풀이하여, 다만 윤곽만 방불하게 남아 있을 바요 그 신기((神氣)와 정재(蔣宗)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봉래의 글씨라는 것만 등고 '금강산과 같이 높다' 하는 것은 모두 들은 풍월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양사인의 문학세계는 그의 생에 전반의 모든 변화를 담고 있다. 평생 동안 그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신분상의 문제부터 관직생활과 종교적인 민음의 문제까지 그의 모든 변화가 그의 작품에 투영되어 남아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작가의 분신과 같다. 양사인을 제대로 안기위해서는 그의 작품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봉래(蓬萊)의 풍류와 지인들

양사언의 시 작품 세계에 담긴 도가적인 성향 때문에 그가 청연(靑斑) 이후백(李後白)에게 사音 배웠은 것이라는 설이 있다. 그러나 양사언이 이후백에게 시를 배웠다는 정확한 기록이나 자료는 없다. 다만 양사언이 이후백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이의건(李義楚),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動) 등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후백과 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같이 배우고 작품을 공유한 인맥들이 잘 알려져 있는 것에 반해, 그 방면 에서는 별달리 알려진 바가 없는 양사언은 아마도 문화 창작에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 자신만의 작 품 세계를 구축해 나아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양사인과 교류가 있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고향인 포천을 중심으로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양사인의 도가적 백락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남사고(南師古)를 꿈을 수 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양사인이 점치는 일에 능했는데 이는 남사고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남사고는 중종과 명종 시대의 사람으로 벼슬을 하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던 중에 깨닫음을 얻어 역확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특히 예언에 능해서 문정왕후의 죽음과 왜구침 략, 동서분당 당쟁 등을 예언했다고 한다. 남사고와의 만남은 화담 (花頭) 서경탁(徐敬德)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양사인은 남사고, 서경덕과의 만남으로 역학에 눈을 때 예언에 능했다는 평음 듣게 되었다.

사실 양사언과 가장 밀접한 인물은 초당(草堂) 허엽(許畔, 1517-1580)이다. 양사언과 같은 해에 태어난 허엽은 포천의 두문동 근치에 거주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문과에도 함께 급제한 인연이 있다. 허엽의 이들인 허균(許筠)이 쓴 (화산초담(鶴山樵談))에서도 허엽과 양사언의 천분은 언급 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양사언은 허엽과의 천분으로 서로 많은 시를 써 주고 받았는데 대표적 인 시로는 (謝養單堂社論(사혜초당두시))가 있다.

謝惠草堂杜詩(사혜초당두시)

我爱杜工部 나는 두보의 시를 사랑하는데 文章天下先 그의 문장은 천하에 제일이며 구슬같은 시가 붓끝에서 나왔고 珠璣生筆翰 造化謝機權 조화는 웅모(雄謀)를 칭찬할 만하네 不見治三載 그대를 보지 못한지 상년이지만 相思抵百年 서로 그리워함은 백년이 된 듯하고 지금에야 푸른 눈을 떠서 今來開碧眼 草罷太玄篇 태현경 초(草)하기를 마쳤네

이 시는 허업이 두보의 시를 보내 준 것에 고마위하며 쓴 것으로 허엽파의 친분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이다. 동갑내기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교류했던 양사언은 허업이 사신이 되어 중국으로 떠날 때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시로 지어 전하기도 했다.

送許草堂出使江南(含허초당출사강남)

北尉承恩日 궁궐에서 임금의 은총을 받은 날 南州田使臣 남쪽 고울로 사신가는 신하일세 桐花應來笑 매화는 맞이하여 응당 웃음 지으리나 莫作未歸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지는 말게

하염은 양사언이 강릉부사(江陵遊憩)로 재임하고 있을 때 손곡(舊谷) 이탈(李達, 1539~1612)을 소개해 서로의 천분을 이어준다. 허염의 소개로 이닫은 양사언과 적지 않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감을 나누는 벗이 된다. 이닫은 최경창(崔慶昌),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삼당시인(三唐 訪人)으로 이름을 펼쳤던 문인이다. 그러나 서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낼다른 벼슬을 하지 못하고 말단관작을 한 것이 전부이다. 신분상의 한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던 양사언과 이달은 함께 금 강산을 유탑 다니면서 풍류를 즐겼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양사언은 봉래산인(蓬萊山人)이라고 하였고, 이달은 이적선(李嶺仙)이라 청하미 신선세계를 동경했다.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문화세계를 공유했던 양사언은 자신은 두보(杜甫)에 이달을 이백(李白)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 낼한 천분을 유지하던 세 사람은 허업이 먼저 사망하자 양사언이 그의 고갈을 썼고, 양사언이 사망하자 이달은 그의 죽음을 액도하는 (국악본래(樊福蓬莱))라는 시를 지어 그를 추모했다.

哭楊蓬萊(곡양봉래)

知是人間尸解身 이는 인간 시해의 몸인 줄 알겠으니 不須附能說法而 모릅지기 슬픈 눈물로 수건 적실 일은 이니라네 蓬萊海上東醫路 봉래 바닷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달布類妹千樹총 이마도 벽도 천 그루 볼날이 있으리라

허염 외에도 양사언파 등갑 지인이 한명 더 있다. 바로 차식(車杖, 1517~1575)이다. 차식 또한 화담 서경덕의 문인으로 문과에 급제해 고성군수(語域都守) 채임시절에 해산정(海山宇)을 지어 놓고 양사언과 풍류를 즐겼다. 양사언의 급강산 유람에 동행했음은 말한 나위도 없다. 이때 발연사(鉢 顯孝) 부근의 반석에 시를 지어 암각해 놓은 것이 지급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하염, 이달, 차식 등이 양사인과 문학적 감성을 서로 공유했다면, 양사인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겨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인도 있다. 양사인이 전사시에 합격 후 부모상을 치르며 마땅한 관직이 없이 10년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자주 교류했던 운가평(尹加平)이다. 그가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양사언에게 어려므로 도움을 준 사실을 그의 시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謝加平送圬奴晉石鏝治屋壁(사기평송오노진석만치옥벽)

送王承福建5緩 왕승복을 보내주어 벽을 바르니 感兄嘉惠坐長僕 형의 은혜 감사하면서도 앉이서 탄복할 뿐 請借更窮三日力 곤궁한 이때에 사흘간이나 힘을 빌어 盡除風雨十年寒 바람과 비 십년간 추위를 더 막았네

양사언이 천분을 맺고 교류했던 인물 중에는 승려도 있었다. 불교에 관심이 많았던 양사언은 천 연사(天然師)라는 승려와 천분이 깊었다. 천연사는 양사언, 박순(朴淳), 허봉(許寶) 등과 교류한 승 려로 허균(許筠)의 (학산초담(韓山機義))에서 그에 대한 기목을 찾을 수 있다. 본래 천연사의 집 안은 공혼을 세운 문벌이었으나 그는 그 지위를 버리고 불가에 귀의하였다. 승려였으나 기백이 남 달랐던 인물이다. 이런 면모는 임진왜란 때 천연사가 청허(情慮)와 함께 공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천연사, 청허, 양사언은 서로가 끈끈하게 교류한 것으로 보인다. 성허(晴康)는 우 리가 서산대사로 알고 있는 인물로 임진왜란 때 승병장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봉래시집(蓬 潔詩集))에 전해 오는 양사언이 청허에게 보낸 편자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천분이 깊었는지 집작 할 수 있다. 양사인과 천분이 있거나 문학적으로 교감을 나누었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나마 교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향인 포친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다. 양사인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과 천분을 나누었으나 그들과 나눈 품류와 서사는 그 어떤 인연보다도 깊고 풍성했다.

V 양사언을 말한다

"선생은 정축년(1517)에 태어나 감신년(1584)에 돌아가셨으니 지금으로부터 50년이 되었다. 우리의 고향에서는 부녀자나 농부가 선생이 사시던 마음을 지날 때는 반드시 선생의 마을이라고 말하고, 선생의 묘물 지날 때는 선생의 묘라고 아르니, 어찌 가르쳐서 이르겠는가. 우리 고을이 아니더라도 사방의 사람들이 선생의 성명을 모르는 자 있으라. 비유하건데 상서러운 기련과 아름다운 상황이 비록 수천 년 빛을 감췄을지라도 구포의 턴과 귀창의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줄 알아, 어디선가 직접 보고 들은 듯이 여기가늘, 선생의 명성을 전하는 것을 과연 필석에 새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하니, 중정공이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의 효우와 행동과 치적, 경력과 벼슬의 시중을 내세에 밝히지 않을 수 없다'하였다."

이것은 양사언의 사망 이후에 잔은 고장 출신인 조정(趙納)이 적은 묘관명(集路銘)의 일부분이다. 양사언은 40년 넘는 관직생활로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관리보다는 도가적 취향을 가진 명필 서예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관료였으나 유교적 인물이기보다는 불교를 가까이 한 사람이면서 딸년에는 도가적인 성향을 된 인물이다. 이것은 유교적 이념을 따르는 신비로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옛 기록에서는 양사인을 풍류를 즐기며 도가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당하고 있다. 및 가지 기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포천현의 움지(色誌)인 건성지(堅裝誌)에는 '세상에 뛰어난 재사로서 시와 필법이 기이하고 힘 찼다. 산수를 즐겨 유람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신선(胂仙)의 풍채(風采), 도인(道人)의 기골(氣情) 이라고 청송하였다. 회양, 강릉 등의 읍읍 역임하였는데 모든 곳에서 이적이 있었다.'라고 양사언 을 가득하고 있다.

양사인이 6년이라는 긴 기간 등안 재임했던 강릉의 〈강릉부음지(江陵府邑誌)》에 따르면 양사언은 '몸가짐이 곱고 깨끗하였으며, 정사를 간결하고 평이하게 하였다. 관리의 봉급을 매우 공평하게 지급하고, 관아에서의 쓰임색는 매우 박하게 하였다. 관직에 있었던 6년간 한 자의 배도 가장에 보면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지봉유천(芝澤類說》) 에서는 '봉래 양사언은 안변부사로 있으면서 문서나 책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산수를 찾아다녔는데 어떤 때는 열흘간 돌아오지 않았다.' 라며 풍류를 즐겼던 양사언을 기록 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양사언은 산수를 즐겨 유람을 즐기는 풍규객이었다. 만 년에는 신선 혹은 도인과 같은 분위기를 풍겼던 도가적 인문이었으나 그렇다고 정사에 소혼한 것 은 아니었다. 매사에 공평하고 청렴한 모범적인 관리였기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효성이 깊고 우애가 깊었음은 더 말한 나위도 없음이다. 양사언이 도가적 성향을 띄었다고는 하나 실제 기인처 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의 작품에서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찾을 수 있을 뿐 이다.

이익(李漢)은 〈성호사설(星湖僅號〉) 에서 양사언을 두고 신선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그 균 씨 또한 그 인물과 같은데, 사람들이 그 글씨가 진속(原俗)을 벗어난 줄은 알아도 그 시가 세상 사 람의 말이 아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의 작품세계가 현실세계를 초원해 신선의 세계와 같이 신 비한 경지

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양사언과 각별한 관계였던 허업의 아들인 허균(許勞) 또한 양사언과 교류가 있었다. 허균은 그 가 쓴 '홍결동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분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던 신념을 갖고 있던 인물로 양사인과 정서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관계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히 균(許勞)은 (학산초담(魏山權談))에 양사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적었다. '양사언 선생은 아랑과 풍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숭상되었다.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사마시와 문과를 그와 함께 급제하였으므로 가장 가깝게 사귀셨다. 문장이 세상에 뛰어나 구름을 넘아서는 기운이 있었으며, 조서를 잘하였는데 마치 용과 뱀을 내어놓은 듯하였다. 성품이 가벼워서 벼슬자리에 있으면서도 산수에 마음을 붙이고는 미투리를 신고서 바위와 골짜기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謝成樂에다 견주었다. 일찍이 강당 고을을 다스렀는데 은해로운 정치를 태품었으므로 가사비(去思陣)를 세워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봉래가 중약(與說)에 있으면서 시를 지었는데, (중략)…… 신선의 풍채와 도인의 기골이 때우 깊게 들어있다. 중앙이 화답하였는데, (중략)…… 비록 좋기는 하지만 끝내 봉래의 성운을 따라가지는 못했다. 라고 기록했다.

《한국문화통사(조동인蓄》) 에서는 양사언을 도가적인 인물로 꼽았는데 '과거에 급재해서 지방 관을 두무 역임하는 동안 희양군수로 있을 때 금강산을 자주 드나들었으며, 거기서 노는 기분을 시로 옳은 것이 여럿 있어서 나중에 금강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금강산의 딴 이름인 봉래(蓬萊)로 호롭 살아 도가적인 기품을 풍겼기에 전설과 잘 어울린다. 그런데 앞에서 든 사람들처럼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스러운 문구는 찾지 않고, 널리 인정될 수 있는 사람 것 되 표현이 기발하고 탈속한 느낌이 들도록 해서 천의무봉(天衣無諱)이라는 평을 들었다' 라고 적고 있다.

양사인은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국복하고, 이단으로 배척반던 불가와 도가를 거리낌 없이 넘나 들었던 인물이다.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도 백성 위에 군림하려하지 않았고, 청렴함을 자랑으로 여 긴 청백리로서 한 푼의 재산도 가족에게 남기지 않았다는 그의 삶은 모든 이의 귀감이 될 만할 것 이다. 이러한 양사연의 일생을 조정(蔣錦)이 묘작명(藁訴銘)에 잘 정리해 놓았다.

> "원정(元精)이 배태되어 독실한 이언(異人)을 낳았도다. 내외의 방술(方術)에 온갖 정신을 쏟았고, 처음에는 이단(異端)을 기까이 하더니 나중에는 선도(仙道)에 빠졌도다. 이단과 선도를 하지 않았 다면 넉넉히 오천(象天)에 드실텐데 겨 찌꺼기의 시편(詩篇)이 인간 세상에 떨어져 흩어진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봉래 양사인(蓬萊 楊士彦)의 출생과 가족 관계부터 40여년에 걸친 관직생활과 그의 작 품 세계까지 살펴보았다. 양사언에 대해 남아 있는 기록이라고는 묘간(臺閩)과 시집(詩集) 뿐이라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그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생애와 작 품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봉래 양사인은 조선의 3대 명필이자 뛰어난 군인이다. 그러나 그 명성에 비해 그의 관직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내직에 재임하던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기간이 짧았고, 내직에 재임 중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양사인의 출신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실 양사인은 이런 충돌은 피하고자 자정하여 외적으로 둔며 40여년의 관직생활을 대부분을 보냈다. 흑자들은 양사인이 자연을 사당하여 풍류를 즐기려는 마음으로 외작을 자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적으로만 옮겨 다니며 재임했기 때문에 자연과 중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의 문학적 제능이 꽃을 피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가 외적을 돌며 풍류를 즐겼던 풍류책이라고 널리 알려졌으나 관 적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善政)을 펼쳐는 것을 제윤리 하지는 않았다. 관리로서의 양사인은 백 성음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일말의 사리사육이라도 품지 않는 정택리로 명성을 드높였다.

양사언은 관직생활을 40여 년간 했으나 교류한 인물에 같은 관직에 있던 사람은 드물다. 몇몇 문

인(文人)과의 인연 외에는 포천지역 사람들과 불교 승려들이 대부분이다. 양사언은 '태산이 높다 하되' 로 시작하는 그의 시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끝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진취적 인물이었다. 양사언은 인찍이 유교학자로서 관직에 나아갔지만, 후에는 불교에 심취했으며 마지막에는 선도 (仙道)에 빠져 신선이 되고자하는 이상향을 추구했다. 이러한 믿음의 변화는 당시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런 성향 때문이었는지 당시 사람들이 이단(聚編)이라 여겼던 불교와 선도에 열 면 마음으로 다가섰던 것일 수도 있다. 500여 년 전 사회에서 이미 동념을 벗어난 사고에 두려움이 없었던 그의 자유로움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며 인생을 올 끝게 산 양사언의 생애에서 이 사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할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어 서 기쁜 마음을 감출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봉래 양사인의 일생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다

봉래 양시언 선생 연보(年譜)

연령	왕력	간지	기원	약 력
1세	중종12	T∄	1517	敦寧主簿 看珠와 文化柳氏 사이에서 출생 외숙모 柳氏 밑에서 성장
5세	중공16	*E	1521	동생士俊출생
15세	중종26	辛卯	1531	동생 土奇 출생
24세	중품35	庚子	1540	진사시에 급제. (丹砂趺) 자음동생 土食 진사시에 급제 부친 · 모친상을 당하여 6년간 탈幕
30세	명종 1	内乍	1546	庭試文科에 급제, 동생 士俊 增廣文科에 西취로 급제
36세	명종 7	壬子	1552	동생 노奇 진사시에 합격
39세	명종10	乙卯	1555	成興府使 재임시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
40세	병종11	丙辰	1556	12월13일 외숙모 유씨 별세 大同來에 福拜, 平壤紫訪으로 채임/〈閱雲亨記〉지음
41	명종12	TE	1557	동생 土役이 平壤應尹 재임 중 체직 당함
42세	명종13	戊午	1558	海思歌과 鄭士龍의 내통문제에 관련하여 추국 당함
44세	명종15	庚申	1560	푸븝郡守로 도임
45세	명종16	辛西	1561	동생 士奇 別試文科 丙科로 급제
47세	명종18	癸亥	1563	동생 士俊 杆城郡守로 재임
48세	명종19	甲子	1564	平昌郡守임기만료 후 내적인 司찰에 제수된 高域郡守 九仙훈 아래 鑑測에서 거주, 飛來亨 긴립 遠原郡守에 자원 하여 도임
49세	명종20	乙丑	1565	신병으로 鉄原郡守 사직
50세	명종21	内寅	1566	4월 淮陽府使足 도임 만복통에 〈蓬莱機景元化治天〉 8글자를 새긴
52세	선조 1	戊辰	1568	5월28일 신병으로 淮陽府使 사직
55시]	선조.4	辛未	1571	江陵府便로 도입 (6년간 재임)

연령	왕력	간지	기원	약 력
584	선조7	甲戌	1574	아픈 楊萬古 출생
61세	선조10	7丑	1577	安逸府使로 부임/ 공로를 인정받아 通政大夫에 加資됨
62세	선조11	戊寅	1578	柳根과 함께 國료를 유람
65세	선조14	辛巳	1581	智陵 화재 사건으로 海西(長湖)에 유배
68세	선조17	甲申	1584	5월12일사망
	인조11	癸酉	1633	楊萬古에 의해 〈蓬萊詩集〉 판간
	인조12	甲戌	1634	趙納이 (嘉碣銘)을 지음
		辛未	1991	告明嗣(길명사 : 포천시 향토유적 제45호)에 配亨 됨

참고문헌

1. 자료

통대시점 (建葉詩集) 국조인물고 ([[형]人物考) 청주양씨대동보(清州楊氏大同譜) 문화류씨세보 (文化柳氏世譜) 통대양사언묘산 (蓬莱楊士彦嘉楊) 하균전점 (詩海全集) 포원군지 (始川郡誌) 한시작가작품사전 (漢詩作家作品事奠) 포천의 인봉지 (徳川의 人物誌)

2 단행보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시〉, 경인문화사, 2000 홍순석, 〈양사언의 생애와 문학〉, 강남대출판부, 2001

3. 논문

홍순석, (양사언 출생설화 연구) 홍순석, (양사언 시에 나타난 도가적 경향)

漢山의 소재(所在) 연구

이 강 범 (하남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목 치

- I.서론
- II. 백제도성(百濟都城)과 한산(漢山)의 중요성
- Ⅲ. 한산의 개념과 위치
- IV 이성산성(二聖山城)과 남한산성(南漢山城) 그리고 남한(南漢)
- V.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의 허구성(虛構性)
- VI.백제 초도(初都)는 지금의 남한산성
- VII. 천도(遷都)와 이도(移都)의 의미
- VⅢ, 개로왕 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 IX. 풍납토성이 한성이라 할 수 없는 이유
- X. 남한지역의 백제왕궁 예상지
- XI. 결론

집필자 이 강 범 하남문화원 항토사연구소장

I . 서론

한산(漢山)은 삼국시대에 주로 불리던 산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산은 백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산은 백제 도성(都城)과 봉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이한다.

먼저 백제와 한산에 대한 삼국사기 의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 시조 온조왕(溫祚王)이 기원전 18 년 한산(漢山)의 부아악(負兒岳)에 올라 살 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고 천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운 형세를 보고 그곳에 도움을 정하니 이른바 하남위래석(河南起鶴域)이다.

그 후 한산에 도읍하여 2-3번에 걸쳐 한산 주변에서 도읍을 옮겨 다니며 국가를 경영하다가 475 년 개로왕이 한성을 합락 당한 때 까지 493년간 유지해 왔던 것이 한성백제(萊城百濟)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에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한성백제 도성의 소재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성백제가 도읍으로 삼았던 한산을 중심으로 한산이 지금의 어느 산이며 한산의 어디에 어떻게 도읍하였는지 그리고 도성주변의 땅은 당시에 어떻게 불리었으며 어떠한 변천과정 을 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한성백제 도성소재에 대한 논쟁의 진위를 판별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백제가 처음으로 도옵한 곳은 하남위례성인데 학자들은 왜 강북의 북한산 부근에서 강남으로 이도(移都)하였다고 하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하는 이른바 하북위례성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근거는 명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도성을 옮긴 일에 대하여 천도(遷都)와 이도(移都)로 각각 구분하여 적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다르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를 추적해 본다.

또한 이성산성이 처음에는 남한산성으로 불리었으며 그에 따라 이성산성 부근의 광주고읍 땅이 남한으로 불리게 되었고 남한산성은 남한성으로 다시 한성으로 호칭이 변경되는 경괴를 살펴보고 당초의 남한산성이라는 이름이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가게 된 연유를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풍납토성이 한성이라고 할 수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옛 남한지역인 지금의 하남시 춘궁 동 부근 지역에서 백제 왕궁지로 유력시 되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백제도성(百濟都城)과 한산(漢山)의 중요성

1. 백제도성은 한산에서 시작 되었다.

삼국사기 백재본기 시조 온조왕 조에는 '은조가 고구려의 주몽왕과 함께 있다가 주몽이 북부여 에 있을 때 낳은 아들(유리)이 찾아와 태자가되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 마침내 오간(烏干) 마리(馬黎) 등 열 명의 산하와 다분이 남쪽으로 떠나자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마침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들려보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원문의 기술을 보면 '수지한산등부아악(後至漢山登貨兒岳)이라고 하여 마침내(笈: 마침내 수) 한산에 이르러(至: 이름 지, 도착 지)부아악에 올랐다'라고 하여 한산에 도착하여 부아악 이라고 하는 하나의 봉우리에 올랐으니 어디까지나 한산 내(內)에서 이루어진 활동일은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아 둘러보았는데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명의 신하가 간하여 말하기를 '생각해 보건대 이 하남(河南)의 땅은 북으로 한수(漢水)를 두르고(北帶漢水 : 라대한수) 동으로는 높은 산악에 의지하고 있으며(東據高岳 : 동거고악) 남쪽으로 기름진 둘이 바라다 보이고(南望沃澤 : 남당옥택)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있으니(西毘大海 : 서조대해) 그 천 연의 요충과 토지의 이로움이란 얻기 어려운 형세입니다. 하면서 이곳에 도움을 세우는 것이 적당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차하남지지(惟此河南之地)라고 하여 '생각해 보건대(惟·생각할 유) 이(此 이쪽 차) 하남의 땅'은 이라고 함으로서 한산과 부아악이 한장의 남쪽 지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두 히 작도어사불역의호(作極於斯不亦宜乎)라 하였으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직당하지 않겠 습니까' 함으로서 '도읍을 세위(作器) 이곳에 살게(於살 어 거할 어, 斯이쪽 사)하자는 문구는 도 음을 하남에 세우자는 열 신하의 간곡한 주청인 것이다.

결국 온조는 하남위례성에 도읍해 열 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심제(十濟)라 하 니 이때가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海嶷) 3년이니 기원전 18년의 일이다. 라고 기록함으로서 온조의 백제건국은 한산이 있는 한강 남쪽 땅 즉 하남 땅 위례성에서 시작되었음을 명료하게 기록 하고 있다.

2. 온조 14년(BC 5년)에는 한산아래(漢山下)로 천도(遷都)

은조 13년(BC 6년)에 왕도에 흉사(凶事)가 잇따라 일어났는데 살펴보면 2원에 왕도에서 늙은 할 미가 남자로 변하고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궁성으로 들어 왔다. 왕의 어머니가 죽으니 이때 나이가 61세였다

왕은 5월에 신하들에게 '나라에 요망한 조짐이 거듭 나타나고 국모마저 세상을 뜨시니 형세가 이대로는 안도한 수 없으므로 필시 나라를 옮겨야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한수(漢水)의 남쪽을 돌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름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오래도록 편안한 계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 고 천도한 의사를 밝힌다.

7월에는 한산 아래 목책을 세우고 위해성 백성들을 옮기는 일을 완료(就: 마칠 취)하고 8월에는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고 알리고 마침내 강역을 확정하니 북으로는 패하(浪河)"에 이 르고(北至浪河: 북지패하) 남으로는 웅천(熊川)"까지로 하고(南聚熊川: 남한웅천) 서로는 큰 바 다에 닿고(西窮大海: 서궁대해) 동으로는 주양(走壤)"에 이르렀다(東極走壞; 동국주왕)

9월에 성과 궁궐을 세우고 온조14년(BC 5년) 1월에 수도를 옮겼다고 하여 수도를 옮긴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고대 왕실에서는 왕실에 흉사가 닥쳤을 때 도읍을 옮겨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풍 숨이 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가 죽기 전 해인 BC211년 몹시 불길한 정조를 당하여 늘 불안을 느끼면서 살 았는데 즉 하늘의 별자리 중 황도를 침범 당했다거나 동도(東都: 낙양)에서 '시황제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는 글자가 새겨진 운석(版石)이 발견되고 그해 가을에는 한 사신이 신선에게 붙잡혀서 '금년에 조룡(龍龍)"이 축는다.' 라는 발을 들었다는 등 진시황에게 불권한 일들이 보고되고 있었다. 이에 진시황은 불안하여 점술가에게 물어보니 도성을 떠나았으라는 말을 듣게 되고 다음해 BC 210년 5차 순유(巡差)의 진을 떠났다가 결국 시구(沙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하는데 온조도 도움을 옮겨 액운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였던 모양이다.

기원전 6년(온조왕 13)에는 나라에 흉사가 겹치므로 왕은 한산아래(漢山下)에 목책을 세우고 위 례성의 백성을 옮기고 이듬해(기원전 5년) 1월에 도읍을 한산 아래로 옮겼는데⁹이 또한 한산 기슭 2~3부 능선에 해당하는 지금의 이성산성(二聖山敷)이다.

¹⁾ 지금의 예성강 2011 최몽룡 '이성산성과 백제'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²⁾ 지금의 안성천 2011 최몽룡 '이성산성과 백제'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³⁾ 지급의 순천 2011 최몽룡 '이성산성과 백제'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⁴⁾ 진시황(泰始皇)의 별칭

⁵⁾ 삼국사기 권 제23 백제본기 제1 시조 온조왕 13년 조

이렇듯 천도한 곳이 한산이라는 산의 아래이니 한산 기슭 또는 한산에 연(連)한 평지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에도 한산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 후 한산 아래의 택제도성(百濟都城)인 지금의 이성산성은 남한산성(市溪山城)⁶ 남한성(市溪 城)⁷ 한산성(漢山城)⁶ 한성(漢城)⁹ 온조고성(溫祚古城)¹⁰ 등으로 불리면서 지급은 이성산성(二聖 山城)¹¹이 된 것이다

3. 근초고왕 26년(371년)에는 한산(漢山)으로 이도(移都)

백제는 근초고왕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것은 근초고왕 24년(369년) 고구리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치양(雄瓊)¹³에 와서 전을 치고 군사들을 나누어 민가를 침범 약판할 때 왕이 태자에게 군사를 주어 그들을 치부수고 5천여 명의 목을 배었으며 근초고왕 26년(371년)에는 고구리 군사들이 먼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오백 왕은 폐하 장가에 군사를 숨겨두고 이들을 기다렸다가 공격하니 고구리 군사는 대 폐하였다.

이러한 고구려 군사의 잦은 공격을 받자 그해 겨울에 왕은 태자와 함께 정예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新由)¹³가 한껏 싸워 막다가 날아온 화

⑤ 고리사 관계 %, 17장 취속 자10 자리 광주복 조 '처음 백계시조 온조상이 한나라 신계 출가 3년에 나라본 생위 위례성에 도움하였다가 13년 한간 아래에 나라가 최존 새우고 위례성 인호를 옮겨 드디어 궁궐을 세우고 살다가 이름해 도움을 옮기고 이름을 답한산성이라 하였다.' (돈 백제시조 온조장 이한 성제 홍가 삼년 건국 도우 위례성 게 심상년 위한 학 일혜 이 위례성인호 수건 중입자의 편년 위로 호 남한산성 (於州校)蔣清始祖國祚主以漢城 帝海第三年建國邦子教 付該至 도 오루韓漢山 丁重都安慰總区 伊蒙廷南國之海 宋華 臺灣市海區 (於州校)蔣清始祖國祚主以漢城 帝海第三年建國邦子教 付該至 三年等議員 丁重等議員 丁重等

가 하남의 문화유산 2004 하남역사 박물관 page 116-117 이성산성 충도 목간(木筒)에 무진년(戊長年) 남한성(南漢城) 수성 (須城) 도사(道德) 촌주(杜主) 등이 기계된 목간 충토

⁸⁾ 삼국사기 권 개5 때부분기 개3 아신왕 구선(99년)가 기술 11원에 왕이 채수의 재권을 보본하기 위해 진히 군사·가정병 를 거느리고 한수를 전니 경목령 아래에 이르렀는 때 마침 큰 눈이 솟아져 서부들이 많이 얻어 주으고로 군사를 기둘러 한산성(Kilu故)으로 화수 군사단을 위로하였다. '동 11원 왕속보배수지의 친구병기전인 귀한수 차여청골영하려라신 사 골다동시키를 지한산성 노군사(※十日月王鼓鼓浪水之投資轉於七千人造茂水大於青木衛下合大杏士卒多域状況單至漢 山坡登계보기

¹⁰⁾ 중정 남한지 권1 상편 성지(城池)조

¹¹⁾ 중정 남한지 권1 상편 성지조 '온조의 고성은 이름이 이성산성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 자취가 완연하다.'

¹²⁾ 황해도 연백(越白)지역의 옛 지명. 백제의 북방 요새로 도랍(刀區) 또는 치약성(維岳娘)이라고도 한다. 배천(白川)의 전산(韓山)이었던 치약산(雄岳山)에는 조선망까지 산성이 있었다.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지리/인문지리

살에 맞아 죽자 왕이 군사를 돌려 물러났다. 돌아와 도읍을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근초고왕 30년(375년) 기록에는 백제가 나라를 연 이래 문자로 일을 기목함이 없었는데 근초고 왕 대에 와서 박사 고흥(高興)을 얻어 비로소 서기(書記)가 있게 되었다고 기록함으로서 자국사에 대한 정리의욕이 발휘된 시대로 볼 수 있으며 그 후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인용한 백제기(百濟紀) 백제본기(百濟本記) 백제신찬(百濟新撰) 등의 사서(史書)도 편찬되었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렇듯 군사력은 물론 문치(文治)에서도 큰 발전을 이룬 시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근초고왕이 왜 한산으로 이도하였을까?

그것은 백제의 군사력이 고구려에 미치지 못하여 그리하였다가보다는 고구리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리는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산하고 둘아왔으나 언젠가는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공격해 오거나 자객을 침입시켜 백재왕을 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371년 겨울 고구려를 공격 고국원왕을 사살하고 개선한 후 도읍을 왕의 신변보호와 격 의 공격에 방비가 용이한 한산(僕山)의 산성(山坡)으로 서둘러 옮기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산과 연관된 기록을 살펴보면

서기 9년(온조왕 27)에는 '마한의 원산(圓山)과 금현(錄明)의 두 성이 마지막으로 항복해 와서 그 주민들을 한산(藻山)의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은 마침내 멸망하였다'

서기 25년(온조왕 43)에는 ' 남옥저(南沃祖)사람 20여 가구가 투항해 왔었는데 온조는 이들을 받 아들이고 한산(溪山) 서쪽에 살게 한 일이 있었다.'

서기 103년(기루왕 27)에는 '왕이 한산(漢山)으로 사냥을 나가 신록(神鹿)'을 잡았다.'

서기 131(개루왕 4)에도 '왕이 한산(漢山)에서 사냥하였다.'

서기 455(비유왕 29) '3월 에도 왕이 한산(僕山)에서 사냥 하였다' 등 한산과 관련한 일돌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합하면 한성백제는 한산에서 시작하여 한산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¹³⁾ 고구려 고국원왕

¹⁴⁾ 신통하고 영묘한 사슴

Ⅲ. 한산의 개념과 위치

1 한산의 개념

한산은 산이 소재한 지역임은 확실한데 한산이라는 산이 소재한 주변지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한산이라는 특정한 산에 국한하는지가 의문시 된다

필자는 삼국사기에서 기록한 한산은 하나의 산에 국한된 용어로 해석한다. 그것은 백제가 건국 할 당시 한산이라는 행정구역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처음 건국할 당시 중국 요 령성 환인현(桓仁縣)에 있는 고구려의 출본성(至本城)¹⁸인 오녀산성(五女山城)에서 온조 인행이 출발하여 미주훈에 도착하여 도읍한 곳을 몰색하기 위하여 부야악에 올랐다고 볼 때 한산이라는 산에 도성을 정하기 위하여 어느 한 봉우리에 올라갔다고 보아야 한다

온조가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왔으므로 온조나 그 신하들은 부역 출신의 고구려인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출생하여 고구려의 정서에 젖어 생활했던 사람들이가 때문에 도성을 정한 때 고구려의 오녀산성과 비슷한 지역을 선택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부아악에 올라 사방지형을 살펴보고 주변이 강과 높은 산 그리고 바다로 막혀 있어 천혜(天惠)의 지리(地利)를 구비한 곳으로 보고 도움으로 정하자고 하였는데 이는 높은 지대에 도성을 구축할 장소를 찾아 부아악에 올랐다고 봤다하여야 한다.

즉 높은 산에 넓은 평저와 충분한 샘물이 있으며 주변은 오르기 어려운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을 우선 수소문 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언급하는 한산은 신라시대의 한산주(漢山州) 또는 한주(漢州)처럼 한산이 소재한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온조왕 14년에 천도한 한산 아래(漢山下)의 표기와 간이 특정한 인개의 산(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백재도성이 한산과 동민이진 곳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¹⁵ 복무석에서 남하력은 주용(朱蒙)집단이 정확하여 고구리는 건국(BC37)한 성으로 지금의 오녀산성(正女山城)으로 보고 있다. 광개토광 비문에서는 충분(您本)으로 표시하고 위서(魏雲)에서는 충충공성(您升徐城)으로 표기하고 있다. 민 축문화대학과

2 한산(漢山)의 위치

그러면 한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산을 이르는가?

한산은 지금의 남한산(南漢山)을 주봉으로 북쪽으로 옛 광주(廣州)의 고읍(古邑)인 하남시(河南 市)의 추궁동(海宮洞)을 감싸 안은 동서(東西)의 산중기 전체를 의미한다.

즉 현재의 남한산(南藻山)에서 북쪽 하남시를 풀어 안으며 금암산(金岩山)¹⁶을 따라 이성산(二 翌山)¹⁷으로 뻗은 산줄기와 남한산에서 별봉¹⁶거쳐 객산(客山)¹⁹으로 내려온 산자락이 모두 당시의 한산이었던 것이다.

한산을 현재의 남한산으로 보는 시작은 고금을 통하여 많은 학자들과 현재의 각종 사전에서 그 렇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홍경모(洪敬謨)가 편찬한 광주읍지인 남한지(南茨志)³³ 성지(城赴)편에는 '한산(湊山) 은 즉 자금의 일장산(日長山)³¹이요 온조의 고성은 금암산 북쪽 10여 리에 불북 솟은 토산으로 이 름이 이성산성지(二墅山城址)라고 하는데 지금도 성 자취가 완연하다. 하여 한산이 지금의 남한 산임을 명확히 하였고 온조13년 한산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이주시킨 그 성을 지금 의 이성산성이라고 하였다

¹⁶ 경기 하남시의 남서부 평안동과 순궁용 경계에 위치한 산, 고도 32m, 남한산 출기를 인고 있다. 충정남한지에는 '급 임산(金립山)은 서부민에 있으니 청량산(結底山)) 목욕 증가이다. 가운데에 용호통이 있다'라고 가목되어있다. 바위가 많아 산 아래에서 볼 때 바위가 잃거십기 있는 것처럼 보여 '일기산'이라 하다. 단다. 대통어지도에 급암산(소품山)'이 광주고읍 서복쪽에 표시되어 있다. 금암산 자락에는 산복선사지 약정사지 자화사지 등 옛 정보로 추정되는 곳이 많으며 운궁되 2층 5층 선방이 있는 통사자와 급안산 마약식분이 있다 급안사라는 전의 이름에서 지명의 유대로 엿볼 수 인다. 항국지방요래 전주분 기

¹⁷ 경기 하남시 중서부 순공통과 초이통을 끼고 위치한 산, 모도 208m, 남한산에서 급압산을 따라 이어된 증기에 속한다. 상국시대에 식축(活點한 이성선생(지역 제25호)이 있다. 해봉지도에 목속 가입목학 악리에 교시되어있다. 중정남한 지에 '이성산성은 급압산 목속에 있으며 백제온조왕의 생지가 있다'라고 기독되어 있다. 조선지지 자료에는 '광주군 서부면 초이통에 현산(理말LD)이 있다'고 기독하고 있다. 삼국시 유산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하남위례성 즉 백제 도움지와 관련하여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산이다. 한국지역유대 취상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하남위례성 즉 백제 도움지와 관련하여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산이다. 한국지역유대 취상물이

¹⁸⁾ 남한산 등쪽봉우리 고도 515m, 남한산성의 일부인 봉암성(雄嶽城)이 있다.

¹⁹ 화달시에 있는 산 높이 30m. 날한산 쓴기에 속하며 산 아래 선택사((하沈寺)가 있다. 옛날 마귀합법이 한당에 남산과 같은 산을 만들려고 이성의 도드람산을 따다 지아족에 싸가지고 가다가 힘이 끌어 이곳에 놓고 그냥 가버렸다는 실화 가 있다. 책산(私))은 책지에서 온 산이라 하억 불여진 이름이다. 위기 백과

필차 주: 마귀할님은 마고(蘇幼)할머의 잘못이며 산 아래에서 보았을 때 산 보양이 한자(漢字)의 손 백자(名字) 모양을 닮았다 하여 객산 이라는 이름이 불여졌다는 전실이 함께 전하고 있으며 산 아래에는 객산폭포가 있고 폭포 밑의 생 문은 약수로 백계시대에는 아수(節末)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객산폭포 옆에는 대광2년명 마이약자(基本)(분투)(원호)이 있다.

^{20) 1846}년(현종12) 광주부윤(崇州解尹)점 수어사였던 홍경모가 변찬한 광주읍지로 1779년(영소3)서병운이 수어사 재적 중 왕명을 반고 착수하여 미완에 그친 남성지(麻城志)및 여자운란 등 여러 사시와 지리지를 참고 수정 보완하여 원찬 한 사산읍지(私揮邑誌), 1862년(현종13) 중정본(重訂本)이 13권6백 필사본으로 간행되어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 되어 있다.

²¹⁾ 현재 남한산의 또 다른 이름, 주장산, 청량산 이라고도 불렀다.

한편 삼국유사 왕력(王歷) 편에는 한산(漢山)에 대하여 '병진년 온조왕14년(기원5)에 한산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지급의 광주이다' "라고 하였는데 광주의 의미는 광주고읍(廣州古區)이 있었던 지급의 하남시 춘궁동에 소재한 이성산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이성산성은 한산아래의 작은 봉우리로 여기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이주 한 백계의 두 번째 도유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거 학자들의 논고를 상기해보면 다산(茶山) 정약용(丁者簿)"이 온조14년 천도한 위례성을 광주고읍(廣州古邑)인 춘궁동으로 비정(比定)한 이래 김정호(金正浩)는 대동지지(大東 地志)에서 춘궁동 인대에 백제의 왕성이 있다고 표시하였고 이병도(李丙派)"는 하남위례성과 한산을 춘궁리 일대에, 차용전(市勇杰)"은 하남위례성을 뭉촌당성과 이성산성 사이로, 최몽당(崔夢龍)과 권오영(權五荣)"은 한성을 춘궁동, 한산읍 이성산성으로 각각 비정하였고 윤무병(尹武炳)"은 하남위례성을 이성산성에 비정하였으며 구민회(具版會)"는 현재 하남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백제의 도움이 광주 고움이 있었던 남한(南溪)지역으로 현재의 하남시 출공동지역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당시 일본의 대표적 사학자인 이마니시 큐(今西龍)가 춘궁동 일대를 백재의 도움지로 보고 이성산성을 백제 개로왕조의 북성(北坡)으로 현재의 남한산성을 남성(南城)으로 보았는데 이는 모두 한산의 소재를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비정(比定)한 견과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남한산기슭에는 무수한 절터가 있는데 1530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際環) 광주목(廣州牧) 불우조(佛字條)에는 약정사(崇井寺) 봉수사(奉水寺) 신복선사(神極禪寺)가 모두 한산에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이들 세 사찰의 터가 한산의 서쪽 줄기인 현재 하남시의 금암산 주 변지역에 있음이 명문가와 충토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쪽줄기의 산기슭에도 법화사(法華寺), 천왕사(天王寺), 선법사(禪法寺), 태평이년명 마 애약사볼좌상(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條), 교산동 토성, 교산동 건물지, 사막곱 전터, 등 많은 유 적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산은 현재의 남한산을 정점으로 북쪽으로 하남시를 품이 안으

²²⁾ 병진 이도한산 금 광주(內展移都漢山今廣州)

²³⁾ 정약용(丁若鏞): 강역고 권3 위례고(隨城孝卷3慰禮孝), 여유당 전서(吳德堂全書)

²⁴⁾ 이병도(季丙素): 1981 위례고(慰禮考), 근초고왕 적경고(近肖占王拓境考), 한국 고대사 연구(韓國古代史研究)

²⁵⁾ 성주막(成周環): 1986 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溪江流域百濟初期級址研究), 백제연구(百濟研究)14, 1985 도성(福 坡), 한국사곤(韓國史論)15 국사편찬위원회.

²⁶⁾ 차용건(東京本):1981위례성(慰禮城)과 한산(革山)에 대하여, 향토(總土)서욱 30

²⁷⁾ 최몽룡(崔芬龍) 권오영(權五榮):1985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본 백제초기의 영역 고찰, 천관우선생 환역기념 한국사학 논축(千官字集中海既紀全節國史學論章)

²⁸⁾ 윤무병(尹武炳):1994 한강유역에 있어서의 백제문화연구, 백제연구 15

²⁹⁾ 구민회(其飯台):1956 남한비사(南漢秘史)

미 뻗어 내린 양쪽 줄기의 큰 산 전체를 지칭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백제초기에는 한산에 딸린 산들은 아직 이름이 없었던 시대이므로 이성산처럼 작은 봉 우리는 한산 아래로 지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V. 이성산성(二聖山城)과 남한산성(南漢山城) 그리고 남한(南漢)

1. 이성산성의 당초 이름은 남한산성이며 온조14년에 천도한 도성이다.

고려사 권제 56 17장 지10 지리1 광주목 편에는 '처음 백제시조 온조왕이 한나라 성제 홍가 3년 에 나라를 세워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13년 한산 아래에 나아가 책을 세우고 위례성 민호를 옮겨 드디어 궁궐을 세우고 살다가 이듬해 도읍을 옮기고 이름을 남한산성이라 하였다.' (초 백제시조 온조왕 이 한성제 홍가 삼년 건국 도우 위례성 지 13년 취한산하 입책 이 위례성민호 수건 궁궐거지 명년 천도 호 남한산성 (初百濟始祖進祚王以漢成帝朝嘉三年建國都于思禮城至十三年就院山下立伊移戲்韓城尺尸遂捷宮陽居之明年遷都號南溪山城)라고 하여 온조14년에 한산 아래로 천도한 성의 이름을 남한산성으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남한산성과 이름은 잘지만 위치는 다른 동병이처(同名異處)에 존재하는 남한산성인 것 이다.

이것이 학자들을 현재의 남한산 정상부에 있는 지금의 남한산성(南漢山城)**과 혼동하여 어리둥 정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홍경모(洪敬謨) 또한 중정남한지(並訂南漢志)에서 '온조13년 한산 아래를 취하여 성권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겼다고 해놓고 세상에서는 남한산성(정상부)을 온조가 도읍했던(두 번째) 성이라고 하니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여 남한산성을 현재의 남한산 정상

³⁰ 경기 광주시 증부면에 있는 산으로 높이 496m. 백제호기에는 한산(統山)으로 표기하였다. 신라 때는 남한산(南漢山)으로 불렀다가 조선 광태군 때에는 남한산성으로 불렀다가 신성을 쌓고 입장산(百莊山) 또는 주장산(莊廷山)으로 불렀다, 이것은 산의 사방이 돼지도 되어 방보나 낮이 집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다. 남한산성도 이에 따라 주장산성으로 본렀다. 세종실을 지리지 공주을 위에는 입장산성으로 되어있다. 고구리 동맹홍의 왕자이던 온조가 백제를 건축해서 위해성에 도흡한 뒤에 시기전 6년 (온조왕 13)에 사적 57호인 남한산성으로 천도 하였다라 그러나 홍정또(佛欽 蔣)의 남한자(蔣武희)에는 이를 무정하고 파의은 온조가 살은 성은 공구교을 지금의 점단산(蔣丹山)이라에 있다고 하였다. 즉 온조고성(經濟世政)은 이성산성(三聚山)이라 하였다. 목무대시학에는 연극산성은 67년(본무왕12)에 새로 출성한 주장산(서)운 대교회이라도 기울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한산산이는 한국안동산(생존대회)이라 지붕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한산산이는 한국인동산병 대형화기 대학의지리(생주학의)

부로만 인식하는 혼동과 고정관념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온조14년에 천도한 성을 하남위례성이라고 하였는데 심국사기 원문에는 하남위례성이라는 용어는 BC18년 건국할 당시의 성으로 하남 땅 위례성에 도읍하였다는 뜻으로 단 한 번의 언급에 그치고 있으며 위례성은 백제왕이 거처하는 궁성이면 어디에 있던 위례성이라고 불렀다고 보이야 한다.

이는 온조14년(서기5)에 천도한 두 번째 도성의 이름을 천도한 후에 한성 또는 위례성으로 표시 하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사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한양대 박물관에서 이성산성을 약15년에 걸쳐 발굴하고 13차 에 걸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지만 결론은 신라성(新羅城)이라고 규정했다.

발굴 유물 중 1차 지수지에서 출토된 북서(吳書)로 씌어진 목간(木前)에서 무진년(戊辰年:608년 으로 추정 발표) 정월 12일이라는 연월인과 남한성(淸淡城) 수성(張城) 등의 고유명사와 도사(道 便) 촌주(村主) 등의 관직명이 출토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남한성(淸漢城)에 대한 의미료 672년 (진흥왕12)에 축성된 남한산 정상부의 현재의 남한산성에만 집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성 산성이 백재와 무관하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무슨 의미인지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중 사전에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목은 없다.

필자는 고려사의 기록과 이성산성의 출토유물인 남한성 목간에 의거 이성산성의 당초의 이름이 남한산성이었다고 환신하다

그것은 출토목간의 무진년 기록연대를 608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에는 현재의 남한산 정 상부의 주장성(建長域)"이 축성(672년)되기 전이기 때문에 출토 목간의 기록 당시에는 남한성이 혼동을 일르킬 이유가 없음으로 고려사의 기록과 같이 남한성이 현재의 이성산성임을 증명하는 귀중한 증거물인 것이다.

따라서 목간에 기록된 남한성(前漢城)은 당초의 이름인 남한산성을 줄여서 남한성이라고도 불 댔다는 또 하나의 사실이며 수성(須城)은 남한성에 대정되는 다른 장소의 성(城)인 가능성이 높다 고 할 것이다.

한편 이성산성은 분명히 한산의 아래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인테 평지성으로 천도하지 않고 산성을 선택한 것은 백제의 온조 일행이 현재 중국 요령성 한인현에 있는 고구려 오녀산성으로 꾸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산의 정상부분인 하남위례성에 도압하고 약13년 동안 있다가 한산 아래 부 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산아래(漢山下)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는 이성산성 지역도 한산의 한 기슭으로 높지 않은 봉우리를 도성으로 정한 것은 산성이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³¹⁾ 진흥왕 12년(672년)에 한산주에 쌓은 성으로 주위가 4,360보(步)였다

방어하는데 유리함을 체득한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성산성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구축하였다고 왕실에서 판단한 연후(然後)에는 이성산 성 아래 평지인 춘궁동에 변도의 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춘 궁동에 있던 궁궐도 함께 남한성으로 불러었음 것으로 생각되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춘궁동의 평 지에 있는 궁성만을 한성으로 구분하여 호칭하염을 가능성도 배제함 수 없다

그것은 중국 집안에 있는 국내성(個內城)^비과 환도산성(九都山城)^비같이 전시 등 위급할 때에는 인근의 환도산성으로 들어가고 평시에는 평지성인 국내성에서 기거하는 방식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성산성의 당초 이름인 남한산성이 현재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간 이유

백제는 온조14년 한신아래 이성산성에 천도한 후 도성이름을 한강 남쪽에 있는 산성이라 하여 남한산성이라 하였는데 줄여서 남한성 또는 한성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왕이 거처하는 커 다란 성(大城)**이라는 의미의 위례성(受益城) 또는 한강 남쪽 땅에 있다하여 하남위례성(河南紫 諸城)이라고도 지정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산성은 그 후 계속하여 남한성, 한성, 위례성 등으로 불리다가 475년 개로왕(21)이 도성을 합락당하고 장수왕에게 잡혀 죽게 되는데 이것이 한성백제의 종말이다.

고구려가 남한(南漢)땅을 지배한 것은 한성이 함락당한 475년부터 551년 사이인데, 나제동맹(緩 雨问盟)⁵⁵에 의한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중부지역을 탈환 할 때까지 약 76년간으로 이때에도 이 성산성은 남한성으로 불렀던 짓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고구리 지배 기간 동안 별도의 이름은 사용 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553년 신라가 백제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중부지역을 빼앗고 이 성산성에 신주(新州)를 성치한 이후에도 한산을 남한산으로 호칭한 사실로 보아 남한성으로 계속

³²⁾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졸본성에서 서기 3년(유리왕 22) 천도하였으며 중국 지원성(吉林省)지안현(韓安縣)에 있는 성 터로 보고 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³³⁾ 중국 지원성(古林省) 지안현(韓安縣)에 있는 고구려의 산성, 위나암성(彰邦農城) 또는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으로도 불린다. 한국민주문화대백과

³⁴⁾ 일본서가(日本書紀) 유라쿠(極寒·제위456-470천황 20년조(修)에는 백제의 백제기(石濟記)를 인용하여 '개로왕 울고 년 겨울에 백(紫)개라는 뜻으로 고구리 장수왕을 지칭되 대군이 하시 대장(八執)을 7일 합당 동안 공격해 왕성이 합락 되었다고 기공하여 백제 왕사라 당성(大統)에 당하

³⁵⁾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대용하여 433년(고구려 장수왕고 신라 눈지왕17 택계 배유왕7에 신라와 백제가 우호관 끼를 맺으며 나재동맹이 성립되었다. 511년 백제와 신라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중부지역의 백제 고토(古土)를 회복하 엄라

³⁶⁾ 남한산은 백제초기에는 한산으로 표기하였다. 신라 때에는 남한산으로 불렀다가 광해군 때에는 남한산성으로 불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명칭유래

불렀다고 생각된다.50

그런데 문무왕12년(672)에 와서 한산의 정상부에 지금의 남한산성인 주장성을 속성한 것이다 좋진까지 신라는 이성산성인 남한성에서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672년 한산의 정상부에 남한성(이성산성)보다 더 크고 방어가 용이한 새로운 주장성(建長城)이라는 성을 축성하고 군사와 전략공자 등 군사가능을 모두 주장성에 이관한 것이다.

그리되면 사람들은 두 성의 이름을 이후에 어떻게 불렀을까?

물론 처음에는 이성산성을 남한성으로 새로운 성을 주장성으로 호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성(舊藏: 남한성) 신청(舒城: 주장성)으로도 불림을 것이다

그리고 기왕에 오랫동안 불러오던 남한성이 새로운 성으로 이전하고 구성은 페기되었으니 이사 한 성을 남한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또한 남한성이 있던 지금의 이성산은 당연히 남한산으로 불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 산의 아래 부분에서 정상부로 이전한 남한성이 소재한 산의 호칭도 남한산으로 따라가 게 되는 것은 필연이며 새로 생긴 이름보다는 종전의 호칭에 더 약숙한 백성들은 주장성 보다는 남 한성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은 서로 혼용하며 쓰다가 종전의 남한성인 이성산성은 완전히 폐기되고 경상부에 이전한 남한성만 남게 되었는데 신라시대 후반기에 가면 한산과 주장성의 이름은 사라지고 지금의 남한산과 남한산성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어 이성산성의 당초이름인 남한산성이 지금의 남한산성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 확신하다 할 것이다.

3. 남한(南漢)의 의미

남한(商漢)은 '그 땅이 한강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라고 한 것이다" 그 후 군명(部名)이 한산군(漢山郡) 또는 남한산주(南漢山州)라고 부른 것은 모두 한강 때문에 그렇게 불러 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반계수록(極溪隆錄)**에 이르기를 여지승림(與地聯度)**에 광주 일장산성(日 長山城)**은 신라 문무왕이 쌓은 것이라 하였는데 주장성(武長城)은 곧 남한산성이다.' 남한(南溪) 은 세상에 전하기를 '온조의 옛 땅이라 한다.' "라고 하여 남한의 어원(話漢)을 한강과 온조에 두

³⁷⁾ 중정 남한지 권1 상편 남한(南漢)조(豫)

³⁸⁾ 조선 후기(1670) 학자 유형원(慰營造)이 국가운영과 개혁에 대한 건해를 담은 책

³⁹⁾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을 이름

⁴⁰⁾ 주장성(書長城:현재 남한산성)의 이명(異名)

⁴¹⁾ 중정남한지 권1 산편 성지조

고 있다.

하남위례성이 하남(河南) 즉 한강의 남쪽 땅 이라는 말이니 남한은 같은 뜻을 다른 말로 옮겼을 뿐이며 따라서 남한산성(南溪山坡) 또는 남한성(南溪城)은 한강 남쪽에 있는 산성이라는 의미이 고 더 즐여서 온조 25년(서기7)에는 한첫(溪城)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옛 한산(漢山)이었던 현재의 남한산(市漢山)과 이성산(二城山)은 온조왕과 깊 은 인연이 있는 땅이며 온조의 옛 땅이라고 할만하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온조의 사당인 숭열전(崇烈嚴)이 있다. 숭열전이 남한산성에 지어지게 된 사 연은 조선왕조실목 것조왕 조에서 확인함 수 있다.

1779년(정조3) 기해 8월 9일 기복에는 "정조가 남한산성을 행행(行李)"라면서 서장대에서 말하기를 '병자년(1636)에 적병이 밥을 타서 널빤지를 지고 성에 오르는 것을 아군이 발각하고 끓인 물을 부으니 적병이 문드러지 몰려갔다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인가'하고 물으매 영의정 김상철(金詢 誌)이 답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조대왕께서 꿈에 온조왕이 와서 적병이 성에 오른다고 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조께서 놀라 깨어 곧 명하여 정답하게 하셨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아서 장사(第土)를 시켜 격퇴하게 하셨는데 참목(新援)이 너무 많았으므로 완도한 날에 특별히 명하여 온조 묘(溫蘇賴)를 세워 봄가을로 제사하게 하셨으니 일이 매우 영어(發異)"합니다.'하였듯이 온조 와의 언제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된 이성산의 산성에는 8각 9각 12각 등 제천의식에 필요한 건물지가 다수 발견되고 군사시설 과 동편어진 건물지 등이 산견되고 있어 왕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 하고 있으며 남한지에서 흥경 모가 기록하였듯이 온조의 고성이라고 한 만하다.

한편 남한(南漢)이라는 지역은 한산인 현재의 남한산 징상부에서 한강 쪽으로 동쪽줄기 즉 벌봉을 거쳐 법화사및 객산 줄기를 이어서 검단산 서쪽기슭을 타고 한강까지의 줄기와 남한산 정상부에서 서쪽즐기인 금암산과 이성산성 및 구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양 산줄기 안의 지역이나 지금의하남시 대부부의 지역을 말하며 이는 이성산성(당초의 남한산성) 부근지역은 의미한다.

이곳은 백제시대부터 1626년(인조4)까지 줄곧 지역의 중심도시인 읍치(邑治)로 존재한 광주고 읍지역이니 여기가 남한(南漢)이며 하남(河南)이고 한수지남(漢水之南)**의 땅으로 남한지(南漢 志) 남한비사(南漢秘史) 등 책의 제호(頭鱗가 되었고 현재 하남시에 소재한 남한(南漢)중고등학교

⁴²⁾ 임금이 대궐 밖으로 거동함

⁴³⁾ 신령하고 기이한

⁴⁾ 삼국사기 온조왕 13년 조 '여름 5월에 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아래 나가서 한수의 남쪽을 뜯아보았는데 토 양비 기름진 저라 그곳에 도움에 같이 편안할 개래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각출순관 한수지남 토약교유 의도어괴 이도적안지계(昨日祝祝 [末之南 土壤市政 育私粉] 財政 성고함)

4 근초고왕의 한산 이도(移都) 이후의 남한(南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성산성은 온조왕 14(서기))년부터 근초고왕 26년(371년)까지 364 년 동안 왕성 또는 궁궐의 배후산성으로 유지되었고 근초고왕 26년(371)에 한산(漢山)으로 잠시 이도(移額)한 후 다시 환도하여 개로왕 21년(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도성이 함락된 때 까지 도성으로 확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고국원왕을 사실하고 돌아와 곧바 로¹⁹ 한산으로 천도하였는데 이는 신번의 위험을 느껴 그리 조치한 것으로 관단되며 그리고 3-4년 후에는 환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침류왕1년(384) 백제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성산 부근의 금암산 기슭에 처음 사찰이 세워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금암산 마애분 등의 불교유적과 많은 사찰 터의 집 중에서 궁궐 인근이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진사왕 8년(392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 북 부지역 10여성을 함략하고 이어서 아신왕 5년(396년)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처서 관미성 (頤蘋城 : 오두산성) 등 58개의 성(城)과 700여 촌(村)을 차지하여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때도 있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때의 왕성을 춘궁동 궁궐로 보고 있으며 개로왕 시대에는 왕성인 한성이 북성으로 기록되어 개로왕 이전에 다시 환도한 것이 확심해 지기 때문이다

한편 풍남토성이 한성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북성을 풍남토성, 남성을 몽촌토성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북성인 조그만 풍남토성을 공격하는데 장수왕의 3만 군사가 무슨 7일 밤낮 공격한 대상이 되며 도성을 방어하려면 한강의 도강(護江)단계에서 박아아지 평지 토성에서의 방어는 포위당하면 끊인 것이다.

이러한 전투상황의 전개는 이성산성(二聖山城)처럼 산성(山城)이면서 석성(石城)에서나 네 갈 래 권을 따라 군사들을 나누어 7일 밤낮동안 계속해서 전투가 있을법한 이야기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에 이성산성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신라가 점령한 후 축성한 성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성산성은 최몽룡(崔夢龍) 심정보 등의 학자에 의해 백제가 처음 축성하고 고구려

⁴⁵⁾ 근초고왕이 동광조년(37)년)에 고구리를 공격한 때는 겨울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10원-12월 사이인대 그동안 새로운 성을 축정한다든지 장기간 기계한 목적이라면 새로운 왕신을 준비한 기간이 필요한 타인데 돌아 와서 최도하였으나 골바로 최도하 장이 되다.

와 신라는 후에 점령하여 사용한 성으로 관명[®]된바 있다. 그런데 근초고왕 26년에 이도한 도성(移 郷漢山)에 대하여 단리 기록하고 있는 문헌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고려사"에서는 근초고왕 25년(370)에 도움을 남평양(南平壤)으로 옮겼다고 적고 있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지금의 서울 한양도성은 본래 고구려의 남평양성이니 일명 북한산군(北溪山郡)이다 백제 근초고왕이 동진(東雷) 간문제(簡文帝) 합안(咸安) 2년(372) 임신(壬申)에 남한산(南溪山)으로부터 와서 도움을 정하여 105년을 지내고.'로 기록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13세 근초고왕 매인 합안(咸安) 원년(371)에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을 취하여 도움을 복한성(北溪城:지금의 楊州)으로 옮기고 105년을 지냈다.'적고 있어 근초고왕이 지금의 서울 북악산 아래로 천도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기록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이 정사에 가깝다고 느껴지며 천도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천도 후 얼마 되지 않아 되돌아 온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 북한 산성으로의 천도의 기록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백제가 황해도 지방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도(正額)가 아닌 하나의 별도(別都)로서 일정기간 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도 환단고기(桓檀古記)에서는 남평양(南平康)을 황해도 안약군으로 기록하고 동국여지 승람의 기록에는 황해도 '제령군의 고구려 때 이름이 식성군(息城郡)으로 한성군(漢城郡)또는 내 홍(乃忽)로도 부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마치 한성이 황해도에도 있었던 젓처럼 생각하기 쉬우 며 삼국사기의 기록에 백제 근초고왕 24년(369)태자 수(須)가 처양(雉墩)⁹⁰수곡성(水谷城)⁹⁰까지 진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근초고왕과 다음 왕 근구수왕 시대에는 황해도 중부이남지역을 백제 의 영보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국정방위와 한수이북 지역에 대한 원활한 통지 수단으로 별도(別都)나 행궁(行宮)을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 강이북의 각종 도옵설은 모두 별도(別都)나 행궁(行宮) 또는 주문지(駐屯地)로 봄이 타당하다 할 정이며 최도에 의한 정조(行宮)으로의 주장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므로 고려사 광주목(廣州牧)조에서 기록한 근초고왕 25년의 남평양 이도(移都 南平壤城)의 기록도 전숙한 성격의 별도로 볶이 타당한 것이다.

^{46) 2011} 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하남문화원

⁴⁷⁾ 고려사 권제56 17장 지10 지리1 광주목

⁴⁸⁾ 경도 한성부(京都漢域府)기록

⁴⁹⁾ 삼국유사 권2 기이2 남부여(南大餘)전(前) 백제에 인용된 '고전기(古典記)'

⁵⁰⁾ 화해도 연백지역의 에 이름 백제의 분방요새

⁵¹⁾ 황해도 신계군의 옛 지병

5. 한성(漢城)함락 이후의 남한(南漢)

한성백제의 중심지역인 당시 남한산성(이성산성) 주변의 남한지역은 백제 개로왕 21년(475) 이후 고구려가 점령하고 백제 성왕 29년(551)에는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 군을 격퇴하여 옛 땅을 수복하였으나 2년 후인 신라 진흥왕 14년(553) 신라는 백제와의 나재동맹의 신의를 저버리고 다시백제를 쳐서 동북부지역을 차지하는데 이때 이성산성은 신라 신주(新州)의 주치(主治)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진홍왕 18년(557)에는 신주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설치하였으며 진홍왕 29년(568)에는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고 전평왕 26년(604)에는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더니 문무왕 2년(662년)에는 다시 남천주로하고 문무왕 4년(664)년에는 한산주(漢山州)로 개청하고 문무왕10년(670)에는 그 명칭을 남한산주(南漢山州)로 하였다가 경덕왕 16년(757)에는 한화정책(漢化政策)²³에 따라 한주(漢州)로 개명된 후 신라 말까지 한주(漢州)로 사용하였는 데 한산주의 명칭은 계속 사용 되었다.

이렇듯 신라시대에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황에 따라 치소의 이동이 거듭되었지 만 신라가 중부지역을 장악한 후 처음 설치한 신주(新州)의 치소가 남한의 이정산성에 자리하였고 '문무왕10년(667) 8월에는 문무왕이 대각간 김유신 등 30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경주를 출발하여 9 월에 한성정(漢城停)⁵⁶에 이르러 당나라 장수 이적(李術)을 기다렸는데 10월 이적이 한성(漢城)에 이르러 편지를 보내 군사동원을 독촉하여 그대로 쫓았다⁵⁶는 기록을 보아도 남한지역은 정치 군 사의 기정도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이름으로 변경되고 일시적으로 다른 주의 관한 하에도 있었지만 종래에는 한산주로 돌아와 신라 말까지 유지 되었으니 한산주의 주치(主治)는 항상 한성이 소재하였던 이성 산성 영원의 광주고유(廣州古島)이었고 지급의 하남시 추궁동이었다

⁵²⁾ 중국한축(漢漢)의 윤병제개류 따르는 정책 천 중국청책의 일환으로 통치재도를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 경탁왕은 우선 전국의 지명을 중국식으로 2차로 바꾼다. 예한산주·한주

⁵³⁾ 한성정(漢城帝):한산정(漢山學)이라고도 라피 한산주 주치에 두었던 부대. 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p41 2003 하남역 사 방문관

⁵¹⁾ 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2003 하남역사박물관

V. 하북위례성설(河北慰禮城說)의 허구성(虛構性)

1. 당초부터 없었던 가상의 도성

하북위해성이라는 말은 온조가 기원전18년 위례성에서 건국하여 온조14년(서기5) 한산 아래로 최도하기 까지 약 13년 동안 지금의 하자 북쪽에 있었다고 하는 도성을 말한다.

하북위례성설은 지금까지 역사서에서는 거론된바가 전혀 없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부터 나타나 기 시작하여 이제는 정설인암 자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북위례성설의 발단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2. 고려시대와 조선전기의 직산 위례성설

그것은 고려 충렬왕 7년(1281)경 발행된 삼국유사 백제 왕력 제1의 백제왕조 기록에서 '위례성'에 도움했다. 어떤 말에는 사천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직산이다⁵⁹ 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그렇게 생각 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성종12년(1481) 간행된 동국여지승합에 '직산현의 군명(郡名)이 본래 위례성이었으며 온조가 남하하여 이곳에 도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산현에는 세조11년(1465) 백제 온조왕묘(溫祚王廟)가 세워진 후 선조30년 (1597)정유재련으로 불타 없어지기까지 봄가을로 처제(致祭)해 왔다고 한다. 순조18년(1818)에 현 감 이의선(李義先)이 중수한 후 고종18년(1881)에 허물어 졌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증기에 들어 학자들은 직산설을 부인하고 위례성이 한강 이북에 존재한다는 이설 (異說)을 제기하는데 참봉 이만승(李高升)의 빈일쇄록(黃日新錄)⁵⁷과 이영(李冰)의 목용지지(木翁 地志)에서 한강이북설을 처음⁵⁸제기하지만 유형원(傳馨達) 신경준(申景溶) 등에 크게 비판 받았을 뿐 주목받지 못하였다.

필자는 최산 위례성설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지역이 한산(溪山)지역이 아니라는 데 있다. 위례성은 한산에서 시작하여 한산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직산은 아니라는 것이며 한산에 음과 주변지역을 조망함 때 다른 것은 차치한다 하여도 북대한수(北帶護太)라고

⁵⁵⁾ 도위례성 입우사천 금직산 병진 이도한산 금광주(編獻總統一云蛇川今稷山丙丘移都溪山今廣州)

⁵⁶⁾ 백제초도 위례성 고(百濟初都慰禮城考) /오세창/ 1994/ 천안군

⁵⁷⁾ 압록강 이북을 주장

⁵⁸⁾ 인터넷 오픈백과

할 만치 한장이 내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산의 성거산 일대의 유적은 마한의 본거지 로서 목지국의 수도로 분 수밖에 없으며 백제와 관련한 지명들은 문주왕이 잠시 사용하거나 웅진 사비지역으로 친도 후에도 행궁(行宮)이나 별도(別都)로 여러 차례 사용하다 보니 백제와 관련한 지명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다산 정약용의 하북위례성설

가. 정약용은 첫 도움지 위례성은 직산이 아니라 한강이북 삼각산 동록의 해화문 밖 10 리에 있는 한양동(漢陽洞)이라는 삼각산동록설(三角山東煎款)을 주장함으로서 하복위례성설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세검통계곡설(洗劑網溪谷說) 고양부근설(高陽附近說) 북한산성설(北溪山 城說) 중랑천유역선(中浪川流域說) 등으로 과생되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중요한 기록사실의 간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삼국사기 온조왕 조(徐)에는 당초도읍지가 첫째, 한산(淡山)에 이르리 그곳에 도읍하였으 니 한산으로 보아야 하고 한산이 한수 이남에 있으니 한강 남쪽임이 분명하며 둘째, 북으로 한수를 두르고 있다(北帶漢水)고 하였으니 한강 남쪽이어야 하며 셋째 도읍을 하남 땅 위례 성(河南聚鷸城)으로 하였으니 역시 한강 남쪽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모든 기록사실을 간과한 채 백제의 처음도읍지를 강북의 위례성(悠趙城)으로 보고 두 번째 도읍지를 한수 이남의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라고 착각함으로서 처음도 읍지가 한산(溪山)이나 하남(河南)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주변 환경으로는 직산을 위해성이라고 기복한 삼국유사나 동국여지승 람의 기록이 한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해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시대이었고 삼국사 기 기록내용에서도 의군을 제기할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 그것은 먼저 온조왕 13년(6년)의 기록인데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어제 나가서 한수남쪽을 돌아보았는데 토양이 기름진지라 그곳에 도읍해 편안할 계 책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昨出巡觀漢本之南土壤脊險宜都於彼以園欠安之計)'라고 신하 들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여기서 한수남쪽(漢本之南)을 둘아보았으니 한수북쪽에서 강을 건 너 강남 지역을 순시한 것으로 정약용은 오판(護邦)한 것이다.

한수 남쪽을 순시하게 된 이유는 연초부터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고 5마리의 호당이가 궁성으로 들어 오는가하면 왕의 어머니가 죽고 외침이 잦은지라 궁궐에 분진한 일이 연속되 고 있었으니 온조왕은 궁궐의 휴조를 벗어날 방도를 강구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독에는 없지만 왜 요망한 조점이 나타나는지를 천문을 보고 결흉을 점치는 일자 (日本)에게도 불어 보안을 것이고 대신들과도 상의 핵을 것이다

필자는 이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의 방편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전의 받아 그리 결정하고 사전에 물색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그 지역에 내려가 본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때 내려가 본 지역이 지금의 하낚시 충궁동 지역인 남한지역 이었던 것이다.

이는 후에 이성산성으로 도읍을 옮겼고 현장을 건너갔었다는 기록은 한구절도 없으며 단 지 한수 남쪽을 둘러보았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강복에서 한장을 건너갔다고 자 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이다.

다. 또 온조13년 조의 기록에 천도이유를 \\ \text{나라동쪽에 낙랑이 있고 \(\frac{\pi}{\pi} \) 에는 말같이 있어 우리의 변경 강토를 침범하니 평안한 날이 적다고 하였는데 정약용은 이를 도움이 한강이북에 있으므로 그러한 공격대상이 되고 있으니 강남으로 가고자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꼭 한강이복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우신 힘이 없으면 공격받게 되어있고 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변소국이 산재한 상태라서 낙랑과 말칼이외의 부족으로 부터도 공격받았을 가 능성도 배체할 수 없는 일인데 공격받은 이유를 한수 이복에 있었던 것이 전부인양 속단 하 였던 것이다.

라. 이와 연관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이 일부 방위착오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나라 동쪽에 낙당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하여 정약용은 북쪽에 낙랑, 동쪽에 동예로 할 것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렇도는 북파 동이 바뀌었다고 보였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 이는 낙랑과 말간의 위치가 기존 사학계에서 보는 지역이라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어디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방위표시이기 때문에 방위표시의 잘못을 계기 할만하다.

그러나 이 또한 에단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특히 한사군의 낙랑 지역은 현재 중국소재설 이 더 선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위에 변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 결정적 오류의 주원인은 부야악(負兒岳)을 북한산으로 보았다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여기시부터 모든 문맥의 해석은 꼬이게 되고 끝내는 온조왕 원년의 기록을 13년의 일로 의심하며 삼국사기의 오기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아악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와 같이 한산(漢山)의 한 봉우리에 불과한 것인데 오히려 서

울의 북한산이 부아악이라고 불린다는 이유 하나로 부아악이 강북에 있으니 온조도 북한산 에 윤라가 그곳에 도읍을 정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몸통인 한산은 묻어버리고 지엽(枝葉) 인 부아악에 매달려 위례성이 강북에 있다고 오관한 것이다.

사율의 부아악은 북한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조선시대 전기부터 그러한 호칭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동국여지승람 기록"에 서기장(徐居正)이 '직산이 위례성이라 하는 것은 부아악이 직산으로부터 200리 인데 어찌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표출하였다가 후일 삼국사결요(三國史節契)를 편찬 할 때 '여러 고서(古書)를 역고(歷古)하니 역시 직산이 온조의 초도(初期)에 의심이 없게 되었고 직산에서 후에 남한산성으로 옮기었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아악은 원래 복한산에 있는 제2봉인 인수봉의 옛 이름으로 균자 그대로 복한산 아래 작은 봉우리가 겹쳐 일정각도에서 보았을 때 아기 업은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부아악(兵 兒岳)⁶⁰인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무수히 많을 뿐 아니라 도움을 정한 때로부터 약1.800여 년의 시간적 공간이 있었던 산봉우리 이름이 당초부터 그러하였는지도 모릅 일이거니와 봉우리 이름 하나로 전체를 판단하려 한 것은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 한 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근래에 백제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도수희 교수는 부아악의 원형을 '부수압'으로 보고 아(兒)의 고대 음이 '수'이기 때문에 '부수'는 솔(松)을 뜻하며 '압'은 약(岳)을 뜻하여 송악 (松岳)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⁶¹ 결국 아기 업은 모양의 산이 아니고 송악이었다면 한산의 부아악은 어느 소나무 우거진 봉우리에 올랐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삼국사기 에서 기록한 부아악이 북한산에 있는 봉우리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한산이 당시 광주(廣州)에 소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아악 에만 고집한 것은 정약용답지 않은 판단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바. 그리고 온조왕 41년(23년)의 기록인대 '2월에 한수 동북방의 여러 부탁에서 나이 15세 이상 된 이들을 정발해 위례성을 수리하였다.(2月發漢水東北諸部落人年15歲以上修當嬰趙城)하 는 기록이다.

여기서 한수 동북방 사람을 동원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하였으니 위례성이 한수이북에 있었다고 왜곡 관단한 것이다.

⁵⁹⁾ 종국여지승합 권16 작산현 누정조(棲亭條) 적산제원루시청(稷山濟際棲時聽)60) 영조21년(1745) 북한구종십(北漢舊聽疑) 성능(聖能)의 북한지 산조(北漢結 山烽)

⁶¹⁾ 도수희 '한흥시대의 백제 말은 찾아시' 2011 위례문화/ 하남문화원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히 살피보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우선 백재 의 왕성은 치음부터 위례성으로 호칭하였고 온조 원년에는 하남위례성이라고 강남에 있음 음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온조41년의 기록은 강북사람을 동원하여 한산 아래의 남한성(이성산성) 응 수리 하였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여기서 왜 가까이 있는 한수 이남의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 강 건너 강복사람들을 동원하여 비효율을 자초했는가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의 사정으로 보아야한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정조는 수원에 화성을 축성하고 추항(紙鄉)³⁰이라 하여 수원사람들을 우대하였는데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든지 과거시험을 별도로 치러 등과시켜 주는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였는데 당시에 한수 이남의 백성들이 왕의 지시에 더 잘 협조하였다 든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다른 공사나 군사모집에 한수 이남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동원 할 사람이 없었거나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순서가 강복사람의 순서에 해당되었다 는 등 예상치 못하는 당시의 사정에 따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위례성이 강복에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으며 문맥상으로도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이다.

사. 정약용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 백제가 대방고지에 입국(立國)하였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위례성의 도읍지를 한수이복에 비정하는 근기로 삼았다고 하여 중국 고서의 기록을 하북 위례성 주장의 한 근거로 활용하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이병도는 대방고지(帝方故地)는 황해도 얼대^{**}에 국한하였지만 위례의 소재를 한수이북에 주장함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나라의 사서(史 플)인 삼국사기의 기록은 외국사서와 기록이 상이 하다하여 삼국사기를 오류라고 지적한 결과이나 이 또한 사대(事大)에 빠진 장못된 방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 정약용은 또 낙랑과 말갈의 위치가 부합되지 않는 문구를 구실로 아예 온조왕 원년의 기록내용도 온조 13년의 일인데 편집한 때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원년의 기록과 13년의 기록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한 것은 온조13 년 궁중의 총조와 외침 등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강북에서 강남지역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⁶²⁾ 조상의 선산이 있는 향리(衛里)

⁶³⁾ 삼국자(三國志) 위지(魏志 등이전(東夷傳) 한조(韓條)

⁶⁴⁾ 이병도의 위례고

마침 춘궁동지역이 원년의 지형설명과 대체로 인치하다하여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온조 13년 일이 사실이라면 한산에 올라 주변을 관망할 때에 이미 죽은 비뷰는 왜 대리갔으며 무 슨 열 명의 신하와 같이 갈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저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는 방 편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듯 다산 정약용은 아방강역고(我邦蹟城考) 중 위례고(思證考)에서 직산위례성설을 부정하고 삼각산 동록에 위례성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니 하복위례성설의 창시자가 된 것 이다.

4. 이병도의 세검동 계곡설

가. 하복위례성설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있으니 이병도(李府意)이다. 그는 정약용의 하복위례성 설을 더욱 발전시켜 위례성의 위치를 한수이북에서 구한 정약용의 주창(主唱)은 탁전(卓見) 이라고 하면서 정약용이 삼각산 동록이라고 한 정능과 삼양동 제곡을 여러 번 가서 살살이 살펴보았으나 토성지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몇 년 전에 삼양동 뒷산에서 삼국시대 금 동불 한 개가 출토되었을 뿐이라면서 북한산 동록설(東藍값)을 부인하고 새로운 후보자를 제시하였다.

즉 한수이북과 한수 이남에 각각 도성을 둔 2경(京)⁴⁹세제라는 정약용의 이론에 동조하면서 위례성이 후일 고구려와 신라가 이어서 지배할 시대에도 한성(茂城:하남시의 춘궁동)과 같이 성읍으로서의 구실과 시설을 가졌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북한산아래의 지역을 산 퍼보니 비봉(棒鲱)에 진흥왕순수비, 북한산성의 남문 밖 문수사 석굴, 비봉아래의 승가사(稅 知事)와 장의사(藏義寺) 등의 신라시대 유적이 몰려있다는 것은 백제시대 북한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시대에 중심지 역할을 한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세점동계곡선을 내놓음으로서 하북위례성설을 정론화(正論化) 하었던 것이다.

나, 이병도의 백제건국 연대

이병도(李乃義)는 '삼한문제의 재 고찰' ⁶⁶에서 백제의 건국연대를 고이왕 27-8년(260-261) 으로 보고 '엄밀한 의미의 건국태조는 온조 로부터 8대(代)⁶⁶라고 하는 고이왕(古寶王) 즉 중 국사서에 이른바 구태(仇台)가 바로 그었던 것이다'라고 하여 고이왕 이정은 부탁국가에 불

⁶⁵⁾ 북성 (북한산 아래의 위례성) 남성(춘궁동 한성)

⁶⁶⁾ 진단학보 권제6 한국사 고대 편 p347-356

⁶⁷⁾ 고이왕은 6대 구수왕(th首王)의 동생으로 설제는 온조 로부터 6세손에 해당.

과하다고 파소평가하면서 백제건국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자체를 부회조작(附會造作)으로 뗨 하(贬下)하였다.

그러면 과연 부회조작인지에 대하여 백제의 온조 일행이 고구려에서 내려올 당시 고구려 본기의 기록내용과 비교해 본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서는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19년(BC19) '4월 유리가 부여로부터 그의 어머니와 함께 도망해 왔다. 왕이 기뻐하며 그를 태자로 세웠다. 9월에 왕이 승하하니 이때 나이가 40세였다 용산에 장사지내고 왕호를 동명성왕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온조 인행이 남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기원전 19년 4월 주몽이 복부여에 있을 때 에서부인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유리가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에 찾아와 태자로 책봉 받음으로서 기존 에 주몽의 아들대우를 받으며 지내던 비류와 온조 그리고 어머니 소서노의 입지에 큰 변화를 본러온 까닭이다.

그러던 차에 그해 9월에 들어 왕인 주몽이 승하(射觀)⁶⁶하자 유리가 왕위를 잇게 되니 온조의 가 죽은 더욱 불안이 가중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비류는 '우리가 공연히 여기에 눌러있 으면서 군더더기 흑처럼 암윤하고 답답하게 지내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산펴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고구려의 처음 도옵지 인 자금의 중국 요령성 환인의 오녀산성(종본성)을 떠나기로 결정하기에 이른다.

때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국왕이 된 이복형 유리의 승낙을 얻어야 할 것이고 같이 떠날 신하와 장수 그리고 비용은 조달 하려면 그해에는 떠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것을 준비할 시킨이 필요한데 때는 음력 9월이나 곧 겨울이 다쳐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미도 다음해 해 동(解疎)이 될 무렵인 3월경에 출발하여 4월경에 미추흥에 도착한 후 도읍으로 정할 장소를 수소 문하여 45월경에 한산에 윤라 지금의 남한산성에 도읍을 정한 후 우선 그들의 조상인 부여의 시조 동명왕 해모수(解臺漱)를 모실 시당을 중산인 지금의 검단산에 세웠을 것이니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서는 백제 온조왕 위년(BCI8) 5월™에 동명묘(東明廟)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사기의 백제 건국시기의 기록은 당시 고구려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며 연대 의 연결도 정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병도는 삼국사기 기독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그러 면 고구러 건국과 중국의 고구려 건국관련 사서들은 모두 부정한 것인가 자못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며 온조 13년(BC6) 8월에는 마한에 도움을 옮긴다고 알리고 국경을 최정하였는데 북으로는 패

⁽⁸⁾ 삼국사기 고구리 본기 동명성왕 19년 조 (9)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원년 조

하(祖河: 예성강)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熊川: 안성)까지로 하고 서쪽은 큰 바다에 닿고 동으로 는 주양(走壤: 춘천)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부락국가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안 수 없다. 따라서 이병도의 백제초기 역사관이나 하복위례성의 주장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축 소 지향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이렇듯 사기의 명백한 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북위례성을 백제 초도(初都)로 단정한 정약용과 이병도 등 학자들이 오류의 논리를 전개한 기저(基底)는 과연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필자는 먼저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한산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있는 대에도 부아산은 북한산뿐이다 하는 종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 한 것이다.

또한 전래되는 사서들이 위례성에대해 직산 등 불합리한 지역을 설정한 관계로 우리나라 고서 들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왔고 편협하고 유치한 이론 전개에 주변정보와 역사지식의 심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다. 한편 방대한 당의 고서의 섭렴으로 불필요한 과다한 정보가 위례성 소재 의 정확한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금을 막론하고 단순 히 다뤄야할 일에 너무 잡다한 고급 정보를 대입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학액으로 이어절 경우 스승의 이론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는 동양적 관습은 오류가 오래 지속된 수 있었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VI 백제 초도(初都)는 지금의 남한산성

1. 온조(溫祚) 일행은 산성(山城)을 선호(選好)

전순한바와 같이 백재 온조 집단은 고구려에서 내려온 부여개 종족이었기 때문에 도성을 물색 하는데 우선 그들이 떠나온 중국 환인의 오녀산성처럼 높은 산위에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는 지역 용 찾았을 것이다.

그들은 고구려에서 이미 나라를 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에 대비한 산위의 산성의

가치를 체득하고 있었기에 도유을 산성에 두고자 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온조 일행이 한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부탁대고 한산에 오른 것이 아니고 미추훈에 도착 하여 사전에 이리저리 오녀산성처럼 생긴 지형을 문색한 끝에 적지라고 신하들로부터 보고된 몇 개의 지형을 사전 점토한 다음 신임하는 산하의 사전답사를 거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한산 음 최종후보지로 물색한 후 최종 결정권자인 비류와 온조의 승낙읍 구하고자 열 명의 신하를 대동 하고 한산에 오른 것이다. 그러한 연후 온조는 그곳에 도움을 정하였고 비뮤는 처음 도착한 미추홀 이 더 낫다고 여겨 미주휴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산이 지금의 남한산으로 밝혀진 이상 남한산의 어디에 도움을 정하였겠는가? 그것 은 말 할 것도 없이 지금의 남한산성이미 행궁(行宮) 주변이거나 침쾌정(枕太亭) 일원에 왕궁은 지 었음 것이다.

행궁일원은 남한산성내에서 집터로서는 가장 좋은 자리이며 침쾌정은 예로부터 온조의 옛 궁더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2. 남한산성은 지형설명 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위치

남한산성 정상에서 주변을 살피보면 북쪽으로 한강이 띠를 두르고(北帶漢水) 동쪽으로 높은 산 에 의지해 있으며(東高峻岳) 남쪽으로 기름진 들이 내려다보이고(南望沃澤) 서쪽으로는 큰 바다인 서해에 막혔으나(西照大海) 천연의 요충과 땀의 이로움이 얻기 어려운 형세라고 기복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한강 주변 중부지역에서 이러한 지행설명에 부합되는 곳은 오직 남한산성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기록이며 그런 곳은 오직 한곳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아주 완벽한 지형 설명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북한산(北漢山)을 비롯한 한수 이북의 지역은 한강을 남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직산(援山)은 한산이 없고 한강이 보이지 않으니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편 이성산성이나 풍남토성을 두고 지형설명에 부합되느니 부합되지 않느니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는 비교학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형설명의 기록은 온조 원년에 한산의 봉우리에서 바라본 지형이고 이성산성이나 풍남토성은 그로부터 13년 후 한산 아래로 천도한 경우이니 우선 바라보았던 지점이 산위와 산 아래로 달라지 기 때문이다.

이블 두고 풍납동 위례성설을 주장하는 어느 학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성산성이나 춘궁동 지역은 남당옥택(南望沃澤)이라고 하였는데 남쪽으로 평아가 펼쳐져야 함에도 남한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남위해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비교이며 하북위해성을 주장한 정약용 이병도의 주장을 답습한 인식으로 삼국사기 기록이 불렀다고 치부하 는 주장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형설명은 남한산 위에서 본 지형이고 출궁통이나 풍남동 은 지형설명과 관계없는 장소인 것이다.

VII. 천도(遷都)와 이도(移都)의 의미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한성백제 기간 동안 두 번에 걸쳐 도움을 옮긴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온조 왕 14년(BCS) 봄 1월에 한산 아래로 천도(遼都)[™]하였다고 기록하고 두 번째는 근초고왕 26년(371) 한산으로 이도(移都)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모두 도읍을 옮겼다는 말인데 어떤 차이로 다른 글자를 사용한 것일까?

편자는 천도와 이도가 분명히 다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은조왕 14년의 상황을 보자 온조는 잦은 의침과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정조로 인하 여 처음 정하여 사용하던 한산의 도성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데 그리하려면 준비가 핀 요하였을 것이니 천도하기 전년도(온조13년) 7월부터 터를 잡아 목책을 설치하고 백성을 이주시 킨 다음 9월에 궁실을 완공하고 이듬해 1월에 가서야 천도하였는데 여기가 한산아래의 납한산성 (지급의 이성산성)이었다.

이렇듯 새로이 자리를 잡아 새로운 궁궐을 짓고 백성까지 모두 동원하여 도읍을 옮기는 것을 전 도(遷都)로 본 것이다.

그런데 근초고왕 26년의 한산으로의 이도(移都)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것은 그해에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여 왔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패하(訳:예성강)가에 군사를 매부시 키고 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갑자기 치니 고구리 군사들이 패하여 돌아갔다. 2년 전(근초고왕 24년)에도 고구려 고국원왕은 치양(維陽:황해도 연백)에 진주하여 백성은 괴류히므로 태자(衍:후 에 근구수왕))를 보내 크게 무찌른 바도 있었는데 잦은 고구러의 도반을 근절할 필요가 발생한 것 이다

드디어 그해 겨울(유력10-12원)이 되어 근초고왕은 태자와 함께 첫예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

^{70) 14}년 수 정원 천도 (14年春正月遷郡)

러의 평양성을 공격하게 된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왕 사유(斯山:고국원왕)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자 근초고왕은 규사를 불러 돌아온 후 곧바로 도유을 한산으로 옮긴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적국의 국왕을 사살하였으니 반드시 자객 등을 보내 보복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왕은 방비하기 쉽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일시적으로 당분간 도읍을 옮기는 것 음 선택하려 하염을 것이다.

당시의 군사력으로 보아 백제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전면전을 감행하여 공격할 정도의 상황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아 근초고왕은 새로운 왕궁을 선택 하여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이 백제가 13년 동안 도움으로 사용하였던 한산의 정상부에 있는 당 초의 도성인 하납위례성으로 사람들만 빠져나가 임시로 옮긴 것을 이도(移都)라고 적어 앞서의 천 도와 차별성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한산으로 옮긴 다음 적국의 동향을 보아 위해(危害)한 의도가 사라졌다고 판단이 설 3-4년⁷¹⁾ 후 다시 남한성(이성산성) 또는 춘궁동 궁으로 환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천도(遂都)⁷⁰는 왕이 새로이 궁성을 건설하고 도움을 옮기는 것이며 이도(移都)는 이어 (移御)⁷⁰ 이감(移義)⁷⁰과 같이 기왕의 시설로 몸만 옮겨가는 형태를 이도라고 여겨 삼국사기의 기 목에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VⅢ, 개로왕 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백제는 사기의 기록에 475년(개로왕21) 개로왕의 실정(失政)으로 고구려 장수왕은 군사 3만으로 왕도인 한성을 에워썼다. 왕이 성문을 닫고서 나가 싸우지 못하였는데 고구려 군사들은 군사를 나누어 네 갈래 길을 끼고서 공격하였다. 일본서기에서는 백제기를 인용하여 '대성(大城)을 7인 밤 낮 동안 공격해 왕성이 함락되고 마침내 위례성을 잃었으며 국왕 및 대후 왕자 등이 적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여 복성이 산성(山城)임을 암시하고 있다. 평지성인 풍납토성이었다면 성을 포위당

⁷¹⁾ 근조고왕이 이도하였으나 환도는 근조고왕 재위가간 대근조고왕은 재위 30년에 송하의 이 이루어 젊을 것으로 보이다 이기간 공안에 왕은 근 전투의 성형이 많은 태자에게 판단을 주어 대대적인 모범과 군사훈련을 병행하였을 것으로 보 이미 상담시 장국동의 태자군(大声) 전설의 창원인도 근조고왕의 태자(四급 대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속된다.

⁷²⁾ 천도(壓額): 시율을 옮긴, 좌전(左傳)주(註)에서는 성왕영왕성(成王芬王城)이라 하여 왕이 건설한 왕성으로 옮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大溪韓辭典/1964/省文社

⁷³⁾ 이어(移御)임금이 거처하는 곳은 옮김

⁷⁴⁾ 이감(移監)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김

하는 자체로 성은 함락 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북성이 당시 왕성이며 한성이었던 이성산성이 분명 해 전다고 한 것이다.

북성을 함락한 고구려는 군사를 옮겨 다시 남쪽 성을 치니 성안은 공포와 위기감에 휩싸이고 왕은 기병 수십 명만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곧 고구려의 장수 재증결루(再度 從炭)와 고이만년(古介萬年) 등이 왕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 전을 하더니 이윽고 왕의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고 곧 최목을 해야린 다음 아차성(阿且娘)⁷⁹ 아래로 묶어 보내 죽이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필자는 고구려와의 대치상태에서 왕은 사전에 북성인 지금의 이성산성보다 안전한 남성인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전투를 지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남성이 한탁된 이후 얼마간 건더라가 성을 빠져나가 남한산성의 서쪽인 지금의 성남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고구려 장수에게 분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남시 북정동(編井洞) 인대의 군주(君貺)터 "한는 개로왕이 고구리 장수에게 붙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남시 북정동(編井洞) 인대의 군주(君貺)터 "는 개로왕이 고구리 장수에게 붙잡힌 것으로 생각되는데 성남시 북정동(編井洞) 인대의 군주(君貺)터 "는 개로왕이 고구리 장수에게 붙잡힌 장소로 전하여 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의 남성은 백제가 처음 개국하고 근초고왕26년에 이도(移額)하였던 지금의 남한산 성이다.

IX. 풍납토성이 한성이라 할 수 없는 이유

1. 풍납토성은 한산아래라고 할 수 없다.

풍남토성은 현재 일부 학계로부터 백제의 한성이라고 비정되고 있다. 이는 온조왕 14년 한산 아래(下)로 천도한 성을 풍남토성으로 본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하북위례성설을 주종하는 학자들로 온조가 북한산 부근 또는 한강이북 어디엔가 있다가 한강을 건너 한산 밑으로 옮긴 곳이 중남토성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산(남한산)에서 굳이 서쪽으로 한산아래 지역이라고 한다면 많이 봐주어도 지금의 거 여동이나 마천동 지역을 넘어실 수 없다. 풍납동지역은 납한산 줄기가 끝나는 지역으로부터 몇 개 의 야산과 구콩지역을 넘어 면박치의 강변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산하(漢

⁷⁵⁾ 지금의 서울 광나루 북쪽 야차산(韓韓山)에 있던 산성으로 일명 야단성. 76) 성남 햦토문화 충서 '복장 태평롱 마을의 역사' 2005 성남문화원

山下) 라고 하지 않고 한수지변(漢水之邊)이라고 하염을 것이다.

2. 풍납토성은 배후에 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풍남토성은 평지성에 불과함으로 적의 공격이 있을 때 퇴로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산성에 익숙한 고구려 계통의 북방민족으로부터 도성으로 선택받기에 지극히 지난한 입지조건이다.

통상적으로 평지에 도성을 정하더라도 반드시 퇴로를 감안하여 산에 의지하여 정도(定額)하는 일반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성으로 도성으로서는 적합지 않다. 그러나 정약용이나 이병도는 산성 의 도성선택을 불편하다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테 아마도 중국의 오녀산성을 답 사하지 않아 고구려계동의 복방민족의 성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데도 정약용과 이병도는 한수복쪽에서 한강을 건너 이도한 곳이 하남의 출궁동으로 보았다.

그런데 풍남토성을 위례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풍남동으로 갔다고 하니 하복위례성 추종 논리를 근간으로 한 지형설명 오류대입의 극치라 아니함 수 없다.

3. 풍납토성은 개로왕시대 북성의 전투상황에 어긋난다.

복성의 전투상황은 전순한대로 네 갈래 길을 끼고 7일 밤낮 공격할 격전지의 지형이 못 된다. 그 리고 남성으로 지목하고 있는 몽촌토성은 북성 과의 거리가 인접한 평지성으로 전략상 돼로가 없 어 군수물자조달과 장기전을 수행할 전략상 가치가 반감되며 동일시대에 군사목적의 성으로 병존 한 것으로는 불 수 없다.

특히 475년 장수왕이 아차산성에서 궁성의 일거수일부족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목전에 적을 두고 장기간 대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최후의 결전을 풍납토성에서 벌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4. 한성백제 멸망 후에 지역 중심도시의 역할이 전혀 없다.

오랜 기간 동안 나라의 도성이 소재하였던 지역이라면 나라가 망한다 하여도 도시는 이어져 그 지역의 중심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제국은 망했어 도 도시 로마는 존속하게 되어있다. 이는 도성을 중심으로 길이 생기고 인구가 집중되어 경제권역으로서 물산과 소비의 집중이 아무어지는 경제중심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성백제가 멸망한(475년) 이 후 지역중심 도시는 어느 곳에서 이어서 수행 되었는가를 삼퍼보면 어디가 도성이었는가는 자연히 밝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백제의 두 번째 도성 소재지를 두고 학자들 간에 서울의 풍남동지역과 하남시의 춘궁동 지역이 옳다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 우선 하남의 춘궁동지역을 살펴보자 한성백제가 멸망한 후 남한(南漢)지역은 고구려 수 중에 들어간다

고구려는 남한지역을 한산군(僕山郡)으로 하고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주치는 의당 백제의 도읍 이었던 남한 즉 지금의 이성산성에 두었을 것으로 관단된다. 그것은 한산군의 한산이 소재한 남한 지역에 백제의 도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와 도로 물산 등 경제중심이 남한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구려가 약 76년간 지배한 후 신라가 차지하였는데 신라시대에 한산주의 주치(主治)가 남한지역 인 지금의 이성산성과 춘궁동지역에 두었고 그 관합은 지금의 충주지방 까지도 포함할 만큼 실로 방대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한면 고려시대에도 그러하였다. 940년(태조23) 한주(漢州)에서 광주(廣州)로 개칭한 후 983년 (성종2) 광주목(廣州牧)으로 되고 995년(성종14) 봉국군절도사(奉國軍節度使)가 되었는데 이때에도 광주목과 봉국군을 남한에 두었던 것이다.

1018년(현종9) 양광도를 거쳐 안무사가 되고 1356년(공민왕5) 광주목으로 복귀되는 여러 행정 구역 개편에도 불구하고 주치는 항상 남한의 춘궁동을 떠나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 1626 년(인조4년) 광주(廣州)의 치소(治所)가 지금의 남한산성내로 이전하기까지 계속하여 광주지역의 주치(主治)를 이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풍남동지역은 어떠한가? 같은 광주에 속해있으면서도 한 번도 주치의 역할은커녕 먼치 (面治)도 담당해 보지 못한 일개 한촌(周柱)에 불과함을 면치 못하였다. 이는 상습 친수지익으로 사람 살 곳으로 적당하지 않았다는 증기이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없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당연히 퐁납토성이 왕성이었다면 광주의 주치는 풍남토성 주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 발전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성산성이 소재한 남한지역이 백제의 도성이었고 풍남토성 은 백제의 도성이 아니었음을 간접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풍남토성은 백제의 도성과는 변개 로 병사들의 훈련과 도성외곽의 한강을 방어하는 목적의 성일 수밖에 없으며 온조 14년 한강 서북 쪽에 건설한 성일수도 있고 그 이전 마란의 옛 성을 근초고왕이 남한산성으로 신변보호류 위하여 이도(移都)한 후 백제는 강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공약을 위한 대단위 군사조 련읍 위한 성으로 개축성하여 사용한 도성방어를 위한 외곽 성 중의 하나였음 것으로 추정된다.

X. 남한지역의 백제왕궁 예상지

1. 이성산성(二城山城)

이성산성은 온조14년 천도한 남한성(南漢城)으로 한성백제가 멸망한 475년 북성(北城)으로 지 청되는 왕성이다. 처음에는 토성으로 목책만 두른 성이었으나 어느 시대에 석성으로 재 축성되었 다. 성내에는 8각 9각 12각 건물터와 저수지는 물론 기타 여러 건물지가 산재하여 있고 신앙유적 이 병존하고 있어 성 안에는 반드시 왕궁지가 있었을 것으로 관단된다.

이 성의 정 남쪽 약 1km지점에는 백제 사찰이 유력시 되고 있는 춘궁동 동사지(棟寺址)가 위치 하고 있으며 당초 남한산성이라 하였다가 남한성으로도 부르고 한성으로도 불렀으며 하남위례성 또는 위례성으로 호칭되었던 한성백제의 중심성(中心域)이다.

2. 교산동 건물지(校山洞建物址)

교산동 건물지는 하남시의 객산 아래 교산동 토성의 중심부 다마내 부락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의 터가 워낙 크고 빼어난 주변 풍광과 건물지 주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궁궐터였다는 인상 을 강하게 풍기는 건물지이다.

현재 1차 조사결과 객사(客會) 터로 반표되었지만 건물이 9차례나 중건되었고 온돌시설이 없으며 방대한 건물면적으로 볼 때 자못 실소(失笑)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조사결과이다. 'ㄷ' 자형의 건물로 정면에 이성산성을 마주보고 있어 아신왕이 태이난 동쪽의 별궁(別宮)이거나 한성의 궁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필자는 이 건물지를 살펴보면서 온조왕 13년 한산아래에 목책을 세우고위례성 백성을 이주시킨 다음 9월에 궁궐을 짓고 이듬해 1월에 천도하였는데 그 다음해안 온조 15년 1월 달에 새로 지은 궁궐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 궁궐이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하였는데 교산동 건

물지에 어웃리는 안성맞춤의 표현일 것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건물지 남쪽 약 1km지점에 백제왕궁에서 경영한 사찰일 것으로 예상되는 천왕 사지(天王寺並)가 있기 때문이며 천왕사지도 고려시대 점터라고 반표되고 있지만 이미 백제시대 의 와당(瓦當)과 요지(器址)가 충토된바 있어" 책임 있는 제조사가 요구되는 유적이다.

교산동 건물지는 한성백제가 합락된 후에는 고구려나 신라가 이어받아 관청으로 사용되었을 가 능성이 농후한 건물지이며 1960년경 인근 하사광동(골말)에서 발견되었던 고려 남경유수관(南京 衍守官)[™]의 관인(官印)[™]은 당시 남경유수관이 설치되었던 양광도(楊廣道)와 신경기(新京機)의 육치(邑治)가 지금의 하남시에 있었음을 한제 대변해주고 있어 오늘난 경기도(京機道)의 시원(始 原)이 하남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발해주고 있다.

3. 광주향교 터

광주향교는 숙종29년(1703) 광주부운 이제(李濟)가 서쪽으로 약 2리쯤 떨어진 향교고개 부근에서 고읍(古邑)터로 이건하였다는 중정 남한지(東訂 南漢志)^{©]}의 기목으로 보아 광주 향교가 들어서가 전에는 광주 고윤의 관아지(宣衞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광주 관아지 이전에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마도 고려시대 관아지를 거슬러 백제시대에는 평지의 궁궐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움 터가 서쪽의 이정산파 동쪽 의 객산 중간지점에 가갑고 평지의 가장 넓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예로부터 명당지로 알려지

⁷⁷⁾ 검이불루(倫而不陋)

⁷⁸⁾ 화이분치(華而不多)

⁷⁹⁾ 오순제 '한성백제의 하이테크 기술' 2013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공 복촉 지금의 청와대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경이 설치된 지역은 원래 양주 땅으로 양광돈에 속하여 있었다. 그러나 106년(문종2) 경기(京徽)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신경기(新京徽)가 민들어자가 남경은 이 신경기 지역으로 원임되었다. 그리고 문흥은 이곳에 남정수구반(前京領守官)을 설치하였다. 남경수수편에는 유수기인, 4종 이상의 부속 수1인, 6종 이상의 관련1인, 8종 이상의 명조(法市)1인, 9종 이상의 문사(文師)의사(電約) 각각1인 동의 관연이 배수되 었는데 그 뒤 남경수수분은 133전(현경) 열상가 한상부로 개칭되고 윤(尹) 관련(취)가목(司錄) 등이 두어졌다. 한편 남경속수반은 지방편이 아니고 지방환에 딸린 행정조의의 일부분 기능하였다.

한국민족분화대백과

⁸i) DSの년경 남한출학교가 광주광교에 자리하고 있음 때 역사교사이던 이름산 선생이 주석으로 된 4각 「海京留守之郎」이라는 인강을 교산동 건물지 인근 하사장동(군말)에서 숨독 하교에서 공개한 사건이 있음을 중인/하남시 덕봉통 거주 이겨홍(李隆門)

⁸²⁾ 중정 남한지 학교 시원 편

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향교의 초석은 주변 기존의 건물에서 사용하였던 주춧돌을 재사용한 초석이 많아 향후 초석에 대한 학술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4. 서부농협 앞 건물지

춘궁동 서부농협 도로 맞은원에는 현재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 중에 있는 관청건물 에 상지가 있다. 이곳 또한 광주 고읍의 중심지역에 해당되고 변굴과정에서 백제시대의 와당(瓦當) 이 솔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백제 왕궁예상지로 떠오르는 건물지이다. 한 가지 아쉬운 짓은 건 뮵지 주변이 모두 4.5m가량 복토되어 주변의 발균조사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5. 춘궁동 궁(宮) 집 터

춘궁동에는 오래천부터 궁 집으로 불리던 가옥이 있었다. 이 집은 고 이율용(李乙鎔)씨가 거주 하던 집으로 춘궁동 393번지에 해당된다.

이집은 1961년 가정 사정으로 집을 할어 홍순만씨에게 매도한 후 농지로 사용하다가 얼마 후 신 장1동 조 모씨에게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이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해 집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물 이 많이 나온다 하는 풍문이 들았었다고 전해진다.

궁 집으로 불라온 이유의 하나는 조선왕실과 가갑게 지내온 연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이율용씨는 인조의 셋째아들인 전주이씨 인평대군(縣坪大君)파(歲)였다. 그런테 홍선대 원군(興宣大院君)의 아버지 남연군(前延君)은 인평대군의 8세손으로 왕실파는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으나 이율용의 부친은 대원군과 같은 용자(應字) 학렬(行列)이며 조부는 남연군과 가까운 집안이었다. 마침 남연군이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思信君)의 양자로 입적됨에 따라 왕실과 가까워지고 고종이 순조의 강자 효명세자(閩宗)의 양자로 입적됨에 따라 고종이 보위에 오르자 더욱 가까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살던 건물의 면적이 수 십 칸으로 궁궐 못지않아 주변에서 궁 집으로 불러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살던 궁 집티는 일반 민가와 다르게 집 주위 지형이 매우 안정감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 궁 안 마을(宣內물)의 궁 집으로 불리었다는 점에서 고대로부터 이어 내려왔던 집단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XI결론

한산은 백제시대 처음 도읍할 곳을 살펴보려고 온조 일행이 신하들과 함께 한 봉우리(꾸아약)에 올라 주변을 조망해보고 신하들이 하늘이 내린 마땅한 땅이니 이곳에 도읍하자고 한 산이다. 그리 고 그곳이 한강 남쪽 땅이라는 의미에서 하남위례성에 도움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삼국시대의 역사기록에서 삼국사기를 정사(正史)로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도 그 렇게 인정하고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은 백제가 건국에서부터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한성(漢城)이 함락될 때까지 줄곧 한산 주변에 도성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백제 도성의 소재는 한산(漢山)이 더없이 중요한 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성백제 도성의 소재를 두고 학계에서는 이건이 분분하다.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저번에는 한산을 바로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목적도 한산의 소재를 제대로 밝힌다면 논쟁의 핵심도 자연히 정리되는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하는 작상에 다다랐던 것이다.

그러면 한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가에 주목하게 된다. 한산의 소재는 의외로 간단하고 단순하였다. 한산(漢山)은 지금의 광주시(廣州市)에 있는 남한산(淸漢山)과 북쪽으로 하남시(河南市)를 감싸 안은 독서 두 줖기 큰 지액을 포함한 큰 산을 두고 한산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한산을 남한산으로 보는 것은 예전의 문헌이나 학자들의 인식에 큰 이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신라시대 한산주 또는 한주가 되었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온조가 BC18년 한산의 부아악이라고 끌리는 한산의 어느 한 봉우리에 올라 지행을 살펴 보고 그 자리에 도읍한 곳은 다름 아닌 지금의 남한산성 이었다. 그곳이 북대한수(北帶茨木), 동거 고악(東穰高岳), 남망옥뫡(南望沃澤), 서조대해(西亞大海)의 지형설명에 부합되는 우리나라 최적 유일무이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제 도성을 두고 의견이 다르게 끌라진 데에는 한산의 소재보다는 학자들이 북한산에 있는 부아악 이라고 하는 봉우리 소재에 집착된 고정관념(周定觀念)과 이를 풀어주는 어지러운 과 다정보의 선택적 오류가 빚은 잘못된 에단(豫節)에서 비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약용과 이병도는 한산의 소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아악이라는 산이 북한산이라는 것에 만 집확하여 도성이 한강북쪽에 있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병도는 백제의 건국이 대방고지(帶方 故地)라는 중국사서(史書)에 의존하여 대방고지를 황해도 지역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북한 산이 한수이북이라는 단순논리에 의거 정약용의 항복위례성 주장을 일리 있다고 동의한 것이다.

이렇듯 하복위례성설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북위례성의 허구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당초의 하남위례성은 한산에서 찾았어야 옮았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따라서 하북위례성 논 라를 지위비리면 백제 초기에서 한성백제의 천도과정은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 일사천리로 막힘없 이 해석이 가능해 진다.

온조 14년 한산 아래로 천도한 곳은 저금의 이성산성으로 당초의 이름은 남한산성으로 불리었다고 고려사(高麗史)기록에서 알려 주었고 이를 이성산성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남한성(南漢城)이라는 목간(木前)이 중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성산성이 남한산성이며 줄여서 남한성이고 더 줄여서 한성이다. 한편 위례성 은 왕이 거처하는 큰 성이라는 의미로 하였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오늘날 이성산성의 당초 이름이었는데 553년(진흥왕14) 신라가 중부지역을 차지한 후 672년(문무왕12) 백제의 초도(初郡)이었던 하남위례성이 있었던 한산 정상부에 주장성 음 축성하고 종전의 남한산성인 이성산성을 폐쇄하여 군사적 기능을 새로운 주장성으로 이전하였 기 때문에 그 이름도 함께 따라간 것이라고 처음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南漢)이라는 지명(她名)은 남한성 주변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장 남쪽의 땅이라는 뜻이며 지금의 남한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옛 한산의 동서 두 줄기 큰 지맥이 감싸고 있는 한 장 남쪽의 땅으로 지금의 하남시 대부분 지역임을 명시 하였다.

한편 근초고왕 26년 한산으로의 이도(移都)는 완전히 도읍을 옮기는 천도가 아니며 당시 백제의 군사력이 강성하였음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사살한 직후임으로 적의 전면적 군사행 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적으로 부터 자객 파견 등 왕에 대한 소규모 보복 위해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우선 집근성이 낮은 처음 도읍지였던 한산 정상부(지금의 남한산성)로 우선 신하들만을 데리고 올라간 한시적 이도(移都)로 사태가 전성되었다고 판단되는 3-4년(근초고왕 재위 시)후에 다시 한성으로 환도하였을 것으로 주저하였다.

그리고 천도와 이도의 기록 의미를 되새겨 볼 편요가 있으며 이는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삼 국사기에 천도와 이도로 구분하여 적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성백제의 도성 변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1) 기원전 18년(백제건국)--)기원전6년(온조왕 13)--남한산성
- 2) 기원전 5년(온조 14)→370년(근초고왕 25)—이성산성 및 춘궁동 왕궁
- 3) 371년(근초고왕 26)→374년(근초고왕 29년)-남한산성

4) 375년(근구수왕 1)→475년(개로왕 21)-이성산성 및 춘궁동 왕궁

그리고 개로왕시대의 북성(北城)과 남성(前城)은 일본서기의 기곡을 원용하여 당시 왕도는 북성 이었으며 북성의 치열한 전투상황에 비추어 북성은 지급의 이성산성 이었음은 밝히고 남성은 방 어가 용이하고 집근이 어려운 지금의 남한산성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부학자들이 주장하 는 풍남도성과 몽촌도성 설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지금의 풍남토성은 한산의 소재에 비추어 볼 때 한산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배후에 산이 없으며 북성의 전투 상황에 어긋나고 한성이 합락되어 웅진으로 옮겨간 이후에 도시의 중심 이 남한지역에 국한되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성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성은 이성산성을 중심으 로 한 남한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남한지역에 궁권터로 예상되는 장소를 연기 하였다.

이제 한산과 한성의 소재가 명확하여 진만큼 한성백제의 도성연구도 한산을 중심으로 이동되어 야 하며 하북위례성의 소재를 찾는 비능률도 거두이 져야한다. 우리의 정사인 삼국사기의 기록에 중심을 되찾아 올마른 역사를 반추하고 정립하는 조그만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2. 삼국유사(三國讀事)
- 3. 세종실목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 4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賢)
- 5. 고려사(高潔史)
- 6. 하남 역사박물관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 2005
- 7. 하남 역사박물관 '하남의 문화유산' 2004
- 8. 하남 역사박물관 '역사 속으로의 하남여행' 2003
- 9. 하남문화원 '이성산성에 관한 학술대회' 2011
- 10. 하남문화원 '백제인의 제 문화에 관한 학술대회' 2013
- 11. 오세창(吳世昌) '백제초도 위례성고' 1994
- 12. 정약용(丁若雞) '여유당전서 강역고권3 위례고
- 13. 이병도(李丙裔) '위례고' '근초고왕 최경고' '한국고대사 연구' 1981
- 14. 성주탁(成周鐸) '한강유역 백제초기 성지연구' '백제연구' 1984
- 15. 차용걸(車勇杰) '위례성과 한성에 대하여' 1981
- 16 최몽룡(崔夢龍) 권오영(權五榮)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본 백제초기의 영역고찰' 천관우선생환역기념 한 국사회논총 1985
- 17. 윤무병(尹武炳) '한강유역에 있어서의 백제문화연구' 1994
- 18. 도수희(都守熙) '한홈 시대의 백제 말음 찾아서' 2011
- 19. 오순제(吳舜濟) '한성백제의 하이테크 기술' 2013
- 20. 안경전(安耕田) '화단고기' 상생출판 2012
- 21. 백제문화연구회 '백제역사문화자료집' 2000
- 22. 광주문화원 '하남비사' 2003
- 23. 성남문화원 '성남 향토문화 총서' 200524.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향토사학' 2011
- 25, 일신각 '한국인의 성씨' 1985
- 26. 동아출판사 '동아세계대백과사전' 1991
- 27. 성문사 '대한한사전' 1961
- 28. 인터넷사전 '민족문화대백과' '한국지명유래' '위키백과' '오픈백과'

조선 후기 안성시지역 三邑 : 안성, 죽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邑誌》를 중심으로 -

홍 완 표 (국립한경대학교 명예교수, 안성문화원부원장)

및 자

I. 머리말

II.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고찰
1. 호구(戶口) 및 인구(人口)
2. 토지보유 현황의 분석

III. 재정수취 현황의 고찰
1.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2. 군역(軍役) 및 군세(均稅)
3. 조적(權權)의 분석
4. 기타

IV. 맺음말

집필자 국립한경대학교 명예교수, 안성문화원 부원장, 국사편천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흥 완 표 경기도 함토문화 연구위원, 안성시 시사편천위원

I. 머리말

한국사 연구에 있어 한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적인 사실을 찾아낸다 해서 전체적인 양상을 유추하기 이렇다. 왜냐하면 특수한 지역적 현상만으로 보편적인 한국사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그러나 지역사례의 연구는 법전에서 알 수 없는 실제적인 재정 운영을 알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연구가 축적되어 지역간의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이런 큰 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이 지방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자료의 고창이 계속되어야 한 이유이다

본고는 18세기 중엽과 19세기 초 안성시지역⁴ 삼읍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에 이어 약 30년 후 이 지역의 재정에 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한 논문에서는 18세기 중엽의 자료인 (여지도서(集 城閣書))와 19세기 초의 (부역심奏(蘇得管鄉))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신을 파악하였다.

첫째, 축산도호부·안성군·양성현 등의 삼읍은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인접 고을이었지만 호당 인구나 호당 결수 등 농업여건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목에 대한 수취방식과 부과액에 있어 다른 점이 많았다. 대체로 읍격이 높을수록 각종 세의 부과에 있어 부담이 적었고 읍격이 낮 으면 반대로 많은 부담을 졌다.

그리고 지방 재정의 운영에 있어 각 읍간의 현격한 차이를 보였는데 죽산도호부는 기본적인 세목이외에 다른 잡세가 적었으나 안성군과 양성현은 기타 지방에서 수취하는 여러 가지 세목이 있었다. 또한 안성군은 장세전의 수입이 많고 장인전의 비중이 컸다는 사실에서 안성군이 죽산도호부나 양성현에 비해 상공업이 발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당으로 1840년대의 자료인 (옵지(色誌))를 본석하여 이 시기의 재정상의 특정과 변화양상을 고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본 사료인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의 《읍지》는 경기도 각읍에서 작성한 34개 읍지를 묶은 통지(通誌)인 《경기지(京裁誌》)가운데 일부로 규장각 소장본이다. 편찬연대는 죽산도호부·진위 등 읍지의 재목이나 끝에 '도광이십이년육월-이십삼년정월' 등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842년 (현종 8년)-1843년 경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된찬체제나 내용이 다양했다는 점에서 각 읍별로 개별적으로 작성된 읍지가 관찰사에 의해 합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의 주요고찰 대상인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邑諱)는 (여지도서)나 〈부역실총〉에 비해 소략하게 되어 있다. 즉 (여지도서)는 뒷부분에 한전(厚田)·수전(水

¹⁾ 안성시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이며 삼음은 현재 안성시의 원형을 이루는 조선시대의 죽산도호부 · 안성군 · 양성현 등을 밝한다. 방면에 지역이란 표현을 때고 안성군이라 했을 때는 조선시대 안성군을 의미한다.

²⁾ 홍현교, 〈조선후기 안성군자역 삼습의 지방제정에 완한 연구 -(典地圖書)와(献役資證)을 중심으로->,(산업과학기술연 구)9, 1996.

田) · 전공(進貢) · 조적(繼離) · 전세(田稅) · 대통(大同) · 군역(均稅) · 봉금(楊原) · 군병(即兵) 등 의 학목은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군현의 지방단위로서의 기능을 강조하였고 인물조(人物鄉)의 수 록 대상이 크게 줄면서 시와 기문(記文) 등이 생략되었다.

또한 〈부역실총〉은 조세·공부·균역 등 각종 조세수취 상황에 관한 것만 모았기 때문에 재정 상태를 잘 보여준다. 반면에 (경기지)는 인물조를 세분하여 수록 인물을 늘리고 과학조(科學樣) · 옵션생안(邑先生業)을 신설하기도 하며 명현묘(名賈葉)가 기록되는 등 인문·문화 관계 기사가 증 가학였으나 재정관계 기록은 호총(戶總) · 결총(結總) · 관총(恐總) · 군총(所總) 등 4항목으로 간 단하다. 대체로 《여지도서》와(부역실총)이 재정관계에 총심하고 있다면 《경기지》는 문화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재정 실상을 자세히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당시의 호구·토지 현황이나 환곡 등 재정에 관련된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여지도서)와(부역실총)의 자료와 비교하면 중요한 변화를 발견한 수 있다. 아울러 1870년대의 (읍자)에서는 뒷부분에 (읍사례(邑事例))를 부록하여 각 지방의 재정상황을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그 중간적인 시기로서 1840년대 (읍자)의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해 둘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차후에 진행될 1870년대 (읍사례)의 연구를 위한 준비 작업의 성격도 갖고 있다.

II.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한 고찰

1, 호구(戶口) 및 인구(人口)

《음자》에 기록된 호구와 인구는 《읍자》가 작성되던 시기로부터 가장 최근의 조사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3년마다 작성되며"그해의 간지(干支)에 子·斯·牛·普가 들어간 식년(式牛)에 호구조사가 실시되었다."그러므로 《음자》에는 1842년 이전 식년에 해당하는 경자년 (庚子牛)인 1840년 경의 조사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시대의 호구조사는 여러 가지

³⁾ 아세아문화사진, (區誌 十 - 京級①), 〈解題〉, 1985, 4-5쪽,

안성시 지역 삼욥의 (邑誌)는 모두 이 책에 의거하였다.

⁴⁾ 每三年 改尸籍 藏於本朝·漢越府·本道·本邑(《經國大典》2 戶典 戶籍)。

⁵⁾ 式年-子・卯・午・酉年- 成籍時 外邑各面監官 以士夫擇羌((婦大典)2 戸典 戸籍)。

사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대략적인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무의 미한 자료는 아니다.

죽산도호부의 호는 3274호, 인구는 11628인인데 남자가 7084인이었으며 여자가 4544인이다. 호 당 3,55인이 살고 있으며 성비는 61:39였다. 안성군의 원호(元戶)는 4459호이고 실인(實人)은 16847[□이다. 안성군의 경우 연령별로 자세히 기복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연령증인 장남(壯男)은 4863구이고 장녀(壯女)는 5486구이다. 60세 이상의 노남(老男)은 2709호이고 노녀(老女)는 2338구이다. 19세 미만의 약남(弱男)은 1031구이고 약녀(弱女)는 1050구이다. 정리하면 총인구는 17477인이고 그 가운데 남자는 8603인이며 여자는 8873인이었고® 호당 인구는 3,92인이며 성비는 49:51이었다. 양성현은 2927호에 인구는 7422인이며 남자는 4287인이고 여자는 3135인이다 "호당 인구는 2,53임이며 성비는 58: 42였다.

호구나 인구 모두 안성군, 죽산도호부, 양성현의 순이며 호당구수도 역시 같다. 안성군은 죽산도 호부에 비해 읍격은 낮지만 훨씬 많은 호와 인구가 살고 있었다. 읍격과 인구는 무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비는 죽산도호부나 양성현은 모두 대략 6 : 4로 남초(別和)이지만 안성군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죽산도호부나 양성현의 경우 전통시대에 있어 인구의 조사는 양역(良役)이 부과되는 남성읍 중심으로 과악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호당 인구의 비율은 노동력의 보유 정도를 나타내는데 호당 비율이 클수록 호역 등 각호에 부과되는 참세의 부담은 가벼워진다. 이러한 점에서 안성군이 가장 작었고 양성현은 그에 비해 1.7배나 된다. 호당 부담에 있어서는 양성현의 백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⁶⁾ 안성은 실제 사람의 수가 16847인이지만 나이별로 기록된 장남(社男)과 장녀(壯女) 등의 인구를 더하면 17477로 약간 의 차이가 있다.

⁷⁾ 양성은 남청(芳丁) · 여왕(玄丁) 통으로 표기되어 있어 20세 이상 60세 미반의 연령송만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성의 호당 인구의 비율이 죽산이나 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줌 더 겨트웨어 한 화제이다

⁸⁾ 대표적인 예로 《世宗實錄地理志》를 들 수 있다. 이 기록에서 각 군현의 인구는 군역의 부담자인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男丁을 중심으로 파악되어 있다.

〈표 1〉 三邑의 호구 및 연구

	Þ	人口	男	女	戶當 口數	性比
죽산도호부	3,274	11,628	7,084	4,511	3,55	61:39
안 성 군	4,459	17,477	8,603	8,873	3.92	49:51
양 성 현	2,927	7,422	4,287	3,135	2.53	58:42

삼읍의 호와 인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보면 안성군의 경우 읍격은 죽산도호부에 비해 낮지만 호 나 인구수에서 가장 많고 호당구수에 있어서도 충실하며 남녀의 성비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확 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반면 죽산도호부나 양성현은 남녀의 비율이 대략 6:4 정도로 남초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역(良後)이 남정에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 악하고자 노력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2)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의 호 및 인구의 변화

구 분		F			人口	男女性比		
T E	圖書	邑誌	增減	圖書	邑誌	增減	圖書	邑誌
주산도호부	4,332	3,724	-608	20,803	11,628	-9,175	45:55	61:39
양 성 현	2,321	2,927	606	6,169	7,422	1,253	57:43	58:42

한편 1750년대 말의 기록인 (여지도서)와 1840년대 초의 자료인 (읍지)를 통해 축산도호부와 양성현의 약 80여 년 간의 호와 인구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축산도호부는 호가 608호, 인구는 9175인씩 각각 감소하였으나 양성현의 호가 606호, 인구가 1253인이 각각 증가하였다. 죽산도호부의 경우 호는 약 14%, 인구는 44%가 격감한데 비해 양성현의 호는 26%, 인구는 20% 가량 증가하고 있다."

조선 후기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양성현의 사례가 정상적이며 축산도호부는 매우 이래적이라고 생각된다. 인접한 지역에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농업적인 이유는 아닌 듯하다. 축산도호부는 인구와 호구의 감소에 따라 재정 수업은 감소하고 반면에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이다. 한편 성비는 축산도호부가 (여지도서)에서는 45:55로 여초(女趣)었던 데 비해 (옵지)에서는 61:39로 남초(男趣)로 바뀌었다. 양성현은 양자 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죽산도호부에서 80여 년 사이에 이와 같이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기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고찰해야할 대상이다.

^{9) 18}세기 중엽의 호구와 인구에 대해서는 《여지도서》및 홍완표, 앞의 논문, 71-73쪽을 참조,

2 토지보유 현황의 분석

축산도호부의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는 한전(早田) 866결(結) 58부(負) 9속(東), 수전(水田) 1407절 38부 5속으로 총계 2273절 97부 4속이었다. 한전과 수전 비율은 38.1:61.9이고 한전의 시기비율은 8.85%이며 수전의 그것은 62.24%이다. 한전은 90%이상이 경작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한전은 가뭄에 대한 재상(災傷)이 인정되지 않는 추세에서 한전의 진전비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전의 경작에 주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안성군은 원장부한전(元朝付早田)이 1179결 75부 7속이고 수전이 1443절 52부 2속으로 전부 2623월 27부 9속이다. 한전과 수전 비율은 45:55로 수전이 조금 높다. 안성군은 삼읍 가운데 가장 많은 토지가 있었으며 시기전(時起田)의 비중도 한전·수전 모두 죽산도호부보다 크다.¹⁰ 특히 한 전의 시기비율은 죽산도호부와 비교하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양성현은 원장부한전이 1976결 87부 9속이고 1080결 31부 7속으로 총 3057결 19부 6속이며 한전과 수전의 비율은 64.7:35.3이다. 삼송 가우데 유엄하게 한전의 비중이 높다

(표 3) 삼읍(三邑)의 토지 현황

		죽산도호부	안성군	양성현
2.7/2/MH46)	원장부	2273걸 97부 4속	2623절 27부 9속	3057질 19부 6속
충진수(總結數)	한전: 수전 비율	38,1:61,9	45:55:00	64,7:35,3
	원장부	866결 58부 9속	1179결 75부 7속	1976결 87부 9속
한전(무田)	사기	76결 74부 7속	890결 69부 4속	결(缺)
	시기비율	8.85%	75,50%	?
	원장부	1407결 38부 5속	1443결 52부 2속	1080결 31부 7속
수전(水田)	시기	876결 8부 9속	941결 30부 4속	결(缺)
	시기비율	62,24%	65,20%	?

이상의 사실을 통해 삼읍의 현황을 비교하면 원장부에 등제된 총결수는 양성현, 안성군, 죽산도 호부의 순이고 한전 역시 같다. 그러나 수전은 안성군, 죽산도호부, 양성현의 순으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수전의 비중은 죽산도호부가 가장 크고 양성현이 가장 낮았으나 실제 경작지를 나타내는 시기답은 안성군이 조금 많았다. 특히 한전의 시기전 비율에서 안성군과 죽산도호부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자연재해 등 외적인 영향이 있었다해도 인접지역이

¹⁰⁾ 안성군의 경우 번세전(兌稅田)이 한전 106결 74부 5속이고 수전 245결 40부 1속이므로 실제 시기전의 면적은 더욱 중 가한다.

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을 것인데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이렵다. (죽산읍 지)와 《안성유지》에 기록된 사점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각각 해당연도 토지어용상태가 매우 달랐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여지도서)가 간행된 1750년대 말과 (유지)가 작성된 1840년대의 토지 보유의 변화 추이 를 보면 (표4)와 같다.

〈표 4〉(여지도서)와 (읍지)의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의 토지 변화 추이

	충결수(總結數)			한전(早田)				수전(水田)				
구 분	원경	양부	시	7	원장	분	시	7	원경	당부	시	
	증감	比	증감	비반	증감	比	증감	١Ł	증감	比	증감	壯
죽산	8,2	0,003	-318,9	-25	-322,9	-27	-613.2	-89	337.1	31	291,2	51
양성	0,3	0	견(缺)	?	0,3	0	견(缺)	?	0	0	祖(缺)	?

^{*} 중감의 단위는 결(結)이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비(it)의 단위는 %이다.

양성현은 양시기간에 한전이 조금 증가했으나 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좋다. 반면에 죽산도 호부는 총결수가 약간 늘어났으나 한전은 크게 감소하고 그에 해당되는 면적만큼 수전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여지도서)시기에는 한전과 수전 비율이 53:47로서 한전이 높았던데 비해 (읍자)에 서는 38:62로 수전의 비중이 더 커졌다. 이는 16세기 이래 이루어건 개간이 18세기에 들어서 한게에 다다르자" 생산성이 낮은 한전을 단위 면적당 수확이 많은 수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된 결과이다. 그러나 양성현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토지조사에서 실제 수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앞서 인구의 증가를 확인하였는데 그에 반해 토지의 증가는 보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박이 심화되어갔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토지의 집약적 경영이 이무어 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숙찬섭, (17·18세기 신전(新田) 확대(總大)와 경영형대〉(韓国史論)12, 1987.

Ⅲ 재정수취 현황의 고찰

1.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

죽산도호부는 한전(부田) 시기(時起) 76결 74부 7속(東)에서 조세로 콩 20석(石) 6두(キ) 9승(弁) 8합(숨) 8작(与)을 거두었고 수전(水田) 시기(時起) 876결 8부 9속에서 미(米) 233석 9두 3승 5합 6 작을 수취하였다. 대통미는 총 700석 13두 8합 8작이었다. 전세는 결당 4두¹³, 대통미는 결당 12두 로¹⁹ 모두 규정된 액수이다

안성군은 조세의 총액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한전과 수전의 시기실결이 890결 69류 4속과 941결 30부 4속이므로 결당 4두씩을 개산하면 각각 콩 237석 7두 7승 7합 6작과 251석 2승 1합 6작이다. 조운(潤速)을 위한 포소(浦所)는 충청도 직산(展山)의 양포(陽浦)와 평택현의 노산포(蘆山浦)였다. 그런데 안성군의 대동미는 결당 부담액이 죽산도호부의 1/2에 봉과한 6두이고 같은 방식으로 계 산하면 732석 12두 8승 8두이다. 안성군은 실결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미의 수취량은 적 은데 그것은 대동의 결당 부과액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죽산도호부는 법적인 규정대로 부과된데 비해 안성군은 1/2에 부과한 것을 보면 각읍별로 대동법의 운영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다. 양성현은 원장부결반 기록되어 있으므로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2. 군역(軍役) 및 군세(均稅)

죽산도호부의 군액(軍机)은 약군(良軍) 1872명, 노군(奴軍) 776명, 본영군판(本營軍官) 50인, 토 포군관(討補軍官) 30인이었고 결전結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다. 안성군의 군병은 15개 기 관에 3103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5〉와 같다. 1810년 경의 자료인 〈부역실총(賦役實施〉〉 "과 비 교하면 소속기관은 몇 개의 기관이 빠지거나 추가되어 13개에서 15개로 늘고 군병은 1784명에서 3103명으로 중가하였다. " 소속기관의 각 병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중원되어 있는데 이 지역 인구의 증가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¹²⁾ 凡一结 收田稅四斗((領大車)2 戸車 收稅條)

¹³⁾ 其法 微句・三南 通 田畜 一結 枚米十二斗((高機要覽))財用編三) 大同作貞)。

^{14) (}财役管控)安城修

^{15) (}試役實擔)의 安城郡地域 三邑의 군범(軍兵)에 대해서는 홍완표, 앞의 논문, 82쪽에 장리되어 있다.

〈표5〉 만성군 군병(軍兵)의 소속 및 인원

소속	병종(兵理) 및 인원
병조(兵曹)	기병 631 중순위(忠明領) 3 禁衛坚直保 23 초련대보(民幕除保) 7 내취보(內吹保) 8 청과노원양졸보(古地遼原南李保) 90
경리청(經理際)	수웹군(守珠平) 2인
충훈부(忠勳府)	충익위(忠朝衛) 48인
훈련도감(訓練都監)	포수보(砲手保) 169 군향보(軍예保) 25
이영청(御營縣)	정군(正軍) 61 자보(資保) 65 상납미보(上籍米保) 133
급위영(禁衛營)	정군(正軍) 127 자보(資保) 136 상남미보(上納米保) 177
공조(工曹)	장인보(匠人保) 29
이조(史曹)	유조서리(@曹胥史) 79
장락원(掌樂院)	악공보(樂工保) 10
관상감(觀象監)	想도(生徒) 7
감영(監營)	기수보(旗手保) 10
수어청(守禦寢)	군수보(軍需保) 14 변과진(別破陣) 52 수침아병(守鐵牙兵) 14
우영장(右營將)	부아병(部牙兵) 우부(右部) 우사(右司) 파종(把陰) 각 1 초년(哨官) 3 기과관(規律 官) 8 부아병군(部牙兵軍)402
후영장(後營將)	우부(右部) · 우시(右前)_파총(把擔) 각 1 요란(明官) 5 기패란(跳牌官) 12 부속으로 병(部東伍軍兵) 692
흥음정(機成聯)	군
•소속기관 15개 군병 3103명	· · · · · · · · · · · · · · · · · · ·

안성군의 균세(均稅)는 선무군관(建政單官) 99인 가운데 상(數)을 당하여 불가피하게, 복역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1인당 무명 1필씩을 거두었다. 그리고 산화권(山火田)의 경작지 5결 21부 2속에서 쌀 4억 2두 5승 4합 4작과 콩 1석 5두 8승 4합 8작을 거두어 대통선(大司權)에 함께 실어 보내고 결전은 매결당 1전(数) 5분(分)씩 실결(實籍)에서 수위하였다. 법적인 규정인 결당 5전보다 매우 적다.¹⁰이에 반해 양성헌은 1절당 5전 1분으로 규정과 거의 일처한다. 군역 수취의 운영상에 안성군과 양성헌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가 아니면 (안성옵지(茨城區誌))의 기록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양성현에는 군역의 부과대상으로서 양인이 1578인, 천인은 1000구(□)가 있었다. 안성시 지역 삼읍의 음지가 서로 동일한 기준으로써 편찬되지 않았으므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 나 안성군이 다른 군보다 군역자의 수가 많고 군역법이 시행된 뒤 수취하기 시작한 결전도 규정된 결당 5전보다 매우 적은 1전 5분을 수취하고 있다. 군역의 부과에 있어서 각 군현마다 차이가 있었 음읍 알 수 있다.

¹⁶⁾ 結發 就六道 田結時起數 每結收錢五錢((萬機要覽))財用鄉三 結錢)。

3. 조적(繫糴)의 분석

축산도호부의 내장(內倉) · 의창(外倉)의 조적은 원장(元帳)에 기록된 28683석 11두 4승 1합 1작 가운데 22580석 11두 1승 5합은 없어졌으므로 조정의 명령으로 탕감하였다. 실제 있는 6103석 2승 9합 1작 가운데 호조세 527석 11두 3승 1합 4작과 상진조(常版租) 1701석 8두 5승 8두 5승 7합 4장 은 반유반분(中협半分)한다. 그밖에 순아병(巡牙兵) 각곡 585석 7두 8승 2두 2승, 고마청(屬馬鮑) 각곡 2015석 6두 7승 5합 4작, 갑오당채(甲午護(食) 조(租) 307석 2두 3승 7합 5작, 신궁(新宮) 조 100석, 호총(直稳) 미(米) 372석 9두, 영완(營還) 각곡 3034석 13두 3합 9작, 비번사(備邊司) 미 49 석 8두 4승, 균역형(均段廳) 조 108억 8두 1항 3작 등이었다.

(표 6) 죽산도호부의 조적(翻羅)의 현황

구관(句管) 및 명목(名目)	곡종(敎種) 및 조적(羅權)의 조적현황	운영(運營)
원장부(元製付)	각곡(各穀) 29683석 11두 4승 1합 1작	
탕감(落城)	각곡 22580석 11두 1승 5합	
관고(發高)	각곡 6103석 2승 9합 1작	
立 丞(戸曹)	조(租)527석 11투 3승 1합 4작	반유반분(宇留中分)
상진(常熙)	조 1701석 8두 5승 8두 5승 7합 4장	반유만분(半점半分)
순이병 (邀牙兵)	각곡 585식 7두 8승 2두 2승	
고마청(屋馬麗)	각곡 2015석 6두 7승 5합 4작	
갑오탕채(甲午舊債)	미(米) 307석 2두 3승 7함 5작	
신궁(新宮)	조 100실	
호총(互捻)	미 372석 9두	
영환(哲理)	각목 3034석 13두 3합 9작	
.비면사(偏邊司)	미 49석 8두 4승	
권역청(均役總)	조 108석 8두 1합 3작	

원장부상으로는 19세기 초의 각곡 25728석 13두³⁷에서 4954석 13두 4승 1합 1작이 증가하였다. 특기한 만한 것은 조적에 대한 당감인데 원장부 전체의 78,7%에 해당되며 구환(舊遠)의 95%에 이

^{17) (}賦役實換)竹山都護府條。

¹⁸⁾ 황인이 들었을 때 환곡 일부에 대해 유여하기나 감정의 혜택을 즉는 건은 정퇴(死力)라고 하며 그 곡석은 구환(疾丑) 이라한다. 이것은 본래 기쁘고 정사스러운 남음 맞아 특별히 백성들에게 은해를 배푸는 것이었으나 항리들의 농간으 로 해석은 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신(东山)연구화, (蔣建)姓氏(春田)), 참작과 비청사, 1981, 26-27쪽)),

르는 대규모였다. 조선왕조에서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구환의 탕감을 명하였는데™ 감오탕감 조란 표현으로 보아 순조 34년™에 죽산도호부가 이 해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조치로 죽 산도호부 백성름의 환곡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관칭의 입장에서는 환곡 총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식리활동에 제약을 받아 재정 수입은 감소했으리라 생각된다.™

안성군의 조적은 호조·상진청·균역청·비국(傷局·감영·고마청 등의 기관에 춘모(徒牟) 3165석 4승 3합 맥(婆) 463석 9두 6승 4합, 조(租) 21545석 14두 2승 7합 5작, 미(米) 2153석 14두 2 승 8합 1작, 태(太) 1585석 7두 7승 9합 6작, 소두(小豆) 3석 6두 2승 3합, 소미(小米) 98석 1두 5승 3착, 대미(大米) 191석 12두 2한 5작이었고, 각곡 29207석 6두 1숙 8합이다.

안성군은 축산도호부에 비해 원장부상으로는 520여석 정도 많고 탕감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당시 안성군과 죽산도호부의 환곡 운영은 매우 큰 차이가 있게 된다. 흰곡이 본래의 진휼기 능을 하면 문제 되지 않지만 조선 후기 이후 국가재정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이익을 중대하기 위 한 수단으로 바뀌고 세도정치기에 수령・향리 등에 의해 백성들에 대한 강재대부와 회수가 이루 어지던 상화"에서는 화곡 총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역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성현의 조적은 각 기관별 세부 액수가 없이 다만 총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稅) 22514석 1 두 9승 9합 7작, 미(米) 1931석 11두 2승 1합, 태(太) 87석 3두 7작, 두(豆) 16석 8두 4승 9합 4작, 목 맥(木麥) 4석 5두 3승 8합 4작, 소맥(小麥) 74석 13두 3승 3합 7작, 모(牟) 1275석 11두 6승 6합 5작, 눅미(勸米) 787석 6두 9승 1합 7석 등이다. 총액은 각곡 26691석 5두 5승 1합이다. 《여지도서(與地 岡清》) 시기의 각곡 17339석 13두 2승 3합 7작에 비해 9351석 7두 2승 7합 3작이 늘어 54% 가량 중 가하였다.

〈표 7〉 안성군의 조적(韓霜) 현황

구관(句管)	곡종(穀種) 및 액수(額數)
	출모(春年) 3억 9두 6승 3작
	조(和) 4석 3두 8승 5작
支 丞(戸曹)	(太) 4두 4승 9합 9작
	맥(麥) 42식 4두 8승 4작
	미(米) 2두 3승 6작

^{29) 1809}년에 작성된 (부역선총)에는 이리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 이전의 갂오년은 아니다. 결국 1809년과 유지가 만들어 전 1842-3년 사이의 갂오년이라면 순조 3년년이 해당된다

²⁰⁾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정의 재정과 식리(殖利)환동) (學林) 8, 1986.

바광성, (조선후기 환곡재도에 대하여)(인천교대논문건)7-1, 1973.

구관(句管)	곡종(穀種) 및 액수(類數)				
	준모(春牟) 3191석 5두 4승 1합 3작				
	조(和) 18240석 8두 8숭 6합 2작				
	소미(小米) 98석 1두 5승 3작				
11-151/2400 HeV	대미(大米) 185석 2두 7승 7작				
상진청(常馬驛)	맥(麥) 421석 4두 8합				
	태(太) 1257석 1두 3승 3작				
	작미(作米) 1914식 2두 9승 8작				
	소두(小豆) 3석 6두 2승 3합				
	조(제) 535석 3두 4승 9합				
갑자진여(甲子貶餘)	대미(大米) 6석 9두 3승 1합 8작				
균역성(均役職)	군작미(軍作未) 118석 8두 7승 4합 7작				
	모(鋒) 855석 5두 5승 2합 9작				
of the Liv	미(米) 27석 3두 8합 8작				
비국(備局)	조(租) 536석 11두 9승 2합 8작				
	대(太) 4석 1두 9승 1합 7작				
	조(和) 1903석 3두 6작				
감영(監출)	태(太) 308석 12두 2승 4합 7작				
	미(米) 30석 8두 4승 4합 2작				
	조(租) 325석 13두 1승 3합 9작				
고마청(展馬廳)	태(太) 11석 2두 8승 3합				
	미(米) 60석 13두 7승 1합 5작				
	춘모(存本) 3165석 4승 3합				
	조(租) 21545석 14두 2승 7합 5작				
	태(太) 1585석 7두 7층 9합 6작				
±.−11	소미(小米) 98석 1두 5승 3작				
총계	맥(麥) 163억 9두 6승 4합				
	미(米) 2153석 14두 2승 8합 1작				
	소두(小豆) 3석 6두 2승 3합				
	대미(大米) 191석 12두 2합 5작				

〈표 7〉 양성현의 조적(耀耀) 현황

:	곡종 (數理) 및 액수(新數)					
	조(桓) 22514석 1두 9승 9합 7작	미(米) 1931석 11두 2승 1합				
	태(太) 87석 3두 7작	두(豆) 16석 8두 4승 9합 4작				
	목맥(木麥) 4석 5두 3승 8합 4작	소맥(小姿) 74석 13두 3승 3합 7작				
	모(牟) 1275석 11두 6승 6합 5작	늑미(勒米) 787석 6두 9승 1합 7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곡이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이 되던 시기에는 그만큼 가중 되어갔음을 나타낸다. 한편 양성현의 조적은 안성군보다 약 2516석이 격다. 그러나 양성현은 호와 인구가 안성군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호당(尸常) 혹은 구당(□當) 백성의 부담은 양성현이 오히려 더 컸다. 실제 환곡이 주어지는 양을 산술적으로 제산하면 안성군은 호당 약 4석 10두 3승 3합, 구당 약 1석 2두 9승 4합인데 반해 양성현은 호당 약 9석 1두 7승 8합, 구당 3석 8두 9승 4합이다. 따라서 양성현은 안성군에 비해 호당 약 1,94배, 구당 약 3배이다. 그만큼 양성현의 백성은 환국으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받았고 한국 총량의 증가는 그것을 더욱 가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 기타

축산도호부는 관용의 청곡초(青穀草)・탄거(炭炬)・치계(雄鶏)・유청지(油清祗)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걸역(結役)으로 수취하였다. 저치미(鑑置米)는 매년 봄과 가을에 대통조(大同條)의 다소에 따라 휙회(劃下)하고 3·6·9·12월 초하루에 고쳐서 회안(合衆)에 보고한다. 봉름(権僚)은 관수미 (官儒米)로는 쌀이 1년에 녹봉으로 자급되는 250석 6주이며 공수위미(公須位米)는 17석 5두이다.

안성군의 봉름은 관수미 100석이며 매월 초하루에 8석 5두씩 사용되었는데 전체 총량을 1/12로 나누어 지출하고 있다.

양성현은 매결당 1냥 5전씩을 거두어 각종 잡역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봉름은 관수미 100석과 유청지가미(油清紙價米) 30석 10두였다. 조선시대 주·부·군·현에는 각각 지방관의 녹봉과 관 청의 소모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목전(罰樣田), 사신의 영접을 위한 관공비의 재원이라 할 수 있는 공수진(公須田), 부족한 지방 관아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관둔전(官屯田)이 있었다." 그러나 재 정지층에 있어서는 지방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녹봉이 없었으므로 아목전이나 공수전의 수입이 실 제 용도와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양성현은 축산도호부나 안성군에는 없는 이기(魚基)와 염분(鹽盘)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 산물 채취 시설인 어기(魚基)는 현 서쪽 100리 승량동면(升良洞面) 하리(下里)에 있었고 소금을 생 산하는 염분(鹽盆) 역시 같은 곳에 셋이 있었다. 농업 위주의 자연경제하에서는 교통과 물자수급 등 유통체제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관부로서는 수류산물을 모두 자기 구역내에서 생산·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초기 내륙 군현이 경계를 뛰어 넘어 해안에 행정구역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암성현도 진위현(環域縣)과 평택현(平澤縣)의 경계를 지나 당시 수

^{22) 《}經獨大典》 2 戶典, 外官供給條

²³⁾ 이재룡, 〈국가재정〉(한국사) 24, 국편, 1994, 438-441쪽,

원계(水原界)인 괴태관(槐台串)과 분포(登譜)라는²⁰ 원경지(越境地)가 있었다.²⁰ (음지(邑誌))에 는 이기와 염분의 소재지가 현 서쪽 지역 100리에 있다고 했는데 현치(縣治)의 최서단이 서쪽 60리 감리동면(甘味制面)이므로 조선 후기까지 비지형태(飛地形態)로 여전히 양성현의 관한구역으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관청에서 어기와 염분을 갖고 있으면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어장은 중앙에 올리는 분량 이외에는 곡식으로 바꾸어 지방관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3년 기한으로 빈민에게 이장이 개방되기도 하였다. 염분도 양성현과 같이 먼 곳에 있으면 내륙에 염창(鹽倉)을 두고 곡식이나 포로 바꾸어 군자로 사용하였다. 의 그밖의 수입은 지방관이가 자체 개정의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양성현은 국산도호부나 안성군과 달리 어기와 염분을 갖고 있었다는 집에서 유리하였다.

한편 (축산읍지)에는 1592년(선조25년)에서 1842년(헌종 8년)까지의 축산도호부사 또는 축산현 감을 지낸 수령들의 임명시기와 교체시기에 대한 기록인 환적선생안(官蹟先生案)이 있어 지방관 의 평균 교체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이 고을 수령의 정해진 임기인 2주년 (間年)을^까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624년(인조 2년) 음력™ 11월 3일에 부임한 통정대부(通政大夫) 허계영(許啓英)은 부 서군(赴西邦)의 수의(穩太)를 납부하지 못했다하여 불과 20일만인 11월 23일에 파작되었다. 또한 1691년(숙종 17년)에는 통정대부 서문유(徐文裕, 통정대부 최숙(崔楠), 통정대부 서래운(徐來速), 가선대부(嘉善大夫) 정민(鄭敖) 등 네 명의 신임부사가 임명되었고, 그밖에 1683년(숙종 9년), 1747년(영조 23년)에는 세차례의 교체가 임임다

물론 1610년(상해군 2년) 12월 2일 부임하여 1615년 11월 10일 임기들 마친 동훈대부(通調大夫) 윤홀(尹和), 1812년(순조 12년) 9월 24일 산정(散政) 매 통전부사(通津府使)에서 부임하였다가 1815년 5월 임기를 마친 통정대부 이원조(李顯祖) 등과 같은 사례도 있다. 전체적으로 250년간 부 임한 수령은 모두 206명으로 평균 제임기간은 약 14개월 정도였으며 임기의 반을 약간 넘기면 교 체되었다. 그렇다면 수령의 잦은 교체는 백성등과 지방재정에 어떤 영화용 개청는가.

²⁴⁾ 모두 현재 남양만 방조제가 있는 부근이다.

²⁵⁾ 이수권, 〈조선조 군현제의 일형태「越境地」에 대하여〉(東洋文化)13, 1972;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462-466살.

^{26) (}経図大典) 2 戸典、魚鹽.

²⁷⁾ 수령의 일기는 1800일이터 당상관이나 가족과 함께 일지로 가지 않은 경우에는 900일이었다(강순 任滿一千八百堂上 育及朱掌家守令・訓練 任潔九百 乃遠 移任守令裁計前任 (孝[汲大樂)) 東典外官敬), 그러나 읍지에 축산부사의 일기 가 2주년이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조신후기에는 각 읍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된 듯하다. 28) 이라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 유럽이다.

조선시대에 수명이 바뀌면 전임 수령의 전송과 신임 수령의 영접을 위해 백성들이 동원되어 각 중 잡역에 중사하였다. 그러므로 수령의 잦은 교체는 비정기적인 요역이 중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농사철에 수령이 부임하면 농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다.

(경국대전)에 수령의 교체 시기는 농월(歲月)을 피하라는 규정이 있는데³⁹ 그것은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데 백성들이 동원됨으로서 그들이 농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패단을 막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다. 그러나 죽산도호부에서는 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1620년(광해군 12년) 4월에 임명된 통훈대부 정서호(丁聚於), 1640년(인조18년) 3월에 임명된 통훈대부 이한(孝嗣) 등은 바야호로 농사가 한창 바쁜 시기에 현지로 부임하였다. 앞서 1년에 4차례 수령이 바뀐 사례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 수령을 보내고 맞이하는데 모두 8차례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했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영세한 농민에게는 적지 않은 고등을 주었다.

또한 수명의 교체에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 본래 수령의 부임과 교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말의 수를 정하여 지급하였다.³⁰ 뒤에 쇄마(劇馬)의 대가를 지방의 저치미(儲蓋米) 중에서 지급하였는데 그 목적은 수령의 부임 등을 광계로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기가 지나면서 쇄마가(制馬價)의 명목으로 백성들로부터 잠세를 거두는 것이 상례가되었고 본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전임 수령에 대한 수취까지 병행하였으므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³⁰ 죽산도호부의 정우 평균 채임 기간이 1년이 약간 넘는 정도였으므로 매년 지방관아의 저치미가 줄어들게 되고 백성들은 1년에 약 2차례 정도의 수취를 당하였다. 물론 안성군이나 양성 현 등 다른 군현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뿐이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1840년 작성된 안성시지역 삼읍의 읍지를 통해 재정에 관한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선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호구나 인구는 안성군이 가장 많았고 성비도 5 : 5에 가까워 가장 충실하게 조사된 자료이 다. 반면 축산도호부와 양성현의 성비는 6 : 4로 남자가 많았는데 이는 호구조사가 군역의 부담자

²⁹⁾ 移任守令 統計前任 淺官當意月 則勿逮 春分前 不足五十日 以下者 遂(《經國大典》1 吏典 外官職)。

³⁰⁾ 外官迎送關馬 計道里 定數, 京畿州府十七匹 都護府郡縣 十三匹 水原與同(《續大典》2 戶曹 外官供給)。

³¹⁾ 茶山研究會編, 《譯注 牧民心書 1 》, 장작과 비평사, 1978, 22-24쪽.

인 남자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당 인구수는 양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호당 부 파되는 잠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당 노동력이 부족한 양성의 백성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인구의 변화를 고활하기 위해 18세기 중엽의 《여자도서》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즉 산도호부는 호 약 14%, 인구 44%가 격감하였으나 양성현은 호는 26%, 인구는 20% 가량 증가하였다. 인접 고을 간에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조선후기 인구의 자연증가를 고려한다면 즉산도호부 사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었다.

둘째, 토지의 활동현황을 보면 안성군의 시기전 비율이 가장 높고 토지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죽산도호부와 양성현은 전체 토지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수전의 비중은 높아져 갔다. 이는 한전보다 삿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수전으로 반답화(反沓化)가 진행된 결과였다.

셋째, 죽산도호부의 대통미는 결당 12두로 법정 규정액이 부과된데 반하여 안성군은 6두였으므로 절반에 불과하다. 통일한 세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액수를 수취하고 있었다.

넷째, 군역의 대상자는 18세기보다 중가하였고 특히 안성군에 그 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것은 이 지역 인구가 가장 많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한편 군역법 이후 수취하기 시작한 결전(結變)은 양성 현이 법규에 준하는 5전 1분이었는데 비해 안성군은 1/3에 못 미치는 1전 5분에 불과하였다. 역시 동일한 세목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삼음의 조적 상태를 보면 안성군과 양성현은 환곡의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축산도호부는 정부의 대규모 탕감 조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죽산도호부 백성들이 환곡 부담은 크게 줄어 들었으나 그만큼 지방 재정의 운영은 어려워졌다. 반면에 안성군과 양성현의 두 옵의 백성은 여전 히 환곡으로 인한 폐단에 희생되었고 환곡 총량이 증가됨으로써 그러한 고통은 더욱 커져갔다.

여섯째, 양성현의 이기(無基)와 염분(鹽盆)은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다소 유리한 조건이었다. 조적이나 조세수취 등에 있어 양성현이 죽산도호부와 안성군에 보다 커다란 부담을 지고 있었던 데 비해 어기와 염분의 수업은 재정운영에 커다란 도움을 받았으라라 생각된다. 한편 죽산도호부 의 흰적선생안(陰顏先生案)을 통해 죽산 수령의 평균 임기가 약 14개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잦은 교체로 인해 백성들은 전임 수령을 보내고 새로운 수령을 맞이하는 일에 자주 동원됨으 로써 노동력의 손신을 입고 농사에 방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쇄마가 명목의 비공식적 잡세 수취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 아울러 신구 수령의 영송(迎送)을 위해 공식적으로 지방관아에 준 비되어 있던 저치미의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안성군지 편찬위원회, 「안성군지」, 안성군, 1990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시지, Vol 1-8, 안성문화원, 2011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 향토사료집」, 안성문화원, 2009 안성시지 편찬위원회, 「안성의 4대 정신」, 안성문화원, 1998 안성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안성인물지,, 안성문화원, 2010 안성문화원, '선비마을 안성 덕봉리, , 안성문화원, 2008. 김태영, "安城記略, 동아인쇄소, 大正 14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고, 탐구당, 1988 출弘稙, 「국사대사전」, 삼영출판사, 1987 아세이문화사편, 《邑志 十 - 京設①》, 〈解題〉, 1985 송찬섭. (17·18세기 신전(新田) 확대(擴大)와 경영형태》(韓國史論)12. 1987 茶山研究會絹、《譯註 牧民心書 1》、 창작과 비평사, 1978 茶山研究會絹, 《譯註 牧民心書 III》, 창작과 비평사, 1981 오영교,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재정과 식리(殖利)활동〉(學林)8, 1986 박광성, (조선후기 환곡제도에 대하여) 《인천교대논문집》 7-1, 1973 이재룡, (국가재정)(한국사)24, 국편, 1994 이수건, 〈조선조 군현제의 일형태「越境地」에 대하여〉《東洋文化》13, 1972;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



파주 임진강변 정자연구

권 효 숙 (파주문화원 책임연구원)

1. 여는 급	
II. 일진장변의 정자들 1. 번구정 2. 화석정 3. 내소정터 4. 수원정터 5. 창망정터	
ш, 맺음말	to to the pro-
집필자 권 호 숙 교주문화원 확임연구원	27 - 1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I 여는글

임진강(臨津江)은 한정남도 덕원군 마식령 산맥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호르는데 북한지역인 법동군을 지나 판교군 남부에서 고미탄천과 합쳐지고 이천군에 이르러 남동쪽으로 흐름을 바꾼 다. 역시 북한 쪽 철원군에서 평안천, 역목천과 합쳐져서 휴전선을 지나 연천군 전곡유과 군남면 정계에서 흘러드는 한단강과 반난다.

임진강은 다시 흐름을 남서쪽으로 들이 파주시의 동서를 가로질러 흐른다. 파주 파평의 늘노천 과 문산천, 공통천과 합쳐져서 교하에 이르러서는 한강을 만나 김포와 강화를 거쳐 시해로 흘러 간다

한강의 제1자류인 임진강의 길이는 257km이고 이중 파주 구간은 약 75km 정도이다. 임진강 유역에는 경기도의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의 칠원군 등 내 개의 시와 두 개의 군이 있다. 북한쪽은 개성직한시의 개성시와 장풍군, 관문군의 일부, 강원도의 철원, 김화, 평강, 이천, 세초, 관교, 법동군 등 1시 9군이 속한다.

예로부터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백제·신라 3국의 국경이 되어 역사적인 격전지이기도 하였다. 삼국 시대에는 임진강을 철중하(七重新)라 하였고, 고구려 철중현의 치소인 철중성(七重城)이 있었다. 철중하(七重河), 표하(縣河), 호로하(飢爐河)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는 임진강이 흐르는 모습이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고구려의 광개도왕은 이 강에서 백제 군을 대파시킨 일이 있었고, 신라 진흥왕은 이 강의 남쪽을 점령하여 고구려와 경계한 적이 있었다. 돈한 신라가 당나라와 더불어 고구려를 정복하였을 때에는 철중성(抗救: 지금의 과주시 착성 면)부근에서 이 강을 건너 평양으로 지경하 일이 있다

'세종신록,지리지와 '신증등국여지승람,에 보면 꽈평현이 고구려 때 꽈해평사현인데 신라 경 덕왕 때 꽈평(按平)으로 고쳐서 내소군(來蘇郡)의 속현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내 소'라 함은 '소정방이 왔던 곳'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나당연합군으로 고구려와 싸웠 음 때, 또는 신라가 당나라군을 축출할 때 임진강 전투에서 소정방의 군대와 싸웠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육로교통이 불편하고 교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교통로 및 운송모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며 문화전파의 주요 통료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너기 어려운 강으 로서 강 건너 북쪽은 북한 땅이거나 대부분 빈통선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가의 수직단에로 인해서 아무데서나 강을 건널 수 없기도 하다.

6.25전쟁 전까지 장단군의 고랑포는 농산문의 집산지었고 편리한 주운 때문에 유량이 많을 때에는 소형 선박이 안협(북한의 철원군 중복부 일대)까지 운행되었다.



파주 임진강변 정지연구 363



(화석정에서 바라본 임진강)

임진강은 파주의 문산읍파 파평년의 경계에 위치했던 고구리의 진임성(津縣城)이 신라 경덕왕 때 '임진(鹽建)' 으로 바뀌면서 지급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임진강의 적벽은 27만년 전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 용암이 지표를 흐르면서 식을 때 수직으로 주 상절리 되면서 강의 양쪽이 경사금 이루고 있다. 임전리 · 윤곡리 · 동파리 · 금파리 · 장파리 · 장 좌리 · 자장리 · 주원리 · 가원리 · 윤포리 · 어유지리에 적벽이 분포되어 있다.

장단석벽(長溫石獎)과 인전나무 부근의 동파적벽(東坡赤壁)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예 로부터 시인국객이 많이 찾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장단 석벽은 "양쪽 언덕에 푸른 둘이 벽처럼 수십 리에 뻗쳐 서서, 바라보면 그림과 같다…… 고려 태조가 늘던 곳이라 전하는데, 민간 에 아직도 그 가곡(歌曲)이 전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연산군이 1506년 3월, 장단식벽에 이궁(雜宮)을 건설하기 시작해 7월에 완공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있다. 연산군은 이궁을 지어놓고 가음 단풍철에 이곳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9월 중종반정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궁이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임진강의 아름다운 적벽 주변에는 예로부터 정자가 많이 지어줬는데 (광여도)의 균현자도 중 '파주목' 부분을 보면 임진강변 에는 반구정(件戰亭)을 비롯하여 내소정(耐惡亭), 화석정(花石亭), 수월정(水月亭), 철송정(七松平) 등의 정자가 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정자는 화석정



과 반구정 뿐이지만 「신중동국여지승탑』과 기타 인문지리서에 전하는 임진강 유역의 정자는 스무 개가 넘는다.

화주는 '문향(文향)의 고장' 답게 수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거주하던 곳이라 학문도야 와 휴식을 위한 정자가 많았다. 율곡 이이의 화석정, 방촌 황희의 반구정, 청송 성수침의 청계정, 성담수의 몽구정, 김정국의 낙환정, 박세채의 만성정, 노사신의 노정, 황보인의 은행정, 성업조의 삼호정, 홍서봉의 율포정, 오천 이종성의 침류정, 조사석의 수월정, 경유후의 원사정, 신태동의 이 사정 등 많은 정자가 임진장변 뿐만 아니라 곳곳에 긴답되고 소십되었다.

그 많던 임진강변의 정자가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임진강이 삼국시대 이래로 수 많은 전투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남아있는 정자는 화평면 율곡리에 윤곡이이 선생의 화석정과 문산읍 사목리에 밝은 화회 선생의 반구정 뿐이다.

이 글에서는 임진강변의 정자 중에서 현존하는 화석정과 반구정,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기록에 남아있는 임진강변의 정자 중에서 내소정, 수월정, 창광정에 대해서 그 위치와 건립자, 관련인물, 그 정자가 나타나는 각종 문헌 기록 등을 찾아 기록하였다.

II. 임진강변의 정자들

1. 반구정(伴鷗亭)



(사진 2 반구정)

- 소재지 : 경기도 피주시 문산읍 사목리 190번지
- 시 대 : 조선초기
- 건축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의 맞배지붕
- 지 정 : 경기도 문화재지료 제12호(1983, 9, 19, 지정)

반구정은 고려 발기와 조선 초기의 문신이며 명재상인 방촌(厄村) 황희(黃寶,1363~1452)선생이 1449년(세종 31) 87세의 나이로 18년간 채임하던 영의정을 사임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갈매기를 친구 삼아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임진장 기슭에 위치한 정자로 낙하진과 가깝게 있어 원래는 낙하 정(洛西季)이라 하였다.

6.25 전쟁 때 불타비린 것을 이 일대의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복구해왔으며 1967년에 시멘트로

개축을 하고 1975년에 단청과 축대를 보수하였다. 그 후 1998년 유적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반구 짓과 앙지대 등을 목조건물로 개축하였다

이곳은 일전강이 내려다보이는 강안 기암 절벽 위에 있는데 앞에는 장단반도를 휘감고 도는 임 진강물이 하루에 두 번 조수를 만나 거꾸로 흐른다. 예전에 나루에 드나드는 어선으로 인해 갈래기 가 많이 날아 왔지만 요즘은 철조망으로 접근을 차단하여 이선이 다니지 않으니 대신 겨울이면 건 너편 잠단반도 빈 플판으로 점은 독수리 때가 날아온다

연천에 거주하던 조선시대 학자 미수(福度) 하목(許豫)은 (반구정기(作朝字記))에서 "정자는 화주 서쪽 15리 임전장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 위로 모여들어 들판 모래사장에 가득하다. 9월이면 기러기가 손님으로 찾아온다. 서쪽으로 바다는 30리에 있다"고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뜻광을 묘사하였다.

반구정의 주인 방촌 황희선생은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나 1389년 고려 공앙왕 때 적성향교 훈도로 오게 되면서 파주와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관한성부사 시절, 조선 태종이 장자인 양성대군 대신 충냉대군(세종)을 세자로 삼으려 했을 때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파주 땅 교하로 좌천되어 왔는데 곧 다시 남원으로 유 배를 갔다. 그리고 좌의정으로 있던 68세 때 감목 태석군의 죄를 완화시키려다 파면 당해 반구정으로 돌아와 시를 지으며 근신하였다. 다시 조정의 부름에 나가 공작생활을 하다 18년간의 영의정적을 87세에 마치고 이곳 반구정이 있는 사목리로 내려와 노후를 보내다가 삼년 후 돌아가자 20여리 떨어진 단현면 금승리에 묻혔다.

2. 화석정(花石亭)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산 100-1(파평면 화석정로 152-72)
- 시대:조선증기
- 건축구조 : 정면 3간, 측면 2간, 팔작지붕 겹쳐마, 초익공 목조와즙 건평 8평
- 지점: 경기도유형문화재제61호(1974, 6.26, 지정)

1) 화석정 거리 연혁

임진강을 바라보는 율곡리 언덕 위에 1443년(세종 25)에 문성공(文成公) 율곡 이이(李珥)선생의 5대 조부인 강평공(康平公) 이명신(李明晨)이 정자를 짓고, 1478년(성종 9) 율곡 선생의 중조부 이 의석(李宜碩)이 보수하고, 몽암(夢帝) 이숙함(李淑祿) 선생이 화석정(花石주)이라 이름지었다. 그후 윤곡 선생이 다시 중수하여 독서와 덕을 기르는 곳으로 삼았다.



(사진3 화석정 3-1 화석정 현판)

율곡 선생은 국사 중에도 여가 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고 관직 에서 물러난 후 여생을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며 시를 짓고 학문을 도야했다고 한다. 그 당시 중국의 최사(勃使) 황홍현(黃洪 憲)이 화석정을 찾아와 시를 을고 자연을 즐겼다고 하는데 정자 일 대에는 노송이 아름답게 우거지 고 아래에는 임진강이 유유히 흐 르고 있어 낮에는 법선이 뜨고, 밤에는 고기잡이배들의 불빛이

끊이지지 않는 신경(仙境)이었다 한다. 정자 안쪽에는 율곡 선생의 8세 시가 현판으로 걸려있다.

화석정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져 80여 년간 그 터반 남아 있다가 1673년(현중 14)에 율곡 선생 의 종증손인 이후지(沙厚址), 이후방(季厚坊)이 다시 세웠으나 6·25 전쟁 때 소실되었다. 자금의 화석정은 1966년 파주 지역 유림(臨林)이 성금을 모아 복원하였으며, 1973년 정부가 실시한 율곡 선생 및 신사임당 유적 정화 사업의 일환에 따라 화석정을 단청하고 주위도 정화하였다.

화식정 중앙의 「花石字」 현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썼으며, 내부에는 율곡 선생이 8세 때 지은 「꾿세부시(九歲廢誇)」가 걸려 있다.

八歲賦詩(팔세부시)

林亭秋已晩 임정추이만 騒客意無窮 소객의무궁 숲풀 속 정자에는 가을이 짙고 시인의 시상은 끝이 없구나

遠水速天碧 원수연천복 霜概向日紅 상풍향일홍 하늘 닿은 물빛은 더욱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마냥 붉어라

山吐孤輪月 산토고윤월 江含萬里風 강합만리풍 산 위에는 둥근달 솟아오르고 강물은 바람결에 일렁이는데



(시진4 화석정 현판, 4-1 팔세부시)

空鴻何處去 색홍하처거 변방의 기러기는 어디로 가나 聲斷幕雲中 성단모운증 날 저문 구름 속에 울음 끊겼네

이 시는 율곡 선생이 8세 때 어머니 신사임당과 함께 화석정에 와서 자은 시라고 알려져 왔다. 그 후 100년이 지난 후에 성적이라는 학자가 아흔 산의 나이에 이 시를 써서 현판으로 만들어 화석 정 벽에 걸었다. 성적은 창녕 사람으로 자는 자교요, 호는 매변이라 했는데 대학자 우게 성혼선생 의 손자이다."

화석정은 인진강을 앞에 두고 장단(長端)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왼쪽 하류에는 장암파 내소정 자리가 보이고, 우측 상류 쪽으로는 전진대교가, 정면으로는 개성의 오관산(五冠山)이 아득하게 보인다.

¹⁾ 권학임의 화석장에 대한 연구에서 인용.

2) 화석정에 관련된 일화의 진실

화석정과 관련해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 임금이 의주로 파천한 때의 일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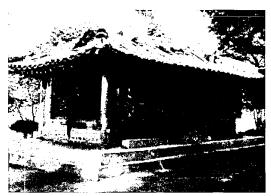
화석정에서 바라다보이는 임진강 남안에 엄진나투가 있으니 개정과 한양을 시대 개정과 한양을 오고 가던 유일한 국도인 의주로이다. 즉 임진강 남안의 임진나루와 북안의 동파나루가 뱃길을 연 결해 주는 나루이니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은 윤곡 선생이 돌아가신지 꼭 8년 뒤의 일로 율곡 선생이 예언했던 10만 양병의 주장이 현실로 들어난 셈이다. 왜적의 침입으로 의주로의 피난길에 나선 선조가 임전나부에 도착한 것은 음력으로 4월 29일 그믐날 저녁 무렵인데, 주위는 철혹 같은 어둠이 내리고 개다가 비까지 내리는 약조건이었다. 이때 임전나부 남쪽 기슭에 있는 화석장에 불을 지르니 그 불빛이 강을 취히 비주어 선조가 무사히 강을 건났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 율곡이 살아생전 이 같은 때를 대비해 제자들에게 메일같이 기름종이에 들기름을 가 져오게 해 정자의 기둥에 바르게 했다고 하니 율곡 선생의 선전지명이 매우 뛰어났다는 이야기이 다. 그러나 그 당시 선조를 최촉근에서 모셨던 영의정 서애 유성룡의 「정비록(您接錄」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돈의문을 지나 사천(沙씨에 다다르니 동녘 하늘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머리를 돌려 성증을 바라보니 날대문 안 큰 창고에 붙어 일어나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뻗쳤다. 이때 왜적은 아직 서울 때 참임하지 않았을 때어나 불은 난민들의 소행일 것이다. 사천을 넘어 삭교(汗說)에 도착하니 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경기 감사 권장이 달려왔다. 백제역에 도착하니 빗줄기가 켜져서 일행이 있 모두 젖었다. 이에 임금은 할 수 없이 역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니 이때부터 전송 나왔던 중관(探)에 성으로 되돌아가는 지가 많았다. 시중과 대간까지도 뒤떨어지고 오지 않는 자가 많아졌다. 해음령(既說納)을 지나자 비는 점점 세차게 퍼부었다. 궁인들은 약한 말 뒤에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다. 마산역(馬山驛)을 지날 때 밭에서 일하던 한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며 동국하였다. '나랏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나 이제 누구를 믿고 산단 말이나' 라고하였다. 인진장 이고도록 비는 맞지 않았다. 이때 임금은 배 안에서 수상 유성룡과 나줌을 탐보셨다. 강을 건너니 이미 황혼이 지나 길을 찾기가 몹시 힘들었다. 인진장 남쪽 기슭에 승청(조)에 이었다. 적이 나무를 베어다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을까 두려워서 저목에 붙음 놓았다 나 불빛이 강목을 비취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초경이 되어서 동파액(東坡驛)에 이르렀다.

이 기록에 보면 이미 강을 건넌 후 승청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은 길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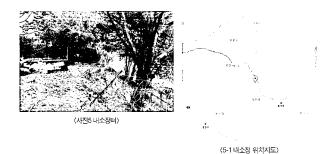
(사진 3-1 1937년 (경기지방의 명승사적)에 수록된 화석정)

적이 뗏목을 만들어 뒤쫓아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마침 그 불빛이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상황이 잘 기독되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 이하 조정 백관이 외주로 과천한 때 비오는 밤중에 임진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이때에 화석정에 불을 놓아 무사히 강을 건넜다고 회 자되는 이야기는 일화일 뿐 그렇지 않다. 아마 율곡이이 선생이 8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선생이 돌아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의 예지를 안타까워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구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3. 내소정(來蘇亭)터

1) 위치

임진강 여운이 알게 취돈아 흐르는 깎아지른 적벽 위에 조선시대 수많은 문사들의 시(該)와 유 람기에 등장하는 내소정(來蘇亭)이 있었다. 지금은 장자는 사라지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 양수장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문산읍 장산로 297-143의 주소를 가진 임진강 양수장옆 변전소 부근 장가의 반터가 내소정 자리이다.



1936년에 이 근처에서 출생하여 오랜기간 거주해왔던 거창신씩 문중의 신원성(마주읍 봉암라) 씨에 의하면 양수장을 짓고 관리사들 지을 때 장산 끝자락을 파내어 그 흙을 내소졌터 위에 2미터 이상을 돋우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놓아져서 석축이나 주축된 통이 보이지 않지만 예정에는 그러

2) 내소정 이름의 유래

한 돌유적들을 많이 보안다고 한다

내소정(朱蘇宁)이라는 이름의 '내소'는 파평현의 옛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목』 지리지와 『신중동국여지승립』에 보면 파평현이 고구려 때 파해평사현인대 신라 경덕왕 때 파평

(坡平)으로 고쳐서 내소군(來蘇郡)의 속현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내소(朱蘇)라는 것은 소씨가 왔었다는 전데 그건 아마 소정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쳐서 정복한 이후 이 땅을 자신의 관활지로 만들려는 당나라의 야심을 문리치기 위해 신라는 당나라 군대에 맞서 싸웠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매소성전투인데 그 보급로 를 차단하기 위한 전투가 과주 임진강에서 지려졌다. 나당 전쟁 당시 당과 신라의 주 전신이었던 임진강 일대에 신라와 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성이 바로 쵤중성이다. 철중성 인근의 임진강은 강이 얕아서 당군이 남하하기 좋은 이동로인 반면 시야가 사랑으로 트여 있어서 신라군으로서는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기에 좋은 위치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다. 매소성 전투시기가 676년이니 경덕왕의 재위기간(742~765)보다 앞서므로 그 때 적성지역을 '내소(朱蘇)'라 한 이유

골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소정의 '내소'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마로 임진강의 적벽과 관련된다. '내소(來 蘇)'의 직접적인 뜻은 '소동파가 왔다' 이다. 중국 북송의 제 1 시인이자 당송 판대가인 동과(東 坡) 소식(蘇軾, 1037~1101)이 황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 7월 16일에 강가의 적벽이 수려한 곳 에서 배를 띄우고 놓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적벽부(赤壁底),라는 봉후의 명작이 나왔다.

임진강은 고대의 화산환동으로 인하여 강언덕이 현무암의 적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왕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적벽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와 배를 타고 유람하던 곳이다. 특히 수많은 문인들은 한창 더운 날씨의 음력 7원 16일이 되면 공부참을 내어 전국의 적병을 찾 아 맺놀이를 하였고 수없이 많은 '적벽가'를 써왔다. 각종 문집에 '적벽' 에 대한 시나 문장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러므로 소동과가 적벽을 찾아 유란했듯이 수많은 선비들이 적벽을 보러 찾아오는 곳이라 해서 정자를 짓고 '내소정' 이라고 이름을 짓었을 것이다.

3) 내소정 거림시기와 거림자

조선 중기 이후로 수많은 시와 문장에 나타나는 내소정은 과연 누가 건립했을까, 그동안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내소정이 조선 성종대의 영의정 신숭선(循承籍 1436년(세종18)~1502년(연산군 8))이 임전강가에 건립한 정자라고 전해져 왔다.

신송선은 본관이 거창(居읍)으로 연산군의 장인이다. 공.병.이조참관과 예군관재학을 역임됐고, 남이(唐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錦鼓功臣) 3등에, 성종등위에 끼친 공으로 좌리공신 (佐理功臣) 3등에 각각 녹후되었다

1472년 자현대부 거창군(居昌春)이 되고, 1487년 딸이 세자인 연산군의 빈(航)으로 뽑히자 이후 우의정, 좌의정,영의정을 거쳐 거창부원군(居昌府院准)에 봉해졌다. "성종실록」의 편찬을 주관하 있다. 세종의 4남인 임영대군(顯真大准)이구(李璞)의 딸과 혼인하여 신수근(懷守勤) · 신수경(懷守 議) · 신수영(懷守英)을 두었다

그러나 천해지는 것과 달리 '신중동국이지승락' 이 편찬된 1530년에는 내소정에 대한 기목은 없다. 신승선이 세웠다고 가정할 때 1470~1500년 조음이 필텐데 불과 30년 후의 관찬 기록에 내소정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를 봄 때 신송선이 내소정을 지었다는 성은 신병성이 없다.

서울에서 태어나 연천에서 만년을 보낸 한림학자 미수(周叟) 허목이 64세 되던 1658년(효종 9) 에 관작을 사퇴하고 배를 타고 한강을 거쳐 임진강을 지나 연천으로 들어가면서 '무술 주행기(戊戌戌行記)'를 남겼는데 이 기곡에도 화석점은 있지만 내소점에 대한 연급은 없다.

···임진강(蘇津江)으로 올라가니 비로소 석벽(石壁)이 있는데, 왕왕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무성하 였다

화석정(花石亭)은 이 문성(李文成 율곡(栗谷) 이어(李珥)의 시호)의 별장이요, 한벽정(寒碧亭), 창랑 정(滄浪亭)은 다 성씨(成氏)의 옛 별장이라고 강가 사람들이 밀했다.....

이를 볼 때 내소정은 최소한 1658년 이후에야 존립되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1984년도 편찬된 "파주군사(境州郡史)』의 유적(遊觀)편"에서는 거창군 신승선(15世)의 5대순 (20世) 제창군(濟昌君) 신득의(演得義)가 세웠다고 기목되어 있다. 거창신씨 문중에서도 제창군 선득의가 내소정 인근에 99간 큰 저택을 짓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때 내소장이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신득의(懷得義)는 1581년에 출생하여 1656년에 돌아갔는데 양주병마사를 역임했으며 매우 부유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의 묘는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있다가 몇 년 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선영으로 이장해왔다. 그의 손자대(22世)인 신화전(懷羅典)의 부인 의령남씨가 내소정 국내 경좌에 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28世 신병연의 묘가 역시 내소정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신득의 후손들은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계속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그러나 신득의의 생몰연도를 볼 때 그가 사망하고 2년 후인 1658년 무술주행기에서 내소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가 건립했다고 단정짓기엔 의문이 인다.

조선후기 숙종 때 예문과제학을 역임하고 문장에 능하고 글씨에 뛰어났던 남용익(南龍 翼,1628~1692)의 문집 (호곡집(葦谷集))의 시에는 내소정의 주인이 신백순이라고 나온다.

來蘇亭。戲書壁上。示主人慎伯順。亭在坡州

二月春波綠似醅。夕陽遙渚小船開。來蘇亭上三杯酒。不必蘇來我亦來

그 시대 거창신씨 족보에서 백순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고 백순(伯順)을 자(字)로 가진 사람은 신약홈(括致), 신제립(償傳立) 신유적(惟廸) 세 사람이 올라 있다. 이 중 신유적은 선득의의 중손자 선구중과 같은 항렬로 생물년이 1636~1731이다. 그러면 남용익과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라 이 당시 내소정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내소정 인근에는 거창신씨 문중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직 남아있다. 거창신씨 문중 종인⁸에 의하면 조선 영조 때(1731년) 장롱을 천장 한 때 신득의 후손의 집이 커서 임시 도감

²⁾ 파주군사관찬위원회、「파주군사(坡州郡史)。,p507

청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때 잠시 조리읍 등원리으로 옮겨가 살았다가 금성 즉 지금의 급통으로 이거해왔다고 하다. ⁶

그런데 1900년 대에 이르면 내소정의 주인은 신씨가 아니라 윤씨로 바뀌게 된다. 1909년에 간행 된 이반용(李畹川, 이완용의 형제)의 동번집(東璞集,1909)에 의하면 장단군수였던 윤정진(尹正黨) 이 내소정을 다시 축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렇다면 18세기 초반까지 내소정의 주인은 신씨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어느 시기에 소면된 것을 인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윤정진(尹正寬)이라는 장단군수가 옛모양 그대로 다시 축조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長湍節。夜與主守尹絅堂 正鄰 話舊

過從相忘在城街。每是山順與水運。十年東澗悲人老。千里西樓記月佳。余與尹令。定交於東庄。又庚 辰。同遊成川。 葉縣重遊身是夢。桑田慶劫活如埤。野堂迢迢臨津望。 舊客難為浿上懷。時斗空相公。問 居溫山、忽惟尼年西游而有感.

臨溫韶外柳連街。翳翳斜陽水一運。 關令爲侯年尚少。蘇仙遞主境皆佳。主守姓尹。引用關令臨。州有 赤壁。仍築來蘇亭。 生知世味無堪略。死許情根與共埋。明日那堪更分手。蟲鳴葉落動人悅。

일제강점기 때 보이는 기록은 1913년 왕수환(王梓煥)이 조벽하(趙ᄁ霞)에게 보낸 간찰(簡札)에 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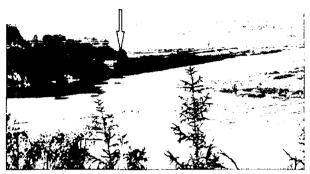
與趙君霞生并一世沒如與時歲切識新路看即李何辛今春貴獨南為楊傳來蘇邦問田和至人吳影旋復 遊游坐失此機自歎自尤一奉君子豈有數败曾以梅集帝呈左右梁之赫遜昨春之暮所依賴者金制外氏至 今無信不無疑訶茲政仰探進賜瓊琚并希隆栾瓊履玉護不備禮上。癸丑嚴月十八日 生王梓煥(拜上)问 封貴郡吳臨坡自趙熙崔敬一崔東心國族并新祥議示之如何

이 기록으로 볼 때 내소정은 최소한 1910년대 까지는 존립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소정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인근에 살았던 거창신씨 문중에서도 알 수 없다고 한다. 1925년 울축년 대홍수 때 임진강의 초평도가 물길에 잠겼다고 하니 그 물건에 휩쓸리지 않았나 추측해봉 뿐이다.

내소정 인근에 신득의가 지었다는 99칸 대저택의 절반쯤 남은 곳을 수리한 집에서 1936년에 출

³⁾ 신용면, 거창신씨 대종회 부회장 검 양간공 종친회장

⁴⁾ 予永彬, 河渚先生全集, 아세아문화사, 2006, p. 35



〈사진5-2 화석정에서 바라본 임진양수장옆 내소정터 위치〉

생해 살았다는 신원성(과주 봉암리 거주, 76세)씨는 6,25 전쟁 때 이 집이 불타버려서 없어쳤다고 하였다. 신원성씨는 정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른들로부터 정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정자터에서 오래된 들들도 보았다고 했다. 이를 보아 1940년대 이후로는 확실하게 내소정 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소정이 그 위치에 존점해 있던 시간은 16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대략 250여년간 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수많은 문장 속에 등장했던 내소정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아마 어느 시절 을 만나 다시 그 자태를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4) 내소정 관련 기록

 막태보(朴泰輔, 1654~1689)의 《정제집(定壽集)》의 칠언윤시(七言律詩) '제내소정(與來 蘇学)'

偶將溫府使君約。爲髮似家亭子名。古渡駐烟狐棹晚。 幽磯覓路一節程。雨中望野野追碧。 樹外見江 江更清,每從此心隨境變。 風寒转組夢初點。 통계(東溪) 박태순(朴泰淳,1653~1704)의 문접 〈동계집(東溪集)〉

自嚴下向來蘇亭。聞村有舊疫。回舟徑返。用前凱。 移舟泊嚴洛。回棹向前鬻。不見來蘇去。真同訪戲還。

서암(恕菴) 신정하(申韓夏, 1681~1716)의 문집〈서암집(恕菴集)〉
 來春亭

鐵笛胡琴黃菊 酒 쇠젓대 거문고 소리에 황국주 한잔 來難亭下載秩歸 내소정 강물결에 가을이 찾아왔네 緊角滿岸井楓裏 울긋볼긋 단풍 속에 배 저어 가면 一曲終時一葉後 노래 한곡 끝날 때면 낙엽 한 장 탭이지고

최창대(龍昌大, 1669~1720)의 (곤륜집(昆侖集)) 5권來蘇亭

來蘇亭古愼家徵。老木寒江人到稀。憤與勉哉東海上。評詩論世兩嘘嗎。

平朝呼結。樂瀚派上。少憩閩何亭。即慎氏來蘇亭之小橋。桃詠良久。又登船至陷津。取陸路。 舟與早潮上。亭亭初日來。兩邊山湧出。一望野平閒。 鞍馬生涯半。符章世故權。江湖續舊興。蓬珠且 滾杯

- ㅁ 승정원 일기 영조 15년(1739) 5월 28일자
- '.... 臨津來蘇亭, 素稱名勝地....'

임진나루 인근에 내소정이 있는데 명승지라 일컬어지고 있다.

□ 조선왕조실록 영조 30년(1754) 11원18일자 기사

총융사 홍봉한이 임진의 형편을 아뢰다

총용사 홍봉한(洪風漢)이 병을 받고 가서 임진(顯津)의 형편을 살폈는데, 이때에 이르러 돌아와 아뢰기류.

"임진부터 위로 3, 40리는 다 4, 5장(丈)의 적벽(赤壁)이고, 아래도 또한 사방이 막혀서 염러할

반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내소정(朱蘇平) 근처에 얕은 여울이 있어 옛 장롱(長陵)으로 통하는 길에 막힌 데가 없으므로 이곳이 하순합니다. 내소정의 앝은 여울부터 장산(長山)까지 모두 7리가 되는 곳에 토성(土城)을 쌓아 막고, 인하여 방수 별장(訪成別將)을 두거나 파주(成州)의 옵치(邑治)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임진 좌우의 식벽(石璧) 사이에 흥예 석문(虹霓石門)을 설치하는 것도 국위(國威)를 전고하게 하는 방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금위 대장 구선행(具善行)에게 명하여 다시 가서 살피게 하였다.

내소정 앞 임진강 이울이 알아서 방비가 허술하니 여기서부터 장산까지 7리를 토성을 쌓고 방어 를 담당하는 장수를 배치하거나 파주읍치를 옮겨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영조에게 보고하는 내용 이다

- 송명흠(宋明欽, 1705~1768))의 문집 역천집(榮泉集)
- … 1734년에 파주를 유람했는데 자운서원, 화석정, 내소정을 돌아보았다는 내용...
- □ 1773년에 간행된 이혐역(李顯喬)의 정암점(正養集) 서유기(西游記)

二日。爲赤壁之遊,乘舟來蘇亭下。亭顧幽絕。少東臨江有巖平廣, 俗號場驗。而定賣朴公泰輔詩。刻 在巖上, 舟行造臨津, 登花石亭。乃來谷所居也, 楊超驛而有九毫, 玄石記。栗谷傍孫亭韜, 亭寂住焉。

2일 적벽을 유럽하며 놀았다. 내소정 아래에서 배를 탔는데 조금 동쪽으로 가니 넓고 평평한 바위가 있었고 이 바위를 속춰 작업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9

그런데 이 장암에는 정재 박태보의 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배를 타고 임진나루로 가서 화석정 애 올라보니 바로 율곡이 살던 곳이다. 매우 이름다웠는데 우암 송시열과 현석 박세채의 기문이 있다. 율곡의 방계슨 이관과 이완이 살던 곳이었다.....

이 글에 나오는 정재 박태보(朴泰輔,1654~1689)는 반남 박씨로 예조좌랑과 사간원정언,이천현

⁵⁾ 이 바위는 예찬에는 돗자리를 10억개 잘 정도로 넓었지만 일제시대에 경의선 최교 교자을 놓느라 깨서 가자가서 지금 은 돗자리 3개 정도 깔 정도의 넓이만 남아있다. 그곳에 살았던 신헌성(76세)에 의하면 바위를 깨간 후 일본인들이 그의 아버님께 각사장을 주었다고 한다.

감. 파주목사를 지냈으며 윤선거(尹宣邦)의 외손자이다. 파주목사로 있을 때, 조정에서는 성혼(成 運)과 이이(季珥)의 위쾌를 문묘에서 빼어버렸는데 그가 재직하는 파주에서는 조정의 정책에 따르 지 않고 그대로 이를 존속시켜나가서 문책을 받고 면적되었다.

타고난 성품도 뛰어나 지기(志氣)가 고상하고 견식이 투천해 여러 차례의 상소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비를 가리는 데는 조리가 정연하고 조금이라도 비리를 보면 과감히 나섰으며 의리를 위해서는 축음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原王后)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해 주동적으로 소를 올렸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鎮森)으로 노랑진에서 죽었다. 그가 죽은 뒤 왕은 곧 후회했고, 충절을 기리는 정리문을 세웠다. 영의정에 주중되고 풍계 사(價緩嗣)에 제합되었다.

그가 장암 즉 마당바위에 글을 새겼다하는데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 나머지 문장은 다음과 같다

... 行數里。又得趙相師錫水月亭。赤壁盖自此始焉。行二十里。到治谈亭。盖是遊也。與發傾飲酒。醉 後輕誦蘇仙之賦。翠軒之詩。終日樂而忘返。雖無東山之月。吹節之客。其得意乎則無讓於蘇仙焉。夜 深。入江邊小寺宿。寺在長浦之北。相號之上。三日。父泛舟赤壁下。下陸訪牛溪故居于坡平山下。川堅 平處。林樹茂密。冀陽老居也。入古院。锡懋松、牛溪及休磴白公仁傑位板。得牛溪所居得室數問於溪 上。牛溪後孫成知醴至行出見。還乘舟下來蘇亭。冒晉歸肅所。四日。信景張訪律亭於沙浦上。故黃與成 宮亭而但有墟。前有湖幾十餘里。西見天烽。東見三角。南對文珠、月龍、即界極廣遇。題宿壽所。五日。 與景張、東行二十餘里。到紫雲書院。乃栗谷墓下祀栗谷。而近以玄石並享。有碑在洞口。白沙李公恒福 製。東淮申公為聖書。院庭又有碑。尤菴製。金公壽增忠。與景張分路。景張還濟。余澄漢陽。往返凡三十 日。誇見二十八首。

이즛경(李重慶)의 운재유고 3권(雲濟遺稿,1831년 간행)

有來蘇亭。襟帶長江而江岸皆赤壁。亭之名以此。其前爲東坡灘。越臺有東坡撥

□ 강필신(美必備)의 모현집 1권(慕軒集,1840년 간행)



380 권효숙

來蘇宁畔釣鉛橋。 顯前迷遠遊嶼。 鳥外陰陰隱夕暉。 林症細搖山答益。 水紋晴染海衣。 天教一雨輸佳約。 不是阿玄不欲依。

1909년에 강해된 이반용(李晚田)의 동변집(東極集)

長湍舘。 夜與主守尹網堂 正氣 話舊

造從相忘在城街。每是山類與水准。十年渠澗悲人老。千里西懷記月佳。余與尹令。定交於東庄。又庆 辰。同遊成川。荥縣重遊身是夢。桑田屢劫活如埋。野堂迢遞臨津望。舊客雖為浪上傾。時斗望相公。閒 居遇山、忽德辰年西游而有冰。

臨溫館外傳達街。翳翳斜陽水一運。關今爲候年尚少。蘇仙遷主境皆使。主守姓尹。引用關令臨。州有 赤壁、仍藝來蘇亭、生知世味無堪喻、死許情根與共卑。明日那典更分乎、蟲鳴柰落動人懷。

□ 일제강점기 때 보이는 기록은 1913년 왕수환(王梓煥)이 조벽하(趙碧霞)에게 보낸 간찰(簡札)

吳趙碧霞生并一世漢如異時謎切證蕭路樞初李何幸今春費烈甫為橋傳來蘇李問田和至人畏影獎復 逗施坐失此機自數自尤一奉君子豈有數數會以梅集寄呈左右兼之緣聽中卷之暮所依頼者金潤昇氏至 今無信不無疑詩茲敢仰深遠賜瓊陽幷希隆寒體覆玉護不僅繞上。癸丑服月十八日 生王粹煥(拜上)同 封青郡吳縣坡自斯熙崔敬一崔集心图處并辭詳深示之如何

5) 「내소정팔영(來蘇亭八詠)」

조선 숙종때 문신인 호곡 남용익(靈谷 南龍翼)이 무신년(1728) 한여름(中夏)에 지은 시로서 내소 정 주변의 아름다움을 옳은 시이다.

⁶⁾ 파주시, 파주시지 6권 분현자료집, 경기지, 파주목유지, p, 243~244 이경훈(李禄蕙)워움, '정신문화의 빛, 보석고문시연구회, 19%, pp i6~18,애서 원문과 해석 인용.

1경 화석정의 봄(花石亭春)

2경, 장암의 낚시(長岩垂釣)

3경, 송압의 맑은 구름(松巖淡雲)

4경 장포의 가랑비(長浦細雨)

5경. 통파의 달구경(東坡驛月)

6경, 적벽 뱃놀이(赤壁仙遊)

7경, 동원의 눈(桐園雪)

8경, 진사의 새벽 종소리(津寺曉鍾)

제1경 화석정(花石亭)의 봄

花石亭前花事新 화석정 앞에 피는 꽃이 화사하여 陽來時實有閒人 한가롭게 훈로 찾아 읊조리고 감상하네 脑芳卑世無相議 향기 그윽한 꽃을 세상에 아는 이가 없으니 可借先生去後卷 선생이 떠난 뒤의 봄빛이 애석하구려

화석정은 내소정의 상류쪽 임전나부를 지나 임진강을 바라보는 율곡리 언덕에 있는 현재까지 존립해 있는 정자이다. 화석정 아래 율곡리는 율곡 선생의 본향으로 1443년(세종 25) 율곡 이이 선 생의 5대 조부인 강평광 이평신(李明晨)이 정자를 세웠으며 율곡 선생은 여가가 날 때마다 이곳을 참아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화석정에 이름답게 봄꽃이 화사하게 많이 피어있었다고 하니 지금이라 도 화석정 주위를 아름다운 꽃과 바위로 단장을 하면 어떻게 한다.

제2경 장암(場岩)의 낚시

垂釣春祝百尺養 급이치는 물가의 백척대 위에서 낚시를 드리워 得焦將欲沽漆盃 물고기 낚으니 승잔 가드기 따른 박걸리가 생각나네 형人不保吾心事 겉사람은 내 심사 이해 못하고 湯道桐江物色來 동강 물색을 구경오라 하는구려



(사진6 돌개바위(사진제공: 김현국))

장암(場告)은 문산읍 장산리 임진양수장 옆 강가에 아주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하는데 그 넓이 가 돗자리를 10여 장 깔수 있을 만큼 넓어 '마당바위'라고 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경의선 철로를 가설하면서 마당바위를 쪼개서 썼으므로 지금은 돗자리 세 장 정도의 크기만 남았다고 한다. 임진양수장 근처에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살아온 신원성(76세)씨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때 마당바위를 깨가 일로 관공서로부터 공로상장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만용(李曉用), 동번집(東癸集,1909년)에 의하면 장암에 정재(定裔) 박태보(朴泰輔, 1654~ 1689)의 금씨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一日。為赤壁之遊。乘舟來蘇亭下。亭頭幽絕。少東臨江有錢平應。俗號場戲。而定齋朴公泰輔詩。刻 在巖上...

또한 장암 옆 돌개바위에는 이런 전설이 마을에 전해져 온다.

오래전 선조대왕이 피난을 가다 임진나루를 넘을 때 윤곡선생이 미리 예언해둔대로 기급천을 해놓은 화석정에 불을 질러 이동을 밝혀 건너게 했다. 이후 선조의 뒤를 추격하던 왜군들이 임진강 까지 쫓아오자 임진강 절벽에 있던 둘개(개처럼 생긴 동)가 왜군을 보고 크게 짖어서 왜군들이 무 서워 도망을 갔다는 전설이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일제가 다시 이곳에 와서 동개바위를 잘라버리 목은 강물 속에 반쯤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일본인들이 정의선 철도공사를 할 때 일본인들이 장암과 돌개바위를 공사자제로 잘라갔다고 하는 사실과 맞물러 그럴듯하게 구성 했다. 왜인들에게 두번이나 피해륨 본 둘개바위 의 정성이다."

제3경 솟았(松巖)의 맑은 구름

付庭談宴點點译 어느 곳에 더운 구름 여기저기 떠있는고 遠山如畵价盈頭 그림 같은 민 산만이 머리 속을 채우는 듯 橫速望跟知多意 는 앞을 가로막은 그 뜻은 알겠네만 恐恭懸人品古愁 시인들 옛날 생각에 시독함까 두덤네

화석정 아래 마을 사람들의 예전 기억으로는 이 근처에는 밤나무 고목과 전나무, 나이먹은 소나 무 등이 굵직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한다. 오래된 소나무와 근처의 바위 위에 하늘에 밝은 구름이 떠있는 모습을 그렸다.

제4경 장포(長浦)의 가랑비

技배물時時寐寐 장주에 주북주북 내리던 상마 개고 白聲信分草色飛 백로는 풀빛 위로 나눠 날으는데 漁子不愁風浪起 고기잡이들은 언어날 풍당은 아랑못 않고 依婚, 遙榮祿對衣, 뗏진에 기대어 우장 입은 사람 멀리서 부르는구려

적벽 아래 흐르는 입전강물 위로 내리던 비가 개면서 물안개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하얀 백로 가 등판 위로 남고 있는 평화로운 종광이 아름답게 그러지고 있다.

⁷⁾ 네이버 블로그/외계무생물/화석정의 알러지지 않은 이야기-3 임진강 초평도 옆 돌개바위의 전설/작성자 국스



〈사진7 임진강 적벽(사진제공 : http://blog.naver.com/phjoc5504)〉

제5경 동파역(東坡驛)의 달구경

東坡古驛月常樓 낡은 동과 역부에 달이 뜨니 邊應人家î至上鉤 곳곳마다 인가에선 대나무 발을 걸어 올리네 一點空보石不遠 보이는 한 점 규성(큰별)이 멈지 않으니 今宵應入廣寒遊 이 밤은 광한(月宮)에 들어가 놀아야겠네

화석정 아래 임진나루에서 강을 건너면 그곳은 전동면 동파리로 동파나루가 있었고 그 근처에 동파역원(東坡韓院)이 있었다.

제6경 적벽(赤壁) 뱃놀이

赤壁磯頭更泛舟 적벽강 낚시터에서 배를 띄우고 蘇伽去後尚風流 소통파 떠난 뒤 그 풍류 즐기는데 波병月白ধり攻 물결 작작하고 담빛 확한 맑은 맛이니

石〇即叫不富始丘 孝刃共之而立不石 恵 少而変徒傍幽取す 水 主徐位亦一以於應 **一人後三便兒遠遠前一陸** 人居赐嘉宝至廣濟 商正额最而用于主人家直逢其府草於自一十 披 內詩為可駐庫春典東洋馬行地出木山東有在 度在古銀路或二其東国而者意而南京故南小在中 東西西北京東京 国面省等版 大百小陰 充亭除今此有至第一餘或路易害虎唐郡寺<u>前</u>三在 人不英語非根角趣法の十円 等上云上宣所壬子 百宝 花美文货敏 到多之人止類馬京各金里東 能千石 有報告清 東秋石 以東二副 其以敢提出聚接都已定 **所死前而而自畴與久敦 慈** 花花亭 待與月之一作為相易已內極夫而記 生石牧在之南工科十 草者成切間為惟自郷家 雲 人本家州是超既器二含微以是灾灾然上人士。 可下李北管则告核 → 以數或米有室木兩個聯西在 下江明十别不畢為 次百徒爰宛和告沈福南 之人倡廣設處施下北二并臨 4自最五院可密村 命王挟以及潜而者地十 卜流故里一知柯元 i花尼知過其真經 社命兵溶液伏山無出里。

不必黃岡壬戌秋 도연명의 황강 임 숨년 가을이 부럽지 않아

북송의 최고 시인 소동파가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전체 적벽강에 배를 타고 유럽을 한 후 그 유명한 (적벽부)을 남겼기에 후대의 많은 시인 목객들은 여름에 소동파처럼 적벽이 있는 강을 유럽하기단 좋아하였다. 임진강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적벽이 아름다워 고려 때도 왕이 유람을 자주 오던 곳으로, 이 시를 지은이도 이곳을 찾아 적벽을 감상하며 그 감동을 직은 것이다.

(시진8 자운사 기록-신증동국여지승락)

제7경 동원(桐園)의 눈

桐崗ফ雪白皚皑 동원에 늦눈이 하얗게 내리니 望婁平城綠色丽 보이는 곳 환한 언덕에 맑은 및 펼쳐지네 入故江扉終不捷 밥이 되도록 싸라문 닫지 않는 짓은 剡溪展有子祝來 섬개에서 글 잘하는 자 유가 찾아올까 싶어서

•섬계(刺漢) - 중국 절강성 조아강(曹公江)의 상류, 진(晋)나라 왕자 유(故)가 눈오는 밤에 재규(藏述)를 방문한 고사에서 유래

동원(層面)은 '오동나무 정원' 이란 뜻으로 현재 장산리 마음에 느티나무 고목이 한 그루 서 있는데 마음 사람들은 이곳을 동원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발하는 동원은 임진나무를 건너 동과리에 주막거리가 있었는데 주막거리 주변에 오동나무가 많았다 하며 이 곳의 자연마음명이 동자원동(桐子院洞)이라 유래되고 있어 내소장에서 강건너로 보이는 이 곳의 풍광음 시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⁸⁾ 다음 블로그/적심재의 흔적을 찾아서/얌진강 풍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래소정어]/글쓴이 이윤화

제8경 진사(注告)의 새벽종

津頭寺隔白雲層 나룻가의 절간은 백운이 검결으로 가렸는데 半夜礁鍾有老僧 노승은 한밤에 좋을 울리네 不是姑蘇城*外泊 필시 고소성 밖은 아닐진대 寒天落月又漁燈 차가운 하늘에 달 떨어지니 고기잡이 등불만 비치는구려 *고소성(姑蘇城) - 중국의 미인 서시가 살던 곳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편에 보면 임진나무 서쪽인덕에 자유사(終雲寺)가 있다는 기록이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전사는 자운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자운사는 내소정과 강가 위에 나란히

보고 있는 형태로 자운사의 종소리는 래소정근처에서 들 릴만한 거리 (약 1~1.5km)이다. 내소정에서 인진판경을 찬양한 남용익은 1628년~1692년에 생존했고 신증돗국여 지승람은 1530년 중종때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전부터 존 재핸던 적이다 9

4. 수월정 터

1) 위치

19세기 초 제작된 '광여도' 에서 수월정의 위치는 화석 정 위 늘노천 아래에 그려져 있다. 1773년 간행된 이현 익(李顯益)의 "정암집(正卷集)」7권에 서쪽지방을 유람한 기행문 (서유기(西遊記))에서는 화석정에서 및 리를 가 면 수월정이 있고 거기서부터 적벽이 시작된다고 하였다.

二日。爲赤壁之遊。乘舟來蘇亭下。亭頗幽絶。少東臨江有 殿平廣。俗號塢巖。而定齋朴公泰輔詩。刻在巖上。 舟行過臨 津。登花石亭。乃栗谷所居也。極超勝而有尤苍, 玄石記。栗



⁹⁾ 결환석 유곡리 화석정 아래에서 충생했고 화석정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사진10 물곡리 수월정 위치》 1959년에서 1959년경 사진이며 큰 나무가 있는 자리가 현재 강변휴개소 옆 수월정터로 추정된다. 나무터가 있어 배들이 활반하게 드나들었던 곳이었다. (사건제공 -과핑먼 율곡3리 김현국)

谷傍孫李綰,李続住焉。行數里。父得趙相師錫水月亭。赤壁盖自此始焉。行二十里。到滄浪亭。

(여지도서)는 조선 영조 대 1757년부터 1765년에 각 음에서 편찬한 음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전 국 음지(邑諡)인데 여기엔 '……水月亭 在花石乎上流·……'라 해서 수월정이 화석정 위에 있다고 했다.

또한 쌍백당(雙柏堂) 이세화(李世華,1630~1701) 의 문집에 수원정시서(水月亭詩序)에는 수월 정의 위치가 과산서원의 서쪽이고, 화석정의 우측에 있다고 하였다.

'-----坡山之西。花石之右。於焉卜築......'

화석정에서 상류쪽으로 가까운 곳에 윤곡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부터 현무암 검은 적벽이 장파라까지 이어지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두군테가 적벽이 깎여지나가 있는데 6.25 전 쟁 때 미군들이 이곳에 부교를 설치하고 도강을 하느라고 했어냈다고 한다. 이 습지는 율곡리 마을 인데 예전엔 병곡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근처에 일음장고가 있었다는 애기다.

수월정터로 확인되는 이 곳은 화평면 율곡리 강변휴게소 옆으로 큰 느티나무가 두그무 있었으 나 한그루는 없어졌고 우축 아래엔 나무가 있어 배가 많이 드나들던 곳이다. 적법 위에 있어 임진 강을 바라보는 풍광이 아름답다. 화석정에서 강 변을 따라 임진강 상류 쪽으로 2킬로미터 꿈 가 다보면 '강변휴게소'라는 카페가 있다

수원정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은 강변휴게소 카페에서 화석정 방향으로 약 50미터 부근의 커 다란 고목이 있는 자리이다. 고목은 두 그루가 있다가 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으며 수령은 정확하지 않지만 몇백년 참 되어보인다. 그 고 목 옆에 군시설품인듯한 작은 가건용이 자리작



(시진10-1 현재 율곡리 수원정 위치)

고 있는데 그 자리가 아마 정자가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 지역은 현재 율곡1리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창녕성씨, 덕수이씨 성 을 가진 이들이 오래전부터 살아오는 곳이다. 두포리와 화석정 사이에 강변에서 조선시대나 그 이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 중 강변이 가까운 곳은 이곳 뿐이다.

이 곳 앞 '벼룩길'은 율곡이이가 확문적 도반(近伴)이었던 우계 성혼을 만나려 다니던 길이기도 하다. 정자 앞 강변 모래톰과 정자터 우측의 고목나무 옆은 1970년 경 이전에 배워졌고, 오른쪽의 나뭇터가 있던 부분에는 큰 하수관을 묻었다고 했다. 이 나무터는 배가 많이 드나폴던 곳이었다.(김현국)

2) 시대

수월정이 옛기록에서 언급된 것 중에 가장 연대가 빠른 것은 1695년에 간행된 남용익 (1628~1692)의 『호곡집(蓋谷集)』 제4권의 7연읍시이다.

壶谷集卷之四 七言律詩

等題重修水月亭 亭即放礪城尉新建。 而外葉孫朗原君重修。水月亭預閱幾年。 泰樓道史昔登仙。空墟久入居人歎。 肯揚終須宅相賢。遠曲更從位板響。 當與重向影響態。荒迴敢列三王後、只幸名因際地傳。 이로 볼 때 수원정은 17세기 중반에 존립해있었을 것이며 1758년 11월 15인자 비변사등록에 작찬성(左參贊) 홍봉한(洪原漢) 등이 입시하여 과주(坡州) 수월정(水月亭) 근처 발(田) 80부(兌) 7 속(東)에 면세(免稅)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합' 이라는 기사가 나오니 18세기 중반까지는 존립되어 있었음이 확산하다.

3) 관련 인물

조태역(趙泰俊, 1675~1728)의 검재집(謙強集) 43권에는 수원정의 주인이 나게(羅漢) 조사석(趙 師錫)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글에서 숙부 충헌공이 경오년(1690년) 이후 관직에서 물러 나와 파 주의 나계 수월정에서 은거하며 지냈고 이웃에 이기(李基)라는 참봉이 늘 함께 어울려서 시를 짓 고 서로 화답하였고 생백당 이새화가 이곳 고향에 머물러 살고 있어서 자주 문학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議齋集卷之四十三

顯後

顯羅溪酬唱錄後

右詩十二首。即我叔父忠憲公所作也。公於庚午以後。爲相。屏居于坡州羅溪之水月亭。隣有李參奉 讀基。字子平。從公遊。每有詩。公輒和之。時則雙相李忠肅公。亦住是鄉。盛有顧唱。堂兄地山, 黃谷南 公所賦亦多。參奉公歿後。

其胤錫五天叙。豪為一册。她山兄在西藩時。命工桩池曹橞。以述之天叙。庚辛距今三十六七年。叔父 下世已三十四年。忠肅初經六二十六年。

兩堂兄次節傾逝。如余者。當時顧未差鬚。今既皓首矣。人代之感。

有如是夫。李觀察仲協。忠肅公之從子也。見是帖而悲之。爲文跋之曰。

鶴灘相公見此。必如余懷矣。天叙倩人没是帖于余。要余續顯于後。

其人不果至帖亦見失。喧嘻惜哉。不幸甚矣。雖然。其詩則循可考。

使諸公子弟莽寫。則亦足傳这矣。更走人三百里外。其請其懇。余雖病且眊。何敢辭也。 定計筆諡寫。 以補其亡、余與參奉公契許甚厚、其喪也。

以衣襚之。其弟奎子文。即余同研友。其及胤錫九君叙。亦有世好。今皆亡矣。推念今昔。爲之一涕。

조사석(1632~1693)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주(楊州)이며 자는 공거(公驛), 호는 만회 (晚博) 또는 만휴(晚休) · 향산(否山) · 나계(羅溪)이다. 아버지는 형조판서 계원(啓遠)이고, 어머니 는 영의정 신흥(申欽)의 딸이다.

조사석은 숙종의 후궁 화번장씨(輻射張氏)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졌다. 화번장씨 장욕정의 어머니 윤씨는 조사석 처가의 여종이었는데 남편(장황)이 사방하자 조사석의 칩이 되었고, 그 인연으로 작옥정은 궁에 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조사석은 1688년엔 좌의정이 되었는데, 인조의 손자인 동평군(東平君) 항(杭)의 횡포를 논하다 가 처벌된 박세채(朴世栄)와 남구만(情九萬) 등을 변호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다. 조사석은 장단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균을 쓴 조태덕은 대제학과 우의정을 역임한 조사석의 조카이다.

4) 옛 기록에 남아있는 수월정

비변사등록 135책 날짜: 1758-11-15(음)

기사계목 : 左邊贊 洪旗漢 등이 입시하여 坡州 水月亭 근처 田 80負 7束에 免稅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조선왕조실록 영조 34년 (1758년) 戊寅十一月十五日

같은 날 입시하였을 때에 좌참찬 홍봉한(洪瓜漢)이 아뢰기를,

"임진강변(蘇律江邊)에 나무를 심고 크게 키우는 일로 전에 이미 품정(東定)하였습니다. 파주 (坡州) 수월정(水月亭) 근처의 양부전(最付田) 80부(負) 7속(東)을 묵힌 채로 사들여 이미 나무를 심었으니 전례대로 면세(免稅)하라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여지도서(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책으로 엮은 전국 읍지
 (邑誌))

補遺篇(京畿道)

同治拾年玖月 日坡州牧邑誌事例謄出册

搜亭 臨津亭 在臨津渡南岸今有基址 花石亭 在州南十七里臨津南岸知敦寧府事 康平公 德水 李明 最削始卜居其長孫通判 宜碩重修通判之曾孫文成公 李珥拓基重修以爲讀書蹇德之所亭下洞名栗谷 故學建稱栗谷先生萬曆王子年間文成公以禮僧詔使往來於龍器也天使黃洪憲及王敬民曆賦錄以顯而 歸詩在皇華集中文成公歿後習賣 權學 松江 郯斌 晚翠 吳德齡諸人登亭作感古詩王長倭髮亭被灰燼 景韻癸丑文成公從曾孫原址 厚寿復建亭合尤齊 玄石作頭修記文成公八歲作詩日林亭秋已晚縣各意 無窮遠水連天臺霜楓向日紅山吐孤輪月江合萬里風塞鴻何處去聲斯幕雲中其後靖惠公 成稷九十歲 書文成公八歲所作詩楊被于亭壁至今傳之得爲稀世事靖惠公即文簡公之孫也 水月亭 在花石亭上流 七松亭 在水月亭上流今在基址 來蘇亭 在臨津下流今有素 伴鳴亭 在州西北二十里今在基址 銀杏 亭 在州西十五里今在基址

조태억(趙泰俊, 1675~1728)의 겸재집(謙齋集) 43권

議務集卷之四十三

顕後

題嘉溪酚唱錄後

右詩十二首。即我叔父忠志公所作也。公於庆午以後。解相、屏居于坡州藏溪之水月亭。隣有李参奉 諱恭。字子平。從公遊。每有詩。公櫃和之。時則雙稱李忠肅公。亦任是鄉。盛有爾唱。堂兄地山, 葭谷雨 公所賦亦多。參奉公歿後。其胤錦五天叙。宛爲一册。地山兄在西播時。6口桩池曹福。以婦之天叙。庚 辛雎今三十六七年。叔父下世巳三十四年。忠肃捐館六二十六年。兩堂兄太弟傾遼。如余者。當時顧未 若號。今旣皓首矣。人代之感。有如是夫。李觀察仲協。忠肅公之從子也。見是帖而悲之。爲文跋之曰。鶴 潑相公見此。必如余懷矣。天叙信人遂是帖于余。要余賴題于後。其人不果至帖亦見失。喧鳴情哉。不幸 甚矣。雖然。其詩則賴可考。使諸公子弟替爲。則亦足傳遊矣。更走人三百里外。其禱甚思。介雖病且眊。 何政辭也。遂就等謹寫。以信其亡。余與參亦公契計甚厚。其丧也。以衣提之。其弟奎子文。即余同研汝。 非长嗣貌九君翁。亦有世紀,今桃亡矣。桂灸今告。爲之一滿。

ロ 이세화(李世華, 1630)~1701). 雙柏党先生集装之一下/雜著

水月亭詩序

朝裴相。堂成綠野一區。宋代蘇仙。舟泛赤檗七月。鎌城堂無其地。雜谿亦有伊人。黃原非荣。却休調 舉之手。碧山不負。爭瞻掛冠之行。坡出之西。花石之右。於焉卜樂。于以逍遙。住一節於蘭阜。靜散暮 境、倍數核於照諸

ロ 이세화(李世華), 雙柏堂先生集祭之一上/七言絶句

又過水月亭有感

涯賦殿已經秋。惟有由陰一小舟。停棹不掉 亭下路。可堪人世別離愁

이세화(季世華,1630-1701)는 본관은 부 평(宿平)이며 자는 군실(君寶), 호는 쌍백당 (雙相堂) · 철정(七井)이다. 파주 문산읍 임 진리 관우물곱에서 살았으며 각조의 판서 몸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저서 로는 생백당집(雙相堂集),이 있다. 청백리



로 선정되었다. 파주문산읍 선유4리에 묘가 있다. 숙종 때 기사환국으로 인한 화를 입은 이세화. 오 두인, 박태보 세 사람을 모시고 향사를 올리던 사당 풍계사(環義河)가 파주 문산 철정리에 있었으 나 고종 때 서원철패릿에 의해 폐철되었다.

5. 창랑정(滄浪亭)터

1) 위치

1773년 간행된 이현익(李顯登,1678~1717) 정암집(正卷集) 7권에 기(記) 서유기(西遊記)에는 창 량정의 위치가 화석정에서 상류 쪽으로 이십리를 가면 창량정에 도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엣길 로 화석정에서 위로 20리면 고량포 부근이다.

二日。為赤壁之遊。乘舟來蘇亭下。亭頗幽絶。少東隆江有殷平原。伴號場礎。而定齊朴公泰輔詩。刻 在殷上。舟行通臨津。登花石亭。乃栗谷所居也。極超勝而有尤蓰,玄石起。栗谷傍孫李綰,李統住焉。 行數里。又得趙相師錦水月亭。赤駿高自此始焉。行二十里。到渝浪亭。

서울에서 태어나 연천에서 만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난 한림학자 미수(區更) 허목이 64세 되던 1658년(효종 9)에 관직을 사퇴하고 병을 핑계로 도성을 나와 배를 타고 한강을 거쳐 임진강을 지나 연천으로 들어가면서 '무술 주행기(戊戌舟行記)'를 남겼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창당정은 창녕성 씨의 범장이라고 하였다.



임진강(鹽津江)으로 올라가니 비로소 석벽(石壁)이 있는데, 왕왕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무성하였 다

화석정(花石亭)은 이 문성(李文成 율곡(栗谷) 이미(李珥)의 시호)의 별장이요, 한벽정(寒碧亭), 창랑 정(滄浪亭)은 다 성씨(成氏)의 옛 별장이라고 강가 사람들이 말했다.

북안(北岸)은 적은(積雲)인데 사심 장인(師心丈人 사심은 이정호(李挺袞)의 호임)의 구거(舊居)였으 며, 그 뒤에 사심의 무덤이 있다.

적운이라는 곳은 장파리 우계 강건너편 연천군 용산리와 반정리 부근으로 1919년 지도에는 저 운동(渚雲洞)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며 장과리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을 '저운동'이라고 부 른다.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7월 15일 기사에는 화주장단의 기자단이 고란포석벽 위 창방정에서 제3회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랑정은 그 당시 장단군 고 랑포 적벽 위에 있었으며, 다양한 사무기능을 처리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고랑 포는 내륙 지방의 가장 모든 물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여기에 화신백화점 분점도 있었고 문산보



(시진13 고랑포구 옛사진)

다 3배 정도 많은 주민이 생활하던 곳이다. 보통 나무터 근처에는 정자가 있었으며 이정자의 기능 은 휴식치로서의 기능 외에 세금을 걸거나 운송료를 받는 회계사무실로 이용되기도 하고 귀빈들 의 황송장소, 또는 회의장소로도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다

허경진 교수는 일반적으로 강변 나루터 누정의 특성으로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있어서 강을 건 너라는 나그네가 나뭇배를 기다리면서 쉬거나, 관원이 세금을 받으며 규활(納察) 임무물 수행했다 는 점을 들면서 이 점이 바로 일반 명승지에 있는 정자나 문인 학자들이 풍큐를 즐기거나 학문을 논화면 정자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

금강의 강변에 세워졌던 영훈정도 조세와 관련한 회계와 사무를 관정했고 빈객을 맞이하기 위한 영변점을 따로 세워 손님많이와 전송의 요식(要求)을 치르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2)시대

윤근수(尹根壽),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며, 이정귀(李廷龜), 신흥(申欽), 이식(李穂)과 함께 조 선 중기 문장 사대가(四大家)로 불린 장유(張維 1587~1638)의 서문집 (개극집(獨谷集) 1635년 간

¹⁰⁾ 충남향토연구회, 급강의 누정문화,하경진[급강면 누정문화의 성격, p.36~37



〈사진13-1 동아일보 기사〉

坡長記載图委員會(교증기자단위원회)

[파강의자단법] 파주강단(民)(民)(東京학자)양군에산재한 는동영차로조직원파양의자단에서는 오는이십오왕오전경한사무 안고랑포격박예용답한당당당(孫)(承)(주)(공)(의 대상회위원(왕의 토의(사항은)(대학회위간(대학

- -(임),長濱水利與各問題(장단수리조합문제)
- --(일),航津水組地主及小作人J(組合局)は開設 임진수조지주금소 저)

(시진13-2 동아일보 19290715 기사)



고랑포구, 6 · 25전쟁 이전까지는 장단군이었으나 현재는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다. (사진제공 : 네이버블로그/흐르는 물처럼)

행)에 창랑정의 시 두수가 실려 있어, 16세기 소에는 창랑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으로 가장 늦게 나온 기록으로는 동아일보(東亞日報) 1929년 7월 15일자이다. 그러므로 창랑정은 1600 년 경부터 1930년 대까지 400이 년간 존립해 있었던 정자였다.

3) 관련기록들

ㅁ 장유(張維 1587~1638)의 시문집 《계곡집(谿谷集) 1635년 간행》

차운하여 청량정의 시 두 수를 부처 보내다大韻寄題滄遠亭 二首 청량정에 직접 가 분 수는 없었지만 / 滄浪不可到 기막힌 그 정치 귀 많도록 들었다오 / 靜獎積食態 외로운 정자 싸고도는 해맑은 남빛 / 水泡藝亭白 천 년 세월 지키고 선 푸르른 산봉우리 / 山留舊古青 높은 인품 지금은 땅속에 불했어도 / 高人已黃土 현정과 같은 문접 그대로 남아 있네 / 百葉有玄經 해마다 문 앞에 날리는 버플개지 / 每歲門前柳 몸 위에 떨어져 부평초 될 따름인세 / 飛花只作草

엣사람 세상 피해 은둔하던 곳 / 昔人梧遊地 선배를 얼마나 기이한 승경 을었던가 / 前횫競稽奇 그 명성 정곡과 엇비슷하고 / 鄭谷名登近 정문(武物)은 엄탄인가 의심케 해라 / 嚴謹物色疑 한평생 취향대로 노닌면 그만이지 / 生平聊寄趣 죽어서 알아주길 바라려고 하였겠나 / 身後肯求知 우스워라, 한갓 시만 지을 뿐 / 自吳超詩客 정작 찾아갈 기약은 박박하니 / 資症 杏葉期

□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문집 『서계집(西溪集)』 제4권

신 성천(申成川) 어석(汝哲) 에 대한 만사 2수 영단에 마음 없는 이로는 오직 그대 보았으니 / 高精醬級獨看君 번잡한 세상일이 귀에 들리지 않았네 / 應土器粉耳不聞 집 안에서 고요하게 일세를 보냈으니 / 應戶麥麥邊一世 뉘 안았으라 집안에 대장군 나올 중 / 誰知家舊大將軍

남은 빗 오늘날 거의 없으니 / 親識如今無幾存 원미리에 눈물 흘리매 눈이 침침하구나 / 白頭重淚懸昏昏 옛 창당정에 뜬구름 흘러가고 / 治浪亭古澤塗道 뒷날에 자식을 곡한 원숭이만 남았네 / 他日唯餘贾子雄

ㅁ 권필(權釋,1569~1612)의 『석주집(石洲集)』 제7권

창랑짓(治浪亭) 2절(納)

집 아래는 맑은 강 집 위에는 산이라 / 屋下清江屋上山 도인의 생계는 물과 구름 속에 있구나 / 道人生計水裏間 알겠노라 고요히 앉아 경서 보는 곳에 / 應知靜坐翻程度 모아래 시통이 방에 몽은 두드립 중은 / 濟麻血帶夜四隔

포단은 고요하고 향 연기 꺼져 가는데 / 蒲園 岑寂篆煙殘 참로 산경을 안고 고요한 중에 읽는다 / 獨抱山經靜홄看 강가 누각은 밤에 서늘하고 송원은 현대 / 江闊夜凉松月白 문재는 날아서 대나무 난간에 오른다 / 諸倉縣 / 竹闌干

정혼(成澤)의 문인 조위한(趙緯韓,1567~1649)의 문집 현곡집(玄谷集) 3권 시(詩)

顯滄浪亭

為問治浪水。清斯湿我櫻。如何懷耿介。不得保幽貞。曲渚紅黛老。類塘翠竹生。荒臺人不見。西日下 秋乾

ㅁ 최익현(崔益鉉, 1833~1895)의 문집 《면암집(勉菴集)》 제1권 시(詩)

4월 3일에 여러 친구와 금강산(金剛田)을 향하여 떠남

창랑정(滄浪亭)

늙은 갓나무 삼삼히 사립분에 비치고 / 老栢森森樓喋席 두세 촌락의 사람들 새상 소식 몰라 / 雨三村落世與稀 백 년 옛 정자 산은 그대로 있어 / 百年古樹山無改 초여름 질은 그늘로 나그네 찾아오네 / 四月選陰客自歸 작은 길에는 물이 신발에 배고 / 護路問題水補寢 술 소리엔 바람이 웃을 날리네 / 岸松浙遷周製衣 바쁜 절음 어찌 금강산 약속을 잊으라 / 忙禄恐負蓬萊杓 한가로이 옛 낚시터 좣을 거를이 없었네 / 不暇閑尋舊釣歲 허목(許穆, 1595~1682)의 "기언별집(記言別集)」제15권

무술 주행기(戊戌舟行記)

.

입진강(魏津江)으로 올라가니 비로소 석벽(石壁)이 있는데, 왕왕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무성하였다. 화석광(花石亭)은 이 문성(李文成 윤곡(粟谷) 이이(李珥)의 시호)의 별장이요, 한벽정(寒碧 후), 창랑정(治浪亭)은 다 성씨(成氏)의 옛 별장이라고 장가 사람들이 말했다......

.

自臨津上。江岸始有石壁。往往有深樹茂林。如花石亭李文成别業, 來碧亭。 治浪亭。皆成氏舊菜。江上人云。.....

ㅁ 東亞日報 1929 7 15 기사

坡長記者團 第3回委員會를 淦浪후에서 개최하고 다음 事項을 討議하다.

- 一. 長湍水利組合問題
- 二、臨津水組地主 及小作人 對組合紛糾問題
- 三. 某官吏의 私刑問題
- 四. 農村巡回講演에 관한 件
- 五, 迷信打破에 관한 件
- □ 성혼(成澤)의 문인 조위한(趙緯韓, 1567~1649)의 "현곡집(玄谷集)」3권 詩

題治浪亭

為問治浪水。清斯溫我櫻。如何懷耿介。不得保畇真。曲诸紅葉老。顯特翠竹生。完臺人不見。西日下 秋¢。

□ 규정(葵亭) 신후재(申厚裁,1636~1699)의 문집 『규정집(葵亭集),3권 詩○五言古詩

涡沧浪亭有感

行木澤路。立馬久踟躇。不見濯纓翁。荒亭枕水孤。亭今幾易主。秋色滿江湖。高才稱正平。春禍崔司

徒、漸達諒非時、鑽翻其無辜、至今有餘恨。不約東江鱸。

訪西坡於沧浪亭。拈陸放翁韻。與李進吾 翌 同賦。

證初開葡海東。即從江上伴漁翁。清臨秋水常心月。飽發烟氣滿腹風。萬事不忘憂杞國。九歌何必經 蘭寶。 ূ 與州聯信門前是。別後新詩數遞前。

Ⅲ. 맺음말

정자는 어느 지역이나 풍광이 좋은 곳에 세워지기 마련이지만 특히 적벽이 있는 임진강 주변에 는 정자가 많이 건립되었다.

많은 시인 문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풍광을 노래하며 주행기를 써왔던 많은 정자들이 세월의 호름 속에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사라져 더 조차 남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도 후손들 또는 관 할 관청에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도 있다. 바로 임진장면의 확석장이나 반구정 같은 곳이다.

반면에 몇 백년간 그 이름을 갖고 존립해왔던 정자가 조신 후기 또는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지 버리고 기록 속에서만 그 이름을 확인할 수밖에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소장, 수월정, 창랑정, 몽구정 등이 바로 그렇다. 다행히 기목 속에서 수월정, 창랑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내소장의 건립자의 변화를 알 수 있었고, 청랑정의 새로운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음은 알찬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임진강변의 사라진 정자터 연구는 터 조차도 가능하기 이럽고, 관련 기록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 몇의 정자는 대략적인 유곽을 드러낼 수 있어서 나름 보람이 있었다.

혹시라도 이 연구가 기초가 되어 임진장변에 몇 개의 옛 정자가 복원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임 진강변 산책김 따라 걸으며 정자에 올라 옛이야기를 들으며 옛 사람과 대화를 한 수 있었으면 좋 겠다.

참고문현

마주시, 과주시지 제6권 문헌자료집, 2009. 화주시, 과주군지 中권, 1995. 충난한토인구회, 금강의 누정문화, 2010. 경기도박물관, 임권강, 2009. 지역문화연구소, 경기누정문화, 주本彬, 河濱先生拿集, 아세아문화사, 2006, 과주시, 과주의 문화유산, 2011. 이경훈(李環次)위통, '정신문화의 및, 보성고문서연구회, 1996.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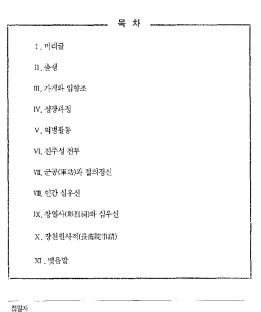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란」 「여지도서』 「지승」 『광여도』 「해동지도』

참고인터넷사이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고전출합DB 네이마카제(휴식장을 시당하는 사란들 내이마분보그/외계뚜쟁을 네이마블로그/호르는 물치런 다음 산로그/작십계의 혼격을 찾아서 http://blog.naver.com/phico5504

김포가 낳은 의병장 沈友信

류 지 만 (김포향토사연구소 소장)



류지만 김포함토사연구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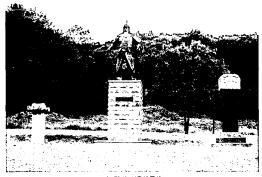
I. 머리글

심우신(沈友信)은 김포 태생이다. 임전왜한 당시 진주성을 마지막까지 지킨 의병장으로 장렬히 순절한 충의의 표상이다. 그러나 정사의 기록은 물론 역사의 뒤안길에서 조차 한 권음 비켜 서 있다. 그러한 푸대접에 대하여 뜻 있는 선비들과 지방관까지 줄을 잇는 상소를 했고, 1652년(효종3년 王辰) 8원, 진사 이장운(李章運) 등 수백 병이 효종에게 상소하여 효종대왕의 윤허가 있었음에도 재대로 포장(褒獎)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장수들은 모두 전주의 창연사(較 經顧)에 매향(配孚)되었으나 유독 심우신만 배제되었다. 또 선무공신(효武功臣) 등록에서 빠져 선 무원종공신1등(宣武原從功臣一等)에 그쳤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평자는 이단하(季耀夏)(1)가 쓴 섬우신의 행장(行政)을 근거로 하여 인간 섬우신은 제조명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는 역사인문을 재조병한 때 출생지나 생존 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거나 유택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그 고장의 역사인물로 인정하고 조사·연구하여 밝힌다. 우리고장 김포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중봉 조현선생의 애플 보아도 구두물(현 김포시 감정동)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버슬길에 나 아갔다. 그러나 관직을 떠나서는 옥천에서 후학을 양성했고, 임진왜만 때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청주성을 단환하였고 장기전에 필요한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침입하는 왜직을 금산 에서 맞아 700의병과 함께 중과부적으로 대략하다 결국 순국했다. 아마도 금산에서 중봉선생이 왜 군의 전의를 겪지 않았던들 임진왜란은 이주 장기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이 약기하고 있다.

후학을 양성화고 의병을 일으켰고 유택이 있는 우천과, 왜작을 맞아 마지막 한사람까지 처절한 전투를 벌였던 급산에서는 이같은 중봉선생의 우국중절을 기리는 제향과 추모행사, 그리고 학술 회의 등이 배년 거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선생의 출생지인 집포에서도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선 생의 옛 집터에 우저서원(牛渚書院)을 세워 그 중의를 이어왔다. 천행이도 우저서원을 중심으로 그 몇명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급 중봉선생을 현창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했다.

이러한 중봉선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김포가 낳은 또 한 분의 의병장인 심우신을 재조명하기 위합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마지막까지 진주성을 사수한 심우신 장군을 김포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아마도 청송 심씨 문중 이외에는 없을 것 같다. 필자도 지난해 9월18인(음 력 8월21인-생신)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73번지 부귀마을에 있는 표외사(此義祠)에서 봉쟁 한 제향에 참사하고 심우신이라는 인공을 처음 알게 되었다. 역사기록에는 동진 출신으로 기독이 있으나 김포에서 간행된 김포군지나 김포시사, 김포인공지 등 어디에도 전혀 수록된 적이 없다.



(그림 1) 심우신 동상

판자도 조사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역사적 환경을 좁은 의미로 축소하여 심우신 위주로 글을 썼다. 그 점 양해를 구한다.

II. 출생

심우신의 본관은 청송(青松)으로 자(字)는 공택(公擇)이다.

가승(家藥)에는 가정(嘉靖) 갑진(甲辰)생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나 1544년(중중 39년 甲辰) 음력 8월 21일, 경송 심씨 입향조 세거지인 통진 학당군(2)에서 곡산군수를 지낸 아버지 심수(沈髭)와 어머니 죽산(竹山) 박씨(朴氏) 사이에서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Ⅲ. 가계와 입향조

청송 심짜의 시조는 고려조에 문임량 위위시승(文林寫 復對寺丞)을 지낸 심흥부(沈洪字)이고 중 시조인 5세손 심온(沈溫)은 조선왕조 제4대왕인 세종대왕의 국구(國與)로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외 정(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을 지냈다. 시호는 인효(安孝)이다. 심온의 증손인 8세손 심순문(沈 傾門)은 통정대부의정부사인(通政大夫議政府會人) 증순흥보조공신영의정정평부원군(瞻純忠補韓 功臣領議政青平府院君)으로 150년(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화를 입고 김포시 통진음 옹정리에 안장된 후 그 후손들이 입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순문의 장자로 9세순인 심연원(沈遠源)은 영 의정을 지냈고, 시호는 충혜(忠惠)이다. 심연원의 장자인 10세손 심강(沈頌)은 명종의 국구로 보국 숭독대부(輔國崇祿大夫), 영돈령부사(領敦等府事)점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復府都復育), 성능 부원군(南陵府院君)으로 영의정에 중직되었다. 시호는 익효(夏季)이다. 이와 끝이 청송 심씨 일가 는 3대에 결쳐 영의정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었고 심장의 8형제는 모두 관직에 온라 가문을 빛냈 다 그 후손들이 집보시 통전을 옹정리, 마송리, 김포시 장기통, 풍무통 등지에 정주하고 있다.

심순문의 차남인 심달원(沈遠麗)은 급천현감을 지내고 호조참의를 증적받은 심형(沈市)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통례원 좌통례(通禮院左通禮)를 지냈으며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으로 재임하다 기묘사화(己卯土徵)에 연루되어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과직되어 옥고를 치른 후 통진의 선영 하에서 조용히 여쟁을 보냈다. 사후에 이조판서를 증직 반았다. 심달원의 셋째 아들인 심전(沈銓) 은 경기감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증적되었으며 심전의 아들인 11세손 심우선(沈友湛)의 후손들은 감포사 대공면 약암리에 세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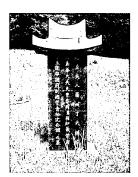
한편 심달원의 넷째 아들인 심수(沈麗)는 곡산군수(谷山郡守)를 저냈고 호조관서(戶曹判書)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중직 받았다. 11손인 심수의 첫째 아들 심우성(沈友聖), 선무원종공신 인 셋째 아들 심우신(沈友信), 다섯째 아들 심우인(沈友仁)의 후손들은 주로 대공편 약압리, 대능 리, 양촌읍 유현리, 학운리 등지에 장착하여 살고 있다.

현재 김포시 대꽃면 대능리 8번지 일원의 비석능산 자락에 학당굴이 있으며 이곳에 심우신가 (寒)의 세장지가 있다. 새로 제정된 도로명주소로는 대곶남로 57번지길 67-9(대능3리 17번지)에 있는 '한국지방자치아카테미' 건물 좌측에 자라하고 있다. 이 건물에는 14세손인 심재용(沈載能)(78)씨가 거주하고 있다. 이곳 묘지에는 주점을 수습하지 못한 심우신을 제외하고 심우신의 아버지 심수로부터 첫째 아들 우성, 둘째 아들 우현(灰質)은 물론 성우신의 첫째 아들 설허(沈龍), 동 훈대부행사업부지명경춘추관기주관(孫訓大夫行司嬴府辞平蒙恭教館記述官)을 지낸 심우신의 장

손자 심세탁(沈世鐸)과 심세탁의 둘째 아들로 통정대부 보온군수(通政大夫 報恩郡守)를 역임한 증 손자인 심사침(沈思沅)에 이르기까지 심우신가의 세장지는 세세연년 누대를 걸쳐 오면서 심우신의 기개를 지키고 있는 듯하다. 정작 학당굴(골)의 주인공인 심우신의 주검은 고향인 통진으로 돌아오 지 못하고 생전에 본인이 바라지 않던 상례에 따라 전남 장성에 혼백만 묻혀 있다.



(그림 2) 심우신 묘표



(그림 3) 심우신 후손 - 장남 묘갈



(그림 4) 장성 표의사

IV. 성장과정

심우신은 명문가의 자손답게 용모가 준수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글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여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살았다. 고매한 선비가 되는 꿈을 가진 심우신은 성장하면서 내심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더욱 문학에 심취하여 주야로 과도하게 독서를 하고 글짓기를 하였다. 그로 말미압아 운동부족으로 건강을 해쳐 소화불량에 의한 가슴앓이와 소간증으로 고생을 하였다. 다 이를 보다 못한 의사는 운동처방으로 심우신에게 활쏘기를 권했다.

아마도 심우신은 겉으로는 문약한 것 같았으나 외유내강의 강건함이 있었던 같다. 이러한 태생 적 성격을 집안사람들조차도 눈치 체지 못했다. 심우신의 이러한 성품은 마음의 활쏘기대회에서 나타났다. 언제나 십우신은 마을 활쏘기모임에 참가했다 하면 항상 백발백중 과녁(實革)은 마쳤기 때문이다. 심우신의 이러한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에 마음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확실한 일시를 알 수 없으나 하우는 한성부판윤 신립(中極)(3)이 아우를 대통하고 와서 심우신 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신병인 소화불량병을 지나고는 학문에 정진하기가 어렵고, 학문을 닦은들 허사가 된 수 있으니 오히려 그대의 숨은 재주인 무도(武道)를 닦으면 건강에도 좋고 나라로서는 간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대 자신에게는 남아로서 뜻 있는 일을 저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권 했다고 한다. 이에 심우신은 답하기를 "나의 성품이 원래 강적한데다가 무도로서 출세를 한다면 조금도 부드러움이 없어 최세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심우신의 둘째 아버지인 경기감사 심전(沈銓)과 6촌 형인 청양군 심의검(沈養維)이 신럽 의 이야기를 듣고 심우신의 아버지인 심수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의 도량이 보통은 아니나 신병이 있어 화문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이고, 신림의 권유가 일리가 있으니 무도를 닦는 일을 막지 말라" 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래는 화문을 탐구하여 선비가 되거나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나가 려 하였던 그의 꿈을 집고, 무반이 되기로 마음먹고 무도연마에 얼중하였다.

그 전과, 심우신은 1567년(명종22년 丁卯) 24세 되던 해에 식년무과에 급제하여 처음 선전관(宣 傳官)에 선임되었다가 도총부 도사로 숫진했다.

그 후 황해도 옹진현 현령으로 제수되어 목민관으로 3년간 근무했다. 당시 황해도 감사가 가까운 친구를 위하여 양민의 농지를 무리하게 강제 수탈하므로 이에 강력히 항의하다 감사의 노여움을 사게 됐고, 끝내 사표를 던지고 통진(通常)으로 귀향했다. 옹진을 떠날 때 백성들이 떠나지 못 하도록 길을 막으므로 밤에 몰래 개인의 말을 얻어 타고 옹진을 빠져 나왔다. 그 후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고, 일체 외부에 출입도 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목,을 살펴보면, 삼우신이 옹진현령 재임 중에 언어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용 볼 수 입다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 권7, 선조 6년 8월 16일 (癸亥) 4번째 기사 에 '사헌부(司憲曆)가 해주 목사(海州敦健) 유옥(尹玉)이 최 없는 백성을 옥사시킨 최로 논하다.'

한부가 아뢰기를 "해주목사 윤옥은 아랫사람의 거짓 꾸민 정소(모訴)를 믿고 한 최 없는 백성을 최악에 얽어 넣었고, 못 아진들은 몸래 옥준들에게 부탁하여 참혹한 발을 마구 가하여 마침내 옥중에서 죽게 했는데, 검시관(檢屍官)인 강영현간 송강(朱江)과 옹진현령(獎津縣台) 심우신(沈及信)이 부당하게 감싸서 병으로 죽었다고 핑계하였으니, 매우 늘랍습니다. 모두 먼저 파괴하고 나서 추고(推考)하소서, 복병사(北兵後) 곽순수(郭舜宗는 재기(才器)가 천단(淺朝)하니 가르소서, 하니, 상이 우선 곽숙수를 가는 일을 유해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심우신은 선정을 배푼 목민관으로서 선조의 신임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듣기도 하며 심우신이 벼슬길을 접은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후 심우신은 1580년(선조13년 庆長) 8원 25인에 부천상을 당하여 부친을 통진현 상곶먼 학현 에 예정하고, 1582년(선조15년 壬午)에 삼년상을 마친 즈음에 선조는 외우(外亞)에 대비하여 널리 장수가 될 만한 훌륭한 인제를 찾아 동용하여 배양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이에 당시 제상인 박순 (朴達)(4)이 심우신을 추천했다. 박순은 "심우신은 일찍이 서도 고음의 현령으로 있을 때 부하를 엄히 다스리고 덕을 쌓았으며 청백리로서 백성을 통솔한만한 인물로 부지런하고 천성이 강직하여 경험을 더 쌓으면 대임도 발길 만하다"고 적극 추천했다.

박순의 추천이 있고 난 후 강원도 홍주환관(洪州判官)으로 제수되어 2년간 근무하고 해임된 후 곧 이어 1584년(선조17년 甲申)에는 평양판관, 천양군수로 제수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사양했다.

1590년(선조23년 庚寅)에는 군기시참정(軍器寺会正)으로 제수되었으나 수개월간의 신병으로 체격하였다.

이어 심우신은 1591년(선조24년 辛卯) 10월 9일에 모친상을 당하여 집상중(蔡喪中)에 임진왜란 을 맞게 됐다.

1592년(선조25년 壬辰) 4월14일 뜻밖에 약 20만이 넘는 왜군이 9개 부대로 나뉘어 처 들이 왔다. 전투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산의 군·민(軍民)들은 참사 정밥(節級)의 지휘 아래 결사 항전 하였으나 성은 끝내 함락당하고 말았다. 부산읍 유린한 왜군은 동래성으로 물밀듯 처 들어 갔다. 이곳 군·민들도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의 지휘 아래 치일하게 백병전을 벌렸으나 중파무적으 로 패하였다. 그 후 왜군은 세 권로 나누어 서울을 향해 진격해왔다. 이에 당황한 조정은 신립 장군은 내려 보 내어 충주의 탄금대(彈쭉臺)에서 배수권을 치고 싸우게 하였으나 역시 왜척을 막아내지 못됐다. 이런 전황(戰況)속에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야인으로 있던 김명원(食命元)을 도원수로 임명 하였다. 김명원은 한강에 진(錄)을 치고 선조에게 "심우신은 무인으로서 그 제능과 무슬이 출중하 니 상중(喪中)이라도 제복(除賦)으로 기용하기를 청원한다"는 장계(狀際)를 올려 상중인 심우신을 갑자기 군(軍)의 중사관(從奉官)으로 임명하였다. 심우신은 어머니 상중이라 여러 번 사양하였으 나 왕명을 거역할 수 없이 어머니 영전에 울음으로 고별인사를 올리고 상복을 벗고 군복차림으로 부임하였다.

얼마 있지 않아 왜군이 서울 근교에 육박하자 선조는 4월 29일 세자와 함께 의주를 향하여 파천 (循環)하였다. 그리고 임해군과 순화군 등 두 왕자를 한경도와 강원도로 보내 근왕병(勤王兵)을 모 집케 하고, 이덕형을 몇나라에 보내어 위병은 요청하였다.

한편 한강에 진을 치고 있던 도원수 김명원은 군대를 과하고 선조의 과천행차를 돕기 위하여 배 행(紹行)하게 되니 심우신은 소속이 없는 종사관이 되었다. 생각 끝에 심우신은 통진 집으로 되돌 아 왔다.

그 사이 부산에 상륙한지 18일 만에 서울을 합락한 왜군은 다시 복진을 계속하여 임신강에서 도 원수 김명원의 방위군을 격파하고 개성을 점령한 다음, 이어서 6월 13일에는 평양마저 합락하였 다. 왜장 가능청정(加護淸正)이 이끄는 왜군은 북진을 계속하여 합경도까지 유런하고 왕자 임해군 과 순화군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평양이 함락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였다. 이 때 빈심이 극도로 흉흉하여 근왕병으로 지원하는자도 없었으며, 정부의 꾸능에 격분한 백성률이 피난하는 선조의 어가를 막으며 원성을 터뜨리기까지 하였다. 서울에서는 일부 노비들이 혼란한 등을 타서 노비의 문적을 말고 있는 장례원과 형조를 불질렀고 이로 말미압이 궁궐이 소설되었다. 그만큼 조정은 왜 청(倭役)에 대한 준비가 아주 꾸속했다.

V. 의병 활동

통진 집으로 돌아온 심우신은 서둘러 가산을 정리하고 6월 어느 날 가속들을 이끌고 피난길에 울랐다. 서해의 해로를 이용하여 처가가 있는 영광군 외서면 유평리(지금의 장성군 삼서면)로 이 주하여 농가에 정착하였다. 영광에 정착한 심우신은 10월 모친의 소상을 지내고 난 후 곧 이어 의 병을 일으키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군왕을 도와 보국하는 계획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심우신은 천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 나 무과에 급제하던 날, 이미 나의 이 한 목숨을 나라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물며 상증기용(挽中起用)이 된 바에 어찌 농촌에 엎드려 안일하게 내 몸이나 처자만을 돌볼 수 있겠는 가'라고 창의(倡義)할 것을 외쳤다. 먼저 하인들과 지원하는 장정 백여 명을 선발하여 의명의 대오 물 갖추고, 장인(林澤·백만장자였다고 함)으로부터 분배받은 2천석지기 농도와 나미지 가산을 천부 기우려서 의명을 모집하니 응모하는 자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総義) 두자를 써서 군기를 반들어 들고 장수가 되었다. 처남 임두훈(林遠春)도 부장(周將)으로 참권하였고, 그 의 중심요 원으로 박연준(林彦俊), 김부행(金富行), 최인(從資), 장충훈(丁忠湖), 김보원(金輔元) 등이 더불어 뜻을 같이 했다.

심우신은 삼시면 학성리 장천마을 앞 광장을 연병장으로 정하여 스스로 지휘관이 되어 군윤에 따라 의병들을 엄격히 훈련시켰다. 당시 의병이란 유생과 일반농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건장한 노북을 데리고 모병에 응모하는 유생이 많았다. 이들 의병들은 자기 병기를 쓰고, 자기 식량을 먹으며 국가를 위하여 적용 무찌르는데 생명을 바쳤다. 임진왜란 초기에 참패를 거듭하던 관군을 대신하여 삼남지방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크게 전송을 이룬 것도 이들 자원의병들이었다. 이들은 침략군인 왜군의 격퇴와 국토회복, 그리고 근왕(數正)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사집단이 엄다

임진의병의 거병은 국난을 당하여 자기의 향혼과 나라가 야만적인 왜군에게 깃발한다는 민족적 분발심과 저항의식이 크게 작용했고, 오랜 동안 유학을 수확한 나머지 몸에 밴 근왕정신(勤王精 詩)에서 비롯된 애국적인 의거였다.

심우신도 영광에서 거병하여 의병을 거느리고 서울을 수복하기 위하여 복상하였다. 복상하는 도중에 청주와 황간 등지에서 왜적을 만나 교전하여 적을 패퇴시켰으며, 12월 8일 삼우신의 의병부대는 마침내 수원까지 북상했다. 여기서 독성산성(左城山城)에 들어가 연합진신을 피고 수비하니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이 새 번이나 공격해 왔다. 이에 심우신은 기발한 전략을 써서 기습 작전으로 왜군의 선봉을 제알하니 다시는 담비지 못하였다. 이어 더 복상하여 양화진에서 창의사 건천일 장군을 만나 최견할 때 감천일 장군은 삼우신 의병부대가 군율이 있고 정예함에 놀라고, 또 심우신의 비분하는 모습에 강적하여 서로 생사를 같이 하자고 맹서했다.

그 후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장군은 강화에 주둔하고, 순찰사(巡察使) 권율(權懷)장군 은 행주를 수비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왜군을 압박하니 이듬해인 계사년 4월 18일, 풍신수길(豊臣 秀古)의 명령에 따라 왜적은 서울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1593년(선조 26년 癸巳) 4월, 명나라 원군이 당도하여 이여송(李如松)장군이 남으로 왜군을 추격할 때 창의사 김천일장군에게 의병을 거느리고 함께 가기를 요청하였다. 창의사 김천인장군은 함께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심우신에게 "그대의 부대는 그들과 같이 잘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에 심우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미 창의사 김천일장군과 함께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였으니 뒤로 떨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심우신은 아들(離)을 달래어 본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적이 곧 퇴각할 것이미 나도 머지않아 군졸을 해산하고 통진 집으로 돌아간 터이니 너는 반드시 영광으로 가서 가족을 때 리고 돌아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심우신의 행동은 마음속으로 남쪽 전선에 가면 다시 돌아오 기 어렵다는 것을 집작하였기 때문에 아들만을 본집으로 가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르지 살 신성인하여 보국하겠다는 인념이 굳게 점해져 있었던 것이다.

사실인즉, 심우신이 검천일 의병부대와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까닭은 김천일장군이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예하의 의병부대가 대부분 다른 장군에게로 이속(移屬)되었고, 남아 있는 여타의 병존들도 오랜 전투로 피로가 검치 쇠약한 자를 뿐이어서 아주 피쾌한 형편인데 비하여 심우신이 거느린 장병들의 정예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김천일장군은 대단히 기뻐하였고 군대를 연합하여 남하하기로 하였다. 심우신이 의병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갈 주음 조정에서는 심우신이 수원과 독성산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소식을 듣고 심우신에게 남양부사 검진무기보 (南陽府使兼置進級輔)라는 비슬을 내렸다. 그러나 심우신은 이미 남으로 내려간 후여서 부임하지도 않았다.

VI. 진주성 전투

임진왜란 전투가 장기화 되면서 아군은 호남지역의 동남쪽 산기슭에 배치되어 있었고, 왜적의 도진의홍(爲諱養弘), 소서행장(小西行此) 등은 경상우도에 나누어 점거하고 있어 각 연해지역에서 호남방면으로 첨입할 계략이므로 아군의 여러 장군들이 상의한 결과 왜적은 반드시 곡창지대인 호남지역을 넘겨다 볼 것이며 그 요충지는 진주라고 단정하였다.

그리하여 1593년 6월 14일에 능주 출신인 경상병사 최정희(慶尚兵使 崔慶會), 남원 출신인 충청 병사 황진忠淸兵使 黃進), 조방장 장윤(助跡將 張淵), 광주 출신인 복수장 고종후(復縫將 高從厚) 등과 디봄어 나주 출신인 참의사 김천일도 3천여 의병과 함께 진주성에 입성했고, 심우신도 액하 의병을 이끌고 진주성 내로 들어갔다. 일찍이 적은 1차 진주성 싸움에서 패전한 일이 있어 그 난품 이를 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앞서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한 테 대하여 왜국의 수령인 풍신수길(贯 臣秀宙)이 독전(行戰)을 심하게 하자 조선의 이름있는 도시를 합락함으로서 저들의 실책을 만화하 고자 하는 속셈으로 정병 10만 여명을 통원하여 6월 19일 의령현에서 진주성으로 처 들어왔고, 그 다음날인 6월 20일 진주성을 완전히 포위하였다.

진주성은 난공불락(難攻不滿)의 천연적인 요새이기는 하나 당시 전주성에 있는 참호라든지 무기들은 이미 쓸모가 없게 되어 있었고, 성내 주민이나 피난민들은 많으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전투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리고 수성군(守城軍)을 편성하면서 진주목사서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군은 진주성에 임성하기를 꺼려 창의사 김천일이 우도절제사(右鄰節制便)가 되어 수성군을 지휘했다. 삼우신과 처남 임두춘은 전투대장으로 부서 편성이 되었다. 수성군의 대부분이 각지에서 온 의병이어서 장수들이 직접 각 성문을 분담하여 지키기로 하였다. 조방장 장윤장군은 남문의 과수장이 되었고, 신우신은 동문의 과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충청병사 창진과 경상병사 최경회는 서문과 북문을 지키고 창의사 김천일은 지휘판으로 각방으로 왕래하면서 분전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적은 구갑자(億甲車) 같은 신부기를 사용하였고 높은 사다리를 실치하고 인공으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 그 위에서 조충과 같은 우세한 화력을 앞세워 밤낮으로 공격하니 포단이 비오듯 하였다.

아군도 성내에서 기통적으로 방어전을 펼쳐 적도 많은 사상자를 냈다. 그러나 적은 계속하여 신 병을 투일하고 병력을 충원 중강한 반면 아군은 병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보급로마저 차단되 이 화살마저 다 떨어져 갔다. 사력을 다하여 처절하게 접전한 지 6일 만인 6월 26일, 불행히도 먼저 충청병사 황진이 전사하고, 6월 27일에는 남분을 수비하던 조방장 장윤이 적의 흉탄에 쓰리지니 두 장수를 잃은 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다음날 적은 정예병을 충동원하여 성위로 기어올라 접중 공격하고 성물들을 빼어내 남문을 무너뜨렸다. 남문이 열리니 흉악한 왜적이 물밀듯 처 들어 와 잔인하게 유린하였다.

그 때 심우신은 동문을 지키다가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점확하고 곧 유서를 써서 하인에게 주어 집으로 보냈다. 그 글의 내용인즉 "무릇 장사(鄰事)라는 것은 그 시체(尸體)를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장에서 죽이 시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시 의관(衣冠)으로써 헛장사를 지낸다하니 이런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바이다. 내가 죽은 후에는 그러한 황당한 것은 하지 말고 반드시 진 주성이 합락되던 날을 기일(윤日)로 정하여 재를 지내면 죽하다."고 썼다고 한다. 심우신은 하인을 집으로 보내고 난 후 이내 창의사 김천일의 치소로 달려가나 김 장군은 최석루에 올라 있었다.

이 때 김천일, 최경회, 심우신 세 장군이 술을 따라 서로 권하며 "함께 죽어서 여귀(厲鬼)가 되어

적을 몰살하지"고 맹서하고 술잔을 던지고 일어서니, 김 장군과 최 장군이 먼저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했다. 심우신은 "나는 무인이다. 그냥 죽을 순 없다"하고 척석루 아래로 내려가 꿈을 등지고 서서 화살이 다할 때까지 적을 사산하고 활이 꺾이니 북쪽(왕이 있는 곳)을 황하여 사배한 후 남강 에 투신하여 순절했다. 이날이 1593년(선조 26년 풋른) 6월 29일이다.

이 2차 진주성 전투로 성 내외에서 6~7만 명(2~3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음)이 넘는 사 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진주성 전투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하는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유성县(柳成龍)은 2차 진주성 전두에서 성이 함락된 원인에 대하여 아군의 병세(兵勢)가 암도적으로 열세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수성군의 대응책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①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② 성중의 통제력이 상실되었다는 점
- ③ 사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 ④ 정진(鼎津)을 고수하지 못함으로 적병이 수륙 양면으로 진주를 공격해 왔고, 따라서 인접지역이 모두 적지가 됨으로 위병(极兵) 및 보급로(補終路)가 차단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성룡의 지적 외에도 「정비록(影響說」은 2차 전주성 전투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휘권 장악에 있어서 의병과 관군의 명령계통이 난립되었고,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전투를 담당한 대부분의 군사가 타 지역 출신인 김천인 · 고종후 · 심우신 등 취하 의 전라도 의병들이어서 진주성의 지리적 환경에 의숙하지 못하여 작전을 수행하는데 차결이 있 업용 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김천일, 심우신 장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회생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적으로 전주성은 합락되고 말았다. 후일, 은봉(隱業) 안병준(安邦位)은 전주서사(晉州叔等)라는 글로 진주성 전투가 있었기에 왜침의 확대가 저지되어 당시 남방의 보급기지로 중요성이 인정되었던 호남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VII. 군공(軍功)과 절의정신

진주성의 함탁이후 "조선왕조실록』(선조 40권)의 1593년(선조 26년 癸巳/명 만력 21년)7월 22인 (甲戌) 2번째 기사 "관찰사 김늑(金茄)이 진주성의 수성 절차, 사망자, 패전 후 상황을 보고하다." 에 의하면 경상우도 관참사 김늑을 치계(距階)하였다. 신이 처음 진주의 시태가 급하다는 것을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모든 수성(守城) 절차와 사망한 경외(京外)의 장사(將土)와 군인의 수를 탐문하게 하였더니, 본주(本州)의 군사가 2천4명, 보도 병 사(兵使)의 군사가 4백20명, 충청 병사의 군사가 97명, 창의사(智養使) 김천일(金千館)의 군사가 60명, 복수의병정(復籍奏兵術) 전사의(金土義)의 군사가 50명, 작개부정(執作副称) 이권(李港)의 군사가 50명, 표의병(慈義兵) 이게년(李桂年)의 군사가 50명, 용의대정(熊義代帝) 정원郡(鄭元漢)의 군사가 11명, 영광의병(懿光養兵) 심우신(沈友信)의 군사가 12명, 본의장(查義帝) 강희열(姜姫연)의 군사가 50명, 방의대장(方義大帝) 강희보(姜姫輔의 군사가 30명, 현웅군대장(玄雄軍代蔣) 장충훈(丁志訓)의 군사가 20명, 채의대장(蘇養代帝) 정문호(丁雲湖)의 군사가 1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개를 전해들은 것일 뿐입니다.

본주의 군시가 이 수에 그침 뿐이 아니고 또 계속하여 입성(入城)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성이 함락 될 당시 빠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상인(深入)의 무리들은 성을 뛰어넘 거나 혹은 해얼을 져서 탈출한자가 많습니다.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병사(兵使) 최경화(崔慶舎) 의 가치를 알 수 없으나 매우 걱정이 됩니다.

본도의 적세는 손을 쓸 곳도 없을 정도로 적이 사경(四境)을 포위하고 있는데 잔졸(梵卒)과 전 도망가고 없으니 이(幸) - 곽(紹(5)이 이런 일을 당한다 해도 어쩌힐 수 없을 것입니다."

로 기록하고 있다.

위 기록은 심우신이 영광에서 의병을 거병하여 오로지 보국하는 일념으로 의병활동을 한 의병 장으로 진주성 전투에서 최후를 맞은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 후 조정에서 임진왜란 중 선무공신 (宜武功臣)을 포상·서훈하는데 심우신에게는 선무원중일등공신(宜武原從一等功臣)을 수여하고 중적에는 관결사(到決事)를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었다.

이에 심우신의 장자 심허(沈淵)가 부친의 군공이나 업적에 비하여 서훈이 잘못되었다고 조정에 호소하였고, 김명원 등 조신들이 심우신의 논공행상에 억울함이 인정된다 하여 논의를 거쳐 추가 로 병조철판 검둥지의급부사(兵曹蒙判 景局知義禁宿事)를 중작했다.

또 『조선왕조실록』 선조 96권, 1598년 (선조 31년 戊戌/명 만력 26년) 1월 26일(王子) 7번째 "고 군기시청짓(軍費幸食正) 심우신에게 군공에 따라 상과 광작은 내리다"는 기사를 보면.

"고(欽) 군기시침정 심우신의 관작을 추증(追嘯)하였다. 우신의 아내 임씨(林氏)가 비변시에 정장 . (呈狀)하기를, 가용(康翁)이 일찍이 임진년에 모상(母喪)을 당해 영광의 농사(廣舍)에 있었는데, 기복(裁壞)의 명을 들고서 전태(田行)과 가재(家財)를 모두 팔아서 군당(耶理)과 군기(軍務)를 준비하여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곳에서 적과 싸워 많은 적을 잡고 목을 베이 현저한 군광을 세웠습니다. 제시년 여름 충청병사 황진과 함께 행군하여 진주성을 지켰는데, 포워된 지 8일 동안 밤낮으로 항거하며 싸우다가 끝내는 성이 함락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후 장계(珠)점에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장사들은 모두 상은(質問)과 증진(知)함을 받았는데 가용인 우신만은 유 목록 상점을 받지 못했으니. 지하에서도 위통함과 역을함을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 상

(上)이 원하는 대로 시핵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심우신은 가산을 정리하여 의병을 인으였고, 목숨을 마쳐 보국했는데 사후 조정으로 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한 것은 제상인 유성룡이 제찰사 시절, "조정이 등한하여 왜적의 동정만 살피다가기회를 잃었다"고 논박한 심우신의 상소가 유성룡의 미움을 사게 했고, 그로 말미 암아 그런 푸대접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글이 심우신의 가승(6)에 기록되어 있다. 공 교롭게도 조정에서 임진왜란의 선무공신을 등록할 때 그 서열과 공성을 유성룡이 전담하여 평가 했고, 심우신이 보국한 여러 전공(戰功)과 특히 수원과 독산산성 전투에서 세 번이나 연승하여 적 을 물리친 공격 등이 목살되어 신무원종1등공신 중(原) 관건사로만 등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십우신이 처음 의병을 일으키던 때에는 큰아들 심하는 나이가 겨우 20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심우신이 출병할 때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더니 심하는 여러 날 음식을 전폐하고 울부짖으며 종군하 기를 간청하므로 할 수 없이 종군을 허락했다. 아들과 함께 수원에 이르렀을 때 적이 남쪽으로 패주하자 심우신이 아들 심허에게 이르기를 "나는 원래 벼슬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번에는 국난을 막기 위하여 의거를 하였거니와 적이 이미 패전을 하였으니 나는 군대를 해산하고 통진(施津)으로 돌아간 것이니 너는 곧 영광으로 가서 가족을 인출하고 오도록 하라"고 말하고, "만약 적이 영남지 방에 주둔한다면 반드시 측면으로 호남지방을 침략할 것이니 너는 빨리 갔다 와야 할 것이다."라고 본부하여 아름 심하를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심우신은 창의사 김천인과 함께 남쪽으로 진군하였다. 아들을 되돌려 보냈 것은 남쪽으로 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아름에게 좋게 말을 꾸며서 타일러 보낸 것이다.

그 후 진주성이 적에게 함박되기 이들 전에 심우신은 유서 두 장을 써서 되가 있고 용기가 있는 아이종에게 영광 집으로 전하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빠져 나간 수 있다면 몸을 날쌔게 하여 빨리 가 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 아이중은 깊은 밤에 겹겹이 청동과 같은 진주성을 가만 가만 기어 나오다 적의 통탄을 두어 군대 맞고, 간신히 영광 땅에 도착하여 편지를 전하였다. 편지를 받은 아들 심허 는 그제야 아버지 심우신이 진주에 계신 것을 알았다.

심하는 영광을 출발하여 밤낮으로 걸어서 진주에 도착했다. 진주에 도착하니 진주성은 이미 함 락된 지 수십 일이 지난 후였다. 적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간 후에 진주성 내로 들어가 보니 해골이 쌓여 성 높이와 같고 무더위 속에 장마비까지 계속되었다. 적병들이 전사자의 시체에서 좀 성한 옷 은 모조리 벗겨 가 더욱 누가 누군지 분별할 도리가 없었다. 심하는 주야로 울부짓고 돌아다니며 아비지의 시신을 찾고자 남강 강가와 송장더미 속까지 뛰쳤으나 끝내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했 다. 하는 수 없이 김천일강군, 황진장군 가족들과 함께 초혼(招观)만 하고 돌아왔다. 진주성 안에는 군인과 민간인의 사망자가 6만여 체(體)이고 노약자로서 시채사이에 끼어 있다가 살아온 자가 한 두 사람 있을 정도였다. 그 예로 본군의 군교(軍校)를 지낸 육십 노인 강씨(養氏) 가 시체를 등에 업고 엎드리 있다가 목숨을 건졌다면서 심허에게 말하기를 "적이 입성할 때 최석 루에 있던 김천일 장군이 동문을 지키던 십 장군을 만나서 숨을 따라 서로 맹세하고 적을 쏘아 죽 이다가 힘이 다 하자 서로 연달아 물에 빠져 사망하였고, 또 왜적은 끝까지 잘 싸우다 전사한 아군 의 시체를 보면 반드시 옷을 벗기고 그 육신에다 칼로 난도권을 하는 극악한 놈들이오, 나의 천족 중에 김 장군과 같이 전사한 사람이 있기에 적이 철수한 후에 시체라도 찾으려 하였더니 도무지 알 아볼 수가 없이 되었소." 하고 당시 참사용 이야기 하였다.

심우신은 일찍이 그러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전면 아들 심허에게 보낸 유서 중에 "사람의 주 검을 장사(舞事)한다는 것은 그 육신을 감추기 위함이다. 전장(職場)에서 죽어서 시체를 찾지 못할 경우, 본인의 의관(衣冠)으로서 헛 매장을 하는 중속이 있으나 그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침으로 내 가 항상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죽거든 그처럼 황당한 것은 하지 말고 그저 진주성이 함락 되던 난을 사망일로 정하여 제(察)를 지내면 족하니 부디 이 말을 배반하지 말라"고 썼고, 또 다른 한 편지에는 "의가에 대한 일을 잘 보살펴 처리하라"고 썼다.

VIII 이간 심우신

평소 심우신은 어버이 공양에 극진하여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갖추고 노래와 음악을 저녁 늦도 록 하였다. 어버이가 즐거워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였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어 화락한 나날 음 보냈다. 또 집안에는 첩(炎)이나 중첩이 없었으며 내실의 출입을 엄정히 하게하고 하인을 부림 에 있어서도 어버이 봉양하는 일과 내객의 절대하는 언에만 입을 시켰다.

심우신은 평생 동안 지기(志氣)를 숭고하게 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였으며 남의 선행을 보면 반 드시 청찬하여 장려하였다. 남의 불선(不審)한 행위를 보면 준임하게 꾸짖었고, 비록 절원한 친구 이거나 동료 간이라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백격하였고, 스스로 자복(自服)하고 개과천신(改善逐 환)하면 전보다 더 천애하지만 끝내 개준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중 모른다면 단연 정교하였다.

이러한 심우신의 강직한 품성은 많은 사람들의 경모(敬慕)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원망하는 자도 있었다. 원래 심우신은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아 한잔도 하지 못하지만 늘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고 내객을 환영하여 객실은 항상 내객들로 화기가 넘쳤다. 자신은 술을 못 마시지만 내객들에게 술을 권하고 서로 권하도록 하여 내객들의 술 취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가산을 정리하여 의병을 거병하였듯이 심우신은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동정심이 많아 남의 곤궁함을 돕는데 아까운 것이 없었다. 비록 천성은 호방하지만 사색도 깊어서 내객이 없을 때에는 단정히 앉아서 독서를 하였고, 소화불량으로 신기(身氣)가 피곤하면 투호(投壺)를 하거나 활쏘기를 하여 기분을 창쾌(結於)하게 하였다. 그리고 심우신은 군사(文士)나 학자들이 흔히 앓고 있는 소갈병(宿傷病)을 앓고 있어 차고 시원한 것을 좋아했다. 그리하여 6월 유두일(流頭目)에 중속대로 수단(水園)을 만든게 되면 심우신은 그 꿈물을 단번에 두어 대접색 마시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나의 명절이다. 옛날 송나라 악비장군(岳飛絳軍)(7)으로 하여금 그의 평생소원처럼 황룡부(黃龍府)에 가서 술을 실컷 마시게 한다면 그 통쾌한이 이와 간을 장이다"라는 과장된 표현도 하였다.

심우신이 홍주관관에서 해임되어 돌아갈 때 수행하던 지방민이 심우신에게 고(告)하기를 "관고 (官庫)에 상납물(上熱物)과 토산물(土産物)이 가득 차 있으니 포목을 내어 포장 과녁(貴革)이나 만 들어 가지고 가 십시오" 하였다. 이에 심우신이 말하기를 "나의 서울과 시골집에는 피륙이 썩을 판이고 곡식도 썩어가는 터이므로 포장 과녁 수십 장이라도 한번 분부만하면 만들어 낼 수 있기들 무엇 때문에 관고의 물건을 쓰겠는가,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관청의 것을 취한다면 사람들은 나 롭 본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후 영광에서 의병을 일으킬 때 심우신이 가산을 기우려서 군수비(軍需費)를 충당하자, 한 친척이 심우신에게 "가재(家財)를 탕진하고 파산까지 하면서 의거만을 위한다면 불행한 자손들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서 자손의 몫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고 권고하자 심우신이 대답하기를 "옛난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이 평생을 자신만을 위하여 호화생활을 하였는데 원단 의병을 일으켜 위나라로 들이긴 후에는 과기의 습관을 모두 비리었으므로 내가 늘 그를 경고했고, 북제나라 고환(高數)의 재물이야기처럼 제물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물며 국난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미 신명을 나라에 받쳤거늘 그 권고에 동의할 수가 없다. 만약 적들이 전국토름 유원한다면 남긴 재물이 자손의 것으로 되겠는가. 그대의 권고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후세에 가서는 (충신의 자손)이라고 할 것이니 그러한 것을 남겨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했다. 재물을 남겨주라고 권고하던 친척은 탄복하며 부끄러워 어제 할 중 끝랐다.

원래 심우신의 가정은 대대로 변한하였지만 의가와 처가가 백만장자이기 때문에 심우신은 어려서부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위해서는 퍽 윤택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의병을 일으킨 후부터는 병존들과 함께 막사에서 고락을 함께 했고, 취하(麾下)의 장병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우신은 평생 자신(自信)과 자주의식(自主意識)이 강하여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않으려 했다.

피통적이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도 않았고, 조금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떤 권력자나 귀축에게도 이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쟁심으로 자기를 누르려 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않고 자신 의 행동만을 삼가서 했다. 외부로 출타를 하더라도 친구의 경조인사나 형객들과 축근들의 집만을 방문했다.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남보다 앞서리 하지 않았으니 이는 세정(世情)에 어긋나는 대도로 환로(庭路)에 차진용 가져왔음도 이 때문일 것이다.

원래 심우신의 첫 번째 부인은 보천부정(前川副正) 이억년(李億年)의 딸로 일찍 졸하였고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다. 상처를 한 심우신은 그 후 선교랑(宣教師) 임식(林湜)(본관:長興)의 딸과 혼인했고, 후일 그의 공훈에 의하여 정부인(貞夫人)으로 봉(封)하게 되었다.

심우신은 슬하에 세 아들과 세 딸을 두었다. 첫째 아들 허(勝), 둘째 아들 극(影), 셋째 아들 계 (誠)이다. 세 딸의 서랑(頻郎)은 강극숭(姜克本), 성준영(成俊英), 이화웅(李京龍)이다. 큰아플 심 허는 조정에 두 차례나 상소를 하여 아국(我國)이 왜적과 화천을 통합은 부당하다고 적극 반대하 고 고향인 통진에 온거하며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특별히 임용하는 명에도 취임하지 않고 여생음 마친 후 이조참관(度賣泰利)으로 중적되었다.

심허는 아들을 듣 두었는데 첫째 아들 세탁(世輝)은 문과에 급제한 후 지평(特平)을 지냈으며 둘째 아들 세정(世鼎)은 문과에 급제한 후 감사(監司)까지 역임하였다. 심우신의 둘째 아들 심극도 두 아들을 두었는데 세언(世彦), 세절(世傑)이다. 심우신의 셋째 아들 심계는 교관(教官)으로 피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두 아들을 두었으나 세영(世英), 세용(世雄)이다.

심우신의 첫째 사위 강국승은 독자 이경(環) 두었고, 둘째 사위 성준영은 독자 원(遼:참정역임)을 두었으며, 셋째 사위 이화웅(문과급제, 현감 역임)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시빈(時舘), 시검(時香葉)이다. 다음 세대로 심허의 첫째 아들 세탁은 네 아들은 두었는데 사혼(思羅)은 일찍 죽고, 사침(思証:현감역임). 옥(木衛)은 출계(出難)하고 다음 사충(思冲)은 일찍 죽었다.

둘째 아플 세정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사홍(思恋:지평역임), 사장(思恋:봉사지냄)이다. 심우신의 둘째 아들 심국의 첫째아들인 세언은 독자 사노(思老)을 두었고, 둘째 아들 세걸도 독자로 사합(思面)을 두었다. 심우신의 셋째 아들 심계의 첫째 아들 세영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사숙(思說)각역), 사평(思認), 사업(思說), 사합(思漢)이다. 둘째 아들 세용도 네 아들을 두었는데 사윤(思潮), 사명(思濟), 사명(思濟) 이다. 둘째 아들

IX. 창열사(彰烈祠)와 심우신

창열사는 경남 문화재자료 제5호로 1983년 7월 20일 지정된 사우로서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1길 15-6(남성동 213-3)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당은 진주성지안에 있는 7동의 건물로,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싸움에서 진주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장렬히 순절한 인물들의 신위를 모시기 위하여 정사호(蘇賜湖)가 건립하였다. 1607년 (선조 40년)에 사액 받았다. 그 후 1712년(숙종 38년) 병사 최진한(崔鎮漢)에 의하여 중수되었고 1871년(고종 8년)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패 때에도 훼철되지 않았다. 그리고 1868년(고종 5년) 제1차 진주성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김시민(金時敏)상군을 모신 충민사가 홍선대원군의 서원철패령에 의해 훼철되자 감시민장군의 산위도 함께 모시게 되었다.

이 사당에는 충무공(忠武公) 전주목사(晉州敦使) 김시민(金時欽)의 신위를 맨 위에 모시고, 그 다음 문열공(文烈公)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鐘), 무민공(武惠公) 충청도병마철도사(忠淸道兵 馬節度使) 황건(黃進), 충의공(忠毅公) 경상우병사(慶尚右兵使) 최경희(崔慶會), 충의공(忠毅公) 장윤(張潤), 효열공(孝烈公) 고종후(高從厚), 증이조판사(贖東曹判書) 유복립(抑復立) 등 일곱 선 위를 점면에 열합(列至)하고 있다.

이 의에도 의병장 이참(李語), 김해부사 이종인(李宗仁), 김천일의 아들 김상건(金象稅), 의병장 양산숙(梁山灣), 우병우후(右兵虞侯) 성영달(據顯達), 의병장 강희열(養熙稅), 거제현령 김준민(金 俊氏), 진해현간 조경형(賈慶亨), 청정 윤사복(尹思復), 판관 최기필(崔琦弼), 의병장 유합(命铭), 생원 이옥(李福), 의병장 강희복(黃熙復), 수문장 강윤헌(張胤賈), 의병장 손승선(孫承濟), 주부 정유정(鄭惟敬), 수문장 김태백(金太白), 판판 박승남(朴承男), 선부장 양제(梁韶), 학생 이인민(李仁 民)·하계선(河繼光)·박안도(朴安道)·최연량(崔彦亮) 등 진주성싸움과 관련이 있는 39명의 선위를 배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창열사 배향에 당연히 들어 갔어야한 심우신이 제외되었다. 사액될 당시 왜 심우신이 배제되었는지, 그 경과를 아무도 모른다. 이에 격분한 호남지역 유림들이 심우신의 배향을 상소하 였다. 진주성싸움이 있고 나서 60년이 되는 해인 1652년 (효종 3년 王長/8월 진사 이장운(李帝達) 외 수백 명이 연서로서 효존대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등이 삼가 아뢰옵건대 무릇 공훈이 비등(此等)하되 포장(褒獎)이 다르면 충의(悲義)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노고(勞苦)가 같은데 보상(報償)이 다르면 권계(動戒)의 길이 막히게 되옵니다. 그러므 로 군국(寒國)에 순사(殉死)하는 사람들은 그 지기(志氣)와 절개가 같으며 공훈과 업적이 같기 때

문에 비록 세대가 다르더라도 한 시당(商堂)에서 제항하거들 하물며 동일한 시기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동일한 시일에 손정하였은에도 그 항사(후원)의 의전에 있어 같거나 다른바가 있다면 그 어찌 현중(陳弥)을 기념하고 성심(威心)을 권장하는 법도(法度)에 경점이 아니겠나이까. 신등이 산 생각하오면 증병조참판인 심우신은 그의 열렬한 총의는 찬성에 의한 것이고 수원(秀越)한 재 랑은 기절에 발견(後觀)한만바 … 중약(십우신의 항장과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 내용) … 그러한 사적은 분명히 공신록, 전현일기, 기타문집 가운데 기재되어 있어 하나 하나 참고할 수 있사오며 그 위대한 총절은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나고 천지와 더불어 일원하다고 임렬어도 가합니다. 후 일에 조정에서 그의 공용을 기념하고 그의 총멸을 포장하여 특히 증병조참판으로 추가함으로서 애홉(호현)의 예우를 배꾸십은 최후를 위무(段)환)함에 거의 유감된 바 없사오나 단(데) 그 업적을 박내고 충점을 나타내는 구정에는 오해려 미네한 바가 있습니다

아! 국가가 제신(諸臣)들이 절의로 죽어간 지역에 관심(關心)하여 진주에 창열사들 창설함으로서 영령을 안온케 하는 곳으로 삼고 그들의 성명과 작위을 표기하며 특히 과기에 대해 의염(義烈)을 표칭하여 그들의 충성에 보답하고 또 정리에 대해 존송(象崇)힘을 표시하여 그들의 명성을 진작 케 하기 때문에 가기에는 빈환자(食寒者)로서도 가입하며 미천자(敬賤者)로서도 참여할 수 있었 으니 그것은 대개 주검에 임하고 생명을 던지는 절개만을 취하는 것이옵거들 아깝게도 우신은 그 충절을 탁월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일괄로 예우하는 전례(典觀)에서 누락되었사오니 이 여 자신에 관정하던 신하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망각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할 수 있겠나이 까

우신의 그 선미(善美)하고 열렬한 업적은 지금도 완연하게 만인의 이목 앞에 펼쳐 보이거늘 이저 구구하게 제사를 받고 있음은 비록 적은 일이오나 한 국가로서 충절을 포장하는 조치에 있어서 야 어찌 결한된 의점이 아날 수 있으며 또 당시의 충신열사의 양명(美明한 신령(神靈)들로서도 어 찌 자기네만 제물의 흠향(畝茅)을 준비할 때이면 창열사의 현액(聽顧)을 서로 기리켜 보며 길게 탄 식해 말하기를 '홈럴은 심우신과 같은 이 없거늘 그 분만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국기의 사전(紀美)이 공평하다 하겠는가. 슬프대 공론이 민멸(足刺할 수 없거늘 이럴 수가 있는 가.'라고 워동해 하옵니다.

신들은 같은 남도시람으로서 항상 듣는 비로는 우신의 끼친 충성(風聲)과 의열(義烈)에는 누구나 그 놈ੜ(激劇함에 떨리는 바가 있시오며 그룹 경모하는 마음은 국기의 애흡하는 규정에 그처럼 결함이 있음에 매우 분개하는 동시에 선열의 충혼에 원현(致烟)이 매침을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 그러하오나 머나 먼 친리 길에 발이 묶이어서 다만 같은 소리로 함께 부르짖어 우러러 호소하오 나 이는 또한 공변된 마음이 상도(紫節)에서 우라나몸이라고 하겠습니다.

애 심우신은 김천일과 더불어 국난에 함께 죽고 대절(大箭)을 함께 이룩하였사오니 그의 공로가 같으며 그의 충렬도 같다면 그를 우대하는 제사의 의례도 마땅히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비라옵건데 전하께서는 그 충절의 포장하는 규범을 넓히시고 제황으로 보답하는 의전을 골 고루 가추시오며 의전관(儀典官)에게 특명하시와 지난 일을 널리 고칠케 하심으로서 증병조참판 삼우신을 진주의 창업사에 제신의 반압에 추가 항사하도록 허락하시와 명도(反道)에서 오랜 동안 원물(策朝)하던 영령을 위안하여 주시며 쇠퇴해가는 사회의 기정(氣風)을 격려하여 주시면 천만 (千萬)생캠(生光)이 되겠나이다. 이상과 같이 심우신을 진주 창열사에 추가로 배향하여 달라고 하는 상소에 대하여 효종은 "상소 는 자세히 보았으며 글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명하여 품의 처리케 하겠노라."는 비답문(批 答文)을 보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심우신의 추가 배향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후 임진년이 두 번 지나고 그 다음 해인 1773년(영조·49년 癸巳)윤 3월에 진사 박하진(朴夏黨) 등이 영조대왕에게 쓴 상소문 내용을 살펴보면 121년 전에 효종에게 올린 상소가 효종의 비답문과 는 다르게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상소문의 말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전약)…

> "그때 상감(효종인금)께서 곧 비답하기를 '체당부서에 명령하여 품의 조치케 하겠다.' 고 내리셨으나 어인 일인지 그대로 처연세월(處越索月)하여 끝내 조정의 공의(公説에) 화부되지도 않았사 오니 그 슬프고 애석환을 어찌 해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계시년을 당하여 중서여론(衆庶與 論)의 비동화을 처아 문과할 수 없시와 준기를 무릅쓰고 우러러 주청하용나이다

> 삼가 원하옵건대 성산께옵서는 특히 우신의 그 충정(忠貞)한 대極(大師)이 최·황 두 장군의 탁월 함과 동일한 바를 깊이 살펴시고 급숙히 전례관에게 하영하시어 시호(證拠)와 사액(問題)음 하사 하심으로서 구천에서 혜매는 억울한 혼을 위안하시와 모든 시림들의 한결같은 소망에 부용해 주 시오면 PPP 다행이겠셔요나이다

신등은 황송하옵게도 기원의 간절하음을 견딜 수 없어 이에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위의 상소문은 영조에게 상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심우신의 창열사 배향문제는 아예 조정에서 공의에 회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조 조에 공평하지 못한 논공행상 이 전주성 싸움이 있은 지 420억년이 지난 지금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다.

X. 장천위사적(長川院事蹟)

심우신 사후 조정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당시는 영광)에 80정보의 땅을 사괘지로 주었고, 심우신은 이곳, 식숙산(石僧山)에 예장되었다.

1713년(숙종 39년 癸巳) 6월 20일 호남의 유림 명사들이 힘을 모아 심우신이 의병을 일으켜 훈련 시키던 고을인 영광의 장친고울에다 원(院)을 세우고 장친사(長川祠)라 명명하고 심우신의 신위만 을 배향하여 제항을 받뜰기 시작했다.

그후 이재형(李齊衡)이 군수로 부임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백성을 극진히 구흉하고 청백리로서 선정을 배풀이 온 고을을 편안게 한 그를 장천원에 추가 배향하였다. 그리고 이재형의 아들 이단석 (李嶷錫)이 천라남도관찬사로 온 후 그의 선치(蓋治)에 합입은 바 큼으로 그를 또 배향하게 되었 다. 2백여 년간 제향을 받들어온 장천사는 1868년(고종 5년 戊辰)에 홍선대원군의 서원철쾌령야 따라 훽철되었다.

그 후 사람들이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조정에 복원해주기를 수차 진정하고 또 상소를 거둬한 진과, 1882년(고종 19년 壬午)에 단(堂)을 쌓고 향화(在火)를 배풀라는 고종의 승인을 얻었으나 여 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축단(築壇) 하지 못하였다. 1903년(광부 7년 葵른) 6원, 이재형의 후손인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李棋龍)의 후원과 청송십씨문중이 힘을 합쳐 장철사 옛터에 축단하고 유 적비를 세웠다.

이 비의 비문은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가 글을 것고, 자한대부 행지돈명지군수 심건택(沈純澤) 이 글씨를 쓰고, 통정대부 비서원승 심계택(沈序澤)이 '홈충경현비(欽惠景寶雜)'라 전서했다. 그 러나 이 심우신의 사적지가 상무대 이전부지로 편입되면서 1989년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73번지 부귀마음에다 사당을 다시 건립하였고 이름을 표의사(趁養制)라 하였다. 趁養는 심우신이 의병을 장의하였을 때 기치로 내세운 두 글자로 목숨을 바쳐 보국하겠다는 심우선의 절의정신과 무인정신이 배어 있다 하겠다.

사당을 이전하면서 이재형, 이단석의 신위는 후손들의 요청에 따라 이곳에 배향하지 않고 심우 신의 신위만을 배향하고 있다. 매년 음력 8월21일, 심우신의 출생일에 제항을 올리고 있다. 임진년 에 의병을 거병하여 훈련시키던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에 육군 상무대가 자리를 잡은 것은 의병장 심우신 장군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19%년 9월 12일, 상무대 입구에 의병장 심우신 장군의 호국정 신과 멸사봉공의 정신을 거리기 위하여 심우신 장군의 동상을 새웠다.

XI .맺음말

심우신의 행장을 살펴보면 심우신은 1544년(중종 39년甲辰) 8월 21일 검포에서 태어나 근 48년 여를 김포에서 살았다. 1592년 임진왜란을 피하여 영광 차가 집으로 가서 장인으로부터 분배받은 2천석지기 능토를 팔아 군자금을 마련됐다. 그리고 의병으로 출전했다. 그렇게 본다면 심우신이 영광에서 기거한 것은 채 1년도 안될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영광지역 뿐만 아니라 호남과 호 서지방의 선비들까지 심우신의 군공에 비하여 포장(後錄)이 잘못되었음을 문개하였고, 진주 창열 사에 배황이 안 된 것에 대하여 요로에 동문을 보내어 동의를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그의 고향인 통진 지역에서는 유림들조차도 별 움직임이 없었던 같다.

편자는 이전이 아쉽다. 왜곡된 역사의 호름은 여론에 힘입어야 그 호름을 바로잡을 수 있었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역사의 경우도 임진왜란이나 진주성짜음 등의 기록을 보면 모두 "창의사 김천일 의병장 등 은…"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개가 '등(等)'에 파묻혀 있다. 독산산성 전부에서 세 차례나 혁력한 전 공음 세웠는데 "오산시사』나 "수원시사』에도 마찬가지로 "김천일 의병장 등은…"으로 기록하고 있 어그 많은 의병장들의 활동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때문에 보다 더 상세한 조사와 연구가 핀요하다.

김포가 낳은 의병장 심우신 장군이 순절한 지 4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심우신 장군의 푸대점은 아직도 역사의 기목에 남아 계속되고 있다고 해야 한 것이다.

필자의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역사인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보다 더 심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역사학적으로 심우신 장군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거가 심우신 장군의 순절을 재평가하는 계기로 마련되길 바란다. 그렇게 하여야만 창열 사 배향문제도 재돈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註] 해설

(1) 이단하(李端夏): 1625(인조 3년) ~ 1689(숙종 15년)

조선조 숙종 때 문신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지는 계주(季期), 호는 의제(畏靡)・송간(松欄), 시호는 문송(文忠)이다. 관석 백당(澤常) 식(植)의 아들이다. 1642년(인조 20년 壬午) 식년시에 진사 3등 1위로 합격하였고, 음보(族補)로 벼슬에 나아가 공조확량으로 재직 중 1662년(현중 3년 壬寅) 증광시 윤과 1위로 급제하였다. 그 후 정연・부교리・용인협장・현남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북평사로 있을 때 감사 인성중(問題重)과 함께 임전돼란 때의 의병장 정문부(鄭文字)의 사 적을 조사하여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키고, 사당을 세워 충열사(思題詞)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였다. 부교리로 있을 때에는 귀양증의 제신들을 속히 사면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1669년 이조정당이 되어 각사(各司) 노비의 공안(實案)을 정리할 것을 청하여 신공(身實)을 반 평씩 감하게 하였다. 이어 교리로 정서교정청(經書校正驗)의 교정관이 되고, 훈련별대(訓錄別除) 의 창설을 주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그 뒤 용교·사간·사인 등을 역임하고, 1671년 동부승지 가 되고 다음해 이조참의가 되어 중종의 패비 신씨(復氏)의 신주를 신씨 본손의 집으로 옮기게 하 였고, 대행왕(大行王)의 시장(鑑狀)과 행장(行狀)을 찬숨하였다. 1674년 대사성으로 대재학을 겸 임하였다. 이어 숙종이 즉위한 뒤 서인으로서 제2차 복상문제로 숙정을 당한 의례제신 처벌의 부 당성을 상소하다 과직되었고, 이듬해 삭직 당했다.

1680년(숙종 6년)에 다시 등용되어 홍문관 제학이 되어 (현종개수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82년(숙종 8년) 대사현으로 각동(各陵) 기신제에 유과 및 과인 위에 덮는 채색 꽃을 감하여 제사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고, 1684년(숙종 10년) 예조판서가 되어 사창전목(社介節目)과 선묘보감(立 斯寶麗)을 지어 유럽다.

1686년(숙종 12년) 우의정이 되어 사창 설치의 다섯 가지 이익을 건의하였고, 죽을 죄인에 대하여 삼복(三覆:三審制)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그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행판돈 평부사(行刺敦寧府使)로 있다가 죽었다. 그는 무력해진 의정부의 가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사창제도를 설저히 실시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돌불 것을 역설했다. 일찍이 송시열의 문하에서 배웠고, 화문이 뛰어났으며 1683년(숙종 9년) 노·소른(老少論)이 일어나자 송시열을 응호했다

저서로는 문집인 의재집(投資集)과 편서로 북관지(北閩誌)가 있다. (아마도 이단하가 심우신의 행장을 쓰게 된 동기는 의병장 정문부의 사적을 조사하여 추증과 사액을 내리게 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2) 학당굴: 지금 김포시 대공면 대농3리로, 옛 수안현 최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 수안현이 통진현에 흡수 · 편입되었으나 당시 향교가 있었던 곳으로 학당(學堂) 골이라 불렀고, 그 후 학동(韓嗣)굴이라 부른 적도 있다고 하며 '학 같은 신천이 노니는 병당'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청송 심씨 가능에도 심우신의 아버지 심수의 묘소가 있는 곳을 학현(韓規)이라 표기하고 있다.

(3) 신립(中砬): 1546(명종 1년)~1592(선조 25년)

조선조 선조 때 장군, 자는 입지(立之),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생원 화국(羅屬)의 아들이다. 22세에 무과에 급재하여 선진관·도총·도 사를 거처 진주판관이 되었다. 진주판관 시절, 진주목사 양응정(疑應期)에게시 화문을 익히고 후 에 온성부사(穩城府使)가 되어 누만강 건너 나탕개(尼湯介)의 소균을 소탕하였다. 이 공로로 한경 복병사(威境北兵使)가 되어 나탕개의 목을 배었다. 그는 오랜 북병사 근무로 부모에게 불효를 하 게 되자, 북병사를 사임하고자 하였으나 선조는 현적으로 부모를 배알도록 했다. 그가 서울에 도 착할 때 선조는 원히 마중 나와서 피 묻은 그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혀 주었다. 그가 다시 임 지로 들아갈 때 역시 선조는 교외 까지 가서 원히 전송했다. 인적이 선조는 신립에게 자녀이야기를 문고 자기가 혼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말말은 신성군(信城書) 우와 혼인시켜 주었다. 이어 평안보사(平安年使)를 거쳐 중앙의 한성부 판유(孫城府 위판)이 되었다. 1592년(선조 25년 壬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4월 17일 선조는 그를 도순면사(都巡邊使)로 임 명했다. 전쟁터로 나아갈 때 선조는 천히 보검을 주어 적려했다. 그러나 충주 달천에서 왜장 소서 행장이 이끄는 적을 막지 못하고 탄금대에서 투신 순정했다. 후에 역의정에 추증되었다.

(4) 박순(朴淳): 1523(중종 18년)~1589(선조 22년)

조선조 선조 때 재상, 자는 화숙(和叔), 호는 사암(思禮),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본관은 충주로 우운(右尹) 우(紹)의 아들이다. 서경덕(徐敬德)에게서 글을 배우고 같은 문인(門人) 이퇴계와 사귀 었다.

1553년(냉종 8년) 정시(庭試)에 강원급제한 후 1572년(선조 5년)에 우의정이 되었고, 1579년 선 조 12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퇴계와 율곡을 도와 사인으로 주목까지 받았으며 동서 분당이 확실 시 되자 영평백운산(永平白雲山)에 숨어 살았다.

저서로는 사암집(思庵集) 6권이 있다.

- (5) 이(季) · 곽(郭) : 안녹산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이 컸던 명장 이광필(李光弼)과 곽자의(郭子 億)를 맞한.
- (6) 청송 심씨 가合에 기록된 내용: "前署 ··· 起復建義屢立奇功 再疏論證察使柳成龍玩窓失機之事柳以時相深即之全沒公之戰功及勤王事未裝飾惠之典···"

(7)岳飛將軍: 중국 송나라의 명장으로 동·북면 발해지방을 정벌할 때 그 황용부(黃龍府)를 점 령하고 전송의 주연을 마음껏 즐기겠다고 호언하였다는 고사를 비유해서 한 말

(참고문헌)

김포군지(김포군 1977 2 28) 김포군지(김포군 1993 8) 김포시사 (김포시 2011, 1, 25) 김포지명유래집(김포군 1995 2)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 1993,12, 10) 김포인물지(김포문화원 2002 8 점) 조선왕조실록 경기도사자료집(경기도 2002 10) 진주시사 (진주서 1994 11) 오산시사 (오산시 2009, 12, 30) 경기도역사와 문화(경기도 1997, 12,) 장성군사 (장성군 2001 12 31) 김포향교지 (김포향교 2004, 1) 통진향교지(통진향교 2002 3) 장천원사적(이단하) 우리역사(한영우 1997.1) 청송심씨 족보 재국사사전(교학사 2006. 1. 25)

京畿鄉土史學(第18輯)

발 행 인 : 염상덕

편집인:최영주

발 행 처 : 정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인 쇄: 2013년 12월 31일

발 행 : 2013년 12월 31일

인 쇄 처 : 홍익문화사 (02-2274-8110)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7-2 저동BD 200호

이 책은 "2013년 경기도 보조금"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연천지역의 삼국시대 문화 | 최무장
연천의 삼국시대 성곽(城鄉)과 유물 | 이준용
古代로 부터 京義地方의 세시중속 연구 | 이명수
白性행의 英立運動 史화 | 양경직
남양주 급석문(金石컷) 고찰과 시비(詩神)중 백미(白龍)인 유철시비(金物 詩碑)연구 | 엄중오
安풍의 名류과 그 홍徹的 意味 | 김정석
정응원 장조의 홍호절의 정신 연구 | 장산현
오산시(偏山市)의 어원(唐潔)과 그 해석 | 남경식
도봉산 国職寺 이어기 | 최연희
생래 양사언(唐潔 楊士孝)의 생애와 문화 | 양윤택
演山의 소재(所名) 연구 | 이강범
조선 후기 안성시지역 크롬 : 안성, 즉산, 양성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 (周誌)를 중심으로 - | 홍